#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 Ⅵ

## 성산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2


3


4

1. 수산2리 오남종 씨 소장 '바지저고리'
2. 수산1리 고정봉 씨 소장 '대차반지'
3. 난산리 오록생 씨 집 방안 창문의 '배못'에 걸려 있는 '걸쒜'
4. 수산2리 오애생 씨 소장 '솔박'

#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은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10개년 사업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섯 번째로 성산읍 14개 행정마을 중 산간·해안·복합마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는 민속 문화의 보고로 동일한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형태, 명칭, 사용 방법 등이 다양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성산지역에 대한 생생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대면 조사를 통해 생활도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주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박물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후세대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성산지역 주민들과, 이 조사 연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김순자 선생님, 김보향 선생님, 강수경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 세 호**




시흥리
오조리
성산리
대왕산
수산리
고성리
대수산봉
돌미오름
낭끼오름
(낭껏오름)
성산읍
유건에오름
난산리
온평리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
본지오름
삼달리
일출랜드
신산리
신풍리
걸리오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신천리
성산포
신양섭지
표선

# 차례


Ⅰ 조사 개요 ····· 9

1. 조사 개요 ····· 10
2. 조사단 구성 ····· 11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 12
4. 조사 마을 개관 ····· 15

Ⅱ 조사 내용 ····· 23

1. 의생활 ····· 24
   1.1. 바느질 도구 ····· 24
   1.2. 손질 도구 ····· 35
   1.3. 세탁 도구 ····· 37
   1.4. 옷감과 의복 ····· 40
   1.5. 기타 도구 ····· 51

2. 식생활 ····· 55
   2.1. 그릇 ····· 56
   2.2. 조리 도구 ····· 79
   2.3. 저장과 운반 ····· 103
   2.4. 제기(祭器) ····· 116

3. 주생활 ····· 129
   3.1. 집 구조 ····· 131
   3.2. 가재도구 ····· 143
   3.3. 난방 도구 ····· 151
   3.4. 연장류 ····· 156
   3.5. 집줄 관련 ····· 172
   3.6. 기타 도구 ····· 173

4. 농업 관련 ····· 187
4.1. 파종 관련 ····· 188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 209
4.3. 건조와 손질 관련 ····· 218
4.4. 운반 도구 ····· 240
4.5. 계량 도구 ····· 249
4.6. 저장 도구 ····· 256
4.7. 기타 도구 ····· 266

5. 어업 관련 ····· 274
5.1. 물옷 ····· 274
5.2. 테왁과 망사리 ····· 278
5.3. 채취 도구 ····· 283
5.4. 손질 도구 ····· 286
5.5. 낚시와 그물류 ····· 288
5.6. 운반 도구 ····· 299
5.7. 기타 도구 ····· 302

6. 축산 관련 ····· 306
6.1. 마소 가꾸기 ····· 307
6.2. 꼴 베기 ····· 314
6.3. 백중제 ····· 321
6.4. 기타 도구 ····· 324

Ⅲ 마무리 ····· 331

✻ 부록 ····· 339

수산1리 고춘권 씨의 도구 이야기


1


2


3


4

1. 난산리 강정자 씨 소장 '놋그릇'
2. 온평리 현문자 씨 소장 '바농줄레'
3. 신천리 해녀탈의장의 '테왁'과 '망사리'
4. 난산리 오록생 씨 소장 '궤'

# I

# 조사 개요



난산리 김두추 씨 소장 '항아리'

# Ⅰ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은 성산읍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생활 도구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삶의 현장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정리한 이 자료는 제주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민속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제주의 전통 민속 문화를 전승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조사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성산읍 편

○ 조사지: 성산읍 6개 행정마을(난산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산리, 신천리, 온평리)
※ 10개년 사업으로 도내 전 지역 전수 조사: 2013년(애월), 2014년(조천), 2015년(구좌), 2016년(안덕), 2017년(한경), 2018년(성산), 2019년(대정), 2020년(남원), 2021년(표선), 2022년(한림)

○ 조사 기간: 2018년 3월 21일~2018년 11월 20일
– 예비조사: 2018년 3월 21일~4월 31일

– 1차 현지 조사: 2018년 5월 2일~6월 30일
– 2차 현지 조사: 2018년 7월 18일~8월 10일
– 보충 조사: 2018년 10월 1일~11월 20일

ㅇ 조사 내용
– 난산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 수산1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 수산2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 신산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 신천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 온평리: 농업·어업·축산업, 의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식생활(강수경)

ㅇ 조사 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 2. 조사단 구성

ㅇ 조 사 단 장: 정세호(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ㅇ 조 사 책 임: 부용식(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팀장)

ㅇ 조 사 원: 고범석(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ㅇ 외부 조사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수경(제주학연구소)

##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를 조사하여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산읍 지역 14개 모든 마을을 조상대상으로 삼고 싶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산간과 해안마을을 중심으로한 6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범위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생활 도구와 농사일, 바닷일 등에 사용했던 도구의 쓰임새를 채록 조사하였다. 조사된 도구에 대한 해설은 사진 자료와 함께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제보들의 생생한 구술을 더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3.1. 조사 대상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은 제주시 성산읍의 14개의 행정마을 가운데 난산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산리, 신천리, 온평리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마을을 현지 조사하여 의식주 관련 도구를 비롯하여 농업과 어업, 축산 관련 도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3.2. 조사 방법과 제보자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현지에서 제보자들을 만나 면 대 면으로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조사에 응해준 제보자는 난산리 5명, 수산1리 6명, 수산2리 7명, 신산리 5명, 신천리 8명, 온평리 6명으로 총 37명이다.

조사는 디지털녹음기를 이용하여 구술 채록을 하는 한편 도구는 실물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조사된 음성 자료는 전사를 하여,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살려, 도구 설명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마을 출신이거나 인근 지역에서 시집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

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활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별 제보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 마을 | 제보자 | 생년 | 성별 |
|---|---|---|---|
| 난산리 | 강정자 | 1943 | 여 |
| | 김두추 | 1943 | 남 |
| | 김성옥 | 1930 | 여 |
| | 오록생 | 1924 | 여 |
| | 이영생 | 1934 | 여 |
| 수산 1리 | 강매화 | 1939 | 여 |
| | 고덕후 | 1940 | 남 |
| | 고정봉 | 1938 | 남 |
| | 고춘권 | 1933 | 남 |
| | 김병생 | 1937 | 여 |
| | 정복희 | 1929 | 여 |
| 수산 2리 | 강옥화 | 1947 | 여 |
| | 강주호 | 1962 | 남 |
| | 고대인 | 1956 | 남 |
| | 고영자 | 1933 | 여 |
| | 양정선 | 1962 | 여 |
| | 오남종 | 1939 | 남 |
| | 오애생 | 1931 | 여 |
| 신산리 | 강유자 | 1945 | 여 |
| | 강태웅 | 1950 | 남 |
| | 고충삼 | 1943 | 남 |
| | 이명춘 | 1932 | 여 |
| | 한대순 | 1946 | 여 |
| 신천리 | 강애련 | 1954 | 여 |
| | 강태금 | 1946 | 여 |
| | 고봉심 | 1939 | 여 |
| | 고송자 | 1937 | 여 |

| 마을 | 제보자 | 생년 | 성별 |
|---|---|---|---|
| 신천리 | 박순자 | 1953 | 여 |
| | 송부자 | 1938 | 여 |
| | 현용언 | 1937 | 남 |
| | 현태일 | 1932 | 여 |
| 온평리 | 박종길 | 1941 | 남 |
| | 장승익 | 1949 | 남 |
| | 하옥단 | 1941 | 여 |
| | 현금옥 | 1934 | 여 |
| | 현문자 | 1939 | 여 |
| | 현승자 | 1947 | 여 |

## 3.3. 정리 방법

조사 도구와 내용 정리는 의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 관련 등 6개 범주로 나눠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보고서는 구술 채록한 조사 내용을 전사한 후에 분야별로 분류한 후에 원고와 사진 정리를 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감과 의복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주생활 관련 도구는 집 구조를 다룬 후에 가재도구와 난방도구, 연장류, 집 관련 기타 도구 순으로 정리하였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땅 파는 도구, 타작 도구, 건조 도구, 손질 관련 도구, 운반도구, 계량도구, 저장 도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식생활 관련 도구는 그릇과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를 조사하여 구술 자료를 통해 쓰임새 등을 세세하게 정리하였다.

어업 관련은 물옷, 테왁과 망사리와 조락, 채취 도구, 손질 도구, 낚시와 그물류, 운반 도구, 기타 어업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축산 관련 도구로는 마소 가꾸기에서 '소막'과 고삐류, 부속물로 '넥인'에 대해서 다루었다. 꼴베기 도구, 기타 도구, 백중제와 '귀표제' 대해서 다루었다.

도구에 대한 설명은 정의, 쓰임새, 특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다. 도구의 쓰임새의 이해를 생생하게 돕기 위해서 관련 구술 자료를 전사하여 제시하는 한편,

제주어 구술 자료에 따른 표준어 대역 내용도 실어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우려 했다. 관련 문화 가운데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도구는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도구가 확인되지 않아도 구술 자료에서 확인된 도구 설명은 꼼꼼하게 하였다. 2015년 조사 지역인 구좌읍, 2016년 조사 지역인 안덕면, 2017년 조사 지역인 한경면의 도구와 대비하여 명칭이 다른 경우는 그 명칭도 함께 제시하였다.

가령, 농업 분야의 분량을 재는 도구인 '되'를 성산 지역과 구좌 지역에서는 '관뒈'라고 하는데, 안덕면과 한경면 지역에서는 '뒛박'이라고 하고, 성산 지역에서 '메호미'라고 하는 것을 구좌 지역에선 '장호미', 안덕면과 한경면 지역에서는 '미호미'라고 하여 방언차를 보이는 것은 제시하였다.

한편 조사 되지 않은 도구 설명은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성산읍 지역의 도구 명칭을 포함하여 그 특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4. 조사 마을 개관[1)]

성산읍(城山邑)은 한라산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구좌읍, 동쪽으로는 표선면에 인접하고 있다. 성산읍은 14개 행정마을, 30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흥리를 비롯하여 오조리, 고성리, 신양리, 온평리, 신산리, 삼달2리, 신천리 등 9개 마을은 해안마을이고, 수산1리와 수산2리, 난산리, 삼달1리, 신풍리 등 5개 마을은 중산간마을이다.

성산읍은 1416년(태종 16) 한라산 남쪽 동부 지역에 정의현이 설치되면서 정의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 1935년 4월 제주군 정의면 지역을 제주군 성산면이라고 하였으며, 1946년에는 제주군이 도로 승격하여 남제주군이 설치되면서 제주도 남제주군

1) 조사 마을 개관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2010)의 『성산읍 역사문화지』와 성산읍 누리집(http://www.seogwipo.go.kr/local/seongsan),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성산면이라고 하였다. 1980년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승격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에 통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이 되었다.

성산읍의 총면적은 약 107.61㎢로, 이 중 임야가 52.95㎢로 전체 면적의 49.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밭이 26.54㎢를 차지하고, 과수원 7.89㎢, 도로 5.75㎢, 목장용지 4.17㎢, 대지 3.86㎢, 기타 6.45㎢ 등(2017년 12월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성산읍의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7,754세대의 17,251명이다. 성산읍의 총인구는 1981년 20,702명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2012년에 14,364명이었다가 2014년 14,649명이었다. 총인구는 2015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2015년 15,710명, 2016년 16,339명, 2017년 16,864명으로 증가하며 현재 17,251명에 이른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1.26%(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 비율)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성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7개소, 파출소 1개소, 치안센터 1개소, 소방서 1개소, 해양경비안전센터 1개소, 우체국 2개소 등이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신양 섭지코지 해변, 일출랜드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수산리에 제주수산동굴, 수산진성, 수산본향당이 있고 성산리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오조리에 식산봉의 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오소포연대, 온평리에 위치한 말등포연대, 혼인지, 온평 환해장성, 신천리에 위치한 천미연대, 신산리에 위치한 신산환해장성, 고성리의 협자연대 등이 있다.

## 4.1. 난산리

난산리(蘭山里)는 성산읍 소재지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5.6㎞, 온평리에서 서쪽으로 2.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중산간마을이다. 남으로는 삼달리, 북으로는 수산리를 접하고 있다. 난산리는 상동 하동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다시 8개의 반을 조직하여 여러 마을 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는 편의상 동동, 서동, 남동, 하동 등 4개의 작은 마을로 구분하고 있다.

난산리는 1,000여 년 전에 '새ᄆᆞ슬' 지역에 경주김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여 살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주하여 1380년경에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난산리의 옛 이름은 '난뫼' 또는 '난믜'로 '난산리(難山里)'는 한자차용표기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난산리에는 317세대 577명(남 306명, 여 271명)이 살고 있다. 난산리는 1980년대 말부터 인구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2010년(431명) 이후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난산리의 주요 경지는 밭 351ha, 과수원 50ha이고 이 외에 초지가 102ha를 점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의 소득 경제 활동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전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집집마다 띠나 대나무를 이용한 수공업이 발달했었다. 현재는 이 대신에 많은 농가에서 무, 당근, 감귤, 콩, 감자, 배추, 어성초(특용작물) 등을 재배하여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마을자치 조직으로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난산리 마을 상징물은 모구리오름(해발 232m)을 비롯하여 유건에오름(해발 190.2m), 나시리오름(해발 164m), 통오름(해발 143m) 등의 오름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본향걱ᄆᆞ루일뤠당, 골미당 등의 신당과 사래물, 월랑지, 먼저리물, 직구물 등의 봉천수가 있다.

## 4.2. 수산1리

수산1리는 성산읍 소재지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고성리, 서쪽으로는 수산2리에 접하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으로는 넓은 들판과 초지가 있다. 수산1리는 동동, 서동, 중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통 마을에서는 상동, 거동, 거문동, 천외동, 하동 등 5개로 구분하기도 한다.

수산리(水山里)는 1,000여 년 전에 속칭 남다리, 통개남물과 지금의 신동 인근 지역에 고씨, 양씨, 서씨, 임씨 등이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생활 여건이 좋은 현재의 수산1리와 수산2리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수산1리는 중산간마을로, 조선시대에는 동부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산

진성(水山鎭城)을 쌓았던 곳이다. 수산진성 터에는 수산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울타리로 쓰이고 있는 성담은 비교적 뚜렷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수산1리에는 510세대 1,035명(남 545명, 여 490명)이 살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1리의 주요 경지를 살펴보면, 밭 1,163ha, 과수원 154ha, 초지 200ha(2010년 기준)로 이 중 밭의 면적은 성산읍 내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수산1리의 농가에서 감귤을 비롯하여 무, 감자, 콩, 당근 등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에는 교육 기관으로 수산초등학교가 있다. 보건진료소와 마을복지회관이 있고, 자치단체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개발위원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생활개선회, 수산축구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마을 자원은 수산진성 이외에도 인문자원으로서 마을공동목장, 효자 홍달한비, 울뢰모루하로산당, 진안할망당, 신술당, 검은머들당이 있고 자연자원으로 대왕산과 소왕산 등이 있다.

## 4.3. 수산2리

수산2리는 수산1리에서 서쪽으로 2㎞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표선면 성읍리, 남쪽으로는 난산리와 온평리, 북쪽으로 시흥리와 구좌읍에 접하는 바다가 없는 중산간마을이다. 수산2리는 화전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고 있는데 해발고도는 83~92m로 성산읍의 5개 중산간마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수산2리의 인구는 2018년 12월 4일 현재 223세대 419명(남 221명, 여 198명)으로 성산읍 14개 법정리 중에서 삼달2리(247명)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마을이다. 주민들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 경영이나 임·목축업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다. 주요 작물로는 무, 감자, 감귤, 콩, 당근 등을 생산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마을 시설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고, 건강관리실과 생태체험센터를 두고 있다. 자치 조직으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영농회, 작목반이 있다.

수산동굴, 벌리리궤, 궁대악, 낭거봉(낭끼오름), 후곡악, 돌리미, 대뜸곶자왈 등의 자연 자원과 이전물, 통한못, 한못, 폭낭못 등의 봉천수가 있다.

## 4.4. 신산리

신산리(新山里)는 읍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4.5㎞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신양리, 서쪽으로 난산리에 접하고 있다. 동상동, 중하동, 서동, 신서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리는 1,000여 년 전에 '그등애' 일대에 연주 현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그 후 곡산 강씨와 밀양 박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신산리'라는 이름은 18세기 후반에 '그등애'에서 바뀐 것으로, '신산ᄆᆞ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ᄆᆞ르'는 '신(神)이 선(立) ᄆᆞ르'라는 의미로, 신산초등학교 뒤쪽 일대의 등성이를 이르는 지명이다.

신산리는 해변가 곳곳에는 용수가 용출되는 곳이 많아 '물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다. 반농반어촌 마을인 신산리에서는 예로부터 조, 메밀, 보리, 밭벼 등을 경작하여 주식량으로 삼았고, 삼베와 무명을 생산하여 매매하는 경제활동을 했었다. 해변에서는 해조류와 해산물 등을 채취하며 살았다. 현재의 주요 재배 작물은 감자와 감귤이며, 해안에서는 전복·소라·해삼 등의 해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하며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신산리 인구는 570세대 1,216명으로 남자가 610명, 여자가 606명이다.

교육기관으로 신산초등학교와 신산중학교가 있고, 성산읍 파출소가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회관과 성산읍 이동민원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며, 성산농협 신산지점, 농업인건강관리센터 등이 들어와 있다. 마을 자치 단체로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잠수회, 어부회 등이 있다.

## 4.5. 신천리

신천리(新川里)는 성산읍의 가장 서쪽 해안에 있는 마을로,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는 천미천의 말단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평지가 대부분으로 긴 해안선을 가진 반농반어촌 마을로 상동, 하동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신천리의 인구는 333세대, 667명(남 359명, 여 308명)이다. 마을 전체 면적은 988.21ha로 주요 경지와 면적은 밭 455.48ha, 임야 309.55ha, 과수원 195.34ha로 전체 면적 중 밭이 46%, 임야 31%, 과수원 20% 등으로 이용된다. 주요 작물로는 감귤과 감자 외에 무, 콩, 당근, 유채 재배가 많다. 길게 접한 바다가 있어 해산물 생산이 풍부하며, 해녀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마을 단체로는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영농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교육 기관으로 풍천초등학교가 있다.

신천리 마을 상징물로는 신천마장(천미장)을 꼽을 수 있는데, 해안가에 길게 전개되는 초지 경관은 장관을 이룬다. 신천마장 외에도 마을 자원으로 고인돌, 본향안카름현씨일월당, 고첫당, 토산일뤳당 등이 있고, 고타리못, 신천마장동굴 등의 자연 자원이 있다. 문화재로 천미연대(川尾煙臺)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3호에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4.6. 온평리

온평리(溫平里)는 성산읍 소재지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약 4㎞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성산포 방향으로 신양리, 서귀포 방향으로는 신산리, 서쪽인 중산간으로는 난산리에 인접해 있다. 상동, 중동, 하동 등 3개 자연마을로 이뤄졌다.

온평리의 옛 이름은 열온이 또는 열운이다. 혼인지(婚姻池) 전설과 관련있는 마을로 19세기 중반 전까지 여온리로 표기하다 중후반에 온평리로 고쳤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온평리의 인구는 741세대 1,495명으로 남자가 795명, 여자가 700명이다. 온평리는 해안선의 길이가 6㎞ 정도로 제주도의 해안 마을 중 해안선이 가장 길다. 해조류와 패류, 어류 등이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농가에서는 감귤, 무, 당근, 감자, 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마을 단체로는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노인회,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이 있고, 교육 기관으로 온평초등학교가 있다.

온평리의 마을 자원은 마을 상징물인 혼인지를 비롯하여 삼성신화 관련 유적지인 황루알, 연혼포 외에도 환해장성, 말등포연대 등의 역사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본향

진동산당, 서근궤당, 냇빌레도돗당, 돌갯동산돌개할망당, 돌갯동산ᄋᆞ드렛당, 용머리일뤠당, 돌혹독당, 묵은열운이당, 돈짓당 등이 있고 용암류 해안, 황근 자생지 등의 자연 자원이 있다.

탐라의 시조인 고·양·부 삼신인(三神人)이 벽랑국(碧浪國)의 세 공주를 맞아 혼인을 치렀다는 혼인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7호)가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온평리는 2003년에 농림부 지정 녹색 농촌 마을에 선정되어 혼인지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 혼인지를 테마로 한 '혼인지 축제'도 열고 있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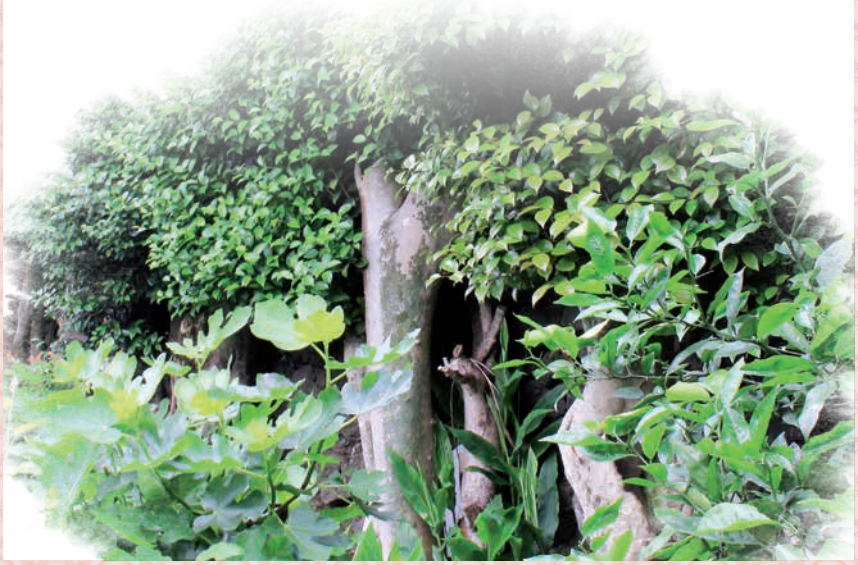

6

1. 난산리 김성옥 씨 소장 ‘발틀’
2. 수산1리 고덕후 씨 소장 ‘김칫독’
3.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의 ‘정주석’
4. 신산리 한대순 씨 소장 ‘멍석’
5. 난산리 강정자 씨 소장 ‘남국자’
6. 난산리 이영생 씨 소장 ‘등테’

Ⅱ

# 조사 내용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농업 관련
5. 어업 관련
6. 축산 관련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의 춤을 맸던 '동백낭'

# Ⅱ 조사 내용

## 1. 의생활

의생활은 '입는 일이나 입는 옷에 관한 생활'을 말한다. 입는 일이나 입는 옷에 관한 생활, 즉 의생활을 위해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옷감과 의복 등이 필요하다. 바느질 도구로는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었다. 발재봉틀을 성산읍 지역에서는 '발틀'이라고 하였다. 일본어 '미싱' 또는 '미승'이라고도 하였는데, '발틀'을 사용할 때 앉았던 '미승의자'도 새롭게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포와 두루마기 등의 의복을 입은 옛 사진도 조사되어 옛사람들의 의생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홑두루마기인 '두루마기'와 겹두루마기인 '후루메'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또 감물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의생활 관련 도구와 의복 등은 이제 옛 물건이 되고 있었다. 재봉틀을 창고 한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전통 한복은 생활 속에서 입지 못하고 제사 때에나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 옷장 안의 전시용으로 버려질 날만 기다리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 1.1. 바느질 도구

#### (1) 발틀·손틀

'발틀'과 '손틀'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인 재봉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발틀'은 발재봉틀, '손틀'은 손재봉틀을 말한다. 성산읍 지역 제보자들은 '재봉틀'이라는 말 대

신에 일본어 '미싱(ミシン)' 또는 '미승'이라는 말도 사용하였다. 발로 하는 재봉틀은 '발미싱', 손으로 돌려 옷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은 '손미싱'이라고도 하였다. 재봉틀의 몸통 왼쪽에는 천으로 감싸서 손을 얹고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었다.

"발틀인디 서울서 앗앙 완 자리도 차지허고 추우니까 의자에 앚기 실엉 따슨 디 앚아서 허젠. 시에 강 손틀로 바꽈분 거. 저거 아들 세 살 때 산 거. 아들 세 살에 여기 완 지금 마흔여섯. 수출 나가난 거 남은 거 사신디 막 좋아. 팔이 안 아파, 안 무거와. 가벼, 겐 좋아게. 옛날 물옷, 물질헐 때는 물옷, 몸뻬 만들앙 나오니까 안 헤. 방에 쳐박앙 내불엄주. 눈도 어둑고 허지 못허여. 바농귀 못 뀌여."[2)]

(발재봉틀인데 서울서 가져와서 자리도 차지하고 추우니까 의자에 앉기 실어서 따뜻한 데 앉아서 하려고. 제주시에 가서 손재봉틀로 바꿔버린 거. 저거 아들 세 살 때 산 거. 아들 세 살에 여기 와서 지금 마흔여섯. 수출 나갔던 거 남은 거 샀는데 아주 좋아. 팔이 안 아파, 안 무거워. 가벼워, 그래서 좋아. 옛날 물옷, 물질할 때는 물옷, 몸뻬 만들어서 나오니까 안 해. 방에 쳐박아서 내버리고 있지. 눈도 어둡고 하지 못해. 바늘귀 못 꿰어.)


〈사진 1〉 현승자 씨 소장 '손틀'

〈사진 1〉은 온평리 현승자 씨(1947년생)가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 올 때 사고 온 재봉틀이다. 아들 세 살 때 샀는데, 그 아들이 마흔여섯이니 재봉틀의 나이도 마흔세 살이나 되었다. 이 재봉틀은 원래는 '발틀'이었는데 제주시에 가서 '손틀'로 바꿔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손틀'은 손재봉틀, '발틀'은 발재봉틀을 말한다. 이 재봉틀을 이용하여 현 씨는 물옷이나 몸뻬 따위를 손수 만들어 입었다.

〈사진 2〉는 온평리 현문자(1939년생) 씨가 사용하는 '미싱'이고, 〈사진 3〉은 재봉

2) 온평리 현승자 씨 구술.



〈사진 2〉 현문자 씨 소장 '미싱'



〈사진 3〉 '미싱'을 설명하고 있는 현문자 씨

틀의 쓰임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현 씨 모습이다. 현 씨는 '발틀'이나 '손틀' 대신에 '미승'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미승 이건 혼 멧 년 됏저. 원래 이거 미싱 대가리만 잇엇던 거. 이걸로 몸빼도 만들고 물질헐 땐 속곳도 만들고 뭐 다 아이덜 옷도 줘 주고 다 허는 거주. 이거 나 시집오기 전에 이거 산 거. 동네 온 거. 미승 풀레 뎅겻주, 미승 장시. 미승 삽서, 미승 삽서, 미승 장시 잇어낫어. 겐디 미승 장시가 이젠 돌아가신가 어떵헤신가 이젠 안 보여."[3]

(재봉틀 이건 한 몇 년 됐지. 원래 이거 재봉틀 대가리만 있었던 거. 이걸로 몸빼도 만들고 물질할 땐 속곳도 만들고 뭐 다 아이들 옷도 기워 주고 다 하는 거지. 이거 나 시집오기 전에 이거 산 거. 동네 온 거. 재봉틀 팔러 다녔지, 재봉틀 장사. '재봉틀 사세요', '재봉틀 사세요', 재봉틀 장사 있었어. 그런데 재봉틀 장수가 이젠 돌아갔는지 어떡했는지 이젠 안 보여.)

현 씨는 이 재봉틀을 이용하여 물질할 때 입는 물옷을 직접 만들고, 일할 때 입는 몸빼, 아이들 옷 등을 기워줄 때 등 다양하게 사용했다. 김 씨가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 팔러 온 재봉틀 장수에게 산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 4〉는 난산리 강정자 씨(194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손틀'이다. 김 씨는 발재봉틀을 '발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5〉는 난산리 김성옥 씨(1930

3)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4〉 강정자 씨 소장 '손틀'


〈사진 5〉 김성옥 씨 소장 '발틀'

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발틀'이다. 김 씨가 20년 넘게 사용한 재봉틀로, 소주병의 부리를 이용하여 '재봉실'을 끼워두고 있다. 재봉바늘 밑의 천은 '바농졸레(바늘겨레)'다.

〈사진 6〉은 수산2리 강주호 씨(1962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발재봉틀이다. 붉은 옻칠이 입혀진 재봉틀로 곳곳에 자개가 박혀 있어 고급스럽게 보인다. 강 씨의 아내 양정선 씨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봉틀이다.


〈사진 6〉 강주호 소장 '발틀'

### (2)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을 말한다. 표준어 '반짇고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보자들은 '바농상지'로 플라스틱 그릇, 천으로 만든 쌈지, 종이상자, 항아리 따위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 7〉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반짇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청자로 만든 단지다. 이 청자 단지는 현 씨의 시할머니가 쓰던 것을 시어머니한테 물려주고, 또 현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현 씨는 이 단지 안에 '바농절레(바늘겨레)'와 실패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8〉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반짇고리로 사용하는 '다나'다. '다



〈사진 7〉 현문자 씨 소장 '청자 단지'



〈사진 8〉 현승자 씨 소장 '다나'

나'는 '대야'를 뜻하는 일본어 '다라이'에서 온 말로 현 씨는 플라스틱 그릇을 '다나'라고 표현하였다.

### (3) 쏨지

'쏨지'는 표준어 '쌈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쌈지'는 '담배, 돈,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짇고리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쏨지'는 바늘이나 헝겊 등 바느질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두는 용도다. 헝겊으로 네모나게 접은 후 양쪽으로 바느질하여 한쪽 끝에 끈을 달아 여미어 안의 물건을 감출 수 있게 만들었다.



〈사진 9〉 현승자 씨 소장 '쏨지'

〈사진 9〉는 온평리 현승자 씨가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쌈지'다.

### (4) 바농, 바농절레

'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해당하는 말이다. '바농'도 옷감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10〉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재봉질할 때 사용하는 재봉 바늘이다.



〈사진 10〉 현승자 씨 소장 '미싱 바농'


〈사진 11〉 현승자 씨 소장 '바농절레'

'바농절레'는 바늘을 꽂아 둘 목적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다. 표준어 '바늘겨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지역에 따라서 '바늘졸레'라고도 한다. '바늘절레'는 바늘이 녹슬지 않게 머리카락 따위를 넣어서 만든 바늘꽂이다.

〈사진 11〉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직접 만들어 쓰는 '바늘절레'다.

"바농졸레. 건 이제 이디 미승에, 미싱질 허단 바농으로 헐 거 이시민 바농으로 써나면 바농 꼽는 거. 바농졸레. 이거 미승바농 그냥 놓면 보미니까 이거 이렇게 헤여근에 이험벅으로 영 헤영 꼽앙 경헤영 놔둬야 허지, 그냥 내불면 녹슬어서 못 써."[4]

(바늘겨레. 건 이제 여기 재봉틀에, 재봉틀질 하던 바늘로 할 거 있으면 바늘로 써나


〈사진 12〉 현문자 씨 소장 '바농졸레'


〈사진 13〉 현문자 씨 소장 '바농졸레'

4)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면 바늘 꽂는 거. 바늘겨레. 이거 재봉틀바늘 그냥 놓으면 녹스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 헝겊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서 그렇게 해서 놔둬야 하지, 그냥 내버리면 녹슬어서 못 써.)

〈사진 12〉와 〈사진 13〉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사용하는 '바농줄레'다. 〈사진 13〉은 재봉틀 바늘을 사용하다 꽂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다.

### (5) 씰, 씰패, 씰도레기

'씰'은 섬유를 가늘고 길게 뽑아서 만든 물건. 천을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데 쓰인다. '씰'은 표준어 '실'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옷감과 굵기, 색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다양하다. 목화로 만든 실은 '미녕씰(무명실)', 명주로 만든 실은 '멩지씰(명주실)', 나일론으로 만든 실은 '나이롱실', 짐승의 털이나 인조털로 만든 실을 '털실'이라고 한다.

'씰패'와 '씰도레기'는 실을 감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사진 14〉 김성옥 씨 소장 '씰도레기'



〈사진 15〉 오애생 씨 소장 '실패'



〈사진 16〉 현문자 씨 소장 '씰도레기



〈사진 17〉 현승자 씨 소장 '씰도레기'

요즘은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구술자에 따라서는 천이나 종이 따위를 접은 후에 그 위에 실을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씰도레기'는 둥근 바퀴 모양을 하고 있고, '씰패'는 납작하고 편편한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 14〉는 난산리 김성옥 씨 집에서 사용하는 '씰도레기'다. 〈사진 15〉는 수산 2리 오애생 씨(1931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실패'다. 오 씨는 이 '실패'를 '실꼬렝이'라고 하였다. 뜨개질한 천을 감아서 실패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6〉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재봉실을 감아두는 '씰도레기', 〈사진 17〉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재봉실을 감아둔 '씰도레기'다.

### (6) 가세

'가세'는 표준어 '가위'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세'는 재단한 옷감 등을 자를 때 사용한다. 〈사진 18〉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가세'다.



〈사진 18〉 현문자 씨 소장 '가세'

### (7) 북실

'북'은 재봉틀에서, 밑실을 감은 실톳을 넣어 두는 쇠로 만든 통이다.

〈사진 19〉는 온평리 현문자 씨가 사용하는 '북실'이고, 〈사진 20〉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사용하는 '북실'이다.



〈사진 19〉 현문자 씨 소장 '북실'



〈사진 20〉 현승자 씨 소장 '북실'

### (8) 바농질자


〈사진 21〉 오남종 씨 소장 '바농질자'

'바농질자'는 옷감의 길이나 몸의 치수를 재는 데 쓰는 도구로,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바농질자'라고 한다. 자는 보통 왕대를 이용해 만드는 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무를 납작하게 잘라서 만들기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 자' 길이를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의 바느질자는 50cm 내외의 길이로 만들었다.

〈사진 21〉은 수산2리 오남종 씨(1939년생) 부인이 바느질할 때 사용했던 자다. 자 크기가 51.5cm로 요즘 한 자 길이보다 길다.

### (9) 미승 지름과 폼푸

'미승 지름'은 재봉틀이 잘 돌아가게 칠해주는 윤활유다. 재봉틀에 사용해서 '미승 지름'이라고 한다.

〈사진 22〉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미싱 지름'과 '폼푸'다. 〈사진 22〉의 기름병 왼쪽에 있는 것이 '폼푸'인데, 이 '폼푸'를 이용하여 재봉 기름을 재봉틀 곳곳에 뿌려준다. '폼푸'는 펌프에서 온 말이다.


〈사진 22〉 현문자 씨 소장 '폼푸'와 '미승 지름'

"이건 지름 주는 거, 폼푸. 이런 디다 지름 줘야 쓰지, 경 안 허민 미승이 다 경헌 따문에."[5]

(이건 기름 주는 거, 펌프. 이런 데다 기름 줘야 쓰지, 그렇게 안 하면 재봉틀이 다 경헌 때문.)

5)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현 씨는 재봉틀에 기름을 잘 칠해주지 않으면 재봉틀이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였다.

"미승 지름 줘난 거 아니냐게. 미승 돌아가지 않으믄 줘사지. 저 미승은 나 써나 건디가 혼 이십 년은 뒛일 거여."[6]

(재봉틀 기름 줬던 거 아니냐. 재봉틀 돌아가지 않으면 줘야지. 저 재봉틀은 나 쓰건지가 한 이십 년은 됐을 거야.)



〈사진 23〉 김성옥 씨 소장 '미승 지름'과 '폼푸'(오른쪽)



〈사진 24〉 현승자 씨 소장 '폼푸'와 '미승 지름'

〈사진 23〉은 난산리 김성옥 씨가 재봉틀을 할 때 사용했던 '미승 지름'이다. 박카스 병과 가스활명수 병을 이용하여 기름을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오른쪽의 플라스틱 용기는 재봉틀에 기름을 바를 때 사용하는 '폼푸'다. '미승'은 재봉틀의 일본어이고, '지름'은 기름을 말한다. 〈사진 24〉는 온평리 현승자 씨가 사용하는 '미싱 지름'이다.

### (10) 미싱 도라이바

'미싱 도라이바'는 재봉틀에 사용하는 드라이버다. 〈사진 25〉는 온평리 현문자 씨가 재봉질을 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다.



〈사진 25〉 현문자 씨 소장 '미싱도라이바'

6)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 (11) 단추, 고무줄, 지퍼

'단추, 고무줄, 지퍼' 등도 바느질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사진 26〉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에 소용되는 고무줄과 지퍼, 단추 등이다. 〈사진 27〉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똑딱이단추'다.



〈사진 26〉 현승자 씨 소장 '지퍼' 등



〈사진 27〉 현문자 씨 소장 '똑딱이단추'

### (12) 미승 의자

'미승 의자'는 발재봉틀을 사용할 때 앉는 의자이다. 재봉틀에 사용한다고 해서 '미승 의자'라고 하였다. '미승'은 제보자에 따라서 '미싱'이라고도 하였다. 성산읍 지역에서 새롭게 조사된 재봉 도구다.

"저거 미승 의자. 엿날 발틀 헐 때 써난 건디 발틀 안 헹 앚앙 편안히 허젠 저 손미싱으로 헤 부니까 이것만 놔뒀주. 이거 씨집온 후제 삿주."[7]

(저거 재봉틀 의자. 옛날 재봉틀 할 때 썼던 건데 재봉틀 안 해서 앉아서 편안히 하려고 저 손재봉틀로 해버리니까 이것만 놔뒀지. 이거 시집온 후에 샀지.)

〈사진 28〉은 난산리 김두추 씨(1943년생)가 만든 '미승 의자'로, 김 씨의 부인 강정자 씨가 '발틀' 즉, 발재봉틀을 사용할 때 앉는 용도로 썼던 것이다. 김 씨가 시집온

7)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후에 산 것으로, 의자 밑에 수납공간도 따로 만들어 있다. 강 씨는 바느질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하기 위하여 손재봉틀로 바꿨다. 〈사진 29〉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재봉질을 할 때 앉는 도구인 '미승 의자'다.



〈사진 28〉 김두추 씨 소장 '미승 의자'



〈사진 29〉 김성옥 씨 소장 '미승 의자'

## 1.2. 손질 도구

(1) 안반

'안반'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기 위해 만든 네모난 나무판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안반'을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다듬이를 할 때 소용하는 물건 이름이다. '다듬이질'을 하지 않게 되자 이 '안반'은 잔치 등 큰일 때 고기 따위를 썰기 위해 받쳐 쓰는 도마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반'이라는 이름 대신에 '도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인 '돔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돔베 빨래헤서 옷이라도 마르면은 편편히 허기 위해서 저기 놔서 그 마께, 빨래마께가 잇어. 그걸로 놩 헤서 편편허게 페우는 용도 헷고. 집이 제사 때나 진설헐 제사상에 올릴 묵 거튼 거 뒈지고기 거튼 것도 저런 것에 짝 썰엉 대고지에 꿰서 상에 올리고 그런 용도야, 저거. 저거 이름은 뭐 돔베. 이것도 돔베라고. 저거 혼 칠팔십 년 뒈지. 우리 할아

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계속 썻주. 게니까 혼 백오십 년. 물려받은 거지. 요즘은 저거 사용 안 헴서."[8)]

(안반 빨래해서 옷이라도 마르면 편편히 하기 위해서 저기 놔서 그 방망이, 다듬잇방망이가 있어. 그걸로 놔서 해서 편편하게 펴는 용도 했고. 집에 제사 때나 진설할 제사상에 올릴 묵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것도 저런 것에 짝 썰어서 대꼬챙이에 꿰서 상에 올리고 그런 용도야, 저거. 저거 이름은 뭐 도마. 이것도 도마라고. 저거 한 칠팔십 년 되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계속 썼지. 그러니까 한 백오십 년. 물려받은 거지. 요즘은 저거 사용 안 하고 있어.)



〈사진 30〉 고정봉 씨 소장 '돔베'



〈사진 31〉 강태웅 씨 소장 '다듬잇돌'

〈사진 30〉은 수산1리 고정봉 씨(1938년생) 아내 강매화 씨(1939년생)가 사용했던 '돔베'다. 이 '돔베'는 고 씨의 구술처럼 빨래해서 옷이라도 마르면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놓고 '빨래마께' 즉 다듬잇방망이로 두들길 때 사용하는 용도다. 다듬이질을 않게 되자 제사 때에 돼지고기 등을 써는 도마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듬이질을 할 때는 다듬잇돌 구실을 하였고, 큰일을 집에서 할 때는 고기 따위를 써는 도마 구실을 하였던 생활도구다. 고 씨의 할머니와 어머니에 이어서 3대째 쓰는 물건이다. 구술 내용의 '이것도 돔베'의 '돔베'는 도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진 31〉은 신산리 강태웅 씨(1950년생) 집에 보관해 있는 '다듬잇돌'이다. 강 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1932년생)가 사용했던 '다듬잇돌'이다. 이 다듬잇돌은 콘크리트

8)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로 네모나게 만들었다.

(2) 다듬이마께

'다듬이마께'는 옷을 다듬이질 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표준어 '다듬잇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1.3. 세탁 도구

(1) 물마께

'물마께'는 빨래를 할 때 옷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다. 물에서 사용하는 방망이여서 '물마께'라고 하였다. '마께'는 표준어 '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물마께'라는 말 대신에 구술자에 따라서는 '빨렛마껭이', '서답마께'라고도 하였다.

"빨래허는 거 서답마께. 일가 하르방이 이걸로 빨래허렌 멘글아 준 거."[9)]
(빨래하는 거 빨랫방망이. 일가 할아버지가 이걸로 빨래하라고 만들어 준 거.)

〈사진 32〉는 난산리 오록생 씨(1924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서답마께'다. '서답'은 빨래의 한자어 '세답(洗踏)'의 방언형 '서답'에 방망이를 뜻하는 '마께'가 결합해 만들어진 어휘다. 이 '서답마께'는 오 씨의 일가 할아버지가 빨래할 때 쓰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이다. 나무를 깎은 흔적과 나뭇결이


〈사진 32〉 오록생 씨 소장 '서답마께'

9) 난산리 오록생 씨 구술.

고스란히 살아 있는 것이 보인다.

"물마께 빨래 그 옷을 세탁할려고 하면은 비누를 칠헤가지고 그 전인 손으로 영 영 허는 거보다는 비누 칠헤서 옷을 모아놔 가지고 저걸로 막 때려. 때리면은 옷에 있는 먼지도 물로 흘러나오고 그런. 하여간 빨래. 우리 세탁기 거트민 세탁기 안에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10]

(빨랫방망이 빨래 그 옷을 세탁하려고 하면은 비누를 칠해가지고 그 전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비누를 칠해서 옷을 모아놔 가지고 저걸로 막 때려. 때리면 옷에 있는 먼지도 물로 흘러나오고 그런. 하여간 빨래. 우리 세탁기 같으면 세탁기 안에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사진 33〉 고정봉 씨 소장 '물마께'



〈사진 34〉 김병생 씨 소장 '물마께'

〈사진 33〉은 수산1리 고정봉 씨의 아내 강매화 씨가 사용하는 '물마께'다. '물마께'의 역할을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유해 표현하는 고 씨의 구술 내용이 재미있다.

〈사진 34〉는 수산1리 김병생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물마께'다. 김 씨의 남편 고춘권 씨는 '물마께'라는 이름 대신에 '빨레마께'라고도 하였다. 위 세 개의 '물마께'는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은연 중에 묻어 있다.

10)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 (2) 빨렛돌

'빨렛돌'은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돌이다. 표준어 '빨랫돌'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35〉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빨랫돌'이다. '공싯간' 옆의 수돗간에 설치한 이 '빨랫돌'은 맷돌의 아래짝을 이용하여 바닥에 심어서 만들었다. 수돗간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시멘트를 발라 고정시켰다.



〈사진 35〉 오남종 씨 소장 '빨랫돌'

"빨렛돌. 옛날에 이거 얼마나 어려와야 빨래 이런 디서. 저 물마께엔 허는가. 그걸로 때리고."[11]

(빨랫돌. 옛날에 이거 얼마나 어려워야 빨래 이런 데서. 저 빨랫방망이라고 하는가. 그걸로 때리고.)



〈사진 36〉 김병생 씨 소장 '빨레판'

위의 구술은 수산2리 오남종 씨의 처남 오대인 씨의 말로, 빨랫돌에 대한 느낌을 읽을 수 있다. '빨래판'은 빨래할 때 쓰는 판을 말한다. 넓적한 나무 판을 물결같이 울퉁불퉁하게 파서 만든다.

〈사진 36〉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사용하는 빨래판이다. 김 씨가 오일장에 가서 사온 것으로 지금도 김 씨는 이 빨래판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있다.

11)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3) 세답줄

'세답줄'은 '세답'을 널 때 사용하는 줄이다. '세답(洗踏)'은 빨래의 한자어로, 지역에 따라서는 '서답'이라고도 한다. '세답줄'은 달리 '서답줄', 또는 '뿔렛줄'이라고 하는데, 표준어 '빨랫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37〉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세답줄'이다.



〈사진 37〉 강태웅 씨 집의 '세답줄'

## 1.4. 옷감과 의복

### 1.4.1. 옷감

(1) 험벅

'험벅'은 천의 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헝겊'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8〉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바느질할 때 모아둔 헝겊이다.



〈사진 38〉 현승자 씨 소장 '험벅'

(2) 갈천

'갈천'은 감물을 들인 옷감이다. '갈중의'나 '갈적삼', '갈몸뻬'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한다.

"감물 들인 옷감 이거 나가 들인 거 옷 헤난 거. 이거 오래됀진 안헌 거주게. 한 오 년 전, 오 년 전에. 옛날엔 순 감옷 헨 살앗주게. 놈의 집이 강 사단 경헷주게. 갈옷, 갈점벵

이, 갈적삼, 갈몸빼 다 들영 입엇주게."[12]

(감물 들인 옷감 이거 내가 들인 거 옷 했던 거. 이거 오래되진 안한 거지. 한 오 년 전, 오 년 전에. 옛날엔 순 감옷 해서 살았지. 남의 집에 가서 사다가 그렇게 했지. 갈옷, '갈점벵이', '갈적삼', '갈몸빼' 다 들여서 입었지.)



〈사진 39〉 강옥화 씨 소장 '갈천'

〈사진 39〉는 수산2리 강옥화 씨(1947년생)가 손수 감물을 들인 옷감이다. 강 씨는 감물을 들인 천으로 만든 옷을 '감옷' 또는 '갈옷'이라고 하였다. 옷을 만든 후에 감물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잠방이에 감물을 들이면 '갈점벵이', 적삼에 감물을 들이면 '갈적삼', 일바지인 '몸빼'에 물을 들이면 '갈몸빼'가 된다.

## 1.4.2. 의복

### (1) 바지저고리, 마고자, 조끼

'바지저고리'는 바지와 저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옷의 하나다. '조끼'는 저고리나 와이셔트 위에 덧입는 옷으로, 소매가 없다.

〈사진 40〉은 수산2리 오남종 씨가 입었던 바지저고리다. 저고리 위의 덧 입힌 옷은 마고자다.

〈사진 41〉은 생활한복을 입은 오남종 씨의



〈사진 40〉 오남종 씨 '바지저고리'

12)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41〉 생활한복을 입은 오남종 씨



〈사진 42〉 현문자 씨 남편의 '바지저고리'



〈사진 43〉 현문자 씨의 '치마저고리'

모습이다. 바지저고리에 조끼를 껴입은 모습이다. 〈사진 42〉는 온평리 현문자 씨의 남편이 제사 때 입는 바지저고리다. 저고리 위에 조끼가 덧입혀 있다.

### (2) 저구리와 치메

'저구리'는 표준어 '저고리', '치메'는 표준어 '치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43〉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입었던 치마저고리다.

### (3) 두루메기

'두루메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이다. 외출할 때 한복 치마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다. 온평리에서는 겨울철에 입는 옷은 따로 '후루메'라고 구분하였다.

"여름에 제서 때 입는 거. 겨울 거는 저거 두꺼운 거 저거 후루메. 모시두루메기. 두루메기 안에 저 잇에. 푸릿푸릿헌 옷덜. 저고리, 후루메 소곱에 입는 거. 모시두루메기 어

무니 살 때. 우리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헷주, 옛날. 동넷 사름덜 옷덜 그 돌아가실 때 입는 옷덜 다 만들아 주고. 동네 어른덜이 이제 우리 어머니신디 이제 문딱 오라근에 멘들아줍센, 다 기지 아져당 메꼉. 메껴 불민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손질허멍 만들멍. 바농질와치. 바농질와치라낫어."[13]

(여름에 제사 때 입는 거. 겨울 거는 저거 두꺼운 거 저거 '후루메'. 모시두루마기. 두루마기 안에 저 있잖니. 푸릇푸릇한 옷들. 저고리, '후루메' 속에 입는 거. 모시두루마기 어머니 살 때. 우리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했지, 옛날. 동네 사람들 옷들 그 돌아가실 때 입는 옷들 다 만들아 주고. 동네 어른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몽땅 와서 만들어주십사고, 다 천 가져다가 맡겨서. 맡겨 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손질하면서 만들면서. 바느질아치. 바느질아치였어.)

〈사진 44〉는 현문자 씨 남편이 여름 제사 때 입는 모시두루마기다. 현 씨의 시어머니 강기량 씨가 생전에 제사 때 입으라면 만들어준 두루마기다.



〈사진 44〉 현문자 씨 소장 '모시 두루마기'

"이거는 산 걸 거라. 이건 저 우리 집사람이 산 거. 옛날 허벅 장시신디 산 거라. 육지 사름인디 육지 사름인디 시에 살아낫주. 나 젊은 때 산 거니까 사오십 년 뒛주. 저기 베로 헌 거난 어머니가 다 만든 거. 우리 어머니도 막 완전 바농질와치랏주게. 세상 사름 옷 다 허연. 죽음의 옷이고 새서방 옷이고 어머니가 다. 오랑덜 헤도렌 메끼민 다."[14]

(이거는 산 걸 거야. 이건 저 우리 집 사람이 산 거. 옛날 물동이 장사한테 산 거야. 육지 사람인데 육지 사람인데 제주시에 살았었지. 나 젊은 때 산 거니까 사오십 년 됐지. 저기 베로 한 거니까 어머니가 다 만든 거. 우리 어머니도 막 완전 바느질아치였지. 세상 사람 옷 다 했어. 죽음의 옷(수의)이고 신랑 옷이고 어머니가 다. 와서들 해달라고 맡기면 다.)

13) 현문자 씨 부부 구술.
14) 현문자 씨 부부 구술.



〈사진 45〉 현문자 씨 소장 '후루메'



〈사진 46〉 '후루메'를 입은 오남종 씨 아버지

〈사진 45〉는 온평리 현문자 씨 남편의 '후루메'다. 이 '후루메'는 '허벅' 장사를 다녔던 사람의 소개로 산 것이라고 한다. 〈사진 46〉은 수산2리 오남종 씨의 아버지 오명표가 '후루메' 입은 생전의 모습이다.

### (4) 도복

'도복'은 도포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예전에 예복으로 입었던 큰 옷이다.



〈사진 47〉 입제와 도포를 갖춰 입은
오남종 씨 아버지 오명표 씨의 생전의 모습



〈사진 48〉 오남종 씨의 '베도복'

〈사진 47〉은 수산2리 오남종 씨의 아버지의 환갑 사진이다. '도복'(도포)을 입고 '입제'(갓)를 쓴 모습을 통해 당대 유림의 복장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 48〉은 오남종 씨의 '베도복(베도포)'다.

### (5) 중의적삼

'중의적삼'은 베로 만든 중의와 적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베로 만들면 '베중의적삼'이 된다.

"베중의적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기 젊을 때 바느질 헐 때 만들앙 놔두켄 허멍 만들앙. 우리 어머니는 솜씨가 좋아. 게난 뭣이든 잘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베우지도 안 헷는데 집이서 미승. 아이고, 거 우리 어머니 미승 거 던져벳주만은 정말 멧 십 년 우리 어멍 쓴 미승이 잇어낫어."[15]

(베중의적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기 젊을 때 바느질 할 때 만들어서 놔두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솜씨가 좋아. 그러니까 뭣이든 잘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배우지도 안 했는데 집에서 재봉틀. 아이고, 거 우리 어머니 재봉틀 거 던져버렸지만 정말 몇 십 년 우리 어머니 쓴 재봉틀이 있었었어.)



〈사진 49〉 현문자 씨 소장 '중의적삼'



〈사진 50〉 오남종 씨 소장 '중의'

15) 온평리 현문자 씨 부부 구술.

〈사진 49〉는 온평리 현문자 씨 남편이 입는 베로 만든 중의적삼이다. 현 씨의 시어머니가 생전에 만들어 준 것이다. 〈사진 50〉은 수산2리 오남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녕(무명)'으로 만든 중의다.

### (6) 멩지옷, 미녕옷

'멩지옷'은 표준어 '명주옷', '미녕옷'은 무명으로 만든 옷으로, 표준어 '무명옷'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전에 명주옷이나 무명옷은 푸새를 꼭 해야 했다. 푸새를 할 때는 풀가사리풀이나 밀가루풀 등을 이용하였다.

### (7) 갈옷

'갈옷·감옷'은 '풋감'이라는 토종감을 이용해 물을 들인 옷이다. 감물을 들인 중의는 '갈중의', 감물을 들인 적삼은 '갈적삼', 감물을 들인 '몸뻬'는 '갈몸뻬'라고 한다. '몸빼'는 일할 때 입는 일 바지다.


〈사진 51〉 '갈적삼'과 '갈몸뻬'를 입은 오남종 씨의 어머니

〈사진 51〉은 1987년 8월에 찍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어머니 고유옥(작고)의 사진이다. '갈적삼'과 '갈몸뻬'를 입은 모습이 당시 여성들이 노동복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고 씨 손에는 노각을 들고 있고, 뒤의 '질구덕'에는 노각이 담겨 있고 그 위로 고구마줄기가 얹어 있다. 밭에서 막 돌아온 모습인 것 같다. 고 씨 오른쪽 아래론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페렝이'가 놓여 있다.

### (8) 헹경

'헹경'은 한복의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움직임을 가볍게 하려고 바짓가랑이를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이다. 보통 제주에서는 남자들의 상복 바지에 이용한다. '헹경'은 표준어 '행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52〉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아내의 장사 때 아들들이 상복 바지에 맸던 베로 만든 '헹경'이다.


〈사진 52〉 오남종 씨 소장 '헹경'


〈사진 53〉 오남종 씨 아버지(가운데)의 환갑사진

## 1.4.3. 기타

### (1) 입제

'입제'는 갓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한자어 '입자(笠子)'에서 온 말이다.

〈사진 53〉은 수산2리 오남종 씨의 아버지 오명표의 환갑 때 촬영한 가족 사진이다. '도복'(도포)를 입고 '입제'를 쓴 모습(사진 가운데)과 사진 속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당시의 의생활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 (2) 페렝이

'페렝이'는 밀짚이나 보릿짚, 대오리 따위로 결어 만든 모자다. 표준어 '패랭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주로 밭에서 일할 때 햇볕 따위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모자다.

"대페렝이 저거 이 동네도 멘드는 사름 잇는데 저거 아무나 못 멘들아. 저거 사 온 거지. 우리 집사람도 썽 다니고. 요즘은 저런 거 쓰는 사름 엇어. 이 동네 멘드는 사름안티 강 삿어. 저런 거 저 부업으로 멘드는 사름이 잇어. 막 여러 개 멘들어 가지고 그게 지어 가지고 오일장에 가가지고 풀고. 다 돌아가션."[16]

(대패랭이 저거 이 동네도 만드는 사람 있는데 저거 아무나 못 만들어. 저거 사 온 거지. 우리 집사람도 써서 다니고. 요즘은 저런 거 쓰는 사람 없어. 이 동네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샀어. 저런 거 저 부업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아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

16)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게 지어 가지고 오일장에 가가지고 팔고. 다 돌아가셨어.)


〈사진 54〉 고정봉 씨 소장 '대페렝이'

〈사진 54〉는 수산1리 고정봉 씨(1938년생) 집에서 밭일을 할 때 쓰는 '대페렝이'다. '대페렝이'는 대오리로 결은 패랭이를 말한다. 고 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대페렝이'를 전문적으로 겯는 사람에게 산 것이다. 대패랭이를 결었던 장인은 지금은 돌아갔는데, 위의 구술 내용 등을 참고해 보면 예전에 수산1리에서는 부업으로 대패랭이와 바구니 등을 결어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페렝이'는 고 씨와 고 씨 부인이 일할 때 쓴다고 하였다.

"저거 페렝이주게. 모자, 페렝이 그거주."[17]
(저거 패랭이지. 모자. 패랭이 그거지.)

〈사진 55〉는 난산리 강정자 씨가 농사일을 할 때 볕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페렝이'다. 〈사진 56〉은 수산2리 고대인 씨(1956년생) 집에서 밭일을 할 때 볕을 가리기


〈사진 55〉 강정자 씨 소장 '페렝이'


〈사진 56〉 고대인 씨 소장 '페렝이'

17)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사진 57〉 정복희 씨 소장 '페렝이'



〈사진 58〉 오애생 씨 소장 '페렝이'

위해 쓰는 '페렝이'다. 〈사진 57〉은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가 사용하는 '페렝이'이고, 〈사진 58〉은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 보관 중인 '페렝이'다.

### (3) 찝신

'찝신'은 표준어 짚신에 해당하는 신이다. 제주에서는 '찝신' 외에도 '초신'이라고도 한다. 볏짚이나 밭볏짚을 이용하여 만든다.

"온평리노인회에서 남제주군 시대 때 노인덜이 지금은 일자리엔 표현허지만은, 여가 생활하면서 마을에서 노인덜이 헤난 거. 지금도 이거 남아이실 거우다. 이 분덜이 만든 거는. 온평리노인회에서 만든 거."[18]

(온평리노인회에서 남제주군 시대 때 노인들이 지금은 일자리엔 표현하지만은, 여가 생활하면서 마을에서 노인들이 했던 거. 지금도 이거 남아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만든 거는. 온평리노인회에서 만든 거.)



〈사진 59〉 강주호 씨 소장 '찝신'

〈사진 59〉는 온평리 출신 수산2리 강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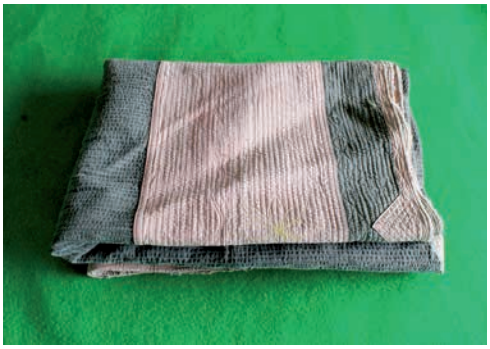
18) 수산2리 강주호 씨 구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찝신'이다. 이 '찝신'은 온평리노인회에서 남제주군 당시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온평리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와 통합해 행정시 서귀포시에 편입되어 적어도 이 '찝신'은 2006년 7월 이전에 삼은 것이다. 신을 삼은 지 10년이 넘었다. 여러 켤레의 '찝신'이 강 씨의 작업장에 장식물로 걸려 있다. '짚신 한 켤레'를 제주에서는 '초신 혼 베'라고 한다.

(4) 꼴레이불

'꼴레이불'은 누벼서 만든 여름용 이불이다.

〈사진 60〉은 난산리 김성옥 씨가 바느질아치에게 부탁해서 만든 '꼴레이불'이다. 남색 천에 분홍색 깃을 달아 만들었는데, 실밥으로 다양한 모양을 내서 만들었다.



〈사진 60〉 김성옥 씨 소장 '꼴레이불'

## 1.5. 기타 도구

(1) 방에혹

'방에혹'은 방아 가운데 박아서 곡식을 거피하거나 가루를 빻을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확이다. 식생활 도구로 활용되던 이 '방아확'이 마늘이나 깨 따위를 빻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으나 훗날 '감옷'을 염색할 때 사용하는 '풋감' 으깨는 용도로도 썼다. '방에혹'은 표준어 '방아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이것ᄀᆞ란 방에혹이엔 불러낫어. 옛날 저거는 옛날 마늘도 뽓고 음식헐 때 뭣도 허고. 방에혹은 남방에 속에도 잇어날 때도 잇곡 또 저렇게 벨도로 저것만 쓰게끔. 그 남방에

그거를 구허기 힘드니까 아마 저런 것만 헹 쓰는 사름 잇곡 또 그런 거 헤서 쓰는 사름 잇고. 아무튼 난 시집와 보니까 저것만 허드라고. 이렇게 길게 헤근에 가운데 움팍허게 시리 그 나무로 긴 거. 그렇게 쓰더라고. 옛날 엿장수덜 막 니아까 끗어서 그 사름네 달렌 헤도 안 줭 저거 그냥 놔둔 거라."[19]

(이것보곤 방아확이라고 불렀었어. 옛날 저거는 옛날 마늘도 빻고 음식할 때 뭣도 하고. 방아확은 '남방아' 속에도 있었을 때도 있고 또 저렇게 별도로 저것만 쓰게끔. 그 '남방아' 그거를 구하기 힘드니까 아마 저런 것만 해서 쓰는 사람 있고 또 그런 거 해서 쓰는 사람 있고. 아무튼 난 시집와 보니까 저것만 하더라고. 이렇게 길게 해서 가운데 움펑하게끔 그 나무로 긴 거. 그렇게 쓰더라고. 옛날 엿장수들 막 리어카 끌어서 그 사람네 달라고 해도 안 줘서 저거 그냥 놔둔 거야.)


〈사진 61〉 박순자 씨 소장 '방에혹'

〈사진 61〉은 신천리 박순자 씨(1953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방에혹'이다. 박 씨는 이 방아확을 이용하여 감을 빻아서 옷에 감물을 들였다고 한다. 박 씨의 시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방아확은 남방아 가운데 끼워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방아를 구하지 못할 때는 '돌확'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쓰임이 없었을 때 엿장수들이 사러 다녀도 팔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지금은 화분 장식물로 쓰고 있다.

"옛날은 그 믹서기 엇이난 감 헐 때 촌이니까 방에혹에 많이 허니까 감 헐 때 이렇게 저기서 때려서 뺏아가지고 저기서 옷 주물려 가지고. 우리 젊은 때, 어린 때는 헷지. 글후제 일이 번거러우니까 안 허고. 요즘은 또 이젠 믹서로 갈아서 허고. 옛날에는 저걸로 허민 막 힘들어. 저걸로 헤가지고 이제 그때는 믹서ᄀᆞ추룩 물이 나지. 저걸로 물 쪼금 놩 때령 옷에 놩 문기민 옷에 다 부떠근에 그거 막 털어근에 물들여사 뒈여. 경 안 허민 찌끄

19)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레기 다 부터 가지고. 경헤도 막 잘헤도 부떠근에 거물거물거물, 옛날에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허잖아. 믹서에 물만 헤가지고 그렇게 헤서 옷을 입엇어. 웨 저걸 입엇느냐 허면 장마가 심하고 헤도 옷이 좀 이런 나일론 옷 막 부뜨지 안 헤영 ᄉᆞ락ᄉᆞ락허는 맛. 제주도 말로. ᄉᆞ락ᄉᆞ락허니까 저걸로 주로 많이 입지. 이제는 옷이 다양허게시리 존 옷이 많이 나오니까 이젠 안 허는데 처음엔 많이 헷지. 저게이 이제도 많이 입는데 주로 입는 게 한 이십 년 전.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한 마흔 넘어가니까 저거 잘 안 헤실 거라. 글후제 염색도 나왓잖아. 염색 나오니까 우리가 저 감 색깔 그런 색 오일장에 가서 사다가 들여근에. 요즘도 그게 허긴 허는 거 닮아. 그 염색을 들여가지고 말려가지고 감물을 들여야 좀이 옷에 촉감도 좋아지고 거멍허지 안 허영 옷에 감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일단 물을 들여 가지고 감을 들여. 경헨 요즘 입거든. 물들인 다음에 이제 감물을 들여야만이 이제 좀 풀기도 오래 가고 좀 색깔도 오래 유지허고. 그렇게 안 헹 감물만 들일 때는 한 번 빨아 불민 거멍헤 부니까. 건디 저거 물 염색을 헤 가지고 감물 들이민 그 색은 나오진 안 헤도 어느 정도 유지는 허지. 보통 다 요즘은 그렇게 헤 입어."[20]

(옛날은 그 믹서 없으니까 감 할 때 촌이니까 방아확에 많이 하니까 감 할 때 이렇게 저기서 때려서 빻아가지고 저기서 옷 주물러 가지고. 우리 젊은 때, 어린 때는 했지. 그 이후에 일이 번거로우니까 안 하고. 요즘은 또 이젠 믹서로 갈아서 하고. 옛날에는 저걸로 하면 아주 힘들어. 저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믹서처럼 물이 나지. 저걸로 물 조금 놔서 때려서 옷에 놔서 문대면 옷에 다 붙어서 그거 마구 떨어서 물들여야 되어. 그렇게 안 하면 찌꺼기 다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주 잘해도 붙어서 거뭇거뭇거뭇, 옛날에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 믹서에 물만 해가지고 그렇게 헤서 옷을 입었어. 왜 저걸 입었느냐 하면 장마가 심하고 해도 옷이 좀 이런 나일론 옷 막 붙지 안 해서 까끌까끌하는 맛. 제주도 말로. '스락스락'하니까 저걸로 주로 많이 입지. 이제는 옷이 다양하게끔 좋은 옷이 많이 나오니까 이젠 안 하는데 처음엔 많이 했지. 저게 이제도 많이 입는데 주로 입는 게 한 이십 년 전.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한 마흔 넘어가니까 저거 잘 안 했을 거야. 그 이후에 염색도 나왔잖아. 염색 나오니까 우리가 저 감 색깔 그런 색 오일장에 가서 사다가 들여서. 요즘도 그게 하긴 하는 거 같아. 그 염색을 들여가지고 말려가지고 감물을 들여야 좀 이 옷에 촉감도 좋아지고 거멓지 안 해서 옷에 감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일단 물을 들여 가지고 감을 들여. 그렇게 해서 요즘 입거든. 물들인 다음에 이제 감물을 들여야만 이제 좀 풀기도 오래 가고 좀 색깔도 오래 유지하고. 그렇게 안 해서 감물만 들일 때는 한 번 빨아 버리면 거매 버리니까. 그런데 저거 물 염색을 해 가지고

20)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감물 들이면 그 색은 나오진 안 해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 보통 다 요즘은 그렇게 해 입어.)

"감물은 하여튼 그 감 날 때가 칠월에 감 나지. 그때 들이지. 뜳은 감, 풋감일 거라. 아침에 강, 저녁에도 따오민 그냥 놔두민 그 감물 색깔 궂다고 헤 가지고 저녁에도 요즘엔 따당 냉장고에 놧당 들이곡.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해 트기 전이 그거 따 가지고 아침이 그걸 들여낫어, 옛날에는. 겐디 요즘은 이제 만약에 아무 때라도 따면 냉장고 있으니까, 비니루에 헹 냉장고에 놩 요즘은 또 그때 넘어도 그거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짜 가지고 플라스틱에 뭐 냉동시켰다근에 또. 여름에 들여야지 이 하늬바람 불기 시작헹은 감이 안 들어. 하늬바람 불기 전이 감은 들여야 뒈는 거라부니까. 이제 너무 칠월 팔월 구월 뒈 가민 안 뒈니까 걸 냉동시켰당 칠월 뒈민 또 들여. 게민 뒈여. 옷 만든 거에도 들이고 예를 들어서 못 만들민 천에도 들엿지. 천에 들이면 옛날은 그 실이 다양한 실이 안 나왔잖아. 하양한 실이면 만들면 실밥은 하얀 실밥이 뒈는 거지. 그 안 만들어서 허는 건. 겐디 요즘은 다행허게시리 실도 실감도 색색대로 나오니까. 새벡이 감을 따 와서 아침이 들여서 금방 헷빗에 말려서 색깔이 이쁘게. 그 과정이 막 힘들어. 멧 번을 널엇다가 이런 돌에도 널민 안 뒈. 옛날엔 풀밧에 널었는데 풀밧이 엇이민 이런 디라도이 쩝제기라도 헹 널민 또 말르민 물 헤다가 예쁘게시리 해서. 널 때부터 예쁘게 안 헹 쭈글쭈글허게 허민 그게 주름 앚아 불민 계속 주름이 뒈여."[21]

(감물은 하여튼 그 감 날 때가 칠월에 감 나지. 그때 들이지. 떫은 감, '풋감'일 거야. 아침에 가서, 저녁에도 따오면 그냥 놔두면 그 감물 색깔 궂다고 해 가지고 저녁에도 요즘엔 따다가 냉장고에 놨다가 들이고.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해 트기 전이 그거 따 가지고 아침에 그걸 들였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만약에 아무 때라도 따면 냉장고 있으니까, 비닐에 해서 냉장고에 놔서 요즘은 또 그때 넘어도 그거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짜 가지고 플라스틱에 뭐 냉동시켯다가 또. 여름에 들여야지. 이 하늬바람 불기 시작해서는 감이 안 들어. 하늬바람 불기 전에 감은 들여야 되는 거여 버리니까. 이제 너무 칠월 팔월 구월 돼 가면 안 되니까 걸 냉동시켰다가 칠월 되면 또 들여. 그러면 돼. 옷 만든 거에도 들이고 예를 들어서 못 만들면 천에도 들였지. 천에 들이면 옛날은 그 실이 다양한 실이 안 나왔잖아. 하얀 실이면 만들면 실밥은 하얀 실밥이 되는 거지. 그 안 만들어서 하는 건. 그런데 요즘은 다행하게 실도 실감도 색색대로 나오니까. 새벽에 감을 따 와서 아침에 들여서 금방 햇볕에 말려서 색깔이 예쁘게. 그 과정이 아주 힘

21)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들어. 몇 번을 널었다가 이런 돌에도 널면 안 돼. 옛날엔 풀밭에 널었는데 풀밭이 없으면 이런 데라도 집게라도 해서 널면 또 마르면 물 해다가 예쁘게 해서. 널 때부터 예쁘게 안 해서 쭈글쭈글하게 하면 그게 주름 앉아버리면 계속 주름이 되어.)

박 씨에 따르면, 감물은 칠월 경에 들였다. 아침에 감물을 들여야 색이 곱게 든다고 해서 아침에 들였다. 감물은 천에도 들이고 옷을 만들어서도 들였는데,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이 잘 안 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요즘은 감물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듬해 칠월에 꺼내 들이기도 한다고 한다.

# 2. 식생활



제주지역 내 식생활은 대체로 비슷하나 동서 지역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우선 부엌이라는 공간의 위치다. 성산읍 난산리에서는 생활공간과 별도로 부엌을 두어 '공싯간'이라고 하였다. '공싯간'은 조리시설과 식사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수산1리에서는 집 '안튀'에 항아리를 묻어서 김치 또는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 냉장고가 있기 전에 저온 시설의 의미로 설치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다.

성산읍은 제주도내에서도 물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백나무에 띠를 매어서 밑에 항아리를 두고 빗물을 받았다. 이 '춤항' 시설에서 받은 물을 '춤물'이라고 하였다. 집 울타리에 심어진 크고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대체로 '춤'을 맸던 나무다. 동백나무는 깨끗하고 더불어 동백기름도 얻을 수 있었다.

집에서 쓰는 옹기는 제주 항아리보다 육지 항아리가 더 많았다. 신천부두 일명 '개맛'으로 전라남도 강진에서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옹기 장사꾼은 마을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옹기를 팔았다고 한다.

전통사회 식생활 도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건 동서 지역 모두 마찬가지다. 대체로 과거의 물건을 버리고 현대 시설을 갖추어 간편하게 사는 추세이다. 간혹 개인에 따라 생활 도구를 잘 보관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사진과 구술을 중심으로 성산읍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릇, 조리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를 차례로 정리하였다.

## 2.1. 그릇

### 2.1.1. 밥사발과 국사발

한식의 기본구조는 주식과 부식이다. 제주에서 부식의 대표는 '국'이다. 밥과 국은 일상음식의 기본 식단으로 '밥사발'과 '국사발'은 기본 식도구다. 밥사발과 국사발은 짝을 이루어 구입하였다. 〈사진 1〉은 난산리 김성옥 씨(1930년생)가 사용하였던 '사기사발'이다. 결혼하여 살림을 차린 뒤에 구입하였다. 열 벌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 〈사진 2〉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쓰는 '스뎅사발'이다. 〈사진 3〉은 수산2리 오애생 씨(1931년생)가 밥그릇으로 사용하였던 '사기사발'이다. 밖에 꺼내 놓아서 허드렛일에 쓰고 있다. 〈사진 4〉는 신산리 강유자 씨(1945년생) 집에서 썼던 '사발'이다. 자녀들이 어릴 때 구입하여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였다. 사기사발의 안이나 밖에는 복(福)자 또는 쌍희(囍)자가 새겨 있다.

"이거 옛날 사기사발이주게. 옛날이사 누게 무신 거 다 저걸로 먹엇주게. 큰일 때에도 잔치 때에 저런 것에 밥 거리곡 저런 것에 국 거리곡. 그땐 수도 그런 거 엇엇주, 막 옛날엔. 물 질어다가 허주. 그 잔치를 끝나야 사발을 싯엇주. 수끄락벳기, 사발 안 싯엇어. 경 허민 저 바우에 밥이 몰랑 더닥허게 붙으주기. 저런 사발에 무룩이 거령 허민 거 다 먹엉 소님 오민 또 그 사발 거령 허곡 허곡 헹. 새각시가 들어오젱 헤가민 상 출릴 그릇만 싯엇주. 소님 줄 그릇은 수끄락만 싯졍 국사발, 밥사발은 ᄌᆞ물앙 헤도 안 싯어낫어, 옛날은. 물 좋아도 허벅으로 질어오라야 헐 거난. 경 허고 풍속이 이 수산광 우리 ᄆᆞ을만 안 시 졈 시믄 허주만은 이 멘 안네 권당신딜 갓자 사발 싯는 ᄆᆞ을이 엇주기. 수끄락만 싯졍 국사발 밥사발은 싯질 생각을 안 헤영."[22]

(이거 옛날 사기사발이지. 옛날이야 누가 무슨 거 다 저걸로 먹었지. 큰일 때에도 잔치 때에 저런 것에 밥 뜨고 저런 것에 국 뜨고. 그때는 수도 그런 거 없었어, 아주 옛날에는. 물 길어다가 하지. 그 잔치가 끝나야 사발을 씻었지. 숟가락밖에, 사발 안 씻었어. 그렇게 하면 저 가장자리에 밥이 말라서 딱딱하게 붙지. 저런 사발에 수북하게 떠서 하면 거 다 먹어서 손님 오면 또 그 사발 떠서 하고 하고 해서. 새색시가 들어오려고 해가면 상 차릴 그릇만 씻었지. 손님 줄 그릇은 숟가락만 씻어서 국사발, 밥사발은 저물어서 해도 안 씻

22)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 김성옥 씨 소장 '사기사발'



〈사진 2〉 김성옥 씨 소장 '스뎅사발'



〈사진 3〉 오애생 씨 소장 '사기사발'



〈사진 4〉 강유자 씨 소장 '사기사발'

었었어, 옛날은. 물 좋아도 허벅으로 길어 와야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풍속이 이 수산과 우리 마을만 안 씻고 있으면 하지만은 이 면 안에 친척 있는 델 가도 사발 씻는 마을이 없었어. 숟가락만 씻어서 국사발 밥사발은 씻을 생각을 안 해서.)

## 2.1.2. 낭푼

'낭푼'은 표준어 '양푼'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개별 그릇에 밥을 먹기 전까지 양푼은 밥그릇 용도로 쓰였다. 양푼에 밥을 퍼 놓고 상 한가운데에 놓아서 식구들이 함께 먹었다. 〈사진 5〉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사용하는 '스뎅낭푼'이다. 크기가 다른 양푼을 여럿 갖고 있다.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양푼에 밥을 퍼서 대접하였다고 한다. 〈사진 6〉은 수산1리 고정봉 (1938년생)씨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사용하였던 '이모노낭푼'이다.

"낭푼, 거 밥 먹을 때 써낫주기. 식구가 안 하도 야이덜 잇인 땐 야이덜 벗덜 오랑 놀곡 허민 낭푼이 셔사 밥을 펑 주주게. 사발에 거리지 안 허영."[23]

(양푼, 거 밥 먹을 때 썼었지. 식구가 많지 않아도 아이들 있을 때는 아이들 벗들 와서 놀고 하면 양푼이 있어야 밥을 퍼서 주지. 사발에 뜨지 않고.)

"요거는 엿날 여기 사투리로 낭푼이엔 헤낫어, 낭푼. 낭푼은 이것보다 좀 큰 것도 있는데 이건 조끔 사발은 아니지, 이거는. 사발은 저런 사기로 멘든 거 사발이엔 허니까. 지금은 식사헐 때 사람마다 한 사람한테 사발로 밥을 떠 놓주만은 엿날은 다 저 낭푼에. 예를 들어 여섯 사름 먹을 거민 저 낭푼에 다 떠놩 돌아앚아서 다 먹엇거든. 사발이 벨로 없을 때니까."[24]

(요거는 옛날 여기 사투리로 '낭푼'이라고 했었어, 양푼. 양푼은 이것보다 좀 큰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사발은 아니지, 이거는. 사발은 저런 사기로 만든 거 사발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식사할 때 사람마다 한 사람한테 사발로 밥을 떠 놓지만은 옛날은 다 저 양푼에. 예를 들어 여섯 사람 먹을 거면 저 양푼에 다 떠놔서 둘러앉아서 다 먹었거든. 사발이 별로 없을 때니까.)



〈사진 5〉 김성옥 씨 소장 '스뎅낭푼'



〈사진 6〉 고정봉 씨 소장 '이모노낭푼'

성산읍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주물 양푼이나 스테인리스 양푼을 갖고 있었다. 양푼을 쓰기 전에는 박이나 나무로 만든 '남박', '도고리'를 사용하였다.

23)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24)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낭푼이주, 낭푼. 낭푼은 신식 그릇이고 남박에 퍼 놩, 남으로 만든 박. 지붕 우이 올령 허는 것이 박이거든. 게난 그걸로 헌 건 박. 나무로 만든 건 남박. 또 큰 건 도고리."[25]

(양푼이지, 양푼. 양푼은 신식 그릇이고 '남박'에 퍼 놔서, 나무로 만든 박. 지붕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박이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한 건 박. 나무로 만든 건 '남박'. 또 큰 건 '도고리'.)

〈사진 7〉은 수산1리 김병생 씨(1937년생)가 사용하는 '스뎅낭푼'이다. 스테인리스양푼은 김 씨가 결혼한 뒤에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구입하였다. 양푼을 구입한 지 육십 년이 되어가고 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



〈사진 7〉 김병생 씨 소장 '스뎅낭푼'

"그거는 스뎅낭푼인디 옛날엔 낭푼엇이난 머리 끊언에 머리영 바꾼 거여게. 옛날은 파마 안 헷지. 긴 머리. 느네ᄀᆞ치 머리 기난 긴 거 끊언에게 장시 오난게 머리 풀앙은에 사시녜. 머리 풀안 이거 ᄒᆞ나 삿주. 다라도 큰 다라. 엿날은이 제서 때나 멩질 때나 일가가 다 왕 먹젠 허민 큰 다라에 멧 번 펏져게, 밥을. 혼 말 놔근에 허민 동글락헌 다락에. 것도 삿단에 건 던져져불어신게. 이거 나 열아홉에 시집오난게 스물넷쯤 뒛주게. 그때게 이걸로 하나 퍼도 족앗지. 보통 낭푼보다도 큰 거 삿주게. 이거 던지기 아까와. 깨끗허고. 게난 큰며누리 온 땐 요걸 잡채 무쳥 내놔. 요것에. 우리 식구가 하주게."[26]

(그거는 스테인리스양푼인데 옛날에는 양푼 없으니까 머리 잘라서 머리와 바꾼 거야. 옛날은 파마 안 했지. 긴 머리. 너희같이 머리 기니까 긴 거 잘라서 장수 오니까 머리 팔아서 샀어. 머리 팔아서 이거 하나 샀지. 대야도 큰 대야. 옛날은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일가가 다 와서 먹으려고 하면 큰 대야에 몇 번 폈지, 밥을. 한 말 놔서 하면 동그란 대야에. 것도 샀다가 건 던져버렸네. 이거 나 열아홉에 시집오니까 스물넷쯤 됐지. 그때 이걸로 하나 퍼도 적었지. 보통 양푼보다도 큰 거 샀지. 이거 던지기 아까워. 깨끗하고. 그러니까 큰며느리 올 때는 요걸 잡채 무쳐서 내놔. 요것에. 우리 식구가 많지.)

2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6)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사진 8〉 김병생 씨 소장 '아르미낭푼'



〈사진 9〉 김병생 씨 소장 '이모노낭푼'

〈사진 8〉은 김병생 씨가 잔치 때 답례품으로 받아온 '아르미낭푼'이다. 답례품은 주로 생활필수품 가운데 한 종류를 하였다. 양푼은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 답례품으로 주었다고 한다. 보통은 빨랫비누 두세 개를 답례하였다. 〈사진 9〉는 김병생 씨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이모노낭푼'이다.

## 2.1.3. 숟가락

'숟가락'은 밥이나 국 등을 떠먹을 때 사용하고, 젓가락은 반찬 따위의 음식을 집을 때 쓴다. 애초부터 수저를 갖추어서 식사를 한 것은 아니다. 숟가락으로 밥, 국은 물론 반찬도 떠서 먹었다. 〈사진 10〉은 수산2리 강옥화 씨(1947년생)의 시할아버지가 한평생 쓰던 놋숟가락이다. 오랫동안 사용한 놋숟가락은 손잡이가 짧고 얇아졌다. 〈사진 11〉은 강 씨의 시할아버지가 놋숟가락 이후에 사용하였던 수저다.

"백여섯, 돌아갈 때까지 모셧주. 돌아갈 때까지 그냥 같이 살안. 우리 시아버지는 마흔아홉에 돌아가고, 막 일찍. 우리 결혼하기 전에 돌아간, 전 해에. 할아버지 죽 써난 건데. 젓가락은 엇고. (돌아가신 지가) 혼 20년 더 뒛지."[27]

(백여섯,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같이 살았어. 우리 시아버지는 마흔아홉에 돌아가시고, 아주 일찍. 우리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전 해에. 할아버지 쭉 썼던 건데 젓가락은 없고.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은 더 됐지.)

27)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10〉 강옥화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11〉 강옥화 씨 소장 '수저'



## 2.1.4. 종지

'종지'는 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사기그릇이다. 달리 '종제기'라고도 한다. 주로 간장을 담아서 먹는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잔치나 대소상 때는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간장 종지도 나란히 놓았다. 뿐만 아니라 '종지'는 윷놀이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사진 12〉는 수산1리 고정봉 씨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다.



〈사진 12〉 고정봉 씨 소장 '종지'

"종지는 엿날 우리가 식사헐 때 물장, 큰일 때도 엿날은 다 이런 걸로 헷어. 손님 앞에 쭉 허게 놩. 장물에 뭐 저런 부추 거튼 것도 썰어 놓고 고추 거튼 것도 썰어 놓고 헤서 물장 만들어 놓고 뒈지고기도 저기서 적정 먹곡. 그런 용으로 주로 썻어."[28]

(종지는 옛날 우리가 식사할 때 간장, 큰일 때도 옛날은 다 이런 걸로 했어. 손님 앞에 쭉 하게 놔서. 간장에 뭐 저런 부추 같은 것도 썰어 넣고 고추 같은 것도 썰어 넣고 해서 간장 만들어 놓고 돼지고기도 저기서 적셔서 먹고. 그런 용으로 주로 썼어.)

28)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사진 13〉 김병생 씨 소장 '종제기'



〈사진 14〉 고영자 씨 소장 '장종지'

〈사진 13〉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종제기'다. 윷놀이용으로 쓸 종지 하나만 남겨두었다. 이 종지는 김 씨 집안의 잔치나 대소상 때에 윷놀이용으로 쓰고 있다. 〈사진 14〉는 수산2리 고영자 씨(1933년생) 집에서 윷놀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종지'다. 고 씨는 간장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장종지'라고 하였다.

"간장 종제기 헤낫주게. 경 허단에 이젠 요거 나오기 시작허난 요걸로만 허단에 그건 막 귀헌 걸로 놔둬셰. 다 던져불단에. 이건 종제기. 아이들 풀 때마다 다 윳 놀아낫어.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다."[29]

(간장 종지 했었지. 그렇게 하다가 이젠 요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걸로만 하다가 그건 아주 귀한 걸로 놔뒀어. 다 던져버리다가. 이건 종지. 아이들 팔 때마다 다 윷 놀았어.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다.)

"이거 윳 누는 종제기. 옛날에 이걸로 종지, 저 장종지 헤는디. 이것도 어려와, 이젠."[30]

(이거 윷 노는 종지. 옛날에 이걸로 종지, 저 장종지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젠.)

29) 수산2리 김병생 씨 구술.
30)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 2.1.5. 밥상

성산읍 지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밥상'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 '밥상'은 가볍고 옮겨 나르기 쉽다. 〈사진 15〉는 난산리 김두추(1943년생), 강정자 씨(1943년생)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밥상'이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상온 보관 가능한 음식은 상 위에 그대로 두고 플라스틱 소쿠리로 덮어 두기도 하였다. 〈사진 16〉은 김두추, 강정자 씨 집에 있는 '도리상'이다.

"(강)도리상, 동글랑 허난 도리상. (김)오래된 거주게. 이거 막 오랫주. 이건 혼 오십 년 뒛주, 이거 산 지가. (강)이거 혼 세 사름, 네 사름은 먹주. 저 과짝허게 앚으민."

((강)'도리상', 동그라니까 '도리상'. (김)오래된 거지. 이거 아주 오래 됐어. 이건 한 오십 년 됐지, 이거 산 지가. (강)이거 한 세 사람 네 사람은 먹어. 저 바짝하게 앉으면.)



〈사진 15〉 김두추 씨 소장 '밥상'



〈사진 16〉 김두추 씨 소장 '도리상'



〈사진 17〉 강태웅 씨 소장 '밥상'



〈사진 18〉 오애생 씨 소장 '밥상'

〈사진 17〉은 신산리 강태웅 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1926년생)가 사용하였던 '밥상'이다. 밥상을 보관할 때는 상다리를 접어서 벽에 의지해서 세워 둘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끼니마다 밥상을 사용하므로 따로 접어두지 않는다. 〈사진 18〉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쓰고 있는 '밥상'이다. 상 위에 간단한 반찬이나 간식을 올려 두기도 한다. 먼지나 파리 등이 앉지 못하도록 소쿠리로 덮었다.

## 2.1.6. 차반지

성산읍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네모나게 결어 만든 그릇을 '차반지'라고 하였다. 크기에 따라 '상지', '차반지', '고령' 등 채롱의 명칭이 세분화 되었다. 쓰임새에 따라서는 '밥차반지', '떡차반지', '적(炙)차반지'라고 하였다. 모두 '채롱'에 해당한다.

### (1) 밥차반지

'밥차반지'는 밥을 담는 대그릇이다. 달리 '밥차롱'이라고도 한다. '차롱'은 표준어 '채롱'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밥채롱은 밭에 갈 때 밥을 담고 뚜껑을 덮어서 가져간다. 〈사진 19〉는 수산1리 고춘권 씨(1933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롱들이다. 고춘권 씨는 20대 때부터 '구덕'을 전문적으로 결었다. 고 씨의 부인인 김병생 씨는 대바구니와 채롱을 지고 오일장에 가서 팔았다. 김 씨가 주로 다녔던 오일장은 조천읍 함덕장, 구좌읍 세화장, 표선면 표선장이다.


〈사진 19〉 고춘권 씨 소장 '고령', '적차롱', '상지'

"(고)적차롱, 상지차롱 또 고령차롱 경 헷주게. (김)고령차반진 적 ᄀᆞ튼 거 헤 놓곡 상지 차반지엔 큰 시리떡 헤근에 베어 놓고. (고)상지 차반지 큰 거. 고령은 쪼그만 헌 거. 적차롱은 중간에 거. 밧디 뎅길 때 허는 거 그냥 밥차롱. 소나 말 보레 혼자 갈 때 그 끈

돌아근에 이렇게 메영 가는 거 밥당석. 그때 그 산디찝 꼬아근에 그물 만들엉 헤낫주. 것 ᄀᆞ라 뭐엔 헤나시? (김)망울이엔 헤나신가? (고)그자 밥당석에 직접 끈 돌앙 멩도 뎅기고 그것에 담아근에 이 사냥 뎅길 때 ᄀᆞ튼 때, 그런 때 그것에 담앙 메영 뎅겻주."[31]

((고)'적채롱', '상지채롱' 또 '고령채롱' 그렇게 했어. (김)'고령채롱'은 적 같은 거 해놓고 '상지채롱'에는 큰 시루떡 해서 잘라 놓고. (고)'상지채롱' 큰 거. '고령'은 조그마한 거. '적채롱'은 중간에 거. 밭에 다닐 때 하는 거 그냥 '밥채롱'. 소나 말 보러 혼자 갈 때 그 끈 이렇게 달아매서 다니는 거 도시락. 그때 그 밭볏짚 꼬아서 그물 만들어서 했어. 그것 보고 뭐라고 했었지? (김)'망울'이라고 했던가. (고)그냥 도시락에 직접 끈 달아매서도 다니고 그것에 담아서 사냥 다닐 때 같은 때, 그럴 때 그것에 담아서 매어서 다녔지.)



### (2) 떡차반지

'떡차반지'는 제사나 큰일 때에 만든 떡을 담는 대그릇이다. 대그릇은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아서 임시 보관하기에 적당하였다. 〈사진 20〉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대차반지'다. 〈사진 21〉은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가 사용하는 큰 채롱이다.



〈사진 20〉 고정봉 씨 소장 '대차반지'



〈사진 21〉 정복희 씨 소장 '상지'

"저거는 주로 집에 제사 때나 무슨 일 있을 때는 이 떡을 집이서 멘들아 가지고 저기 놓지. 저기 놓민, 대로 멘드니까 공기 통허게 뒈니까 그 떡도 변허지 않고 오래 가고. 이

31) 수산2리 고춘권, 김병생 부부 구술.

보다 작은 거 잇어. 구멍이 쪼금 건 더 작아. 그런 거는 엿날은 어데 초상 난 데나 대상 난 데나 갈 때는 집이서 떡을 헤서 그 속에 놔서 구덕에 놔 가지고 그렇게 갓고 다녓어."[32]

(저거는 주로 집에 제사 때나 무슨 일 있을 때는 이 떡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기 넣지. 저기 넣으면 대로 만드니까 공기 통하게 되니까 그 떡도 변하지 않고 오래 가고. 이보다 작은 거 있어. 구멍이 조금 건 더 작아. 그런 거는 옛날은 어디 초상 난 데나 대상 난 데나 갈 때는 집에서 떡을 해서 그 속에 놔서 바구니에 놔 가지고 그렇게 갖고 다녔어.)

"(고)'고령차반지'는 옛날에는 대소상 조문 갈 때에, 요새는 신식 나니까 봉토에 담앙 가주. 그때는 물건으로 헷거든. 쏠 상 가거든. 경 안 허면 떡을 헹 가던지. (김)만뒤떡 헹 가고. (고)게난 빵이든 정기떡이든. 빵도 거 중간에야 빵 낫주, 옛날엔 이녁냥으로 직접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정기떡, 정기떡 멘들앙 그런 걸로 놓앙 부지로 가져가는 거주. 게난 쪼그마헌 차반지 그런 용으로 만든 거라. (김)보통 정기떡. 정기떡 허고 만뒤떡. (고)게난 젤 쉬운 것이 정기떡이주게. 만들기가 젤 쉬우니까. (김)어디 당에 거튼 디, 그런 디 갈 때도 쪼그마한 차반지, 고령차반질 사용허고. (고)ᄀᆞ는대구덕에 놩 들렁도 가고 졍도 가고. (김)졍 갓주, 보통."[33]

((고)'고령채롱'은 옛날에는 대소상 조문 갈 때에, 요새는 신식 나니까 봉투에 담아서 가지 그때는 물건으로 했거든. 쌀 사서 가거든. 그렇지 않으면 떡을 해서 가든지. (김)'만뒤떡' 해서 가고. (고)그러니까 빵이든 '빙떡'이든. 빵도 거 중간에야 빵 났지, 옛날엔 자기대로 직접 메밀가루 해서 '빙떡', '빙떡' 만들어서 그런 걸로 넣어서 부조로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채롱 그런 용으로 만든 거야. (김)보통 '빙떡'. '빙떡' 하고 '만뒤떡'. (고)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빙떡'이지. 만들기가 제일 쉬우니까. (김)어디 당에 같은 데 그런 데 갈 때도 조그마한 채롱, '고령채롱'을 사용하고. 가는대바구니에 놔서 들어서도 가고 져서도 가고. (김)져서 갔지, 보통.)

"(고)이건 고령. 이건이 떡, 빙떡 ᄀᆞ튼 거 어디 동네에 제사나 대소상 난 때에는 옛날에는 이것에 그 떡을 헹 놔가지고 가졍 갓주게. 그 부지로. 돈으로 허질 안 허고 다 이것에 떡으로. 대부분 빙떡을 많이 헷지, 정기. (김)정기떡, 만두떡, 빵떡. 혼 오십 개 들어갈 거여. (고)정기떡, 저거 많이 들어가. 오십 개ᄀᆞᆼ정은 안 들어가지만은 혼 사십 개. (김)혼 오십 개 들어갑니다. (고)모멀쏠 한 뒈민 저걸로 두 개. 니스칠 헷주게. 이건 상지, 좀 큰 거. 아이고

32)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33) 수산1리 고춘권, 김병생 씨 부부 구술.

저건 많이 들어가. 저건 시리떡 놓을 용이주, 저건. (김)저건 한 말에치 들어가. 이것광 저것광 ᄀᆞ튼 거. 저건 뭐 다 고령인데 저것보다 크다. ᄒᆞ끔 노프게 헤서. 쪼금 큰 거."[34]

((고) 이건 '고령'. 이건 떡, '빙떡' 같은 거 어디 동네에 제사나 대소상 났을 때에는 옛날에는 이것에 그 떡을 해서 놔가지고 가져서 갔지. 그 부조로. 돈으로 하지를 안 하고 다 이것에 떡으로. 대부분 '빙떡'을 많이 했지, '정기'. (김) '정기떡', '만두떡', '빵떡'. (김) 한 오십 개 들어갈 거야. (고)'빙떡', 저거 많이 들어가. 오십 개까지는 안 들어가지만은 한 사십 개. (김)한 오십 개 들어갑니다. (고)메밀쌀 한 되면 저걸로 두 개. 니스칠 했지. 이건 '상지', 좀 큰 거. 아이고 저건 많이 들어가. 저건 시루떡 놓을 용이지, 저건. (김)저건 한 말어치 들어가. 이것하고 저것은 같은 거. 저건 뭐 다. '고령'인데 저것보다 크다. 조금 높게 했어. 조금 큰 거.)





〈사진 22〉 김병생 씨 소장 '차반지'



〈사진 23〉 오남종 씨 소장 '상지'

〈사진 22〉는 수산1리 김병생 씨 '차반지'다. 낡은 부분은 빨간색 노끈으로 덧감아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23〉은 수산2리 오남종 씨(1939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채롱이다. 오 씨의 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서 썼다.

"이짝은 상지. 제사 때 떡도 놓고 영장 나민 뭐 관 거튼 거, 택일 허레 가온 사름, 또 정시, 이것에 소상 때 삼 년을 이걸로 가져가. 돈으로 안 주고 공정. 건 터 임제신디나 정시신디나 ᄀᆞ치 헐 거라.[35]

34) 수산1리 고춘권, 김병생 씨 부부 구술.
35) 수산2리 오남종 구술.

(이쪽은 채롱. 제사 때 떡도 넣고 영장 나면 뭐 관 같은 거, 택일 하러 갔다 온 사람, 또 지관, 이것에 소상 때 삼 년을 이걸로 가져가. 돈으로 안 주고 '공정'. 건 터 임자에게나 지관에게나 같이 할 거야.)


〈사진 24〉 오애생 씨 소장 '고령'

〈사진 24〉는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사용하던 '고령'이다. '고령'은 채롱보다 통이 아주 얕고 작게 만든 그릇이다. 큰일 때 부조로 음식을 넣고 다닐 때 사용하였다. 낡은 부분은 노끈으로 감아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령이주게. 이것은 대소상 때에 이디 정기떡을 만들앙 강 상제덜 혼 사름이 혼 고령썩 줘낫주게. 사둔칩이면 사둔은 이보다는 ᄒᆞ썰 좋고 이보다는 큰 거. ᄒᆞ썰 큰 것에 헤영 사둔은 떡으로만 헷주. 사둔이나 아무 거나 떡이주게. 겨울엔 정기떡 아니면 ᄆᆞ물로 만뒤떡 여름엔 상웨떡 그거주게."[36]

(이것은 '고령'이지. 이것은 대소상 때에 여기 '빙떡'을 만들어서 가서 상제들 한 사람이 한 '고령'씩 줬었어. 사돈집이면 사돈은 이보다는 조금 좋고 이보다는 큰 거. 조금 큰


〈사진 25〉 오애생 씨 소장 '상지'


〈사진 26〉 오애생 씨 소장 '떡차반지'

36)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것에 해서 사돈은 떡으로만 했지. 사돈이나 아무 거나 떡이지. 겨울엔 '빙떡' 아니면 메밀로 '만뒤떡' 여름엔 '상화' 그거지.)

〈사진 25〉는 수산2리 오애생 씨의 '상지'다. 위아래 모두 노끈으로 덧대어 감았다. 〈사진 26〉은 오 씨가 제사 때에 떡을 만들어서 넣는 '떡차반지'다.

"이건 상지주. 이거게 엿날은 제 때에도 시리떡 치민 베영 이것에 놓곡, 또 호근떡도 허민 이레 놓곡. 옛날은 사오질 안 허니깐게 차반지에만 놓주게. 적도 해서 놓고. 호근떡이엔 헌 건 솔벤 절벤 허곡게 우찍이엔 허멍 지름떡도 지금ᄀᆞ추룩 안 허영 멥쌀로 헷주. 찹쌀로 지름떡 안 헷져, 옛날에는. 호근떡으로 지름떡도 족은 잔으로 영 떠근에 그자 지짐만 헹 지름떡으로 올렷주게. 엿날도 지름떡 허긴 허엿지. 지금은 춥쌀 안 허난 헐 걸로 생각 안 허지. 우찍이엔 허주게. 게난 우찍은 침떡을 허면 우찍을 허고 옛날은 침떡을 안 허영 송펜을 허나 무시 거 헤영은 우찍이 없엇어. 옛날은 송펜이 손으로 만들아근에 그 안네 쉬 담긴 담아도. 조개솔펜이엔 헷주게. 지금은 송펜이고. 옛날 만든 건 조개솔펜."[37]

(이건 채롱이야. 이거 옛날은 제(祭) 때에도 시루떡 찌면 잘라서 이것에 놓고, 또 갖춘떡도 하면 여기 놓고. 옛날은 사오지를 안 하니까 채롱에만 놓지. 적(炙)도 해서 놓고. 갖춘떡이라고 한 건 솔편, 절편 하고 '우찍'이라고 하면서 기름떡도 지금처럼 안 해서 멥쌀로 했지. 찹쌀로 기름떡 안 했지, 옛날에는. 갖춘떡으로 기름떡도 작은 잔으로 이렇게 떠서 그냥 지짐만 해서 기름떡으로 올렸지. 옛날도 기름떡 하긴 했지. 지금은 찹쌀 안 하니까 할 걸로 생각 안 하지. 웃기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웃기떡은 시루떡을 하면 웃기떡을 하고 옛날은 시루떡을 안 해서 송편을 하나 무슨 거 해서는 웃기떡이 없었어. 옛날은 송편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소 담긴 담아도 '조개솔편'이라고 했어. 지금은 송편이고 옛날 만든 건 '조개솔편'.)

### (3) 적차반지

'적차반지'는 주로 제사나 큰일 때에 만든 적(炙)을 담는 대그릇이다. 〈사진 27〉은 온평리 현문자 씨(1939년생)가 사용하였던 적채롱이다. 〈사진 28〉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제사 음식을 넣는 용도로 쓰는 '차반지'다.

〈사진 29〉는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사용하였던 채롱이다. 채롱 두 개는 수산리에서

37)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27〉 현문자 씨 소장 '적차반지'



〈사진 28〉 강옥화 씨 소장 '차반지'



〈사진 29〉 강옥화 씨 소장 '차반지'



〈사진 30〉강옥화 씨 소장 '차반지'

결은 것이다. 강 씨는 특별히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진 30〉은 강옥화 씨가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로 쓰는 '차반지'다.

"하튼 이게 좋아, 플라스틱 그런 거보다. 차반지, 적차반지. 이거 적차반지 허고 하여튼 그런 용이주게. 적도 헤 놓고 떡도 헤 놓고. 이건 좀 커. 옛날에 떡 헹 뎅기던 건 이거 반쪽만이 헐 건가. 적차반지, 떡차반지. 아무 거나 그냥. 여기 뭐 깔앙 허니까. 떡도 놓고 고기도 놓고 헌 거. 다 나가 산 거. 장에도 잇고, 수산 사름 그 분 돌아가셧어. 일름 고종호. 종 자 호 자. 그 분이 전 거 두 개 사고 나머지는 이거 고성장에서 산 거. 그 할아버지 진짜 이쁘게 만들주게, 차롱을. 돌아가셔비언."[38]

(하튼 이게 좋아. 플라스틱 그런 거보다. 채롱, '적채롱'. 이거 '적채롱' 하고 하여튼 그

38)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런 용이지. 적도 해놓고 떡도 해놓고. 이건 좀 커. 옛날에 떡 해서 다니던 건 이거 반쪽만큼 할 건가. '적채롱', '떡채롱'. 아무 거나 그냥. 여기 뭐 깔아서 하니까. 떡도 넣고 고기도 넣고 한 거. 다 내가 산 거. 장에도 있고, 수산 사람 그 분 돌아가셨어. 이름 고종호. 종자 호 자. 그 분이 결은 거 두 개 사고 나머지는 이거 고성장에서 산 거. 그 할아버지 진짜 이쁘게 만들어, 채롱을. 돌아가셔버렸어.)

## 2.1.7. 구덕

'구덕'은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바구니다. 구덕은 주로 여자들이 물건을 넣고 다닐 때 사용하였다. '구덕'은 옆에 차거나 '베(바)'를 이용해서 등에 짊어진다. 수산1리 고춘권 씨는 구덕을 전문적으로 결었다. 고 씨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구덕' 결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우리집이 하르방은[39] 농사 지켄 허멍 그 구덕 줄음을 베완 허난에 구덕을 막 깨끗허게 잘 줄아라게. 장에 가민 쳇 번에 물건을 풀주게. 쳇 번에 풀앙 허곡 도매상에도 딱 도렌 헤근에 도매로 줘분 땐 일찍 올 때도 잇곡, 도매로 안 앗을 땐 ᄒᆞ나라도 풀젠 허민 ᄒᆞ꼼 ᄒᆞᆫ 시 두 시. ᄒᆞᆫ 삼천 원 최고 받은 땐 ᄒᆞᆫ 오천 원. 아이덜 세 개가 다 중ᄒᆞᆨ교 고등ᄒᆞᆨ교 국민ᄒᆞᆨ교 헤놓민 옷도 터짐 시작허민 다 터져비어. 신발도 터짐 시작허민 다 터져비어. 신발 사젠 허민 ᄒᆞᆫ 번 장에 강 온 건 신 두 개 세 개 사불민 돈 펀찍헐 거 아니? 경 헹은에 좁쌀 사다근에 그 식구 먹젠 허민 좁쏠 ᄒᆞᆫ 말에 오천 원 허민 뭐 ᄒᆞᆫ 번 장에 강 사온 건 뭐뭐 필요가 엇어."[40]

(우리집에 남편은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그 바구니 결는 것을 배워서 하니까 바구니를 아주 깨끗하게 잘 결었어. 장에 가면 첫 번에 물건을 팔지. 첫 번에 팔아서 하고 도매상에도 딱 주라고 해서 도매로 줄 때는 일찍 올 때도 있고, 도매로 안 가져갈 때는 하나라도 팔려고 하면 조금 한 시 두 시. 한 삼천 원 최고 받을 때는 한 오천 원. 아이들 세 명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해놓면 옷도 터지기 시작하면 다 터져버려. 신발도 터지기 시작하면 다 터져버리고. 신발 사려고 하면 한 번 장에 갔다 온 건 신발 두 개 세 개 사버리면 돈 없을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좁쌀 사다가 그 식구 먹으려고 하면 좁쌀 한 말에 오천 원 하면 한 번 장에 가서 사온 건 뭐뭐 필요가 없어.)

39)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여기서는 남편을 의미한다.
40)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 (1) 질구덕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등에 져 나르는 데 쓰이는 대바구니다.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운반용 도구다. 〈사진 31〉은 난산리 강정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질구덕'이다. 밭에 다닐 때 주로 썼다. 지금은 창고에 보관해두었다. 〈사진 32〉는 김병생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질구덕'이다. 김씨의 남편 고춘권 씨가 수리대로 직접 결었다. 이 질구덕은 잔치 때에 쌀에 섞을 보리쌀을 미리 삶아서 퍼 놓을 때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사진 31〉 강정자 씨 소장 '질구덕'



〈사진 32〉 김병생 씨 소장 '질구덕'

"(고)요건 질구덕. 질구덕이엔 헌 건 지영 뎅기는 구덕. 작은 것은 옆쪽에 창 뎅기주만은 이 큰 것은 많이 놓면은 이 옆에 정 뎅기지 못 허거든. 지영 뎅기는 거라고 헤가지고 질구덕. 이건 보통 물건을 많이 가정 뎅길 일 잇으면은 저것에. (김)저것에 옛날에 보리썰 펏주게. 잔치 때에. 보리썰을 숢아근에게 잔치허젠 허민 숢앙 놧다근에 거 거리멍 곤썰 서끄멍 큰솟에 놩 잔치헷에. 게난 이건 보리썰 푸는 구덕으로 썻주. (고)게난 여라 가지로 썻주. 저 들에 일 허레 갈 때 여럿이 일헐 때 점심 거튼 거 그릇에 놔가지고 이제 지엉 가곡. 게난 질구덕."[41]

((고)요건 '질구덕'. '질구덕'이라고 한 건 져서 다니는 바구니. 작은 것은 옆쪽에 차서 다니지만 이 큰 것은 많이 넣으면 이 옆에 져서 다니지 못 하거든. 져서 다니는 거라고 해가지고 '질구덕'. 이건 보통 물건을 많이 가져서 다닐 일 있으면은 저것에. (김)저것에 옛날에 보리쌀 펐어, 잔치 때에. 보리쌀을 삶아서 잔치하려고 하면 삶아서 놨다가 거 뜨면서 흰쌀 섞으면서 큰솥에 놔서 잔치했어. 그러니까 이건 보리쌀 푸는 구덕으로 썼지.

41) 수산1리 고춘권, 김병생 씨 구술.

(고)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썼지. 저 들에 일 하러 갈 때 여럿이 일할 때 점심 같은 거 그릇에 놔가지고 이제 져서 가고. 그러니까 '질구덕'.)

"대구덕, 질구덕. 옛날에사게 무시 거 구덕이 혼엇이 잇어서게. 경 허난 이것저것 다. 밧디 갈 때도 점심도 놩 경 가고, 경 헤난 거주기게."[42]
(대바구니, '질구덕'. 옛날에야 무슨 거 바구니가 많이 있었어. 그렇게 하니까 이것저것 다. 밭에 갈 때도 점심도 놔서 져서 가고, 그렇게 했던 거지.)

"저건 질구덕이엔 허는 거. 서답도 담아 뎅기고, 뽈레 뎅기는. 밧디 갈 때도 저거 무신 거 지엉 가주게. 저것에 점심 출려 놩."[43]
(저건 '질구덕'이라고 하는 거. 빨래도 담아 다니고, 빨러 다니는. 밭에 갈 때도 저거 무슨 거 지어서 가지. 저것에 점심 차려 놔서.)

### (2) 곤대구덕

'곤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를 촘촘하게 엮어서 결은 바구니다. 쌀이나 떡 등을 부조로 마련할 때 가는대바구니를 사용하였다. 〈사진 33〉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대소상 때 제물 떡을 넣어서 가져 다녔던 '곤대구덕'이다. '곤대구덕'은 지역에 따라서는 '가는대구덕'이라고도 한다. 가는대바구니는 남편 고춘권 씨가 결었다. 난산리 김성옥 씨는 가는대바구니를 가리켜 '곤대바구리'라고 하였다.


〈사진 33〉 김병생 씨 소장 '곤대구덕'

"곤대바구리. 영장 나민 고견 갈 때 떡 헤 놩 들렁 가는 거. 차반지에. 나 다 치와단 데껴벳주. 빙떡도 헹 가곡 만뒤도 허고 아무 거라도 다 헹 가주게. 그건 사둔칩이 부지나

42)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43)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아졍갈 때. 쏠 담앙 아졍 가는 거. 혼 말, 관뒈로 네 개. (사둔칩은)큰쏠로, 산뒤쏠. 요새 우리 밥 헤 먹는 거. 그거ᄀᆞ라 '큰쏠'이엔 허주. 관뒈로 네 개."[44]

(가는대바구니. 영장 나면 조문 갈 때 떡 해 놔서 들어서 가는 거. 채롱에. 나 다 치워서 던져버렸어. '빙떡'도 해서 가고 '만뒤'도 하고 아무 거라도 다 해서 가지. 그건 사돈집에 부조나 가져갈 때 쌀 담아서 가져가는 거. 한 말, 관되로 네 개. (사돈집은) 흰쌀로, 밭벼쌀. 요새 우리 밥 해 먹는 거. 그것보고 '큰쌀'이라고 하지. 관되로 네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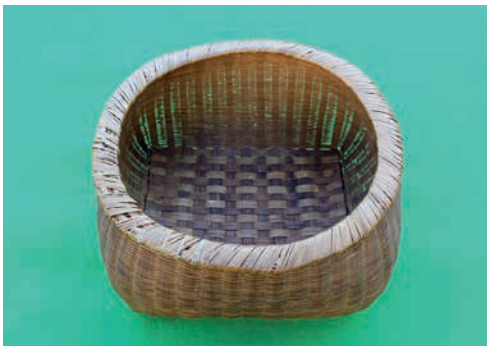


〈사진 34〉 강옥화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35〉 오애생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34〉는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사용하던 '고대구덕'이다. 쌀 한 말 분량의 크기다. 부조할 쌀을 자루에 넣고 가는대바구니에 담아서 지고 갔다. 〈사진 35〉는 수산2리 오애생 씨가 큰일 집에 갈 때 부조쌀을 담고 다니던 '고대구덕'이다. 〈사진 36〉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보관하는 '고대구덕'이다.



〈사진 36〉 현문자 씨 소장 '고대구덕'

"옛날에 그 떡, 요새 부지 가져근에 잔치 때나 소상 때 이것에 들렁 가주. 고대구덕도 나가 산 거. 쌀 놩 영 들르고, 또 떡도 놩. 큰일 나민 쏠 잘리에 쌍 놩 영 강. 쏠 혼 말(들

44)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어가). 이것에 놩 가민 또 밥 주민 밥 받앙 왕."[45]

(옛날에 그 떡, 요새 부조 가져서 잔치 때나 소상 때 이것에 들어서 가지. 가는대바구니도 내가 산 거. 쌀 놔서 이렇게 들고, 또 떡도 놔서. 큰일 나면 쌀 자루에 싸서 놔서 이렇게 가. 쌀 한 말 (들어가.) 이것에 놔서 가면 또 밥 주면 밥 받아서 와서.)

"옛날엔게 잔치밧디 돈부주가 없어주게. 보리쏠이민 보리쏠 생각헹 동성신디나 사둔집이나 헌 건 큰쏠 그거주게. 저거 고대구덕."[46]

(옛날에는 잔칫집에 돈부조가 없었지. 보리쌀이면 보리쌀 생각해서 동생에게나 사돈집에나 한 건 '흰쌀' 그거지. 저거 가는대바구니.)

〈사진 37〉은 온평리 현승자 씨(1947년생)가 당에 갈 때 쓰는 '바구니'다. 현 씨는 당에 갈 때 대바구니에 메, 구운 생선 등을 넣고 갔다고 한다.



〈사진 37〉 현승자 씨 소장 '바구니'



〈사진 38〉 현문자 씨 소장 '고대구덕'

"바구니. 저거 본향에 갈 때 가졍 가난 거. 메밥, 제숙 또 백지 ᄉᆞ는 거 그거 놓고. 고기 하나 굽고 경헨 이제 놓고 가는 거. 한집이 동산에. 동산에 집 하나 있는 거. 늙어부니까 남자 어른 그만두난 저 한림 산덴 그 심방 두갓이가 와. 본향굿, 한집이 가는 날에. 정월. 초일뤠 또 열일뤠. 바구니, 영등 지 들일 때. 멧밥허고 지 싸고 고기 굽곡 완전 옛날식이라."

(바구니. 저거 본향에 갈 때 가져서 갔던 거. 메, 제수 또 백지 사르는 거 그거 넣고. 고

45)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46)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기 하나 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 가는 거. 당에 동산에. 동산에 집 하나 있는 거. 늙어버리니까 남자 어른 그만두니까 저 한림 산다는 그 심방 부부가 와. 본향굿, 당에 가는 날에. 정월 초이레 또 열이레. 바구니, 영등 지 들일 때. 메하고 지 싸고 고기 굽고 완전 옛날식이야.)

〈사진 38〉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썼던 '고대구덕'이다. 제삿집에 갈 때 제주(祭酒)를 넣고 다니던 바구니다.

## 2.1.8. 기타

### (1) 밥통과 밥도리

'밥통'은 밥채롱을 대신하여 이용하였던 '찬합'의 일종이다. 밭에 다닐 때 여럿이 먹는 도시락으로 들고 다녔다. 〈사진 39〉는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오십여 년 전부터 사용하였던 '밥통'이다.



〈사진 39〉 오애생 씨 소장 '밥통'

"옛날 드르 갈 땐 이것에 펑 점심 아경 가곡 경 헤난 거주. 옛날은 밥차롱이엔 헤근에 두께 더끄고 헤영 헤낫주. 경 허단 ᄒᆞ쏠 시대가 바꽈져가난 또 이런 밥통, 밥차롱에 헨 뎅길 땐 이 밥통이 아니 난 때주게. 이건 밥통이엔 골앗주. 이거 오십 년 전이게 우리 아이덜 돌앙 밧디 뎅길 때난 우리 막내가 쉰, ᄋᆞ섯 번차 아이가 쉰셋인디게. 큰아덜이 육십ᄋᆞ섯. 거난 가네 돌앙 뎅길 때 허난 오십 년이 넘은 거주게."[47]

(옛날 들에 갈 때는 이것에 펴서 점심 가져서 가고 그렇게 했던 거야. 옛날은 밥채롱이라고 해서 뚜껑 덮고 해서 했어.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또 이런 '밥통'. 밥채롱에 해서 다닐 때는 이 밥통이 안 생길 때지. 이건 밥통이라고 했어. 이거 오십년 전에 우리 아이들 데려서 밭에 다닐 때니까 우리 막내가 여섯 번째 아이가 쉰셋인데, 큰아들이 예순여섯. 그러니까 걔네 데려서 다닐 때 하니까 오십 년이 넘은 거지.)

47)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밥벤또 대신 산 거난 밥통이엔 산 거주. 장에서 사신가. 이거 혼 사십 년 뒛주게. 이젠 그릇이 안 나와."[48]

(밥도시락 대신 산 거니까 밥통이라고 산 거지. 장에서 샀는가. 이거 한 사십 년 됐지. 이젠 그릇이 안 나와.)

〈사진 40〉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 있는 '밥통'이다. 현 씨는 여러 개의 밥통을 갖고 있었다. 밭농사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바쁜 농사철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였다.

"옛날에 우리 일 많이 허기 따문에, 사람을 막 하영 얻어 가지고 일을 허거든. 경 허민 점심도 담앙 가고 아침 안 먹은 사름 시민 아침도 담앙 가곡 그렇게 허는 그릇, 밥통."[49]

(옛날에 우리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아주 많이 얻어 가지고 일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점심도 담아서 가고 아침 안 먹은 사람 있으면 아침도 담아서 가고 그렇게 하는 그릇, 밥통.)



〈사진 40〉 현문자 씨 소장 '밥통'



〈사진 41〉 강정자 씨 소장 '밥도리'

〈사진 41〉은 난산리 강정자 씨가 장에서 사온 '밥도리'다. 강 씨는 '밥도리'에 밥이나 떡을 담아 벽걸이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 '밥도리'의 뚜껑은 촘촘하게 구멍 내어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졌다.

48)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49)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강)밥 담앙 놧당 쉬지 말게시리. (김)밥도리, 밥도리. 이거 옛날에 냉장고 엇인 적에 밥 이디 담아근에 건더운 디 돌아멧다근에 먹곡 떡도 담앙 놧당 먹고 허는 거. (강)쳥도 먹고. 집 안에 공젱이 걸어놔두주게. 시원헌 더레. 게난 이거 옛날은 막 사용허기가 좋게 헤낫주만은 이제사 하도 존 것덜 나오난."[50]

((강)밥 담아서 놨다가 쉬지 않게. (김)'밥도리', '밥도리.' 이거 옛날에 냉장고 없을 적에 밥 여기 담아서 시원한 데 매달아서 먹고 떡도 담아서 놨다가 먹고 하는 거. (강)쪄서도 먹고. 집 안에 걸이에 걸어놔둬. 시원한 쪽에. 그러니까 이거 옛날은 아주 사용하기가 좋게 했었지만 이제야 하도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 (2) 차판

'차판'은 운반도구로 표준어 '쟁반'에 해당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쟁반을 가리켜 일본어 '오봉'이라고도 하였다. 집집마다 쟁반은 크기 별로 여럿 갖고 있다. 〈사진 42〉는 난산리 이영생 씨(1934년생) 집에서 쓰고 있는 '차판'이다. 이 씨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쟁반이다.



〈사진 42〉 이영생 씨 소장 '차판'

"차판게. 이거 막 오래된 거. 아이고 이거 첫 번으로 사난 우리 집이 놀레온 사람덜은 이거 던져불주. 그자 썸시녠 날그라 곧주. 경 헤도 아까왕 못 던져."[51]

(쟁반이야. 이거 아주 오래된 거. 아이고 이거 첫 번으로 사니까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이거 던져버리지. 지금껏 쓰고 있냐고 나에게 말해. 그래도 아까워서 못 던져.)

〈사진 43, 44〉는 수산1리 김병생 씨가 잔치 때에 사용하였던 '오봉'이다. 김 씨는 자녀 모두 집에서 잔치를 치렀다고 한다. 특별히 쟁반이 더 많은 이유다. 네모난 쟁반은 집에서 메밀묵을 쒀서 굳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50)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51)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사진 43〉 김병생 씨 소장 '오봉'



〈사진 44〉 김병생 씨 소장 '오봉'



"이거 차판. 옛날에 차판 잔치 때 써난 거. 잔치 때 이걸로 다 설거지 허고 상에 거 날라오곡. 잔치헐 때. 이건 오래지 안 헷져. 제서 때 묵 써근에 저것에 놩 다라 대신 너부난 저것에 묵 쑨다 메밀묵."[52]

(이거 쟁반. 옛날에 쟁반 잔치 때 썼던 거. 잔치 때 이걸로 다 설거지 하고 상에 것 나르고. 잔치할 때. 이건 오래지 안 했지. 제사 때 묵 쒀서 저것에 놔서 대야 대신 넓으니까 저것에 묵 쑨다, 메밀묵.)

〈사진 45〉는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사용하는 '오봉'이다. 쟁반을 구입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인다.



〈사진 45〉 강옥화 씨 소장 '오봉'

## 2.2. 조리 도구

### 2.2.1. 솟

'솟'은 표준어 '솥'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솥을 3~4

52)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개 정도 두었다. 솥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머력솟, 말치솟, 동솟' 순으로 배열하였다. 크기가 제일 큰 솥은 오른쪽 웃머리에 둔다. 보통 물을 데울 때 사용하였다. '머력솟'의 크기는 두 말 또는 말가웃 정도 크기다. 보통 밥을 해 먹는 솥의 크기는 한 말 정도다. 한 말 크기의 솥은 '말치솟' 또는 '웨말짜리', '웨말치'라고 하였다. '말치솟' 옆에는 '동솟'을 둔다. '동솟'은 동제를 하는 솥이다. 동제는 보통 웃어른에게 밥을 따로 준비할 때 사용한다. 적은 양의 국을 끓일 때도 사용한다. 평소에는 국솥을 별도로 두고 쓴다.

"잘 살고 큰집이랑 헤 먹을 거 한 딘 여라 개 앚지고 아무리 엇어도 세 개까장은 앚져 주. 세 개 헷자 그때는 곤로도 엇고 가스도 엇으난 이 반찬 헐 건 족은 거 앚졍 검질도 숨아도 허주게. 게난 이런 거 큰 거 세 개 앚져자 그런 거 잇어사 허주."[53]

(잘 살고 큰집이어서 해 먹을 거 많은 데는 여러 개 걸고 아무리 없어도 세 개까지는 걸었어. 세 개 해봐야 그때는 곤로도 없고 가스도 없으니까 이 반찬 할 건 작은 거 걸어서 검불로 때서도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큰 거 세 개 걸어도 그런 거 있어야 하지.)

〈사진 46〉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쓰고 있는 '가메'다. 강 씨의 시댁인 오 씨 일가에서 큰일 때마다 돼지를 삶았던 가마솥이다. 요즘은 고사리를 삶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46〉 강옥화 씨 소장 '가메'

"이거는 우리 오칩 일가에서 큰일 때, 잔치 때나 영장 때 소상 때 이걸로 헹 뒈지 삶아낫주게. 요즘은 돼지덜 다 삶아당 허주만은 그때는 집이서 다 나무에 돼지 둘아메근에 죽여근에 여기서 다 삶앙 경 헤난 거주. 오칩 일가 많아나신디 이제는 얼마 안 남안. 다 떠나가부니까. 이거 궹장히 많이 들어. 혼 머리 다는 안 삶아도 반은 삶아질 거라, 아메도. 종손집은 아닌디 우리집에 보관헨 놧단 허니까 나가 사용하는 거. 요즘엔 뭐 쓸 용 엇으니까 창고에 가만히

53)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놧당, 고사리도 가스불에 삶단 아, 금년은 생각해보니까 나무덜도 막 많아 주위에. 게난 아, 우리 가마 잇는데 앚졍 (고사리를) 한 번 삶아볼까 헨, 궹장히 좋아. 혼 번에 혼 콘테나 반 정도 이거 삶아져."[54]

(이거는 우리 오 씨 일가에서 큰일 때, 잔치 때나 영장 때 소상 때 이걸로 해서 돼지 삶았었어. 요즘은 돼지들 다 삶아서 하지만 그때는 집에서 다 나무에 돼지 매달아서 죽여서 여기서 다 삶아서 그렇게 했던 거지. 오 씨 일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다 떠나버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 한 마리 다는 안 삶아도 반은 삶아질 거야, 아무래도. 종가는 아닌데 우리 집에 보관해 놨다가 하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 요즘에는 뭐 쓸 용 없으니까 창고에 가만히 놨다가, 고사리도 가스불에 삶다가 아 금년은 생각해보니까 나무들도 아주 많아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가마 있는데 걸어서 (고사리를) 한 번 삶아볼까 해서, 굉장히 좋아. 한 번에 한 콘테나 반 정도 이거 삶아져.)

〈사진 47, 48〉은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씨 부부가 사용하였던 솥이다. '무쉐솟'을 사용하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솥을 썼다. 〈사진 47〉의 솥뚜껑은 '무쉐솟'의 뚜껑이다. 항아리 덮개로 이용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한다. 김 씨 부부는 '아레미솟'에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였다. 아래가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사용하였다. 가스레인지가 나오면서 솥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해두고 있다.



〈사진 47〉 김두추 씨 소장 '이모노솟'과 '솟뚜껑'



〈사진 48〉 김두추 씨 소장 '아레미솟'

"(강)고사리도 숢고. (김)솟단지, 저거 큰 거 이모노 솟단지. 저 아랜 거멍헨. 따깡 놔

54)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뒀주기게. 막 그스린 거. 이거 그냥 국도 끌리고 반찬도 허고. 옛날에는 젤 처음에는 무쉐솟 했다가 무쉐솟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니까 이런 아레미솟을 썻거든. 견디 요즘은 가스 사용허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가스 나기 전이니까, 혼 삼십 년 뒛일 거라."[55]

((강)고사리도 삶고. (김)솥단지, 저거 큰 거 '이모노솥단지'. 저 아래는 까맣게 됐어. 닦아서 놔뒀어. 아주 그을린 거. 이거 그냥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 무쇠솥 했다가 무쇠솥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니까 이런 알루미늄솥을 썼거든. 그런데 요즘은 가스 사용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가스 나기 전이니까, 한 삼십 년 됐을 거야.)

〈사진 49〉는 난산리 이영생 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솟'이다. 결혼한 뒤 이 씨가 직접 구입한 것이다. 솥단지는 알루미늄으로 되었다. 솥뚜껑은 전에 쓰던 무쇠솥 뚜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50〉은 온평리 박종길 씨(1941년생) 집 마당 한편에 두고 사용하는 '솟'이다. 요즘은 고사리를 삶거나 개밥을 끓일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49〉 이영생 씨 소장 '솟'



〈사진 50〉 박종길 씨 소장 '솟'

〈사진 51〉은 오애생 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모노솟'이다.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 '이모노솟'을 여러 개 두고 썼다고 한다. 〈사진 52〉는 '이모노솟'단지에 '무쉐솟'의 뚜껑을 덮개로 쓰고 있다. 요즘은 주로 고사리를 삶는 용도로 쓴다.

55)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부부 구술.



〈사진 51〉 오애생 씨 소장 '솟'



〈사진 52〉 오애생 씨 소장 '솟'



"고사리 숢아난 거. 저것은 이모노솟. 옛날 것은 저런 것이 아니지게. 저 두께는 옛날 두께지. 이모노는 옛날 게 아니지. 옛날은 저추룩 앚졋주, 옛날은 돌로. 아니 저 이모노솟도 저추룩 앚질 때는 돌로 앚졋주게, 덕을. 옛날은 이런 거게 여라 개 앚졍 허단 버리난 이추룩 내불엇주."[56]

(고사리 삶았던 거. 저것은 주물솥. 옛날 것은 저런 것이 아니지. 저 뚜껑은 옛날 뚜껑이지. 주물은 옛날 게 아니지. 옛날은 저처럼 걸었지. 옛날은 돌로. 아니 저 주물솥도 저처럼 걸 때는 돌로 앉혔어, 봇돌을. 옛날은 이런 거 여러 개 걸어서 하다가 버리니까 이처럼 내버렸지.)

〈사진 53〉은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두말띄기 솥의 뚜껑이다. 솥뚜껑은 뒤집어서 '빙떡'을 지질 때도 썼다.



〈사진 53〉 강옥화 씨 소장 '솟두껑'

"큰일 때 이것에 국도 끓이고 밥도 허고 다 헤난. 두말떼기. 평소에는 잘 안 쓰주. 뭐 물 데왕 목욕헐 때 큰솟에서 허고. 큰일 때 상웨떡 치고. 여름에는 제사 때 상웨떡 헨 먹엇주. 길게 헤

56)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근엥 그 상에 올렷주게. 빗상웨, 빗상웨떡.”[57]

(큰일 때 이것에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다 했어. ‘두말떼기’. 평소에는 잘 안 쓰지. 뭐 물 데워서 목욕할 때 큰솥에서 하고. 큰일 때 상화 찌고 여름에는 제사 때 상화 해서 먹었어. 길게 해서 그 상에 올렸어. ‘빗상웨’, ‘빗상웨떡’.)

〈사진 54〉는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무쇠솥의 뚜껑이다. 솥뚜껑의 손잡이 부분이 길게 만들어졌다.

“솟두껑, 옛날에 솟 더꺼난 거. 돌 세 개 영 놔근에게 솟 앚져낫주. 솟덕 앚졍 무쉐솟에 이거 더껑 밑으로 불 때영 국도 끌리고 밥도 허고 다 허주.”[58]

(솥뚜껑, 옛날에 솥 덮었던 거. 돌 세 개 이렇게 놔서 솥 걸었었지. 봇돌 걸어서 무쇠솥에 이거 덮어서. 밑으로 불 때서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다 하지.)



〈사진 54〉 강옥화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5〉 강주호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5〉는 강주호 씨(1962년생) 집 마당에 있는 솥뚜껑이다. 〈사진 56〉은 고대인 씨(1956년생) 집에 있는 솥뚜껑이다. 모두 무쇠솥의 뚜껑이다. 무쇠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 솥뚜껑은 항아리 덮개로 쓰고 있었다. 〈사진 57〉은 오애생 씨 집에 있는 솥뚜껑이다. 별다른 조리도구가 없던 시절에는 솥뚜껑을 뒤집어서 돼지기름을 바르고 ‘빙떡’이나 떡을 지졌다.

57)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58)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56〉 고대인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7〉 오애생 씨 소장 '솟두껑'



"흐린좁썰로 헤근에 그 중궤, 약궤떡을 멘들아. 그건 이 솟두껑에서, 솟두껑 가르쳐 놔근에 거기서 기름에 지져. 기름에 튀겻주게."[59]

(차좁쌀로 해서 그 중계, 약과를 만들어. 그건 이 솥뚜껑에서, 솥뚜껑 뒤집어서 거기서 기름에 지져. 기름에 튀겼지.)

## 2.2.2. 시리

'시리'는 떡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시루'의 제주어다. 검은굴에서 구워낸 '지세시리'를 사용하다가 후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시루를 많이 썼다. 제사나 대소상이 있으면 여자들은 부엌에서 불을 때면서 시루떡을 쪄냈다.

"우선은 제사 때에 시리떡 허젠 허민 시리가 잇어야지. 게난 보통 옛날에는 종손집이는 시리 엇으믄 놈의 집이 시리 제서 때에 빌어단 허기는 아주 불편헌 거주게. 요샌 떡집이 가민 다 사오주만은 어쨋든 자기 집이서 헤야 뒈니까. 큰 거, 족은 거 으라 질이주. 새 시대 나니까 이제 알미늄시리가 나오고 벨 거 다 요새 나왐주만은 그때는 지세시리랏주."[60]

(우선은 제사 때에 시루떡 하려고 하면 시루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종가에는 시루 없으면 남의 집에 시루 제사 때에 빌려다가 하기는 아주 불편한 거지. 요새는 떡집에 가면 다 사오지만은 어쨌든 자기 집에서 해야 되니까.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야. 새 시

59)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60)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대 되니까 이제 알루미늄시루가 나오고 별 거 다 요새 나오지만은 그때는 '지세시루'였지.)

## 2.2.3. 고소리

'고소리'는 표준어 '소줏고리'에 해당한다. '고소리술'은 솥에 차좁쌀로 만든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소주다.

"(김)좁쏠 헤근에 죽 쒀근에 누룩 꼴앙 허껑 놔두민 탁베기가 뒈는 거라. 게민 우이 발강헨 골라지민 청주가 뒈여. 청주 똘라 먹어 뒨에 그 나머진 그 솟디 고소리 헤근에 따까서 거 소주를 멘들앙. (고)가을 들어근에 겨울 뒈엉 곡식 장만허고 다 헤사 그거주. 전문으로 무신 장사용으로 헌 거 아니난에. 오메기 허영 돔는 것은 건 보신용, 그자 술 먹는 사름이나 시면은 먹젠 돔그는 거나. 우리도 가끔 돔가 먹주게."[61]

((김)좁쌀 해서 죽 쒀서 누룩 깔아서 섞어서 놔두면 탁배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빨강해서 가라앉으면 청주가 돼. 청주 따라서 먹어 두고 그 나머지는 그 솥에 고소리 해서 고아서 소주를 빚어서. (고)가을 들어서 겨울 되어서 곡식 장만하고 다 해야 그거지. 전문으로 무슨 장사용으로 한 거 아니니까. 오메기 해서 담는 것은 건 보신용, 그저 술 먹는 사람이나 있으면 먹으려고 담그는 거나. 우리도 가끔 담가 먹어.)

## 2.2.4. 고수왈

'고수왈'은 떡 같은 것을 찔 때 떡이 솥에 넣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치는 물건이다. 표준어 겅그레에 해당한다. 나무나 대나무, 철사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지역에 따라서 '떡징'이라고 하였다. 〈사진 58〉은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떡징'이다. 요즘은 시중에 파는 스테인리스나 양은 겅그레를 쓴다.



〈사진 58〉 고대인 씨 소장 '고수왈'

61) 수산1리 고춘권, 김병생 씨 부부 구술.

〈사진 59〉는 난산리 이영생 씨가 떡을 찌는 용도로 산 그릇이다. 〈사진 60〉은 신산리 고충삼 씨(194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다. 작은 양푼 모양의 그릇에 구멍을 직접 뚫어서 만들었다.



〈사진 59〉 이영생 씨 소장 '겅그레'



〈사진 60〉 고충삼 씨 소장 '겅그레'

"떡 쳥 먹는 거. 고수왈. 구녕 떠진 거 사단에. 아이고 그 고수왈 허기 전에는 아무거나 헤근에 물 올르지 말게시리 바타근에 떡 쳥 먹주게. 사발도 어퍼근엥아 무시 거 놩영 허고 헷주게."[62]

(떡 쪄서 먹는 거. '고수왈'. 구멍 터진 거 사다가. 아이고 그 '고수왈' 하기 전에는 아무거나 해서 물 오르지 말게끔 받쳐서 떡 쪄서 먹지. 사발도 엎어서 무슨 거 놔서 이렇게 하고 했지.)

〈사진 61〉은 수산2리 고영자 씨가 사용하는 찜통이다. 찜통은 시루를 대신한 도구로 간편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찔 수 있다. 맨 아래에는 물을 넣고 위로 두 단은 떡을 넣을 수 있다. 떡의 양에 따라 한 단 또는 두 단을 사용한다.



〈사진 61〉 고영자 씨 소장 '찜통'

62)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 2.2.5. ‘돔베’와 안반

‘돔베’는 평평한 나무판에 양쪽으로 낮게 발을 받쳐 만든 것이다. 보통 집에서 남자 어른들이 직접 만들어 썼다. 큰일 때 쓰는 도마는 일반 도마의 세 배 정도의 크기다. 떡반죽을 하거나 돼지고기를 썰 때 사용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부엌에서도 나무로 만든 작은 도마를 쓰는 사례가 많았다. 〈사진 62〉는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는 ‘돔베’와 ‘칼’이다. 〈사진 63〉은 신산리 강태웅 씨(1950년생) 집에서 사용하였던 ‘돔베’이다. 〈사진 64〉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쓰고 있는 ‘돔베’와 ‘칼’이다. 〈사진 65〉는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쓰고 있는 ‘돔베’와 ‘칼’이다. 이 도마는 사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저 돔베는 엿날도 잇엇어. 막 엿날도. 저것도 혼 삼십 년 뒛주. 칼은 혼 이십 년벳기 안 뒈고. 엿날 허던 건 내버려둬 허고. 저 돔베는 우리 막내 네 번차 아덜이 쉰아홉이주.



〈사진 62〉 김두추 씨 소장 ‘돔베’와 ‘칼’



〈사진 63〉 강태웅 씨 소장 ‘돔베’



〈사진 64〉 고정봉 씨 소장 ‘돔베’와 ‘칼’



〈사진 65〉 오애생 씨 소장 ‘돔베’와 ‘칼’

경 허난 저 돔베도 수십 년은 넘엇주.”[63]

(저 도마는 옛날도 있었어. 아주 옛날도. 저것도 한 삼십 년 됐지. 칼은 한 이십 년밖에 안 되고. 옛날 하던 건 내버려둬서 하고. 저 도마는 우리 막내 네 번째 아들이 쉰아홉이야. 그러니까 저 도마도 사십 년은 넘었어.)

〈사진 66〉은 고춘권 씨가 팽나무로 직접 만든 도마다. 큰일 때 쓰는 것으로 평소 부엌에서 쓰는 것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잔치나 대소상이 있으면 돼지고기를 써는 용도로 하루 종일 쓴다. 이 도마는 고 씨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에서 썼던 것이다. 육십 년 정도 된 것으로 도마에 좀이 쏠았다. 〈사진 67〉은 도마의 뒷면이다. 넓은 도마판을 균형있게 받칠 수 있도록 양쪽으로 길게 발을 박았다. 〈사진 68〉은 수산1리 고덕후 씨(1940년생) 집에서 썼던 도마다.





〈사진 66〉 고춘권 씨 소장 ‘돔베’(앞)



〈사진 67〉 고춘권 씨 ‘돔베’(뒤)

“돔베. 저건 큰일 때만 쓰는 거. 잔치 때나 대소상 때 그런 때만 쓰는 돔베고 부억에서 쓰는 돔베가 아니고. 제사 때 ᄀᆞ튼 때, 적헐 때 ᄀᆞ튼 때 궤기 써는 거. 저거 옛날에 막 좋은 것덜은 가시남 또 굴무기남 같은 거. 겐디 저것은 폭남 같애. 멘든 연도는 확실허게 모르크라. 아메도 혼 육십 년 이상은 뒀어. 자식덜 결혼헐 때 저것에서 다 고기 썰엇주게. 동네서도 빌어가고. 저런 큰 돔베가 매 집이 없어. 난 나냥으로 멘드니까 우리 집에 잇고 이렇게. 이거 다 나대로 멘들앗주.”[64]

63)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64) 수산 2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68〉 고덕후 씨 소장 '돔베'

(도마, 저건 큰일 때만 쓰는 거. 잔치 때나 대소상 때 그럴 때만 쓰는 도마고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고. 제사 때 같은 때, 적할 때 같은 때 고기 써는 거. 저거 옛날에 막 좋은 것들은 가시나무 또는 느티나무 같은 거. 그런데 저것은 팽나무 같아. 만든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어. 아무래도 한 육십 년 이상은 됐어. 자식들 결혼할 때 저것에서 다 고기 썰었어. 동네서도 빌려가고. 저런 큰 도마가 매 집에 없어. 난 나대로 만드니까 우리 집에 있고 이렇게. 이거 다 나대로 만들었어.)

## 2.2.6. 놋밥자

'밥자'는 '밥주걱'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한경면 지역에서는 주걱을 '우금'이라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성산읍 지역에서는 '밥자'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놋으로 만든 '놋밥자'와 나무로 만든 '남밥자'를 이용하였다. 뒤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걱이 나오면서 놋주걱은 자취를 감추었다.

"(김)밥자. 놋밥자가 잇어낫어. (고)밥자도 낭으로도 멘들앗주. 국자도 다 나무로 멘들앗고. 그때 시절엔 놋밥자가 많앗주만은 알미늄밥자도 만헷고. 놋밥자는 바로 이 쪼금 전에. 신식 나니까 알미늄이 많앗주게. 아주 옛날엔 나무로 멘들앙 남밥자."[65]

((김)주걱. 놋주걱이 있었어. (고)주걱도 나무로도 만들었지. 국자도 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때 시절엔 놋주걱이 많았지만 알루미늄주걱도 많았고. 놋주걱은 바로 이 조금 전에. 신식 되니까 알루미늄이 많았지. 아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주걱.)

〈사진 69, 70〉은 수산2리 강주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자'다. 제사 때 쓰던 놋

65) 수산2리 고춘권, 김병생 부부 구술.


〈사진 69〉 강주호 씨 소장 '놋밥자'(앞)


〈사진 70〉 강주호 씨 소장 '놋밥자'(뒤)



주걱으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그동안 강 씨의 형님이 보관하다가 올해 강주호 씨가 가져왔다고 한다.

"부모님이 썼던 거. 저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안 썼지. 그냥 보관해 있었던 거고. 그 외 그릇덜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옛날 사기그릇 썼는데 그 외 그릇덜은 전부 엇고."[66]
(부모님이 썼던 거. 저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안 썼지. 그냥 보관해 있었던 거고. 그 외 그릇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옛날 사기그릇 썼는데 그 외 그릇들은 전부 없고.)

## 2.2.7. 남국자

'남국자'는 나무로 만든 국자다. 통나무를 둥글게 파고 손잡이를 길게 하여 국이나 죽 따위를 잘 뜰 수 있게 하였다.

"남국자. 그건 아무나 못 만들주게. 그건 만드는 전문가안티 산 거주게, 장에서. 오래 쓰당 보난 깨어지곡. (국도 거리고) 다 헌 거주게. 영 들러보민 알아. 돔박낭은 무거와. 게난 이런 돔박낭으로 해갖고 방엣귀도 하고 다듬이 헐 때 그런 거. 다 헤낫주게."[67]
(나무국자. 그건 아무나 못 만들지. 그건 만드는 전문가한테 산 거야, 장에서. 오래 쓰다 보니까 깨지고. (국도 뜨고) 다 한 거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동백나무는 무거워. 그

66) 수산2리 강주호 씨 구술.
67)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부부 구술.

러니까 이런 동백나무로 해서 절굿공이도 하고 다듬이 할 때 그런 거 다 했었지.)

〈사진 71〉은 강정자 씨가 오일장에서 구입한 '남국자'다. 〈사진 72〉는 강정자 씨가 주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국자와 '남국자'다.


〈사진 71〉 강정자 씨 소장 '남국자'


〈사진 72〉 강정자 씨 소장 '남국자'와 '스뎅국자'

## 2.2.8. 남죽

'죽젓개'는 죽이나 범벅 따위를 저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이를 '남죽'이라고 하였다. 2017년 조사지였던 한경면 지역에서는 '베수기'라고 하였다.

〈사진 73〉은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씨 부부 집에서 사용하는 '남죽'이다. 고방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강 씨는 큰솥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할 때만 남죽을 꺼내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남죽은 김두추 씨가 동백나무로 직접 만들었다. 살림을 살면서 만든 것으로 오십 년이 넘었다.


〈사진 73〉 김두추 씨 소장 '남죽'

"(강)아 남죽, 남죽 잇주게. 남국자도 잇고. 옛날 건 버리고정을 안 허여. 게난 ᄀᆞ만이 놔뒀어. 옛날 거 또 잇당 보고 정도 허여. 저디 큰솟에 하영 헐 땐 그 국자로도 허영 젓곡 남죽으로도 허영 젓곡 허는 따문에 버리고정을 안 허여. (김)돔백낭 거. 돔백낭이 딱딱하고 깨끗허니까 돔백낭으로 전부 만들어. (강)돔박나무가 쎄주게, 쎄어. (김)나가 만든 거주게. (강)살림 살멍."[68]

((강)아 죽젓개, 죽젓개 있어. 나무국자도 있고. 옛날 건 버리고 싶지 안 해.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어. 옛날 거 또 있다가 보고 싶기도 해. 저기 큰솥에 많이 할 때는 그 국자로도 해서 젓고 죽젓개로도 해서 젓고 하는 때문에 버리고 싶지를 안 해. (김)동백나무 거. 동백나무가 딱딱하고 깨끗하니까 동백나무로 전부 만들어. (강)동백나무가 단단하지. 단단해. (김)내가 만든 거야. (강)살림 살면서.)

〈사진 74〉는 신산리 강유자 씨의 남편 고충삼 씨가 최근에 만든 '남죽'이다. 고충삼 씨는 집안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두루두루 직접 만들어 쓰고 있었다.



〈사진 74〉 강유자 씨 소장 '남죽'



〈사진 75〉 김병생 씨 소장 '밥남죽'

〈사진 75〉는 수산1리 김병생 씨가 집에서 사용하는 '밥남죽'이다. 모양은 '밥주걱'과 유사하다. 김 씨는 밥주걱과 죽젓개 두 가지 용도로 썼다.

"옛날게 남죽, 밥 젓어난 거. 옛날에 솟데 헐 때 가마솟데 헐 때게 영 젓어야지 눌어불

68)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씨 부부 구술.

민 안 되지. 밥남죽이엔 허주. 밥남죽. 남죽이엔 허주. 밥자. 이제도 가끔 잇당 써. 쓸 때 잇어. 명절 때 묵 쑬 때. 그런 거 훈 번 쓰주. 육지 간 샀어. 젊은 때. 사십 년 더 뒛주. 그 때는 이디 엇어낫주."[69]

(옛날 죽젓개, 밥 저었던 거. 옛날에 솥에 할 때 가마솥에 할 때 이렇게 저어야지. 눌어붙으면 안 되지. '밥남죽'이라고 해, '밥남죽'. 죽젓개라고 하지, 밥주걱. 이제도 가끔 있다가 써. 쓸 때 있어. 명절 때 묵 쑬 때. 그런 거 한 번 쓰지. 육지 가서 샀어. 젊을 때. 사십 년 더 됐어. 그때는 여기 없었어.)

## 2.2.9. 떡본

'떡본'은 '떡살'을 가리킨다. 나무로 만든 떡살은 대부분 소실되어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남아 있는 떡살은 '지름떡본'이다. 기름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한 뒤 떡살로 본을 떠서 기름을 충분히 넣고 지져낸 음식이다. 〈사진 76〉은 수산1리 김병생 씨 집에서 사용하는 '지름떡본'이다. 다른 떡살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었다. 〈사진 77〉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사용하는 '지름떡본'이다.



〈사진 76〉 김병생 씨 소장 '떡본'



〈사진 77〉 강옥화 씨 소장 '떡본'

"그거 옛날에 시장에서 사졋일 거여. 그거 지름떡 시작허난 쳇 번에 나온 거. 오랫져. 훈 사십 년 거즘 됨주게. (전에는) 손으로 만들앗어. 멥쌀로 만들 땐. 또 솔벤 절벤 다 떠

69)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둬근에 남은 걸로 동글락동글락허게 헤근에.”[70]

(그거 옛날에 시장에서 샀을 거야. 그거 기름떡 시작하니까 첫 번에 나온 거. 오래 됐어. 한 사십 년 거의 되고 있어. (전에는) 손으로 만들었어. 멥쌀로 만들 땐. 또 솔편, 절편 다 떠두고 남은 걸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찹쏠도게 산뒤 나룩 갈아낫주게. 밭벼 찹쌀. 경 헤가난 그 찹쏠허기 시작허난 홀 일 때에 그것이게 지름떡을 만들아시네. 산뒤가루 헤가멍.”[71]

(찹쌀도, 밭벼 갈았어. 밭벼 찹쌀. 그렇게 해가니까 그 찹쌀하기 시작하니까 할 일 때에 그것이 기름떡을 만들었어. 밭벼가루 해가면서.)



## 2.2.10. 기타

### (1) 박세기

‘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다. 표준어 ‘식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사진 78〉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항아리에 넣어서 쌀을 뜰 때 쓰는 ‘박세기’다.



〈사진 78〉 현문자 씨 소장 ‘항’과 ‘박세기’

“항에 쏠 담주, 무시 것에 담아. 잘리에 놓민 좀 일고. 항에 놩 딱 더꺼불민 좀도 안 일어. 박세기 쏠 거리는 박세기주게.”[72]

(항아리에 쌀 담지, 무슨 것에 담아. 자루에 놓면 좀 일고 항아리에 놔서 딱 덮어버리면 좀도 안 일어. 바가지 쌀 뜨는 바가지야.)

70)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71)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72)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 (2) 방에혹과 방엣귀

'방에혹'은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방아확'이다. 보통 '남방에' 가운데 박아서 썼다. 남방아는 썩어서 없어지거나 분실되어 찾아보기 어렵고, 돌로 된 방아확만 남아 있다. 〈사진 79〉는 수산2리 양정선 씨 집 마당에 둔 '방에혹'이다. 친정에서 쓰던 것을 칠년 전에 가져왔다고 한다. 친정은 성산읍 시흥리다. 〈사진 80〉은 온평리 현금옥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방에혹'이다.

"방에혹. 방에도 잇어낫주만은 다 치왕 데껴부난. 방엣귀도 문 앗아가벳어. 이디 놔두난. 이거 손지 물려주젠."[73]

(방아확. 방아도 있었지만 다 치워서 던져버리니까. 방앗공이도 전부 가져가버렸어. 여기 놔두니까. 이거 손주 물려주려고.)



〈사진 79〉 양정선 씨 소장 '방에혹'



〈사진 80〉 현금옥 씨 소장 '방에혹'



〈사진 81〉 현문자 씨 소장 '방에혹'(뒤)



〈사진 82〉 현문자 씨 소장 '방에혹'(앞)

73) 온평리 현금옥 씨 구술.

〈사진 81〉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방에혹'이다. 방에혹 윗면에 시멘트를 덧발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집 담벼락에 붙여 엎어 놓고 있었다.

'방엣귀'는 '남방에'에서 보리나 조 등의 곡식을 찧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보통 긴 몽둥이 모양으로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어 '방앗공이'에 해당한다. 〈사진 83〉은 난산리 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마께'다. 여기서 '마께'는 표준어 '공이'를 가리킨다.


〈사진 83〉 강정자 씨 소장 '마께'

### (3) 다라

'다라(たらい)'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과거에는 나무를 파서 만든 '도고리'를 사용하였다. 이후에 알루미늄,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재질의 대야가 나왔다. 또, 쓰임새에 따라 대야의 크기도 여럿이다.


〈사진 84〉 김두추 씨 소장 '다라'

〈사진 84〉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이모노 다라'이다. 제사 때 떡도 만들고 큰솥에 밥을 해서 퍼담는 그릇으로 썼다.

"옛날 이것에 떡도 허곡 밥도 푸고 옛날 살림 살이주."[74]
(옛날 이것에 떡도 하고 밥도 푸고 옛날 살림 살이지.)

〈사진 85〉는 난산리 이영생 씨가 사용하였던 '이모노 다라'이다. 떡 반죽을 할 때

74)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85〉 이영생 씨 소장 '다라'



〈사진 86〉 오남종씨 소장 '다라'

썼던 대야다. 요즘은 깨를 볶을 때 사용하고 있다. 까맣게 탄 흔적이 그대로 있다. 〈사진 86〉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다라'다.

"이건 다란디 이제 살림덜을 다 버리게 뒈난 이걸로 이건 꿰 보끄는 거. 이건 영 허민 밧끄더레 튀지도 안 허고 영 놔근에 이거 꿰 보끄는 거. 옛날에는 떡 허고 막 헤나신디 요즘은. 다 우리 손으로 떡 허멍 제살 지내나신디."[75]

(이건 대얀데 이제 살림들을 다 버리게 되니까 이걸로 깨 볶는 거. 이건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놔서 이거 깨 볶는 거. 옛날에는 떡 하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 우리 손으로 떡 하면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사진 87〉은 수산1리 김병생 씨 집 선반에 올려놓은 대야와 소쿠리들이다. 플라스틱 대야가 크기별로 여럿 있다. 김 씨는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양푼과 함께 대야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진 87〉 김병생 씨 소장 '다라'

"다라도 큰 다라. 엿날은이 제서 때

75)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나 멩질 때나 일가가 다 왕 먹젠 허민 큰 다라에 밥을 멧 번 펏져게. 혼 말 놔근에 허민. 동글락헌 다락에. 것도 삿단에 던져져불어신게."[76]

(대야도 큰 대야. 옛날은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일가가 다 와서 먹으려고 하면 큰 대야에 밥을 몇 번 폈어. 한 말 놔서 하면. 동그란 대야에. 것도 샀다가 던져져버렸네.)



〈사진 88〉김병생 씨 소장 '다라'



〈사진 89〉 현용언 씨 소장 '이모노다라'



〈사진 90〉 현태일 씨 소장 '고무다라'



〈사진 91〉박순자 씨 소장 '고무다라'

〈사진 88〉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대야를 항아리 덮개로 쓰고 있다. 〈사진 89〉의 대야는 신천리 현용언 씨(1937년생) 집 항아리 덮개다. 〈사진 90〉은 신천리 현태일

76)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씨(1932년생) 집에서 항아리 덮개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대야다. 〈사진 91〉은 신천리 박순자 씨(1953년생)가 항아리 덮개로 쓰고 있는 고무 대야다. 각기 다른 재질의 대야를 항아리 덮개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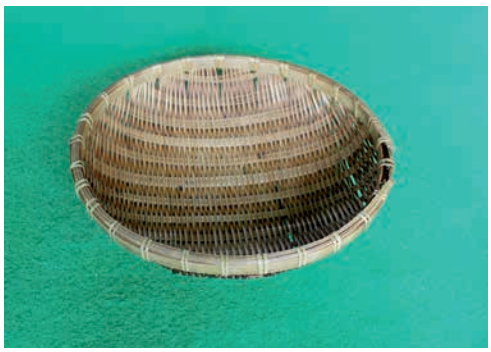
### (4) 소쿠리

'소쿠리'는 얇고 가늘게 쪼갠 대나 싸리 따위를 어긋나게 짜서 만든 그릇이다. 과거 제주에서 쓰던 소쿠리는 삼태기 모양이다. 떡을 만들어서 놓거나 채소를 씻어서 놓는 용도로 쓰인다. 〈사진 92〉는 수산2리 양정선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쿠리'다.


〈사진 92〉 양정선 씨 소장 '소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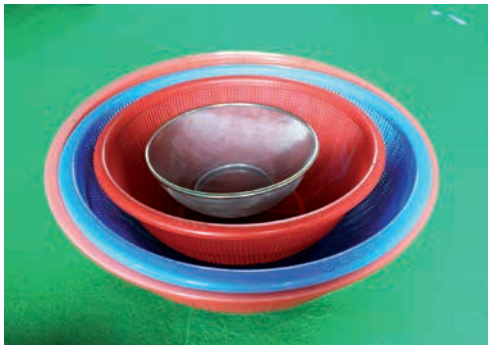
"(양)어무니가 써난 건디 막 오래된 거는 아닌 거 닮고. (강)이거 우리 어무니 요양원에 갈 때 다 정리허멍 저 항아리덜이영 우리 다 가져온 거주게."[77]

((양)어머니가 썼던 건데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닌 거 닮고. (강)이거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갈 때 다 정리하면서 저 항아리들이랑 우리 다 가져온 거야.)


〈사진 93〉 오애생 씨 소장 '소쿠리'


〈사진 94〉 고정봉 씨 소장 '소쿠리'

77) 수산2리 양정선, 강주호 씨 부부 구술.


〈사진 95〉 오애생 씨 소장 '소쿠리'


〈사진 96〉 고덕후 씨 소장 '소쿠리'

〈사진 93〉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쓰고 있는 소쿠리다. 근래에 구입하였다. 〈사진 94〉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쓰는 소쿠리다. 〈사진 95〉는 오애생 씨의 플라스틱 소쿠리다. 우묵하게 생긴 소쿠리는 삶은 채소나 국수 등 많은 양의 식재료의 물기를 뺄 때 쓴다. 〈사진 96〉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쓰는 소쿠리다. 생선 등을 말릴 때 주로 이용한다. 먼지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덮개도 함께 있다.

### (5) 기름틀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기 전에는 돌을 이용해서 압착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짰다. 수산2리 오남종 씨는 '안튀'에 있는 큰 동백나무에 긴 나무판을 놓고 위 아래로 압착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짰다고 한다. 〈사진 97〉은 오씨가 기름을 짤 때 지지했던 동백나무 밑동이다.


〈사진 97〉 '기름틀'로 사용했던 오남종 씨 집 동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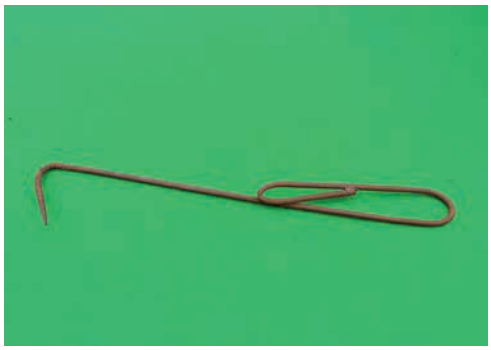
### (6) 장체

장체는 장을 거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특히 장체를 이용하면 간장을 뜰 때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덜어낼 수 있다. 〈사진 98〉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쓰고 있는 '장체'다.


〈사진 98〉 오애생 씨 소장 '장체'

"이건 나건디 오래지 안 헤서. 옛날은 이거 없엇어. 이건 장체주게. 이걸로 장 거리진 못 허곡 장항에 갓이엔 허영허영케 우이 덮어. 경 허민 이걸로 그런 거 걷어 불고 허는 거주. 그때는 숫구락으로 걷고 헷주, 옛날은. 장 둠으민 뒌장 물장 거 익으민 갈르주게. 경헐 때도 저거 영 받아서 물장을 다른 것덜에 거리지 안 허민 메쥐착도 물장에 떨어질 거 아니라게. 겨난 저걸로 영 물장 뚜로 갈르주. 갈롸놩 먹주. 경 헐 땐 저걸 받아서 물장을 거려놔야 물장이 깨껏허주게."[78]

(이건 생긴 지 오래지 안 했어. 옛날은 이거 없었어. 이건 '장체'야. 이걸로 장 뜨진 못하고 장독에 골마지라고 해서 하얗게 위에 덮어. 그렇게 하면 이걸로 그런 거 걷어 버리고 하는 거지. 그때는 숟가락으로 걷고 했지, 옛날은. 장 담그면 된장 간장 거 익으면 가르지. 그렇게 할 때도 저거 이렇게 받아서 간장을 다른 것에 뜨지 안 하면 메주 찌꺼기도 간장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로 이렇게 간장 따로 가르지. 갈라 놔서 먹어. 그렇게 할 때는 저걸 받아서 간장을 떠놔야 간장이 깨끗해.)


〈사진 99〉 고정봉 씨 소장 '갈고리'

### (7) 갈고리

갈고리는 끝이 뾰족하고 굽은 물건이다. 달리 '갈고랑이'라고 한다. 갈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갈공이'다. 〈사진 99〉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큰일 때에 솥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건지는 용도로 썼던 도구다. 성산읍에서는 이 도구의 정확한 명칭이 없었다.

"이거는 옛날 수십 년 전에 집에 초상 때 대상 때 소상 때 뒈지 잡고 솟 말고 가메에서 삶으면은 엿날 그 엿날에 호미 닮은 거 잇어. 김 매는 거 있잖아. 그걸로 툭 찍어서 설고

78)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익고 허는 걸 걸로 확인허는데, 이 손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긴 걸로 했어. 이걸로. 써 난 지 오랫어. 그때 이거 뭐라 그랬나."[79]

(이거는 옛날 사십 년 전에 집에 초상 때 대상 때 소상 때 돼지 잡고 솥 말고 가마에서 삶으면 옛날 그 옛날에 호미 같은 거 있어. 김 매는 거 있잖아. 그걸로 툭 찍어서 설고 익고 하는 걸 걸로 확인하는데 이 손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긴 걸로 했어. 쓴 지 오래 됐어. 그때 이거 뭐라 그랬나.)



## 2.3. 저장과 운반

### 2.3.1. 항류

(1) 항

'항'은 중간 부분이 부른 큰 독(瓮)이다. 물을 담으면 '물항', 장을 담으면 '장항', 보리쌀, 좁쌀 등 곡류를 넣으면 '쏠항'이라고 하였다.



〈사진 100〉 김병생 씨 소장 '항아리'

성산읍 지역에서 주로 이용한 항아리의 종류와 크기, 그 용도를 수산1리 고춘권, 김병생 씨 부부에게 들을 수 있었다. 곡식을 담는 큰 항아리는 한 섬 반 정도의 크기다. 물항아리는 보통 열다섯 '허벅' 정도 들이를 사용하였다. 물항아리는 보통 부엌에 하나를 두며, '통개'까지 포함하면 두 개 정도 놓고 썼다. '통개'는 두 '허벅' 정도 드는 크기다. '장항'은 두 '허벅' 반 짜리가 있었다. '장항'은 대정 항아리도 썼지만 대체로 육지 항아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오가리'는 단지보다 조금 큰 항아리로 한 '허벅' 정도 든다. 젓갈을 많이 하는 집은 '오가리'에 담기도 하였다. 젓갈을 담는 항아리는 보통 '단지'다. 단지는 한 두 되

79)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정도의 크기다. 제일 작은 것은 '조막단지' 또는 '장단지'라고 하였다.

〈사진 100〉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부엌에 두고 사용하였던 '물항'이다. 물항아리는 부엌 한 편에 두었다. 김 씨는 물항과 함께 '통개' 하나를 더 놓았다고 한다.

"물항 그릇. 정제에 놘에 거 큰 항, 혼 열다섯 허벅 드는 거. 혼 섬 반. 또 열 개 들은 항. 또 통갠 두 허벅 들은 거 그런 거 잇어낫주."[80]

(물항아리. 부엌에 놔서 거 큰 항아리, 한 열다섯 '허벅' 드는 거. 한 섬 반. 또 열 개 들은 항아리. 또 '통개'는 두 '허벅' 드는 거 그런 거 있었어.)

〈사진 101〉은 김두추, 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물항'과 '보리항'이다. 물항은 '공싯간'에 놔서 이용하였다. '공싯간'은 성산읍 지역에서 주거공간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부엌을 가리킨다. '보리항'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인 '고팡'에 두었다. 김 씨 부부는 육지항과 제주항 모두 사용하였다. 지금은 모두 부엌 밖으로 꺼내 솥뚜껑을 덮어서 보관하고 있다.



〈사진 101〉 김두추 씨 소장 '항아리'

"(김)옛날에 물 부억에 놔가지고 물 질어당 이디 부엇다가 그걸로 영 거리멍 먹엇낫주. 물항이주, (강)경 허고 또시 옛날에 보리, 보리 곹은 거 헨 놓고 그거주게. 물도 놓고. (김)경 허곡 곡식도 헤당 담앙 고팡에 놔근에 곡식 담앗당."[81]

((김)옛날에 물 부엌에 놔가지고 물 길어다가 여기 부었다가 그걸로 이렇게 뜨면서 먹었어. 물항아리지. (강)그렇게 하고 또 옛날에 보리, 보리 같은 거 해서 놓고 그거야. 물도 놓고. (김)그렇게 하고 곡식도 해다가 담아서 고방(庫房)에 놔서 곡식 담았다가.)

80) 수산1리 김병생 씨 구술.
81)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씨 부부 구술.


〈사진 102〉 강옥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03〉 강옥화 씨 소장 '장항'

〈사진 102, 103〉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 있는 항아리다. 강 씨는 항아리를 여러 개 두고 있었다. 대부분 시어머니 (故)고치아 씨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이거 물려받은 거. 우리 시어멍안티. 이거 서쪽 항아리라. 나도 항아리에 대해선 잘 모르는디 대정 항아리 무신 항아리 허는디. 저거는 장 담는 거라."[82]
(이거 물려받은 거.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거 서쪽 항아리야. 나도 항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대정 항아리 무슨 항아리 하는데. 저거는 장 담는 거야.)

〈사진 104〉는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썼던 제주 항아리다. 〈사진105〉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 창고에 있는 항아리다. 오 씨의 항아리는 육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부모님네 써난 거주. 장 담고, 뒌장 담고 다 저걸로 헷주. 이거 옛날 항입주게. 이제는 이렇게 존 게 안 나와."[83]
(부모님네 썼던 거지. 장 담그고, 된장 담그고


〈사진 104〉 고대인 씨 소장 '항'

82)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83)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다 저걸로 했어. 이거 옛날 항아리야. 이제는 이렇게 좋은 게 안 나와.)

"저건 육짓항. 아이덜 물장이나 아져 감베끼 안 혀단 나가 장 둠금 아주 설러분 건디가 오래연."[84]

(저건 육지항아리. 아이들 간장이나 가져가는 것밖에 안 하다가 내가 장 담금 아주 치워버린 지가 오래 됐어.)



〈사진 105〉 오애생 씨 소장 '항'

〈사진 106〉은 신천리 박순자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항아리다. 제주에서 만든 항아리다. 〈사진 107〉은 박순자 씨 집 옥상에 있는 항아리들이다. 육지에서 만든 항아리들이 많다. 박순자 씨가 처녀 적에 육지에서 항아리를 팔러 신천리 부두 일명 '개맛'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전라도 강진에서 와서 마을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항아리를 팔았다. 〈사진 108, 109〉는 신천리 현용언 씨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항아리와 현 씨가 살림을 살면서 마련한 항아리들이다.



〈사진 106〉 박순자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07〉 박순자 씨 소장 '항'

84)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08〉 현용언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09〉 현용언 씨 소장 '항'



"난 산 거 하나 없어, 다 시부모 허단 거. 시어머니 쓰단 거. 그냥 내벳단 저거 무슨 액 담앙 내베실 거라. 저거 잘도 오래연. 겐디 잘 뒛인ᄀᆞ라 안 숨어, 물이 안 숨어 저거. 저건 대정항. 우리 대정항 저거 ᄒᆞ나 셔."[85]

(난 산 거 하나 없어, 다 시부모 했던 거. 시어머니 썼던 거. 그냥 내버렸다가 저거 무슨 액 담아서 내버렸을 거야. 저거 아주 오래 됐어. 그런데 잘 됐는지 안 숨어, 물이 안 숨어 저거. 저건 대정 항아리. 우리 대정 항아리 저거 하나 있어.)

〈사진 110〉은 수산1리 고덕후 씨집 '안튀'에 묻은 항아리다. '안튀'는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터알이다.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김치나 식재료를 넣어서 보관하였다고 한다.



〈사진 110〉 고덕후 씨 소장 '김칫독'

"저기 땅 판에 요 항아릴 하나 묻었어. 옛날 냉장고 엇을 때는 이렇게 허면은 김치도 시지 않고 이거 김치통으로 사용, 이거 이거. 솟두껭이로 이거 항아리 두껑 사용허는 거주. 이것도 안튀는 오랫지. 냉장고 나기 전에니까 우리 어릴 적에. 이거 나가 묻

85)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은 거주, 나가 이것이 혼 오십 년 대쯤 묻었겠네, 오십 년도. 일름이 뭐 없어. 지금 말하면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했던 거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허면은 물건이 상하질 안 헤갖고 오래 간다고 해서 이거. 지금 말하면 저온을 시키는 거지. 김치 ᄀᆞ튼 거. 식재료. 먹을 음식 그런 거 뭐 헌 때. 버려불젠 허당 버려불지 안 헹 놔둬진 건데."

(저기 땅 파서 요 항아리를 하나 묻었어. 옛날 냉장고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김치도 시지 않고 이거 김치통으로 사용, 이거 이거. 솥뚜껑으로 이거 항아리 뚜껑 사용하는 거지. 이것도 '안튀'는 오래 됐어. 냉장고 나기 전에니까 우리 어릴 적에. 이거 내가 묻은 거야. 내가 이것이 한 오십 년 대쯤 묻었겠네, 오십 년도. 이름이 뭐 없어. 지금 말하면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했던 거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건이 상하지를 안 해갖고 오래 간다고 해서 이거. 지금 말하면 저온을 시키는 거지. 김치 같은 거, 식재료, 먹을 음식 그런 거 뭐 할 때. 버려버리려고 하다가 버려버리지 안 해서 놔둔 건데.)

〈사진 111〉은 난산리 오록생 씨(1924년생)가 집 처마 밑에 항아리를 두고 빗물을 받고 있다. 항아리 옆에는 대야를 놓고 빗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은 빗물은 빨래나 청소 등을 할 때 쓴다. 〈사진 112〉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 '안튀'에 있는 동백나무다. 수도를 걸기 전에는 이 동백나무에 '춤'을 매고 밑에 항아리를 두어 빗물을 받아서 썼다.



〈사진 111〉 오록생 씨 소장 '물항'



〈사진 112〉 고덕후 씨 집 '돔백낭'

### (2) 망데기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옹기다. 망데기는 김치를 담거나 장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사진 113〉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 있는 '망데기'다. 〈사진 114〉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 있는 '망데기'다. 모두 노랑굴에서 구운 제주 항아리다.



〈사진 113〉 고덕후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14〉 현문자 씨 소장 '망데기'

"장 담아난 건디 장 안 담으난 씻엉 어펑 내분 거. 우리 시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님 또 시어머님이 잇잖아. 게난 나에는 시할머니. 그 할머니네가 쓰단 거 우리 시어머니 쓰단에 대대로 내령 그냥 이디 잇인 거."[86]

(장 담갔던 건데 장 안 담그니까 씻어서 엎어서 내버린 거. 우리 시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님 또 시어머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할머니. 그 할머니네가 쓰던 거 우리 시어머니 쓰다가 대대로 내려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사진 115〉는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 있는 항아리다. 이 씨는 된장을 담그는 용도로 썼다. 콩 두 되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한다. 〈사진 116〉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다.

"이거는 장 같은 거 젓갈도 담고. 장 갈라근에 놀 때 된장 가튼 것도 담앙 먹고 간장도

86)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115〉 이영생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16〉 강옥화 씨 소장 '망데기'

담앙 먹고. 망데기."[87]

(이것은 장 같은 거 젓갈도 담고. 장 갈라서 놓을 때 된장 같은 것도 담가서 먹고 간장도 담가서 먹고. '망데기'.)

### (3) 조막단지

'조막단지'는 손주먹만큼 자그마한 단지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달리 '장단지'라고도 하였다. 보통 젓갈을 담그는 용도로 쓰인다.

〈사진 117〉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 있는 '조막단지'다. 보통 조막단지보다 조금 더 컸다.



〈사진 117〉 김두추 씨 소장 '조막단지'

"이건 오랜 거주. 단지, 조막단지. 저것엔 그자 장도 놓고 무시 거 그거주게, 옛날에사. 엿은 안 담아보고. 장허고 간장도 놀 때 잇고. 경 정 허멍 허당 이젠."[88]

(이건 오랜 거지. 단지, 조막단지. 저것에는 그저 장도 놓고 무슨 거 그거지. 옛날에야. 엿은 안 담아보고 장하고 간장도 놓을 때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87)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88)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118〉은 신산리 한대순(1946년생) 씨가 젓갈을 담글 때 사용하는 '조막단지'다. 한 씨는 단지에 젓갈을 담고 돌을 올려서 젓갈이 고루 잘 되게 하였다. 〈사진 119〉는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 있는 '조막단지'다.



〈사진 118〉 한대순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19〉 고대인 씨 소장 '단지'

"자리도 담곡게 멜첫도 담곡. 보통 그런 걸로 쓰는 거난. 자리젓 허민 대 헤다근에 붙지 말게 우이 삼발이로 허영 놓민 이 돌을 자리 꽉 들어강 우이 국물 뜨게. 돌, 자리젓 우이 덮언."[89]
(자리도 담그고 멜젓도 담그고. 보통 그런 걸로 쓰는 거니까. 자리젓 하면 대나무 해서 붙지 말게 위에 삼발이로 해서 놓으면 이 돌을 자리 꽉 들어가서 위에 국물 뜨게. 돌, 자리젓 위에 덮었어.)

### (4) 장테

'장테'는 장독을 덮는 뚜껑이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육지에서 생산된 항아리 뚜껑이 많았다. 또 플라스틱이나 고무 대야를 활용하거나 솥뚜껑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사진 120〉은 난산리 오록생 씨가 쓰는 '장테'다. 〈사진 121〉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장을 담근 항아리에 덮은 '장테'다. 육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것은 육지 장테고 대정 장테 이추룩 안 헤영 벌겅허주. 이것은 육지서 나온 거고. 옛날은 대정서 그릇을 만들엇주게. 항도 만들고 장테도 만들고."[90]

89) 신산리 한대순 씨 구술.
90)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20〉 오록생 씨 소장 '장테'



〈사진 121〉 오애생 씨 소장 '장테'

(이것은 육지 장태고 대정 장태 이처럼 안 해서 벌겠어. 이것은 육지서 나온 거고. 옛날은 대정서 그릇을 만들었어. 항아리도 만들고 장태도 만들고.)

〈사진 122〉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 있는 항아리들이다. 된장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면보자기를 먼저 덮고 그 위로 장태를 덮었다. 〈사진 123〉은 수산1리 김병생 씨 집에 있는 '단지'다. 장태의 모양이 편평하다. 〈사진 124〉는 현문자 씨가 썼던 항아리와 장태 대용으로 쓴 솥뚜껑이다. 〈사진 125〉는 신천리 박순자 씨가 사용하는 장태다. 장태가 깨질까 봐 돌을 올려놨다.

"저건 장항두껑이라고 항에 더끄는 거. 솟에 쓰난 건디 솟이 없어져부난 저거 쓸 것이 엇이난 장항 두껑으로 썻주. 원래 장항 뚜껑 헤난 게 없어. 우리 시어머님이 계실 때 다



〈사진 122〉 고정봉 씨 소장 '항아리'와 '장테'



〈사진 123〉 김병생 씨 소장 '장테'


〈사진 124 〉 현문자 씨 소장 '장항'과 '솟뚜껑'


〈사진 125〉 박순자씨 소장 '장테'

부셩 데껴분 모냥이라. 낭으로 헌 건디, 나무 판자로 만든 건디 없어졋어."[91]

(저건 '장항뚜껑'이라고 항아리에 덮는 거. 솥에 썼던 건데 솥이 없어져버리니까 저거 쓸 것이 없으니까 장항아리 뚜껑으로 썼어. 원래 장항아리 뚜껑했던 게 없어. 우리 시어머님이 계실 때 다 부셔서 던져버린 모양이야. 나무로 한 건데, 나무 판자로 만든 건데 없어졌어.)

### (5) 약탕기

'약탕기'는 탕약을 달이는 데 쓰는 질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사진 126〉은 수산1리 김병생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약탕기'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밖에 꺼내어 놓았다.


〈사진 126〉 김병생 씨 소장 '약탕기'

## 2.3.2. 허벅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좁은 동이다. 쓰임새에 따라 아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물을 길어 나르는 '물허벅', 술을 담는 '술허벅', 죽을

91)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담는 '죽허벅', 씨를 담아 두는 '씨허벅' 등이 있다. '허벅'을 '허베기'라고도 하였다.

'물허벅'은 수도 시설이 되기 전까지 여자들이 매일 물을 길어 나를 때 썼다. 난산리 김두추 씨는 어머니가 신산리까지 가서 '허벅'에 물을 길어왔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마차를 동원해 '허벅'을 여러 개 실고 가서 봉천수를 길어왔다. 뿐만 아니라 성산읍 지역은 물을 얻기 위해서 집 '안튀'에 '춤항'을 두었다. 동백나무에 '새(띠)'를 꼬아서 항아리에 빗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물을 받았다. 이 물을 '춤물'이라고 한다.


〈사진 127〉 김두추 씨 집 안튀 '동백나무'

"아부지 신 때부터 이거 이신 거난에 오랜 거주게. 옛날에는 물 귀헤 가지고 우리 어무니들은 이 허벅에 헨에 등 져가지고 신산리꺼지 강 져당 먹곡. 경 허당 버치면은 중간에 마차에 허베기 여남은 개 시꺼 앚앙 가근에 신산리도 강 시꺼오고 저 우이 강 봉천수 받은 거 거 물 고운 거 그것도 시꺼다근에 먹곡 헤낫주. 옛날에 물이 어디셔서. 이 돔백낭에 춤이렌 헤근에 새로무꺼근에 그 항아리 받앙 그 물 누리면은 그것도 먹어나고. 춤물. 돔백낭이 전부 춤 메낫주게. 춤 메엉 항에 물 받앙 수도 오기 전까지 먹엇주. 혼 육십 년 뒈언. 이거 다 받안 우리 물 먹엇주, 이거 다. 춤 멜 때 다른 낭도 허주만은 돔박낭이 깨껏허고 또 이중으로 쓸모가 잇주게. 돔백도 나면은 떨어지면은 그거 따근에 기름도 빵 먹곡. 옛날 동백 기름베낀 무슨 기름이 엇엇주게. 동백지름 하영 먹곡, 머리에도 불르고. 돔박낭이 전부 이용 가치가 좋으니까 돔박낭을 하영 심엇주게. 거기 바람 불면 바람 방풍도 뒈고."[92]

(아버지 있을 때부터 이거 있는 거니까 오랜 거지. 옛날에는 물 귀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 '허벅'에 해서 등 져가지고 신산리까지 가서 져다가 먹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마차에 '허벅' 여남은 개 싣고 가서 신산리도 가서 실어 오고 저 위에 가서 봉천수 받은 거, 거 물 고운 거 그것도 실어다가 먹고 했어. 옛날에 물이 어디 있었어. 이 동백나무에 '춤'이라고 해서 띠로 묶어서 그 항아리 받아서 그 물 내리면 그것도 먹었고. '춤물'. 동백나무가 전부 '춤' 맸었지. '춤' 매서 항아리에 물 받아서 수도 오기 전까지 먹었지. 한 육십 년

92)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됐어. 이거 다 받아서 우리 물 먹었어. 이거 다. '춤' 맬 때 다른 나무도 많지만 동백나무가 깨끗하고 또 이중으로 쓸모가 있어. 동백도 나면 떨어지면 그거 따서 기름도 짜서 먹고. 옛날 동백기름밖에 무슨 기름이 없었지. 동백기름 많이 먹고, 머리에도 바르고. 동백나무가 전부 이용 가치가 좋으니까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지. 거기 바람 불면 바람 방풍도 되고.)


〈사진 128〉 '춤'을 맸던 고덕후 씨 집 '동백나무'

"춤 메낫주. 이 남에도 이거 다 춤 메난 낭이라. 이거 옛날에, 옛날 수도 안 날 때 이추룩 안튀에 돔박낭을 싱거서 키와 놓면은 그거 물 받기 목적으로 심어낫주. 지금 이렇게 수도가 뒐 줄 몰라갖고 물 받기 목적으로. 춤 여기 새띠 영 헹 메난. 항아리 영 놓곡 헹 물 누려가게시리. 이 수도 나기 전이까지는 춤 멩 사용을 헷는데. 그거 멧 년도고? 이 수도 나건 디가 혼 육십 년도 뒈야 수도 나실 건데. 한 오십 년도 말, 오십 년도 말까지는 춤 멘 거 항아리에 받앙 먹엇지. 동백낭이 깨끗허지, 깨끗해. 다른 낭이랑 틀려. 춤 받는 건 동백낭이."[93]

('춤' 맸었지. 이 나무에도 이거 다 '춤' 맸던 나무야. 이거 옛날에, 옛날 수도 안 날 때 이처럼 '안튀'에 동백나무를 심어서 키워 놓으면 그거 물 받기 목적으로 심었었지. 지금 이렇게 수도가 될 줄 몰라갖고 물 받기 목적으로. '춤' 여기 띠 이렇게 해서 맸었어. 항아리 이렇고 놓고 해서 물 내려가게끔. 이 수도 나기 전에까지는 '춤 매서 사용을 했는데. 그거 몇 년도니? 이 수도 나온 지가 한 육십 년도 돼야 수도 났을 건데. 한 오십 년도 말, 오십 년도 말까지는 '춤' 매서 거 항아리에 받아서 먹었지. 동백나무가 깨끗하지, 깨끗해. 다른 나무랑 달라. '춤' 받는 건 동백나무가.)

## 2.4. 제기(祭器)

'제기'는 제례(祭禮)에서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다. 제사음식은 메와 갱, 떡,

93)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적(炙), 채소, 전을 중심으로 차린다. 보통 제기는 일상 식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된 제기를 쓰고 있었다.

### (1) 멧그릇, 겡그릇

'메'와 '갱(羹)'은 제사 때에 신위 앞에 올리는 밥과 국이다. 스테인리스 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놋이나 나무로 만든 제기를 사용하였다. 보통 가정에서는 일상 식기로 놋그릇 사용은 드물다. 〈사진 129〉는 난산리 김두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으로 된 '멧그릇'이다. 부모님이 제기로 쓰던 것을 제사와 함께 물려받았다. 김 씨는 근래에 며느리에게 제사를 물려주면서 놋제기는 그대로 두고 새 것으로 사주었다. 놋그릇은 속돌이나 재로 해서 닦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사진 130〉은 김 씨 집에서 보관하는 놋제기다. '멧그릇'과 '겡그릇'이다.

"(강)놋그릇이지. 제기로 쓰단에 이젠 메누리 물려가난에 이건 안 허고 새로 사줘비언. (김)아버지 산 때에 산 거. (강)이거 오랫주. 멧그릇 겡사발 헤낫주. 엿날은 겡사발. (김)멧그릇 겡그릇 헤낫주게. 크기가 하난 크고 하난 족고. 혼 번에 사질 안 헹 두 번에 사부니까 시기별로 크기가 뚜나게 나와부난. 이거 혼 백년 뒛일 거라. 기자 관린 뭐 제 때 써나민 잘 다까그네 들여놓으민 걸로 끝이주. 힘들지게, 이거는 수세미로 씻엉은 안 뒈어. 긁어정. 헹주로. 게난 다끌 때는 재로 허고 이거 또시 바당에 가근에 속돌이엔 헌 거 주워다근에 방에혹에 뿟앙 체로 쳐근에 그 ᄀᆞ루로도 다까나곡 재로도 허영 다끄고."[94]



〈사진 129〉 김두추 씨 소장 '멧그릇'



〈사진 130〉 김두추 씨 소장 '멧그릇'과 '겡그릇'

94) 난산리 김두추, 강정자 씨 부부 구술.

((강)놋그릇이지. 제기로 쓰다가 이제는 며느리 물려가니까 이건 안 하고 새로 사줘버렸어. (김)아버지 살 때에 산 거. (강)이거 오래 됐어. '멧그릇' '겡사발' 했었지. 옛날은 '갱사발'. (김)'멧그릇' '갱그릇' 했었어. 크기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한 번에 사지를 안 해서 두 번에 사버리니까 시기별로 크기가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한 백년 됐을 거야. 그 저 관리는 뭐 제 때 쓴 뒤에 잘 닦아서 들여놓으면 걸로 끝이지. 힘들지, 이거는 수세미로 씻어서는 안 돼. 긁혀. 행주로 그러니까 닦을 때는 재로 하고 이거 다시 바다에 가서 속돌이라고 한 거 주워서 방아확에 빻아서 체로 쳐서 그 가루로도 닦았어. 재로도 해서 닦고.)



〈사진 131〉은 김병생 씨가 제사와 함께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멧그릇'과 '겡그릇'이다. 김 씨는 열아홉에 결혼하고 스물셋에 제사를 물려받았다.



〈사진 131〉 김병생 씨 소장 '멧그릇'과 '겡그릇'

"(김)그거 막 오랫져. 막 옛날 거. 완전 엿날 거. (고)저것도 물린 거. 부모, 우리 아버지네가 제사 때에 허단 거 우리가 물린 거주게. (김)식게 혼 번 허렌 허멍 물려준 거 이거. (고)아멩해도 한 삼십 아니, 삼십 전이 물렷구나. (김)나양 스물셋에. 나 열아홉에 왓주, 시집을. (고)놋사발. 아 건 겡사발. 아 이건 멧사발, 국 거리는 건 겡사발. 우린 미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살 우리가 헷주게. 게난 하나 물린 거주게. (고)저붐도 잇엇고, 수꾸락도 잇었고. (김)그것도 물렷주만은 어디사 들어가신지 몰라. 건 엇어졋어. (고)젱반 ᄀᆞ튼 거 그때 헤난 건 다 물렷주게. (김)(낭쟁반은)다 던져비엇주게."[95]

(김)그거 아주 오래 됐어. 아주 옛날 거. 완전 옛날 거. (고)저것도 물린 거. 부모, 우리 아버지네가 제사 때에 하다가 거 우리가 물린 거지. (김)제사 한 번 하라고 하면서 물려준 거 이거. (고)아무래도 한 삼십 아니, 삼십 전에 물렸구나. (김)나 스물셋에, 나 열아홉에 왔어, 시집을. (고)놋사발. 아 거는 갱사발. 아 이거는 멧사발, 국 뜨는 거는 갱사발. 우리는 미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 물린 거야. (고)젓가락도 있었고, 숟가락도 있었고. (김)그것도 물렸지만 어디에 들어갔는지 몰라. 거는 없어졌어. (고)접시 같은 거 그때 했던 거 다 물렸어.(김)(낭쟁반은)다 던져버렸어.)

95) 수산2리 고춘권, 김병생 씨 부부 구술.

〈사진 132〉는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쓰는 스테인리스 제기다. 강 씨가 삼십 년 전쯤 구입하였다.


〈사진 132〉 강옥화 씨 소장 '멧그릇'과 '겡그릇'

"이건 사건 디 오랜 거주 이거는. 이거는 나 시작허니까 산 거니까 한 삼십 년 된 거고."[96]

(이건 산 지 오래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나 시작하니까 산 거니까 한 삼십 년 된 거고.)

### (2) 놋숟가락


〈사진 133〉 현문자 씨 소장 '젯숟가락'

〈사진 133〉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제사 때 쓰는 '젯숟가락'이다. 숟가락의 잎 모양이 가느스름하고 자루도 보통 것보다 길다. 이 놋숟가락은 제사 때에만 꺼내어 쓰고 있다. 특별히 윗대 할아버지 상에만 올린다고 한다.

"우리 시어머님 때서부터 놋그릇이 없어졌어. 우리 시어머님 살렴헐 때 이 놋그릇이 공출이 잇어낫어, 게난 그때에 다 씰언 보내분 거라. 게난 나가 큰메느리고 종손 각시라도 놋그릇 하나 물려받지 못헌 거라. 다 공출헤부난. 놋숟갈 하나쯤 이실 건디. 이거 옛날 종손칩베끼 엇는 거. 젯수꾸락. (젓가락도) 이 길이 잇어신디 엇어져서 그것도. 저거 써. 상에 영 놓거든. 우리 상 받으민 숫구락 놓듯이 놧다근에 제 지내게 뒈면 저 숫구락을 밥그릇에 꼽아. 겡 꼽앗다근에 이 숭늉이나 허게 뒈면 저 숫구락으로 밥을 떠서 물러레 놔근에 그 숭늉을 버리는 거. 저붐은 없어부니까 그냥 우리 저 저붐 그냥 써. 웃대하르방신디 놓지. 식게 때는 그냥 일반 수저로 다 놓고 저 수저는 아무 때나 안 써. 멩질 때

96)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나 그 웃대 하르방 모실 때만 쓰는 거주. 바다에 가면 저 속돌이엔 헌 거 잇어. 북삭북삭 헌 속돌. 그거 헤근에 가루 내여근에 그걸로 다끄지. 쓰게 뒈민 바당 갓다가 줏엉 와근에 놧당 또 그걸로 따까나면 버려불고. 옛날엔 재, 불 솜아난 솟강알 재 헤근에 따깟주. 경 헌디 난 재론 안 다까봤어. 속돌로만 허고."[97]

(우리 시어머님 때부터 놋그릇이 없어졌어. 우리 시어머님 살림할 때 이 놋그릇이 공출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에 다 쓸어서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큰며느리고 종손 각시여도 놋그릇 하나 물려받지 못한 거야. 다 공출해버리니까. 놋숟가락 하나쯤 있을 건데. 이거 옛날 종가밖에 없는 거. '젯숟가락'. (젓가락도) 이 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것도. 저거 써. 상에 이렇게 놓거든. 우리 상 받으면 숟가락 놓듯이 놨다가 제 지내게 되면 저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아. 그렇게 해서 꽂았다가 이 숭늉이나 하게 되면 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물에 놔서 그 숭늉을 버리는 거. 젓가락은 없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젓가락 그냥 써. 윗대 할아버지께 놓지. 제사 때는 그냥 일반 수저로 다 놓고 저 수저는 아무 때나 안 써. 명절 때나 그 윗대 할아버지 모실 때만 쓰는 거지. 바다에 가면 속돌이라고 한 거 있어. 폭삭폭삭한 속돌. 그거 해서 가루 내어서 그걸로 닦지. 쓰게 되면 바다 갔다가 주워 와서 놨다가 또 그걸로 닦아내면 버려버리고. 옛날에는 재, 불 때난 솥 아래 재 해서 닦았지. 그런데 난 재론 안 닦아봤어. 속돌로만 하고.)



〈사진 134〉 강주호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135〉 강정자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134〉는 수산2리 강주호 씨 부모님이 쓰던 '놋숟가락'이다. 그동안 형님이 갖고 있다가 올해(2018년) 강 씨의 집으로 가져왔다. 모두 8개다. 이 놋숟가락은 어머

97)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제사 때에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135〉는 난산리 강정자 씨 집에서 제사 때 쓰는 놋숟가락이다. 놋숟가락은 모두 8개다.

"이거 두 번 나시만 헹 저 두 개만 써낫주. 쒜가 좋은 건 곱고 ᄒᆞ쏠 무시 거 헌 건 색깔이 허곡. 옛날은 어디사 간 사신디 몰라."[98]
(이거 두 번 몫만 해서 저 두 개만 썼어. 쇠가 좋은 건 곱고 조금 무슨 거 한 것은 색깔이 하고. 옛날은 어디에 가서 샀는지 몰라.)

### (3) 술잔, 잔대

제기로 쓰는 술잔은 술을 올리는 용도로만 이용된다. '잔대'는 잔을 받치는 접시 모양의 그릇이다. 〈사진 136〉은 김병생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술잔'이다. 스테인리스 술잔을 이용하고 있었다. 술잔은 조상 수만큼 올린다.


〈사진 136〉 김병생 씨 소장 '술잔'

"건 잔이엔 헷주. 잔이엔 헷는데 보통 웨잔, 쌍잔. 삼인이민 그 잔을 세 개 또 둘리민, 부부면 두 개 또 혼자면은 웨잔."[99]
(건 잔이라고 했어. 잔이라고 했는데 보통 외잔, 쌍잔. 세 사람이면 그 잔을 세 개 또 둘이면 부부면 두 개 또 혼자면 외잔.)

### (4) 정반

'정반'은 반찬이나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다. '정반'은 쓰임새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제사상에 떡이나 과일, 전 등을 올리는 정반은 아래 받침대가 있다. 파제 후에 여러 음식을 골고루 담아서 나눠주는 '떡반'은 납작한 접시를 썼다. 이 접시를 '사라(さら)'라고도 하였다.

98)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99) 수산2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137〉 현승자 씨 소장 '떡정반'



〈사진 138〉 현승자 씨 소장 '떡정반'



〈사진 139〉 고정봉 씨 소장 '정반'



〈사진 140〉 오애생 씨 소장 '정반'

〈사진 137, 138〉은 온평리 현승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떡정반'이다. 시루떡, 송편 등 떡을 올릴 때 주로 쓰고 있다.

〈사진 139〉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플라스틱 '정반'이다. 〈사진 140〉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썼던 '사라'다. 작은 접시는 전 종류를 올릴 때 썼다고 한다. 특별히 나무로 만든 접시는 '정반'이라고 하여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담았다.

"이건 사라주게. 이거게 제 때에라도 준 거 무시 거 지짐이라도 튀김덜 올려낫주게. 반태울 땐게 이보단 더 큰 거 정반이엔 허멍 지금은 반을 안 놧주만은 옛날은게 수정에 다. 옛날은 정반이엔 헷주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낭으로 만들엉 정반이엔 만들엇주. 경 헹 태와낫주."[100]

100) 수산 2리 오애생 씨 구술.

(이건 접시지. 이거 제(祭) 때에라도 작은 거 무슨 거 지짐이라도 튀김들 올렸어. 반기 나눌 땐 이보다 더 큰 거 '정반'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반기를 안 놓지만 옛날은 사람 수에 다. 옛날은 '정반'이라고 했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정반'이라고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나눴어.)

〈사진 141〉은 온평리 현승자 씨가 사용하였던 '정반'이다. 제사가 끝난 뒤 식구들에게 반을 나눠줄 때 썼다고 한다. 〈사진 142〉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썼던 '사라'다. 제사 음식을 올리는 용도로도 쓰였다.


〈사진 141〉 현승자 씨 소장 '정반'


〈사진 142〉 김성옥 씨 소장 '정반'

"사라. 정반은 나무로 된 거 정반이주. 나무로도 멘들아낫지."[101]
('사라', '정반'은 나무로 된 거 '정반'이지. 나무로도 만들었었지.)

### (5) 상합, 상돌, 촛대

'상합'은 제사 때 피우는 향을 담는 합이다. 표준어는 '향합'이다.

"상합 그건 나무로, 그때 나무로 멘들앗주. 나무로 멘든 것이 잇엇는디 그걸 옛날에 상합이엔 헷주."[102]

101)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102) 수산2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143〉 강옥화 씨 소장 '상돌'



〈사진 144〉 이영생 씨 소장 '향로'

(향합 그건 나무로, 그때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걸 옛날에 향합이라고 했어.)

'상돌'은 돌을 다듬어 만든 향로다. 근래에는 나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45〉 강옥화 씨 소장 '향로'

"그거 향로주게, 향로. 옛날엔 돌로 멘드난 그거 상돌이엔 헷주게."[103]
(그거 향로야, 향로. 옛날에는 돌로 만드니까 그거 '상돌'이라고 했어.)

〈사진 143〉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돌'이다. 강 씨는 이 '상돌'을 사용해보진 않았다고 한다. 〈사진 144〉는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쓰는 향로이다. 〈사진 145〉는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쓰고 있는 향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촛대와 함께 구입하였다. 이제 이십 년 가까이 되었다.

"상돌. 향 피우는 거주게. 제사 때는 다 이걸로 썻주게. 우린 안 써나신디 옛날 어른덜. 잘 모르겠는디 보이더라고 저 담 잇는 데. 여기서 써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고. 옛날에

103) 수산2리 고춘권 씨 구술.

저런 것에 다 썻지게. 저것에 불 피왕 저런 것에 다 헷주게. 상가지 헤근에 불 피울 때 졸게 헤근에 영 헤낫주."[104]

(돌향로, 향 피우는 거지. 제사 때는 다 이걸로 썼어. 우리는 안 썼었는데 옛날 어른들. 잘 모르겠는데 보이더라고 저 담 있는데. 여기서 썼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고. 옛날에 저런 것에 다 썼어. 저것에 불 피워서 저런 것에 다 했지. 향가지 해서 불 피울 때 잘게 해서 이렇게 했어.)



〈사진 146〉 강옥화 씨 소장 '촛대'



〈사진 147〉 이영생 씨 소장 '촛대'

〈사진 146〉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이십여 년 전에 구입한 '촛대'다. 〈사진 147〉은 난산리 이영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촛대이다. 제사에 사용하였던 초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 (6) 메물그릇

'메물'은 제사 때 상에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고사리, 콩나물 외에 시금치나 미나리 등 푸른 채소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올린다. '메물그릇'은 작은 접시나 보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메물'을 지역에 따라서는 '탕쉬'라고도 한다.

〈사진 148〉은 온평리 현문자 씨가 사용하는 '접시'다. 현 씨가 결혼한 뒤 제사를 맡으면서 구입한 제기다. 접시는 고사리 등 채소를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

104)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148〉 현문자 씨 소장 '접시'



〈사진 149〉 김성옥 씨 소장 '보시'



"그냥 접시. 이건 제서 때 고사리도 거령 올리고 채소 거령 올리고. 나가 다 산 거, 이거."[105]

(그냥 접시. 이거는 제사 때 고사리도 떠서 올리고 채소 떠서 올리고. 내가 다 산 거, 이거.)

〈사진 149〉는 난산리 김성옥 씨 집에서 '메물'을 담는 '보시'다. '보시'는 표준어 '보시기'에 해당한다. 보시기는 국물이 있는 반찬을 담는 데 쓰는 그릇이다. 김 씨는 보시기에 채소를 담아서 상에 올린다. 상에 올릴 때는 채소가 섞이지 않게 보시기 하나에 채소 하나를 담는다. 음복할 때는 세 가지 채소를 하나에 골고루 담아서 먹는다고 하였다.

"메물보시. 그 세 가지 그레 흔디 담을 때도 잇곡 지만썩 놓을 때도 잇곡. 올리는 건 지만썩 올리곡 먹을 때는 ᄀᆞ치 놩 먹곡 경 허는 거주."[106]

('메물보시기'. 그 세 가지 거기 함께 담을 때도 있고 자기만씩 놓을 때도 있고. 올리는 건 자기만씩 올리고 먹을 때는 같이 놔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 (7) 젯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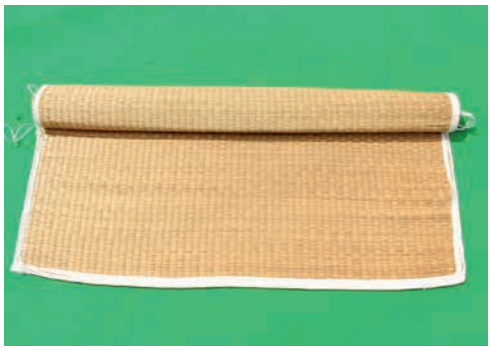
'젯자리'는 '제석(祭席)'을 말한다. 보통 '젯자리'는 집 안에서 제사 때 상 제일 앞에

105)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106)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깔아 둔다. 산소에서 제를 지낼 때도 절을 하는 위치에 펴서 쓴다. 〈사진 150〉은 신천리 현태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젯자리'다. 최근에 산소에 다녀오면서 쓰고 난 뒤 한편에 놓아두고 있었다. 제주시 오일장에서 구입한 제석이다.

"제사, 제사헐 때 밑에 깔아서 건 젯자리라고 해. 새 잇지, 새. 그거 다 비어다근에 다듬아 가지고 만든 거. 저것이 장에 강 사와부니까. 제주시 오일장에, 아이고 혼 이십 년 뒈신가. 오래 써실 거라. 혼 이십 년 써실 거라. 건 영 제사헐 때만 벌겼단 다까근에 몰앙 톡 놔두는 거. 요자기도 저거 산에, 산에 제 지내레 갔다 왕 저기 논 거야. 제사 때도 써."[107]

(제사, 제사할 때 밑에 깔아서 건 제석이라고 해. 띠 있지, 띠. 그거 다 베어다가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거. 저것은 장에 가서 사와버리니까. 제주시 오일장에. 아이고 한 이십 년 됐나. 오래 썼을 거야. 한 이십 년 썼을 거야. 건 이렇게 제사할 때만 폈다가 닦아서 말아서 톡 놔두는 거. 며칠 전에도 저거 산소에 제 지내러 갔다 와서 저기 놓은 거야. 제사 때도 써.)



〈사진 150〉 현태일 씨 소장 '젯자리'



〈사진 151〉 현문자 씨 소장 '젯자리'

〈사진 151〉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제사 때 쓰는 '젯자리'다. '젯자리'의 한쪽 가장자리가 헐어서 천을 덧대어 쓰고 있다. '젯자리'는 들에 있는 띠를 장만해서 짰다.

"바위 헐언. 다 헐어가난게. 이건 새, 밧디 새라고 잇잖아, 초석 짜는 새. 그걸로 만든 거."[108]

107) 신천리 현태일 씨 구술.
108)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가장자리 낡았어. 다 낡아가니까. 이거는 띠, 밭에 띠라고 있잖아. 초석 짜는 띠. 그걸로 만든 거.)

### (8) 적(炙)고지

'적고지'는 적을 꿰는 대고챙이다. 표준어 '적꼬치'에 해당한다. 〈사진 152〉는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제사 때 쓰는 대나무 '적고지'다. 대나무 적고지는 쓰고 난 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쓴다. 〈사진 153〉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제사 때 쓰는 '적고지'다.





〈사진 152〉 이영생 씨 소장 '적고지'



〈사진 153〉 강옥화 씨 소장 '적고지'

"이거 대로 된 거. 저거 적고지게. 저거 제ᄉᆞ헌 때게. 고기 영 꿰엉은에양 적 헹 올리는 거. 적고진 몃 개라도게 ᄋᆞ라 개라도 헤여근에 먹곡 올리곡 헐 거. 소고기에 뒈야지 고기에. 바당에 것도 잇당 허곡. 씻엉 물령 놔뒁당. 물렷당 허는 거."[109]

(이거 대로 된 거. 저거 적꼬치야. 저거 제사할 때에 고기 이렇게 꿰어서 적 해서 올리는 거. 적꼬치는 몇 개라도 여러 개라도 해서 먹고 올리고 할 거.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바다에 것도 있다가 하고. 씻어서 말려서 놔뒀다가. 말렸다가 하는 거.)

〈사진 154〉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쓰는 '적고지'다.

109)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이제도 쓰는 거. 제사 멩질 땐 이걸로 다 묵 꼬지 꿰여근에. 무물ᄀᆞ루로도 허고 밀카루로도 허고. 지져근에. 다섯 개(꽂아)."[110]

(이제도 쓰는 거. 제사 명절 때는 이걸로 다 묵 꼬치 꿰어서. 메밀가루로도 하고 밀가루로도 하고. 지져서. 다섯 개(꽂아).)



〈사진 154〉 현문자 씨 소장 '적고지'

### (9) 모세상

'모세상'은 제사 지낼 때, 향로나 향합을 놓는 상이다. 표준어 '향안(香案)'에 해당한다. 〈사진 155〉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쓰는 향안이다.



〈사진 155〉 현문자 씨 소장 '모세상'

"이거 제사 때 상합 놓는 상. 나 모르켜 무슨 상산디."[111]

(이거 제사 때 향합 놓는 상. 나 모르겠어 무슨 상인지.)

"모세상. 상 앞이 향 피우는 향로 놓는 상. 그 모살 올라가고 향로 놓고 거기 잔, 큰 잔, 첨잔 그거 허젠 허민 웨잔 큰 잔, 큰 거 잇주게. 그거 ᄒᆞ나."[112]

(향안. 상 앞에 향 피우는 향로 놓는 상. 그 모사를 올라가고 향로 놓고 거기 잔, 큰 잔, 첨잔(添盞) 그거 하려고 하면 외잔 큰 잔, 큰 거 있지. 그거 하나.)

110)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111)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112) 수산2리 고춘권 씨 구술.

# 3. 주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화다. 제주의 집은 전통 초가에서부터 슬레이트, 기와, 아파트까지 주거 양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주거 양식의 변화는 곧 전통 주거 관련 도구들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또 그 도구와 관련한 사람들의 삶과 언어와 문화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성산읍 지역의 주생활 관련 도구는 집 구조 가운데 특이한 명칭을 살펴본 후에 가재도구, 화로, 연장류, 집줄 관련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눠 기술하였다.

성산읍에서 도구를 조사하면서 새롭게 조사된 주거 관련 어휘는 '공싯간'이다. '공싯간'은 오늘날의 부엌으로 안채에 붙어 있는 곁채 한 쪽을 활용하고 있었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안채를 '안거리' 또는 '안집'이라고 하고, 바깥채는 '밧집'이라고 하였다. 별



〈사진 1〉 강태웅 씨의 '초집'



〈사진 2〉 김두추 씨 집의 '공싯간'

채에서 사용했던 '공싯간'이 불편하여 안채의 처마를 내어서 부엌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1〉은 신산리 강태웅 씨(1950년생)의 전통 초가로, 안채 왼쪽의 곁채다. 띠로 지붕을 이은 대신에 초가 위에 검은색 그물로 덮어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사진 2〉는 난산리 김두추 씨(1943년생)의 '공싯간'이다.


〈사진 3〉 김두추 씨 집의 '공싯간' 고방. 뒤쪽 벽면의 밝은 부분이 '창곰'이다.

또한 바람의 길목인 성산읍 지역의 주거는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주거 환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창고의 문은 '도당(함석)'을 이용하여 바람이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있었고, 바람에 물건이 날리지 않도록 돌을 이용하여 지지르거나 밧줄에 돌멩이를 매달아 바람을 막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다.

〈사진 4〉는 신산리 고충삼 씨(1943년생) 집에서 바람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는 돌멩이다. 바람이 불 때는 이 돌멩이에 밧줄을 매달아 지붕이나 문 따위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사진 5〉는 신천리 박순자 씨(1953년생) 집에서 건물 옆에 여러 물건들을 쌓아 놓고 날아가지 않도록 돌에 줄을 매어 고정시켜놓은 모습이다. 〈사진 6〉


〈사진 4〉 고충삼 씨 집의 '바람막이 돌멩이'


〈사진 5〉 박순자 씨가 바람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돌멩이'



〈사진 6〉 박순자 씨 집 통 위의 '돌멩이'



〈사진 7〉 고봉심 씨 장독대 위의 '돌멩이'

은 박 씨 옥상에 놓여 있는 통 뚜껑이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를 얹은 모습이다. 〈사진 7〉은 신천리 고봉심 씨(1939년생) 집에서 장독대의 뚜껑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얹어 놓은 돌멩이다.



## 3.1. 집 구조

### (1) 공싯간

'공싯간'은 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산리에서는 곁채를 활용하여 '공싯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공싯간'은 수산리에서 부엌을 가리키는 용어다.

"초집 짓엉 옛날엔 막 비 잘잘 세멍 헌 디 살단에 그거 벗어나기 전이 이거 쓰레뜨집 짓엉 허난 이 집 짓건디도 이거 훈 오십 년. 이건 안거리, 이건 공싯간. 이건 밧거리, 쉐막. 공싯간은 정지게. 저, 밥허는 디ᄀᆞ라 공시, 공싯간이라고 헷주, 옛날은 공싯간, 공싯간. 옛날에 이 안에 공싯간 엇엇는디 가스 사용허게 뒈난 가제 잇엉 부억 멘들앙. 중간에 멘들안. 이딘 솟 앚져난 디주. 솟단지 헤여근에 쭉 절로 이꺼지. 솟을 다섯 개 앚져주. 다섯 개 앚졍 이 저 뭐 찌푸레기도 때고 남도 때곡 헨에 불 솜으멍 헨에. 재는 불치. 저 뒤로 내밀어 가지고 저디 굴뚝 만들앗단 것도 치와 불곡. 공싯간에도 눅고 저디 고팡 헨에 뭐 먹

을 쌀 거튼 것도 놓고. 공싯간방이엔 허주. 밧거리 방. 이딘 부억이난에. 밥헹 먹엉 이디서 자고. 옛날에 여자덜은 공싯간방에서 줌자당 이디서 밥헤영 먹엉 밧디 가고. 새벡이 밤중에 밥헤영. 밖으로 불치 나가는 디 만들앙. 솟덕은 절로 쭉 헤여근에. 이 구멍마다 솟 앚진 거. 이만인 나오게시리 헤근에 영 앚져낫주게. 영 헤근에 불치 내치는 군데가 잇어낫어. 요즘 이추룩 헌 집 베랑 엇어. 다 엇어불고, 다 새로 짓고 허난에 이런 디가 벨로 엇일 거라."[113]

(초집 지어서 옛날에 막 비 잘잘 세면서 한 데 살다가 그거 벗어나기 전에 이거 슬레이트집 지어서 하니까 이 집 지은 지가 이거 한 오십 년. 이건 안채 여긴 바깥채, 외양간. '공싯간'은 부엌. 저 밥하는 데보고 '공시', '공싯간'이라고 했지. 옛날은 '공싯간', '공싯간'. 옛날에 이 안에 '공싯간' 없었는데 가스 사용하게 되니까 처마 이어서 부엌 만들어서. 중간에 만들었어. 여긴 솥 걸었던 데지. 솥단지 해서 쭉 절로 이까지. 솥을 다섯 개 걸었지. 다섯 개 걸어서 이 저 뭐 지푸라기도 때고 해서 불 때면서 해서. 재는 '불치'. 저 뒤로 내밀어 가지고 저기 굴뚝 만들었던 것도 치워버리고. '공싯간'에도 눕고 저기 고방해서 뭐 먹을 쌀 같은 것도 넣고. '공싯간 방'이라고 하지. 바깥채 방. 여긴 부엌이니까. 밥해서 먹어서 여기서 자고. 옛날에 여자들은 '공싯간 방'에서 잠자다가 여기서 밥해서 먹어서 밭에 가고. 새벽에 밤중에 밥해서. 밖으로 재 나가는 데 만들어서. 봇돌은 절로 쭉 해서. 이 구멍마다 솥 건 거. 이만큼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걸었었지. 이렇게 해서 재 내치는 고무레가 있었었어. 요즘 이처럼 한 집 별로 없어. 다 없애버리고, 다 새로 짓고 하니까 이런 데가 별로 없을 거야.)

'공싯간'에는 '솟덕(봇돌)'을 앉혀서 일렬로 솥을 걸었다. '솟덕' 뒤로는 재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구멍이 있었다. 구멍 밖은 재를 모아두는 공간이 있었다.

### (2) 잿고망

'잿고망'은 솥을 앉혔던 봇돌 뒤로 재를 내미는 구멍을 말한다. '불치구멍', '재 내치는 고망', '불껑 내쳐난 고냥'이라고도 한다. 보통 부엌 뒤쪽의 벽체 밑에 구멍을 뚫어서 재를 모아두는 집 바깥의 '불치통'과 연결되게 만들었다. '고망'과 '고냥'은 표준어 구멍, '불치'와 '불껑'은 표준어 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113) 난산리 김두추 씨·강정자 씨 구술.

"공싯간 불치 나가는 디를 잿고망이렌 헷주, 잿고망. 불치구멍. 저 베꼇디 이디 영 집을 짓어 가지고 이 구멍으로 불치통 연결뒈게. 이젠 막아 불엇주게. 쓸모 엇이니까. 이 곰으로 영 브루꾸 싼에 영 허영. 이거 초집이라신디 이거 짓을 때 새로 다 짓엇주. 이건 공싯간, 이건 쉐막. 엿날 소덜 질룰 때에 이디도 초집이랏주게. 겐디 이디 이거 짓언에 쉐 안 질루난."[114]

('공싯간' 재 나가는 데를 '잿구멍'이라고 했지, '잿구멍'. '불치구멍'. 저 바깥에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이 구멍으로 '불치통' 연결되게. 이젠 막아버렸지. 쓸모없으니까. 이 구멍으로 이렇게 블럭 쌓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 초가였었는데 이거 지을 때 새로 다 지었지. 이거 '공싯간', 이건 외양간. 옛날 소들 기를 때에 여기도 초가였었지. 그런데 여기 이거 지어서 소 안 기르니까.)

난산리 김두추 씨는 '잿고망' 또는 '불치구멍'이라고 하였다. 재가 나가는 구멍이어서 '잿고망', 또는 '불치구멍'이라고 한 것 같다. 〈사진 8〉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의 '공싯간'에 설치해 놓았던 '잿고망'이다. '잿고망' 위로 연기에 그을렸던 모습이 선명하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시멘트로 막아놓았다. 〈사진 9〉는 '잿고망' 밖의 모습이다. '잿고망'이 보이는 곳에 재를 모아두는 '불치통'이 있었다.



〈사진 8〉 김두추 씨 집 '공싯간'(안)의 '잿고망'



〈사진 9〉 김두추 씨 집 '공싯간'(밖)의 '잿고망'

"솟 앚져나민 재 내치는 공간이옌 들엇주. 조그마헌 쓰레트나 헹 재만 들어가는 공간이 이십주게. 그걸 한쪽에 헷당 끄집어 내갖고 밧디 농사지을 때 그걸 거름으로 써십주.

114) 난산리 김두추 씨·강정자 씨 구술.

불치통. 여긴 수돗간 허면서 다 막아불엇는데.”[115]

(솟 걸어나면 재 내미는 공간이라고 들었지. 조그마한 슬레이트나 해서 재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지요. 그걸 한쪽에 했다가 끄집어 내갖고 밭에 농사지을 때 그걸 거름으로 썼습지요. ‘불치통’. 여긴 수돗간 하면서 다 막아버렸는데.)

〈사진 10〉은 수산2리 오남종 씨(1939년생)의 바깥채 ‘공싯간’과 ‘공싯간’의 ‘재 내치는 고망’이다. 오 씨의 사위인 고대인 씨는 이 구멍을 ‘재 내치는 공간’이라고 하고, 오 씨는 ‘불껑 내쳐난 고냥’이라고 하였다. 오 씨가 집을 개량하면서 구멍을 막아버렸다. ‘불껑 내쳐난 고냥’ 밖에는 재를 모아두는 ‘불치통’이 있었다. 이 ‘불치통’은 사방에 돌담을 쌓고 그 위에 슬레이트 따위로 덮어 비가 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모아둔 재는 농사를 지을 때 거름으로 활용되었다.



〈사진 10〉 오남종 씨 집 ‘공싯간’의 ‘잿고망’



〈사진 11〉 강태웅 씨 집의 ‘널마리’

### (3) 마리

‘마리’는 표준어 ‘마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1〉은 신산리 강태웅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통 마루인 ‘널마리’다. 강 씨는 어머니 이명춘 씨(1932년생)가 살던 집을 물려받아 살고 있다.

115)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 (4) 창곰

'창곰'은 고방 벽에 햇볕이 들게끔 조그맣게 뚫은 네모나 구멍을 말한다. 창 역할을 한다고 해서 '창곰'이라고 한 것 같다. '창곰'의 '곰'은 '구멍'의 의미다.

"이거 창곰. 옛날말론 창곰. 요즘은 중창."[116]
(이거 '창곰'. 옛날말론 '창곰'. 요즘은 중창.)

〈사진 12〉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 '공싯간'에 있는 고방 안의 '창곰'이다.


〈사진 12〉 김두추 씨 집 고방의 '창곰'

### (5) 시렁

'시렁'은 성산읍 지역에서 벽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의 '시렁'이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성산읍 지역에서의 '시렁'은 벽의 공간을 뚫어서 물건을 얹을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그렇게 만든 '시렁' 안에는 궤를 올려놓아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불 따위를 올려놓는 용도로도 썼다.


〈사진 13〉 오애생 씨 집의 이불을 개어 올려 놓은 '시렁'

"옛날 시렁이주. 아래 종이 볼른 디는 시렁이고 우이는 벡장이고. 시렁인디 저 뒤쪽으로 아궁이 헨에 문지락이나 나무 헤영 굴묵 때고 헤낫주게. 게난 옛날은 벡장 안 헤 가지고 시렁만 헤 가지고 그 우에 그냥 시렁 우에 이불도 개영 놓곡 그자 이것저것 무시거 놔 낫주게."[117]

116)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117)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14〉 김두추 씨 집의 '시렁'



〈사진 15〉 이영생 씨 집의 '시렁'

(옛날 '시렁'이지. 아래 종이 바른 데는 '시렁'이고 위는 벽장이고. '시렁'인데 저 뒤쪽으로 아궁이 해서 먼지나 나무 해서 '굴묵' 때고 했었지. 그러니까 옛날은 벽장 안 해 가지고 '시렁'만 해 가지고 그 위에 그냥 '시렁' 위에 이불도 개어 놓고 그저 이것저것 무엇 놨었지.)

〈사진 13〉은 수산2리 오애생 씨(1931년생) 집의 시렁으로 이불을 개어 올려놓고 있다. 〈사진 14〉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 '시렁'에 설치한 '벽장'이다. 문을 달아서 붙박이장처럼 만들었다. 〈사진 15〉는 난산리 이영생 씨(1934년생) 집 '시렁'에 설치한 붙박이장이다.

### (6) 장방과 선반

'장방'은 마루 뒷문 옆의 벽에 설치한 붙박이장이다. 보통 이 '장방'은 제기 따위를 보관할 때 사용하였다.

"장방이주. 옛날 제기들 놔낫주. 저건 선반이고."[118]

('장방'이지. 옛날 제기들 놨었지. 저건 선반이고.)



〈사진 16〉 김두추 씨 집의 '장방'

118)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17〉 강태웅 씨 집의 '장방'



〈사진 18〉 이영생 씨 집의 '장방'



〈사진 19〉 오록생 씨 집의 '장방'



〈사진 20〉 고덕후 씨 집의 '선반'

〈사진 16〉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 마루 뒤쪽에 설치된 '장방'이고, 〈사진 17〉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 마루에 설치된 '장방'이다. 장방 위를 하얀 페인트로 칠해 놓았다. 〈사진 18〉은 난산리 이영생 씨 집 마루 뒷문 위쪽과 오른쪽에 설치된 '장방'이다. 〈사진 19〉는 난산리 오록생 씨(1924년생) 집 시렁 아래 설치된 '장방'이다. '장방'에 벽지를 발랐고, 그 위에 그릇 따위를 올려놔 보관하고 있었다.

'선반'은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를 말한다. 〈사진 20〉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창고에 매어 있는 선반이다. 선반 위에 허드레 물건이 올려 있다.

### (7) 문


〈사진 21〉 오록생 씨 집의 '방문'

문은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방에 설치하면 방문이 되고, 마루에 설치하면 마루문, 부엌에 설치하면 부엌문이 된다. 부엌문을 제주에서는 '정짓문'이라고 한다. '마루문'을 제주에서는 '대문'이라고 하여 나무 널로 만든다. 재료의 이름을 따서 나무문, '도당문'처럼 말하기도 한다.

'방문'은 나무로 만든 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창살을 이용해 만든 문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당문'은 함석으로 만든 문이다. 성산읍 지역은 바람이 세차서 바람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당문'을 많이 만들어 달았다.

〈사진 21〉은 난산리 오록생 씨가 살고 있는 집이다.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이다. 지게문으로 되어 있고, 창살로 만들어진 여닫이문이다.


〈사진 22〉 이영생 씨 집의 '방문'

〈사진 22〉의 오른쪽 문은 난산리 이영생 씨의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지게문이다. 창호지를 바른 밀문으로 되어 있다.

〈사진 23〉은 난산리 김성옥 씨(1930년생) 집에 사용하고 있는 방문이다. 창호지로 발랐던 여닫이 문을 지금은 벽지로 발라서 옛 모습의 흔적만 남아 있다. 〈사진 24〉는 난산리 오록생 씨 집의 '대문'이다. 대문은 널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도배지를 나무 위에 발랐다. '대문'은 마루문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사진 25〉는 오록생 씨의 집의 '마루뒷문'이다.

"저 문은 저 부억에 돌아난 문. 옛날 말로 정지. 가시남이엔 허는 걸로 멘든 거주, 가시


〈사진 23〉 김성옥 씨 집의 '방문'


〈사진 24〉 오록생 씨 집의 '대문'


〈사진 25〉 오록생 씨 집의 '뒷문'



남. 이거 썩지 안허여, 이거. 이거 몇 백 년 잇어도 썩지 않는다고 이거."[119]

(저 문은 저 부엌에 달았던 문. 옛날 말로 '정지'. 가시나무라고 하는 걸로 만든 거지, 가시나무. 이거 썩지 않아, 이거. 이거 몇 백 년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이거.)

〈사진 26〉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부엌문으로 사용했던 널문이다.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질기다고 한다.


〈사진 26〉 고덕후 씨 소장 '부엌문'

"문짝 방문 헤난 거. 나 어디 집 튿을 때 간에 가져완.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삼춘네 집. 저거 아주 옛날 집이야. 이중문으로 영 헤난 거. 창호지 볼르는 문. 난 지금도 창호지 볼르는 문에 사는디."[120]

(문짝 방문 했던 거. 나 어디 집 튿을 때 가서 가져왔어.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삼촌네 집. 저거 아주 옛날 집이야. 이중문으로 이렇게 했던 거. 창호지 바르는 문. 난 지금도 창호지 바르는 문에 사는데.)

119)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120)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27〉 강옥화 씨 집의 '창문'



〈사진 28〉 강옥화 씨 소장 '창문짝'

〈사진 27〉은 수산2리 강옥화 씨(1947년생) 집의 창문이다. 강 씨는 지금도 창호지를 바른 문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 28〉은 강 씨가 동네 친척집에서 집을 뜯을 때 가져다 놔둔 '창문짝'이다. 창호지를 바르는 여닫이로, 창호지를 떼어낸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29〉는 수산1리 고정봉 씨(1938년생) 집 창고 문으로 사용하는 '도당문'이다. '도당문'은 '도당+문' 구성의 어휘로, 여기에서 '도당(トタン)'은 포르투갈에서 온 말로, 함석에 대응하는 일본어다. 수산1리 등 성산읍 지역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문을 함석으로 만들어 단 경우가 많았다. 〈사진 30〉은 '도당문'을 단 신산리 강태웅 씨 집 창고다.



〈사진 29〉 고정봉 씨 집의 '도당문'




〈사진 30〉 강태웅 씨 집의 '도당문'

### (8) 공장, 공젱이, 고리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못 따위를 벽 따위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든 물건이다. '공젱이'는 물건을 걸 수 있게 나무 따위로 만든 걸이다. '고리'는 물건을 끼울 수 있게 만든 도구다. 실이나 쇠 등으로 만들 수 있다.

"공장, 이것도 막 옛날에 안 짓은 거난 저거 헌 거주. 아주 옛날엔 저런 거 없어."[121)]
(공장, 이것도 아주 옛날에 안 지은 거니까 저거 한 거지. 아주 옛날엔 저런 거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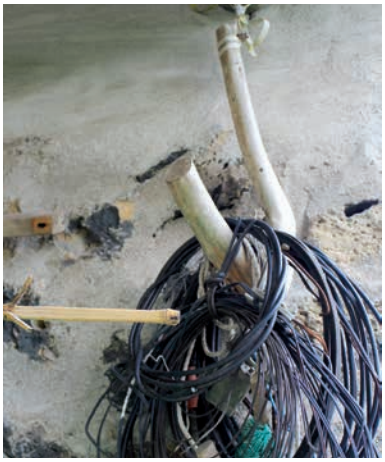
〈사진 31〉 오애생 씨 집의 방안의 '공장'



〈사진 32〉 고춘권 씨 창고의 '공장'



〈사진 33〉 고덕후 씨 창고의 '공젱이'



〈사진 34〉 고덕후 씨 창고의 '공젱이'

121)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31〉은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옷이나 모자 따위의 물건을 걸기 위해서 박아놓은 '공장'이다. 이 공장을 이용하여 오 씨는 옷가지를 걸어놓고 있었다. 〈사진 32〉는 수산1리 고춘권 씨가 나무에 못을 박아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장'이다. 〈사진 33〉은 수산2리 오문종 씨 집 창고에 걸려 있는 '공젱이'고, 〈사진 34〉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 창고에 설치해 놓은 '공젱이'다. 이 공젱이를 이용해 고 씨는 전선줄을 사려서 걸어놓거나 비닐주머니를 걸고 있었다.



〈사진 35〉 현승자 씨 집의 '공장'



〈사진 36〉 현승자 씨 집의 '공장'

〈사진 35, 36〉은 온평리 현승자 씨(1947년생) 집의 '공장'이다. 옷을 걸어놓기도 하고 빗자루 등을 걸어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 (9) 정주석

'정주석'은 정낭을 걸칠 수 있도록 집의 어귀 양쪽에 설치하는 대다. '정낭'을 걸칠 수 있게 돌기둥에 구멍 서너 개를 뚫어 놓은 대가 '정주석'이다. 돌 대신에 나무를 이용해 만들면 '정주목'이라고 한다.

〈사진 37, 38〉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 앞에 세워진 '정주석'이다. 집안으로 들어갈 때 왼쪽(〈사진 37〉)에 설치된 '정주석'은 담벼락에 붙어서 벽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진 37〉 고정봉 씨 집의 '정주석'(왼쪽)



〈사진 38〉 고정봉 씨 집의 '정주석'(오른쪽)



〈사진 39〉 '정주석'



〈사진 40〉 '정주석'

이 '정주석'은 정낭을 세 개 걸칠 수 있게 구멍이 세 개 뚫려 있다. 〈사진 39〉와 〈사진 40〉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이웃집 앞에 세워져 있는 '정주석'이다. 수산1리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정주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3.2. 가재도구

가재도구는 집안 살림에 쓰는 여러 물건, 즉 '궤', '찬장', '부섭' 등 살림하면서 쓰는 도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식생활과 의생활, 농어업, 축산 관련 도구를 제외한 주거 관련 도구 가운데 성산읍 지역에서 조사된 도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1) 궤

'궤'는 '옷 따위의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이다. 전통 사회를 산 사람들이 옷과 귀중한 물건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가재도구로, 여성들의 혼수품 가운데 하나였다. 보통 옷장의 문이 옆으로 열고 닫는 문이라면 '궷문'은 위에서 아래로 여는 게 특징이다. 궤는 주로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멀구슬나무, 팽나무 등으로 만든다. 벚나무로 만든 궤는 '사오기궤', 느티나무로 만든 궤는 '굴무기궤', 멀구슬나무로 만든 궤는 'ᄆᆞᆼ쿠실낭궤'라고 한다. 'ᄆᆞᆼ쿠실낭'은 '고련목' 또는 '마주목'이라고도 한다.

"궤 이거 우리 시어멍 나안티 물린 거주. 이거 소낭으로도 멘들고 이 방에도 궨 ᄒᆞ나 잇어. 다 우리 시아방네가 물렷자 우리 손지 아덜덜이 이것을 안 헤켄 허난 다 가져단 내불엇주. 지금 사름은 궤가 필요 엇주게. 게난 이거 버릴 거주게. 우리 시집올 때 궤랑마랑 엇어. 우린 완전 옛날이난 아무 것도 엇어."[122]

(궤 이거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물린 거지. 이거 소나무로도 만들고 이 방에도 궨 하나 있어. 다 우리 시아버지네가 물려준 거지. 우리 손자 아들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 가져다가 내버렸지. 지금 사람은 궤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 버릴 거지. 우리 시집올 때 궤는커녕 없어. 우린 완전 옛날이니까 아무 것도 없어.)



〈사진 41〉 오애생 씨 소장 '궤'



〈사진 42〉 오애생 씨 소장 '궤'

〈사진 41〉과 〈사진 42〉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궤다. 시어머니한테

122)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물린 이 궤는 오 씨의 시부모가 썼던 물건이다. 〈사진 41〉은 소나무로 만든 궤다. 궤의 '장석'이 다르다. 오 씨는 자식이나 손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훗날 내다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걱정하였다. 오 씨가 소장하는 궤는 구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래 김성옥·김영생·오록생 씨가 소장하고 있는 궤보다 앞선 시기의 궤다. 궤의 '장석(장식)'이 다른 네 개의 궤와는 다르다.

"저거 나 스물네 설에 시집올 때 헤 온 거. 저거 폭낭으로 멘들어 실 거라."[123]
(저거 나 스물네 살에 시집올 때 해 온 거. 저거 팽나무로 만들었을 거야.)


〈사진 43〉 김성옥 씨 소장 '궤'


〈사진 44〉 이영생 씨 소장 '궤'

〈사진 43〉은 난산리 김성옥 씨가 스물네 살에 시집올 때 혼수로 갖고 온 팽나무로 만든 궤다. 햇수로 64년이 되었다. 〈사진 44〉는 난산리 이영생 씨가 시집올 때 해온 궤다. 서랍이 있는 궤는 시집와서 살림을 하면서 장만한 궤이고, 나머지는 시집와서 살림을 살면서 장만한 것이다.

"궤 우리 성읍리서 시집올 때 헤 온 거. 막 좋은 낭으로 궨 만들주게. 서랍 이신 것도 잇고 어신 것도 잇고. 요짝에 거 헤 온 거고 요짝에 건 안 헨 오란에 나가 그냥 맞춰에."[124]
(궤 우리 성읍리에서 시집올 때 해 온 거. 아주 좋은 나무로 궨 만들지. 서랍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요쪽에 거 해 온 거고 요쪽에 건 안 해서 와서 내가 그냥 맞춰서.)

123)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124)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사진 45〉 오록생 씨 소장 '궤'



〈사진 46〉 오록생 씨 소장 '궤'

〈사진 45, 46〉은 난산리 오록생 씨가 사용하는 궤로, '시렁' 위에 올려놓아 있었다.

"이 궤 나 거. 장게가젠 허난 나가 사십주게. 시렁에 놓젠 허니까. 저거 두 개. 나 여유 잇으니까. 이쪽 건 마주목, 저쪽 건 나왕. 수산리 솔대왓 동네 고수삼 어른한테 부탁헹 멘든 거."[125]

(이 궤 내 거. 장가가려고 하니까 내가 샀습지요. '시렁'에 놓으려고 하니까. 저거 두 개. 내 여유 있으니까. 이쪽 건 '마주목', 저쪽 건 나왕. 수산리 '솔대왓' 동네 고수삼 어른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



〈사진 47〉 오남종 씨 소장 '궤'



〈사진 48〉 오남종 씨 소장 '궤'

125) 수산2리 오남종 씨 구술.

〈사진 47〉과 〈사진 48〉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썼던 궤다. 오 씨가 스무 살에 한 살 위인 부인을 만나 혼인할 때 이웃마을 수산1리 '솔대왓' 동네에 사는 목수 고수삼에게 부탁해 만든 궤다. 사진 오른쪽은 '마주목', 즉 멀구슬나무로 만든 궤고, 왼쪽의 궤는 나왕으로 만든 궤다.

"궤 요것은 우리가 썻던 겁니다. 집사름 씨집올 때 가져온 거."[126)]
(궤 요것은 우리가 썼던 겁니다. 집사람 시집올 때 가져온 거.)

〈사진 49〉는 신천리 현용언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궤다. 현 씨의 부인 고봉심 씨(1939년생)가 혼수로 가져온 궤로, 궤 아래에 서랍이 달려 있다. 고씨는 시집올 때


〈사진 49〉 현용언 씨 소장 '궤'


〈사진 50〉 한대순 씨 소장 '궤'


〈사진 51〉 현승자 씨 소장 '궤'


〈사진 52〉 강태웅 씨 소장 '궤'

126) 신천리 현용언 씨 구술.

혼수로 궤 두 개를 해 갔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궷문을 고정시켜 놓았다. 〈사진 50〉은 신산리 한대순 씨, 〈사진 51〉은 온평리 현승자 씨 집 창고에 보관중인 궤다. 〈사진 52〉는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현대식 '궤'다. 궤의 장식도 앞의 것과 다르고, 궤를 잠그는 '통쒜'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앞의 것과 차이가 난다.

### (2) 찬장

'찬장'은 음식이나 그릇 따위를 넣어 두는 장이다. 예전에 제주에서는 찬장을 '살레'라고 하였다. 〈사진 53, 54〉는 난산리 강정자(1943년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찬



〈사진 53〉 강정자 씨 소장 '찬장'



〈사진 54〉 강정자 씨 소장 '찬장'

장이다. 〈사진 53〉은 창고에서 농약을 넣어두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 (3) 책상

'책상'은 공부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나 학교 다닐 때 헤난 거. 중학교 때 헤난 거난. 앚아둠서 영 헹 받아 앚앙. 동네 사름 목수 빌엉 만든 거 앚은책상. 앚은책상 앚아둠서 허는 거."[127]

127)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사진 55〉 고충삼 씨 소장 '책상'



〈사진 56〉 오남종 씨 소장 '책상'

(나 학교 다닐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앉아두고서 이렇게 해서 받아앉아서. 동네 사람 목수 빌려서 만든 거 앉은뱅이책상. 앉은뱅이책상 앉아두고서 하는 거.)

〈사진 55〉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직접 만든 책상으로, 이 책상을 이용하여 고 씨의 자녀들은 공부를 하였다. 지금은 연장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56〉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책상이다. 책상은 창고에서 허드레 물건을 넣어두는 연장함 밑을 받치고 있었다. 이들 책상들은 쓰임이 없어서 창고에서 물건을 넣어두거나 받치는 용도로 바뀌어 있었다.

### (4) 걸쒜, 통쒜와 열쒜, 게철

'걸쒜'는 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하여 빗장으로 쓰는 'ㄱ' 자 모양의



〈사진 57〉 김성옥 씨 집의 '걸쒜'와 '배못'



〈사진 58〉 오록생 씨 집의 방안 창문의 '배못'에 걸려 있는 '걸쒜'



〈사진 59〉 오록생 씨 방문을 잠그는 '걸쒜'



〈사진 60〉 오록생 씨 집의 방문 밖의 '걸쒜'와 '배못'



〈사진 61〉 김성옥 씨 소장 '통쒜'



〈사진 62〉 오록생 씨 소장 '통쒜'



〈사진 63〉 강태웅 씨 소장 '열쒜'

쇠, 또는 둥근 고리를 말한다. 표준어 '걸쇠' 또는 '문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통쒜'는 자물쇠, '열쒜'는 열쇠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걸쒜'와 '통쒜'와 '열쒜'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 57〉은 난산리 김성옥 씨의 집안의 문에 사용한 '걸쒜'와 '배못'이고, 〈사진 58~60〉은 난산리 오록생 씨 집에서 문에 사용한 '걸쒜'와 '배못'이다. '걸쒜'를 '배못'에 끼우면 문이 잠긴다. '배못'은 문고리를 거는 쇠로, 표준어로는 '배목'이라고 한다.

〈사진 61〉은 난산리 김성옥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쒜'다. 궤를 잠그고 있었는

데, 모양을 낸 모습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통쒜'는 자물쇠에 해당하는 난산 지역 말로, 김씨는 '통쒜'를 여는 열쇠를 '게철'이라고 하였다. 〈사진 62〉는 난산리 오록생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쒜'고, 〈사진 63〉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의 궤를 잠그고 열 때 사용하는 '통쒜'와 '열쒜'다.

(5) 거울

'거울'은 물체의 모양이나 형상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유리 따위로 만든 물건이다. 거울은 몸을 단장하거나 매무새를 살필 때 사용한다.

〈사진 64〉는 난산리 오록생 씨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이다. 거울 위에 머리빗이 꽂아 있는 것으로 보아 요즘도 오 씨가 머리를 빗고 매무새를 살필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64〉 오록생 씨 소장 '거울'



## 3.3. 난방 도구

전통사회에서 난방은 '굴묵'을 때거나 화로나 '부섭'을 설치하여 해결하였다. 화로를 제주에서는 '화리'하고 하는데,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재질에 따라서 '정동화리', '옹기화리', '양은화리', '사기화리', '쒜화리', '돌화리' 등으로 나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마루나 부엌에 돌로 네모나게 만든 '부섭'을 박아서 난방도구로 활용하였다. 화로와 '부섭'은 제사 때에 숯불을 살라 고기를 굽기도 하고, 옷을 다리기 위하여 '윤디(인두)'를 꽂아두는 역할도 하였다.

(1) 정동화리

'정동화리'는 표준어 '청동화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정동화리'는 겨울에 불잉걸을 담아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구다. '정동화리'의 화롯불은 옷을 지을 때 사용하는 '윤디(인두)' 등을 꽂아두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화리엔 헌 건 이 저 방에, 방에 허는 화리가 잇고. 것도 부섭 엇인 디 또 이 삼방에 놓는 거 화리 잇주. 돌로 멘들앙, 돌로 멘들앙 돌로 멘든 화리도 잇고 이 저 그대로 쒜로 멘든 화리도 나온 거 잇엇는데. 그 첨 정동화리엔 헤근에 부젯집이선 방에 놓는 화리, 거 보기 좋게 멘든 화리덜이 그때도 잇엇주게."[128]

(화로라고 하는 건 이 저 방에, 방에 하는 화로가 있고. 것도 '부섭' 없는 데 또 이 마루에 놓는 거 화로 있지.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든 화로도 있고 이 저 그대로 쇠로 만든 화로도 나온 거 있었는데. 그 첨 청동화로라고 해서 부잣집에선 방에 놓는 화로, 거 보기 좋게 만든 화로들이 그때도 있었지.)

### (2) 돌화리, 부섭

'돌화리'는 돌로 만든 화로다. '부섭'은 돌로 네모나게 파서 마루에 박거나 부엌 바닥에 놓아서 쓰던 난방 도구다.

"돌화리가 어떤 때 필요허느냐 허면, 제사 때에 적 굴 때에. 제사 때에 적 굴 때. 거기 불 살롸근에 적을. 요새는 그 저 후라이팬이나 뭣에 튀겻주만은 튀김이엔 헌 게 그땐 엇어. 저 반드시 이 바닷고기나 그 적을 허민 구웟주, 숫불에. 경허난 또 맛도 잇엇고. 요새 튀긴 것은 아멩 양념을 잘 헤도 튀긴 건 맛이 엇어. 우리도 꼭 이 제사 때에는 지금도 지금도 이 그 숫불에 구웡 허주게."[129]

(돌화로가 어떤 때 필요하냐 하면, 제사 때에 적 구울 때에. 제사 때에 적 구울 때. 거기 불 살라서 적을. 요새는 그 저 프라이팬이나 뭐에 튀겼지만 튀김이라고 하는 게 그땐 없어. 저 반드시 이 바닷고기나 그 적을 구웠지, 숯불에. 그러니까 또 맛도 있었고. 요새 튀긴 것은 아무리 양념을 잘 해도 튀긴 건 맛이 없어. 우리도 꼭 이 제사 때에는 지금도, 지금도 이 그 숯불에 구워서 하지.)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돌화리'는 난방 도구보다는 제사 때 적을 구울 때 많이 썼다. '돌화로'에 숯불을 살라서 그 불에서 바닷고기나 돼지고기 적을 구웠다. '돌화리'는 이동이 자유로웠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화로 밑 네 모서리쪽에 다리를 만들어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12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29)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돌화리는 필요헌 때, 이 제서 때 거튼 때 필요헌 때만 그 앗다 놔근에 써 놩. 다 써 나민 딴 디 앗다 내불주게. 항상 거 둘 수가 없으니까게. 게고 부섭은 항상 거기 박앙 내부는 거고게. 게난 돌화리 부섭 엇은 딘 돌화리도 그자 그 혼쪽에 놧다근에 거기에 불살룅 초임도 허고 허주만은 대부분은 방에 놓질 안 헷주게."[130]

(돌화로는 필요한 때, 이 제사 때 같은 때 필요한 때만 그 가져다 놔서 써 놔서. 다 쓰고 나면 딴 데 가져다 내버리지. 항상 거 둘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섭'은 항상 거기 박아서 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돌화로 '부섭' 없는 덴 돌화로도 그저 그 한쪽에 놨다가 거기에 불살라서 쬐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방에 놓질 안 했지.)

반면 '부섭'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부섭'은 마루에 설치하여 겨울철 난로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제사 때 적을 굽는 용도로도 활용했다. '부섭'은 부엌의 마룻바닥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장마철에 '부섭'에 불을 피워 그 위에 소쿠리나 고리 등을 매달아 그 안에서 보리 따위를 말리기도 하였다.

"이 저 장마에, 장만 지고 벳은 아이 나고 물류왕 그걸 헤야 헐 건디 못 물류왕 헐 때는 이 저 부섭, 부섭 우이다가 우이다가 그 소쿠리, 소쿠리 이렇게 걸어 거기 저 놩 아래서 불 살룅 불 살랑 물림도 헷주게. 그건 쪼금 서 먹기 위해 가지고. 양식은 엇고 이 보린 장만은 못 허고 만 지고 허면은 고고리를 헤다가 고고리차, 고고리차 이제 소쿠리에 놔근에."[131]

(이 저 장마에, 장마 지고 볕은 안 나고 말려서 그걸 해야 할 건데 못 말려서 할 때는 이 저 '부섭', '부섭'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 소쿠리, 소쿠리 이렇게 걸어 거기 저 놔서 아래서 불 살라서 불 살라서 말리기도 했지. 그건 조금 일찍 먹기 위해 가지고. 양식은 없고 이 보린 장만은 못 하고 장만 지고 하면 이삭을 해다가 이삭째, 이삭째 이제 소쿠리에 놔서.)

위의 예문을 보면,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도 장마철에 '부섭'을 피우고 그 위에 소쿠리 따위를 매달아 설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말려서 양식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30)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3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3) 굴묵군데

방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 불을 때는 아궁이를 제주에서는 '굴묵'이라고 한다. 이 '굴묵'을 때는 일을 '굴묵 짇다'라고 하는데, '굴묵을 짇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굴묵군데'다. '굴묵군데'는 방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굴묵'에 땔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말리기 위해서 널어둔 곡식을 젓는 '날렛군데'의 끝이 톱니처럼 되어 있는데 반해서 '굴묵군데'는 편평하게 되어 있다. '군데'는 표준어 '고무래'에 대응하는 성산지역 말이다.

"이것은 굴묵 살롸난 거. 굴묵군데. 이건 굴묵군덴디 여기는 눈 하영 묻으민 나 이걸로. 아침이 보민 눈이 밋밋헤시민 이걸로 밀령 치와."[132]

(이것은 아궁이 불살랐던 거. '굴묵군데'. 이건 '굴묵군데'인데 여기는 눈 많이 묻으면 나 이걸로. 아침에 보면 눈이 밋밋했으면 이걸로 밀려서 치워.)



〈사진 65〉 오애생 씨 집의 '굴묵군데'



〈사진 66〉 오애생 씨 집의 '굴묵'

〈사진 65〉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방에 불을 지필 때 땔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밖으로 꺼낼 때 사용했던 '굴묵군데'다. 요즘은 '굴묵'을 때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졌다. 오 씨는 '굴묵군데'를 쌓인 눈을 치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굴묵군데'는 부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부엌군데' 또는 '정짓군데'라고도 하였다. 〈사진 66〉은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방에 불을 땔 때 사용했던 '굴묵'이다.

132)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이 굴묵에서 그 거기 따시 굴묵 짇젠 허민 잴 꺼내 버려야 뒈여. 불껑 꺼내는 건 굴묵에서 사용허는 거니까 굴묵군데. 부억군데. 부억에서도 솟강알에 그 뭐 허는 건 정지, 부억군데. 정짓군데엔 헷주, 정짓군데. 보통 가시남덜이나 마릿널 ᄀᆞ튼 거 옛날 거 그런 거 뜯은 걸로 헷주게. 무른 남은 안 뒈."[133]

(이 '굴묵'에서 그 거기 다시 '굴묵' 때려고 하면 잴 꺼내 버려야 되어. 재 꺼내는 건 '굴묵'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굴묵군데'. '부억군데'. 부엌에서도 봇돌에 그 뭐 하는 건 부엌, '부엌군데'. '정짓군데'라고도 했지, '정짓군데'. 보통 가시나무들이나 마룻널 같은 거 옛날 거 그런 거 뜯은 걸로 했지. 무른 나무는 안 돼.)

수산1리 고춘권 씨는 '굴묵군데'는 마룻널로 이용했던 가시나무로 만들어 썼다고 하였다. 그래야 '굴묵군데'가 질겨서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4) 불곽

'불곽'은 성산읍 지역에서 성냥을 가리키는 용어다.

〈사진 67〉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사진 68〉은 온평리 현승자 씨 집에서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곽'이다. 고 씨가 보관하는 성냥에는 '향로'라는 상품명이, 현 씨가 보관하는 성냥에는 '신흥'이라는 상품명이 붙어 있다.



〈사진 67〉 고덕후 씨 소장 '불곽'



〈사진 68〉 현승자 씨 소장 '불곽'

13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3.4. 연장류

### 3.3.1. 톱류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쓰는 연장이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물건을 자를 때 사용하는 날이 있는 부분은 '톱놀'이라고 하고, 손잡이는 '톱ᄌᆞ룩'이다. '톱'은 크기에 따라 '큰톱', '족은톱(작은톱)', '나무 오리는 톱'이라고 한다. '나무 오리는 톱'을 '줄톱', 또는 '대톱'이라고 한다. 날이 양쪽으로 달려 있는 톱은 '양놀톱' 또는 '양날톱'이라고 한다.

"큰 나무헤서 오리려고 하면 건 오리는 톱이 잇어. 것도 이 정도 혼 발은 헌 톱인데 그건이 양쪽에 사름이 앚아가지고 가운데 나무 세와 놩 이제 그 사름 둘이가 양쪽에서 뗑기면서 그걸 오리는 거 줄톱. 대톱이엔도 허주. 막 크니까 대톱. 혼 뽐 넓인 헌 건데 이만이 긴 거주. 허면은 그걸로 양쪽에서 사름 이렇게 이쪽 뗑기고 저쪽 뗑기고 허면서 저 나무를 오렷주."[134]
(큰 나무해서 오리려고 하면 건 오리는 톱이 있어. 것도 이 정도 한 발은 하는 톱인데 그건 양쪽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운데 나무 세워 놔서 이제 그 사람 둘이 양쪽에서 당기면서 그걸 오리는 거. 줄톱. 저 대톱이라고도 하지. 아주 크니까 대톱. 한 뼘 넓인 한 건데 이만큼 긴 거지.)

구술 내용을 보면, '줄톱'은 톱날이 한 뼘 넓이가 되는 대톱으로 나무를 오릴 때 사용하는 톱이다. 나무를 오릴 때는 둘이서 세워놓은 나무 양쪽으로 마주 앉아 톱날을 주고받으면서 켜면 된다.

"양날톱. 게난 혼쪽은 오리는 날, 혼쪽은 또 짤르는 날. 그렇게 헤서 양쪽에 그 양쪽에 날이 잇엇주게. 혼쪽은 오리고, 혼쪽은 짤를 때 필요허민 혼쪽으로 짜르고. 겐 양날톱이라고."[135]

134)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3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69〉 고충삼 씨 소장 '톱'



〈사진 70〉 고충삼 씨 소장 '톱'

(양날톱. 그러니까 한쪽은 오리는 날, 한쪽은 또 자르는 날. 그렇게 해서 양쪽에 그 양쪽에 날이 있었지. 한쪽은 오리고, 한쪽은 자를 때 필요하면 한쪽으로 자르고. 그래서 양날톱이라고.)

'양날톱'은 날이 양쪽으로 된 톱이다. 한쪽은 나무를 오리고, 한쪽은 나무를 자르는 날로 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양놀베기'라고도 한다.

〈사진 69, 70〉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하는 톱이다.

### 3.3.2. 도끼류

#### (1) 도치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데 쓰는 도구다. 표준어 '도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71〉은 온평리 박종길 씨(1941년 생) 집에서 장작을 팰 때 사용하는 '도치'다.



〈사진 71〉 박종길 씨 소장 '도치'

#### (2)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깰 때 사용하는 연장의 하나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을 달리해 만들었다. 자귀는 큰 나무를 서서 깎거나 오릴 때 사용하는 '귀자귀'와 한손으로 작은 나무를 깎을 때 사용하는 '손자귀'로 나뉜다.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하고, '손자귀'는 한 손으로 쓰는 작은 자귀다.

"자귀 저건 남 까끌 때 말뚝을 까끄나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젠 허민 까끄젠 허민. 손자귀. 손으로 허는 거니까 손자귀. 요 빨레마께 저런 거 멘들젠 허민 저런 거 자귀로 만들어야 허지. 저거 나가 만든 거. 다 나대로 만든 거."[136]

(자귀 저건 나무 깎을 때 말뚝을 깎으나 이런 거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깎으려고 하면. 손자귀. 손으로 하는 거니까 손자귀. 요 빨랫방망이 저런 거 만들려고 하면 저런 거 자귀로 만들어야 하지. 저거 내가 만든 거. 다 나대로 만든 거.)

〈사진 72〉는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자귀다. 한 손을 이용해서 나무를 깎을 때 사용하는 자귀는 따로 '손자귀'라고 한다. 이 손자귀를 이용하여 고 씨는 '빨레마께' 즉 빨랫방망이를 손수 만들었다.


〈사진 72〉 고춘권 씨 소장 '손자귀'

"게난이 그때 그 초가집 짓을 때니까, 그 나무를 남밧데 가서 소남밧디 가서, 그땐 이 저 나무가 많을 때니까. 요새는 그 저 재목으로 사다가 그 허지만은 그때는 자기대로. 우리대로 베어가지고 그걸 자귀로 까까서. 그땐 이 저 오리는, 그 저 제재소에 가야 오리거든. 게난 이 초집 짓을 때는 허여다가 여디서 목수가 까깟어. 자귀로 까끄는데 그 큰 나무 까끄는 자귀가 이만은헌, 그 자룩도 혼 발은 헌 자귀가 잇어. 걸 보고 귀자귀라고 헤. 귀자귀라고 허고 손으로 이렇게 허는 건 손자귀. 요만헌 거, 우기 저기 저번에 온 때 봣지? 그건 손자귀. 양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헤서 나무 까끄는 건 귀자귀."[137]

13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37)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그러니까 그때 그 초가집 지을 때니까, 그 나무를 나무밭에 가서 소나무밭에 가서, 그 땐 이 저 나무가 많을 때니까. 요새는 그 저 재목으로 사다가 그 하지만 그때는 자기대로. 우리대로 베어가지고 그걸 자귀로 깎아서. 그땐 이 저 오리는, 그 저 제재소에 가야 오리거든. 그러니까 이 초가 지을 때는 해다가 여기서 목수가 깎았어. 자귀로 깎는데 그 큰 나무 깎는 자귀가 이만큼한, 그 자루도 한 발은 한 자귀가 있어. 걸 보고 '귀자귀'라고 해. '귀자귀'라고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손자귀'. 요만한 거, 우리 저기 저번에 온 때 봤지? 그건 '손자귀'. 양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무 깎는 건 '귀자귀'.)

위의 수산1리 고춘권 씨의 구술 자료를 보면, '귀자귀'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서 깎을 때 양손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자귀로, 자루가 한 발이나 되는 큰 자귀를 말하고, '손자귀'는 한손으로 쓰는 작은 자귀를 말한다.





〈사진 73〉 오남종 씨 소장 '손자귀'



〈사진 74〉 고충삼 씨 소장 '손자귀'

〈사진 73〉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손자귀'다. 〈사진 74〉는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하는 '손자귀'다. 최근에 손잡이를 바꿔 달았다.

### (3) 메호미, 나다

'메호미'는 나무를 찍어서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일본어 '나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다. 모양이 '호미'(낫)처럼 생겨서 '메호미'라고 한 것 같다. '나다'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쇠로 만든 도구를 말한다. 일본어 '나다(なた)'에서 온 말이다.

'메호미'와 '나다'가 역할이 같아서 '나다'와 '메호미'를 혼용해 쓰기도 한다. 안덕면

에서는 '나대' 또는 '미호미', 한경면에서는 '나대' 또는 '미호미', 구좌읍에서는 '나다' 또는 '장호미'라고 한다.

"거 메호미. 낭 영 영, 센 거 닥닥. 메호미 필요헌 거 하. 밧디 가민 남도 쎈 거는 호미로 못허는 거는 저걸로 탁 찍으민 그차지지."[138]
(거 '메호미'. 나무 이렇게 이렇게, 센 거 닥닥. '메호미' 필요한 거 많아. 밭에 가면 나무도 센 거는 낫으로 못하는 거는 저걸로 탁 찍으면 잘라지지.)


〈사진 75〉 고영자 씨 소장 '메호미'

〈사진 75〉는 수산2리 고영자 씨(193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메호미'다. 고 씨는 이 '메호미'를 이용하여 나무를 찍어 잘랐는데, 쓰임이 많은 도구라고 하였다. 수산2리 고영자 씨는 '나다'를 '메호미'라고도 하였다. '메호미'는 지역에 따라서 '미호미' 또는 '장호미'라고도 한다.

"나무고 아무 거고 나다로 딱딱 찍으민 끈어지는 거."[139]
(나무고 아무 거고 나다로 딱딱 찍으면 끊어지는 거.)

〈사진 76〉은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다'다. 손잡이를 넓은 고무로 감아 손이 아프지 않게 하였다. '나다'로 나무 따위를 자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6〉 이영생 씨 소장 '나다'

138)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139) 난산리 이영생(1934년생) 씨 구술.



〈사진 77〉 강태웅 씨 소장 '나다'



〈사진 78〉 현용언 씨 소장 '나다'

〈사진 77〉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다'다. 강 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쓰고 있다. 〈사진 78〉은 신천리 현용언 씨(1937년생) 집에서 나무 등을 찍어서 자를 때 사용했던 '나다'다. 손잡이를 붉은 천으로 감싸놓았다.



## 3.3.3. 망치류

### (1) 망치/마께

'망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쓰는 연장의 하나다. '쒜(쇠)'나 나무로 만드는데, '쒜'로 만든 것은 '쒜망치', 나무로 만든 것은 '남망치' 또는 '낭망치'라고 하였다.

"끌 허는 거 남망치엔도 잇어주. 집 지을 때에 대들보 이런 거 영 헤영 맞추젠 허면은 남으로 크게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때려근에 그 뭐 허고. 그 작은 망치로는 안 뒈니까. 그 큰 남덜 그 니 맞추젠 헐 때는."[140]

(끌 하는 거 나무망치라고도 있었지. 집 지을 때에 대들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면 나무로 크게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때려서 그 뭐 하고. 그 작은 망치로는 안 되니까. 그 큰 나무들 그 이 맞추려고 할 때는.)

'남망치'는 대들보 따위의 이를 맞출 때 쓰기도 하고, 끌로 나무의 구멍을 뚫을 때

140)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도 사용하였다. 크기에 따라서 큰 거는 '큰망치', 작은 것은 '소망치'라고 구분하였다.

"망치 돌담 다울 때 사용허는 건데 나가 사용허는 거. 큰 거 대망치, 족은 건 소망치렌 허주. 이건 소망치."[141]
(망치 돌담 쌓을 때 사용하는 건데 내가 사용하는 거. 큰 거 대망치, 족은 건 소망치라고 하지. 이건 소망치.)


〈사진 79〉 고덕후 씨 소장 '쒜망치'


〈사진 80〉 고춘권 씨 소장 '쒜망치'


〈사진 81〉 강태웅 씨 소장 '쒜망치'


〈사진 82〉 고충삼 씨 소장 '쒜망치'

〈사진 79〉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망치다. 고 씨가 담을 쌓을 때 사용하는 '소망치'다. 고 씨는 크기가 큰 것은 '대망치'라고 하고, 작은 것은 '소망치'라고 불렀다. 〈사진 80〉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돌 일을 할 때 사용했던 '쒜망치'다.

141)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사진 83〉 고춘권 씨 소장 '망치'



〈사진 84〉 오남종 씨 소장 '망치'



〈사진 85〉 고충삼 씨 소장 '망치'

〈사진 81〉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쒜망치'다. 손잡이도 쇠로 만들어 달았다. 〈사진 82〉는 고충삼 씨가 사용하는 '쒜망치'다. 손잡이도 쇠로 만들었다. 손잡이 부분에 고무로 감아서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사진 83〉은 수산1리 고춘권 씨가 소소하게 못 따위를 박을 때 사용했던 '소망치'이고, 〈사진 84〉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소망치'다. 〈사진 85〉는 고충삼 씨가 사용하는 망치다.

### (2)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이다. '메'는 주로 쇠토막을 박아 만드는데, 돌 따위를 깰 때 사용한다. '메'라는 명칭보다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본어 '겐노(げんのう)'라고 부르기도 한다.

"돌 벌를 때, 또 돌 까끌 때 허는 거 작은 메가 잇고 큰 메가 잇고. 것도 메도 으라 가지. 거 용도에 따라 가지고 으라 가지고."[142]

14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돌 쪼갤 때, 돌 깎을 때 하는 거 작은 메가 있고 큰 메가 있고. 것도 메도 여러 가지. 거 용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고.)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메'는 돌을 깨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큰 메를 사용하기도 하고, 작은 메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86〉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던 '메'다. 김 씨는 이 '메'를 일본어를 이용하여 '겐노'라고 불렀다.

"저건 돌담 다울 때 허는 거. 자루 긴 것은 메. 저건 망치, 돌 깰 때."[143]
(저건 돌담 쌓을 때 하는 거. 자루 긴 것은 메. 저건 망치, 돌 깰 때.)


〈사진 86〉 김두추 씨 소장 '메'


〈사진 87〉 고춘권 씨 소장 '메'

〈사진 87〉은 수산1리 고춘권 씨가 돌 일을 할 때 사용했던 '메'다.

"메 돌담 다울 때 허는 거. 우에 거 꺼꺼져불어신게. 집이 하나씩은 잇어야주게."[144]
(메 돌담 쌓을 때 하는 거. 위에 거 꺾어져버렸는데.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사진 88〉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메'다. 손잡이가 꺾어진 상태로

14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44)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보관하고 있었다. 예전에 밭의 담을 쌓기 위해서 집집마다 하나씩은 갖추었던 생활도구다.


〈사진 88〉 고영자 씨 소장 '메'

(3) 못빼기

'못빼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 따위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못뽑이'를 말한다. '못빼기'는 못을 뺄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못 같은 것을 쳐서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도록 망치대가리와 못뽑이가 함께 붙어있기도 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못빼기'로만 되어 있는 쇠로 된 못뽑이를 일본어 '빠루'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망치 집이서 어디 뭐라도 못 박을 거 이시민 쓰젠 나 사다 논 거. 오랜 거."[145]
(망치 집에서 어디 뭐라도 못 박을 거 있으면 쓰려고 나 사다 놓은 거. 오랜 거.)

〈사진 89〉는 수산1리 고덕후 씨가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못빼기'이고, 〈사진 90〉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못빼기'다. 〈사진 91〉은 난산리 김성옥 씨의


〈사진 89〉 고덕후 씨 소장 '못빼기'


〈사진 90〉 고정봉 씨 소장 '못빼기'

145) 신천리 현태일 씨 구술.



〈사진 91〉 김성옥 씨 소장 '못뻬기'



〈사진 92〉 고충삼 씨 소장 '못뻬기'



〈사진 93〉 현태일 씨 소장 '못뻬기'

집에서 사용하는 '못뻬기'다. '못뻬기'의 손잡이도 쇠로 만들었고, 손잡이 끝에도 팔자 모양으로 가늘게 만들어 쓰임을 다양화한 것이 눈에 띈다. 〈사진 92〉는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하는 '못뻬기'다. 〈사진 93〉은 신천리 현태일 씨(1932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못뻬기'로, 못을 박을 때 쓰려고 사온 것이다. '못뻬기'는 한 쪽은 망치 역할을 하고, 한 쪽은 못을 뽑을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 94〉는 신천리 현용언 씨 집에서 사용했던 '못뻬기'다. 현 씨는 이 '못뻬기'를



〈사진 94〉 현용언 씨 소장 '빠루'



〈사진 95〉 고충삼 씨 소장 '못뻬기'

일본어 '빠루(バル)'라고 하였다. 위의 '못빼기'가 망치 겸용이라면 현 씨의 '빠루'는 못뽑이와 땅에 박힌 돌 따위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화하였다. 〈사진 95〉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사용하는 '못빼기'다.

## 3.3.5. 기타

### (1) 대패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나무를 깎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된다.

"대패는 남 까끄는 거. 것도 줄대패엔 헤근에 양쪽에서 저 주룩 돋정 영 영 허는 것이 잇고. 그대로 바로 마리 허는 대패가 잇고."[146]

(대패는 나무 깎는 거. 것도 줄대패라고 해서 양쪽에서 저 자루 돋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바로 마루 하는 대패가 있고.)



〈사진 96〉 고충삼 씨 소장 '대패'



〈사진 97〉 고충삼 씨 소장 '대패'

구술 내용을 보면, 양쪽에 자루가 달린 대패는 '줄대패'라고 하여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96, 97〉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사용하는 대패다. 대패 위에 일본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본제 대패다.

14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2) 징, 정

'징'은 표준어 '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정'은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이다.

"큰 돌 깰 때. 구멍 그 뚧어 가지고 거기 요만헌 쒜로 멘든 걸 거기 놔근에 쳐가지고 큰 돌 벌르는 정."[147]
(큰 돌 깰 때. 구멍 그 뚫어 가지고 거기 요만한 쇠로 만든 걸 거기 놔서 쳐 가지고 큰 돌 쪼개는 정.)



〈사진 98〉 강태웅 씨 소장 '정'



〈사진 99〉 강태웅 씨 소장 '정'

〈사진 98, 99〉는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정'이다.

### (3) 끌

'끌'은 나무에 구멍을 파는데 쓰는 도구의 한 가지다.

"끌이 구멍 뚤르는 거. 혼 뽐은 헌 거.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서 구멍은 뚤렷주게."[148]
(끌 구멍 뚫는 거. 한 뼘은 한 거.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서 구멍은 뚫었지.)

147)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4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위의 구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끌로 구멍을 뚫을 때, 망치로 끌을 때리면 끌의 날이 나무를 파며 구멍이 뚫린다.

"큰 남 이런 대들포 ᄀᆞ튼 거 큰 고망 뚤룰 때는 끌이 큰 거라야 뒈거든. 게민 그건 큰 망치라야 뒈고. 요런 문 거튼 거 헐 때 조그마헌 고망 뚤룰 때는 또 끌도 작은 거니까 또 망치도 작은 걸로 허고. 끌에 맞추왕 그 망치도 이제 사용허는 거주."[149]
(큰 나무 이런 대들보 같은 거 큰 구멍 뚫을 때는 끌이 큰 거여야 되거든. 그럼 그건 큰 망치여야 되고. 이런 문 같은 거 할 때 자그마한 구멍 뚫을 때는 또 끌도 작은 거니까 또 망치도 작은 걸로 하고. 끌에 맞춰서 그 망치도 이제 사용하는 거지.)

끌은 용도에 따라 큰 것으로 쓰기도 하고, 작은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끌의 크기에 따라 망치의 크기도 달라진다.

(4) 줄

'줄'은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강철로 만든 연장이다.

"줄. 톱 가는 거."[150]
(줄. 톱 가는 거.)


〈사진 100〉 고춘권 씨 소장 '줄'


〈사진 101〉 오남종 씨 소장 '줄'

149)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50)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100〉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사진 101〉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톱을 갈 때 사용했던 줄이다. '줄'은 달리 '줄칼'이라고 한다. 칼날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둥글며, 얇게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톱 따위의 날을 갈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 달았다.

### (5) 먹통과 먹술

'먹통'은 목공이나 석공이 먹줄을 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먹술'은 먹통에 딸린 실로 된 줄로, 먹을 묻혀 곧게 줄을 치는 데 쓴다. 주로 목수들이 들고 다니는 도구다. 표준어 '먹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그 먹통. 건 저 부그랑헌 거 먹물, 먹물 놔 가지고 허는 건 먹통. 그 줄은 먹줄. 먹술과 먹통. 저 연장 멘들젠 허민 줄 이렇게 치젠 허면은 저걸로. 목수가 사용허는 거. 다 오랜 거주. 나가 산 거. 그렇게 오래지 안 헷어. 혼 이삼십 년."[151]

(그 먹통. 건 저 이렇게 봉긋한 거 먹물, 먹물 놔 가지고 하는 건 먹통. 그 줄, 줄은 먹줄. 먹줄과 먹통. 저 연장 만들려고 하면 줄 이렇게 치려고 하면 저걸로. 목수가 사용하는 거. 내가 산 거. 그렇게 오래지 안 했어. 한 이삼십 년.)



〈사진 102〉 고춘권 씨 소장 '먹통'과 '먹술'



〈사진 103〉 고충삼 씨 소장 '먹통'과 '먹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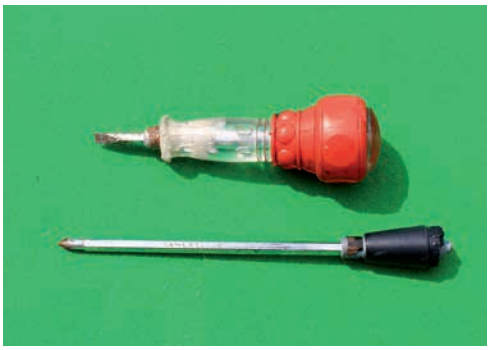
〈사진 102〉는 수산1리 고춘권 씨가 20~30년 전에 직접 산 '먹통'과 '먹술'이다. '먹

15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통'은 먹물을 담는 그릇이고, '먹술'은 먹물을 먹이는 줄이다. '술'은 '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보자 고춘권 씨는 '먹술'을 표준어로 '먹줄'이라고도 하였다. 예전에 목수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줄을 그으려고 하면 먹통의 '먹술'을 이용하였다. 〈사진 103〉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사용했던 '먹통'과 '먹술'이다.

### (6) 도라이바

'도라이바'는 나사못을 돌려서 박거나 빼는 연장이다. '드라이버'를 일본 어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사진 104〉는 신천리 현태일 씨 집에서 사용하는 '도라이바'다.



〈사진 104〉 현태일 씨 소장 '도라이바'

### (7) 연장통

'연장통'은 못이나 망치 따위의 연장을 담아두는 통이다.



〈사진 105〉 고덕후 씨 소장 '연장통'



〈사진 106〉 고춘권 씨 소장 '연장통'

〈사진 105〉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하는 연장통이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연장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06〉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 연장을 모아놓은 공간이고, 〈사진 107〉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 연장 보관 공간이다. 〈사진 108〉은



〈사진 107〉 강태웅 씨 소장 '연장통'



〈사진 108〉 한대순 씨 소장 '연장통'

신산리 한대순 씨(1946년생) 집에 보관 중인 연장들이다. 책상이나 책장, 바구니 따위를 이용하여 쓰고 있었다.

## 3.5. 집줄 관련

### (1) 호렝이

'호렝이'는 초가지붕을 묶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줄을 꼬는 것을 제주에서는 '줄 비다'라고 한다. 중세어 '븨다'가 제주도에서 '비다'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안덕면 지역에서는 '줄호렝이'라고 하였다. '줄호렝이'는 다리가 긴 '호렝이'를 말한다.

"줄 빌 때 사용허는 도구는 호렝이. 뒤에서 이렇게 두 개 ᄀᆞ치 여끼는 거 뒤채호렝이엔 허주게. 이디선 우린 거 뒤에서 이렇게 허는 거니까 뒤채엔 헷어. 뒤채호렝이엔 헷주. 뒤치는호렝이."[152]

(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는 '호렝이'. 뒤에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엮는 거 '뒤채호렝이'라고 하지. 여기선 우린 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뒤채'라고 했어. '뒤채호렝이'라고 했지. '뒤치는호렝이'.)

15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 뒤치기호렝이, 뒤채호렝이

'뒤치기호렝이'는 꼬아 놓은 두 줄을 어우러지게 해서 집줄을 만들 때 돌려주는 도구를 성산읍 지역에서 일컫는 이름이다. 줄여서 '뒤채호렝이', '뒤채'라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뒤치기'라고 한다. 표준어 '돌물레'에 대응하는 성산 지역 말이다.

## 3.6. 기타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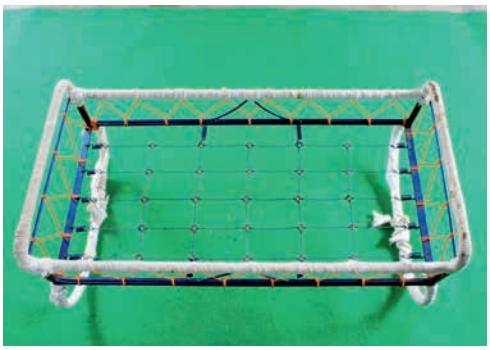
(1)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우기 위해 대오리나 쇠로 만든 물건이다.

"애기구덕 우리 손지덜 큰아덜의 손지덜 헐 때 써난 거. 옛날에는 그 저 뭐 대구덕. 이거 이제 손지 혼 스무 설 넘엇수과? 우리 민석이. 스무 설. 게난 혼 이십 년 뒌 거주. 저거 저 세화장에꺼장 강 사완."[153]

(요람 우리 손자들 큰아들의 손자들 할 때 썼던 거. 옛날에는 그 저 뭐 대요람. 이거 이제 손자 한 스무 살 넘었습니까? 우리 민석이. 스무 살. 그러니까 한 이십 년 된 거지. 저거 저 세화장까지 가서 사왔어.)

〈사진 109〉는 난산리 강정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쇠로 된 '애기구덕'이다. 20년 전에 큰아들의 아들, 즉 손자 키울 때 썼던 것으로, 이 '애기구덕'은 구좌읍 세화리 소재 세화오일장에 구입해서 쓰던 것이다. 손잡이와 '구덕' 다리에는 천으로 감싸놓은 모습이다. 쇠로 만든 '애기구덕'이 나오기 전에는 대오리로 장방형으로 결



〈사진 109〉 강정자 씨 소장 '애기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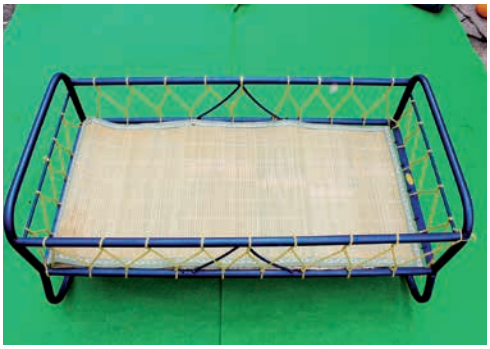
153)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은 '애기구덕'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애기구덕 이거는 우리 아이덜 키울 때는 이거 안 쓰고 손지덜 키울 때 이거는. 멘들앙 풀아. 혼 구 년 뒀어. 우리 집은 애기가 귀헤. 큰아덜은 똘 ᄒᆞ나고 족은아덜은 아덜 하나고. 똘이 젤 하영 낫어. 두 개. 아덜 하나 똘 하나. 이거 딸네 손지덜 키와난 거."[154]

(요람 이거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거 안 쓰고 손자들 키울 때 이거는. 만들어서 팔아. 한 구 년 됐어. 우리 집은 아기가 귀해. 큰아들은 딸 하나고 작은아들은 아들 하나고. 딸이 젤 많이 낳았어. 두 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거 딸네 손자들 키웠던 거.)

〈사진 110〉은 수산2리 강옥화 씨가 9년 전에 시장에서 사온 '애기구덕'이다. 이 '애기구덕'을 이용하여 강 씨는 딸네 손자들을 키웠다.



〈사진 110〉 강옥화 씨 소장 '애기구덕'

### (2) 던드렁과 덩드렁마께

'던드렁'은 짚 따위를 납작하게 두들길 때 밑에 받치는 돌이다. '던드렁마께'는 '던드렁'이라는 돌 위에서 볏짚 등을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대정읍 안덕면 지역에서는 '덩드렁'이라고 하였다.

"던드렁 이거이 이거 마께 헤근에 찝, 마께로 이거에 허는 거주게. 구덕 절은 때 대도 이것에 두들고. 던드렁."[155]

('던드렁' 이거이 이거 방망이 해서 짚, 방망이로 이거에 하는 거지. 바구니 결을 때 대도 이것에 두들기고. '던드렁'.)

〈사진 111〉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던드렁'이고, 〈사진 112〉는 고

154)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15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111〉 고춘권 씨 소장 '던드렁'



〈사진 112〉 고춘권 씨 소장 '던드렁마께'



〈사진 113〉 강옥화 씨 소장 '던드렁'



〈사진 114〉 김두추 씨 소장 '던드렁마께'



춘권 씨가 사용하는 '던드렁마께'다. '던드렁마께'는 '던드렁' 위에서 사용하는 방망이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달리 이용하였다. 큰 것은 '던드렁' 위에서 사용하지만, 작은 것은 나무 위에서 부드러운 것을 살살 두들길 때도 이용하였다. 이 '던드렁'과 '던드렁마께'를 이용하여 짚신을 삼거나 바구니를 결을 때 짚이나 대오리를 두들겼다.

"던드렁마께 저건이 무시거 가는 거 칙 ᄀᆞ튼 거나 그런 거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헐 때 저 작은 거. 센 거 헐 때 저 큰 거. 이건 마께. 게난 던드렁에 놩 두드리는 것은 던드렁마께 큰 거. 이 족은 것은 남 우이서도 쓰고 아무 디서라도 쓰는 거, 족은 거."[156]

('던드렁마께' 저건 무엇 가는 거 칡 같은 거나 그런 거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할 때

15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저 작은 거. 센 거 할 때 저 큰 거. 이건 방망이. 그러니까 '던드렁'에 놔서 두들기는 것은 '던드렁마께' 큰 거. 이 작은 것은 나무 위에서도 쓰고 아무 데서라도 쓰는 거, 작은 거.)

〈사진 113〉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했던 '던드렁'이고, 〈사진 114〉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했던 '던드렁마께'다.

### (3) 돌도고리

'돌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는 돌을 파서 둥그렇게 만든 그릇이다. 돌로 만든 그릇이어서 '돌도고리'라고 한다.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서는 돼지의 먹이 그릇이어서 '돗도고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경면 지역에서는 '돌도고리' 대신에 '돗도고리'를 사용하였다.

"돌도고리 이거 나가 한, 저거 혼 오십 년 뒌 거 닮다. 날짠 정확히 몰라도 오십 년 넘으민 넘엇저. 나가 스무 설에 시집오난 그 할머니네가 쓰단 거난 오십 년은 넘으민 넘엇저. 씨어머니 쓰단 거 우리가 물려받안."[157]

('돌도고리'는 이거 내가 한, 저거 한 오십 년 된 것 같다. 날짠 정확히 몰라도 오십 년 넘으면 넘었지. 내가 스무 살에 시집오니까 그 할머니네가 쓰던 거니까 오십 년은 넘으면 넘었지. 시어머니 쓰던 거 우리가 물려받았어.)

〈사진 115〉는 신천리 박순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돌도고리'다. 이 '돌도고리'는 박 씨가 스물 살에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쓰던 그릇이니 오십 년은 넘었을 거라고 한다. 예전에 돼지를 기를 때 먹이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용처가 없으니 화단 장식용으로 쓰고 있다. 박 씨의 아이들이 어렸을



〈사진 115〉 박순자 씨 소장 '돌도고리'

157)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때는 '돌도고리'에 물을 넣어 붕어를 기르기도 했다. '돌도고리' 오른쪽에는 '방에혹'이 놓여 있다.

〈사진 116〉은 온평리 하옥단 씨(1941년생) 집에서 돼지를 기를 때 먹이 그릇으로 사용했던 '돌도고리'다. 지금은 개밥을 주는 용도로 그 쓰임이 바뀌었다.


〈사진 116〉 하옥단 씨 소장 '돌도고리'

"것도고리. 돌로. 돌로 안 허민, 돌로 헤도 큰돌 헤근에 크게 허지 안허민 뒈지가 크면은 그 뭐 이레 둥그려 뎅기고 저레 둥그려 뎅기고 허주게."[158]

('먹이돌그릇'. 돌로. 돌로 안 하면, 돌로 해도 큰돌 해서 크게 하지 않으면 돼지가 크면 그 뭐 이리 굴려 다니고 저리 굴려 다니고 하지.)

수산1리 고춘권 씨는 '돌도고리'라는 말 대신에 '것도고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것'은 개나 돼지 등 동물의 먹이를 일컫는 제주어이고, '도고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다.

### (4) 방석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다. '집줄'을 하다 남은 것으로 만든 방석은 '줄방석'이라고 하고, 나무를 네모나게 쪼개서 만든 것을 '낭방석/남방석'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부엌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정젯방석'이라고 한다.

"방석 꼴앙 앚앙 뭐 헐 때는. 종애 아프니까 베낏디서 뭐 헐 때 앚앙 쓰는 거."[159]

(방석 깔아서 앉아서 뭐 할 때는. 종아리 아프니까 바깥에서 뭐 할 때 앉아서 쓰는 거.)

15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59)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사진 117〉 김두추 씨 집의 '남방석'



〈사진 118〉 고영자 씨 집의 '남방석'



〈사진 119〉 강태웅 씨 소장 '남방석'



〈사진 120〉 고충삼 씨 집에 쌓여 있는 '장작'

〈사진 117〉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남방석'이다. 〈사진 118〉은 수산 2리 고영자 씨가 일할 때 앉는 방석이다. 〈사진 119〉는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남방석'이다.

### (5) 장작

'장작'은 나무를 쪼개서 만든 땔나무다. 〈사진 120〉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간벌한 귤나무를 잘라서 쌓아놓은 장작이다.

### (6) 부지땡이

'부지땡이'는 표준어 '부지깽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121〉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쓰레기 따위를 태울 때 사용하는 '부지땡



〈사진 121〉 고충삼 씨 소장 '부지땡이'



〈사진 122〉 박종길 씨 소장 '부지땡이'

이'이고, 〈사진 122〉는 온평리 박종길 씨 집에서 사용하는 '부지땡이'다.



### (7) 세멘기

'세멘기'는 성산읍 난산리에서 '세숫대야'를 가리키는 말로, '세숫대'라고도 한다. 전에는 '장태'나 '놋'으로 만들기도 하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사기 등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이건 세멘기주, 세멘기. 이거 나가 삿주만은 옛날은 장태에서 썻주. 이 세멘기가 엇엇주게. 멍석 절어서 쓸 때는 사기 장태 잇엇단 나 고사리 건지멍 깨벳주게. 이것은 육지 장태고. 대정은 대정 장태 이추룩 안 헤영 벌경허주. 이것은 육지서 나온 거고. 옛날은 대정서 그릇을 만들엇주게. 항도 만들고 장태도 만들고."[160]

(이건 세숫대야지, 세숫대야. 이거 내가 샀지만 옛날은 장태에서 썼지. 이 세숫대야가 없었지. 멍석 결어서 쓸 때는. 사기 장태 있었다가 내 고사리 건지면서 깨버렸지. 이것은 육지 장태고. 대정은 대정 장태 이처럼 안 해서 벌겋지. 이것은 육지서 나온 거고. 옛날은 대정서 그릇을 만들었지. 항아리도 만들고 장태도 만들고.)

〈사진 123〉은 수산2리 오애생 씨가 세멘기로 썼던 '장태'다. 육지에서 나온 장태를 사서 '세멘기'로 사용했었는데 한쪽 귀퉁이가 깨진 채 보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대

160) 수산2리 오애생씨 구술.


〈사진 123〉 오애생 씨 소장 '장태'


〈사진 124〉 오애생 씨 소장 '세멘기'

정에서 생산한 붉은 색깔의 장태를 사다 썼었는데 깨져버려서 육지에서 나온 유약을 바른 장태를 사다 썼던 것이다. 오 씨는 육지에서 생산된 장태를 '육지 장태'라고 하고, 대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주산 장태를 생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대정 장태'라고 하였다. 〈사진 124〉는 오애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세멘기'다.

"그거 세멘기. 세멘기 세숫대 경헨 골앗주."[161]
(그거 세숫대야. '세멘기' '세숫대' 그렇게 해서 말했지.)

〈사진 125〉는 난산리 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세멘기'다. 강 씨는 '세멘기' 대신에 '세숫대'라는 표현도 썼다. 주황색으로 엎어 놓은 것은 '바게쓰'다.

"세멘기 막 옛날 거, 혼 육십 년도 넘은 거."[162]
(세숫대야 아주 옛날 거, 한 육십 년도 넘은 거.)


〈사진 125〉 강정자 씨 집의 '세멘기'

161) 난산리 강정자 씨(1943년생) 구술.
162) 난산리 오록생 씨 구술.



〈사진 126〉 오록생 씨 집의 '세멘기'



〈사진 127〉 고덕후 씨 집의 '세멘기'



〈사진 128〉 강태웅 씨 집의 '세멘기'

〈사진 126〉은 난산리 오록생 씨가 사용했던 '세멘기'로, 오 씨는 이 '세멘기'를 육십 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사진 127〉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세멘기'다. 지금은 헐어서 '세멘기'로 쓰지는 않는다. 〈사진 128〉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세멘기'다. 강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가 쓰던 것이다.

### (8) 바게쓰

'바게쓰'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으로, 표준어 '양동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바게쓰 이것도 아방[163] 산 때는 이런 거 없엇어. 수십팔 년 퉨 건디 이건 없엇어. 아방 돌아간 후제주."[164]

(양동이 이것도 남편 살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사십팔 년 된 건데 이건 없었어. 남편 돌아간 후지.)

163)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남편'의 뜻으로 쓰였다.
164)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29〉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사용하는 '바게쓰'다. 오 씨는 이 '바게쓰'를 남편이 돌아간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48년 이상 된 거라고 하였다. '바게쓰'는 일본어 '바케츠(バケツ)'에서 온 말이다. '바께쓰'를 안덕면 지역에서는 '바가쓰'라고 하였다.


〈사진 129〉 오애생 씨 집의 '바게쓰'

### (9) 비차락, 쓰레박

'비치락' · '비차락'은 성산읍에서 '빗자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건 비치락. 쏠대ᄀᆞ라 무시건엔 헐 거? 싸리비. 싸리비"[165]
(이건 빗자루. 쌀대보고 무엇이라고 할 거? 싸리비. 사리비.)

〈사진 130〉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는 싸리비다.

"비차락 오래 쓴 거주. 혼 십 년도 넘어 썼어. 동네 느렁대축 싱근 거 빌엉 동네 어른 빌엉 비차락 멧주. 비 메는 건 남자 어른덜이 허는 거."[166]
(빗자루 오래 쓴 거지. 한 십 년도 넘게 썼어. 동네 '느렁대축' 심은 거 빌려다가 동네 어른 빌려다가 빗자루 맸지)


〈사진 130〉 김두추 씨 소장 '싸리비'

〈사진 131〉은 난산리 김성옥 씨 집에서 사용했던 빗자루다. 동네에 심은 '느렁대축'

165)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166)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빌려다가 동네 어른 빌려서 맸다. '느렁대축'은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수수로, 이삭이 늘어지는 속성이 있다. 방비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마당을 쓸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131〉 김성옥 씨 소장 '수수 빗자루'

"영 영 헹 몬지락 쓰는 거."[167]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지 쓰는 거.)

"옛날 마당 씰 때도 대비치락으로 씰어낫주."[168]
(옛날 마당 쓸 때도 대빗자루로 쓸었었지.)

〈사진 132〉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마당을 쓸 때 사용했던 '대비치락'이다. '대비치락'은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다. 〈사진 133〉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던 '대비차락'이다. 〈사진 134〉는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 집에서 먼지를 쓸 때 사용하는 '비차락'과 '쓰레박'이다. 〈사진 135〉는 신산리 한대순 씨 집에서 마당을 쓸 때 사용하는 '비차락'이다.


〈사진 132〉 오애생 씨 소장 '대비치락'


〈사진 133〉 오남종 씨 소장 '비차락'

167) 수산1리 정복희 씨 구술.
168)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34〉 한대순 씨 소장 '비차락'



〈사진 135〉 정복희 씨 소장 '비차락'과 '쓰레박'

'쓰레박'은 표준어 '쓰레받기'에 대응하는 성산읍 지역 말로, 빗자루로 모아낸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136〉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하는 '쓰레박'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간 '쓰레박'과 양철로 고 씨가 직접 만든 '쓰레박'이 대비된다.



〈사진 136〉 고충삼 씨 소장 '쓰레박'

### (10) 요강



〈사진 137〉 김두추 씨 소장 '사기요강'

'요강'은 오줌을 누울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기나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 예전에 여자가 시집갈 때는 반드시 혼수품으로 요강을 장만해 갔다.

〈사진 137〉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다. 김 씨의 부인이 시집올 때 혼수로 갖고 온 요강이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엎어놓



〈사진 138〉 오남종 씨 소장 '사기요강'



〈사진 139〉 현금옥 씨 소장 '스테인리스요강'

은 요강에 이끼와 먼지가 끼었다. 〈사진 138〉은 수산2리 오남종 씨 부인이 시집올 때 혼수로 갖고 온 요강이다. 〈사진 139〉는 온평리 현금옥 씨(1934년생)가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요강이다.



### (11)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사진 140〉 현문자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41〉 고춘권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42〉 고덕후 씨 소장 '나무사다리'



〈사진 143〉 현용언 씨 소장 '사다리'

"지붕 우터레 올라가젠 허민 이거 사다리 ᄒᆞ나 페우고 쫄르민 두 개 다 페왕 올라가곡."[169]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거 사다리 하나 펴고 짧으면 두 개 다 펴서 올라가고.)

〈사진 140〉은 온평리 현문자 씨(1939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사다리다. 사다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141〉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왕대로 만든 사다리다. 〈사진 142〉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무 사다리다. 〈사진 143〉은 신천리 현용언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쇠로 만든 사다리다.

### (12) 살체기문

'살체기문'은 나무를 대강 박거나 엮어서 만든 문이다. 소나 말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세워놓는 문이다.

〈사진 144〉는 수산1리 고춘권 씨 앞집에 놓여 있는 '살체기문'이다.



〈사진 144〉 고춘권 씨 앞집의 '살체기문'

169)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 4. 농업 관련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전래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해 온 농촌 지역이다. 성산읍 해안 마을에서는 어업을 주로하면서 농사도 지어서 생활하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주 지역의 농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 농작물의 변화로 인해서 농기계의 변화도 가져왔다.

제주의 농촌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보리, 조, 콩, 메밀 등의 곡물과 고구마 농사가 주 작물이었다.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농업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감귤 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밭농사로 무를 많이 갈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 방식의 농사 도구와 농사 방법도 점차 사라지는 유물이 되고 있다. 성산읍 지역에서 농업 관련 도구로는 구좌·안덕·한경 지역에서 조사되지 않은 '물접게'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소의 목에 거는 멍에의 '쉐접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서서 땅을 파거나 김 따위를 맬 때 사용하는 '선호미', 무밭을 중경할 때 사용하는 '중경기' 등 새로운 도구 관련 어휘도 조사되었다.

'얼멩이(어레미)'의 경우,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콩얼멩이', '유채얼멩이'처럼 이름이 달리 나타났다. 예전에는 대를 이용하여 네모나게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둥그렇게 만들었다. 대를 이용하여 '얼멩이'를 만드는 방법도 확인하였다. '얼멩이'는 2~3년생 대나무를 쪼갠 대오리로 엮어서 만드는데 가장자리인 '바윗대'는 일년생 죽순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가장자리 즉, '바위'를 감는 일을 '바위 돌른다'라고 하였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써오던 '골각지'와 '호미'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작물의 변화로 전통 방식의 농기구인 쟁기, 탈곡기, '홀테' 따위의 농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눠 설명하였다.

## 4.1. 파종 관련

###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

'잠대'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밭은 소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와 연결된 '잠대'를 운용하여 갈게 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 소와 말을 이용해 갈았음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밭을 갈 때는 '잠대'와 멍에가 한 쌍을 이루어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갈게 된다. '잠대'는 표준어 '쟁기'에 대응하는 말이고, '멍에'는 표준어와 어형이 같다.

"잠대 나가 만들엇주. 잠대 서끄는 거. 잠대 서끌 중 몰랑은 안 뒈여. 그 전인 저 가시낭으로 헌덴 허는디 가시남이 엇어 놓난 저거 잡남 그자 오그라진 거 봉강 만든 거. 이건 돌벵이뿔. 이건 성에 이건 몽콜. 뜸. 이거 내리지 못허게. 못 대신에. 이거 양중머리."[170]

(쟁기 내가 만들었지. '잠대 서끄는' 거. 쟁기 만들 줄 몰라서는 안 되어. 그 전엔 저 가시나무로 한다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없어 놓으니까 저거 잡나무 그저 오그라진 거 주워서 만든 거. 이건 물추리막대. 이건 성에 이건 쟁깃술. '뜸' 이거 내리지 못하게. 못 대신에. 이거 양지머리.)

〈사진 1〉은 신산리 고충삼 씨(1943년생)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잠대'다. 창

170)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사진 1〉 고충삼 씨 소장 '잠대'



〈사진 2〉 고충삼 씨 소장 '몽콜'

고 천장에 매달아 보관하고 있었다. 고 씨가 오그라진 나무를 주워다가 직접 만든 것인데, 쟁기를 만드는 것을 '잠대 서끄다'라고 말한다. 가시나무로 만든 '잠대'는 좀도 먹지 않고 좋다고 한다. 〈사진 2〉는 고충삼 씨가 '잠대를 서끄기' 위하여 준비해 놔둔 '몽콜'이다. '잠대'로 밭을 갈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3〉은 온평리 장승익 씨(1949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잠대'와 '멍에'다. 창고 천장 밑에 올려놔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3〉 장승익 씨 소장 '잠대'와 '멍에'

"잠대 그 젤 긴 거. 그 소에 연결시키는 긴 것이 성에. 밑에 또 이렇게 구부러진 거 몽콜. 오고라진 것이 몽콜이주. 설칫은 영 헹 아래 고부라진 것광 성에 연결된 거. 손잡이는 양쪽으로 영헹 거 잡는 거니까 양주머리고. 성에 앞이 끝에 소허고 연결된 줄 영 헤영 메는 것이 잇주게. 돌벵이뿔이라고 헤 가지고. 설칫에 고망 뚤랑 영 영 허는 건 설칫뜸이엔 헷주."[171]

(쟁기 그 젤 긴 거. 그 소에 연결시키는 긴 것이 성에. 밑에 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쟁깃술. 오그라진 것이 쟁깃술이지. 한마루는 이렇게 해서 고부라진 것과 성에 연결된 거. 손

17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잡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 잡는 거니까 양지머리고. 성에 앞이 끝에 소하고 연결된 줄 이렇게 해서 매는 것이 있지. 물추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한마루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한마루 '뜸'이라고 했지.)

위의 구술 자료는 수산1리 고춘권 씨(1933년생)가 들려준 것이다. 구술 내용을 보면, '잠대'의 부분 명칭이 세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즉, '잠대'는 '양중머리, 몽콜, 성에, 설칫, 뜸, 돌벵이뿔, 벳바드렝이, 벳줄, 보섭, 벳'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산읍 지역의 '잠대'의 부분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양중머리: 쟁기의 손잡이 부분을 말한다. 표준어 '양지머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한경면 지역에서는 '양주머리'라고 한다.
- 몽콜: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다. 표준어 '쟁깃술'에 해당하는 말이다. 한경면 지역과 안덕면 지역에서는 '무클'이라고 하였다.
-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를 말한다. 표준어와 성산읍 지역에서 부르는 말이 같다.
- 설칫: 쟁기의 성에와 쟁깃술을 꿰뚫어 곧게 선 긴 나무다. 표준어 '한마루'에 해당하는 말이다.
- 뜸: 밭을 갈 때 땅에 박히는 보습의 깊이를 조절하는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놓인 나무 조각을 말한다. 달리 '설칫뜸'이라고도 하였다.
- 돌벵이뿔: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를 말한다. 표준어 '물추리막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 벳바디: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말한다.
- 벳줄: 쟁기 몸체에 볏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을 말한다.
- 벳코: 볏의 뒤쪽에 붙어 있는 고리를 말한다.
- 보섭: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보습'에 해당하는 말이다.
- 벳: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표준어 '볏'에 대응하는 말이다.

• 벳칼: 쟁기의 볏에 묻은 흙을 긁어낼 때 쓰는 나뭇조각이다.

"농서짓젠 허민 우선 젤 중요헌 것이 쟁기. 밧 가는 쟁기. 게민 또 소 헤서 밧 가는 거니까 쟁기 뗑기게시리 허젠 허면은 소 연장이 잇어야주게. 소 연장에서도 젤 중요헌 것이 쉐 이 뒷고개, 야가지에 메는 그 저 멍에. 소멍에. 그다음에 멍에줄."[172]

(농사지으려고 하면 우선 젤 중요한 것이 쟁기. 밭가는 쟁기. 그럼 또 소 해서 밭 가는 거니까 쟁기 당기게끔 하려고 하면 소 연장이 있어야지. 소 연장에서도 젤 중요한 것이 소 이 뒷목, 목에 매는 그 저 멍에. 소멍에. 그다음에 멍엣줄.)

위의 구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농기구가 '잠대'였다. 소의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연결한 줄을 쟁기에 연결해 소의 끄는 힘을 이용하여 쟁기로 밭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 소를 이용하는 연장이기 때문에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쟁기와 멍에를 통틀어 '소 연장'이라고 표현하였다. '잠대'는 가시나무, '멍에'는 머귀나무, '접궤(목대)'는 윤노리나무로 만들었다.

"이 쟁기는 여긴 완전 돌팟이니까이, 저 서쪽에 대정 쪽더레는 이 저 토질이 좋아 가지고 돌이 없는데 여기는 완전 밑에 돌이라. 겡헤 놓난 또 소는 힘이 쎄지, 가다근에 돌 탁 걸리면은 나무가 약헌 나문 대번에 부러져 불지. 게난 이 가시낭. 가시남.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시남이 젤 쎈 낭이주게. 게난 가시남으로 멘들앗주."[173]

(이 쟁기는 여기 완전 돌밭이니까, 저 서쪽에 대정 쪽으로는 이 저 토질이 좋아 가지고 돌이 없는데 여기는 완전 밑에 돌이야. 그래 놓으니까 또 소는 힘이 세지, 가다가 돌 탁 걸리면 나무가 약한 나문 대번에 부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가시나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시나무가 젤 센 나무지.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만들었지.)

고춘권 씨는 수산1리에서는 '잠대'를 나무 성질이 단단한 가시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수산1리 지역의 토질이 자갈이 많은 땅이어서 쟁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7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4〉는 수산2리 오남종 씨(1939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잠대' 끝에는 보습이 달려 있다. 오 씨의 창고 천장에 매달아 보관하고 있었다. 오 씨는 이 쟁기를 난산리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사진 4〉 오남종 씨 소장 '잠대'

(2) 멍에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소나 말을 수레에 연결해서 끌거나 소로 밭을 갈 때 소와 쟁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막대다. 소의 목에 얹어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수산1리 고춘권 씨는 머귀나무를 이용하여 '멍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멍에는 너무 쎈 남으로 허면은이 저 소 야가지에 허는 거라놓니까 너무 강한 나무로 허면은 소가 좀 못 젼디주게. 게난 젤 저 무른 남으로 헷어. 머귀남이엔 헌 게 그것이 아주 무른 남이라."[174]

(멍에는 너무 센 나무로 하면 저 소 목에 하는 거여서 너무 강한 나무로 하면 소가 좀 못 견디지. 그러니까 젤 저 무른 나무로 했어. 머귀나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주 무른 나무야.)

'멍에'는 '멍에'와 '접게'로 이루어졌다. '접게'는 사람에 따라서 '접궤'라고 하는데,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다. 표준어 '목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멍에 접궤. 접궤엔 헌 건 양쪽으로 영 헤근에 접는 뜻으로 접궤엔 헷지. 건 보통 윤헌 남이라야 헤. 성질이 강헌 것은 부러지기가 쉬우니까이, 그 가는 거라놓난 윤기가 잇는

174)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거라야 헤. 여기 윤남이라고 헤 가지고, 윤남이엔 헌 게 잇주게.”[175]

(멩에 목대. 목대라고 한 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는 뜻으로 목대라고 했지. 건 보통 윤한 나무라야 해. 성질이 강한 것은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그 가는 거여놓으니까 윤기가 있는 거여야 해. 여기 윤노리나무라고 해 가지고, 윤노리나무라고 한 게 있지.)

수산1리 고춘권 씨는 멍에의 ‘접궤’ 즉 목대는 멍에를 지탱하기 위하여 소의 어깨에서 목으로 걸치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나무여야 한다고 하였다. 목대로 많이 쓰이는 나무는 수산1리에서 ‘윤남’이라고 부르는 ‘윤노리나무’다.

“잠대, 쉐 ᄀᆞ리쳔 떠 가난에 또 몰 나 몰도 막 여라 개 헹 나 ᄀᆞ리치멍 밧 갈앗주. 몰이 더 빨라. 저 쉐접게, 몰접게. 쉐도 나 다 ᄀᆞ리쳐서. 쉐는 사흘, 몰은 그대로 생메라도 메우민 그대로 뭐 마차 메와근에 그대로 끗엉 뎅겨. 쉐접게. 여기 목에 영 거는 거, 뎅기는 거 밧가는 거. 멍에는 멍에허고 접게주게. 그 꼬부라진 건. 몰접게도 싯고.”[176]

(쟁기, 소 가르쳐서 떠 가니까 또 말 내 말도 아주 여라 개 해서 내 가르치면서 밭 갈았지. 말이 더 빨라. 저 소목대, 말목대. 소도 나 다 가르쳐서. 소는 사흘, 말은 그대로 생마여도 메우면 그대로 뭐 마차 메워서 그대로 끌어서 다녀. 쇠목대. 여기 목에 이렇게 거는 거, 당기는 거 밭가는 거. 멍에는 멍에하고 목대지. 그 꼬부라진 건. 말목대도 있고.)

〈사진 5〉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 때 사용했던 멍에다. 멍에 가운데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물건이 ‘접게’다. 보통은 부드러운 재질의 윤노리나무를 이용하는데, 사진은 플라스틱 호스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사진 5〉 고충삼 씨의 ‘멍에’와 ‘쉐접게’

“몰접게, 이거 몰로 밧 갈아난 거, 몰로. 이건 가른석 이건 무저미 이거 씌웁는 거 . 몰

17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76)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무저미, 무저미 아구리 들어가는 거. 주둥이 허민 이렇게 허믄 이건 가른석. 이거 몰이면 이건 가른석이야 요거. 게난 요렇게 잠대를 영 심는 거라. 이쪽 뗑기곡 저쪽 뗑기곡. 이거 손젭이엔 허여, 손젭이."[177]

('말목대', 이거 말로 밭 갈았던 거, 말로. 이건 '가른석' 이건 '무저미' 이거 씌우는 거. '말무저미', '무저미' 아가리 들어가는 거. 주둥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건 '가른석'. 이거 말이면 이건 '가른석'이야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쟁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쪽 당기고 저쪽 당기고. 이거 손잡이라고 해, 손잡이.)

위 구술 내용 중의 '가른석'은 쟁기로 밭을 갈 때 왼편으로 소나 말의 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말한다. 잠대로 밭을 갈 때 말이나 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고삐에 매달린 손잡이다. '무저미'는 '마소의 굴레에 딸려서 말의 아가리 밑에 대어지며 한 끝은 고삐에 연이어 매어지는 짤막한 물건'이다.

〈사진 6〉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말을 이용하여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무제미'로, 벨트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말에 쓰여서 '말무저미'라고도 한다. '무저미'는 지역에 따라서 '무제미'라고도 한다.



〈사진 6〉 고충삼 씨 소장 '무제미'



〈사진 7〉 고충삼 씨 소장 '멀접게'와 '무제미'

"멍엔 이거민 뒈여. 쉔 이거. 이 줄은 가른석. 이레저레 못 가게. 이 천은 이거 내리지 안허게 무끈 거주게. 이거 나 머리 씀으로 헌 거주게. 못 젼디지 안허게. 이거 마다리 감자 마다리 싼 거, 싼 거. 이 어깨 안 아프게시리 허는 거주게. 폭삭하게. 물 등테. 내려가

177)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지 안허게. 꼴랑지 안으로 들어가근에 이거 잠대 이거 영 허민 이거 이 선에서 너미 밑에 내리지도 안허고 헤야 잠대가 깊이 안 들어가거든."[178]

(멍엔 이거면 돼. 소는 이거. 이 줄은 '가른석'. 이리저리 못 가게. 이 천은 이거 내리지 않게 묶은 거지. 이거 나 머리 씀으로 한 거지. 못 견디지 않게. 이거 마대 고구마 마대 싼 거, 싼 거. 이 어깨 안 아프게끔 하는 거지. 폭신하게. 말 겉언치. 내려가지 않게. 꼬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쟁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선에서 너무 밑에 내리지도 않고 해야 쟁기가 깊이 안 들어가거든.)

〈사진 7〉은 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물무제미'와 '물접게', '가른석'을 연결한 모습이다. '물접게'는 말로 밭을 갈 때 말의 목에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즉 말의 목대이다. 고 씨는 소보다 말을 선호하였다. 말을 가르치면서 밭가는 거를 배웠다. 소는 한 사흘 정도를 가르쳐야 밭을 갈 수 있지만 말은 생마인 상태에서도 밭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접게' 밑으로 고구마를 담을 때 썼던 마대를 이용하여 '등테'를 만들었다. '(물)등테'는 말의 등에 씌워 말이 아프지 않게 헝겊 따위로 덧대는 물건을 말한다.



〈사진 8〉 고충삼 씨 소장 '물멍에'(위)와 '쉐멍에'



〈사진 9〉 고충삼 씨 소장 '쉐멍에'

〈사진 8〉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밭을 갈 때 사용했던 '물접게'(위)와 '쉐멍에'(아래)다. 〈사진 9〉는 고 씨의 '쉐멍에'다. 〈사진 10〉은 고충삼 씨가 '물접게'에 쟁기를 연결

178)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사진 10〉 말을 이용해 밭가는 모습을 시연하는 고충삼 씨



〈사진 11〉 '멀접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하여 밭가는 걸 시연하는 모습이고, 〈사진 11〉은 고 씨가 '무제미'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다.

### (3) 가른석

'가른석'은 밭을 갈 때 왼편으로 소의 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말한다.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서는 '가린석'이라고 하였다.



〈사진 12〉 고충삼 씨 '멍에'의 '가른석' 손잡이

"가린석 손젭인 옛날엔 윤누리로 멘들앗는데 나 철사로 멘들아실 거라. 다 꺼꺼지난에 철사로 헹 나대로 이거 호스 끼운 거. 게민 둔둔허주게. 옛날에 저 거시기 칙으로 헤실 거라. 이건 그물로 헤영 나가 드린 거. 이거 혼 스물다섯쯤에 멘들아져신가. 오십 년 넘어실 거주. 나가 칠십육이난."[179]

('가린석' 손잡인 옛날엔 윤노리나무로 만들었는데 나 철사로 만들었을 거야. 다 꺾어지니까 철사로 해서 나대로 이거 호스 끼운 거. 그러면 단단하지. 옛날에 저 거시기 칡으

179)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로 했을 거야. 이건 그물로 해서 내가 드린 거. 이거 한 스물다섯쯤에 만들어졌는가. 오십 년 넘었을 거지. 내가 칠십육이니까.)

〈사진 12〉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밭을 갈 때 사용했던 '가린석'이다. 그물을 이용하여 고 씨가 직접 드려서 만들었고, 손잡이는 윤노리나무로 해서 달았다가 나무가 꺾어지자 철사로 만들어 그 위에 호스를 끼워서 손이 아프지 않게 했다. 만들어서 50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가린석'을 드릴 때는 칡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 (4) 보섭과 벳

'보섭'은 표준어 '보습', '벳'은 표준어 '볏'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벳. 이 넓은 거 흑 자치는 것은 벳이고 저 가운디 땅을 영 파지게시리 허는 거 보섭."[180]
(볏. 이 넓은 거 흙 젖히는 것은 볏이고 저 가운데 땅을 이렇게 파이게끔 하는 거 보습.)

'보섭'은 밭갈이할 때 '잠대' 끝에 끼워 땅을 갈 때 사용하고, '벳'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으로, '보섭'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밧 갈 때 이거 영 헤 놩 또시 보섭이엔 헌 거 이 아래 메우주게. 이건 벳. 이 아래 보섭이엔 헌 거 영 흑 일러지는 거 영 허는 거 잇주게."[181]
(이것은 밭 갈 때 이거 이렇게 해 놓아서 또 보습이라고 한 거 이 아래 메우지. 이건 볏. 이 아래 보습이라고 한 거 이렇게 흙 일으켜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사진 13〉은 수산2리 오애생 씨(1931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벳'과 '벳칼'이다. '벳'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으로,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벳칼'은 쟁기의 볏에 묻은 흙을 긁어낼 때 쓰는 칼 모양의 나뭇

180)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81)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진 13〉 오애생 씨 소장 '벳'과 '벳칼'

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볏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4〉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사용했던 '벳'이다.


〈사진 14〉 고충삼 씨 소장 '벳'

"벳칼 이건 이디 헤엿당 이 아래 보섭이엔 영 헨 헌 거 허민 그디 흑 부뜨민 이걸로 흑 헤영 땅 질곡 헐 땐 하영 허주게. 게민 이걸로 영 영. 그걸 헤야 허주게. 하영 부떵은 갈아지지 안 허주게."[182]

(볏칼 이건 여기 했다가 이 아래 보습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거 하면 거기 흙 붙으면 이걸로 흙 해서 땅 질고 할 땐 많이 하지.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해야 하지. 많이 붙어서는 갈아지지 안 하지.)

'벳칼'은 보통 나무를 깎아 만들지만 때로는 대나무를 이용해서도 만들었음을 다음

182)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의 구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볏을 고정시키기 위해 받히는 대는 '벳바디'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벳바드렝이'라고 한다.

"벳 이레저레 안 허게 그 벳을 고정시킨 거. 거 벳바디. 벳칼은 흑 묻은 거 밧 갈 때는 발로 딱 허지만은 걸 이제 집이 갓당 놔두젠 허민 그 흑을 완전히 깨껏허게 다듬젠 허민 그 칼이 잇어야 뒈여. 나무로 된 거라. 나무로도 멘들고 대로도 멘들고 헹 그 벳칼이 잇어."[183]
(볏 이리저리 안 하게 그 볏을 고정시킨 거. 거 '벳바디'. 볏칼은 흙 묻은 거 밭 갈 때는 발로 딱 하지만 걸 이제 집에 갔다가 놔두려고 하면 그 흙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듬으려고 하면 그 칼이 있어야 돼. 나무로 된 거야. 나무로도 만들고 대로도 만들고 해서 그 볏칼이 있어.)

'중경벳'은 '중경+벳' 구성으로, 중경(中耕)은 중경, 즉 사이갈이할 때 사용하는 볏이다.

"중경벳 나대로 멘들앙 쓰는 거. 밧 갈 때게 감저 놀 때 쓰는 거."[184]
('중경벳' 나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 밭 갈 때 고구마 넣을 때 쓰는 거.)

〈사진 15〉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고구마를 중경할 때 사용했던 '중경벳'이다. 고 씨가 직접 만들었다.


〈사진 15〉 고충삼 씨 소장 '중경벳'

"중경벳은 요 중간에, 중간에부떠 나왓주. 그때 시절에는 이 저 중경벳이 따로 엇엇어. 건 중간에 우리, 우리 세대 낭 이제 그 농사를 여라 가지 그 원예 농사를 허게 뒈니까 그 중경이 필요허니까 이제는 그 중경벳을, 이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헤 가지고 중경벳이 낫주게. 경

18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84)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운기로 중경을 허젠 허니까 중경벳이 나온 거라. 이 고구마 거튼 거 중경허젠 허민 쉐로도 헷주만은 그때 시절에는 그 뭐 중경허멍 허질 안헷주, 농서."[185]

('중경벳'은 요 중간에, 중간에부터 나왔지. 그때 시절에는 이 저 '중경벳'이 따로 없었어. 건 중간에 우리, 우리 세대 되어서 이제 그 농사를 여러 가지 그 원예 농사를 하게 되니까 그 중경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중경벳'을, 이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중경벳'이 나왔지. 경운기로 중경을 하려고 하니까 '중경벳'이 나온 거야. 이 고구마 같은 거 중경하려고 하면 소로도 했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 뭐 중경하면서 하질 않았지, 농사.)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중경벳'은 경운기가 나오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고구마 중경 같은 것은 소를 이용하여 하였다. 중경벳은 구덩이에 흙은 더 얹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흙을 양쪽으로 젖힐 수 있게끔 벳이 양쪽으로 되어 있다.

### (5) 중경기

'중경기(中耕機)'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도중에 이랑에 흙을 올려줄 때 사용하는 쟁기를 말한다.


〈사진 16〉 고대인 씨 소장 '중경기'

"중경기. 이렁이 무 심은 디 강, 비나 오랑 쓸려불면은 또 이렁을 북돋아 주는 거주. 옛날에는 저 말로 허든지 소로 허든지 감자나 심으면은 이런 거 다 만들엇거든. 저거 난 다음에 요즘은 또 엔진 달린 게 잇어, 엔진. 펜안허게 헐라고. 이건 사름 자기 힘으로 헤야지, 힘으로. 힘으로 눌렁 미는 거."[186]

(중경기. 이랑에 무 심은 데 가서, 비나 와서 쓸려버리면 또 이랑을 북돋워 주는 거지. 옛날에는 저 말로 하든지 소로 하든지 고구마나 심으면 이런 거 다 만들었거든. 저거 난 다음에 요즘은 또 엔진 달린 게 있어, 엔진. 편안하게 하려고. 이건 사람 자기 힘으로 해야지, 힘으로. 힘으로 눌러서 미는 거.)

18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86)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사진 16〉은 수산2리 고대인 씨(1956년생) 집에서 무밭을 중경할 때 사용하는 '중경기'다. 이 '중경기'는 사람의 팔심으로 밀어서 갈면 고랑의 흙이 이랑으로 덮인다. 앞에 바퀴가 달려 있어 힘을 덜 들이고도 중경을 할 수 있다. 중경을 할 때는 쟁기에 '중경벳'을 메워서 갈기도 하였다. 고 씨에 따르면, 요즘은 엔진이 달린 '중경기'도 나왔다.

### 4.1.2. 땅 파는 도구

#### (1) 갈레죽

'갈레죽'은 '삽'을 가리키는 방언형이다. 요즘은 '갈레죽' 대신에 '삽'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쓴다. '삽'은 흙을 파거나 흙이나 모래 따위를 용기에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삽'이 끝이 둥글면서도 뾰족한 모양이라고 한다면 '우삽'은 끝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보통의 삽보다 크다. '우삽'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서 '오삽'이라고 한다.

"이거 우삽이라고 헤가지고 세멘 헐 때나 뭐 헐 때 사용허는 거고. 요건 뭐 흑 팔 때 쓰는 거고."[187]

(이거 '우삽'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할 때나 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건 뭐 흙 팔 때 쓰는 거고.)



〈사진 17〉 김두추 씨 소장 '삽'



〈사진 18〉 오록생 씨 소장 '삽'

187)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17〉은 난산리 김두추 씨(1943년생)가 사용했던 삽이다. 끝이 뾰족하면서도 둥근 것은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삽이고(아래), 끝이 일자로 되어 있는 '우삽'(위)은 시멘트를 섞거나 뜰 때 사용했다고 하였다. 〈사진 18〉은 난산리 오록생 씨(1924년생)가 흙을 파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삽이다. 손잡이가 많이 헌 것으로 보아 오래된 삽이다.

"갈레죽 이것은 밧도 에염을 쉐로 갈지 못헐 머들이 잇주게. 그런 것도 궹이로 파면 흑은 이걸로 영 잦히고. 또 사름이 죽으면 흑을 망텡이로 헤근에게 널르게 안 허영 영 허영 둘렁. 밧이난 혼엇이 널르게 허지 못허주게. 경허민 막 지피 파멍 이걸로 멩텡이에 담앙 그 사름 죽으민 묠 쌓지게. 이거 경헐 때 썻주게. 옛날은 질도 저런 질이 아니라놓난 파지민 반으로 헹 질 다끄레 갈 때도 삽은 앗앙 가고 그렇게 헤난 거."[188]

(삽 이것은 밭도 가장자리를 소로 갈지 못할 돌무더기들이 있지. 그런 것도 괭이로 파면 흙은 이걸로 이렇게 젖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흙을 망태기로 해서 너르게 안 해서 이렇게 해서 둘러서. 밭이니까 한없이 너르게 하지 못하지. 그렇게 하면 아주 깊이 파면서 이걸로 망태기에 담아서 그 사람 죽으면 묠 쌓지. 이거 그렇게 할 때 썼지. 옛날은 길도 저런 길이 아니어놓으니까 파지면 반으로 해서 길 닦으러 갈 때도 삽은 가져서 가고 그렇게 했던 거.)



〈사진 19〉 오애생 씨 소장 '갈레죽'



〈사진 20〉 고정봉 씨 소장 '꽃삽'

〈사진 19〉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갈레죽'이다. 오 씨는 이 삽을 '갈레죽'이라고도 하고 '삽'이라는 명칭을 섞어 쓰고 있었다. 이 삽은 밭의 가장자리를

188)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파거나, 봉분을 쌓을 흙을 파거나 담을 때, 또 파인 길을 메우러 다닐 때 들고 다녔다고 했다. 사용한 지 오래서인지 많이 낡은 상태였다.

〈사진 20〉은 수산1리 고정봉 씨(1938년생) 집에서 화분에 꽃 따위를 심을 때 사용하는 삽이다.

### (2) 궹이

'궹이'는 밭을 새로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괭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21〉 고덕후 씨 소장 '궹이'


〈사진 22〉 고대인 씨 소장 '궹이'

〈사진 21〉은 수산1리 고덕후 씨(1940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궹이'다. 〈사진 22〉는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했던 '궹이'다. 곡괭이의 한쪽 날을 잘라내고 '궹이'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 (3) 목궹이

'목궹이'는 땅에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파낼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다.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를 말한다. 표준어 '곡


〈사진 23〉 김두추 씨 소장 '목궹이'

괭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23〉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땅속의 돌을 파낼 때 사용했던 '목궹이'다. 김 씨는 '목궹이'를 '곡궹이'라고도 하였다.

### (4) 쉐스랑

'쉐스랑'은 표준어 '쇠스랑'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쉐스랑'은 거름을 내거나 땅을 파거나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쉐스랑 나가 이제도 쓰는 거. 궹이질 허는 거주게."[189]
(쇠스랑 내가 이제도 쓰는 거. 괭이질 하는 거지.)

〈사진 24〉는 난산리 오록생 씨가 땅을 파는 용도로 사용했던 '쉐스랑'이다. 오 씨는 땅을 파는 것을 '궹이질'이라고 표현하였다.

난산리 이영생 씨(1934년생)는 '쉐스랑'을 '쉐스렁'이라고 하였다. 〈사진 25〉는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쉐스렁'이고, 〈사진 26〉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했던 '쉐스렁'이다. 〈사진 27〉은 수산2리 고영자 씨(1933년생) 집에서 땅을 팔 때 사용했던 '쉐스렁'이고, 〈사진 28〉은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했던 '쉐스랑'이다.

"쉐스랑 돗가레 낼 때 쉐걸름 내고 돗가레 내고."[190]
(쉐스랑 돗가레 낼 때 쉐걸름 내고 돗가레 내고.)

〈사진 29〉는 온평리 현금옥 씨(1934년생) 집에서 돼지거름이나 소두엄을 밖으로 꺼낼 때 사용했던 '쉐스랑'이다. 현 씨는 돼지거름을 '돗가레', 소두엄을 '쉐걸름'이라고 하였다.

189) 난산리 오록생 씨 구술.
190) 온평리 현금옥 씨 구술.



〈사진 24〉 오록생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5〉 이영생 씨 소장 '쉐스렁'



〈사진 26〉 김두추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7〉 고영자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8〉 고대인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9〉 현금옥 씨 소장 '쉐스랑'

(5) 선호미

'선호미'는 서서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서서 사용하는 호미여서 '선호미'라고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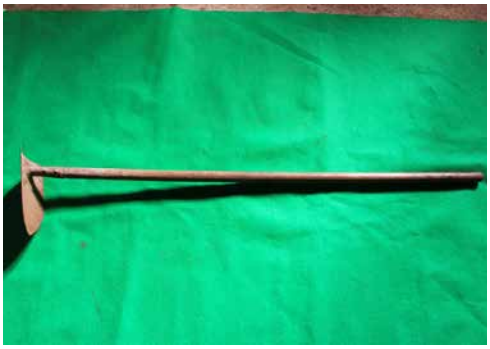
〈사진 30〉 고충삼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1〉 고영자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2〉 강옥화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3〉 고대인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4〉 김두추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5〉 정복희 씨 소장 '선호미'

〈사진 30〉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선호미'다. 〈사진 31〉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선호미'고, 〈사진 32〉는 수산2리 강옥화 씨(1947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선호미'다. 〈사진 33〉은 수산2리 고대인 씨, 〈사진 34〉는 난산리 김

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선호미'다. 〈사진 35〉는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선호미'다.

"선호미, 이거는 나올 때부터 선호미엔 허고."[191]
('선호미', 이거는 나올 때부터 '선호미'라고 하고.)

"선호미. 그 전이 선호미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짤랐거든. 겐디 이제는 그런 것도 잇주만 요것도 선호미엔 헤근에."[192]
('선호미'. 그 전에 '선호미'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잘랐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것도 '선호미'라고 해서.)

### (6) 소꾸

'소꾸'는 외양간이나 돼지우리의 거름을 내거나 거름 따위를 밭에 흩을 때 사용하는 포크 모양의 농기구다. 영어 '포크(fork)'에서 차용한 일본어(フォーク)를 '소꾸'라고 발음하였다. 모양이 포크 모양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호크'라고 하는데, 난산리 강정자 씨는 '소꾸'라고 하였다.

"이건 소꾸엔 헤근에 무신 찌푸레기나 저 검질 영 헐 때 사용허는 거. 소걸름도 내고."[193]
(이건 '소꾸'라고 해서 무슨 지푸라기나 저 검불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 소두엄도 내고.)

〈사진 36〉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검불을 그러모을 때 사용하는 '소꾸'다. 예전에는 소두엄을 낼 때 사용했던 도구다. '소꾸'를 수산1리 고덕


〈사진 36〉 김두추 씨 소장 '소꾸'

191)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192)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193)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후 씨는 '깔꾸리'라고 하였다. 고 씨는 '호꾸' 또는 '후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다.

"여기 뭐 소각시킬 때 쓰는 거. 그냥 놓민 잘 안 타거든. 그걸 깔꾸리로 잘 젓어줘야 잘 타거든. 깔꾸릴 호꾸엔도 허고 후꾸엔도 허고. 저거 걸름 헐 때 써난 거. 아까 소오양간에 멜 때는 이런 걸로 저 퉤비, 퉤비 낼 거 이걸로 썻주. 요거 그때 사용헤난 거."[194]

(여기 뭐 소각시킬 때 쓰는 거. 그냥 넣으면 잘 안 타거든. 그걸 '깔꾸리'로 잘 저어줘야 잘 타거든. '깔꾸리'를 '호꾸'라고도 하고 '후꾸'라고도 하고. 저거 거름 할 때 썼던 거. 아까 소외양간에 맬 때는 이런 걸로 저 퇴비, 퇴비 낼 거 이걸로 썼지. 요거 그때 사용했던 거.)

〈사진 37〉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하는 '호꾸'다. 고 씨는 '깔꾸리'라고도 하였는데, 쓰레기를 소각할 때 쓰레기를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를 외양간에 맬 때 외양간의 거름을 밖으로 끄집어 낼 때 이용했던 도구다. 고 씨는 외양간을 '오양간'이라고 하였다.


〈사진 37〉 고덕후 씨 소장 '호꾸'

### (7) 쒜게

'쒜게'는 밭에 박힌 돌 따위를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지렛대'에 해당하는 도구다.

〈사진 38〉은 온평리 현문자 씨(1939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쒜게'다.


〈사진 38〉 현문자 씨 소장 '쒜게'

194)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 4.2.1. 호미류

(1) 골각지

'골각지'는 김을 매거가 고구마나 감자 따위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 성산읍 지역의 방언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골게기'라고도 하였다. '골각지'를 한경 지역에서는 '골겡이'라고 하였다. 호미도 쓰임과 밭의 환경에 따라서 잎과 자루, 손잡이 모양이나 크기가 달랐다.

"검질메난 골각지. 섭이 큰 건 영 파는 건 그거 허고. 저거 저 검질메난 거."[195]
(김맸던 호미. 잎이 큰 건 이렇게 파는 건 그거 하고. 저거 저 김맸던 거.)



〈사진 39〉 김성옥 씨 소장 '골각지'



〈사진 40〉 고덕후 씨 소장 '골각지'

〈사진 39〉는 난산리 김성옥 씨(1930년생) 집에서 김맬 때 사용했던 '골각지'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사진 40〉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골각지'다.

〈사진 41〉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김맬 때 사용하는 '골각지'이고, 〈사진 42〉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골각지'다. 〈사진 43〉은 신천리 송부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송 씨는 이를 '육지 골겡이'라고 하며 김매고 고구마 캘 때 사

195)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사진 41〉 강옥화 씨 소장 '골각지'



〈사진 42〉 오남종 씨 소장 '골각지'



〈사진 43〉 송부자 씨 소장 '골게기'



〈사진 44〉 현금옥 씨 소장 '골게기'

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44〉는 온평리 현금옥 씨 집에서 사용하는 '골게기'다. 현 씨는 밭에서 사용하는 호미 가운데 잎이 작은 것은 '골게기', 잎이 큰 것은 '호멩이'라고 구분하였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호미도 '골게기'라고 하였다.

"골게기 (섭) 족은 것도 잇주. 거 호멩이. 족은 건 골게기, 이건 호멩이. 바당엔 골게기."[196]
(호미 (잎) 작은 것도 있지. 거 '호멩이'. 족은 건 '골게기', 이건 '호멩이'. 바당엔 '골게기'.)

### (2)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을 가리킨다. 벨 곡식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호미 날의 크기나 모양, 자루의 크기를 달리하여 만들었다.

196) 온평리 현금옥 씨 구술.

"쪼그락헌 호미. 저거 아정 뎅김 막 허주게. 마농도 허레 뎅기곡. 옛날부터 저건 사용허는 거난 호미. 조도 비고 보리도 비곡 콩도 꺼끄곡 무신.[197]

(자그마한 낫. 저거 가져 다니기 자주 하지. 마늘도 하러 다니고. 옛날부터 저건 사용하는 거니까 낫. 조도 베고 보리도 베고 콩도 꺾고 무슨.)

"호미는 지금 밧디 농사지으민 요즘은 뭐 허냐 허면 참깨. 참깨허민 호미로 다 비고. 콩도. 콩은 빈덴 안 허고 꺼끈덴 허여. 이 호미 영 대영 밀리민 톡톡 꺼꺼져. 것도 이걸 사용해야 뒈여. 작은 건 이건 여자덜 좀 가볍게 헐려고 작은 거 써. 저 큰 거는 저 과수목에 가서 방풍목 같은 거 딱 딱 끈고 좀 남자덜 사용하고 방풍남 주변에 저 정리하는 용으로 저거 쓰주."[198]

(낫은 지금 밭에 농사지으면 요즘은 뭐 하냐 하면 참깨. 참깨 하면 낫으로 다 베고. 콩도. 콩은 벤다고 안 하고 꺾는다고 해. 이 낫 이렇게 대서 밀리면 톡톡 꺾어져. 것도 이걸 사용해야 되어. 작은 건 이건 여자들 좀 가볍게 하려고 작은 거 써. 저 큰 거는 저 과수나무에 가서 방풍 나무 같은 거 딱딱 끊고 좀 남자들 사용하고 방풍 나무 주변에 저 정리하는 용으로 저거 쓰지.)

〈사진 45〉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곡식을 베러 다닐 때 사용했던 '호미'다. 이 '호미'를 이용하여 김 씨는 마늘도 캐고, 조와 보리 등 곡식을 벨 때 사용했다. 작은 것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큰 것은 과수원의 방풍용 나무의 가지치기를 할 때 남자



〈사진 45〉 김성옥 씨 소장 '호미'



〈사진 46〉 고정봉 씨 소장 '호미'

197)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198)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46〉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호미'들이다. '호미'는 참깨 등을 벨 때 사용하고 있고, 콩을 꺾을 때도 이용한다. 콩은 직접 '호미'로 베는 것이 아니라 콩대에 '호미'를 대면 그냥 꺾어지기 때문에 '꺾는다'고 표현한다. 크기가 작은 '호미'는 고 씨의 부인 강매화 씨(1939년)가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47〉 고춘권 씨 소장 '호미'



〈사진 48〉 고덕후 씨 소장 '호미'



〈사진 49〉 정복희 씨 소장 '호미'



〈사진 50〉 강옥화 씨 소장 '호미'

〈사진 47〉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했던 '호미'고, 〈사진 48〉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보리 따위를 벨 때 사용했던 '호미'다. 〈사진 49〉는 수산1리 정복희 씨 집에서 사용하는 '호미'다. 〈사진 50〉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했던 '호미'다. 벌초할 때도 쓰고, 풀이나 보리 따위를 벨 때 사용했던 농기구다.

"호미는 뭐 벌초헐 때도 쓰고. 뭐 빌, 빌 거가 또 잇어낫주게. 이제는 엇지만. 풀도 비고 옛날에 뭐 보리 다 비엇주."[199]

(낫은 뭐 벌초할 때도 쓰고. 뭐 벨, 벨 거가 또 있었었지. 이제는 없지만. 풀도 베고 옛날에 뭐 보리 다 베엇지.)

"저거 호미 제 지내레 갈 때 앞이 고사리, 고사리 영 비여둬근에 젯자리 꼴앙. 음식 벌기젠 허믄 고사리 비여둬근에 거기 딱 음식. 그 영 가믄은 비석 세우믄 비석 팡이 잇엉 그 앞이 허젠 허민 거 풀 이시민 거 비여둬근에 거기 음식을 벌여."[200]

(저거 낫 제 지내러 갈 때 앞의 고사리, 고사리 이렇게 베어둬서 제석 깔아서. 음식 벌이려고 하면 고사리 베어둬서 거기 딱 음식. 그 이렇게 가면 비석 세우면 비석 대가 있어서 그 앞에 하려고 하면 거 풀 있으면 거 베어둬서 거기 음식을 벌여.)

"호미, 그거는 보리 빌 때도 쓰고 유채 빌 때도 쓰고. 긴 거 유채 빌 때 쓰는 거. 긴 거나 쫄른 거나 마찬가지."[201]

(낫, 그거는 보리 벨 때도 쓰고 유채 벨 때도 쓰고. 긴 거 유채 벨 때 쓰는 거. 긴 거나 짧은 거나 마찬가지.)



〈사진 51〉 현태일 씨 소장 '호미'



〈사진 52〉 현문자 씨 소장 '호미'

〈사진 51〉은 신천리 현태일 씨(1932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호미'다. 곡식 따위를

199)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200) 신천리 현태일 씨 구술.
201)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53〉 현용언 씨 소장 '호미'



〈사진 54〉 고대인 씨 소장 '호미'

벨 때 사용했던 이 '호미'를 현 씨는 산소에 갈 때 고사리 따위의 풀을 베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 〈사진 52〉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호미'다. 이 '호미'를 이용하여 현 씨는 보리도 베고 유채도 베었다.

〈사진 53〉은 신천리 현용언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호미'와 '호미'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호미가방'이다. 〈사진 54〉는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호미' 등을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와 양동이다.

### (3) 빗창

'빗창'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한 가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빗창'은 당근 따위를 팔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의 '빗창'을 말한다. 구좌읍에서 조사되었던 '당근 파는 빗창', '삼마 파는 빗창'과 견주어 보면 '빗창' 모양의 도구여서 붙은 이름이다.

"저 바다에서 해녀덜이 빗창 빗창 허는디 여기서도 빗창이렌 골아, 여기도. 여기 사름덜 저거 어디 당근 땅이 쎄서 메기 어려울 때 그때는 저걸 찔러서."[202]

(저 바다에서 해녀들이 빗창 빗창 하는데 여기서도 빗창이라고 말해, 여기도. 여기 사람들 저거 어디 당근 땅이 세서 매기 어려울 때 그때는 저걸 찔러서.)

202)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사진 55〉 고정봉 씨 소장 '빗창'



〈사진 56〉 현문자 씨 소장 '빗창'

〈사진 55〉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빗창'이다. 손으로 잡기 쉽게 손잡이가 달려 있다. 고 씨의 부인 강매화 씨가 당근 등을 파러 다닐 때 갖고 다니는 도구다. 땅이 세서 당근을 맬 수 없을 때 '빗창'으로 땅을 파면 당근이 자연스럽게 뽑아진다고 한다. 〈사진 56〉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삼마 팔 때 사용했던 '빗창'이다.

"빗창 삼마 팔 때. 삼마 몰라? 가을 들엉 파면은 겨울까장 파는 거주. 이젠 안 허여. 저거 삼마빗창. 빗창에 손젭이 부쳐부난."[203]

('빗창' 삼마 팔 때. 삼마 몰라? 가을 들어서 파면은 겨울까지 파는 거지. 이젠 안 해. 저거 '삼마빗창'. '빗창'에 손잡이 붙여버리니까.)

"이거 뭐 파는 거 이거. 밧디 가서 뭐 마농도 파고 이걸로 아무 거라도. 골겡이로 잘 안 들어가지게. 게니까 이거 지프게 파는 거. 바다에 뎅길 때 허는 게 빗창이주만 이것도 빗창 헤도 뒈여."[204]

(이거 뭐 파는 거 이거. 밭에 가서 뭐 마늘도 파고 이걸로 아무 거라도. 호미로 잘 안 들어가지게. 그러니까 이거 깊게 파는 거. 바다에 다닐 때 하는 게 '빗창'이지만 이것도 '빗창' 해도 되어.")

위의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빗창'은 바다에서

203)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204)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전복 딸 때 사용하는 도구였지만, 밭에서 사용하는 도구도 '빗창'과 비슷하여 '빗창'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2. 타작 도구

#### (1) 도께

'도께'는 곡식의 낟알을 뚜드려 떨기 위하여 쓰던 재래식 농기구의 한 가지다. 긴 작대기 끝에 회초리를 서너 개 달아서 휘두르면 돌아가게 만들어졌다. 긴 막대를 '도께어시', 자잘한 회초리는 '도깨아덜'이라고 한다. '도께어시'는 표준어 '도리깻장부', '도깨아덜'은 표준어 '도리깻열'에 대응하는 말이다. 도리깻열이 돌게끔 '도께아덜'과 연결해 주는 작은 막대는 '도께톨레'라고 한다. '도께톨레'는 표준어 '도리깨꼭지'에 대응하는 말이다. '도께톨레'는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으로,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께, 이디서 저 제줏말로 도께. 저 육짓말로 저 뭣고? 도리께. 여기서 도께엔 허주. 저거 콩도 두드리고. 옛날에는 곡식을 전부 저걸로 때렷주 뭐. 탈곡기 엇을 때. 지금도 조금씩 헌 것은 콩이든 이 뭐 팥이든 이 우잣디서 조금씩 헌 것은 다 도께로 허지. 탈곡기로 헐 수 엇으니까. 많은 건 헤도 쪼금씩 허는 건 뭐."[205]

(도리깨, 여기서 저 제줏말로 '도께'. 저 육지 말로 저 뭣이니? 도리깨. 여기서 '도께'라고 하지. 저거 콩도 두들기고. 옛날에는 곡식을 전부 저걸로 때렸지 뭐. 탈곡기 없을 때. 지금도 조금씩 한 것은 콩이든 이 뭐 팥이든 이 텃밭에서 조금씩 한 것은 다 도리깨로 하지. 탈곡기로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건 해도 조금씩 하는 건 뭐.)

〈사진 57〉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도께'다. 탈곡기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했던 타작도구인데,



〈사진 57〉 고춘권 씨 소장 '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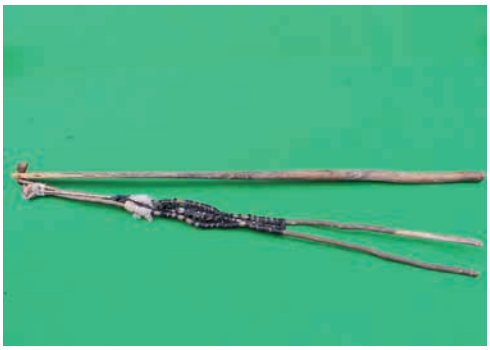
20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고 씨는 지금도 분량이 적은 콩 등의 곡식을 타작할 때는 이 '도께'를 이용하고 있다. '도께'는 농촌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구비해 놓아야 할 농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태작은 그 저 도께로 헷주. 홀테로 홀탕 고고리만 홀타가지고 옛날은 다 집집마다 그 홀테가 잇엇주. 그걸로 헹 홀탕 도께로 테작허영."[206]
(타작은 그 저 도리깨로 했지. 그네로 훑아서 이삭만 훑아가지고 옛날은 다 집집마다 그 그네가 있었지. 그걸로 해서 훑아서 도리깨로 타작해서.)

"저거 콩도 두드리고 꿰도 두드리고 산듸도 두드리곡 도께질. 에야홍 허멍. 에야홍 에야홍아 경허는 거."[207]
(저거 콩도 두들기고 참깨도 두들기고 밭벼도 두들기고 도리깨질. 에야홍 하면서. 에야홍 에야홍아 그렇게 하는 거.)

〈사진 58〉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도께'다. 이 '도께'를 이용하여 콩도 타작하고, 참깨도 털고, 밭벼도 타작했다. '도께질', 즉 도리깨질은 '에야홍 에야 홍아'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였다.


〈사진 58〉 고영자 씨 소장 '도께'

### (2) 홀테

'홀테'는 보리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그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산듸(밭벼)'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는 따로 '산듸클'이라고 하고, 벼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는 '나록클'이라고 한다. 수산1리에서는 이를 '홀테'라고 하였다.

### (3) 훼초리

'훼초리'는 표준어 '회초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20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07)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사진 59〉는 신산리 강태웅 씨(1950년생) 집에서 곡식 따위를 타작할 때 사용했던 '훼초리'다. 윤노리나무로 만든 '윤노리훼초리'다.


〈사진 59〉 강태웅 씨 소장 '훼초리'

## 4.3. 건조와 손질 관련

### 4.3.1. 건조 도구

(1) 멍석

'멍석'은 곡식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주로 볏짚이나 밭볏짚으로 결어 만들었다. 멍석에 말리는 곡식을 '날레'라고 하는데, '날레'를 널 때 사용하는 도구가 '멍석'이다. 곡식을 손질하거나 맷돌을 이용하여 곡식을 거피하거나 갈 때도 멍석을 이용하였다.

〈사진 60〉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김 씨는 멍석 두 개를 창고 구석에 세워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60〉 김두추 씨 소장 '멍석'

"멍석 저건 우리 아버님이 절은 거 같애. 나가 절은 거 아니고. 난 멍석은 안 절아 봤으니까. 저건 물린 거. 저건 날레 널 때. 여기서 날레 넌다고 허지, 곡식 널엉 말리울 때 날레 널 때. 조도 널고 보리도 널고."[208]

(멍석 저건 우리 아버님이 결은 거 같아. 내가 결은 거 아니고. 난 멍석은 안 결어 봤으니까. 저건 물린 거. 저건 '날레' 널 때. 여기서 '날레' 넌

208) 수산1리 고춘권·김병생 씨 구술.

다고 하지, 곡식 널어서 말릴 때 '날레' 널 때. 조도 널고 보리도 널고.)

〈사진 61〉은 수산1리 고춘권·김병생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멍석이다. 이 멍석을 고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린 것으로 아버지가 결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멍석을 이용하여 고 씨는 조도 널고 다른 곡식들도 널었다. 곡식을 말리기 위해 멍석에 너는 것을 '날레 넌다'고 한다.


〈사진 61〉 고춘권 씨 소장 '멍석'

"멍석은 옛날엔게 농서지니까. 농서지어서 조도 볼리고 산디도 갈고 허니까 널어난 거지. 물려받은 거지. 시아버지가 절은 거. 옛날 어른은 이 남자 어른은 ᄒᆞᆫ 이삼십만 뒈민 이 멍석을 절어낫주게. 그때는 가빠도 엇고 아무 것도 엇고 농사만 지니까 멍석으로만 너니까. 산디도 널고 조도 널곡 ᄆᆞ물도 널고 경헷지. 멍석은 산디 갈아나민 산디찍으로. 이것이 산디찝으로 멘든 거지. 옛날은 기곗방이 엇어서 돌로만 ᄀᆞ레 멘들앙 영 영 둘러서 ᄆᆞ물도 갈고 헷주게. 그걸 헐 때 쓰는, 족게 멘든 거. 곡석 널 걸로 헌 것은 저디 큰 거 잇어. 막 넓은 거. 이짝은 헐어부난. 게고 이짝도 이추룩 잇어야. 놀게 영 영 잇어서 허면 산디찝을 헤서게 노 ᄒᆞ나에 잦히곡 잦히곡 이레 헹. 이건게 그 ᄀᆞ레도 돌로 멘든 거 골앙 허곡 쏠 헤지민 불릴 때도게 저 푸는체가 셧주, 영 영 허는. 경허민 이거 적은 걸로게. 지금은 가빠여 창고여 잇주만은 그땐 부엌벳기 엇엇주. 게민 부엌에선 큰 거 헤당 ᄀᆞᆯ지 못허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족게 헤서 부엌에서 ᄀᆞᆯ앗지. 옛날은 창고가 엇엇주게."[209]

(멍석은 옛날엔 농사지으니까. 농사지어서 조도 밟고 밭벼도 갈고 하니까 널었던 거지. 물려받은 거지. 시아버지가 결은 거. 옛날 어른은 이 남자 어른은 한 이삼십만 되면 이 멍석을 결었었지. 그때는 가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농사만 지으니까 멍석으로만 너니까. 밭벼도 널고 조도 널고 메밀도 널고 그렇게 했지. 멍석은 밭벼 갈아나면 밭볏짚으로. 이것이 밭볏짚으로 만든 거지. 옛날은 정미소가 없어서 돌로만 맷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메밀도 갈고 했지. 그걸 할 때 쓰는, 적게 만든 거. 곡식 널 걸로 한 것은 저

209)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기 큰 거 있어. 아주 넓은 거. 이쪽은 헐어버리니까. 그러고 이쪽도 이처럼 있어야. 놀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하면 밭볏짚을 했어. 노 하나에 젖히고 젖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그 맷돌도 돌로 만든 거 갈아서 하고 쌀 해지면 불릴 때도 저 키가 있었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이거 작은 걸로. 지금은 가빠다 창고다 있지만 그땐 부엌밖에 없었지. 그러면 부엌에선 큰 거 해다가 깔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부엌에서 갈았지. 옛날은 창고가 없었지.)



〈사진 62〉 오애생 씨 소장 '멍석'



〈사진 63〉 강주호 씨 소장 '멍석'

〈사진 62〉는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곡식을 맷돌에 갈거나 '푸는체'로 갈무리할 때 사용했던 멍석이다. 오 씨의 시아버지가 밭볏짚을 이용하여 결은 것을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곡식을 거피하거나 가는 일은 보통 부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곡식을 말리기 위해 사용하는 멍석보다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 오래 사용해서 멍석 귀퉁이가 잘려 나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63〉은 수산2리 강주호 씨(1962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강 씨의 부모가 온평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멍석인데, 강씨 집에 온 후에는 추석 때 형제들이 모이면 윷놀이 판으로 쓰고 있다.

"멍석도 ᄒᆞ나 이실 거라. 아버지가 열여섯 개 잇어난디 신산중학교 거기 세 개 가고 성산농협 두 개 가고. 아바지신디 열여덟 개 물렷는디."[210]

210) 수산2리 오남종 씨 구술.

(멍석도 하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열여섯 개 있었었는데 신산중학교 거기 세 개 가고 성산농협 두 개 가고. 아버지한테 열여덟 개 물렸는데.)

〈사진 64〉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던 멍석이다. 오 씨는 하나 하나 주다보니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동네에서 윷놀이할 때도 가져다 썼다고 하였다.


〈사진 64〉 오남종 씨 소장 '멍석'

"멍석에 날레 널어난 때가 혼 이십 년은 뒛수다. 십오 년. 이제는 농사를 안 헴수게."[211]

(멍석에 곡식 널었던 때가 한 이십 년은 됐습니다. 십오 년. 이제는 농사를 안 하고 있네요.)

〈사진 65〉는 신산리 한대순 씨(1946년생) 집에서 곡식을 말릴 때 썼던 멍석이다.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하였다. 한 씨는 멍석을 사용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15~20년은 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멍석 사용을 않고 있다.


〈사진 65〉 한대순 씨 소장 '멍석'



〈사진 66〉 현문자 씨 소장 '멍석'

211) 신산리 한대순 씨 구술.

〈사진 66〉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 보관해 있는 멍석이다. 현 씨의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쓰던 것을 보관하고 있다. 바를 이용하여 벽의 한 면에 매달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67〉은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고 씨는 이 멍석을 창고에 맨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67〉 고충삼 씨 소장 '멍석'


〈사진 68〉 고춘권 씨 소장 '가빠'

### (2) 가빠

'가빠'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또는 거기에 고무 같은 것을 먹인 천'을 말한다. 농촌에서는 이 '가빠'를 보리나 콩 따위를 말릴 때 사용하였다.

〈사진 68〉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가빠'다. 더미 속의 파란 색의 물건이 '가빠'다.

### (3) 솔박

'솔박'은 둥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도구다. 곡식을 퍼 담거나 곡식의 쭉정이 등을 없애기 위하여 바람에 드릴 때 사용했던 나무 그릇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파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기름하게 만들어서 판다. '솔박'은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구좌읍, 성산읍, 안덕면 지역에서는 '솔박'이라고 하고 한경면 지역에서는 '좀팍'이라고 하여 방언차를 보였다.

"솔박 이거 나무로 판 거. 이거 무신 남산디 몰라."[212]
('솔박' 이거 나무로 판 거. 이거 무슨 남인지 몰라.)

"솔박 저것은 삼십 년 썻주게. 이건 산 거주, 산 거. 그때는 날 궂고, 이런 질이 아니랑 흑땅이난 비가 오라나나 저레 눈이 오랑 허민 그땐 찝신덜 신을 때난 신을 나위가 엇으민 낭으로 신도 만들앙 신어낫주게. 낭으로 영 파근에. 경허난 이 남신 파는 하르방덜이 이 솔박도 파. 솔박도 파고 도고리엔 헤근에게 영 다라ᄀᆞ추룩 헌 것도 허는 하르방이 훈ᄆᆞ을에 훈둘 셔낫주. 수산에서. 그땐 허민 폭낭으로 허민 겁(?) 엇넨 허멍 폭낭으로 파고 경헤낫주. 그렇게 헤난 거. 그땐게 돈으로도 ᄒᆞ쏠 안네고 또 ᄒᆞ쏠게 아는 동넷하르방은 돈을 안 받으켄 허민 담베로도. 그때 봉담베 허민 사당 드리곡 그렇게 헷주게. 봉담베엔 헌 거 종이로 헤근에 그자 무데기 그레 봉 헤영 봉담베로 허민게. 통 몰라 담베통 그것에 담앙 피우곡 헤낫주."[213]

('솔박' 저것은 삼십 년 썼지. 이건 산 거주, 산 거. 그때는 날 궂고, 이런 길이 아니어서 흙땅이니까 비가 와나거나 저리로 눈이 와서 하면 그땐 짚신들 신을 때니까 신을 나위가 없으면 나무로 신도 만들어서 신었었지. 나무로 이렇게 파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막신 파는 할아버지들이 이 '솔박'도 파. '솔박'도 파고 함지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야처럼 한 것도 하는 할아버지가 한 마을에 한둘 있었지. 수산에서. 그땐 하면 팽나무로 하면 '겁'(?) 없다고 해서 팽나무로 파고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했던 거. 그땐 돈으로도 조금 드리고 또 조금 아는 동네 할아버지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담배로도. 그때 봉초 하면


〈사진 69〉 이영생 씨 소장 '솔박'


〈사진 70〉 오애생 씨 소장 '솔박'

212) 난산리 이영생 씨 구술.
213)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지. 봉초라고 한 거 종이로 해서 그저 무더기 그리로 봉 해서 봉초로 하면. 통 몰라 담배통 그것에 담아서 피우고 했었지.)

〈사진 69〉는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나무로 파서 만든 '솔박'이다. 금이 간 부분에 철사로 고정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70〉은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나무로 만든 '솔박'이다. 이 '솔박'은 동네에 짚신도 파고, 함지박도 만들고 했던 동네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만든 것이다. 30년 이상 되었다. 오 씨는 '솔박' 값으로 봉담배 하나를 사다 주었다. '솔박'은 보통 팽나무를 이용하여 팠다고 한다.

"솔박, 이거는 저 뭔 남이여만은, 열매 열고 허는. 멀구실낭 마주목. 무늬가 저 이쁘거든."[214]

('솔박', 이거는 저 뭔 나무다만, 열매 열고 하는. 멀구슬나무 '마주목'. 무늬가 저 예쁘거든.)



〈사진 71〉 고대인 씨 소장 '솔박'



〈사진 72〉 현승자 씨 소장 '솔박'

〈사진 71〉은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솔박'이다. 멀구슬나무로 만들어서 가볍고 무늬가 곱다고 한다. 〈사진 72〉는 온평리 현승자 씨(1947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솔박'이다. 현 씨가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와서 시어머니가 썼던 것을 물려받아 쓰고 있다.

214)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사진 73〉 오남종 씨 소장 '솔박'



〈사진 74〉 고충삼 씨 소장 '솔박'



〈사진 75〉 한대순 씨 소장 '솔박'



〈사진 76〉 고정봉 씨 소장 '솔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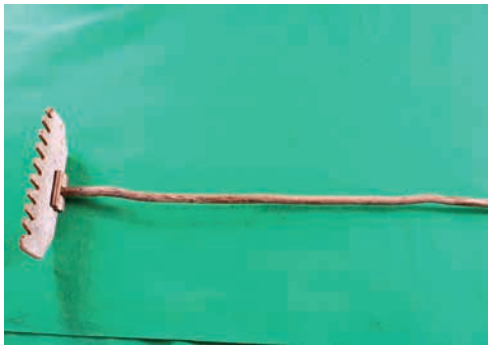
〈사진 73〉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솔박'이다. 〈사진 74〉는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솔박'이다. 〈사진 75〉는 신산리 한대순 씨 집에서 사용하는 '손박'이다. 이 '솔박'을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손을 이용해서 쓴다고 해서 '손박'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76〉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솔박'이다.

### (4) 군데

'군데'는 곡식을 널거나 저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다. 표준어 '고무래'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곡식, 즉 '날레'를 저을 때 사용하는 용도여서 '날렛군데'라고도 한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날렛근데'라고 하였고, 한경면 지역에서는 '당그네'라고 하여 방언차를 보이고 있다.

"군데 그건 날레 널 때. 곡식 널 때에 영 영 젓는 거."[215]
(고무래 그건 '날레' 널 때. 곡식 널 때에 이렇게 이렇게 젓는 거.)

"이건 군데, 날렛군데. 이것도 나가 만든 거. 이것도 오랫주, 이거. 이것도 아메도 사오십 년 됏주. 이건 아주 남이 굴무기남 아주 좋은 걸로 헤 가지고 옛날 집 뜯을 때 마리, 옛날 집에는 다 남이 산에 가서 좋은 남을 헤다가 지어난 거, 그런 디서 마룻널 나온 걸 헤 가지고 이걸 날렛군델 만들엇지. 그니까 이렇게 오래간 거라. 계속 썸주, 지금도. 저거 이 작년에 눈 온 때 이 마당에 눈 치우느라고 이걸로 허다가 그만 타져불엇어."[216]
(이건 '군데', '날렛군데'.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이것도 오랬지, 이거. 이것도 아마도 사오십 년 됐지. 이건 아주 나무가 느티나무 아주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옛날 집 뜯을 때 마루, 옛날 집에는 다 나무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해다가 지었던 거, 그런 데서 마룻널 나온 걸 해 가지고 이걸 '날렛군데'를 만들었지. 그니까 이렇게 오래간 거야. 계속 쓰고 있지, 지금도. 저거 작년에 눈 온 때 이 마당에 눈 치우느라고 이걸로 하다가 그만 떨어져버렸어.)


〈사진 77〉 김두추 씨 소장 '군데'


〈사진 78〉 고춘권 씨 소장 '군데'

〈사진 77〉은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194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군데'로, 김 씨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다.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되어 있어 곡식을 저을 수 있다. 〈사진 78〉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날렛군데'다. 고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날렛군데'는 고 씨가 직접 동네에서 집 뜯을 때 나온 느티나무로 만든 마루 널을

215)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21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이용하여 만들었다. '날렛군데'는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곡식을 저을 때 사용하는데 사용한 지 40~50년은 되었다고 한다. 작년(2017년)에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날렛군데'의 톱니 몇 개가 헐어졌다. 고 씨의 부인 김병생 씨는 "'날렛군데'를 사용할 때 손잡이를 길게 만들면 허리가 아프지 않아 좋다"고 했다.

"날렛군덴디 거 꺼꺼져불어서게. 아이덜 아정강 저 콩 널멍. 이런 거 막 두어 개 셔나신디."[217]

('날렛군데'인데 거 꺾어져버렸어. 아이들 가져가서 저 콩 널면서. 이런 거 아주 두어 개 있었는데.)



〈사진 79〉 고영자 씨 소장 '날렛군데'



〈사진 80〉 현문자 씨 소장 '날렛군데'

〈사진 79〉는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곡식을 널 때 사용했던 '날렛군데'다. 콩을 널 때 사용하다가 머리 부분이 깨졌다. 예전에 곡식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날렛군데'도 두어 개는 만들어 있었다고 한다. 〈사진 80〉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날렛군데'다.

217)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 (5) 풍기


〈사진 81〉 김두추 씨 소장 '풍기'

'풍기'는 곡물에 섞인 쭉정이, 겨, 먼지 따위를 날려서 제거하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풍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풍기'가 나오기 전에는 바람이 부는 곳에 멍석을 펴고, 그 위에서 '손박[손빡]'을 이용하여 곡식을 불리면서 쭉정이 등을 날려 보냈었다.

〈사진 81〉은 성산읍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콩과 유채를 불릴 때 사용했던 '풍기'다. 김 씨가 사용했던 '풍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다. 창고 한쪽에 보관해 놓았다.

### (6) 선풍기

'선풍기'는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다. 뜨거운 여름날 무더위를 식혀주는 기계다. 그러나 이 선풍기는 곡식의 까끄라기를 손질할 때 이용하기도 하였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솔박'으로 곡식을 떨어뜨리면 까끄라기는 바람에 날리고, 무게가 있는 곡식은 깨끗하게 손질된다.


〈사진 82〉 김병생 씨 소장 '선풍기'


〈사진 83〉 박순자 씨 소장 '선풍기'

〈사진 82〉는 김병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선풍기이고, 〈사진 83〉은 신천리 박순자 씨(1953년생) 집에서 곡식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선풍기다.

### 4.3.2. 체류

#### (1) 얼멩이

'얼멩이'는 쳇불을 굵게 만들어 곡식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표준어 '어레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는 이대를 이용하여 네모나게 만들어 쓰다가 요즘은 나무로 둥그렇게 쳇바퀴를 만들고, 철사를 이용하여 쳇불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저 콩얼멩이 유채얼멩이. 저건 대체 거름체 ᄀᆞ는체."[218]
(저 '콩어레미' '유채어레미'. 저건 대체 '거름체' 가는체.)

〈사진 84〉는 난산리 김두추 씨가 농사지을 때 사용했던 '얼멩이'와 '체'다. 곡식의 알의 크기에 따라서 '얼멩이' 쳇불의 크기를 달리 하였는데, 사진 위쪽의 '얼멩이' 가운데 왼쪽은 '콩얼멩이'이고, 오른쪽은 '유채얼멩이'다. 콩은 유채보다 알이 굵기 때문에 '콩얼멩이'는 '유체얼멩이'보다 쳇불을 굵게 만들었다. '콩얼멩이'는 콩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어레미이고, '유체얼멩이'는 유체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어레미다. 〈사진


〈사진 84〉 김두추 씨 소장 '얼멩이'와 '체'


〈사진 85〉 고덕후 씨 소장 '얼멩이'

218)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86〉 정복희 씨 소장 '얼멩이'



〈사진 87〉 고영자 씨 소장 '얼멩이'

85〉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하는 '얼멩이'다. 〈사진 86〉은 수산1리 정복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얼멩이'다. 정 씨는, '얼멩이'는 곡식의 '걱죽' 즉, 껍질을 털어낼 때 쓰고, 체는 쌀들 칠 때 사용했다고 하였다. 〈사진 87〉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유채 칠 때 사용했던 '얼멩이'다. 쳇불 크기에 따라 굵은 것은 콩 따위를 칠 때 사용하는 '얼멩이'이고, 쳇불이 작은 것은 유채를 칠 때 사용했던 '얼멩이'다.

"큰 거 얼멩이. 얼멩이 옛날에 걱죽 하영 헐 때 걱죽덜 털고 이거는 쏠덜 치는 거."[219]
(큰 거 어레미. 어레미 옛날에 껍질 많이 할 때 껍질들 떨고 이거는 쌀들 치는 거.)

"얼멩이 저거 유채 치는 체. 저거 좀진 얼멩인게. 얼멩이도 멧 가지주게. 콩 치는 얼멩이, 유채 치는 얼멩이 그렇게 허여. 좀진 거, 흙은 거. 고냥이 콩은 흙어야 나오고 유채는 좀질어야."[220]
(어레미 저거 유채 치는 체. 저거 자잘한 어레민데. 어레미도 몇 가지지. 콩 치는 어레미, 유채 치는 어레미 그렇게 해. 자잘한 거, 굵은 거. 구멍이 콩은 굵어야 나오고 유채는 자잘해야.)

〈사진 88〉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 보관해 있는 대오리로 결은 '얼멩이'다. 강 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1932년생)가 사용했던 물건이다.

219) 수산1리 정복희 씨 구술.
220)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곡석 저 젤 처음에 거친 거 구멍이 큰 거라야 뒈거든. 거친 거 허젠 허민. 거 얼멩이. 여기 말로, 우리 말로 얼멩이. 얼멩이가 잇고. 대체엔 헌 거 건 곡석 테작헤 논 거 준 거, 준 거 걸르는 거. 건 고망이 큰 거니까 대체. 또 쪼금 엉긴 거 엉긴 체, 막 좀진 가루 거튼 거 치는 건 ?는체."[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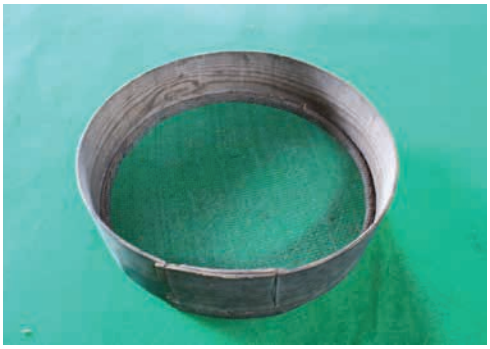
〈사진 88〉 강태웅 씨 소장 '얼멩이'

(곡식 저 젤 처음에 거친 거 구멍이 큰 거여야 되거든. 거친 거 하려고 하면. 거 어레미. 여기 말로 우리 말로 '얼멩이'. 어레미가 있고. 대체라고 하는 거 건 곡식 타작해 놓은 거 잔 거, 잔 거 거르는 거. 건 구멍이 큰 거니까 대체. 또 조금 엉긴체, 아주 잔 가루 같은 거 치는 건 가는체.)

'얼멩이'나 대체는 '수리대'라고 불리는 이대를 쪼개서 만들었다.

"얼멩이나 이 대체 멘드는 대는 수리대라야 뒈주게. 죽신은 안 뒈주. 한 이삼 년, 이 년은 넘은 거라사. 얼멩이 만드는 거 우선 바닥부터 멘들아야주게. 완전히 바닥 멘들아 놩 경허면은 그다음에는 영 꼬부라지게시리 그 씰대로 씰대로 영 둘르는 거주. 바위 돌라사주. 바위 둘루는 거니까 바윗대. 바윗대는 일년생. 건 일년생이라야. 저 가지, 가진 발이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난 거라야 뒈여. 여라 개 낭 굳어 분 것은 안 뒈여."[222]

(어레미나 이 대체 만드는 대는 이대여야 되지. 죽순은 안 되지. 한 이삼 년, 이 년은 넘은 거여야. 어레미 만드는 거 우선 바닥부터 만들어야지. 완전히 바닥 만들어 놔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꼬부라지게끔 그 '실대'로 '실대'로 이렇게 두르는 거지. 가장자리 돌라야지. 가장자리 도르는 거니



〈사진 89〉 고춘권 씨 소장 '얼멩이'

22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2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까 '바윗대'. '바윗대'는 일년생. 건 일년생이라야. 저 가지, 가진 발이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난 거여야 돼. 여러 개 나서 굳어 버린 것은 안 돼.)


〈사진 90〉 고덕후 씨 소장 '얼멩이'

〈사진 89〉는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얼멩이'다. 고씨에 따르면 예전에는 수리대를 이용하여 '얼멩이'를 직접 결어 사용했다. '얼멩이'는 이삼년 된 굳은대를 쪼개서 바닥부터 만든다. 그 다음에 '실대'를 이용하여 두른 다음에 가장자리를 만드는데, 가장자리는 속대를 넣은 후에 가지가 두 개쯤 벌어진 일년생 대오리로 둘러서 만들었다. 〈사진 90〉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 창고에 걸려 있는 '얼멩이'다.

(2) 체

'체'는 곡식을 깨끗하게 손질하거나 가루를 곱게 칠 때, 또는 액체를 밭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체'도 쓰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차이나고, 이름도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라고 하여 달리 부르고 있다. 쳇불의 크기는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 순이다. '총체'는 쳇불이 가장 작은 것으로, 예전에 말의 꼬리인 '말총'으로 많이 만들어서 붙은 명칭이다. 달리 'ᄀᆞ는체'라고도 한다. 'ᄀᆞ는체'는 표준어 '고운체' 또는 '가는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대첸 저 ᄒᆞ쏠 훍은 거. 또시 거름첸 ᄒᆞ쏠 좀진 거, ᄀᆞ는첸 ᄀᆞ루 치는 거. 경허는 거주 무시거 벨다른 거 잇어? ᄆᆞ물 갈 때, 거름체도 그때 사용허고. ᄀᆞ는체는 ᄀᆞ를 그거 골 때 허곡 경허는 거. 옛날에 큰 거 잇어나신디 엇인게. 누게 봉가가분ᄀᆞ라. 그건 얼멩이. 그거 잇어나신디 누게가 봉가간ᄀᆞ라 엇인게."[223]

(대첸 저 조금 굵은 거. 또 '거름체'는 조금 자잘한 거, '가는체'는 가루 치는 거. 그렇

223)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사진 91〉 김성옥 씨 소장 '체'



〈사진 92〉 고덕후 씨 소장 '체'



〈사진 93〉 이영생 씨 소장 '체'



〈사진 94〉 고정봉 씨 소장 '체'



게 하는 거지 무엇 별다른 거 있어? 메밀 갈 때, '거름체'도 그때 사용하고. 가는체는 가루 그거 갈 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 큰 거 있었었는데 없는데. 누구 주워가버렸는지. 그건 어레미. 그거 있었었는데 누가 주워갔는지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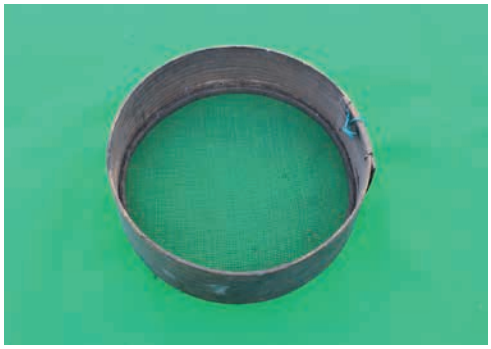
〈사진 91〉은 난산리 김성옥 씨 집에서 사용했던 체류다. 앞의 왼쪽 사진의 체에 고리를 단 것으로 보아 체는 걸어서 보관한다. 〈사진 92〉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대체'와 '소체'고 〈사진 93〉은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체'다. 〈사진 94〉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체다.

"체야게 쌀 거튼 것도 알멩이덜 저 밑으로 나오게 허고. 게난 저런 체도 잇고 저보다 구멍이 작은 것도 잇고 여라 가지주. 가로로 멘들 때는 더 구멍 작은 걸로 멘들아 가지고 그렇게 허면은 가로로 나오고. 조금 구멍을 큰 체로 헐 때는 홁게 나오고 경허는. 쌀 알

멩이를 걸르는 거지."[224]

(체야 쌀 같은 것도 알맹이들 저 밑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저런 체도 있고 저보다 구멍이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 가루로 만들 때는 더 구멍 작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루로 나오고. 조금 구멍을 큰 체로 할 때는 굵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쌀 알맹이를 거르는 거지.)

고 씨의 구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체의 구멍 즉, 쳇불의 크기에 따라서 쌀알이 굵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잔 것이 나오기도 하고 가루로 나오기도 한다. 쳇불이 헐자 하얀 무명실로 기워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95〉 오남종 씨 소장 '체'



〈사진 96〉 고대인 씨 소장 '체'

〈사진 95〉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체'다. 〈사진 96〉은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하는 체이고, 〈사진 97〉은 수산1리 정복희 씨 집에서 사용하는 체류이다. 〈사진 98〉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하는 '거름체'다. '거름체'는 메밀쌀을 칠 때 많이 사용한 후 체 위의 쌀은 키로 해서 까부르면 찌꺼기가 바람에 날려가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었다.

"이건 대체, 이건 거름체. 거름체는 쌀, 쌀을 이렇게 치면은 밑에 좀쌀이엔 허느냐. 그거 나오는 거고. 저거 우이 거는 그냥 큰쌀. ᄆᆞ물쌀 헐 때 저거는 잘 사용헷주, ᄆᆞ물쌀, ᄆᆞ

224)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사진 97〉 정복희 씨 소장 '체'



〈사진 98〉 강옥화 씨 소장 체

물 골아근에 체 영 치면은 그 아래 쌀 내려오고 우이 거는 헹 푸는체로 이렇게 푸고."[225]

(이건 대체, 이건 '거름체'. '거름체'는 쌀, 쌀을 이렇게 치면 밑에 '좀쌀'이라고 하느냐. 그거 나오는 거고. 저거 위에 거는 그냥 큰 쌀. 메밀쌀 할 때 저거는 잘 사용했지, 메밀쌀, 메밀 갈아서 체 이렇게 치면 그 아래 쌀 내려오고 위에 거는 해서 키로 까부르고.)

"이 ᄆᆞ물을 테작허면은 이파리, 남뎅이 부숴진 것이 막 거칠거든. 허면은 그 이파리에 ᄀᆞ찌 서꺼지면은 이 대체 거튼 걸로는 이 ᄀᆞ립을 갈를 수가 엇어. 게난 건 얼멩이 막 고망 큰 걸로 헤 가지고 콩 그 테작헤근에 그 치젠 허면은 대체론 안 뒈여. 얼멩이 큰 얼멩이라야 뒈여. 그런 식으로 일단 걸렁 얼멩이로 걸렁 바람에 불리민 뒈는 거고. 조 거튼 거, 이런 것은 대체. 건 그 구멍으로 충분히 나니까 대체로 허고."[226]

(이 메밀을 타작하면은 이파리, 대 부서진 것이 아주 거칠거든. 하면 그 잎에 같이 섞이면 이 대체 같은 걸로는 이 금을 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 어레미 아주 구멍 큰 걸로 해 가지고 콩 그 타작해서 그 치려고 하면 대체론 안 돼. 어레미 큰 어레미라야 돼. 그런 식으로 일단 걸러서 어레미로 걸러서 바람에 불리면 되는 거고. 조 같은 거, 이런 것은 대체. 건 그 구멍으로 충분히 나니까 대체로 하고.)

수산1리 고춘권 씨는 메밀을 손질할 때는 어레미로 대강 친 후에 바람에 불리면 깨끗하고, 조 같은 것은 대체로 쳐서 손질하였다고 한다.

225)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22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 '키'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푸는체'는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사용하는데, 그때 바람의 영향으로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 곡식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푸다'라고 하는데, 표준어 '까부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푸는체'는 손을 이용하여 '푸면서(흔들면서)' 치기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푸는체 대로도 멘들고 정당으로도 멘들고 허는데, 저거 정당, 정당푸는체주, 아메도. 저거 옛날에 언제사 사와져신디. 저거는 곡식 바람 엇일 때에 손으로 이렇게 풀 때에 사용허는 푸는체라고 헤가지고. 건 푸는 거난 푸는체에 허는 거주게. 이거 정당줄로 헌 건게, 정당으로. 정당줄로. 거 혼 칠팔십 년 뒈실 거여. 우리 어머님네가 쓰단 거 물려받은 거. 경헨 나 이거 허난 바농으로 문 주멍. (요즘도 썸수과?) 그거 무스거 쓸 거 잇어. 난 웬만헌 건 다라로 그자 푸닥푸닥허난 저거 안 써 봔."[227]

(키 대로도 만들고 댕댕이덩굴로도 만들고 하는데, 저거 댕댕이덩굴, '댕댕이덩굴키'지, 아마도. 저거 옛날에 언제야 사와졌는지. 저거는 곡식 바람 없을 때에 손으로 이렇게 까부를 때에 사용하는 키라고 해가지고. 건 까부르는 거니까 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댕댕이덩굴로 한 거네, 댕댕이덩굴로. 댕댕이덩굴로. 거 한 칠팔십 년 됐을 거야. 우리 어머님네가 쓰던 거 물려받은 거. 그렇게 해서 나 이거 하니까 바늘로 몽땅 기우면서. (요즘도 쓰고 있습니까?) 그거 무엇 쓸 거 있어. 난 웬만한 건 대야로 그저 퍼떡퍼떡하니까 저거 안 써 봤어.)

난산리 강정자 씨는 '정당' 즉 댕댕이덩굴로 만든 '정당푸는체'를 사용했다. 강 씨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곡식의 티끌을 손질하려면 양손으로 '푸는체'를 들어 위 아래로 흔들면 바람이 일어 곡식이 깨끗하게 손질된다고 하였다.

"푼체 그거 자골, 자골이엔 허민 알아, 들에 나는 자골? 그 자골 그걸로 멘들앗주게. 전문적으로 멘드는 하르방이 잇엇주.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서쪽에서 멘들앙 것이 나오대."[228]

227)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22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키 그거 차풀, 차풀이라고 하면 알아, 들에 나는 차풀? 그 차풀 그걸로 만들었지. 전문적으로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런 것도 보면 다 서쪽에서 만들어서 것이 나오대.)


〈사진 99〉 김성옥 씨 소장 '푸는체'

수산1리 고춘권 씨는 '푸는체'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보통 '푸는체'는 서쪽 지역에서 만든 것을 사다가 썼다고 한다. 재료는 '자골(차풀)'이나 '정동'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고 씨는 '푸는체'를 '푼체'라고도 하였다.

〈사진 99〉는 난산리 김성옥 씨가 메밀 따위의 곡식을 갈무리할 때 사용했던 '푸는체'다. 동네에 팔러 오니까 샀다. 헐어가니까 천을 대서 기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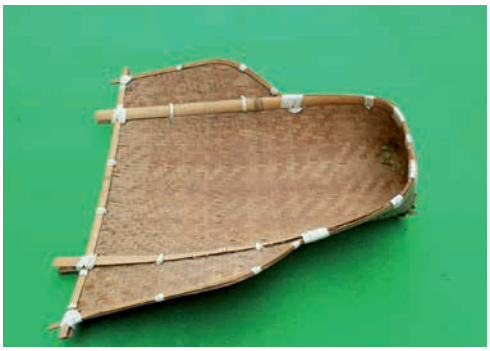
"푸는첸 저거 푸는 거. 흘러부난 저거. 저 무물 골 때 푸는 거. 뭣으로사 멘드는 건디 저것도 풀레 오난 삿주게."[229]

(킨 저거 까부르는 거. 흘려버리니까 저거. 저 메밀 갈 때 까부르는 거. 뭣으로야 만드는 건지 저것도 팔러 오니까 샀지.)

"저거 육지 거주게. 우리 푸는체는 저추룩 안 허주게. (제주 거) 엇이난 사온 거주."[230]

(저거 육지 거지. 우리 키는 저처럼 안 하지. (제주 거) 없으니까 사온 거지.)

〈사진 100〉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푸는체'다. 고 씨의


〈사진 100〉 고영자 씨 소장 '푸는체'

229) 난산리 김성옥 씨 구술.
230)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구술에서처럼 이 '푸는체'는 육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푸는체'와는 모양이 다르다. 육지에서 들어온 '푸는체'가 손잡이 부분에 날개가 있다면 제주에서 만든 '푸는체'는 날개가 없다. '푸는체'를 수산1리 고춘권 씨는 '푼체'라고도 하였다.

### 4.3.3. ᄀᆞ레류

#### (1) 방엣돌

'방엣돌'은 방아를 찧을 때 사용했던 돌이다. 표준어 '방앗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방엣돌'은 보통 '물ᄀᆞ량' 즉 연자매에 설치되었던 돌방아를 말한다.

〈사진 101〉은 온평 상하로 15번길 삼거리 귀퉁이에 놓여 있는 '방엣돌' 모습이다. 방아를 찧지 않은 지 오래서인지 지금은 올렛길을 표시하는 이정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101〉 온평리 '방엣돌'

"ᄀᆞ레왕 이거, 건이 거기서 보리, 조, 산디 다 그때 시절엔 이 정미소 나기 전엔 전부다 물ᄀᆞ레왕에서 헷주게. 우리도 ᄀᆞ렐 많이 골아봣어. 물ᄀᆞ레왕 가민 사름으로, 많이 골젠 허민 사름으로만 어렵거든. 허면은 이 물에 메와근에 물 빙빙 돌게시리. 겐 물ᄀᆞ레왕이엔 헷주, 물ᄀᆞ레왕. 물 허영 허는 거난 물ᄀᆞ레왕."[231]

(연자매 이거, 건 거기서 보리, 조, 밭벼 다 그때 시절엔 이 정미소 나기 전엔 전부다 연자매에서 했지. 우리도 맷돌 많이 갈아봤어. 연자매 가면 사람으로, 많이 갈려고 하면 사람으로만 어렵거든. 하면 이 말에 메워서 말 빙빙 돌게끔. 그래서 연자매라고 했지, 연자매. 말 해서 하는 거니까 연자매.)

수산1리 고춘권 씨의 구술 내용을 보면, 수산1리에서는 연자매를 'ᄀᆞ레왕'이라고 하였

23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다. 말의 힘을 빌려서 곡식을 찧는 연자맷간은 달리 '물ㄱ레왕'이라고 하였다. 정미소가 나오긴 이전까지는 연자매를 이용하여 보리, 조, 밭벼 따위의 곡식을 찧었다.

### (2) ㄱ레

'ㄱ레'는 곡식을 갈거나 으깰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맷돌'에 대응하는 방언이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ㄱ레'를 '정ㄱ레'라고 하였다.



〈사진 102〉 현용언 씨 소장 'ㄱ레착'



〈사진 103〉 김병생 씨 소장 '정ㄱ레'

〈사진 102〉는 신천리 현용언 씨 집에서 사용했던 'ㄱ레착'이다. 'ㄱ레착'은 맷돌의 한 쪽을 일컫는 말이다. 현 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ㄱ레착'을 지금은 항아리의 밑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03〉은 수산1리 김병생 씨가 사용했던 '정ㄱ레'다.



〈사진 104〉 현문자 씨 소장 'ㄱ레착'

〈사진 104〉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 텃밭에 놓여 있는 'ㄱ레착'이다. 'ㄱ레착'은 맷돌짝을 말한다. 맷돌짝 하나는 텃밭의 돌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4.4. 운반 도구

### (1) 골체

'골체'는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골체'는 표준어 '삼태기'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골체'는 '정동(댕댕이덩굴)'이나 대나무, 칡, 철사 따위로 결어서 만든다. '정동'으로 만들면 '정동골체', 대오리로 결으면 '대골체', 쇠로 만들면 '쒜골체' 따위로 불렀다.



〈사진 105〉 고충삼 씨 소장 '대골체'



〈사진 106〉 고덕후 씨 소장 '대골체'

〈사진 105〉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사용하는 '대골체'이고, 〈그림 106〉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대골체'다. 이 마을 사람 김봉양 씨에게 부탁해서 사온 거라고 한다. 김봉양 씨는 대오리를 이용하여 대패랭이, 대바구니, '대골체' 등을 전문적으로 결었던 장인이었다고 한다.

"이거 대골체. 이거 이웃 사름 멘든 거 나 사온 거. 김봉양 씨라고 그 분이 만든 거. 이 동네 대바구닌 그 사름이 만들엇어. 대로 사용허는 거."[232]

(이거 대삼태기. 이거 이웃 사람 만든 거 나 사온 거. 김봉양 씨라고 그 분이 만든 거. 이 동네 대바구닌 그 사람이 만들었어. 대로 사용하는 거."

232)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골체 옛날엔 거시기 끅 걷어당. 끅 걷엉 영 영 여껑. 우리 아저씨가 멘들주게. 이제는 안 멘들아."[233]

(삼태기 옛날엔 거시기 칡 걷어다가. 칡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우리 아저씨가 만들지. 이제는 안 만들어.)"



〈사진 107〉 고영자 씨 소장 '골체'



〈사진 108〉 오남종 씨 소장 '골체'

〈사진 107〉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골체'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고 씨의 남편이 칡 따위로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108〉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골체'다.

### (2) 베

'베'는 물건을 져 나를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표준어 '짐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걸렝이'는 물건을 져 나를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천으로 누벼서 만든다. 달리 '질빵'이라고도 한다.

"벤 그 찝 산디찝, 찝으로 그냥 대중 헷주. 찝으로 허고 이 중간엔 그 신사락이엔 헌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뭘 수 잇으면 거 질기게 혼 번 허면은 오래 써야 뒈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혼엇이 벨다른 재료가 엇엇어. 젤 손쉽게 허는 건 기자 찝으로 솔지게 훍게 꼬아근에 헷주."[234]

233)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234)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참반 그 짚 밭볏짚, 짚으로 그냥 대중 했지. 짚으로 하고 이 중간엔 그 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될 수 있으면 거 길게 한 번 하면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한없이 별다른 재료가 없었어. 젤 손쉽게 하는 건 그저 짚으로 살지게 굵게 꼬아서 했지.)

〈사진 109〉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질빵'이다. 물동이인 '허벅'을 넣은 '물구덕'을 지고 다닐 때도 사용하였다.


〈사진 109〉 오남종 씨 소장 '질빵'

(3) 니아까

'니아까'는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를 말한다. '니아까'는 영어 '리어카'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니아까'를 '니야카' 또는 '니어커'라고 발음하였다. '니아까'는 표준어 '손수레'를 말하는데, 농촌에서는 곡식 등의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한다. 시대에 따라서 손수레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니아까 저 미깡 날를 때. 저런 저 밀감 무시거니, 강오 놔근에 이거 세 개 놔근에 끗는 거. 거 밀감 따 놔가지고 ᄌᆞ근ᄌᆞ근 세 개 놔근에 밀감 나무 밑으로 영 밀령 다니는 거."[235]

(리어카 저 밀감 나를 때. 저런 거 밀감 무엇이니, 바구니 놔서 이거 세 개 놔서 끄는 거. 거 밀감 따 놔가지고 차근차근 세 개 놔서 밀감 나무 밑으로 이렇게 밀려서 다니는 거.)

〈사진 110〉은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귤을 나를 때 사용하는 '니아까'다. 귤나무 밑으로 밀어 다니면서 수확한 귤을 담아서 나르는데, 사진에서 보이듯이 귤을 따서

235)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사진 110〉 김두추 씨 소장 '니아까'



〈사진 111〉 현문자 씨 소장 '니어커'



〈사진 112〉 오남종 씨 소장 '외발 니아카'



〈사진 113〉 정복희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14〉 고대인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15〉 고대인 씨 소장 '니아카'

넣는 '강오' 세 개를 실을 수 있다. '강오'는 바구니의 일본어다. 〈사진 111〉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니어커'다.

〈사진 112〉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하는 '외발 니아카'다. 리어카에 농약을 칠 때 사용하는 호스를 보관하고 있다. 〈사진 113〉은 수산1리 정복희 씨 집에서

사용하는 발이 하나 달리 '니아카'다. 〈사진 114〉와 〈사진 115〉는 수산2리 고대인 씨 집에서 사용하는 '니아카'다. 성산읍 지역에서 쓰는 리어카의 모양이 다양하다.

### (4) 경운기

경운기는 농촌에서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싣고 나를 때, 밭을 갈 때 등 다양하게 쓰이는 농기구다.


〈사진 116〉 오남종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16〉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경운기다. 경운기 뒤쪽 짐칸에 농약을 칠 때 사용하는 물통이 실려 있다. 〈사진 117〉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하던 경운기다. 경운기의 짐칸만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118〉은 온평리 현승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경운기다. 이 경운기를 이용해 현 씨의 남편은 고기잡이할 때 갖고 다니는 그물을 운반하고 있다.

### (5) 밀감망텡이

'밀감망텡이'는 밀감을 따서 넣어서 다닐 수 있게 만든 천 따위로 만든 그릇이다. 귤 따는 바구니로, 어깨에 멜 수 있게 끈이 달려 있다.


〈사진 117〉 고춘권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18〉 현승자 씨 소장 '경운기'

"밀감망텡이 이거는 밀감 수확헐 때 밀감 여기에 따 놔가지고. 뭐라 그러더라만은 이거 밀감 망텡이렌 헤신가 잘 모르크라."[236]

(밀감망태기 이거는 밀감 수확할 때 밀감 여기에 따 놔가지고. 뭐라 그러더라만 이거 밀감망태기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사진 119〉 고정봉 씨의 '밀감망텡이'



〈사진 120〉 김성옥 씨의 바구니

〈사진 119〉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귤을 딸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제보자 고 씨는 밀감을 딸 때 사용하는 그릇이고 모양이 '망텡이(망태기)'처럼 생겨서 '밀감망텡이'라고 불렀다. 〈사진 120〉은 난산리 김성옥 씨가 귤 따러 다닐 때 들고 다녔던 바구니다. 무지로 만들었고 어깨에 멜 수 있게 천으로 끈을 달았다.

### (6) 출구덕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나물을 캐서 담거나 고사리 따위를 꺾으러 다닐 때 들고 다녔던 운반 도구다. 또 씨를 뿌릴 때 씨를 담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여깃말로 출구덕. 밧데 다닐 때, 옛날에 고사리 꺼끄레도 이걸로 다니고 지금은 그 뭐 망사 그걸로 허는데 옛날에 이걸 허리에 차갖고 이렇게 헹 허리에 창."[237]

236)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237)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사진 121〉 고덕후 씨의 '출구덕'



〈사진 122〉 강옥화 씨의 '출구덕'

(여기 말로 '출구덕'. 밭에 다닐 때, 옛날에 고사리 꺾으러도 이걸로 다니고 지금은 그 뭐 망사 그걸로 하는데 옛날에 이걸 허리에 차갖고 이렇게 해서 허리에 차서.)

〈사진 121〉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고 씨는 이 '출구덕'을 예전에 밭에 다니거나 고사리 꺾으러 다닐 땔 허리에 차서 이용했다고 구술하였다. '출구덕'은 'ᄎᆞᆯ+ᄀᆞ+ㄹ+ㅡ구덕' 형식으로, '(허리에) 차서 이용하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대오리로 결어서 '대구덕'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122〉는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강 씨가 고사리 꺾으러 가거나 '삼마' 즉 반하를 파러 다닐 때 허리에 차고 다녔던 것이다. 강 씨가 고성오일장에서 구입했다.

"출구덕이엔 헌 거는 뭐냐 허면 이렇게 찬다는 거지. 이렇게 끈 달려근에 이렇게 찬다고 헤서 찰구덕, 출구덕. 찰구덕허고 이것도 막 큰 구덕이 잇어낫어. 건 질구덕. 지영 당기니까 건 질구덕. 겐디 그건 없고 출구덕만. 고사리 꺼끌 때도 허고 무슨 삼마 팔 때나 삼마도 옛날에 막 파나난. 이건 고성장에서 사온 거. 한 이십 년 뒛일 거라."[238]

('출구덕'이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찬다는 거지. 이렇게 끈 달려서 이렇게 찬다고 해서 '찰구덕', '출구덕'. '찰구덕'하고 이것도 아주 큰 바구니가 있었었어. 건 '질구덕'. 지어서 다니니까 건 '질구덕'. 그런데 그건 없고 '출구덕'만. 고사리 꺾을 때도 하고 무슨 반하 팔 때나 반하도 옛날에 막 팠었어. 이건 고성장에서 사온 거. 한 이십 년 됐을 거야.)

238) 수산2리 강옥희 씨 구술.

"출구덕 이것은 고사리도 꺼끌 때 일로 친 돌아서 이레 차고 또 ᄆᆞ물도 갈젠 허면 불껑에 씨를 서꺼서 이디 담아서 영 뚜러메서 쉐로게 영 골 긋엉 갈면 영 뚜러메서 영 영 접아놓고. 유채도 그렇게 헤낫주게. 몇 년 허다가 비료만 삐여서 갈앗주게. 유채씨도 걸름에 서껑."[239]

('출구덕' 이것은 고사리도 꺾을 때 일로 끈 달아서 이리 차고 또 메밀도 갈려고 하면 재에 씨를 섞어서 여기 담아서 이렇게 둘러매서 소로 이렇게 골 그어서 갈면 이렇게 둘러매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유채도 그렇게 했었지. 몇 년 하다가 비료만 뿌려서 갈았지. 유채씨도 거름에 섞어서.)

〈사진 123〉은 수산2리 오애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이 '출구덕'에 끈을 달아서 허리에 차고 고사리를 꺾을 때 사용했고, 메밀이나 유채를 갈 때 씨를 넣은 후 끈을 달아 어깨에 둘러매고 사용했다. 용도에 따라 바구니의 사용법이 달랐다. 구술 내용을 보면, 성산읍 지역에서는 예전에 비료가 없을 때 메밀이나 유채를 갈려고 하면 메밀씨와 유채씨에 재를 섞어서 갈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24〉는 오애생 씨 집에서 '출구덕'처럼 활용되는 부대로 만든 '자루'다. 멜빵이 달려 있어 어깨에 메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귤이나 고사리 따위를 꺾으러 다닐 때도 사용했다.



〈사진 123〉 오애생 씨의 '출구덕'



〈사진 124〉 오애생 씨의 '자루'

239) 수산2리 오애생 씨 구술.

"출구덕, 고사리 꺼끄는 구덕. 이거 옛날에 장에서 산. 멧 년 이거, 혼 십 년도 넘엇주. 고사리철 나민 꺼꺼사주게. 식게 멩질 허는 사름이 고사리 안 꺼껑 뒈여."[240]

('출구덕', 고사리 꺾는 바구니. 이거 옛날에 장에서 샀어. 몇 년 이거, 한 십 년도 넘었지. 고사리철 되면 꺾어야지. 제사 명절 하는 사람이 고사리 안 꺾어서 되어.)

〈사진 125〉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십여 년 전에 고사리를 꺾으러 다닐 용도로 장에서 사다 쓰는 것이다. 〈사진 126〉은 난산리 김성옥 씨가 고사리 꺾으러 다닐 때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여서, 바구니에 허리에 두를 수 있는 끈이 달려 있다. 〈사진 127〉은 난산리 이영생 씨 창고 한 귀퉁이에 걸려 있는 '출구덕'이다. 〈사진 128〉은 수산1리 김병생 씨



〈사진 125〉 현문자 씨의 '출구덕'



〈사진 126〉 김성옥 씨의 '출구덕'



〈사진 127〉 이영생 씨의 '출구덕'



〈사진 128〉 김병생 씨의 '출구덕'

240)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가 고사리를 꺾으러 다닐 때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고사리 대신에 허드레 물건이 담겨진 채 벽에 걸려 있다.

## 4.5. 계량 도구

### (1) 관뒈

'관뒈'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성산읍 지역에서 '되'를 가리키는 용어다. 한경면 지역과 안덕면 지역에서는 '뒛박'이라고 하였고, 구좌읍에서는 '관뒈'라고 하여 '되'의 방언형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관뒈', 서쪽에는 '뒛박'형을 사용하고 있어 방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관뒈. 곡식들 곡식들 측량 얼마 얼마. 예를 들어 우리가 곡식을 팔 때도 이거 네 개민 한 말이니까 그런 걸로 뭐 헐 때."[241]

(되. 곡식들 곡식들 측량 얼마 얼마. 예를 들어 우리가 곡식을 팔 때도 이거 네 개면 한 말이니까 그런 걸로 뭐 할 때.)

〈사진 129〉는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관뒈'다. '관뒈'는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수산1리에서는 곡식을 팔 때 '관뒈'를 이용하여 분량을 재서 팔았다. '관뒈'로 네 개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열 되들이 말에 대비하여 '관뒈'로 네 개면 '소두 한 말'이라고 한다. 〈사진



〈사진 129〉 고정봉 씨 소장 '관뒈'

241)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사진 130〉 이영생 씨 소장 '관뒈'



〈사진 131〉 강태웅 씨 소장 '관뒈'

130〉은 난산리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관뒈'다. 〈사진 131〉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하는 '관뒈'로, 최근에 구입한 것이다. 강 씨의 어머니 이명춘 씨가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사용했던 것이다.

### (2) 말통

'말통'은 곡식, 액체, 가루 따위를 한 말 분량으로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한다. 곡식을 운반할 때, 또는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사용하는 통으로 표준어 '말'에 대응하는 말이다. 열 되 들이다.

"저거 곡식 담을 때 쓰는 말통. 탈곡기 헐 때에 말통으로 헤난 거."[242]
(저거 곡식 담을 때 쓰는 말. 탈곡기 할 때에 말 했던 거.)

〈사진 132〉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곡식을 탈곡할 때 곡식을 담거나 분량을 잴 때 사용했던 '말통'이다. 한 말은 2리터짜리 소두 열 되가 든다.




〈사진 132〉 김두추 씨 소장 '말통'

242)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 (3) 저울

'저울'은 무게를 다는 도구다. 손으로 쥐고 물건의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은 '들름저울'이라고 하고, 들거나 메지 않고 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저울추로 무게를 다는 저울은 '앚은베기저울'이라고 한다. '저울추'는 저울대 한쪽에 걸거나 저울판에 올려놓는, 일정한 무게의 쇠를 말한다. 이 저울추를 이용하여 무게를 가늠한다.

"들름저울이렌 허는가. 여기 농사를 판매허젠 헤도 저울이 똑 필요헤낫어, 그때. 저것이 문저 사용허고 그 다음엔 앚은베기저울을 사용허고 다 집집마다 틀렷거든. 경허난 요즘은 신식덜."[243]

(손저울이라고 하는가. 여기 농사를 판매하려고 해도 저울이 똑 필요했었어, 그때. 저것이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엔 앉은뱅이저울을 사용하고 다 집집마다 달랐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신식들.)

'들름저울'은 달리 '손저울'이라고도 하는데, 손으로 들어서 무게를 뜨기 때문에 붙은 명칭인 것 같다. 〈사진 133〉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들름저울'과 저울추다. 고 씨는 '앚은베기저울'이 나오기 전에 이 '들름저울'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할 때 무게를 떴다고 하였다. '들름저울'은 표준어 손저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33〉 고덕후 씨 소장 '들름저울'과 '저울추'

"옛날 이거 뒈지나 뭐 추렴허면은 거 멧 근 멧 근 헤서 뜨는 거주."[244]

(옛날 이거 돼지나 뭐 추렴하면 거 몇 근 몇 근 해서 뜨는 거지.)

243)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244)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사진 134〉 오남종 씨 소장 '들름저울'과 '저울추'



〈사진 135〉 강태웅 씨 소장 '들름저울'과 '저울추'

〈사진 134〉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20kg짜리 손저울과 저울추다. 오 씨의 처남인 고대인 씨는 예전에 돼지를 추렴하여 고기의 무게를 뜰 때 이 저울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35〉는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손저울'이다.

'앚은베기저울'은 표준어 '앉은뱅이저울'을 성산읍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앚은베기저울 막 큰 건 못 떠도 뭐 백 키로짜리난에, 뭐 옛날 유채 콩 많이 헐 때 주로 거 떠낫주게."[245]

(앉은뱅이저울 매우 큰 건 못 떠도 뭐 백 킬로그램짜리니까 뭐 옛날 유채 콩 많이 할 때 주로 거 떴었지.)

"앚은베기저울 나 밀감 초창기에 허난 육십 년 대에 이거 사실 거라. 밀감 초창기에 이거 사용허젠 산 건데 이젠 이런 것도 사용 안 헤."[246]

(앉은뱅이저울 내 밀감 초창기에 하니까 육십 년 대에 이거 샀을 거야. 밀감 초창기에 이거 사용하려고 산 건데 이젠 이런 것도 사용 안 해.)

〈사진 136〉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1960년대에 밀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구입해서 밀감 무게를 주로 뜰 때 사용했던 '앚은베기저울'이고, 〈사진 137〉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앚은베기저울'이다.

〈사진 138〉은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앚은베기저울'이다. 김 씨

245)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246)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사진 136〉 고덕후 씨 소장 '앚은베기저울'



〈사진 137〉 고정봉 씨 소장 '앚은베기저울'



〈사진 138〉 김두추 씨 소장 '앚은베기저울'



〈사진 139〉 오남종 씨 소장 '앚은베기저울'



집에서 예전에 유채와 콩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사용했던 저울로 100킬로그램까지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다. '앚은베기저울' 왼쪽의 작은 저울은 농약의 무게 따위를 잴 때 사용하는 약저울이다. 〈사진 139〉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앚은베기저울'이다.

"앚은베기저울 몰른 고사리 저울일 때. 오 키로씩 담아근에. 오 키로도 허고 십 키로도 허고 담아지는 대로."[247]

(앉은뱅이저울 마른 고사리 저울일 때. 오 킬로씩 담아서. 오 킬로도 하고 십 킬로도 하고 담아지는 대로.)

247)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사진 140〉 강옥화 씨 소장 '지시저울'



〈사진 141〉 고정봉 씨 소장 '지시저울'



〈사진 142〉 고영자 씨 소장 '지시저울'



〈사진 143〉 고춘권 씨 소장 '지시저울'

〈사진 140〉은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사용하는 지시저울이다. '지시저울'은 물건을 올렸을 때 눈금이 지시하여 분량을 알려주는 저울이다. 강 씨는 지시저울을 '앚은베기저울'이라고 하였다. 집 텃밭에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 강 씨는 이 저울을 이용하여 마른 고사리 등을 저울이고 있었다. 지시저울 오른쪽은 약저울이다. 〈사진 141〉은 수산1리 고정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지시저울이다. 〈사진 142〉는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지시저울이다. 〈사진 143〉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지시저울이다.

농약의 분량을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은 따로 '약저울'이라고 하였다.

"그건 약저울. 농약 헹 멧 그람, 멧 그람 헹 뜨는 거."[248]
(그건 약저울. 농약 해서 몇 그램, 몇 그램 해서 뜨는 거.)

248)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사진 144〉 강정자 씨 소장 '약저울'



〈사진 145〉 강옥화 씨 소장 '약저울'

〈사진 144〉는 난산리 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약저울이다. 농약을 칠 때 농약의 분량을 재는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이다. 〈사진 145〉는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귤나무에 농약을 칠 때 농약 분량을 잴 때 사용했던 약저울이다.

"이거는 약저울. 거 약 저울일 때 농약. 밀감낭 약 칠 때. 하영 칠 때는 ᄒᆞ나에 ᄒᆞ나 놩 허민 뒈는디 족영 칠 때 저걸로 저울영 ᄒᆞᆫ 깡썩 저울영 칠 때. 저것에 저울영 치는 거."[249]

(이거는 약저울. 거 약 저울일 때 농약. 밀감나무 약 칠 때. 많이 칠 때는 하나에 하나 넣어서 하면 되는데 적게 칠 때 저걸로 저울여서 한 캔씩 저울여서 칠 때. 저것에 저울여서 치는 거.)

〈사진 146〉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약저울'이다.



〈사진 146〉 오남종 씨 소장 '약저울'

249)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 4.6. 저장 도구

### (1) 항

'항'은 항아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항아리는 물을 넣는 물독의 용도로도 쓰였지만 대개는 고방에 넣어서 곡식 따위를 보관할 때도 사용하였다.

"옛날에 물, 부억에 놔가지고 물 질어당 부엇다가 영 거리멍 먹엇낫주. 물항이주, 물항. 공싯간에 놓주. 게고 곡식도 헤당 고팡에 놔근에 곡식 담앗당."[250]

(옛날에 물, 부엌에 놔가지고 물 길어다가 부었다가 이렇게 뜨면서 먹었었지. 물독이지, 물독. 부엌에 놓지. 그러고 곡식도 해다가 고방에 놔서 곡식 담았다가.)

〈사진 147〉은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항아리'다. 보통은 부엌에 놔서 물을 넣는 물독으로 쓰지만, 예전에는 고방에 넣어서 곡식 따위를 보관하는 용도로도 활용하였다. 항아리에 뚜껑으로 쓰이는 장태까지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147〉 강정자 씨 소장 '항아리'

"항 옛날에 무슨 곡석 헹 담앙 놀 때 그디.[251]

(항아리 옛날에 무슨 곡식 해서 담아서 놓을 때 거기.)

〈사진 148〉은 수산1리 정복희 씨 집에서 곡



〈사진 148〉 정복희 씨 소장 '항아리'

250)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251) 수산1리 정복희 씨 구술.

식을 저장할 때 사용했던 항아리다. 알루미늄 대야를 덮개로 쓰고 있었다.

"항 장 담을 때도 허고 곡식. 옛날에는 이 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헤낫주게. 곡식도 놓고, 곡식 이것에 놓면 쥐가 안 먹주게. 곡식 이것에 놩 두껑 더끄면은 쥐가 안 먹고. 멩텡이라고 멩텡이에 놓면 쥐가 다 먹어 불어. 이거는 두 허벅, 두 허벅 들이엔 허는가 이거는. 두 허벅 대두 두 말. 스물다섯 뒈는 들엄직허다. 산디 조 콩 그런 거 놔. 아마 이거는 한 이십 년 뒛일 거라. 이거 물려받은 거. 우리 시어멍안티."[252]

(항아리 장 담글 때도 하고 곡식. 옛날에는 이 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지. 곡식도 넣고, 곡식 이것에 넣으면 쥐가 안 먹지. 곡식 이것에 넣어서 뚜껑 덮으면 쥐가 안 먹고. 망태기라고 망태기에 넣으면 쥐가 다 먹어 버려. 이거는 두 '허벅', 두 '허벅' 들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두 '허벅' 대두 두 말. 스물다섯 되는 들 듯하다. 밭벼 조 콩 그런 거 놔. 아마 이거는 한 이십 년 됐을 거야. 이거 물려받은 거. 우리 시어머니한테.)



〈사진 149〉 강옥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50〉 강옥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49, 150〉은 수산2리 강옥화 씨(1947년생) 집에서 곡식 따위를 보관할 때 사용했던 항아리다. 항아리에 곡식을 보관하면 쥐가 먹지 않아 큰 항아리는 곡식 보

252)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관용으로 많이 썼다. 강 씨가 2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항아리로, 대두 두 말은 든다고 한다. 대두 두 말은 20되를 말한다.


〈사진 151〉 오남종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52〉 현용언 씨 소장 항아리

"항아리 그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거. 자잘헌 건 우리가 마련헤서 헌 거고. 큰 것덜은 농사지어서 농산물덜 보관헷던 거."[253]

(항아리 그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거. 자잘한 건 우리가 마련해서 한 거고. 큰 것들은 농사지어서 농산물들 보관했던 거.)

〈사진 151〉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 고방 안의 항아리들이다. 이 고방 속에는 예전에 쌀 등을 보관했던 항아리가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오씨에 따르면 이 항아리 숫자가 예전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진 152〉는 신천리 현용언 씨(1937년생) 집에서 곡식 따위를 보관할 때 썼던 항아리로, 부모님이 쓰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자잘한 항아리들은 현 씨 부부가 살림하면서 장만한 것이다.

"항아리 큰 거. 거 삼십 년도 넘엇다. 오십 년도 넘엇저. 초가집이 살 때 고팡이 잇어, 안에. 안에 고팡에 쌀. 보리쌀 솜빡 놔근에 거리멍 밥헤 먹어난 거. 이제는 필요 엇이니까 베낏디 내불엇지. 여러 개 내분디 다 아져갓어. 겐 저거 하나만 있어. 저것은 옛날에 육지서 큰 배 시꺼오믄 이 앞이서 바로 삿어. 여기 신천 부두. 신천리개맛이여 허지. 시껀

253) 신천리 현용언 씨 구술.

완에 여기서 막 풀앗어. 막 오랫어. 사십 년도 넘었지. 강진에서 돗대 세 개 든 배가, 그자 배에서 풀지. 배에서 풀지 집 빌엉 안 헤. 배에서 우리가 영 배에 올라강 마음에 든 거 나가 요거 사고 시프다 허민 다 메다 줘. 그 사름네가. 보리쏠 혼 스무 말 정도 들어."[254]

(항아리 큰 거. 거 삼십 년도 넘었다. 오십 년도 넘었지. 초가집에 살 때 고방이 있어, 안에. 안에 고방에 쌀. 보리쌀 가득 넣어서 뜨면서 밥해 먹었던 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에 내버렸지. 여러 개 내버렸는데 다 가져갔어. 그래서 저거 하나만 있어. 저것은 옛날에 육지서 큰 배 실어오면 이 앞에서 바로 샀어. 여기 신천부두. 신천리포구라 하지. 실어 와서 여기서 막 팔았어. 아주 오랬어. 사십 년도 넘었지. 강진에서 돗대 세 개 단 배가, 그저 배에서 팔지. 배에서 팔지 집 빌려서 안 해. 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에 올라가서 마음에 든 거 내가 요거 사고 싶다 하면 다 메어다 줘. 그 사람네가. 보리쌀 한 스무 말 정도 들어.)

〈사진 153〉은 신천리 현태일 씨(1932년생)가 고방에 넣어서 곡식을 보관할 때 썼던 항아리다. 이 항아리는 스무 말 정도의 보리쌀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 씨는 이 항아리를 강진서 배에 실어와 '신천리개맛', 즉 신천포구에서 배에 올라가서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30~50년 정도는 된 항아리라고 하였다.



〈사진 153〉 현태일 씨 소장 '항아리'

"강진서 베로 하나 시꺼 왕 그 사름네 이디서 한 달 놈의 집 빌엉 마당에 전실헤 놓민 이제 사고 싶은 사름이 어디 항아리 장시가 누구네 집이 놧저 허민 동네 사름들이 주민들이 다 모여들엉 자기 사고 싶은 거 사 가. 겐 그 사름은 장사꾼이라이. 경허민 그 사름은 한 달 정도 그 집을 빌어가지고 이제 사는 거라. 그걸 다 팔 때까지. 우리 시아방네 집이서 허민 그 마당에서 옛날 헤난 거 닮은디."[255]

(강진서 배로 하나 실어와서 그 사람네 여기서 한 달 남의 집 빌려서 마당에 전실해 놓으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항아리 장사가 누구네 집에 놨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254) 신천리 현태일 씨 구술.
255)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주민들이 다 모여들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 가. 그래서 그 사람은 장사꾼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한 달 정도 그 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그걸 다 팔 때까지. 우리 시아버지네 집에서 하면 그 마당에서 옛날 했던 거 같은데.)

앞의 구술은 현 씨의 딸인 신천리 박순자 씨가 들려준 이야기다. 박 씨는 어머니 현 씨의 구술 내용과 달리 강진에서 항아리를 싣고 온 배가 들어오면 옹기를 다 팔 때까지 마을 집을 빌려서 살면서 팔았다고 한다. 박 씨의 시아버지 집도 그런 집 가운데 하나였다. 마당 가득 항아리를 벌여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아리를 샀다고 한다. 바다 건너 온 항아리를 '육지항'이라고 하고, 대정 지역에서 생산한 항아리는 '대정항'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지세항 그런 것은 약헤 놓니까 밖에는 놀 수 없어. 게난 고방에 놔근에 곡식 거튼 걸 놧주, 대부분. 물항도 지세항으로 허는 디도 잇엇주만은 물항은 대부분 육지 항으로 물항은 대부분 헷고."[256]
('지세항' 그런 것은 약해 놓으니까 밖에는 놀 수 없어. 그러니까. 고방에 놔서 곡식 같은 걸 놨지, 대부분. 물독도 '지세항'으로 하는 데도 있었지만 물독은 대부분 육지 항아리로 물독은 대부분 했고.)

수산1리 고춘권 씨는 곡식을 보관하는 항아리는 보통 '지세항'으로 사용하고, 물독은 육지에서 생산된 항아리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지세항'은 기와처럼 검은 색을 띠는 항아리를 말한다. '지세'는 표준어 기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지세항'은 약하기 때문에 밖에 두지 않고 고방에 넣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 (2) 허벅

'허벅'은 물을 긷거나 곡식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동이다.

"허벅, 아 이거 화장실에 이신 거 가져왓구나. 이것도 곡식 담아난 거. 이 안에 곡식 씨

25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같은 거. 산디 씨 같은 거 담앙. 이건 물 짇는 허벅 아니. 물 짇는 건 부리가 작아."[257]

('허벅', 아 이거 화장실에 있는 거 가져왔구나. 이것도 곡식 담았던 거. 이 안에 곡식 씨 같은 거. 밭벼 씨 같은 거 담아서. 이건 물 긷는 '허벅' 아니. 물 긷는 건 부리가 작아.)


〈사진 154〉 강옥화 씨 소장 '허벅'

〈사진 154〉는 수산2리 강옥화 씨 집에서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허벅'이다. '허벅'은 물을 길을 때도 사용하지만 곡식의 씨를 보관하거나 술이나 간장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활용하였다. 쓰임에 따라 허벅의 부리 모양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물 긷는 건 부리가 작지만 씨를 보관하는 '허벅'인 경우에는 부리가 크다는 것이 강 씨의 설명이다. 이 '허벅'은 구술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외부 화장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부리가 깨져 있다. 유약을 칠한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 들어온 허벅이다.

### (3) 도로무깡

'도로무깡'은 '드럼통'을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예전 농가에서는 '도로무깡'을 이용하여 보리 등 곡식을 저장할 때 항아리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우물에 '도로무깡'을 갖고 가서 물을 길어오기도 하였다. '도로무깡'을 한경면 지역에서는 '도라무깡'이라고 발음하였다.

"저 곡식 놀 용으로 옛날에 항이 비싸고 얼마 못 놓니까 도로무깡, 곡식 많이 허는 디는 도로무깡 많이 사다가 사용헷주게. 창고에, 고팡에 놔 가지고. 게난 도로무깡 곡식 놔난 거. 요즘 농사 안 허니까 그자 다 버려 불고 ᄒᆞ나 간단헌 거 저기 놓젠 놔뒷주."[258]

257) 수산2리 강옥화 씨 구술.
258)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사진 155〉 김두추 씨 소장 '도로무깡'



〈사진 156〉 현문자 씨 소장 '도로무깡'

(저 곡식 넣을 용으로 옛날에 항아리가 비싸고 얼마 못 넣으니까 드럼통, 곡식 많이 하는 데는 드럼통 많이 사다가 사용했지. 창고에, 고방에 놔 가지고. 그러니까 드럼통 곡식 놨던 거. 요즘 농사 안 하니까 그저 다 버려 버리고 하나 간단한 거 저기 넣으려고 놔 뒀지.)

〈사진 155〉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도로무깡'이다. '도로무깡'이 나오기 전에는 항아리 등에 곡식을 보관했는데, 항아리보다 싸고 곡식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애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156〉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곡식을 저장할 때 사용했던 '도라무깡'이다.

"도로무깡 곡식 놀 때 옛날은. 이추룩 헌 거 안에 ᄋᆞ남은 개 잇어. 옛날엔 쥐가 많아 놓니까. 이런 거에 놓으민 쥐도 안 먹고. 항아리에도 헷는데 이건 항아리 헌 그 후제 이거 사용한 거. 항아리는 아주 옛날이거든."[259]

(드럼 곡식 넣을 때 옛날은. 이처럼 한 거 안에 여남은 개 있어. 옛날엔 쥐가 많아 놓으니까. 이런 거에 놓으면 쥐도 안 먹고. 항아리에도 했는데 이건 항아리 한 그 후에 이거 사용한 거. 항아리는 아주 옛날이거든.)

〈사진 157〉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도로무깡'이다. 고 씨는 '도로무깡'에 곡식을 넣으면 쥐의 피해도 덜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

259)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사진 157〉 고덕후 씨 소장 '도로무깡'



〈사진 158〉 현금옥 씨 소장 '도로무깡'

은 곡식을 보관하는 대신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진 158〉은 온평리 현금옥 씨 집에서 사용하는 '도라무깡'이다. 현 씨는 이 드럼통을 이용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라무깡 쓰레기 소는 거. 옛날엔 농서도 헤영 다 그것에 담고 허주만은 이젠 그런 거 안 쓰난에 이젠 불 솔암서."[260]

(드럼통 쓰레기 사루는 거. 옛날엔 농사도 해서 다 그것에 담고 하지만 이젠 그런 거 안 쓰니까 이젠 불 때고 있어.)

### (4) 멩텡이

'멩텡이'는 표준어 '망태기'에 대응하는 성산 지역 말이다. 예전에 수산1리 사람들은 장만한 곡식을 보관할 때 '멩텡이'를 사용하였다.

"옛날엔 멩텡이 아니민 곡식 놀 것이 엇주, 뭐. 항엔. 항엔 다 물류왕 그 마지막에 이제는 정미소에 가기 전에 간직헐 때에 그 항에 들어가주. 그 전인 멩텡이에 헹 삼방이나 이

260) 온평리 현금옥 씨 구술.

저 정지에나 헤근에. 멩텡이에 담앗당 다 몰리운 다음에야 이제 고팡에 들어가주.”[261]
(옛날엔 망태기 아니면 곡식 넣을 것이 없지, 뭐. 항아리엔. 항아리엔 다 말려서 그 마지막에 이제는 정미소에 가기 전에 간직할 때에 그 항아리에 들어갔지. 그 전엔 망태기에 해서 마루나 이 저 부엌에나 해서. 망태기에 담았다가 다 말린 다음에야 이제 고방에 들어가지.)

수산1리 고춘권 씨에 따르면, ‘멩텡이’는 수확한 곡식을 말릴 때까지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멩텡이’는 보통 마루나 부엌에 놓아서 그 안에 곡식을 담아두었다가 정미소에 가기 직전 상태로 말릴 후에는 고방에 놓인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였다.

“혼 두어 섬, 혼 서너 섬 들어가게 허는 멩텡이는 건 이동 안 허영 그자 앚은멩텡이. 앉아 가지고 ᄀᆞ만이 앚졍. 앚진멩텡이주. 우린 그냥 앚은멕, 앚은멕 헷주게. 경헌 거 놔서 거기에 테작허멍 헤당 담앗당 거 덜멍 몰령 또 이제 몰리운 건 항, 항에 담고 이렇게 허는 거.”[262]
(한 두어 섬, 한 서너 섬 들어가게 하는 망태기는 건 이동 안 해서 그저 앉은망태기. 앉아 가지고 가만히 앉혀. 앉은망태기지. 우린 그냥 ‘앉은멱’, ‘앉은멱’ 했지. 그렇게 한 거 놔서 거기에 타작하면서 해다가 담았다가 거 덜면서 말려서 또 이제 말린 건 항아리, 항아리 담고 이렇게 하는 거.)

곡식을 넣어서 보관하는 ‘멩텡이’ 가운데는 두어 섬, 또는 서너 섬 들이도 있는데, 이런 ‘멩텡이’는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 고정시켜서 곡식을 담아둔다고 하여 ‘앚진멩텡이’ 또는 ‘앚은멩텡이’(앉힌망태기)’라고 한다. ‘앚진멩텡이’는 따로 ‘앉은멕’이라고도 하였다.

똥 주우러 다닐 때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는 ‘멩텡이’는 ‘질멕’이라고 하였다. 구술자료 “지영 뎅기는 거난 질멕이엔도 헷주만은(져서 다니는 거니까 ‘질멕’이라고도 했지만)”에서 알 수 있듯이 등에 지고 다닌다고 해서 ‘질멕’이라고 한 것 같다. ‘질멕’의 ‘질’은 ‘(등에) 지는’의 의미이고, ‘멕’은 ‘멱’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6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6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5) 페트병

'페트병'은 음료를 담는 일회용병이다.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가볍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쌀이나 곡식 씨앗을 담아두는 용구로 많이 쓰인다.

〈사진 159〉는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강낭콩을 담아 보관 중인 페트병이다. 습기가 들지 않아 썩거나 좀이 일지 않는다.



〈사진 159〉 고덕후 씨가 페트병에 보관 중인 강낭콩

### (6) 플라스틱통

'플라스틱통'도 곡식 따위를 저장할 때 사용했다.

〈사진 160〉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에서 저장 용구로 사용했던 플라스틱통이다. 〈사진 161〉은 신산리 강태웅 씨 집에서 저장 용구로 사용하는 플라스틱통이다. 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닫았다.



〈사진 160〉 고덕후 씨의 '플라스틱통'



〈사진 161〉 강태웅 씨의 '플라스틱통'

## 4.7. 기타 도구

### (1) 방석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앉아서 하는 농사일 할 때 방석을 많이 이용한다.


〈사진 162〉 김병생 씨의 '방석'

"방석 검질멜 때 꼴아 앚앙 메는 거."[263]
(방석 김맬 때 깔아 앉아서 매는 거.)

〈사진 162〉는 수산1리 김병생 씨 집에서 밭에 김을 맬 때 앉아서 사용하는 방석이다. 나일론 망사리로 방석의 겉면을 쌌다.

### (2) 도장


〈사진 163〉 현문자 씨 소장 도장

'도장'은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을 말한다.

"옛날에 저 우리 집 양반이 선과장에서 반장헤낫주게. 그 조합원덜이 미깡을 저 창고에 막 시꺼단 뜨잖아. 허민 박스에 담앙덜 뜨민 이제 그거 누게가 멧 개, 누게가 멧 개 헤영 저걸로 다 찍엉."[264]

26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64)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옛날에 저 우리 집 양반이 선과장에서 반장했었지. 그 조합원들이 귤을 저 창고에 막 실어다가 뜨잖아. 하면 박스에 담아서들 뜨면 이제 그거 누가 몇 개, 누가 몇 개 해서 저걸로 다 찍어서.)

〈사진 163〉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감귤 박스에 찍었던 도장이다. 현문자 씨의 남편이 선과장 반장을 했었는데, 그때 조합원들의 감귤 박스에 선과 표시를 하려고 찍었던 도장이다.

### (3) 분무기

'분무기'는 물이나 약품 따위를 안개처럼 뿜어내는 도구를 말한다. 주로 농촌에서 농작물에 농약을 뿌릴 때 사용한다. 순화어로는 '뿜개'라고 한다.

"이거 오래 되멍 말멍. 요즘도 사용허여. 지엉 허니까 배낭식 분무기엔 허주."[265]
(이거 오래 되며 말며. 요즘도 사용해. 져서 하니까 '배낭식 분무기'라고 하지.)

〈사진 164〉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하는 '배낭식 분무기'다. 어깨에 지고 약을 주기 때문에 김 씨는 '배낭식 분무기'라고 하였다.


〈사진 164〉 김두추 씨 소장 '분무기'


〈사진 165〉 현문자 씨 소장 '분무기'

265)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분무기 밧디 검질 이시민 제초제도 저걸로 치고, 또 밭곡석 용시헤근에게 벌거지 시민 벌거기 약도 치고 저걸로 허는 거."[266]
(분무기 밭에 김 있으면 제초제도 저걸로 치고, 또 밭 곡식 농사해서 벌레 있으면 벌레 약도 치고 저걸로 하는 거.)

〈사진 165〉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농약을 칠 때 사용하는 분무기다.

### (4) 물 주는 거

'물 주는 거'는 채소 따위에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물뿌리개'를 난산리 강정자 씨가 지칭한 용어다. 난산리 김두추 씨는 '물조리'라고 하였다. 한경면 지역에서는 '조로'라고 하였다. '조로'는 포르투갈어 '조로(jorro 또는 jarra)'에서 차용한 말로, 표준어 '물뿌리개'에 대응하는 말이다.

"물 주는 거. 물 주는 거렌 자꾸. 호스 찔러갖고 물 주는 거. 철공소에 강 만들앙 왓주."[267]
(물 주는 거. 물 주는 거라고 자꾸. 호스 찔러가지고 물 주는 거. 철공소에 가서 만들어서 왔지.)

〈사진 166〉은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물 주는 거'다. 김 씨가 철공소에 가서 직접 만들어다 사용하는 양철로 된 '물조리'다. 이 '물조리'를 이용하여 채소나 화초 등에 물을 뿌려주었다. 호스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루를 길게 만들었다.


〈사진 166〉 김두추 씨의 '물 주는 거'

266)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267) 난산리 강정자 씨 구술.

### (5) 작데기

'작데기'는 기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막대기가 Y자처럼 생겨 있어서 곡식의 대 등을 널거나 모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사진 167〉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만들어 사용하는 작데기다.



〈사진 167〉 고충삼 씨의 '작데기'

### (6) 경운기사다리

'경운기사다리'는 경운기에 물건을 실을 때 사용하는 사다리다. 관리기 등의 기계를 실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건이다.

"이건 뭐냐 허면이 경운기에 저 뭐 저 관리기 거튼 거 시끌 때에 뒤에 영 헹 올라가게 허는 거. 쐐로 사다리 식으로 헹 요새 쓰주만은 이거 나냥으로 그자 남으로 만들앙. 경운기니까 낮차우니까 이렇게. 경운기에 기계 시끌 때 사용허는 거주. 경운기사다리."[268]

(이건 뭐냐 하면 경운기에 저 뭐 저 관리기 같은 거 실을 때에 뒤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하는 거. 쇠로 사다리 식으로 해서 요새 쓰지만 이거 나대로 그저 나무로 만들어서. 경운기니까 낮으니까 이렇게. 경운기에 기계를 실을 때 사용하는 거지. 경운기사다리.)



〈사진 168〉 고춘권 씨의 '경운기사다리'

〈사진 168〉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경운기사다리'다. 고 씨는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관리기 따위를 경운기에 실었다.

26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 (7) 공젱이

'공젱이'는 긴 막대기의 끝을 오그라지게 만들어 물건을 걸릴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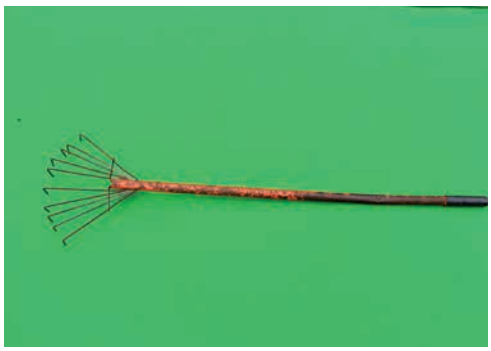
〈사진 169〉 오남종 씨의 '공젱이'

"공젱이. 혼 십 년쯤 됨주. 저 구제주든 신제주 돔박남 여기 거라. 이젠 멧 개 엇어. 그때 여기 거 다 메영. 또 기름틀도 헤나고. 돔박남을 영 남 헹 영 누르떵 기름 뼛주게. 돌로 지둘롱. 돌은 엇어져 불엇어."[269]

('공젱이'. 한 십 년쯤 되고 있지. 저 구제주든 신제주 동백나무 여기 거야. 이젠 몇 개 없어. 그때 여기 거 다 매어서. 또 기름틀도 했었고. 동백나무를 이렇게 나무 해서 이렇게 눌러서 기름 짰지. 돌로 지질러서. 돌은 없어져벼렸어.)

〈사진 169〉는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동백을 딸 때 나무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공젱이'다. 장대에 '공젱이'를 매달아 높은 나무의 동백을 딸 때 사용하고 있다.

### (8) 글겡이



〈사진 170〉 고정봉 씨 소장 '글겡이'

'글겡이'는 표준어 '갈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예전에 땔감으로 쓸 솔가리를 그러모으거나 절간고구마를 그러모을 때 사용했던 도구다. 요즘은 용도를 달리하여 산소에 가서 벌초하고 나온 풀들을 그러모을 때도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170〉은 수산1리 고정봉 씨

269) 수산2리 오남종 씨 구술.

집에서 사용하는 쇠로 만든 '글겡이'다. 예전에는 솔잎 따위를 긁어모으거나 절간고구마 마른 것을 모을 때 사용했다. 요즘은 벌초해서 나온 고사리나 풀 등을 그러모을 때 사용하고 있다.

"이건 글겡이, 글겡이라고 해서 벌초허레 가면은 고사리 거튼 거 여기 저기 흩어진 거를 저거 모으는 거지, 한 군데. 한 군데 다 모으는 거야. 모아서 칩고."[270]
(이건 갈퀴, 갈퀴라고 해서 벌초하러 가면 고사리 같은 거 여기 저기 흩어진 거를 저거 모으는 거지, 한 군데. 한 군데 다 모으는 거야. 모아서 치우고.)

"옛날엔 솔입덜 걷어당, 남밧디 땔 거 엇인 때 헤낫주만은 지금은 산소에, 산소에 벌초헐 때 준준헌 거 영 긁는 거. 옛날엔 솔입도 걷고 감저뻿데기, 감저뻿데기 헨에 영 영 모둘 때 사용헤난 거. 밤이 줌을 자졋어, 그거 허젠 허민. 밤이 그거 걷으레 가고. 비 오라 가민 그거 걷으레 돈저. 아이고, 줌 잘 저르가 어디 잇엇어게."[271]
(옛날엔 솔가리들 걷어다가, 나무 밭에 땔 거 없을 때 했었지만 지금은 산소에, 산소에 벌초할 때 자잘한 거 이렇게 긁는 거. 옛날엔 솔가리도 걷고 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을 때 사용했던 거. 밤에 잠을 자졌어, 그거 하려고 하면. 밤에 그거 걷으러 가고. 비 와 가면 그거 걷으러 닫지. 아이고, 잠 잘 겨를이 어디 있어.)

난산리 김두추 씨는 벌초하러 다닐 때 벤 풀을 그러모을 때뿐만 아니라, '글겡이'를


〈사진 171〉 정복희 씨 소장 '글겡이'


〈사진 172〉 고충삼 씨 소장 '글겡이'

270) 수산1리 고정봉 씨 구술.
271) 난산리 김두추·강정자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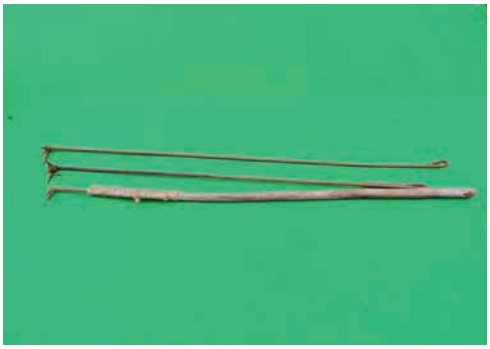
이용하여 땔감인 솔가리를 긁을 때도 사용했고,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 절간고구마 마른 것을 한데 모을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글겡이는 엿날은 거둡는 거. 팍팍허게 문지레기 거둡는 거."[272]
(갈퀴는 옛날은 거두는 거. 팍팍하게 검불 거두는 거.)

〈사진 171〉은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 집에서 검불 따위를 긁어모을 때 사용하는 '글겡이'다. "문지레기 거둡는 거"라는 구술로 보아 흩어져 있는 검불 따위를 한 곳에 모아놓을 때 사용하는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72〉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글겡이'다.

### (9) 유채 모으는 거

'유채 모으는 거'는 베어 놓은 유채를 한 데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173〉 고영자 씨 소장 '유채 모으는 거'

"옛날에 유채 잇잖아, 유채. 그거 영헹 기계로 비어 놓면은 이렇게 갈라, 욜로 영 헹 갈라서. 기계로 허민 훔치 못허지. 영 갈르고 영 갈라놩. 이거, 유채 모이는 거. 옛날에 감저도 고냥 안 뚤랑 비니루 그냥 씨와낫주게. 겐 감저 나가면은 또 영 뚤루는 거. 이거 필요헌 거 하. 이거 불미황에 강 멘들앙 온 거. 동남 가민 잇주게. 저 골각지 만들고 호미 만들고 거기 불미황 잇잖아."[273]

(옛날에 유채 있잖아, 유채. 그거 이렇게 해서 기계로 베어 놓으면 이렇게 나눠. 요리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기계로 하면 한꺼번에 못하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놓고. 이거, 유채 모으는 거. 옛날에 고구마도 구멍 안 뚫어서 비닐 그냥 씌웠었지. 그래서 고구마

272) 수산1리 정복희 씨 구술.
273)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나가면 또 이렇게 뚫는 거. 이거 필요한 거 많아. 이거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온 거. 동남 가면 있지. 저 호미 만들고 낫 만들고 거기 대장간 있잖아.)

〈사진 173〉은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유채 벤 것을 모을 때 사용했던 '유채 모으는 거'다. 성산읍 고성리인 동남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직접 벼리고 온 거다. 이 '유채 모으는 거'는 비닐을 덮어 키우는 고구마 모종이 싹이 나면 싹 나오는 비닐 구멍을 뚫는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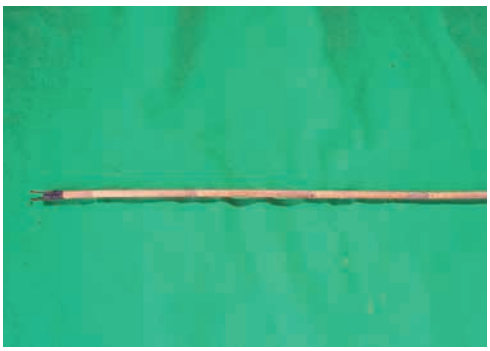
### (10) 깔쿠리

'깔쿠리'는 비닐을 덮어서 심은 감자의 싹을 비닐 구멍 밖으로 꺼낼 때 쓰는 도구다.

"이제는 그거 안 허는디 밭에 지슬감저 놓면은 비니루 씨우잖아이. 게민 나 가민 요걸로 톡 고냥 뚤루는 거 이거, 깔쿠리."[274]

(이제는 그거 안 하는데 밭에 감자 놓으면 비닐 씌우잖아. 그러면 나 가면 요걸로 톡 구멍 뚫는 거 이거, '깔쿠리'.)

〈사진 174〉는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깔쿠리'다. '깔쿠리'는 예전에 현 씨 집에서 '지슬감저', 즉 감자를 비닐 씌워서 심을 때 싹이 나오면 그 구멍을 뚫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진 174〉 현문자 씨 소장 '깔쿠리'

274)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 5. 어업 관련

성산읍 지역은 반농반어 지역이다. 수산1·2리, 난산리, 온평리, 신산리, 신천리 등 6개 마을 가운데 온평리·신산리·신천리는 바다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로 생활과 관련한 고기잡이 관련 도구, 잠녀들의 물질 도구가 주된 어업 관련 도구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게 물질을 끝낸 잠녀들의 성게 손질 모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옥돔주낙 등 고기잡이 관련 도구들도 조사할 수 있었다.

## 5.1. 물옷

### (1) 속곳

'속곳'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1970년대 고무옷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명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물옷을 만들어 입었다. 속곡 위에는 '물적삼'을 입었다.

### (2) 고무옷과 고무모자

'고무옷'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고무로 된 물옷을 말한다. 요즘은 '고무옷' 대신에 해녀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해녀복 건 요즘 거. 옛날 건 다 솔아벼서. 헐어부니까. 요즘은 일 년마다 다 나와부니까. 일 년에 한 불썩 나와. 얼게 말앙 해녀덜 돗으게 허렌 일 년에 한 불 나오주게. 어촌계에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 옛날 우리 상 입을 땐 혼 불에 십오만 원, 십만 원, 십팔만 원 줜 사낫거든. 요즘은 다 지원뒈여. 해녀복은 사지 아녀. 일 년에 한 불 나와."[275]

(해녀복 건 요즘 거. 옛날 건 다 살라버렸어. 헐어버리니. 요즘은 일 년마다 다 나와버리니까. 일 년에 한 벌씩 나와. 얼게 말고 해녀들 따습게 하라고 일 년에 한 벌 나오지. 어촌계에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 옛날 우리 사서 입을 땐 한 벌에 십오만 원, 십만 원, 십팔만 원 줘서 샀었거든. 요즘은 다 지원되어. 해녀복은 사지 않아. 일 년에 한 벌 나와.)

신천리 고송자 씨(1937년생)는 고무옷을 '해녀복'이라고 하였다. '해녀복'은 해녀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일 년에 한 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예전에 고 씨가 직접 구입해서 입을 때는 한 벌에 십만 원도 주고, 십오만 원이나 십팔만 원을 주고 샀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에서 일 년에 한 벌씩 "해녀들 다습게 하라."고 '해녀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고무모ᄌᆞ'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고무로 만든 모자다. '모ᄌᆞ'는 표준어 '모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고무모자가 나오기 전에는 '미녕(무명)'으로 만든 '물수건'을 머리에 쓰고 물질을 하였다.

〈사진 1〉은 물질 작업을 끝낸 신천리 잠녀들이 수확물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다. 사진을 보면, 잠녀들이 입고 있는 고무옷이 검정색에서 주황색이 섞인 옷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무모자와 물안경인 '왕눈'을 머리에 쓴 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오토바이나 경운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반도구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잠녀들이 '질구덕'에 수확한 물건과 물옷 따위를 넣고 등짐으로 지고 다녔다.



〈사진 1〉 신천리 해녀들

275) 신천리 고송자 씨 구술.



〈사진 2〉 고송자 씨 소장 '고무옷'



〈사진 3〉 '고무모자'



〈사진 4〉 '고무옷'

〈사진 2〉는 신천리 고송자 씨가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이다. 〈사진 3〉과 〈사진 4〉는 신천리 해녀탈의장 앞에서 촬영한 잠녀들의 '고무모자'와 '고무옷'이다. '고무옷'은 상의와 하의 한 벌로 구성되었다. 물질을 끝낸 잠녀들이 소금기를 없애기 위해 단물로 헹군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모습이다.

### (3) 눈

'눈'은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이다. 이 '눈'을 이용하여 잠녀들은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딴다. 전복과 소라 따는 일을 '헛물에'라고 한다.

예전에는 쇠로 만든 '눈'을 이용했다면 요즘은 고무 테두리를 두른 '왕눈'을 이용한다. '왕눈'은 물안경 알이 큰 눈을 가리키는 말이다. '눈'은 표준어 '물안경'에 대응하는



〈사진 5〉 '왕눈'



〈사진 6〉 '뽕돌'

제주어다. 고무 테두리가 둘러진 물안경이라고 해서 달리 '고무눈'이라고도 한다.

〈사진 5〉는 신천리 해녀탈의장에서 촬영한 '왕눈'이다. 이렇게 한 알로 된 눈을 지역에 따라서는 '큰눈'이라고도 한다.

### (4) 뽕돌

'뽕돌'은 잠녀들이 물질을 할 때 허리에 차는 물건이다. 이 '뽕돌'은 나이가 들수록 허리에 차는 게 늘어난다. 나이가 들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버거워 '뽕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뽕돌'을 '연철'이라고도 한다.

〈사진 6〉은 신천리 해녀탈의장에서 촬영한 '뽕돌'이다.

### (5) 오리발

'오리발'은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발에 끼고 헤엄을 친다.

"신발은 안 가졍 가고 저 그디 강, 탈의장에 강 벗어 놔뒁 그냥 저 양말만 신엉 내령강 물질허는 거. 게난 그 양말 신곡 그것에 그 오리발 신엉 물질허는 거."[276]

(신발은 안 가져서 가고 저 거기 가서, 탈의장에 가서 벗어 놔두고 그냥 저 양말만 신어서 내려가서 물질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양말 신고 그것에 그 오리발 신어서 물질하는 거.)

276)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7〉은 신천리 잠녀 강효심 씨가 사용하는 오리발이다. 해녀탈의장에서 찍었다. 예전에는 검은색 오리발을 주로 신었지만 요즘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 7〉 오리발

## 5.2. 테왁과 망사리

### (1) 테왁

'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예전에는 박의 씨를 파내어 만들었는데, 요즘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테왁'이라는 말 대신에 '두렁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사진 8〉 해녀탈의장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9〉 현문자 씨 소장 '테왁'과 '망아리'

〈사진 8〉은 신천리 잠녀 탈의장서 촬영한 '테왁'이다. 〈사진 9〉는 온평리 현문자 씨(1939년생)가 물질할 때 들고 다니는 '테왁'과 '망아리'다. 현 씨 집 창고 벽에 걸려 있는 두 개의 '테왁'과 '망사리'에는 물질할 때 갖고 다니는 조락과 '닷돌'이 담겨 있는 '닷조락'도 담겨 있었다. '테왁'을 주황색 천으로 감싸고, '테왁'의 윗부분을 하얀 천을 덧대 자신의 '테왁'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왁 그냥 저 메역도 주물 때 허곡 소라 잡을 때 허고. 이건 어음. 어음지. 이건 망아리. 망아리 속에 이건 닷베. 물질헐 때 돌 담아근에 바당에 들이쳐뒁 우리는 저레 저레 숨비는 거. 테왁 떠나지 말렌."[277]

('테왁' 그냥 저 미역도 캘 때 하고 소라 잡을 때 하고. 이건 '어음'. '어음지'. 이건 망사리. '망사리' 속에 이건 '닻바'. 물질할 때 돌 담아서 바다에 집어넣어두고 우리는 저레 저레 '숨비는' 거. '테왁' 떠나지 말라고.)



〈사진 10〉 온평리 장승익 씨 소장 '테왁'



〈사진 12〉 신천리 해녀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11〉 강유자 씨 소장 '테왁'

〈사진 10〉은 온평리 장승익 씨(1949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하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테왁'이다. 〈사진 11〉은 신산리 강유자(1945년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테왁'과 '망사리'다. '망사리' 속의 하얀 줄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과 '망사리'가 흘러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닻을 매는 '닷줄'이다. 강 씨 집 벽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

277)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는 '테왁'과 '망사리'다. 〈사진 12〉는 신천리 바닷가에서 성게 물질을 끝낸 잠녀의 수확물이 담긴 '테왁'과 망사리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모습이다.

### (2) 망사리

'망사리'는 미역이나 소라, 전복 따위를 따서 넣기 위해서 만든 그물주머니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서 '망시리' 또는 '망아리'라고도 한다. '망사리'는 짚이나 억새 속잎을 꼬아 만들었다. '짚'으로 꼬아 만든 것은 '찍망사리', 억새 속잎으로 꼬아 만든 것은 '미망사리'라고 한다. 요즘은 나일론 줄을 꼬아 만들고 있다. '망사리'를 두른 '테'는 '어움·어음'이라고 한다. '어움'은 보통 보리장나무, 상동나무, 다래나무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어움'을 지역에 따라서는 '에움'이라고 한다.



〈사진 13〉 강태금 씨의 '망사리'



〈사진 14〉 강순일 씨의 '망사리'

〈사진 13〉은 신천리 강태금 씨(1946년생)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망사리다. 망사리 둘레의 '어움'은 '도렛줄' 즉 다래나무로 만들었다. '베(바)'는 채취한 물건 등을 어깨에 둘러매거나 짐을 지어 운반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사진 14〉는 신천리 강순일 씨가 채취한 성게가 담겨 있는 망사리와 '테왁'이다. '망사리' 테두리인 '어움'에 달려 있는 그물주머니는 '조락'이다.

"어움 도렛줄로 멘든 거. 이거는 망사리. 이거는 베. 뚤러메는 거. 이렇게 지엉 오는 거."[278]
('어움' 다래나무로 만든 거. 이거는 망사리. 이거는 참바. 둘러메는 거. 이렇게 져서 오는 거.)

278) 신천리 강태금 씨 구술.

〈사진 15〉는 물질을 끝낸 잠녀들이 수확한 성게를 담은 '테왁'과 망사리를 부려놓은 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하는 모습이다. 신천리 탈의실에서 촬영하였다.


〈사진 15〉 신천리 해녀 작업장

### (3) 조락

'조락'은 작은 그물주머니를 말한다. '조락'은 전복이나 해삼, 문어 따위의 해산물을 넣거나 신발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 어움'에 매달아서 들고 다니는 작은 그물주머니다. 잠녀들에 따라서 '조락'에 테두리인 '어움'을 달아 만들기도 하고, 끈을 달아 물질할 때 허리춤에 차서 사용하기도 한다. 돌을 넣어서 다닐 때 사용하는 '조락'은 '돌조락'이라고 하고, 닻을 넣어서 다니는 '조락'은 '닷조락'이다. 신발을 넣어서 다니면 '신발조락'이다.


〈사진 16〉 '전복조락'


〈사진 17〉 '조락'

〈사진 16, 17〉은 신천리 해녀탈의장에서 촬영한 '조락'이다. 〈사진 16〉의 '조락'에 전복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전복조락'임을 알 수 있다. 그물코가 촘촘하게 짜여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레기'라고도 한다.



〈사진 18〉 고송자 씨의 '보말조락'



〈사진 19〉 고송자 씨의 '고동조락'

〈사진 18〉은 신천리 고송자 씨가 보말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보말조락'이고, 〈사진 19〉는 고송자 씨가 '고동', 즉 '소라'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고동조락'이다. 고 씨에 따르면, 잠녀들은 '조락'의 테두리에 끈을 달아 허리춤에 차서 물에 들어 '보말'이나 '소라'를 잡아 넣어 가득하면 망사리에 옮겨 넣는다고 하였다.

(4) 닷

'닷'은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물건이다. 여기에서 '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이 파도에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이다. '닷'은 표준어 '닻'에 대응하는 말이다. '닷줄'은 닻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줄이다. 보통 '닷'은 돌멩이나 쇠붙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물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한다. 닻을 넣는 주머니는 '닷조락'이다. 닻을 넣은 주머니에 연



〈사진 20〉 박순자 씨의 '닷'과 '닷베'



〈사진 21〉 강태금 씨의 '닷조락'

결된 끈은 '닷줄' 또는 '닷베'다.

〈사진 20〉은 신산리 박순자 씨 집에서 쓰고 있는 '닷베(닻베)'다. 지붕이 바람에 불리지 않도록 돌을 '닷(닻)'처럼 쓰고 있다. '닷'에 연결된 줄이 '닷베'다. 〈사진 21〉은 신천리 강태금 씨가 물질할 때 망사리에 담아서 갖고 다니는 '닷조락'이다. 돌멩이를 닻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돌조락'이라고 하였다. 나일론 줄로 '조락'을 엮고, 남은 줄은 '닷줄(닻줄)'로 쓰고 있다.

## 5.3. 채취 도구

### (1) 골각지

'골각지'는 성산읍 지역에서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구술자에 따라서 '호멩이' 또는 '까꾸리'라고도 하였다. 한경 지역에서는 '바당골겡이'라고 하였다.

"골각지 성게도 잡곡 뭐. 문어 잡는 건 ᄒᆞ꼼 질고."[279]
('골각지' 성게도 잡고 뭐. 문어 잡는 건 조금 길고.)

"이거 골각지. 성게 헐 때 이걸로 허곡 또 밭에 허는 거는 이것이 넙어야, 넙은 거 잇고. 것ᄀᆞ란 호멩이엔 허는디. 문어 허는 것도 호멩이. 문어 허는 것도 이추룩 납작허게 안 두드려. 요렇게만 생기게 헤근에 콜켕이 내와근에 문어 쏘와 오는 거. 콜켕이 이런 코젱이. 바당에 문어도 잡고 조개도 잡고."[280]

(이거 호미. 성게 할 때 이걸로 하고 또 밭에 하는 거는 이것이 넓어야, 넓은 거 있고. 것보고는 '호멩이'라고 하는데. 문어 하는 것도 '호멩이'. 문어 하는 것도 이처럼 납작하게 안 두들겨. 요렇게만 생기게 해서 코 내서 문어 쏴서 오는 거. 코 이런 코. 바다에 문어도 잡고 오분자기도 잡고.)

279) 신산리 한대순 씨 구술.
280)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22〉 한대순 씨 소장 '골각지'



〈사진 23〉 정복희 씨 소장 '골각지'



〈사진 24〉 현문자 씨 소장 '호미'



〈사진 25〉 고봉심 씨 소장 '골각지'

〈사진 22〉는 신산리 한대순 씨(1946년생)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골각지'다. 이 '골각지'를 이용해 한 씨는 성게 등을 채취하였다. 문어를 잡는 것은 이 '골각지'보다 자루 길이가 조금 더 길다고 한다. 〈사진 23〉은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골각지'다. 자루가 긴 '골각지'는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짧은 것은 '오분제기'나 성게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골각지'다. 〈사진 24〉는 온평리 현문자 씨가 사용했던 '호미'다. 밭에서 사용하는 것은 호미 잎이 넓고, 바다에서 사용하는 호미는 잎이 작고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문어나 '오분자기' 등을 딸 때 사용하는 '호멩이'다. 구술 내용의 '조개'는 온평리에서 '오분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진 25〉는 신천리 고봉심 씨(1939년생)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골각지'다.

온평리 현승자 씨(1947년생)는 '호멩이'는 육지로 물질을 다녔던 사람들이 수입해 온 말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호미의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골

각지'라고 하였다.

### (2) 빗창

'빗창'은 잠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기다란 도구이다. '빗창'의 '빗/비'는 전복을 뜻하는 고유어로, '빗창'은 '전복을 따는 창'이라는 의미이다. '빗창' 한쪽 끝에 달려 있는 고무줄 고리는 '빗창'을 손목에 끼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고리다.



〈사진 26〉 강춘자 씨 소장 '빗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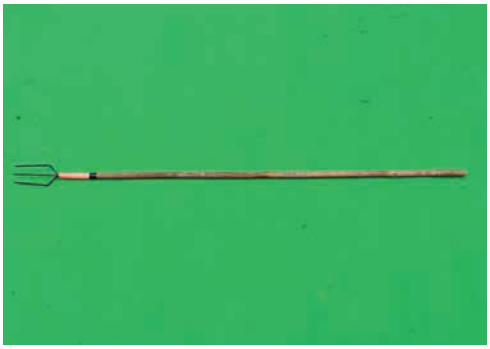
〈사진 27〉 강유자 씨 소장 '빗창'

〈사진 26〉은 신천리 강춘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빗창'이다. 〈사진 27〉은 신산리 강유자 씨(1945년생) 집에 보관해 있는 '빗창'이다. 쇠로 만들어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스는 성질이 있다.

### (3) 소살

'소살'은 잠녀들이 물에 들어 고기를 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작살'에 해당하는 말이다.

작살도 미늘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외소살', 두 가닥으로 달려 있으면 '두소살', 세 가닥으로 달려 있는 것은 '세소살'이라고 하여 구분하여



〈사진 28〉 고영자 씨 소장 '세소살'

부르고 있었다.

〈사진 28〉은 수산2리 고영자 씨(1933년생) 집에서 아들이 고기잡이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미늘이 세 가닥으로 된 '세소살'이다.

## 5.4. 손질 도구

### (1) 성게 손질 도구

'성게 그릇'은 손질한 성게 알을 담는 그릇이다. '성게박세기'는 성게 알을 까서 넣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성게칼'은 성게를 손질할 때 성게를 반으로 자를 때 사용하는 칼로, 손에 맞게 특별히 제작해서 사용한다. '성게숟구락'은 성게 알을 빼 낼 때 사용하는 작은 수저로, 주로 찻숟갈을 이용한다.


〈사진 29〉 성게 자르기


〈사진 30〉 성게 꺼내기


〈사진 31〉 성게 불순물 제거하기


〈사진 32〉 손질이 끝난 성게

성게 손질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바다에서 성게를 채취한다. 잠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채취한 성게를 '성게칼'로 하나하나 자르며 성게 알을 꺼낸다. 성게 알을 커낼 때는 작은 찻숟갈을 이용한다. 성게 알에 불순물이 많으면 성게 알을 손바닥에 올려놔서 성게 알만 따로 떠낸다. 깨끗한 성게 알은 '성게 박세기'에 담은 다음에 바닷물로 깨끗이 씻어서 손질한 후 1킬로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판다.

〈사진 29〉부터 〈사진 32〉까지는 성게 알을 손질하는 모습이다. 〈사진 29〉는 성게 알을 꺼내기 위해서 '성게칼'로 성게를 자르는 모습이다.



〈사진 33〉 성게 손질용 '바가지'



〈사진 34〉 성게 손질 도구

〈사진 33〉은 신천리 해녀탈의장에서 촬영한 성게 알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바가지들이다. 그물 주머니에 쌓여 있다. 〈사진 34〉는 신천리 강태금 씨가 사용하는 '성게 숟구락'과 '핀셋'이다.

"성게칼. 성게 허는 거. 그건 숟구락이 아니고 그건 저기. 그건 성게 까는 숟구락이고 이건 핀세트. 성게에 뭐 들면은 골라내는 거."[281]

(성게칼. 성게 허는 거. 그건 숟가락이 아니고 그건 저기. 그건 성게 까는 숟가락이고 이건 핀세트. 성게에 뭐 들면은 골라내는 거.)

281)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사진 35〉 현문자 씨의 성게 손질 도구



〈사진 36〉 고송자 씨의 '성게 칼'

〈사진 35〉는 온평리 현문자 씨가 성게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성게칼'과 '성게숟구락'과 '핀셋'이다. '핀셋'은 현문자 씨가 성게 알에 불순물이 들었을 때 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36〉은 신천리 고송자 씨가 사용하는 '성게칼'이다. '성게칼'에는 칼자루에 이름을 쓰거나 표시를 하여 다른 사람 물건과 섞이지 않게 하고 있다.

(2) 생선 비늘 벗기는 거

'생선 비늘 벗기는 거'는 생선의 비늘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37〉은 온평리 현문자 씨 집에서 생선의 비늘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생선의 비늘을 손질하는 것을 '비늘 거실린다'라고 한다.



〈사진 37〉 현문자 씨 소장

## 5.5. 낚시와 그물류

### 5.5.1. 낚싯줄과 낚싯대

(1) 주낫

'주낫'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다.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

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표준어 '주낙'에 대응하는 성산 지역 말이다.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낙을 성산읍 신산리와 신천리에서는 '솔레기주낫' 또는 '옥돔주낫'이라고 하였다.

"주낫 옥돔도 잡곡게. 옥돔 잡이도 헤나난에게. 솔레기도 꽁칠 허나 오징어도 니껍 허고. 솔레긴 아무 거나 니껍허여. 주로 오징어 쓰주, 오징어."[282]

(주낙 옥돔도 잡고. 옥돔 잡이도 했었으니까. 옥돔도 꽁칠 하나 오징어도 미끼 하고. 옥돔은 아무 거나 미끼 해. 주로 오징어 쓰지, 오징어.)



〈사진 38〉 고충삼 씨 소장 '솔레기주낫통'



〈사진 39〉 박순자 씨 소장 '주낫통'

〈사진 38〉은 신산리 고충삼 씨(1943년생)가 옥돔 따위를 잡을 때 사용했던 '솔레기주낫'이다. '솔레기'는 신산리에서 옥돔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 씨는 소일거리로 가끔씩 '솔레기 잡이'를 나간다. '솔레기'를 낚을 때의 미끼는 주로 오징어를 쓴다. 꽁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주낫통'은 주낙을 꽂아두는 통이다. 보통 둥그런 대야를 이용하여 만든다.

"이것이 주낫이엔 헹 그 주낫통. 저거는 집이라. 저 통에서 낙시 꽂으민 다 걸엉. 알기 쉽게 집."[283]

(이것이 주낙이라고 해서 그 주낙통. 저거는 집이야. 저 통에서 낚시 꽂으면 다 걸어서. 알기 쉽게 집.)

282)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283)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사진 39〉는 신천리 박순자 씨(1953년생) 집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주낫통'이다. '주낫통'은 주낙을 끼워 넣는 통이라는 의미다. 박 씨는 '주낙통'을 낚시를 걸어두는 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40〉 '솔레기주낙 상자'


〈사진 41〉 솔레기주낙과 주낙줄


〈사진 42〉 솔레기주낙 치는 모습


〈사진 43〉 주낙에 '니껍'을 끼우는 모습


〈사진 44〉 '주낙'에 '니껍'을 끼운 모습


〈사진 45〉 완성된 '솔레기주낙' 상자

〈사진 40〉에서 〈사진 45〉는 신천리 오영지 씨(1948년생) 집에서 '솔레기주낫'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솔레기' 잡이를 하기 위해서 주낙줄을 정리하여 낚시를 주낙 상자 가장자리에 끼우고, 미끼인 '니껍'을 달아 주낙 상자에 정돈하는 일을 '주낫 치다'고 하였다.

'주낫'을 치지 않은 상자는 빈 상자라고 하고, 주낙줄을 끼운 주낙에 미끼를 꿰어 정돈한 상자를 '여문상자'라고 한다. 네모난 '주낫 상자' 하나에 150개의 낚시가 사방으로 달려 있다. 보통 옥돔 잡이를 나갈 때는 150개의 주낙이 달려 있는 상자 60개를 갖고 가는데, 주낙을 깐 길이만 2500미터나 된다고 한다. '솔레기주낫'을 이용한 옥돔 잡이는 보통 12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새벽에 나가 정오께 돌아온다.

### (2) 삼봉낙시

'삼봉낙시'는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낚싯바늘을 말한다. '삼봉낚시'는 '한치', 즉 화살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이고, '미즈이까낙시'는 '미즈이까' 즉, 물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삼봉낙시'와 '미즈이까낙시'는 갈고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부분은 빨강, 파랑, 녹색의 천을 기워 감싼다. 이런 작업을 '옷 입진다(옷 입힌다)'라고 한다.

〈사진 46〉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한치'를 낚으러 가기 전에 옷을 입혀 놓은 '삼봉낚시'와 옷 입힐 때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다.


〈사진 46〉 고충삼 씨 소장 '삼봉낚시'

"이건 미즈이까낙시. 여기서 미즈이까 나끄주. 미즈이까는 낙시가 이거고 이거는 한치 낙시. 베로 끗엉 뗀마로 줄 뗑기멍. 그만히 시민 베가 좔좔 끗어가민 그대로 바짝바짝 달려들어."[284]

(이건 물오징어낚시. 여기서 물오징어 낚지. 물오징어 낚시가 이거고 이거는 화살오징

284)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어 낚시. 배로 끌어서 '덴마'로 줄 땅기면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좔좔 끌어가면 그대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사진 47〉 고충삼 씨 소장 '미즈이까낙시'

〈사진 47〉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물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미즈이까낙시'다.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겨 있다. 물오징어를 낚으러 갈 때는 낚시에 '예쁜 옷'을 입혀서 간다. 배를 이용하여 낚싯줄을 바다에 풀어놓은 다음에 배를 움직이면 옷을 입은 낚시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데, 그때 물오징어들이 낚시에 달려들어 붙잡히는 것이다.

"미즈이까 낙신 옷 입져야. 깨끗허게 옷 입져야 경헤야 고기가 바짝바짝 부뜨는 거주."[285]
(물오징어 낚시는 옷 입혀야. 깨끗하게 옷 입혀야 그렇게 해야 고기가 바짝바짝 붙는 거지.)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미즈이까', 즉 물오징어를 낚을 때는 '미즈이까낚시'를 붙여서 잡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낚시 몸통을 헝겊 따위로 감싸는 일을 '옷 입지다'라고 하였다.

### (3) 갈치낙시

'갈치낙시'는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기다란 낚싯대에 낚싯줄을 매다는데 하나의 '손줄'에 열다섯 개의 낚싯줄과 낚싯바늘을 매달아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한다. 기다란 낚싯줄은 '손줄'이라고 하고, 낚시를 매다는 줄은 '낚싯줄'이라고 한다. 낚싯대에 매달려 있는 줄은 '청대줄'이라고 한다.

"갈치낙시 이 알로 갈치줄 들어갈 거. 이것에 돌아멩 밑으로 내려갈 거. 이거, 발가옷에 하나씩. 이건 손줄, 이건 낙시줄. 이것에 걸어근에게 낙시 이레 열다섯 개나 스무 개나

285)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돌아메거든. 고리 요것에 걸 거. 낙시 하나에 뽕돌 하나. 청대에다가 저걸 낙시 허게 뒈민 요런 걸 헹 돌아메는 거라. 요걸 청대에 돌아메여. 청대, 청대줄. 청댄 한 사람이 하나민 뒈여. 꺼꺼지민 또 다음 뒷날 또 강 또 새로 허고. 낙시는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다 물 때 있지만 안헐 때도. 엿날엔 열다섯 개 다 물어낫어. 낙시 하나에 두 개도 물 때도 잇어. 고기가 두 개 올라올 때 잇어. 니껍은 꽁치 저 냉동시킨 거."

(갈치낚시 이 아래로 갈칫줄 들어갈 거. 이것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려갈 거. 이거, 발가웃에 하나씩. 이건 손줄, 이건 낚싯줄. 이것에 걸어서 낚시 이리로 열다섯 개나 스무 개나 매달거든. 고리 요것에 걸 거. 낚시 하나에 봉돌 하나. 낚싯대에다가 저걸 낚시 하게 되면 요런 걸 해서 매다는 거야. 요걸 낚싯대에 매달아. 낚싯대, 낚싯대줄. 낚싯댄 한 사람이 하나면 되어. 꺾어지면 또 다음 뒷날 또 가서 또 새로 하고. 낚시는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다 물 때 있지만 않을 때도. 옛날엔 열다섯 개 다 물었었어. 낚시 하나에 두 개도 물 때도 있어. 고기가 두 개 올라올 때 있어. 미끼는 꽁치 저 냉동시킨 거.)

### (4) 정술, 원줄

'정술'은 낚싯줄을 말한다. '원줄'은 낚싯대에 매다는 낚싯줄이다.

〈사진 48〉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고기잡이 할 때 사용하는 '정술'과 '원줄'이다.



〈사진 48〉 고충삼 씨 소장 '정술'



〈사진 49〉 고충삼 씨 소장 '한치얼레'

### (5) 한치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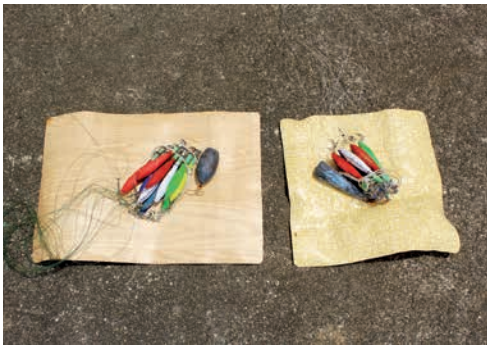
'한치얼레'는 '한치' 즉 화살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싯줄을 감아두는 기구다.

〈사진 49〉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한치'를 낚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한치얼레'다.

### (6) 뽕돌

'뽕돌'은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나 돌덩이를 말한다. 표준어 '봉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50〉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한치'잡이를 할 때 낚싯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뽕돌'과 '삼봉낚시'다. '삼봉낚시' 옆의 납으로 된 물건이 '뽕돌'이다.



〈사진 50〉 고충삼 씨 소장 '삼봉낙시'와 '뽕돌'

### (7) 청대

'청대'는 낚싯대를 가리키는 성산읍 지역의 말이다. 이 '청대'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 배에서 '청대'에 매단 낚싯줄의 낚시를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한다. 보통 갈치를 낚을 때 이용하는 낚싯대다.

"고기 나끄는 청대. 이제도 이걸로 갈치 나까. 아까 갈칫줄 그거 이디 무꺼근에. 무꺼근에 허민 혼 스무 발썩 헤영 던져야, 그 뽕돌헤근에. 뽕돌도 다 잇어. 이만썩헌 뽕똘. 어께가 다 빠져. 남의 배에 부떠 강 나끄주게. 갈치는 청대로 허고 솔레기는 이거 그대로 집어낭 뎅기는 거, 로라로 딱딱 뎅기는 거. 요즘 다 로라로 허난."[286]

(고기 낚는 낚싯대. 이제도 이걸로 갈치 낚아. 아까 '갈칫줄' 그거 여기 묶어서. 묶어서 하면 한 스무 발씩 해서 던져야, 그 봉돌해서. 봉돌도 다 있어. 이만큼씩한 봉돌. 어깨가 다 빠져. 남의 배에 붙어 가서 낚지. 갈치는 낚싯대로 하고 옥돔은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당기는 거, 롤러로 딱딱 당기는 거. 요즘 다 롤러로 하니까.)

〈사진 51〉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갈치 낚시를 다닐 때 들고 가는 '청대'다. '청대'는 지역에 따라서 '춤대'라고도 하는데, 기다란 왕대를 이용하여 만든다. 낚싯줄은 스물 발 길이나 된다고 한다.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갈치를 낚을 때는 '청대'를 이용하지만, '솔레기'를 낚을 때는 주낙을 이용하고 있다. '솔레기'는 옥돔을 가리키는 신산리 지역의

286)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말이다. 옥돔의 낚싯줄을 끌어올릴 때는 '로라' 즉 '롤러'를 이용한다.


〈사진 51〉 고충삼 씨 소장 '청대'

"청대 그냥 낙싯대. 저것에 낙시를 메여근에. 저거는 나는 갈치 안 나까보니까 잘 모르는디 저게 이렇게 배마다 이렇게 큰 밴 오믄 중간 중간 한 놈이 하나라. 중간 중간 세운디 저거에 이제 낙시줄을 메여. 메영 고정이라 저거는. 저거는 고정이고 이렇게 탁 데끼면은 그거 손으로 뗑기는 거는 그거는 그냥 뗑기곡 중간 중간 저거를 보는 거 같애. 고정이니까 걸어지민 뗑경 또 새로 놓고 이거는 그냥 던져서 오민 이렇게 이렇게 헤서 또 떼고. 나는 안 헤 보니까 몰르지, 말만 들엇지."[287]

('청대' 그냥 낚싯대. 저것에 낚시를 매어서. 저거는 나는 갈치 안 낚아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게 이렇게 배마다 이렇게 큰 밴 오면 중간 중간 한 놈에 하나야. 중간 중간 세우는데 저거에 이제 낚싯줄을 매어. 매어서 고정이야 저거는. 저거는 고정이고 이렇게 탁 던지면 그거 손으로 당기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당기고 중간 중간 저거를 보는 거 같아. 고정이니까 걸어지면 당겨서 또 새로 넣고 이거는 그냥 던져서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떼고. 나는 안 해 보니까 모르지, 말만 들었지.)


〈사진 52〉 박순자 씨 소장 '청대'

〈사진 52〉는 신천리 박순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청대'다. 박 씨의 아들이 배를 운영하여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이 '청대'를 이용하여 갈치를 낚는다. 박 씨는 갈치를 낚아보지는 않아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하나씩 배에서 청대를 이용하여 갈치를 낚는다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주었다.

287)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 5.5.2. 그물류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을 말한다. 재료에 따라 무명실로 짜면 '실그물'이라고 하고, 나일론으로 짠 것은 '나일론그물'이라고 한다. 한 겹으로 된 그물은 '웨그물'이다. 그물은 어획물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물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 (1) 자망그물, 구물 잣는 바농대

'자망그물'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도구다. '자망(刺網)'에 그물이 덧붙은 형태이다. '구물 잣는 바농대'는 그물의 헤진 곳을 기울 때 사용하는 바늘대다.

"옛날은 저 실그물로 헷주게. 이거 나이론그물."[288]
(옛날은 저 실그물로 했지. 이거 나일론그물.)

"자망그물. 우리 보통 벤자리도 잡고 뭐 전갱이도 잡고 볼락도 잡고. 우리 배 크게 허여, 일성호."[289]
(자망그물. 우리 보통 벤자리도 잡고 뭐 전갱이도 잡고 볼락도 잡고. 우리 배 크게 해, 일성호.)


〈사진 53〉 박순자 씨 소장 '자망그물'


〈사진 54〉 박순자 씨 소장 '구물 잣는 바농대'

288)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289)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사진 53〉은 신천리 박순자 씨 아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자망그물'이다. 이 그물을 이용하여 양 씨의 아들은 벤자리도 잡고 전갱이도 잡고 볼락도 잡는다.

〈사진 54〉는 신천리 박순자 씨 집에서 헤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그물 잣는 바농대'다. 고기잡이를 하는 그물의 헤진 부분을 잣기 위해서 나일론실을 '바농대(바늘대)'에 감아놓은 모습이다.

### (2) 뛧박, 버국이

'뛧박'은 닻을 내린 자리를 표시하는 부표를 말한다. 그물의 위쪽 가장자리에 달아서 물속에서 뜨게 하는 것으로, 나무나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다. 일본어 '아바(あば)'를 쓰기도 한다. '버국이'에 매어있는 밧줄을 어부들은 영어 '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진 55〉 박순자 씨 소장 '그물 밧줄'



〈사진 56〉 박순자 씨 소장 그물에 사용하는 '버국이'

"이거 버국이주게. 버국이ᄀᆞ라. 겐디 우린 이거 아바.(아바에 메여 있는 이 줄은) 그냥 노프엔 허는데 이거는."[290]

(이거 '버국이'지. '버국이'보고. 그런데 우린 이거 '아바'.(아바에 메여 있는 이 줄은) 그냥 밧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진 55〉는 그물이 윗부분에 매다는 밧줄이다. 이 밧줄에 '버국이'를 끼워두면 그물이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게 하는 것이다. 즉 '버국이'는 그물을 놓은

290)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사진 57〉 박순자 씨 조상 '뛧박'


〈사진 58〉 박순자 씨 소장 '뛧박'

자리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밧줄을 박 씨는 영어로 '로프'라고 하였다. 〈사진 56〉은 신천리 박순자 씨가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그물을 꾸밀 때 그물을 연결하는 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버국이'고, 〈사진 57〉과 〈사진 58〉은 신천리 박순자 씨가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할 때 닻을 내린 자리의 그물을 뜨게 표시해 주는 '플라스틱 뛧박'이다. 먼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는 어장에서 사용하는 '뛧박'이다. '뛧박'은 그 기능이 그물을 띄우는 물건이기 때문에 '띄우는 박'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인 것 같다.

### (3) 통발

'통발'은 그물 따위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를 말한다. 주로 문어를 잡을 때 이용한다.


〈사진 59〉 고영자 씨 소장 '통발'


〈사진 60〉 한대순 씨 소장 '통발'

〈사진 59〉는 수산2리 고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통발'이고, 〈사진 60〉은 신산리 한대순 씨 집에 있는 '통발'이다.

#### (4) 족바지

'족바지'는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자리나 멸치 따위를 뜰 때 사용하거나, 횟집 등에서 생선을 떠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뜰채'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61〉은 신산리 고충삼 씨가 자리돔 잡이를 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족바지'다.



〈사진 61〉 고충삼 씨 소장 '족바지'

## 5.6. 운반 도구

#### (1) 바릇구덕

'바릇구덕'은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바구니다. '바르+-ㅅ-+구덕' 구성으로, '바르'는 바다, 또는 해산물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구덕'은 바구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바릇구덕 저것도 바당에 가근에, 갈 적에는 보말도 잡고. 이젠 늙어부난게. 아이고, 이거 우리 안 써나부난 영 허주 잘도 고와난 거라. 영 헤근에 보말도 잡아 놓고 톨도 봐지민 놓고. 궤기 나끄레도 멩 가고."[291]

('바릇구덕' 저것도 바다에 가서, 갈 적에는 고둥도 잡고. 이젠 늙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안 써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잘도 고왔던 거야. 이렇게 해서 고둥도 잡아 넣고 톳도 봐지면 넣고. 고기 낚으러도 메서 가고.)

291)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사진 62〉 고영자 씨 소장 '바릇구덕'



〈사진 63〉 '바릇구덕'을 허리에 찬 모습.

〈사진 62〉는 수산2리 고영자 씨가 바다에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바릇구덕'이다. 바다에 가면 이 '바릇구덕'을 허리에 차서 '보말(고둥)'도 잡아서 넣고, '톨(톳)'도 캐서 넣는다. 고기 낚으러 갈 때는 어깨에 메고 다녔다. 〈사진 63〉은 '바릇구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 (2) 코셍이바구니

'코셍이바구니'는 '코셍이' 즉 고생놀래기를 낚으러 다닐 때 들고 가는 바구니다.

"코셍이바구니 낚시헐 때, 갯바위 헐 때 저걸로. 저 우이 영감 잇는데 그디서 저 부탁해서 하나에 삼만 원 줫던가? 사왓주. 우리 릴은 안 허고 갯바위 대나무 낚시대로. 거 재밋지. 것이 젤 재밌어. 저거 혼 삼 년 뒈는가? 집사름허고 나허고 둘리가. 저 한 물끼에 둘이가 좌우지간 일주일 간 다녓일 거라, 낚시. 겐디 요것이 코셍이 바구리는 우이가 이렇게 뿔아져야 고기 나까 놓민 튀어나지 않지. 깊고 우이가 좁아야만이 고기가 나끄면 파닥파닥헐 때 안 튀어나지. 가면 이걸로 코셍이, 놀레미 어렝이 하나씩 나끄는디."[292]

('고셍이바구니' 낚시할 때, 갯바위 할 때 저걸로. 저 위에 영감 있는데 거기서 저 부탁해서 하나에 삼만 원 줬던가? 사왔지. 우리 릴은 안 하고 갯바위 대나무 낚싯대로. 거 재밌지. 것이 젤 재밌어. 저거 한 삼 년 됐는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가. 저 한 물때에

292)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둘이 좌우지간 일주일 간 다녔을 거야, 낚시. 그런데 요것이 '코셍이 바구리'는 위가 이렇게 빨아져야 고기 낚아 넣으면 튀어나지 않지. 깊고 위가 좁아야만 고기가 낚으면 파닥파닥할 때 안 튀어나지. 가면 이걸로 고생놀래기, 노래미, 어렝놀래기 하나씩 낚는데.)

〈사진 64〉는 수산2리 고대인 씨(1956년생)가 부인이랑 갯바위 낚시를 할 때 어깨에 메고 다니는 '코셍이바구니'다. 고 씨는 이를 '코셍이바구리'라고도 하였다. 삼 년 전에 수산리에서 바구니를 결었던 장인한테 특별히 부탁하여 만들었다. 한 개에 삼만 원씩 육 만 원 주고 두 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다. 바구니의 통을 깊고 위로 올라갈수록 빨아지게 만든 것은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진 64〉 고대인 씨 소장 '코셍이바구리'


〈사진 65〉 한대순 씨 소장 '베'

(3) 베

'베'는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바이다. 짐을 질 때 사용한다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짐페'라고도 한다.

〈사진 65〉는 신산리 한대순 씨가 물질할 때 들고 다녔던 '베'이다. 이 '베'를 이용하여 '테왁'과 망사리를 넣은 '질구덕'도 지고,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물건을 져날랐다.

(4)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것이다. 잠녀들은 물질을 다닐 때 〈사진 66〉에서처럼 네 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물질을 다닌

다. '오토바이'의 짐칸에 갈아입을 옷과 채취한 해산물 등을 넣어서 다닌다. 예전에는 잠녀들이 물질을 다닐 때면 '테왁'과 '망사리' 따위를 넣은 '질구덕'을 등에 지고 걸어서 다녔다.



〈사진 66〉 신천리 해녀탈의장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 5.7. 기타 도구

### (1) 고깃배

'고깃배'는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타고 다니는 기구다. 〈사진 67〉과 〈사진 68〉은 신천리 포구에 정박해 있는 고깃배다. 계절에 맞춰서 이들 어선은 바다로 나가 갈치도 낚고, 옥돔 주낙도 하고, 벤자리도 잡고, '한치'도 낚는다.



〈사진 67〉 신천리 포구의 '고깃배'



〈사진 68〉 신천리 포구의 '고깃배'

### (2) 깃대

'깃대'는 배를 타고 나가 먼바다에 고기잡이를 할 때 그물을 치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다는 기를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깃대 이거는 그물을 놔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이레 데껴. 겐 이거를 저 끗에 헤가지

고 이런 거를 메달려. 큰 포 헤가지고, 포가 아니지. 이제 깃대 허는 거 잇거든. 거를 돌아메서 이거 문저 던져 이거. 이게 문저 던지고 마지막에 저거 던져야. 이게 표시라. 이게 표시라. 멧 도에 가면은 우리 깃대가 잇다. 이거를 잡아뎅겨놔야 이거 따라오지. 봉돌을 메면은 저거는 이렇게 되지. 그게 표시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멧 도에 우리 거 있다, 그걸 보고 찾지, 경 안 허민 못 찾지."[293]

(깃대 이거는 그물을 놔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이리 던져. 겐 이거를 저 끝에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매달아. 큰 포 해가지고, 포가 아니지. 이제 깃대 하는 거 있거든. 거를 매달아서 이거 먼저 던져 이거. 이게 먼저 던지고 마지막에 저거 던져야. 이게 표시야. 이게 표시야. 몇 도에 가면은 우리 깃대가 있다. 이거를 잡아당겨놔야 이거 따라오지. 봉돌을 매면 저거는 이렇게 되지. 그게 표시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몇 도에 우리 거 있다, 그걸 보고 찾지, 그렇게 안 하면 못 찾지.)



〈사진 69〉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기'가 달려 있는 '깃대'



〈사진 70〉 '깃대'에 매다는 '뻐꾹이'



〈사진 71〉 고깃배에 준비해 놓은 '깃대'

293) 신천리 박순자 씨 구술.

〈사진 69〉는 옥돔잡이를 나갈 때 사용하는 기를 매단 '깃대'이고, 〈사진 70〉은 고기잡이를 나갈 때 기를 매다는 깃대를 세우기 위해서 띄우는 '뻐꾹이'다. '뻐꾹이'는 제보자에 따라 '버국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71〉은 신천리 포구에 세워진 '고깃배'에 실려 있는 '깃대'다.

### (3) 물조리

'물조리'는 갈치잡이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배의 엔진을 껐을 때 물조리를 띄워놓고 갈치잡이를 하게 되는데, 갈치잡이를 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조리 저거이 낙시, 갈치 나끄는 저 낙하산이라. 낙하산에 저 앞이 게 저 물이 안 골라서 저게 이렇게. 그걸로 이제 기계를 죽어불면 이제 그걸로 조정을 허여. 그 낙하선으로 조정허영 띄우면 저 줄에 줄을 막 잇어. 그 다음엔 하얀 포가 잇어. 길게 그걸 그게 조정허는 거라. 기계를 죽여가지고 저 물조리로 낙시를 나까 가는 거라. 그물 놓은 거 저거 먼저 던져 놔야 띄와근에 가라앚지 않잖아. 둥글렁허게 바다에 떠 잇잖아. 경허면 저거 우리 거다 헹 알아근에."

('물조리' 저거 이 낚시, 갈치 낚는 저 낙하산이야. 낙하산에 저 앞에 게 저 물이 안 고여서 저게 이렇게. 그걸로 이제 기계를 죽어버리면 이제 그걸로 조정을 해. 그 낙하선으로 조정해서 띄우면 저 줄에 줄을 막 있어. 그 다음엔 하얀 포가 있어. 길게 그걸 그게 조정하는 거야. 기계를 죽여가지고 저 '물조리'로 낚시를 낚아 가는 거야. 그물 넣은 거 저거 먼저 던져 놔야 띄워서 가라앉지 않잖아. 둥그렇게 바다에 떠 있잖아. 그러면 저거 우리 거다 해서 알아서.)

### (4) 닷돌

'닷돌'은 표준어 '닻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닷돌 메근에 이레 줄 톡 헤근에 물 가민 뭐 허는 것덜이주."[294]

("닷돌 메근에 이레 줄 톡 헤근에 물 가민 뭐 허는 것덜이주.)

294)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사진 72〉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고기잡이를 할 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바다에 정박할 때 사용했던 닻돌이다. 이러한 '닷돌'을 매다는 줄을 '닷줄(닻줄)'이라고 한다. '닷줄'을 맬 수 있도록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사진 72〉 고충삼 씨의 '닷돌'

# 6. 축산 관련

농촌 지역에서 소와 말은 농업 기반이었다.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였다. 그러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농기계 발달로 소나 말의 쓰임도 달라지면서 축산 관련 도구도 변화가 있었다.

조사 지역 중 수산은 말의 본 고장으로 말 목축이 성행했던 곳이다. 따라서 농사일을 할 때도 소보다는 말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고삐라는 말 대신에 몽골 차용어인 '녹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수산리는 원의 지배하여 말 목장이 처음 개설된 곳이다. 말 관련 어휘에 몽골 차용어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축산 관련 도구로는 삼대에 걸쳐 사용했던 '낵인'이 조사되었다. 소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꼴 베기의 도구인 '낫'을 성산읍 지역에서도 구좌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서 베는 '낫'을 사용하고 있었다. 요즘은 꼴을 벨 일이 없어서 제보자에 따라서는 이 낫을 벌초할 때 사용하고 있어 낫의 쓰임이 바뀌고 있었다. 제주시 서쪽 지역인 한경면과 안덕면에서는 꼴을 벨 때 '호미'라 불리는 낫을 이용한다. '호미'로 꼴을 벨 때는 앉아서 베어야 한다.

〈사진 1〉은 오남종 씨(1939년생)가 소를 키울 때 찍어둔 사진이다. 2002년 9월 19일에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1〉 오남종 씨 소장 사진

## 6.1. 마소 가꾸기

### 6.1.1. 소막

#### (1) 메낭·메남

'소막'은 소를 키울 때 사용하는 시설로 표준어 외양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소막' 또는 '소왕', '쉐왕'이라고 하였다.

"쉐왕, 쉐 메는 디 쉐왕, 방에왕. 그걸 밧집이엔 헷주, 밧집. 밧깟집. 밧집이엔 헌 거 바깟집을 말허는 거주."[295]

(외양간, 소 매는 데 외양간, 방앗간. 그걸 바깥채라고 했지, 바깥채. 바깥집. 바깥채라고 한 거 바깥채를 말하는 거지.)

수산1리 고춘권 씨(1933년생)는 외양간을 '쉐왕'이라고 하였다. 외양간 한 쪽에는 방아를 넣어두는 공간인 '방에왕'을 만들었다고 한다. 외양간은 집의 안채가 아닌 바깥채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이 바깥채를 고 씨는 '밧집'이라고 하였다.



〈사진 2〉 장승익 씨 집 '소막'의 '메낭'

〈사진 2〉는 온평리 장승익 씨(1949년생) 집 '소막'의 '메낭'이다. '메낭'은 소를 매는 나무 기둥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메남'이라도 하였다. '메낭' 앞으로 소꼴 등을 주는 통을 시멘트로 만들었다. 장 씨는 이를 '사료통'이라고 하였다.

"소막, 여기 기둥에 붙들어 메는 거, 메낭. 쉐를 거기 기둥에 멧주. 일로 메고 절론 먹

295) 성산읍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이 주레 다니고. 이 막에서 일곱 마린 키왓주."[296]
(외양간, 여기 기둥에 붙들어 매는 거, '메낭'. 소를 거기 기둥에 맸지. 일로 매고 절론 먹이 주러 다니고. 이 막에서 일곱 마리는 키웠지.)

수산1리 고덕후 씨는 현재까지도 집에 남아 있는 '쉐왕'에서 한 번에 일곱 마리의 소를 키웠다고 한다.

"그 메남이엔 헤, 멜남이라 허는 말이라. 그 남으로, 남으로 쉘 메는 거니까 멜남. 메남, 메남. 메남이엔 헷주. 곧기 좋게 메남이엔 허는데 메는 남이엔 헌 말이주, 메남이엔 헌 건."[297]
(그 '메남'이라고 해, 맬나무라 하는 말이야. 그 나무로, 나무로 소를 매는 거니까 '메남'. '메남', '메남'. '메남'이라고 했지. 말하기 좋게 '메남'이라고 하는데 매는 나무라고 하는 말이지, '메남'이라고 하는 건.)

수산1리 고춘권 씨에 따르면, '메남'을 이용하여 소를 매니까 '메남'은 '매는 나무'라고 의미다. '남·낭'은 표준어 '나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2) 사료통

'사료통'은 사료를 먹일 때 사용하는 먹이통이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는 시멘트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앞의 〈사진 2〉가 장승익 씨 집에서 사용했던 '사료통'이다.

### 6.1.2. 고삐류

#### (1) 녹대

'녹대'는 소나 말을 끌고 다닐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표준어 '고삐'에 해당하는 몽골 차용어다.

296) 성산읍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297)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쉐나 질루젠 허민) 쉐녹대허고 쉐질메도 잇어야 허고. 건 짐 시끌 때 허는 거. 쉐녹대 쉐 이껑 뎅기는 거. 또 들에 가근에 길게시리 헤근에 그 말뚝 박앙 메영 그 잠깐 들에 강 놓는 건 줄레. 매날 놓는 건 그자 풀어 놩 내불민 뒈는데 그건 뒷날, 뒷날이나 이제 그 심어다근에 밧을 가나 뭐 허젠 헐 때는 그 줄 싸는 거 임시. 물 이껑 뎅기는 건 물녹대."[298]

((쉐나 질루젠 허민) 쇠고삐하고 소길마도 있어야 하고. 건 짐 실을 때 하는 거. 쇠고삐 소 이끌고 다니는 거. 또 들에 가서 길게끔 해서 그 말뚝 박아서 매서 그 잠깐 들에 가서 놓는 건 '줄레'. 매날 놓는 건 그저 풀어 놩 내버리면 되는데 그건 뒷날, 뒷날이나 이제 그 잡아다가 밭을 가나 뭐 하려고 할 때는 그 줄 싸는 거 임시. 말 이끌어서 다니는 건 말고삐.)

수산리에서는 고삐를 '녹대'라고 하였다. 소를 끌고 다닐 때 쓰는 쇠고삐는 '쉐녹대', 말을 끌고 다닐 때 사용하는 말고삐는 '물녹대'라고 한다.

"저거 다 쉐줄헤난 거. 긴 것은 줄레, 또 짧은 것은 녹대."[299]
(저거 다 '쉐줄'했던 거. 긴 것은 '줄레', 또 짧은 것은 고삐.)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쇠를 매는 줄을 '쉐줄'이라고 하였다. '쉐줄'은 고삐인 '녹대'와 '줄레'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고 씨는 '쉐줄' 가운데 긴 것은 '줄레'이고, 짧은 것은 '녹대'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 (2) 줄레

'줄레'는 들판에 가서 소나 말이 먹이를 먹게 할 때 고삐에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줄레'는 고삐에 연결하는 긴 줄이다. 소를 매면 '쇠줄레', 말을 매어주는 긴 줄은 '물줄레'다.

고삐를 '줄레'에 연결시켜 말뚝으로 박아두면 소나 말은 일정한 공간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된다.

29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299)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긴 건 줄레고 그 주위에서 먹이 영 먹어지게 헌 것은 줄레고 이렇게 가깝게시리 땅에 박앙 고정시키는 거 여깃말로 말톡이엔 허는디."[300]

(긴 건 '줄레'고 그 주위에서 먹이 이렇게 먹어지게 한 것은 '줄레'고 이렇게 가깝게끔 땅에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 여기 말로 말뚝이라고 하는데.)

'줄레'는 보통 소를 먹일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쉐줄레'를 일컫을 때가 많다. 수산1리 고덕후 씨와 고춘권 씨는 '줄레', 난산리 김영생 씨는 '쉐줄레'라고 하였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는 '쉐줄레',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는 '줄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쉐줄'이라고 하여 방언차를 보였다.

〈사진 3〉은 난산리 이영생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쉐줄레'다.

"소 메는 건 소줄레, 말 질루는 건 말줄레 그렇게."[301]

(소 매는 건 '소줄레', 말 기르는 건 '말줄레' 그렇게.)



〈사진 3〉 이영생 씨 소장 '쉐줄레'



〈사진 4〉 고덕후 씨 소장 '줄레'

〈사진 4〉는 수산1리 고덕후 씨(1940년생) 집에서 들판에서 '말톡'을 이용하여 소를 먹일 때 사용했던 '줄레'다. 고 씨는 소를 맬 때 사용하는 긴 줄을 '소줄레', 말을 맬 때 사용하는 긴 줄을 '말줄레'라고 하였다.

300)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301) 수산1리 고덕후 씨 구술.

"이걸로 줄레도 허고 요새는 경운기나 차에 짐 시끌 때도 사용허고."[302]
(이걸로 '줄레'도 하고 요새는 경운기나 차에 짐 실을 때도 사용하고.)

〈사진 5〉는 수산1리 고춘권 씨가 소를 기를 때 사용했던 '줄레'다. 요즘은 쓰임이 없어서 경운기나 차에 짐을 실을 때 짐이 쓰러지지 않게 동여매는 용도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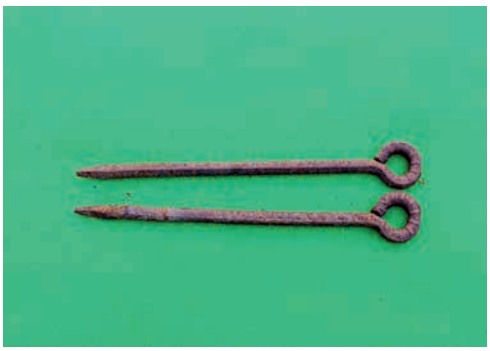

〈사진 5〉 고춘권 씨 소장 '줄레'

## 6.1.3. 부속물

### (1) 말톡

'말톡'은 소나 말이 일정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게 줄 끝에 매달아 땅에 박아 고정시키는 도구다. 표준어 '말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말톡'은 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점차 쇠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유물이다.


〈사진 6〉 고춘권 씨 소장 '말톡'


〈사진 7〉 오남종 씨 소장 '말톡'

30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8〉 이영생 씨 소장 '말톡'

"말톡 소나 말줄에 영 가근에 멜 때 줄 질게 헹 메거든이. 게민 그때 땅에 박앙."[303]

(말뚝 소나 말줄에 이렇게 가서 맬 때 줄 길게 해서 매거든. 그러면 그때 땅에 박아서.)

〈사진 6〉은 수산1리 고춘권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말톡'이고, 〈사진 7〉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사용하던 '말톡'이다. 〈사진 8〉은 난산리 이영생 씨 집 창고에 걸려 있는 '말톡'이다.

### (2) 글겡이

'글겡이'는 말이나 소 따위의 털을 빗기는 도구로, 마소에 붙어 있는 진드기와 '부구리' 등을 긁어줄 때 많이 사용한다. '글겡이'는 표준어의 '글겅이'에 대응한다.

〈사진 9〉는 신산리 고충삼 씨 집에서 사용했던 '글겡이'다.


〈사진 9〉 고충삼 씨 소장 '글겡이'

### (3) 넥인

'넥인'은 표준어 '낙인(烙印)'에 해당하는 말이다. '낙인'은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으로, 소나 말 따위의 엉덩이에 찍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장치다. '넥인'만 보면, 어느 지역 말인지 소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넥인'은 소유자의 집안이나 기호 등을 따서 문자나 부호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30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이거 지역마다, 집안마다 다 다릅주. 경헤근에 이걸로 우마나 다 표시가 뒙주. 어느 지역 말, 어느 지역 소 그런 거 다 나옵주. 소는 아부지 대에 많이 키웠어, 아부지 때. 옛날에 귀표, 그때 요걸로 이런 디 영 귀 짤르고. 그디 저 따지고 보민 사둔 뒐 겁주, 할아버지가. 그디가 요걸로 숫불에 구워근에. 이 넥인이양 소나 말 많이 키우는 사름이 소장헹 이신 겁주. 경 안 허민 안 가졍 잇어. 여기 말 그때는 혼 이삼십 마리씩 키와십주. 소는 집이서 일헐 소 정도, 밧 가는 일 소 정도 키우고. 우리도 아부지 때는 말 많이 키와십주. 양 사둔이 같이 동아리 헤 갖고. 우리 집사람은 하돈디 말 그때는 뭐 양 사둔이 한 오륙십 마리씩 키와십주. 같은 나이 대고 허니까 같이. 사둔이라도 다른 사름 이실 때는 예 쓰고 둘만 이실 때는 야, 야 허고."[304]

(이거 지역마다, 집안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우마나 다 표시가 되지요. 어느 지역 말, 어느 지역 소 그런 거 다 나오지요. 소는 아버지 대에 많이 키웠어, 아버지 때. 옛날에 귀표, 그때 요걸로 이런 데 이렇게 귀 자르고. 거기 저 따지고 보면 사돈 될 거지요, 할아버지가. 거기가 요걸로 숯불에 구워서. 이 낙인이요 소나 말 많이 키우는 사람이 소장해서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않으면 안 가져 있어. 여기 말 그때는 한 이삼십 마리씩 키웠습죠. 소는 집에서 일할 소 정도, 밭가는 일 소 정도 키우고. 우리도 아버지 때는 말 많이 키웠습지요. 양 사돈이 같이 동아리 해갖고. 우리 집사람은 하돈데 말 그때는 뭐 양 사돈이 한 오륙십 마리씩 키웠습죠. 같은 나이 대고 하니까 같이. 사돈이라도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예 쓰고 둘만 있을 때는 야, 야 하고.)

〈사진 10〉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말을 키울 때 사용했던 '넥인'이다. 오 씨의 할아버지 오창조(작고), 아버지 오명표(작고)에 이어 오 씨까지 3대에 걸쳐 사용했던 '넥인'으로, 한글 '오'를 '넥인' 글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오 씨에 따르면 아버지 때 사돈끼리 동아리를 해서 말을 많이 키웠다고 한다. 그때 많게는 말 여든일곱



〈사진 10〉 오남종 씨 소장 '넥인'

304)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마리까지 키웠었다고 하였다. 소는 열 마리까지 키웠다.

"우린 그 저 우리 일가에 어른이 첨 소물을 하영 헤 가지고 그 어른이 낙인을 헨 허난에 에움에 놀 때도 ᄀᆞ치 놓고 그런 제도 백중 때나 귀표 때나 같이 헷주. 게난 거기 낙인을 써 가지고 으뜸 원 자.그 자 의미도 좋고 획도 좋고 또 보기도 좋아, 그래 가지고."[305]

(우린, 우린 그 저 우리 일가에 어른이 첨 소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어른이 낙인을 해서 하니까 '에움'에 놀 때도 같이 놓고 그런 제도 백중 때나 귀표 때나 같이 했지. 그러니까 거기 낙인을 써 가지고 으뜸 원 자. 그 자 의미도 좋고 획도 좋고 또 보기도 좋아, 그래 가지고.)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일가에서 사용하는 '으뜸 원(元)'자 한자 '넥인'을 썼다고 한다. 목장인 '에음'에 가두거나 '넥인'을 하거나 백중제를 하거나 귀표를 할 때도 일가끼리 같이 했다고 한다.

(2) 귀표

'귀표'는 가축의 임자를 밝히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다. 주로 쇠를 이용하여 만든 귀표를 소나 말의 귀에 끼웠다. 귀표만 보면 소의 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소나 말을 방목할 때 하는 장치다. 귀표는 마소를 보통 목장에 올렸다가 겨울철에 집에 몰고 올 때 한다.

## 6.2. 꼴 베기

'꼴'은 소나 말의 먹이다. 제주에서는 꼴을 '촐'이라고 하여, 꼴 베기는 농가와 축산농가의 가을철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쉐 열 ᄆᆞ리 키우젠 허민 촐눌을 ᄒᆞᆫ 세 개, 네 개ᄀᆞᆽ장 눌어야 저 ᄒᆞᆫ 해 겨울 넴기주게. 아멩헤도 실음도 ᄒᆞᆫ 나흘은 시꺼야 허난에 이거 뭐 ᄒᆞᆫ 구루마에 열 바리씩 시꺼도 멧 개

30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뒐 거라게. 혼 바리가 서른 단. 혼 사름이 ᄒᆞ루 열 바리씩 출 비여. 무끔은 두 사름이 헌 거 무끄주, 보통. 겐디 잘 무끄는 사름은 세 사람이 헌 거까지 무끄는데 보통 두 사람이 헌 거. 혼 쪽이 저 다섯 번썩 열 번. 경 안 허민 ᄋᆞ덥 번. 팔에 힘 좋고 낫 좋은 걸로 비면은 네 번 헤도 단이 크고 낫이 궂고 힘이 엇인 사름은 혼 번에 경 거둬오도 못허거든. 허면은 여러 번 둘러 와야 뒈고 허는 거주게."[306]

(쉐 열 마리 키우려고 하면 꼴가리를 한 세 개, 네 개까지 가려야 그 정도 되면은 저 한 해 겨울 넘기지. 아무래도 싣기도 한 나흘은 실어야 하니까 이거 뭐. 한 수레에 열 바리씩 실어도 몇 개 될 거야. 한 바리가 서른 단. 한 사람이 하루 열 바리씩 꼴 베어. 묶기는 두 사람이 한 거 묶지, 보통. 그런데 잘 묶는 사람은 세 사람이 한 거까지 묶는데 보통 두 사람이 한 거. 한 쪽에 저 다섯 번씩 열 번. 그렇게 안 하면 여덟 번. 팔에 힘 좋고 낫 좋은 걸로 베면 네 번 해도 단이 크고 낫이 궂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거둬오지도 못하거든. 하면 여러 번 둘러 와야 되고 하는 거지.)

수산1리 고춘권 씨에 따르면, 소 열 마리를 키우려고 하면 '촐눌(꼴가리)'를 서너 개는 갖춰야 겨울나기를 할 수 있단다. 그러려면 달구지로 꼴을 나흘을 실어야 한다고 한다. 이때의 단은 '낫'으로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벤 것을 모아놓은 크기인데, 꼴을 벨 때는 한 사람이 하루에 열 바리씩 벤다고 한다. 묶는 것은 한 명이 두세 명이 벤 것을 소화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 꼴은 낫으로도 베고 '호미'로도 베기 때문에 단의 크기는 다르다. 따라서 소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짐의 크기인 바리도 수산에서는 서른 단이 한 바리이고, '호미'로 꼴을 베는 한경면 지역에서는 마흔 뭇이 한 바리로 차이가 난다.

"여기 수산 지경에서 나는 촐은 젤 품질이 좋은 것이 진항이라고 헤 가지고. 대도 영 노프게 올라가고 거기 씨도 심거치 생긴 촐ᄀᆞ라 이디선 진항이엔 허는디 그것이 젤 최고주. 겐디 그자 새 ᄀᆞ튼 거 잡초, 거 잡초난게. 주로 그 촐이고 그 웨로는 저 조찝도 소가 잘 먹고 콩찝 그것도 잘 먹는 거고. 이 볏집 ᄀᆞ튼 것은 것도, 나룩찝은 남뎅이가 이파리가 푸린 때 허니까 소 양식이 뒈는데 산디는 이파리가 헤영케 반 후제 거 거둡게 뒈는 거라부니까 거 소가 잘 먹어. 먹기는 허는데 질겨 가지고 소가 이빨 무낀다고 헤 가지고 주젠도 안허고 먹도 안허고."[307]

30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307)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여기 수산 지경에서 나는 것은 젤 품질이 좋은 것이 '진항'이라고 해 가지고. 대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거기 씨도 심같이 생긴 꼴보고 여기선 '진항'이라고 그것이 젤 최고지. 그런데 그저 띠 같은 거 잡초, 거 잡초니까. 주로 그 꼴이고 그 외로는 저 조짚도 소가 잘 먹고 콩짚도 그것도 잘 먹는 거고. 이 볏짚 같은 것은 것도, 볏짚은 대가 잎이 푸른 때 하니까 소 양식이 되는데 밭벼는 잎이 하얗게 바랜 후에 거 거두게 되는 거여서 거 소가 잘 먹어. 먹기는 하는데 질겨 가지고 소가 이빨 무딘다고 해 가지고 주려고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수산1리에서 소 먹이로 가장 좋은 꼴은 '진항'이라는 풀이다. 구술 내용의 '대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씨도 심같이 생긴 꼴'이라는 구술로 보면, 한경면 지역에서 '소세'라고 부르는 꼴 이름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 외에 '띠' 등 잡풀도 꼴로 사용했고, 조짚과 콩짚 볏짚 등도 소 먹이로 이용하였다. 볏짚은 소가 잘 먹지만 밭볏짚은 질겨서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콩은 혼 바리 허면은 큰 소, 큰 소는 혼 쪽에 석 단썩 양쪽에 허면 욧단은 시껑 그거 혼 바리로, 혼 바리로 허고 또 족은 소는 또 혼 쪽에 두 단썩 넉 단베끼 못 시꺼. 보통 욧 단을 혼 바리로 헷주게. 조도 혼 단씩베낀 못 시끄니까 욧 단. 큰 쉐, 이 저 큰 소는 오덥 단꺼지도 시끄는데 경 뭐 헐 수가 엇주게. 조는 남뎅이가 길어 놓니까 무겁주게. 무거와 놓니까. 산디도 마찬가지. 새는 그게, 그건 여라 단 시끄주. 여라 단 시끄는데 건 이 저 스무 단. 그 모멀도 그자 욧 단 정도는 시끄주게. 모멀 완전히 물류왕 것도 시꺼오는 거난게."[308]
(콩은 한 바리 하면 큰 소, 큰 소는 한 쪽에 석 단씩 양쪽에 하면 여섯 단은 실어서 그거 한 바리로, 한 바리로 하고 또 작은 소는 또 한 쪽에 두 단씩 네 단밖에 못 실어. 보통 여섯 단을 한 바리로 했지. 조도 마찬가지. 조도 한 단씩밖에 못 실으니까 여섯 단. 큰 소, 이 저 큰 소는 여덟 단까지도 싣는데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지. 조는 대가 기니까 무겁지. 무거우니까. 밭벼도 마찬가지. 띠는 그게, 그건 여러 단 싣지. 여러 단 싣는데 건 이 저 스무 단. 그 메밀도 그저 여섯 단 정도는 싣지. 메밀 완전히 말려서 것도 실어오는 거니까.)

마차가 나오기 전에는 꼴 운반은 소나 말의 등짐을 이용했다. 소나 말이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짐의 분량은 바리라고 한다. 앞의 자료에서 살필 수 있듯이 수산1리에

308)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서 꼴은 서른 단이 한 바리다. 반면에 콩짚과 조·밭벼·메밀은 여섯 단이 한 바리다. 지붕을 이는 '새(띠)'는 스무 단을 한 바리로 쳤다.

"촐은 물이 하영 먹주, 물이. 물은 입 놀지 안허영 먹는 거주. 원 이 입을 ᄀᆞ만히 놀지 안허주. 소는이 먹어지민 그자 눕는디 물은 눕질 안허여."[309]
(말이 많이 먹지, 말이. 말은 입 놀지 않고 먹는 거지. 원 이 입을 가만히 놀지 않지. 소는 먹으면 그저 눕는데 말은 눕질 않아.)

'꼴'은 소보다 말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한다. 제보자 고춘권 씨에 따르면 "물은 입 놀지 않고 먹는데 소는 먹어지면 눕는" 성질이 있다고 한다.

### (1) 낫

'낫'은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낫'은 날이 길고 손잡이가 길어서 서서 두 손으로 꼴 따위를 후려서 벤다. '호미'는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낫'이 선 채 후려서 꼴을 벤다면 '호미'는 앉아서 '호미'를 잡지 않은 손이 벨 물건을 잡고 '호미' 잡은 손을 이용하여 벤다.

"이건 제주도 낫이주, 제주도 낫. 촐 비는 낫이고. 육지는 제주도 호미ᄀᆞ라 낫이엔 허는데 여기는 그것ᄀᆞ라는 호미고 이건 낫."[310]
(이건 제주도 낫이지, 제주도 낫. 꼴 베는 낫이고. 육지는 제주도 '호미'보고 낫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것보고는 '호미'고 이건 낫.)

〈사진 11〉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꼴 벨 때 사용했던 '낫'과 '낫집'이다. '낫집'은 날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다. 고 씨는 비료 부대를 이


〈사진 11〉 고춘권 씨 소장 '낫'과 '낫집'

309)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310)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용하여 '낫집'을 만들었다. 〈사진 12〉는 난산리 김두추 씨(1943년생) 집에서 꼴 벨 때 사용했던 '낫'이다.


〈사진 12〉 김두추 씨 소장 '낫'

"이건 낫. 저 육지서 낫이라고 허는 것은 이디서 호미라고 허고. 육지서 호미라고 허는 건 이디서 골각지엔 허고. 이건 여기서 낫이엔 허고."[311]
(이건 낫. 저 육지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호미'라고 하고. 육지서 '호미'라고 하는 건 여기서 '골각지'라고 하고. 이건 여기서 '낫'이라고 하고.)

위의 김 씨와 고 씨의 구술을 보면, 육지에서 '낫'이라고 불리는 걸 제주에서는 '호미'라고 하고, '호미'라고 하는 것을 '골각지'라고 하여 육지와 제주의 낫이 다름을 확인해준다. '낫'은 날과 손잡이가 길게 만들어져 서서 꼴 따위를 벨 때 이용하는 도구이고, '호미'는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골각지'는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 성산읍 지역 말이다.

"촐 비는 낫, 벌초허고. 여저도 허지만 남자가 주로 허주게. 여저는 무끄고. 지금도 저 벌초 허레 가졍 간다고."[312]
(꼴 베는 낫, 벌초하고. 여자도 하지만 남자가 주로 하지. 여자는 묶고. 지금도 저 벌초 하러 가져서 간다고.)

〈사진 13〉은 수산2리 고영자 씨(193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낫이다. 이 낫을 이용하여 고 씨


〈사진 13〉 고영자 씨 소장 '낫'과 '낫집'

311)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312) 수산2리 고영자 씨 구술.

집에서는 예전에 꼴을 베었다. 고 씨는 꼴을 베는 일은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꼴 묶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요즘은 꼴을 벨 때 '낫'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벌초할 때 갖고 다닌다. 창고 벽면을 이용하여 '낫집'에 끼운 낫들을 걸어서 보관해 놓고 있었다.

"낫은 영 영 헹 옛날에 촐 비는 거. 밧디서 톡 비엉 무끄는 거."[313]
(낫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 꼴 베는 거. 밭에서 톡 베어서 묶는 거.)

"옛날 촐 빌 때 헤난 거마씨. 저 친구네 집이 강, 게도 돈 멧 만 원 줭 가져완. 저 밑에 동네 수산1리. 한 서넉 둘 뒀어."[314]
(옛날 꼴 벨 때 했던 거예요. 저 친구네 집에 가서, 그래도 돈 몇 만 원 줘서 가져왔어. 저 밑에 동네 수산1리. 한 서너 달 됐어.)

〈사진 14〉는 수산1리 정복희 씨(1929년생) 집에서 꼴 벨 때 사용했던 낫이다. '낫집'에 보관해 놓고 있다. 〈사진 15〉는 수산2리 고대인 씨(1956년생)가 친구한테 구입해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예전에 꼴 벨 때


〈사진 14〉 정복희 씨 소장 '낫'과 '낫집'


〈사진 15〉 고대인 씨 소장 '낫'


〈사진 16〉 현용언 씨 소장 '낫'

313) 수산1리 정복희 씨 구술.
314) 수산2리 고대인 씨 구술.

사용했던 낫이다. 〈사진 16〉은 신천리 현용언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낫'과 '낫집'이다. 이 낫을 이용하여 예전에는 꼴을 베었는데 요즘은 벌초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닌다. 낫 하나는 자루가 잘린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 (2) 신돌

'신돌'은 표준어 '숫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낫'이나 칼 등을 벼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신돌'은 꼴을 베는 낫이나 보리 따위를 베는 '호미'를 갈 때 사용하였다. 난산리와 수산리에서는 '씰돌', 신산리에서는 '신돌'이라고 하였다. 같은 성산읍 안에서도 발음이 달랐다.

〈사진 17〉은 신산리 고충삼 씨(194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신돌'이고, 〈사진 18〉은 수산2리 오남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씰돌'이다. 오 씨는 '신돌' 대신에 '씰돌'이라고 발



〈사진 17〉 고충삼 씨 소장 '신돌'



〈사진 18〉 오남종 씨 소장 '씰돌'



〈사진 19〉 현문자 씨 소장 '신돌'



〈사진 20〉 강태웅 씨 소장 '신돌'

음하였다. 〈사진 19〉는 온평리 현문자 씨(1939년생) 집 욕실에 보관하고 있는 '신돌이다.' 〈사진 20〉는 난산리 강태웅 씨(1950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신돌'이다.

〈사진 21〉은 수산2리 고대인 씨가 '씰돌'에 '호미'를 가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21〉 '씰돌'에 호미 가는 모습을 시연하는 고대인 씨

## 6.3. 백중제

'백중제'는 소 주인이 음력 칠월 열나흘 백중에 목장에 가서 '테우리신'에게 목축 번성을 기원하면 지내는 제다.

"백중이 저 소나 말 길루는 사름은 으레 꼭 헷저. 그 테우리 나시 정성허는 거주게. 웨 테우리 나시 정성허느냐 허면은 이 들에 놩 내분 때에 뎅기당 어디 저 상험도 허고 딴 지경에 가 붐도 허고 병도 들고 허는 거 우리 인력으로 못 허는 거 당신이 헤 주시오, 헤 가지고 그 테우리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주게. 경허면은 백중날은 제물 ᄎᆞ령 거려 놩 고헤야 뒈는 거. 조상 나시 고허는 건 그 축을 썽 허지만 그 입담으로. 테우리는이 저 혼 계단 밑에로 이 보는 거거든. 게난 예 쓰도 안 헤영 허라 말라 허주게. 입담을 허는 거야. 아, 오널은 백중. 이 당에서이 저 테우리덜이 제물, 제물을 만이 이제 그 출련 다 거려 놧으니까 각 지경 테우리덜은 어느 지경으로. 게난이 저 보통 에움에서 허던지 경 안 허면은 그 지역, 우리가 어디서 허자고 헤 가지고 우리 그 에움에 강 허는 수도 잇고.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에서 허자고 헤 가지고 그냥 허는 수가 잇주게. 게난 어느 도량으로 오라. 제물을 다 테우리를 위해서 출려다 놧으니까 다 일로 오라. 이 저 혼 사름도 남음엇이 서로 부르며 우기며 우테우리 우에 앚고 하테우리 아래 앚앙 서로 ᄃᆞ투지 말앙 사이좋게시리 그 받으라 헤가지고 헤서. 우리 힘으로 다 못 허니까 테우리덜이 잘 신경 써끈에 헤도렌 곧주게."[315]

31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백중이 저 소나 말 기르는 사람은 으레 꼭 했어. 그 '테우리' 몫 정성하는 거지. 왜 '테우리' 몫 정성하느냐 하면 이 들에 놔서 내버린 때에, 다니다가 어디 저 상하기도 하고 딴 지경에 가 버리기도 하고 병도 들고 하는 거 우리 인력으로 못 하는 거 당신이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 '테우리'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지. 그러면 백중날은 제물 차려서 떠 놔서 고해야 되는 거. 조상 몫 고하는 건 그 축을 써서 하지만 그 입담으로. '테우리'는 저 한 계단 밑에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쓰지도 안 해서 해라 말라 하지. 입담을 하는 거야. 아, 오늘은 백중. 이 당에서 저 '테우리'들이 제물, 제물을 많이 이제 그 차려서 다 떠 놨으니까 각 지경 '테우리'들은 어느 지경으로. 그러니까 저 보통 '에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우리가 어디서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그 '에움'에 가서 하는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그냥 하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느 도량으로 와라. 제물을 다 '테우리' 위해서 차려다 놨으니까 다 이리고 와라. 이 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서로 부르며 우기며 '우테우리' 위에 앉고 '하테우리' 아래 앉아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끔 그 받아라 해 가지고 해서. 우리 힘으로 다 못 하니까 '테우리'들이 잘 신경 써서 해달라고 말하지.)

'백중제'의 제물로는 주로 '돌레떡'을 준비한다. 말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ᄆᆞ물돌레떡'도 해가고, 시루떡도 해가고, 닭도 잡아서 '테우리신'에게 올린다. 말 주인들은 '테우리신'은 사람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본다. 그러니 백중제를 할 때도 '테우리신'을 반말로 불러내 "제물을 다 '테우리' 위해서 차려 놨으니 다 이리로 와라. '우테우리'는 위에 앉고 '하테우리'는 아래 앉아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받아라. 우리 힘으로 다 못 하니까 테우리들이 다 신경 써서 해달라."처럼 말명을 한다. '백중제'는 보통 소나 말을 풀어놓는 '에움'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지역을 정해서 지내기도 한다. 이때 '에움'은 소나 말을 가두는 공간을 말한다.

"오메기떡은 방돈헐 때에 ᄆᆞ쉬 들에 놧단 집에 들여올 때에 건 허는 거고. 게고 그 가을 들엉 농사 다 거둬들일 때 낭 쉐덜 그 들여오젠 허면은 이 저 방돈제, 귀표제. 건 뭐냐 허면 낙인을 줘야 허거든. 그해 난 송아지나 망아지 이제 그 표시를 헤야 뒈는 거라. 뒷해 봄 나면은 방돈헹 들여놩 내불어야. 표시를 안 허면은 커 불면은 이녁 거 구분을 못 허여. 젓 먹을 때에는 그해 나는 해에는 에미와 ᄀᆞ찌 다니니까 알아지는데 젓 떼영 이녁만썩 뎅기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털 갈아 불거든. 두 설 때 나면은 털을 완전히 갈아 불

어. 그 색깔도 나는 해보단 딴 색으로 변헤 불어. 게니까 이제 낙인을 허고 낙인은 그 그 지역에 테우리덜, 쉐덜 하영 허는 사름은 낙인이 다 잇어. 획 좋은 걸로 한글로도 허는 수가 잇고 한자로 허는 수가 잇고. 뭐 으뜸 원 자라던지 그런 거 헤 가지고. 낙인을 멘들앙 것도 행정에 등록을 헤. 게난 그 신고를 헤근에 허지 안허민 그것이 딴 지역에 가 가지고 딴 사름이 뭐 헤근에 허면은 거 우리 거라고 허면은 이거 웨 낙인이 잇는데 허면은 우리도 그 낙인이라고 우길 수가 잇거든. 그 인감, 인감 신고허잖아. 인감 신고허는 식으로 이것도 인감이니까. 등록을 딱 헤 놓면은 저 똑같게시리 멘들 수는 엇는 거거든. 그 도장을. 그런 식으로 헤 가지고 헐 때에는 이제 그 귀표라고 헤 가지고 낙인도 찍고 귀에 표시허는 거라. 귀도 이제 째어 가지고 끄타리 째어. 또 코, 말은 코도 혼 그믓 허는 사름이 잇고 두 그믓 허는 사름이 잇고 헤 가지고. 낙인이 또 털 갈고 뭐 헤 가민 희미허게. 찍을 때 잘 찍지 안허면은 커 가면은 그것이 희미허게 뒈 가는 수가 잇주. 경허난 귀표 허고 코표 허면 이건 뭐. 그거 허젠 허면은 그때도 경 제물 출령 가근에 테우리 불렁 대접을 허는 거라. 허면 봄 나면은 또 방목을 헤야 뒈니까 그자 봄 나민 방목헐 거니까 잘 봐 달라 헤 가지고.”[316]

(‘오메기떡’은 ‘방돈’할 때에 마소 들에 놨다가 집에 들여올 때 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을 들어서 농사 다 거둬들일 때 돼서 소들 그 들여오려고 하면 이 저 ‘방돈제’, ‘귀표제’. 건 뭐냐 하면 낙인을 줘야 하거든. 그 해 난 송아지나 망아지 이제 그 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뒷해 봄 되면은 방돈해서 들여 놔서 내버려야. 표시를 안 하면 커 버리면 이녁 거 구분을 못 해. 젖 먹을 때에는 그해 나는 해에는 어미와 같이 다니니까 알 수 있는데 젖 떼어서 자기만큼 다니면 어느 게 어느 건지, 털 갈아 버리거든. 두 살 때 되면 털을 완전히 갈아 버려. 그 색깔도 나는 해보단 딴 색으로 변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낙인을 하고 낙인은 그 그 지역에 ‘테우리’들, 소들 많이 하는 사람은 낙인이 다 있어. 획 좋은 걸로 한글로도 하는 수가 있고 한자로 하는 수가 있고. 뭐 으뜸 원 자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낙인을 만들어서 것도 행정에 등록을 해.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딴 지역에 가 가지고 딴 사람이 뭐 해서 하면 거 우리 거라고 하면 이거 왜 낙인이 있는데 하면 우리도 그 낙인이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 그 인감, 인감 신고하잖아. 인감 신고하는 식으로 이것도 인감이니까. 등록을 딱 해 놓으면은 저 똑같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도장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이제 그 귀표라고 해 가지고 낙인도 찍고 귀에 표시하는 거야. 귀도 이제 째어 가지고 끝을 째. 또 코, 말은 코도 한 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금 하는 사람이 있고 해 가지고. 낙인이 또 털 갈고 뭐 해 가면 희미하게.

316)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찍을 때 잘 찍지 않으면 커 가면 그것이 희미하게 돼 가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귀표하고 '코표' 하면 이건 뭐. 그거 하려고 하면 그때도 그렇게 제물 차려서 가서 '테우리' 불러서 대접을 하는 거야. 하면 봄 되면은 또 방목을 해야 되니까 그저 봄 되면 방목할 거니까 잘 봐 달라 해 가지고.)

'방돈제'는 소나 말을 목장에 풀어 놨다가 집으로 들여올 때 하는 제다. 이 때는 '오메기떡'을 제물로 해 간다. 목장에 풀어놨다가 겨울철에 소나 말을 집으로 몰고 올 때는 목장에서 난 소나 말의 새끼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귀표도 하고 낙인도 하였다. 귀표와 낙인을 하면 마소의 임자가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귀표를 할 때도 '테우리신'을 불러서 대접을 하였다. 이들 귀표를 한 소나 말은 봄이 되면 다시 방목할 것이매, 그때도 잘 봐달라면서 '귀표제'를 지낸 것이다.

## 6.4. 기타 도구

### (1) 질메

'질메'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기구다. 소 등에 얹는 것은 '쉐질메', 말 등에 얹는 것은 '물질메'라고 한다.

"질메도 이 밧갈쉐엔 헤근에이 수소 큰 거 제라허게 큰 소가 잇주게. 그것에 지우는 건 크게 멘들고, 또 족은 소덜은 거 시끄는 것도 조금베끼 못 시끄니까 질메도 족게 허고, 경허는 거주."[317]

(길마도 이 '밧갈쉐'라고 해서 수소 큰 거 제대로 큰 소가 있지. 그것에 지우는 건 크게 만들고, 또 작은 소들은 거 싣는 것도 조금밖에 못 실으니까 길마도 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진 22〉 이영생 씨 소장 '등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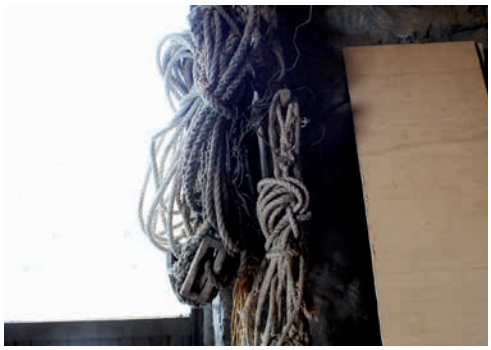
317)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사진 22〉는 이영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말이나 소 등에 얹는 '질메' 밑의 '등테'다.

(2) 베

'베'는 칡이나 삼 따위로 길게 드린 줄을 말한다. 표준어 '참바'에 대응하는 말이다. 긴 줄이라고 해서 '대페'라고도 한다. '대페'는 '대(大)+ㅎ+베' 구성으로, 긴 참바를 말한다. 소꼴을 운반할 때 마차나 트랙터 따위에 실은 짐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묶는 용도로 사용했던 바다.

"트럭타에 짐 시끌 때 촐짐 그런 거 시끌 때 베 헹 무꺼야. 무꺼야 운반을 헤 오거든."[318]
(트랙터에 짐 실을 때 꼴짐 그런 거 실을 때 바 해서 묶어야. 묶어야 운반을 해 오거든.)


〈사진 23〉 고충삼 씨 소장 '대페'


〈사진 24〉 고충삼 씨 소장 '대페'

〈사진 23〉과 〈사진 24〉는 신산리 고충삼 씨가 소를 키울 때 꼴을 실어 나를 때 이용했던 '대페'다. 바를 조일 수 있도록 달린 도르래는 '용도'라고 한다.

"용돗베, 용도 그거게. 옛날 촐, 마차 몰 헤여근에 촐 시꺼올 때 그 베 제웁는 거, 그거 다 멘들아근에 그 용도 거튼 건 사단 허고 베 거튼 거 사다근에 다 허고. 꼬앙 드려근에 멘들고."[319]
('용도베', 용도 그거. 옛날 꼴, 마차 말 해서 꼴 실어올 때 그 바 재우는 거, 그거 다 만

318) 온평리 현문자 씨 구술.
319)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들어서 그 용도 같은 건 사다가 하고 바 같은 거 사다가 다 하고. 꼬아서 드려서 만들고.)

고 씨는 '대페'를 용도가 달려 있다고 해서 '용돗베'라고도 하였다. '용돗베'는 용도가 달려 있는 바다. 용도는 '베'를 짐에 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르래'로, 용도는 사오고, 바는 직접 드려서 '용돗베'를 만들었다고 한다.

"쒜고리. 무시거 걸릴 때. 뭐 걸령 둥길 때 이거 톡 걸려근에."[320]
(쇠고리. 무엇 걸릴 때. 뭐 걸려서 당길 때 이거 톡 걸려서.)

"대페 옛날 쉐 키울 때 촐 시꺼난 거."[321]
('대페' 옛날 소 키울 때 꼴 실었던 거.)

온평리 현문자 씨도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차를 이용하여 꼴짐을 실어 나를 때 꼴짐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베'로 동여맸었다고 한다. '꼴'은 겨울철 소의 양식으로, 농촌 지역에서 꼴을 베서 집으로 실어오는 일은 가을철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사진 25〉는 난산리 김두추 씨 집에서 사용했던 '베'다. 꼴 따위를 마차에 실어올 때 '베'를 이용하여 짐을 꾸렸다. 다른 참바와 연결할


〈사진 25〉 김두추 씨 소장 '베'와 '고리'


〈사진 26〉 고덕후 씨 소장 '베'

320) 난산리 김두추 씨 구술.
321) 신산리 고충삼 씨 구술.

수 있게끔 끝에 철사로 된 고리가 달려 있다. 〈사진 26〉은 수산1리 고덕후 씨 집 창고에 걸려있는 '베'다.

### (3) 작두

작두는 마소의 먹이인 꼴을 잘게 썰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사진 27〉 고춘권 씨 소장 '작두'

"작두 건 이제사 나온 거고. 저거 나무 썰 거. 이디 황칠나무가 잇어. 황칠나무 닭 잡앙 먹을 때 닭에도 딸령 먹고. 딸령 물도 먹고 허젠 허민 잘라야 뒈니까. 물 딸려근에 차로도 먹곡."[322]

(작두 건 이제야 나온 거고. 저거 나무 썰 거. 여기 황칠나무가 있어. 황칠나무 닭 잡아서 먹을 때 닭에도 달여서 먹고. 달여서 물도 먹고 하려고 하면 잘라야 되니까. 물 달여서 차로도 먹고.)

〈사진 27〉은 수산1리 고춘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작두'다. 이 작두는 꼴을 써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약재로 이용하는 황칠나무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약작두다. 고 씨는 황칠나무를 차로도 달여 먹고 닭백숙을 할 때 넣기도 한다고 하였다.

### (4) 우장

'우장'은 띠나 짚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이다. 제주에서는 주로 '새'라 불리는 띠를 이용하여 만든다. 표준어 '도롱이'에 해당한다. 한경면 지역에서는 'ᄎᆞ궹이'라고 한다. 이 '우장'은 비올 때 비옷으로 입지만, 특히 소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다. 또 농촌 지역에서 밭을 거름지게 하기 위하여 밭에 소나 말을 들여 똥오줌을 싸게 하는 '바령'을 들일 때 밤에 우장을 갖고가서 쓰기도 하고 덮기도 했다고 한다.

322)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옛날에 비료 엇은 때라 놓니까 여름에 낮이 소 멕영 밤에이 저 밧디 가두거든. 가두왕 똥도 싸게시리 허고 오줌도 싸게시리 허영 걸 걸름으로 이용헐라고. 겐 거 바령을 허는 거주. 겐 밤에는 거기 강 줌자멍 직허고. 거 그대로 내불면은 옆에 다 곡석밧이니까. 여름에 허는 거난 우장이엔 헌 거 잇잖아. 비 올 때 쓰는 거이. 게난 그 바령 직험이엔 허주, 바령 직험. 바령 직허레 갈 때 그 우장 아졍 가근에 우장 꼴앙, 혼 짝 꼴고 혼 짝 더끄면은 뭐 알로 습기도 아니 차고 춥도 안허고 이슬도 안 맞고. 그 바령 직헐 때 그 우장을 가졍가. 또 직허단 그 비 오민 그 씀도 허고. 그 우장이 용처가 으라 가지주."[323]

(옛날에 비료 없는 때여 놓으니까 여름에 낮에 소 먹여서 밤에 저 밭에 가두거든. 가두어서 똥도 싸게끔 하고 오줌도 싸게끔 해서 걸 거름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거 '바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밤에는 거기 가서 잠자면서 지키고. 거 그대로 내버리면 옆에 다 곡식밭이니까. 여름에 하는 거니까 도롱이라고 한 거 있잖아. 비 올 때 쓰는 거. 그러니까 그 '바령' 지킴이라고 하지, '바령' 지키기. '바령' 지키러 갈 때 그 도롱이 가지고 가서 도롱이 깔아서, 한 쪽 깔고 한 쪽 덮으면 뭐 아래로 습기도 안 차고 춥지도 않고 이슬도 안 맞고. 그 '바령' 지킬 때 그 도롱이를 가져가. 또 지키다가 그 비 오면 그 쓰기도 하고. 그 도롱이가 용처가 여러 가지지.)

수산1리 고춘권 씨는 밤에 '바령' 들이는 밭에 소를 지키러 갈 때 비옷인 '우장'을 들고 가서 쓰기도 하고 이불 대신에 덮어서 자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이슬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 (5) 신사라

'신사라'는 섬유질이 질겨서 바를 드리거나 신을 삼는 데 요긴하게 이용했던 식물이다. 울안에 심어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신사라'는 '신서란', 즉 뉴질랜드 삼에 해당하는 성산읍 지역의 말로, '신사락'이라고도 하였다.

"신사라 저것은 소나 말 기르젠 허면은 베, 베 꼬아근에 드리는 거주. 그 뒤에 가근에 끅도 걷어당 허고. 끅도 허곡. 저거 저것이 좋아. 게난 집집마다 울안에 저거 심엇주게. 저것은 어찌헤 가지고 저거 그냥 잇느냐 허면 우리가 저 어떵헹 문화재청에서 그 저 문화재로 찝신을 삼앗어. 찝신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육지꺼지 가왓는데 찝신 삼으레. 그때에 저걸, 첨 이딘 완전히 저것이 엇어져불엇주. 엇어져불엇는데 저거 어디 가서 저 대천동

323)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그딜 가서 저걸 구헤 와진 거 같아. 겐 구헤단 그때 신 삼으멍 뭐 헤낫는데. (옛날에는) 미로 헷주. 미허고 칙. 칙으로 대부분 칙으로 하영 헷주."[324]

(신사라 저것은 소나 말 기르려고 하면 바, 바 꼬아서 드리는 거지. 그 뒤에 가서 칡도 걷어다가 하고. 칡도 하고. 저거 저것이 좋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울안에 저거 심었지. 저것은 어찌해 가지고 저거 그냥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저 어떡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저 문화재로 짚신을 삼았어. 짚신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육지까지 다녀왔는데 짚신 삼으러. 그때에 저걸, 참 여긴 완전히 저것이 없어져버렸지. 없어져버렸는데 저거 어디 가서 저 대천동 거기 가서 저걸 구해 와진 거 같아. 그래서 구해다가 그때 신 삼으면서 뭐 했었는데. (옛날에는) '미'로 했주. '미'하고 칡. 칡으로 대부분 칡으로 많이 했지.)

수산1리 고춘권 씨의 구술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울안에 '신사라'를 심어서 바를 드리거나 짚신 따위를 삼았다. 짚신을 삼을 때는 억새의 꽃 이삭을 싸고 있는 속껍질인 '미'와 칡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신서란'은 아이들의 팽이채를 만들 때도 이용하였다.

"벤 그 찝 산듸찝, 찝으로 그냥 대중 헷주. 찝으로 허고 이 중간엔 그 신사락이엔 헌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뒐 수 잇으면 거 질기게 혼 번 허면은 오래 써야 뒈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혼엇이 벨다른 재료가 엇엇어. 젤 손쉽게 허는 건 기자 찝으로 술지게 훍게 꼬아근에 헷주."[325]

(참반 그 짚 밭볏짚, 짚으로 그냥 대중 했지. 짚으로 하고 이 중간엔 그 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될 수 있으면 거 길게 한 번 하면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한없이 별다른 재료가 없었어. 젤 손쉽게 하는 건 그저 짚으로 살지게 굵게 꼬아서 했지.)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바'는 '산듸찝'으로 꼬아서 드리기도 하였다. 수산1리 고춘권 씨는 '신사라', 수산2리 오남종 씨는 '신사락'이라고 발음하였다.



324)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325) 수산1리 고춘권 씨 구술.


1


2


3


4

1. 신천리 박순자 씨 소장 '방에혹'
2. 수산2리 강옥화 씨 소장 '애기구덕'
3. 신천리 현용언 씨 소장 '낫'
4. 신천리 오영지 씨 소장 '솔레기 주낙'과 '주낙줄'

Ⅲ

# 마무리



신천리 현용언 씨 소장 항아리

# Ⅲ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성산읍 편』은 제주시 남동부 지역인 성산읍 지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도구와 기물 등을 현지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성산읍 14개 행정 마을 가운데 수산1리, 수산2리, 난산리, 온평리, 신산리, 신천리 등 6개 마을에서 37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해당 조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토박이 제보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명칭과 쓰임 등을 조사·채록하고, 채록한 자료를 전사한 후 사진 자료와 비교하면서 도구의 특징들을 꼼꼼히 설명하였다. 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Ⅰ장 조사 개요, Ⅱ장 조사 내용, Ⅲ장 마무리로 구성되었다. 부록으로 '수산1리 고춘권 씨의 도구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구술 채록한 후에 전사하여 표준어 대역 자료와 함께 실어 성산읍 지역의 도구 관련 자료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은 수산1리 고춘권 씨(1933년생)가 해주었다. 부인 김병생 씨도 도움을 주었다. 구술 채록을 위한 질문은 연구원으로 참여한 김순자가 맡았고, 전사는 김보향이 하였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6-성산읍 편』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조사 범위, 제보자, 조사 방법과 정리 방법, 조

사 지역인 성산읍과 6개 조사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조사 지역인 수산1리·수산2리·난산리는 감귤 농사 등 농업을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수산1리와 수산2리는 예전부터 목축을 많이 했던 지역으로 축산 관련 자료를 많이 조사할 수 있었다. 온평리·신산리· 신천리는 어업을 하는 반농반어의 농어촌마을이다. 따라서 축산 관련은 수산1리에서 주로 조사되었고, 어로 관련은 신천리에서 조사하였다.

Ⅲ장 조사 내용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 관련 등 6개 범주로 나누어 도구에 대한 설명과 특징, 구술 자료 등을 세밀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Ⅲ장은 마무리 부분으로, 조사 내용 가운데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Ⅱ장 조사 내용의 큰 특징을 간략하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분야에서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옷감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바느질 도구로는 재봉틀에 대해서 조사 보고하였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재봉틀을 발재봉틀과 손재봉틀로 나눠 발재봉틀을 '발틀', 손재봉틀을 '손틀'이라고 하였다. 이들 재봉틀을 '미승'이라고 일본어로 줄여 부르기도 하였다. '발틀'을 사용할 때는 나무로 사다리꼴 모양의 '미승 의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부속 도구로는 재봉기름과 기름을 칠하는 '폼푸', 북실, 반짇고리, '쏨지', '바농절레(바늘겨레), 재봉실 등이 조사되되었다. 온평리에서는 시할머니가 쓰던 청자 단지를 반짇고리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손질 도구로는 '나무 안반'과 시멘트로 만든 안반이 조사되었다. '나무 안반'인 경우는 쓰임이 없자 잔치 등 큰일 때 고기를 써는 도마로 그 역할이 바뀌어 있었다.

세탁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은 'ᄀᆞ레(맷돌)'를 이용하여 빨랫돌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물마께'(빨랫방망이)도 조사되었다. 의복으로는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 마고자, 조끼, '두루막'과 '후루메'가 조사되었다. 두루마기는 홑두루마기를 가리키고, '후루메'는 겹두루마기를 칭하는 말이다. '베도복(도포)'과 '모시두루마기'도 조사되었다.

특히 의생활 관련해서는 1950년대 옛 사진과 1980년대 갈중의 적삼을 입은 사진도 함께 조사되어 예전의 의생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입자를 쓴 관련 사진

이 조사되었고, 대패랭이도 조사되었다.

둘째, 식생활 분야에서는 그릇과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를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그릇의 경우는 사기 밥사발과 국사발, 종제기와 접시류 등이 조사되었다.

항아리류도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성산읍 지역은 항아리 산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육짓항'이 많았다. 제주 대정 지역에서 생산된 항은 따로 '대정항'이라고 하여 품질이 좋은 항아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조사지역인 안덕면에서는 허벅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성산 지역에서는 허벅이 거의 조사 되지 않았다. 이는 이 지역에서는 '춤'을 이용하여 빗물을 모아서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산리 지역에서는 뒤뜰에 오래된 동백나무가 많았는데, 이들 동백나무는 예전에 '춤물'을 받을 때 사용하는 '춤'을 맸던 나무다. '춤'은 '새'(띠)로 머리 땋듯이 땋아서 나무에 둘러 빗물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식생활 도구 가운데는 '구덕'과 '차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리가 예전부터 대오리를 이용한 수공예가 발달한 지역인 이유도 있었다. 제보자 가운데 고춘권 씨 가족은 예전에 대오리를 이용하여 직접 '구덕'과 '차롱'을 결어서 다른 지역으로 팔러 다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 씨 집에서는 '구덕'과 '차롱' 외에도, '던드렁마께', '도께'와 같이 고 씨가 직접 제작해 쓰는 도구들이 많았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차롱'을 '차반지' 또는 '고령'이라고 하고, 차반지도 쓰임에 따라 '밥차반지', '떡차반지'처럼 구분해 쓰고 있었다. 특히 당에 다닐 때 사용하는 '고대구덕'은 별도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

조리도구인 솥은 크기에 따라서 '머력솟-말치솟-동솟'처럼 구분하고 있었다. 집안에 큰일이 났을 때 친족들이 돌려 썼던 '가메'(가마)도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사 때 많이 사용했던 '옹기시루'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밖에 제사 때 사용하는 놋으로 만든 '젯숟가락', 동백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지름틀', 나무로 만든 '남박자', 땅에 묻어서 김칫독으로 사용했던 항아리, 돌로 된 상합 등이 조사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셋째, 주생활 분야에서는 집 구조, 가재도구, 난방도구, 연장류, 집 관련 부속물과 도구, 기타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집 구조물 가운데 특이한 점은 성산읍 지역에서 새롭게 조사된 '공싯간'이다. '공싯간'은 곁채에 딸린 부엌을 일컫는 말이다. 이 곁채를

성산읍 지역에서는 '밧집'이라고 하였다. '공싯간'에는 솥을 거는 봇돌을 만드는데, 봇돌 뒤 벽에 구멍을 뚫어서 재를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불껑고냥'을 만들었다. '불껑고냥'에서 나오는 재를 모아두는 공간을 '불껑통'이라고 하였다. '공싯간'에는 곡식을 저장했던 항아리를 보관하는 '고방'도 있어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해 놓았다.

'공싯간'의 '불껑고냥', 다양한 문, 널마루, 시렁과 장방 등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바람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당'(함석)을 이용하여 창고문을 만들어 달았고, 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장치로 돌을 이용하는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가재도구로는 궤와 찬장이 조사되었다. 난방도구인 화로가 조사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고무래를 '군데'라고 하여, '굴묵'을 때는 고무래를 '굴묵군데'라고 하였다. '굴묵군데'는 재목이 단단한 가시나무로 만든 마룻널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연장류의 경우는 도끼, 메, 자귀, 망치류, 끌, 대패, 톱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호미인 '메호미'가 조사되었다. 기타 도구로 목수들이 사용하는 '대패'와 집을 지을 때 갖고 다니는 '먹줄'과 '먹통'이 조사되었다. 쇠로 만든 '애기구덕'도 조사되었다. 이 '애기구덕'은 제보자들이 손자들을 키우면서 구입한 것이다.

집 관련 부속물과 정낭을 끼웠던 정주석, '던드렁'과 '던드렁마께', '돌도고리', '나무사다리' 등도 조사되었다.

넷째,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김매기와 수확 관련, 건조와 손질 관련, 운반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로 나눠 정리하였다.

파종 관련 도구로는 '잠대'와 '멍에', '물접게', '등테', '보섭', '벳'과 '중경벳', '중경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신산리에서는 말을 이용하여 밭갈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물무제미', '물접게'가 조사되었다. '물무제미'는 말의 굴레에 씌우는 물건이며, '물접게'는 밭갈이를 할 때 말의 어깨에 얹는 멍에다. 제보자 고충삼 씨는 직접 '물무제미'와 '물접게'를 연결한 '잠대'로 밭갈이하는 모습을 재현해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골각지'와 '호미', '선호미', '쉐스랑' 등이 조사되었는데, '선호미'라는 새로운 어휘를 처음 조사해 보고하는 행운도 얻을 수 있었다. 타작도구로는 '도께'가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멍석'과 '체', '얼멩이', '푸는체', 'ᄀᆞ레', 나무로 만든 '손박', '조로' 등의 도구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운반 도구로 다양한 '출구덕'이 조사되었다. '출구덕'은 허리에 차는 바구니로, 성산읍 지역에서 고사리 등을 꺾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바다에서 사용하면 '바릇구덕'이라고 하였다.

계량 도구로는 '들름저울'(손저울)과 '앚은배기저울(앉은뱅이저울), 지시저울, 약저울 등의 저울과 관뒈, 말통 등이 조사되었다. 저장 도구로는 '항'과 '장태', '도로무깡(드럼통)' 등이 조사되었는데, 제보자에 따라서는 곡식을 저장했던 '도로무깡'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어업 관련 도구는 잠녀들의 물질 도구와 어부들의 어로 도구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잠녀들의 물옷인 '고무옷'과 고무모자, 오리발이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신천리 잠녀들이 물질을 끝낸 후의 모습과 성게 손질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검은색의 고무옷과 오리발이 원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고무옷은 검정색에 주황색을 곁들여서 제작하고, 오리발은 검은색 대신에 노란색 오리발도 사용하고 있었다. 물질 도구인 '테왁'과 '망시리'와 '비창', '소살', '골각지' 등의 채취 도구도 조사되었다. 잠녀들의 물질도구는 신천리 해녀 탈의장에서 조사되었다.

낚시와 그물류도 조사되었다. '솔레기주낫'(옥돔주낙), 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삼봉낚시', 벤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자망', 고기잡이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버국'과 '물조리' 등도 조사해 보고하였다.

여섯째, 축산 관련 도구는 '소막'과 '사료통', '녹대', '말톡', '넥인', '낫'과 '낫집', '등테', 짐을 실을 때 사용하는 '용돗베' 등이 조사되었다. 또 '씰돌'(숫돌)의 사용법도 확인하였다. 2017년 조사 지점인 한경면 지역에서는 숫돌 받침이 조사된 데 반해서 성산읍 지역에서는 별도의 받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대신에 '호미'를 갈 때는 '숫돌'을 들고 직접 날에 대어서 갈았다. 지역에 따라서 날을 벼리는 방법도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축산과 관련한 꼴 베기 관련 문화와 백중제, 귀표제 등의 의식에 대해서도 구술 채록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이 조사보고서의 특징은 도구와 관련한 생생한 구술 자료가 표준어 대역과 함께 실렸다는 점이다. 또 630여 장의 사진 자료와 구술 자료를 통하여 독자들은 관련 도구를 사용했던 성산읍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도 엿볼 수 있다. 낡고 헤지고 손때 묻은 도구들, 기우고 고치면서 썼던 상처투성이의 도구들은 이제 사라질 운명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조사된 도구들은 그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지난한 역사도 추억으로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도구에 얽힌 생생한 제주어 구술 자료와 표준어 대역 자료는 방언학과 민속학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 자료〉


강정희·김순자(2008),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Ⅰ-구덕과 차롱』,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고광민(1999), 「구덕과 차롱」, 『제주학』 제3호 여름, 제주학연구소.

고광민(2000),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제주전통도예원(2000),『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출판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애월읍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조천읍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구좌읍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안덕면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7),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한경면편』.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10), 『성산읍 역사문화지』.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현평효·강영봉(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

성산읍 누리집(http://www.seogwipo.go.kr/local/seongsan)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http://stdweb2.korean.go.kr)

# 부 록



수산1리 고춘권 씨 소장 '던드렁'과 '던드렁마께'

# ✻ 수산1리 고춘권 씨의 도구 이야기

구술: 고춘권(1933년생), 김병생
채록: 김순자, 김보향, 강수경
전사: 김보향

**김순자** 삼춘, 이름이 어떵 뒈마씨?(삼촌,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춘권** 고춘권.(고춘권.)

**김순자** 몇 년생마씨?(몇 년생요?)

**고춘권** 나가이 원 나으론 삼십이년생인디 호적엔 삼십삼년생으로 뒈엇주. 게난 지금 팔십일곱이주게. 원 나으론.(내가 원 나이론 삼십이년생인데 호적엔 삼십삼년생으로 되었지. 그러니까 지금 팔십일곱이지. 원 나이론.)

**김순자** 예. 삼춘, 우리 조사허는 게 옛날 살앗던예, 생활하면서 썻던 도구 일름덜 조사허는 거라예.(예. 삼촌, 우리 조사하는 게 옛날 살았던, 생활하면서 썼던 도구 이름들 조사하는 거예요.)

**고춘권** 으, 으.(으, 으.)

**〈주생활 관련〉**

**김순자** 게난 주생활부터 하나씩 ᄎᆞ근ᄎᆞ근 들어보쿠다양.(그러니까 주생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믄 우리 살젠 허믄 집을 짓을 거 아니우과예, 삼춘도 집 짓어 봔?(그럼 우리 살려고 하면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삼촌도 집 지어 봤어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집 짓을 땐 어떤 도구들이 필요헌고마씸?(그 집 지을 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가요?)

**고춘권** 집 짓을 때 난 목수가 아니라 놓난 건, 목수가 저 모든 기구를 곶촹 오라근에 이렇게 짓어 주주게.(집 지을 때 난 목수가 아니라 놓으니까 건, 목수가 저 모든 기구를 갖춰 와서 이렇게 지어 주지.)

**김순자** 예, 그 목수들 들렁 뎅기는 기구는 어떤 것이?(예, 그 목수들 들고 다니는 기구는 어떤 것이?)

**고춘권** 게난이 그때 그 초가집 짓을 때니까, 그 나무를 남밧데 가서 소남밧디 가서, 그땐 이 저 나무가 많을 때니까. 요새는 그 저 재목으로 사다가 그 허지만은 그때는 자기대로. 우리대로 베어가지고 그걸 자귀로 까까서. 그땐 이 저 오리는, 그 저 제재소에 가야 오리거든. 게난 이 초집 짓을 때는 허여다가 여디서 목수가 까깟어. 자귀로.(그러니까 그때 그 초가집 지을 때니까, 그 나무를 나무밭에 가서 소나무밭에 가서, 그땐 이 저 나무가 많을 때니까. 요새는 그 저 재목으로 사다가 그 하지만 그때는 자기대로. 우리대로 베어가지고 그걸 자귀로 깎아서. 그땐 이 저 오리는, 그 저 제재소에 가야 오리거든. 그러니까 이 초집 지을 때는 해다가 여기서 목수가 깎았어. 자귀로.)

**김순자** 게민 그 자귀는?(그럼 그 자귀는?)

**고춘권** 자귀가, 자귀로 까끄는데 그 큰 나무 까끄는 자귀가 이만은헌, 그 자룩도 혼 발은 헌 자귀가 잇어. 걸 보고 귀자귀라고 헤. 귀자귀라고 허고 손으로 이렇게 허는 건 손자귀. 요만헌 거, 우기 저기 저번에 온 때 봣지?(자귀가, 자귀로 깎는데 그 큰 나무 깎는 자귀가 이만큼한, 그 자루도 한 발은 한 자귀가 있어. 걸 보고 '귀자귀'라고 해. '귀자귀'라고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손자귀'. 요만한 거, 우리 저기 저번에 온 때 봤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건 손자귀. 양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헤서 나무 까끄는 건 귀자귀.(그건 '손자귀'. 양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무 깎는 건 '귀자귀'.)

**김순자** 귀자귀. 긴 거?('귀자귀'. 긴 거?)

**고춘권** 긴 거. 자루 이만이, 혼 발은 허주. 큰 나무 까끄젠 허면은 이렇게 메다쳐야 까까지는 거난.(긴 거. 자루 이만큼, 한 발은 하지. 큰 나무 깎으려고 하면 이렇

게 메다쳐야 깎아지는 거니까.)

**김순자** 귀자귀 가졍 다니고 그다음에 낭 오려 오젠 허면은 무시거 필요헤마씨?('귀자귀'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무 오려 오려고 하면 뭐 필요해요?)

**고춘권** 오려 올 때는 제재소 가서 건 오리는 건데 여기선 오리게 뒌 남이 아니고 저 요런 남인데. 또 큰 나무헤서 오리젠 허면은 건이 오리는 톱이 잇어. 것도 이 정도 혼 발은 헌 톱인데 그건이 양쪽에 사름이 앚아가지고 가운데 나무 세와 놩 이제 그 사름 둘이가 양쪽에서 뎅기, 뗑기면서 그걸 오리는 거.(오려 올 때는 제재소 가서 건 오리는 건데 여기선 오리게 된 나무가 아니고 저 요런 나무인데. 또 큰 나무해서 오리려고 하면 건 오리는 톱이 있어. 것도 이 정도 한 발은 하는 톱인데 그건 양쪽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운데 나무 세워 놔서 이제 그 사람 둘이 양쪽에서 당겨, 당기면서 그걸 오리는 거.)

**김순자** 그 톱은 일름이 뭐우과?(그 톱은 이름이 뭡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톱은 일름이 무시거?(그 톱은 이름이 뭐?)

**고춘권** 거 줄톱.(거 줄톱.)

**김순자** 거 줄톱예.(거 줄톱요.)

**고춘권** 으, 거 오리는 톱, 큰. 대톱이엔도 허주, 대톱. 막 큰 거. 크니까 대톱.(으, 거 오리는 톱, 큰. 대톱이라고도 하지, 대톱. 아주 큰 거. 크니까 대톱.)

**김순자** 예. 그 니귀반득허게 생기지 안헙니까, 그 줄 잇고예?(예. 그 네모반듯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줄 있고요?)

**고춘권** 아, 저 그대로 요 혼 뽐 넓인 헌 건데, 혼 뽐 넓인 헌 건데 이만이 긴 거주. 허면은 그걸로 양쪽에서 사름 이렇게 이쪽 뗑기고 저쪽 뗑기고 허면서 저 나무를 오렷주.(아, 저 그대로 요 한 뼘 넓인 한 건데, 한 뼘 넓인 한 건데 이만큼 긴 거지. 하면 그걸로 양쪽에서 사람 이렇게 이쪽 당기고 저쪽 당기고 하면서 저 나무를 오렸지.)

**김순자** 예, 그런 줄톱이 이실 거고. 그다음에 톱도 ᄋᆞ러 가지 아니마씨?(예, 그런 줄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톱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고춘권** 막 여러 가지주.(아주 여러 가지지.)

**김순자** 예, 어떤 거 이신고마씨?(예, 어떤 거 있는가요?)

**고춘권** 작은 이런 문 같은 거 짤 때 저런 거 오리는 거. 거 가로 이렇게 끈는 톱이 잇고 또 이렇게 오리는 톱이 잇주게. 게난 것도 큰톱 나무 오리는 식으로 이것도 이런 작은 나문 작은 톱 요만이헌 거 요걸로 이렇게 헤서 건 오리고. 건 날이 틀려.(작은 이런 문 같은 거 짤 때 저런 거 오리는 거. 거 가로 이렇게 끊는 톱이 있고 또 이렇게 오리는 톱이 있지. 그러니까 것도 큰톱 나무 오리는 식으로 이것도 이런 나문 작은 톱 요만큼한 거 요걸로 이렇게 해서 건 오리고. 건 날이 달라.)

**김순자** 날이, 놀 틀린 거라예?(날이, 날 다른 거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난 그 놀 틀리면 그 톱도 부르는 이름. 이름은 뭐?(그러니까 그 날 다르면 그 톱도 부르는 이름. 이름이 뭐?)

**고춘권** 거 기자 톱이엔 헷주.(거 그저 톱이라고 했지.)

**김순자** 톱예. 혹시 여기 톱이 양쪽에 잇엉 양놀베기.(톱요. 혹시 여기 톱이 양쪽에 있어서 양날톱.)

**고춘권** 으, 거 양놀톱, 양날톱이엔 허주.(으, 거 양날톱, 양날톱이라고 하지.)

**김순자** 예, 양날톱예?(예, 양날톱요?)

**고춘권** 으, 양날톱. 게난 혼쪽은 오리는 날, 혼쪽은 또 짤르는 날. 그렇게 헤서 양쪽에 그 양쪽에 날이 잇엇주게. 혼쪽은 오리고, 혼쪽은 짤를 때 필요허민 혼쪽으로 짜르고. 겐 양날톱이라고.(으, 양날톱. 그러니까 한쪽은 오리는 날, 한쪽은 또 자르는 날. 그렇게 해서 양쪽에 그 양쪽에 날이 있었지. 한쪽은 오리고, 한쪽은 자를 때 필요하면 한쪽으로 자르고. 그래서 양날톱이라고.)

**김순자** 양날톱예. 집 짓젠 허민 자귀, 톱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헐 건고예?(양날톱요. 집 지으려고 하면 자귀, 톱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 건가요?)

**고춘권** 끌.(끌.)

**김순자** 끌예.(끌요.)

**고춘권** 이 구멍 뚤르는 거.(이 구멍 뚫는 거.)

**김순자** 끌은 구멍 뚤르는 거.(끌은 구멍 뚫는 거.)

**고춘권** 으, 저런 구멍 뚤르는 거. 혼 뽐은 헌 거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서 구멍은 뚤럿주게.(으, 저런 구멍 뚫는 거. 한 뼘은 한 거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서 구멍은

뚫었지.)

**김순자** 예. 그 망치도 크기에 따라 ᄃᆞ나잖아예?(예. 그 망치도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고춘권** 으. 큰 남, 큰 남 이런 대들포 ᄀᆞ튼 거 큰 고망 뚤룰 때는 끌이 큰 거라야 뒈거든. 게민 그건 큰 망치라야 뒈고. 요런 문 거튼 거 헐 때 조그마헌 고망 뚤룰 때는 또 끌도 작은 거니까 또 망치도 작은 걸로 허고. 끌에 맞추왕 그 망치도 이제 사용허는 거주.(으. 큰 나무, 큰 나무 이런 대들보 같은 거 큰 구멍 뚫을 때는 끌이 큰 거여야 되거든. 그럼 그건 큰 망치여야 되고. 이런 문 같은 거 할 때 자그마한 구멍 뚫을 때는 또 끌도 작은 거니까 또 망치도 작은 걸로 하고. 끌에 맞춰서 그 망치도 이제 사용하는 거지.)

**김순자** 예. 게민 그런 것덜은 이름 ᄃᆞ나게 부르진 않고?(예. 그럼 그런 것들은 이름 다르게 부르진 않고?)

**고춘권** 그냥 망치.(그냥 망치.)

**김순자** 그냥 망치 불르고예. 그다음에 삼춘, 이제 목수가 쓰는 끌 말고 대패?(그냥 망치 부르고요. 그다음에 삼촌, 이제 목수가 쓰는 끌 말고 대패?)

**고춘권** 으, 대팬 까끄는 거.(으, 대팬 깎는 거.)

**김순자** 까끄는 거.(깎는 거.)

**고춘권** 거 대패.(거 대패.)

**김순자** 대패도 보니까 이름이 ᄐᆞ납디다. 대패 크기에 따라 이름이 ᄐᆞ납디다.(대패도 보니까 이름이 다릅디다. 대패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릅디다.)

**고춘권** 것도 저 대패가 줄대패엔 헤근에 양쪽에서.(것도 저 대패가 '줄대패'라고 해서 양쪽에서.)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저 ᄌᆞ룩 돋졍, ᄌᆞ룩 돋졍 영 영 허는 것이 잇고. 그대로 바로 마리 허는 대패가 잇고. 게난 그냥 대패엔 헷주, 대패엔.(이 저 자루 돋쳐서, 자루 돋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바로 마루 하는 대패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대패라고 했지, 대패라고.)

**김순자** 그다음 홈 내우젠 허면 쓰는 대패는 무신 대패엔 헙니까?(그다음 홈 내려고 하면 쓰는 대패는 무슨 대패라고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홈. 이런 문 허젠 허면 홈 허지 안헙니까?(홈. 이런 문 하려고 하면 홈 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 이런 대패도 잇주게. 겐디 이건, 나가 목시가 아니라놓니까 그런 거 원 다 이름을 그 모르크라.(으, 이런 대패도 있지. 그런데 이건, 내가 목수가 아니니까 그런 거 전혀 다 이름을 그 모르겠어.)

**김순자** 예. 홈대패렌 안 들어 봅디가?(예. 홈대패라고 안 들어 보셨습니까?)

**고춘권** 아마 홈대패엔 헤실 거주.(아마 홈대패라고 했을 거지.)

**김순자** 하하. 그렇게 목수가 들렁 뎅기는 연장이고.(하하. 그렇게 목수가 들고 다니는 연장이고.)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마께, 둥치도 옛날에 마께렌도 골앗잖아예?(그 방망이, 둥치도 옛날에 방망이라고도 말했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남마께도 썻수과?(나무방망이도 썼습니까?)

**고춘권** 끌 헐 때에 끌 허는 거 남망치엔도 잇어주. 남망치도 잇고 이런 저 집 지을 때에 대들보 이런 거 영 헤영 맞추젠 허면은 큰 남, 남으로 크게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때려근에 그 뭐 허고. 그 작은 망치로는 안 뒈니까. 그 큰 남덜 그 니 맞추젠 헐 때는.(끌 할 때는 끌하는 거 나무망치라고도 있었지. 나무망치도 있고 이런 저 집 지을 때에 대들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면 큰 나무, 나무로 크게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때려서 그 뭐 하고. 그 작은 망치로는 안 되니까. 그 큰 나무들 그 이 맞추려고 할 때는.)

**김순자** 그때는 남망치로 허는 거구나?(그때는 나무망치로 하는 거군요?)

**고춘권** 으, 남망치로. 남망치로 사용헷주.(으, 나무망치로. 나무망치로 사용했지.)

**김순자** 그다음에는 목시 말앙 돌 쌓는 사름들. 돌쳉이들, 돌쳉이들 들렁 뎅기는 연장은 어떤 거 잇어마씨?(그다음에는 목수 말고 돌 쌓는 사람들. 돌장이들, 돌장이들 들고 다니는 연장은 어떤 거 있어요?)

**고춘권** 이 저 그 메.(이 저 그 메.)

**김순자** 메. 메 잇고? 메로만 헙니까, 돌쳉이덜은?(메. 메 있고? 메로만 합니까, 돌장

이들은?)

**고춘권** 또 그 정.(또 그 정.)

**김순자** 메 허고 정이 잇고예?(메 하고 정이 있고요?)

**고춘권** 이 돌 벌를 때, 또 돌 까끌 때 허는 거 작은 메가 잇고 큰 메가 잇고. 것도 메도 으라 가지. 거 용도에 따라 가지고 으라 가지고.(이 돌 쪼갤 때, 돌 깎을 때 하는 거 작은 메가 있고 큰 메가 있고. 것도 메도 여러 가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저 구멍 뚤르는 거.(그 저 구멍 뚫는 거.)

**김순자** 예.(예.)

**고춘권** 구멍 뚤를 때 허는 거 정.(구멍 뚫을 때 하는 거 정.)

**김순자** 정.(정.)

**고춘권** 또 돌 큰 돌 깰 때. 구멍 그 뚧어 가지고 거기 요만헌 쒜로 멘든 걸 거기 놔근에 쳐가지고 큰 돌 벌르는 정.(또 돌 큰 돌 깰 때. 구멍 그 뚫어 가지고 거기 요만한 쇠로 만든 걸 거기 놔서 쳐 가지고 큰 돌 쪼개는 정.)

**김순자** 그다음에 거기에 그 속에 놓지 안헙니까, 벌르젠 허면. 그 끼워 놓는 건 뭐렌 헙니까?(그다음에 거기에 그 속에 놓지 않습니까, 쪼개려고 하면. 그 끼워 놓는 건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거 정이엔 헷주게.(거 정이라고 했지.)

**김순자** 아니 정 헐 때 그 돌 벌르젠 헐 때 그 사이에 놓는 거?(아니 정 할 때 그 돌 쪼개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놓는 거?)

**고춘권** 사이에 놓는 거? 쒜 요만헌 거?(사이에 놓는 거? 쇠 요만한 거?)

**김순자** 예.(예.)

**고춘권** 어. 거기 놓는데 걸 뭐라고 헷는가 모르크라, 건.(어. 거기 놓는데 걸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어, 건.)

**김순자** 여기는 뜸 이런 말은 안 허고예?(여기는 뜸 이런 말은 안 하고요?)

**고춘권** 끌은 저 뭐 허는 것이 끌이고. 거 고망 똘루는 것은 끌이고 거기 접정 허는 것은 정이렌 허는 거 닮다.(끌은 저 뭐 하는 것이 끌이고. 거 구멍 뚫는 것은 끌이고 거기 끼워서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거 같아.)

**김순자** 아니, 정은 끌이나 정이나는 ᄀᆞ튼 거고. 예, 삼춘 돌 일은 안 헤 봣구나?(아

니, 정은 끌이나 정이나 같은 거고. 예, 삼촌 돌 일은 안 해 봤구나?)

**고춘권** 우리 그런 건 안 헤 보고. 그거 헤 봐시민 그걸 알아지겠는데. 건 안 헤 보니까.(우리 그런 건 안 해 보고. 그거 해 봤으면 그걸 알겠는데. 건 안 해 보니까.)

**김순자**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하면 그 돌을, 그 집을 한 번 짓어 봅서. 삼춘이 집 짓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헹 그 집을 완성허는가 골아줘 봅서.(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하면 그 돌은, 그 집을 한 번 지어 보세요. 삼춘이 집 지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집을 완성하는가 말해 보세요.)

**고춘권** 집은 젤 처음에 허젠 허믄 목수가 처음에 손 대영 헐 것은 우선은 이 펭멘 이거 저 깔아야 뒈거든.(집은 젤 처음에 하려고 하면 목수가 처음에 손 대어서 할 것은 우선은 이 평면 이거 저 깔아야 되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펭멘 깔젠 허면 그 기둥을 그 지춧돌을 세우젠 허면은 우선은 지춧돌 높이를 맞춰야 뒈니까. 그걸 이제 펭멘을 재야 뒈거든. 그다음에 그 물저울 헤가지고. 요새는 이런 걸로 헤가지고 다 칙량허는 식으로 헤근에 그 펭멘 허지만 그때는 그 저 호수, 그 까는 호수 잇잖아이. 그것에 물 담아 가지고 물저울에. 물저울 그 물방울 놔가지고 이 저.(평면 깔려고 하면 그 기둥을 그 주춧돌을 세우려고 하면 우선은 주춧돌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평면을 재야 되거든. 그다음에 그 '물저울' 해가지고. 요새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측량하는 식으로 해서 그 평면 하지만 그때는 그 저 호스, 그 까는 호스 있잖아. 그것에 물 담아 가지고 '물저울'에. '물저울' 그 물방울 놔가지고 이 저.)

**김순자** 수평 맞추는 거예?(수평 맞추는 거요?)

**고춘권** 이제 기계 가지고 펭멘 맞추는 식으로 그. 호수에 까는 호수에 물 담아가지고 그걸로 가름을 헤영 지춧돌 헷주게. 우선은 지춧돌부터 문저 이제 그 놔야 그 기둥을 세우게 뒌 거난게. 거 허젠 허면은 것에 물 담아근에 그 목수가. 이렇게 대면은 이건 물 그릇 놔가지고 거기 그 물 있는 호수를 이렇게 내놩 허면은 언제나 일정허게시리 그 그 놓기가 뒈는 거라, 이건. 딱 허게 물그릇을 놔근에 딱 허게 허면은. 게난 그거 가졍 뎅기멍 이렇게 대영 이 표시헤 가지고 펭멘에 지춧돌 놓게 뒈는 거라.(이제 기계 가지고 평면 맞추는 식으로

그. 호스에 까는 호스에 물 담아가지고 그걸로 가늠을 해서 주춧돌 했지. 우선은 주춧돌부터 먼저 이제 그 놔야 그 기둥을 세우게 된 거니까. 거 하려고 하면 것에 물 담아서 그 목수가. 이렇게 대면 이건 물 그릇 놔가지고 거기 그 물 있는 호스를 이렇게 내 놔서 하면 언제나 일정하게끔 그 그 놓기가 되는 거야, 이건. 딱 하게 물그릇을 놔서 딱 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 가져 다니면서 이렇게 대어서 이 표시해 가지고 평면에 주춧돌 놓게 되는 거야.)

**김순자** 지춧돌 놓게예?(주춧돌 놓고요?)

**고춘권** 게난 그걸 우선 딱 재여 놓면은 멘적, 그 둘레 거 얼마 헐 거 거 딱 허게시리 재여 가지고 지춧돌 어디다가 지춧돌 세울 거 딱 표시헹 허면은 뭐 우선 기둥만 세왕 올리민 뒈는 거주.(그러니까 그걸 우선 딱 재어 놓으면 면적, 그 둘레 거 얼마 헐 거 거 딱 하게끔 재어 가지고 주춧돌 어디다가 주춧돌 세울 거 딱 표시해서 하면 뭐 우선 기둥만 세워서 올리면 되는 거지.)

**김순자** 게믄 그 주칫돌 삼간집 지을 때, 삼간집 짓을 때 주칫돌은 멧 개가 필요헤마씨?(그럼 그 주춧돌 삼간집 지을 때, 삼간집 지을 때 주춧돌은 몇 개가 필요해요?)

**고춘권** 그거 집에 따라 가지고. 집에 따랑. 집이 크면은 기둥이 여라 개 들어가니까 이 기둥마다 주칫돌 다 들어가게 뒌 거난 기둥 ᄒᆞ나에 지칫돌 ᄒᆞ나 들어가게 허니까. 그건 뭐 혼이 없어.(그거 집에 따라 가지고. 집에 따라서. 집이 크면 기둥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이 기둥마다 주춧돌 다 들어가게 된 거니까 기둥 하나에 주춧돌 하나 들어가게 하니까 그건 뭐 한이 없어.)

**김순자** 게민 경 수평을 맞춰 놓고 주칫돌 세우면 그다음에 허는 일은 무시거우과?(그럼 그렇게 수평을 맞춰 놓고 주춧돌 세우면 그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춘권**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우선 기둥을 세와야주게, 기둥을. 기둥 세우는 것광 우이 저 그 대들포, 포 헤근에 양쪽에 그 대들포 허곡 그건 같이 다 멘들아 놔 가지고 다 멘들아 놩 이제 그 주춧돌 다 완성이 뒈면은 다 그거 조립을 헤 가는 거주. 그 기둥 세우멍.(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선 기둥을 세워야지, 기둥을. 기둥 세우는 것과 위에 저 그 대들보, 보 해서 양쪽에 그 대들보 하고 그건 같이 다 만들어 놔 가지고 다 만들어 놔서 이제 그 주춧돌 다 완성이

되면 다 그거 조립을 해 가는 거지. 그 기둥 세우면서.)

**김순자** 그다음에 대들보가 있을 거고예, 양쪽에?(그다음에 대들보가 있을 거고요, 양쪽에?)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가운데 거는 뭐렌 헙니까?(그다음에 가운데 거는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상ᄆᆞ루엔 헨 ᄆᆞ루. 초집은 이렇게 헤영 영 ᄆᆞ루가 잇어야 뒈니까. 게난 가운디 젤 우에 길게 허는 걸 상ᄆᆞ루엔 허주.(용마루라고 해서 마루. 초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젤 위에 길게 하는 걸 용마루라고 하지.)

**김순자** 상ᄆᆞ루. 게민 상ᄆᆞ루, 대들포는 두 개가 뒈는 거고예?(용마루. 그럼 용마루, 대들보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고춘권** 으. 대들포는, 포는 저 이간집은 하나민 뒈는 거고 삼간집은, 삼 칸을 멘들젠 허민 거 대들포가 두 개 헤야 그 삼 칸이 뒈는 거 아니라.(으. 대들보는, 보는 '이간집'은 하나면 되는 거고 삼간집은, 삼 칸을 만들려고 하면 거 대들보가 두 개 해야 그 삼 칸이 되는 거 아니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사 칸은 대들포가 ᄒᆞ나 더 들어가야 사 칸이 뒈는 거고. 또 그 저 대들보 허고 상ᄆᆞ루 올려 가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허는 건 도리. 도리라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허는 건 도리.(사 칸은 대들보가 하나 더 들어가야 사 칸이 되는 거고. 또 그 저 대들보 하고 용마루 올려 가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건 도리. 도리라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건 도리.)

**김순자** 도리 허고. 게민 그렇게 허면 그다음에 지붕에 올리면 또?(도리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지붕에 올리면 또?)

**고춘권** 또 이렇게 준 남 쭉 허게 이렇게 허는 것은 서리.(또 이렇게 잔 나무 쭉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서까래.)

**김순자** 서리. 예, 서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리 올리면 그 예전에 상량헐 때는 어느 때 상량허는 거우과?(서까래. 예, 서까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까래 올리면 그 예전에 상냥할 때는 어느 때 상량하는 겁니까?)

**고춘권** 상량은 그 집을 다 도리나 다 헤 놓면은 마지막에 상ᄆᆞ루를 올리는 거주

게.(상량은 그 집을 다 도리나 다 해 놓으면 마지막에 용마루를 올리는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상ᄆᆞ루를 올리는 건데 게난 상ᄆᆞ루는 그 택일헤근에 상ᄆᆞ루 올리면은 집이 다 완성뒈는 거난 다 완성시켜근에 상ᄆᆞ룰 올리는 거주, 거 올리는 건데. 이 택일 전에 그런 걸 미리 못 허곡 이 택일은, 그 상ᄆᆞ룰 올릴 날짠 돌아오거든. 허면은 이 저 그대로 그자 작데기만 세와 가지고 우이 상ᄆᆞ루 걸치는 형식으로 헤 가지고 그 헷다근에 집을 완공시켱 그 상ᄆᆞ룰 짓어 가멍 상ᄆᆞ룰 올리는 거주게. 게난 그 다 그 도리, 도리ᄁᆞ지 헤지면은 상ᄆᆞ루 마지막에 헨 올려근에. 것도 거 날 봥.(용마루를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용마루는 그 택일해서 용마루 올리면 집이 다 완성되는 거니까 다 완성시켜서 용마루 올리는 거지, 거 올리는 건데. 이 택일 전에 그런 걸 미리 못 하고 이 택일은, 그 용마루 올릴 날짠 돌아오거든. 하면 이 저 그대로 그저 작대기만 세워 가지고 위에 용마루 걸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해다가 집을 완공시켜서 그 용마룰 지어 가면서 용마루 걸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했다가 집을 완공시켜서 그 용마룰 지어 가면서 용마루 마지막에 해서 올려서. 것도 거 날 봐서.)

**김순자** 그 상ᄆᆞ루 올리는 날이 상량허는 날?(그 용마루 올리는 날이 상량하는 날?)

**고춘권** 으. 상량. 게 상ᄆᆞ루 올리는 게 상량이주게.(으. 상량. 그래서 용마루 올리는 게 상량이지.)

**김순자** 예, 예. 게난 그거는 보통 어느 날이 좋덴 헙니까?(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어느 날이 좋다고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상량허는 날은?(상량하는 날은?)

**고춘권** 건 좋은 날 택허는 거주. 운에 맞은 날, 그 정시신디 가근에 거 택일헤영. 거 아무 날이나 허도 안 허주.(건 좋은 날 택하는 거지. 운에 맞는 날, 그 지관에게 가서 거 택일해서. 거 아무 날이나 하지도 안 하지.)

**김순자** 삼춘네도 집 짓을 때 상량식 헤난마씨?(삼촌네도 집 지을 때 상량식 했었어요?)

**고춘권** 으. 이 저 이 자리에 초집 헷다가.(으, 이 저 이 자리에 초집을 했다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초집 헷단 스레뜨 올렷단 이거 또 튿어둰 이거 짓은 거주.(초집 했다가 슬레이트 올렸다가 이거 또 뜯어두고 이거 지은 거지.)

**김순자** 상량식 헐 때 보면 크게 허지 안헙니까?(상량식 할 때 보면 크게 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둑, 장둑 헤근에. 그 상량식 풍경을 좀 골아줘 봅서.(닭, 수탉 해서. 그 상량식 풍경을 좀 말해줘 보세요.)

**고춘권** 이 저 그건 희생시키는 거주게. 그 제, 상ᄆᆞ루 제 올려근에. 그 희생헤근에 만사형통허게시리 헤 줍센 거 허는 거주게.(이 저 그건 희생시키는 거지. 그 제, 용마루 제 올려서. 그 희생해서 만사형통하게끔 해 주십사고 거 하는 거지.)

**김순자** 게난 희생으로 뭐 쓰는 것과?(그러니까 희생으로 뭐 쓰는 겁니까?)

**고춘권** 건 장둑으로 헷주, 장둑을 주로. 그거 둑이 젤 쉬운 거난게. 무슨 솔 잡으나 뒈지 잡으나 헐 수 엇는 거니까.(건 수탉으로 했지, 수탉으로 주로. 그거 닭이 젤 쉬운 거니까. 무슨 솔 잡으나 돼지 잡으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김순자** 게믄 그때 그 상량허는 사름은 누게가 허는 거?(그럼 그때 그 상량하는 사람은 누구가 하는 거?)

**고춘권** 목시가.(목수가.)

**김순자** 목시가. 게난 어릴 때 보면 상량헐 때 사탕도 영 뿌리고 헙디다.(목수가.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상량할 때 사탕도 이렇게 뿌리고 합니다.)

**고춘권** 어. 거 목시가 저 장둑 헤근에 딱 상ᄆᆞ루에 걸쳐 놩 이제 자귀로 모가지 탁 찍으멍 조조 상량 허영 큰소리로 웨주게.(어. 거 목수가 저 수탉 해서 딱 용마루에 걸쳐 놔서 이제 자귀로 모가지 탁 찍으면서 조조 상량 해서 큰소리로 외지.)

**김순자** 예, 경헌 다음에 막 사탕도 뿌려 주고예. 그다음에 그렇게 상량까지 허고 지붕을 짓젠 허면? 지붕을 일젠 허면?(예, 그런 다음에 마구 사탕도 뿌려 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상량까지 하고 지붕을 지으려고 하면? 지붕을 이려고 하면?)

**고춘권** 게난 그 저 서리, 서리를 쭉 돌아가멍 지붕에 서리를 걸쳐 놓면은 거기 또 이제 또 그 위이. 요샌 뭐 베니다판도 더끄곡 허주만은 그때 시절엔 그런 게 엇

으니까 대. 대 헤 가지고 대로 여꼇주. 그 찝 아래 빠져 불지 안허게. 대로 여꺼서. 대로 여껑, 대로 여껑 허면은 이제 그것이 다 뒈민 그 우이 찝으로. 게난 이 한간에.(그러니까 그 저 서까래, 서까래를 쭉 돌아가면서 지붕에 서까래를 걸쳐 놓으면 거기 또 이제 또 그 위에. 요샌 뭐 베니어판도 덮고 하지만 그때 시절엔 그런 게 없으니까 대. 대 해 가지고 대로 엮었지. 그 짚 아래 빠져 버리지 않게. 대로 엮어서. 대로 엮어서, 대로 엮어서 하면 이제 그것이 다 되면 그 위에 짚으로. 그러니까 이 '한간'에.)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한간이엔 허는 건 이 가운데 마루 한간에는 이 저 우에 이제 그 대패질도 허고 뭐 헤야 뒈니까 지금 거트면 뭐 베니다로 딱딱 박아 불민 뒈지만은 그때는 경 못헐 때니까 이제 흑.(이 '한간'이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 마루 '한간'에는 이 저 위에 이제 그 대패질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 뭐 베니어로 딱딱 박아 버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못할 때니까 이제 흙.)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대로 여꺼 가지고 이 한간에만 대로 직각허게 여껑 그 우에 흙을 이제 그 놧어. 찝허고 그거 서꺼 가지고이. 서껑 그 우이 이젠 그 집을 일엇주게. 게민 나중엔 또 그 밑에서 밑에서 흙을 또 발르는 거라.(그 대로 엮어 가지고 이 '한간'에만 대로 빽빽하게 엮어서 그 위에 흙을 이제 그 놨어. 짚하고 그거 섞어 가지고. 섞어서 그 위에 이젠 그 집을 이었지. 그러면 나중엔 또 그 밑에서 밑에서 흙을 또 바르는 거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밑에서 흙을 불르기 위해 가지고 우이 흑을 놧주게. 게난 그 더위도 안 타고 이 아래서 흑질허면은 그 또 떨어지지 안허게 허기 위해 가지고 우이 그 흑을 깔앗주.(밑에서 흙을 바르기 위해 가지고 위에 흙을 놨지. 그러니까 그 더위도 안 타고 아래서 흙질하면 그 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 그 흙을 깔았지.)

**김순자** 게난 삼춘 아까 우리가 서리를 다 걸엇잖으과?(그러니까 삼촌 아까 우리가 서까래를 다 걸었잖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서리 걸으면 거기에 대나무로 헤 갖고 여껑. 그거는 이름을 뭐렌 골아?(서까래 걸면 거기에 대나무로 해 갖고 엮어서.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말해?)

**고춘권** 서슬.(산자.)

**김순자** 서슬. 서슬 올렴덴 헙니까, 그거를?(산자. 산자 올린다고 합니까, 그거를?)

**고춘권** 으. 서슬 여껌덴도 허고 그 올렴젠도 허고.(으. 산자 엮는다고도 하고 그 올린다고 하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서슬 밑에서 다 여껑 올령 거기에 낌만 허고 우이서 또 대 하나썩 놓멍 또 여껑도 허고.(그 산자 밑에서 다 엮어서 올려서 거기에 깔기만 하고 위에서 또 대 하나씩 놓으면서 또 엮어서도 하고.)

**김순자** 한간에 흑을 논덴 헷잖아예? 그 흑은 무신 흑?('한간'에 흙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흙은 무슨 흙?)

**고춘권** 그 흑은? 그 한간에 올리는 거 ᄀᆞ만 잇자. 거 뭐엔?(그 흙은? 그 '한간'에 올리는 거 가만 있자. 거 뭐라고?)

**김순자** 고대, 고디?(새우, 새우?)

**고춘권** 으, 고대 올렴젠 헌 거 ᄀᆞ타.(으, 새우 올린다고 한 거 같아.)

**김순자** 예.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볼르는 건?(예.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바르는 건?)

**고춘권** 볼르는 거 안벽. 거 안벽 헴젠 허주게.(바르는 건 앙벽. 거 앙벽 한다고 하지.)

**김순자** 안벽, 앙토?(앙벽, 앙토?)

**고춘권** 으.(으.)

**김순자** 여기 앙토 헙니까, 안벽 헙니까?(여기 앙토 합니까, 앙벽 합니까?)

**고춘권** 안벽이엔 헷어, 안벽. 것도 이 지역마다 좀 틀려, 그 말도.(앙벽이라고 했어, 앙벽. 것도 이 지역마다 좀 달라, 그 말도.)

**김순자**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춘권** 으, 이 지역마다 틀려. 우린 거 안벽이엔 헷는데. 안벽 볼람저 허주게.(으, 이 지역마다 달라. 우린 거 앙벽이라고 했는데. 앙벽 바른다고 하지.)

**김순자** 게믄 그 안벽 볼르는 디는 어디 볼랏수과, 주로? 안벽도 다 볼르진 안허지 안헷수과?(그럼 그 앙벽 바르는 데는 어디 발랐습니까, 주로? 앙벽도 다 바르진 않지 않았습니까?)

**고춘권** 거 이 한간에만 볼랏주, 한간에만.(거 이 '한간'에만 발랐지, '한간'에만.)

**김순자** 한간에만.('한간'에만.)

**고춘권** 다른 디는 그 잘허젠 허면은 다른 디 볼랏주만은 다른 디ᄀᆞᆨ장 경 헐 수가 엇엇주게.(다른 데는 그 잘하려고 하면 다른 데 발랐지만 다른 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김순자** 게민 삼춘 한간이엔 허민 어디를 한간이엔 허는 것과?(그럼 삼촌 '한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한간'이라고 하는 겁니까?)

**고춘권** 이 가운디. 삼방마루. 마루방.(이 가운데. 대청마루. 마루방.)

**김순자** 이 삼방 잇는 우에?(이 마루 있는 위에?)

**고춘권** 으. 한간은 가운디 칸을 말허는 거난. 가운디 칸.(으. '한간'은 가운데 칸을 말하는 거니까. 가운데 칸.)

**김순자** 예, 예. 겐 이제 지붕 일젠 허면은 뭘 헹 와야 허는 것과?(예, 예. 그래서 이제 지붕 이려고 하면 뭘 해서 와야 하는 겁니까?)

**고춘권** 젤 그 필요헌 건 이 어웍. 이 새는 그때도 새는 귀헷어. 어려웠지. 아무 때도 새는 좋은 밧디 아니면은 그 새가 나질 안헷주게. 겨고 이 보통 소 말 방목헐 때니까 이 담밧디 아니면은 샐 키울 수가 엇어. 소 말이 먹어부니까.(젤 그 필요한 건 그 억새. 이 띠는 그때도 띠는 귀했어. 어려웠지. 아무 때도 띠는 좋은 밭에 아니면 그 띠가 나질 않았지. 그러고 이 보통 소 말 방목할 때니까 이 담밭에 아니면 띨 키울 수가 없어. 소 말이 먹어버리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그 샐 허젠 허민, 새가 귀허니까 그 새로만 올릴 수 엇거든. 새 집 처음 헐 때. 경허민 어웍, 처음엔 어웍을 비어 가지고. 어웍을 비어당 우선 일어 놩 그 우이 샐 일엇주. 건 샐 아끼기 위해서.(그러니까 그 띨 하려고 하면, 띠가 귀하니까 그 띠로만 올릴 수 없거든. 새 집 처음 할 때. 그러면 억새, 처음엔 억새를 베어 가지고. 억새를 베어다가 우선 이어 놔서 그 위에 띨 이었지. 건 띨 아끼기 위해서.)

**김순자** 아. 게믄 서슬 헤 논 우에 어웍으로 혼 불 허고.(아. 그럼 산자 해 놓은 위에 억새로 한 벌 하고.)

**고춘권** 일어 놩.(이어 놔서.)

**김순자** 일어 놩.(이어 놔서.)

**고춘권** 으, 일어 놩 그 우이 또 새를 더끄고.(으, 이어 놔서 그 위에 또 띠를 덮고.)

**김순자** 게믄 그 새는 보통 어느 철에 헤 와마씨? 새는 어느 철에 비여 옵니까? 어웍이영 이런 거?(그럼 그 띠는 보통 어느 철에 해 와요? 띠는 어느 철에 베어 옵니까? 억새랑 이런 거?)

**고춘권** 새는 완전히 바라야. 노랗게 바라야. 노랗게 발젠 허면은 시월 구물엉 동짓둘 나야. 이 시월은 완전히 구물어야 것이 노랗게 발주. 그냥 푸린 때 헤불면은 것이 오래 가질 안허여.(띠는 완전히 바래어야. 노랗게 바래려고 하면 시월 저물어서 동짓달 돼야. 이 시월은 완전히 저물어야 것이 노랗게 바래지. 그냥 푸른 때 해버리면 것이 오래 가질 않아.)

**김순자** 게난 삼춘.(그러니까 삼촌.)

**고춘권** 곰팡이 피여 불고 젖으민 썩어 불고 헤 가지고 헌 따문에 완전히 완전히 바래야 노랗게.(곰팡이 피어 버리면 젖으면 썩어 버리고 해 가지고 한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바래야 노랗게.)

**김순자** 노랗게예?(노랗게요?)

**고춘권** 뒈젠 허민 시월 말, 이 동짓둘 초승 뒈면은 완전히 발허주.(되려고 하면 시월 말, 이 동짓달 초승 되면 완전히 바래지.)

**김순자** 동짓둘에 그거 헹 왕 집은 어느 철에 일어마씨?(동짓달에 그거 해 와서 집은 어느 철에 이어요?)

**고춘권** 보통은 새해 낭, 새해 낭 일주게.(보통은 새해 돼서, 새해 돼서 이지.)

**김순자** 새해 낭. 보통 멧 월덜에?(새해 돼서. 보통 몇 월에?)

**고춘권** 봄에. 봄에 정이월에. 게난 여름 대비허젠 허민 겨울에 혼엇이 눈 왓자 얼마 안 오는 거니까. 게난 장마 대비를 허기 위해서 이 새해 낭 이는 거주게. 새해 낭 옷 골아입지는 형식이고이. 여라 가지 거 그 의미가 잇주게.(봄에. 봄에 정이월에. 그러니까 여름 대비하려고 하면 겨울에 한없이 눈 왔자 얼마 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새해 돼서 이는 거지. 새해 돼서 옷 갈아입히는 형식이고. 여러 가지 거 그 의미가 있지.)

**김순자** 게난 옛날에 집 이는 게 굉장히 큰 행사라지 안헷수과예?(그러니까 옛날에 집 이는 게 굉장히 큰 행사이지 않았습니까?)

**고춘권** 하이고.(하이고.)

**김순자** 게믄 겨울에 동짓돌에 다 새 허면 줄덜 다 비영 놔두고 헐 거 아니과? 언제 허여, 그건?(그러면 겨울에 동짓달에 다 띠 하면 줄들 다 꼬아서 놔두고 할 거 아닙니까? 언제 해, 그건?)

**고춘권** 그거 그것은 저 묵은해 헤야 뒈여. 그 새를 헤여 오면은 그 그때 헤영 놧다근에 허는데 것도 새해 낭, 집 일 때 낭 대부분은 집 일 때 낭 그걸 허주게. 겨울엔 또 춥곡 허민은 벨로 허도 못허고.(그거 그것은 저 묵은해 해야 돼. 그 띠를 해 오면 그 그때 해서 놨다가 하는데 것도 새해 돼서, 집 일 때 되어서 대부분은 집 일 때 되어서 그걸 하지. 겨울엔 또 춥고 하면 별로 하지도 못하고.)

**김순자** 게믄 삼춘 그 집 일젠 허면 줄 빌 때 필요헌 도구덜은 무시거 잇수과?(그럼 삼촌 그 집 이려고 하면 '줄' 꼴 때 필요한 도구들은 무엇 있습니까?)

**고춘권** 호렝이.('호렝이'.)

**김순자** 호렝이 허고. 그다음 호렝이는 줄 비는 거고.('호렝이' 하고. 그다음 '호렝이'는 줄 꼬는 거고.)

**고춘권** 으.(으.)

**김순자** 두 개 줄, 그 줄 비어난.(두 개 줄, 그 줄 꼰.)

**고춘권** 으, 뒤에서 이렇게 두 개 ?치 여끼는 거 뒤, 그 뒤체호렝이엔 허주게, 이디선 우린 거 뒤체엔 헷어.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허는 거니까 뒤체엔 헷어.(으, 뒤에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엮는 거 뒤, 그 '뒤체호렝이'라고 하지, 여기선 우린 거 '뒤체'라고 했어.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뒤체'라고 했어.)

**김순자** 뒤체. 호렝이는 안 허고 뒤체?('뒤체'. '호렝이'는 안 하고 '뒤체'?)

**고춘권** 뒤체호렝이엔 헷주.('뒤체호렝이'라고 했지.)

**김순자** 뒤체호렝이.('뒤체호렝이'.)

**고춘권** 뒤치는 호렝이, 뒤치는 호렝이.('뒤치는 호렝이', '뒤치는 호렝이'.)

**김순자** 아, 뒤치는 호렝이?(아, '뒤치는 호렝이'?)

**고춘권** 으.(으.)

**김순자** 뒤치는 호렝이 허고. 게민 멧 사름이 줄, 집줄 멘들젠 허면 멧 사름이 필요허는 거?('뒤치는 호렝이' 하고. 그럼 몇 사람이 줄, '집줄' 만들려고 하면 몇 사

람이 필요한 거?)

**고춘권** 서이, 너이.(셋, 넷.)

**김순자** 너이.(넷.)

**고춘권** 뒤에서 뒤치는 호렝이 허고 앞이서 또 둘리가 그 두 가달이니까, 그 둘리 허고 또 가운디 혼 사름이 걸 여꺼, 여꺼 가야.(뒤에서 '뒤치는 호렝이' 하고 앞에서 또 둘이 그 두 가닥이니까, 그 둘 하고 또 가운데 한 사람이 걸 엮어, 엮어 가야.)

**김순자** 여끄는 걸 뭐렌 헙니까, 여기선?(엮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선?)

**고춘권** 건 손으로, 손으로도 여끄고 손 아프니까 남으로 그걸 멘들앙 그 어울리기, 어울리기 남으로 멘들아근에 거 허고 경 헷주게.(건 손으로, 손으로 엮고 손 아프니까 나무로 그걸 만들어서 그 어울리기, 어울리기 나무로 만들어서 거 하고 그렇게 했지.)

**김순자** 게민 그 낭을 어울리기렌 골아낫수과?(그럼 그 나무를 '어울리기'라고 말했었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겐 어울리기 이리 앗아오라, 영 헤마씨?(그래서 '어울리기' 이리 가져 와, 이렇게 해요?)

**고춘권** 으. 게난 거 서쪽에선 뭐엔 헷는지 몰라. 것도 거기서 또 다른 말로 헤실 거라.(으. 그러니까 거 서쪽에선 뭐라고 했는지 몰라. 것도 거기서 또 다른 말로 했을 거야.)

**김순자** 예, 맞수다. 지역마다 집 이는 시기도 다르고예?(예, 맞습니다. 지역마다 집 이는 시기도 다르고요?)

**고춘권** 게난 삼춘 여기는 옛날부터 비가 하영 왓구나예?(그러니까 삼촌 여기는 옛날부터 비가 많이 왔군요?)

**고춘권** 하영 왓주게. 이 제주도는 아무 데도, 어느 지역이나 다 대부분 비둥헷주게. 겐디 그래도이 동쪽에가 좀 비는. 뭐 지금도 많이 오주만은 그때도 많이 왓주. 장마가 워낙 심허주게.(많이 왔지. 이 제주도는 아무 데도, 어느 지역이나 다 대부분 비등했지. 그래서 그래도 동쪽이 좀 비는. 뭐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때도 많이 왔지. 장마가 워낙 심하지.)

**김순자** 게믄 그 비 그 집을 이는데 일 년에 멧 번 일어?(그럼 그 비 그 집을 이는데 일 년에 몇 번 일어?)

**고춘권** 일 년에 훈 번 일주. 훈 번도 일고 못 허는 사름은 또 두 해에 훈 번도 이는 사름도 가끔 잇는데 대부분은 다 일 년에 훈 번은 일엇주게.(일 년에 한 번 일지. 한 번도 일고 못 하는 사람은 또 두 해에 한 번도 이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일 년에 한 번은 이었지.)

**김순자** 대부분은 일 년에 훈 번예? 그러면 집 도구 하나 빠진 거 잇수다. 땅 다지고 영 헐 때 그 줄, 먹줄로 헤 갖고 허는 그거.(대부분은 일 년에 한 번요? 그러면 집 도구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땅 다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줄, 먹줄로 해 갖고 하는 그거.)

**고춘권** 으.(으.)

**김순자** 거는 뭐렌 헙니까, 여기에서? 먹술?(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먹줄?)

**고춘권** 그 줄 목수 사용허는 거?(그 줄 목수 사용하는 거?)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먹통. 건 저 영 부그랑헌 거 먹물, 먹물 놔 가지고 허는 건 먹통. 그 줄, 줄은 먹줄.(그 먹통. 건 저 이렇게 봉긋한 거 먹물, 먹물 놔 가지고 하는 건 먹통. 그 줄, 줄은 먹줄.)

**김순자** 그다음에 그 집을 다 만들엇어예?(그 다음에 그 집을 다 만들었어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 이 안에 내부를 만들어야 뒐 거 아니우과예?(그다음 이 안에 내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안에 구조는 어떵 생겻수과?(안에 구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춘권** 바닥, 바닥 너븐 돌을 장만헤 가지고 걸 주워다가 걸 우이 깔앗주게. 까는 거, 거 구들돌. 구들돌이엔도 허고 방돌이엔도 허고.(바닥, 바닥 넓은 돌을 장만해 가지고 걸 주워다가 걸 위에 깔았지. 까는 거, 거 구들돌. 구들돌이라고도 하고 '방돌'이라고도 하고.)

**김순자** 예. 구들돌 놓민 거기는 구들?(예. 구들돌 놓으면 거기는 '구들'?)

**고춘권** 으. 구들. 이런 방에.(으. '구들'. 이런 방에.)

**김순자** 방을 여기선 구들이엔 허는 거라예?(방을 여기선 '구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고춘권** 으, 다 구들.(으, 다 '구들'.)

**김순자** 구들을 멧 개 멘들아마씨, 삼간집 허젠 허민?(방은 몇 개 만들어요, 삼간집 하려고 하면?)

**고춘권** 삼간집?(삼간집?)

**김순자** 예.(예.)

**고춘권** 삼간집 허면은 보통 두 개. 겐디 옛날에는 두 개, 그 큰방 ᄒᆞ나허고 이런 모에 작은방쯤 이렇게 헷주게. 삼간 허면은 방, ᄒᆞᆫ 칸 방, ᄒᆞᆫ 칸은 마루, ᄒᆞᆫ 칸은 부엌, 정지. 정지, 부엌칸.(삼간집 하면 보통 두 개. 그런데 옛날에는 두 개, 그 큰방 하나하고 이런 모에 작은방쯤 이렇게 했지. 삼간 하면 방, 한 칸 방, 한 칸은 마루, 한 칸은 부엌, 부엌. 부엌, 부엌간.)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정지칸이엔, 정지칸이엔도 허고 부엌칸이엔도 허고. 부엌칸이엔 허는 거 표준말이고, 이딧 말로 우리 제줏말로 정지.(부엌간이라고, 부엌간이라고도 하고 부엌간이라고도 하고. 부엌간이라고 하는 거 표준말이고, 여기 말로 우리 제줏말로 '정지'.)

**김순자** 게민 정지에 허게 뒈민 솟도 안치고?(그럼 부엌에 하게 되면 솥도 앉히고?)

**고춘권** 어. 건 솟덕.(어. 건 봇돌.)

**김순자** 솟은 멧 개나?(솥은 몇 개나?)

**고춘권** 솟덕 다 돌로. 것도 돌 헤여근에 그 저 석수가 다 까깡. 자귀로 까까근에 다 그 솟덕 놔근에 솟 앚졋주.(봇돌 다 돌로. 것도 돌 해서 그 저 석수가 다 깎아서. 자귀로 깎아서 다 그 봇돌 놔서 솥 앉혔지.)

**김순자** 솟덕은 멧 개 앚지는 거?(봇돌은 몇 개 앉히는 거?)

**고춘권** 세 개. ᄒᆞ나에 세 개.(세 개. 하나에 세 개.)

**김순자** ᄒᆞ나에 세 개씩?(하나에 세 개씩?)

**고춘권** 으. ᄒᆞ나에 세 개 앚져야지, 두 개 앚지젠 허면은 이제 그 그 다섯 개, 요섯 개 이렇게 들어가주.(으. 하나에 세 개 앉혀야지, 두 개 앉히려고 하면 이제 그 그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지.)

**김순자** 연결허멍예?(연결하면서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솟은 보통 멧 개 앚져수과?(솥은 보통 몇 개 앉혔습니까?)

**고춘권** 솟은 거 훈이 없어. 가정이 쪼금 잘사는 딘 서너너 개 다섯 개ᄁᆞ장도 앚지고. 경 안헌 딘 이제 그 두 개 정도. 밥허는 솟 ᄒᆞ나, 또 큰솟은 이제 그 뭐 좀 큰 거 숢을 때, 제서 때 ᄀᆞ튼 때나 사용허는 큰솟 ᄒᆞ나. 항상 쓰는 밥솟 ᄒᆞ나. 또 국솟, 국솟ᄁᆞ장 다 출리는 딘 ᄒᆞ쏠 낫은 펜이고 경 안허는 딘 냄비 ᄀᆞ튼 거 그 헤근에 국 끌려 먹고 출레[1], 출레 반찬 지져 먹는 거. 반찬 거 출레.(솥은 거 한이 없어. 가정이 조금 잘사는 덴 서너네 개, 다섯 개까지도 앉히고. 그렇지 않은 덴 이제 두 개 정도. 밥하는 솥 하나, 또 큰솥은 이제 그 뭐 좀 큰 거 삶을 때, 제사 때 같은 때나 사용하는 큰솥 하나. 항상 쓰는 밥솥 하나. 또 국솥, 국솥까지 다 차리는 덴 조금 나은 편이고 그렇지 않은 덴 냄비 같은 거 그 해서 국 끓여서 먹고, '출레', '출레' 반찬 지져 먹는 거. 반찬 거 '출레'.)

**김순자** 예.(예.)

**고춘권** 짠 거. 이 저 자리 ᄀᆞ튼 거 무슨 고기 거튼 거, 반찬 멘들앙 출레 멘들앙 먹는 거.(짠 거. 이 저 자리돔 같은 거 무슨 고기 같은 거, 반찬 만들어서 '출레' 만들어서 먹는 거.)

**김순자** 출레 멘들아 먹는 거예. 게난 그 솟 일름도 다 이십니까? 젤 큰솟은 뭐렌 부릅니까?('출레' 만들어 먹는 거요. 그러니까 그 솥 이름도 다 있습니까? 젤 큰 솥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춘권** 그냥 뭐 밥솟. 보통 밥솟. 또 젤 우이 큰솟은 건 그냥 큰솟이엔 헷주, 뭐 무신 훈엇이 벨난 뭐.(그냥 뭐 밥솥. 보통 밥솥. 또 젤 위에 큰솥은 건 그냥 큰솥이라고 했지, 뭐 무슨 한없이 별난 뭐.)

**김순자** 예, 그건 엇고.(예, 그건 없고.)

**고춘권** 머력솟이엔도 허고, 그 우에.('머력솥'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김순자** 뭐마씨?(뭐요?)

**고춘권** 머력솟. 젤 우에 앚지는 거니까. 우에 큰솟 앚지고 그다음에 밥솟, 그다음에 국솟 헤 가지고 건 우에 앚지는 거니까. 그 웃머리에. 웃머리에 앚지는 거난

1) '출레'는 짠 음식을 말한다.

머력솟이엔도 허고 큰솟이엔도 허고.(‘머력솥’. 젤 위에 앉히는 거니까. 위에 큰솥 앉히고 그다음에 밥솥, 그다음에 국솥 해 가지고 건 위에 앉히는 거니까. 그 윗머리에. 윗머리에 앉히는 거니까 ‘머력솥’이라고도 하고 큰솥이라고도 하고.)

**김순자** 머력솟?(‘머력솥’?)

**고춘권** 으. 경헷주게.(으. 그랬지.)

**김순자** 게민 그 머력솟은 보통 그 저 가메로 앚집니까?(그럼 그 ‘머력솥’은 보통 그 저 가마로 앉힙니까?)

**고춘권** 으, 그 가메, 가메 역활을 허는 거주. 아니 솟이 똑ᄀᆞ튼 모냥에 건데 그 솟이 큰솟이 잇어.(으, 그 가마, 가마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 솥이 똑같은 모양에 건데 그 솥이 큰솥이 있어.)

**김순자** 아, 큰솟이 잇어예?(아, 큰솥이 있어요?)

**고춘권** 으, 저 육지 모냥으로, 육지는 저 소고기도 딸리고 뭐 허니까 큰 가메에 앚지주만은 여긴 그런 가메 ᄀᆞ튼 건 보통 부엌엔 안 앚지주게. 보통 큰솟도 보통 작은솟 배, 배 정도는 크니까게.(으, 저 육지 모양으로, 육지는 저 소고기도 달이고 뭐 하니까 큰 가마에 앉히지만 여긴 그런 가마 같은 건 보통 부엌엔 안 앉히지. 보통 큰솥도 보통 작은솥 배, 배 정도는 크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큰솟도 여러 가지난. ᄒᆞ쏠 낫게 사는 디, 이 저 부잣집에 노비나 많이 그 저 헤영 일허고 뭐 허는 딘 솟도 큰솟이 잇어사 뒈니까. 보통 때보단도 그런 때 쓰는 건 큰솟이 잇어사주게.(큰솥도 여러 가지니까. 조금 낫게 사는 데, 이 저 부잣집에 노비나 많이 그 저 해서 일하고 뭐 하는 덴 솥도 큰솥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때보단도 그런 때 쓰는 건 큰솥이 있어야지.)

**김순자** 그거를 머력솟이렌 헌 거예?(그거를 ‘머력솥’이라고 한 거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솟 앚지고, 옛날 정지에 놓는 거 또 뭐 뭐 잇엇수과?(솥 앉히고, 옛날 부엌에 놓는 거 또 뭐 뭐 있었습니까?)

**고춘권** 살레.(찬장.)

**김순자** 살레예.(찬장요.)

**고춘권** 살레 저디 저 그릇 놓는 것ᄀᆞ라 뭐렌 헤?(찬장 저기 저 그릇 놓는 것보고 뭐라고 해?)

**김순자** 요즘은 찬장.(요즘은 찬장.)

**고춘권** 찬장, 찬장 경헷주게. 옛날엔 살레.(찬장, 찬장 그랬었지. 옛날엔 '살레'.)

**김순자** 게민 살레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마씨?(그럼 찬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고춘권** 건 이 저 옛날엔 땅바닥에 이 저 부엌은 땅바닥이니까, 밑에. 요즘은 세멘을 헷주만은 그땐 그대로 흑바닥 그대로니까게. 게난 이 노프게 헷지. 밑에 발, 발이 이 정도 노프게 헷주.(건 이 저 옛날엔 땅바닥에 이 저 부엌은 땅바닥이니까, 밑에. 요즘은 시멘트를 했지만 그땐 그대로 흙바닥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 높게 했지. 밑에 발, 발이 이 정도 높게 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비가 오라 가지고 물이 들어도, 물이 들어도 줌기지 않을 정도로 발 노프게 헤서. 부엌은, 이 마리는 노프게 헷주만은 부엌은 그대로 땅바닥이난 낮찹거든. 비가 크게 오민 거기 물이 들거든. 게난 물 올르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는 노프게시리 발을 헤 가지고 이 우에 그릇 놀 딜 멘들앗주게.(그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들어도, 물이 들어도 잠기지 않을 정도로 발 높게 해서. 부엌은, 이 마루는 높게 했지만 부엌은 그대로 땅바닥이니까 낮거든. 비가 크게 오면 거기 물이 들거든. 그러니까 물 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는 높게끔 발을 해 가지고 이 위에 그릇 놓을 델 만들었지.)

**김순자** 예, 경헨 그릇 놓고예. 물 놓는 디는 무시거렌 헤?(예, 그래서 그릇 놓고요. 물 놓는 데는 무엇이라고 해?)

**고춘권** 물항. 항을 놓아 가지고 물 질어당 그디 비왓다근에 그디 거 거리멍 이제 밥헤 먹고 뭐 허는 거. 또 장 담앙 장 허는 건 장항.(물독. 항아리를 놓아 가지고 물 길어다가 거기 부었다가 거기 거 뜨면서 이제 밥해 먹고 뭐 하는 거. 또 장 담가서 장 하는 거. 또 장 담가서 장 하는 건 장독.)

**김순자** 장항. 장항은 어디에 놔마씨?(장독. 장독은 어디에 놔요?)

**고춘권** 어?(어?)

**김순자** 장항은 어디에 놉니까?(장독은 어디에 놉니까?)

**고춘권** 아, 장항은 장항은 밖에 놧주게, 밖에. 밖에 놩 주지 씌왕. 주지엔 헌 건 새. 집 이는 새로 거 여껴 가지고 여껑 그 물 안 들게시리 헤야 뒈니까.(아, 장독은 장독은 밖에 놨지, 밖에. 밖에 놔서 주저리 씌워서. 주저리라고 한 건 띠. 집에는 띠로 거 엮어 가지고 엮어서 그 물 안 들게끔 해야 되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저 뭐이니 장테, 항 뚜껑 더끄지만은 경헤도 그 우이 주질 더껏주. 게난 요새는 요새는 그 항 사기 뚜껑 닫앗지만은 그, 그때 옛날엔 거 안 더껑 그대로 주지 멘들앙 거 씌왓어. 그자 물만 안 들게.(저 뭐니 장태, 항아리 뚜껑 덮지만 그래도 그 위에 주저릴 덮지. 그러니까 요새는 요새는 그 항아리 사기 뚜껑 닫았지만 그, 그때 옛날엔 거 안 덮고 그대로 주저리 만들어서 거 씌웠어. 그저 물만 안 들게.)

**김순자** 아.(아.)

**고춘권** 경헤야 공기도 잘 통허고 장맛 좋고.(그래야 공기도 잘 통하고 장맛 좋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딱 봉헤 불면은 공기가 통허지 안허면은 벤질 들어가지고 맛이 엇거든.(딱 봉해 버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변질 들어가지고 맛이 없거든.)

**김순자** 게민 비 올 땐 어떵헤마씨?(그럼 비 올 땐 어떡해요?)

**고춘권** 그냥 비 올 땐 물 안 들게 저 새로 여꺼 가지고. 여껑 물 안 들게 영 헹 씌왓다가 걷어 불고 허게끄름 멘들아 가지고.(그냥 비 올 땐 물 안 들게, 저 새로 엮어 가지고. 엮어서 물 안 들게 이렇게 해서 씌웠다가 걷어 버리고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김순자** 별도에 장테는 더끄지 안헨마씨?(별도에 장태는 덮지 않았어요?)

**고춘권** 그 장텡이 거 더껑 그거 씌우는 수도 잇고 장텡이 안 씌와도 거 더끄민 관계엇어.(그 장태 거 덮어서 그거 씌우는 수도 있고 장태 안 씌워도 거 덮으면 관계없어.)

**김보향** 아, 주지 씌우민 비 안 드니까.(아, 주저리 씌우면 비 안 드니까.)

**고춘권** 게난 벳 난 땐 역불 걸 걷어 가지고 걷어 가지고 벳 맞게시리 허거든.(그러니까 볕 난 땐 일부러 걸 걷어 가지고 걷어 가지고 볕 맞게끔 하거든.)

**김순자** 게민 삼춘 그거 장항이잖아예. 게믄 뒌장 항도 경허고 물장 항도 다 그렇게

다 주젱이를 씌운 거라예?(그럼 삼촌 그거 장독이잖아요. 그럼 된장 항아리도 그렇게 간장 항아리도 다 그렇게 다 주저리를 씌운 거지요?)

**고춘권** 으, 그런 식으로 허주.(으, 그런 식으로 하지.)

**김순자** 게민 삼춘 김치 헐 땐 어떵 헷수과?(그럼 삼춘 김치 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고춘권** 김치?(김치?)

**김순자** 예, 겨울에 김치?(예, 겨울에 김치?)

**고춘권** 옛날에 경 김치를 제라허게 경 출리지 못헷주게. 요 중간에 우리 시대에 나가지고 김치를 헷지, 우리 부모네 정도는 뭐 김치를 그때 그때 헤 먹엇주.(옛날에 그렇게 김치를 제대로 그렇게 차리지 못했지. 요 중간에 우리 시대에 되어서 김치를 했지, 우리 부모네 정도는 뭐 김치를 그때 그때 해 먹었지.)

**김순자** 그때 그때.(그때 그때.)

**고춘권** 그자 우영밧에, 우영에 무우도 싱그고 배추 갈앗단 그자 그 캐어근에 요새 그거 허민 뭐 겉절이 식으로 그렇게 헹 먹엇주만은. 우리 시대 나가지고 저 김치를 담앗는데, 오가리 쪼그만헌 것에 헤근에 담앙 뭐 헷주. 요새 모양으로 야단스럽게 경 허덜 안허연.(그저 터앝에, 터앝에 무도 심고 배추 갈았다가 그저 그 캐어서 요새 그거 하면 뭐 겉절이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었지만. 우리 시대 되어서 저 김치를 담갔는데, '오가리' 조그마한 것에 해서 담가서 뭐 했지. 요새 모양으로 야단스럽게 그렇게 하질 않아.)

**김순자** 삼춘네는 땅 팡 짐치항 묻어 보지 안 헨마씨?(삼촌네는 땅 파서 김칫독 묻어 보지 않았어요?)

**고춘권** 우린 그런, 그런 그렇게ᄀᆞ장은 안 헤 보고.(우린 그런, 그런 그렇게까지는 안 해 보고.)

**김순자** 예. 삼춘 아까 오가리, 이 오가리는 어떤 걸 오가리엔 허는 것과?(예. 삼춘 아까 '오가리', 이 '오가리'는 어떤 걸 '오가리'라고 하는 겁니까?)

**고춘권** 오가린 항 족은 거. 족은 항을 오가리엔 허는 거주게. 부리도 족고. 건이 장물 거튼 것도 똘랑 놓고 또 이 멜첫 거튼 거 담곡 허는, 놓고 거 작은 걸 오가리엔 헷주게.('오가리'는 항아리 작은 거. 작은 항아리를 '오가리'라고 하는 거지. 부리도 작고. 건 간장 같은 것도 따라서 넣고 또 이 멸치젓 같은 거 담고 하는, 넣고 거 작은 걸 '오가리'라고 했지.)

**김순자** 작은 거예.(작은 거요.)

**고춘권** 이 부리 이렇게 헤 가지고 오므라드는 족은 그릇을 오가리엔 헷주.(이 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오므라드는 작은 그릇을 '오가리'라고 했지.)

**김순자** 게민 그 오가리는 육지 항이우과?(그럼 그 '오가리'는 육지 항아리입니까?)

**고춘권** 육지항도 잇고 대정항도 잇고.(육지항아리도 있고 대정항아리도 있고.)

**김순자** 대정항도 오가리엔 골아서예?(대정항아리도 '오가리'라고 말했지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게민 여기선 망데기렌 말은 안 골읍니까?(그럼 여기선 '망데기'라는 말은 안 합니까?)

**고춘권** 망데기, 이디선 망데기엔은. 망데기니 저 서쪽 사름덜이 망데기, 망데기 헷주게.('망데기', 여기선 '망데기'라고는. '망데기'니 저 서쪽 사람들이 '망데기', '망데기' 했지.)

**김순자** 서쪽에서 망데기라고 허는 거를 이쪽에선 오가리라고.(서쪽에서 '망데기'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선 '오가리'라고.)

**고춘권** 망데기엔 허는 말은.('망데기'라고 하는 말은.)

**김순자** 예, 예. 여기선 안 쓰는 거라예?(예, 예. 여기선 안 쓰는 거네요?)

**고춘권** 망데기엔 허는 거 앎은 허주. 우리가 오가리가 이거 망데기다 허는 거는 아는데 여기서 망데기엔 헌 말은 잘 쓰지 아녀지.('망데기'라고 하는 거 알기는 하지. 우리가 '오가리'가 이거 '망데기'다 하는 거는 아는데 여기서 '망데기'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지.)

**김순자** 맞수다. 우리가 영 동쪽 조사허면 다 오가리엔 헤예.(맞습니가. 우리가 이렇게 동쪽 조사하면 다 '오가리'라고 해요.)

**김보향** 구좌도 오가리.(구좌도 '오가리'.)

**고춘권** 이디선 오가리.(여기선 '오가리'.)

**김순자** 겨난 그 멜첫 자리젓도 그 오가리에 허잖아예?(그러니까 그 멸치젓 자리젓도 그 '오가리'에 하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배 좀 불르고. 예, 예. 삼춘 굴묵[2]은 어디 멘듭니까?(배 좀 부르고. 예, 예. 삼촌 '굴묵'은 어디 만듭니까?)

**고춘권** 하여튼 구들 신 딘 굴묵, 방을 떼젠 허면은 거 옆이 모로, 모에다가 그 아궁일 멘들앗주게. 아궁일 멘들앙 거기 그 저 몬지락.(하여튼 구들 있는 덴 '굴묵', 방을 떼려고 하면 거 옆에 모로, 모에다가 그 아궁일 만들었지. 아궁일 만들어서 거기 저 먼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저 소 질루멍 풀 줘 나민 거기 잔 몬지락 그것도 나오고. 우리가 들에 나가근에 또 그 말똥이나 소똥 ᄆᆞ른 거 그거 줏어당 그거 담앙. 원 그것이 최고라.(이 저 소 기르면서 풀 주고 나면 거기 잔 먼지 그것도 나오고. 우리가 들에 나가서 또 그 말똥이나 소똥 마른 거 그거 주워다가 그거 담아서. 원 그것이 최고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불이 오래 가거든. 오래 가고, 또 소남밧디 가면은 솔똥 그 솔똥 떨어졍 헌 거, 몰른 거. 그것도 주워다근에 거 때고 경헷주.(불이 오래 가거든. 오래 가고, 또 소나무밭에 가면 솔방울 떨어져서 한 거, 마른 거. 그것도 주워다가 거 때고 그랬지.)

**김순자** 게난 굴묵이 보면 보통 밖에 뒈는 데도 잇지만은 굴묵이 방치록 이렇게 몬지락도 담아 놓게 허는 공간이 있잖아예?(그러니까 '굴묵'이 보면 보통 밖에 되는 데도 있지만 '굴묵'이 방처럼 이렇게 먼지도 담아 놓게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고춘권** 으, 공간 멘들아야주게.(으, 공간 만들어야지.)

**김순자** 그런 공간도 ᄯᅩ로 부릅니까?(그런 공간도 따로 부릅니까?)

**고춘권** 그냥 굴묵이엔 허주, 굴묵.(그냥 '굴묵'이라고 하지, '굴묵'.)

**김순자** 옛날 거기 둑덜도 다 그레, 둑통도 헤 놓지 안 헙니까?(옛날 거기 닭들도 다 그리, 닭장도 해 놓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 이 저 둑막을 ᄯᅩ로 멘들지 안허영, 대부분은 둑막을 ᄯᅩ로 멘들앗주만은

2)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거기 그 굴묵에 허면은 그 불껑 놓는 우에 덕막을 멘들면 똥을 그디 싸면은 걸름을, 가치 서꺼근에 걸름도 허곡. 베낏디 덕막 허면은 또시 끗어내영 그걸 이제 불껑에 서껑 걸름은 허는데 그디 허면 자동적으로 그디 서꺼지거든.(으. 이 저 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대부분은 닭장을 따로 만들었지만 거기 그 '굴묵'에 하면 그 재 놓는 위에 닭장을 만들면 똥을 거기 싸면 거름을, 같이 섞어서 거름도 하고. 밖에 닭장 하면 또 끌어내어서 그걸 이제 재에 섞어서 거름은 하는데 거기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 섞이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것도 좀 머리 쓰는 거라.(것도 좀 머리 쓰는 거야.)

**김순자** 예, 예. 그추룩 헹 허고. 그다음에 방이 아까 여기 허고. 그 구들에는 꼭 시렁을 멘들지 안 헷수과?(예, 예. 그처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이 아까 여기 하고. 그 방에는 꼭 벽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춘권** 으, 시렁. 이 저 책갑. 그 저 책 놓는 건 책갑, 옷 놓는 건 저 뭐엔 허느니?(으, 벽장. 이 저 책갑. 그 저 책 놓는 건 책갑, 옷 놓는 건 저 뭐라고 하니?)

**김순자** 옷 놓는 건 궤.(옷 놓는 건 궤.)

**고춘권** 으, 궤 놓젠 허면은 그 뭐 시렁을 만들어야 뒈니까게. 게난 공간을 이런 식으로게. 그 공간을 좀 절약허기 위해 가지고 굴묵, 굴묵 쪽으로 영 나가게시리 헤근에 그 시렁 멘들앙 궬 놧주게.(으, 궤 놓으려고 하면 그 뭐 벽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굴묵', '굴묵'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해서 그 벽장 만들어서 궬 놨지.)

**김순자** 게난 그 방이, 구들이 두 개일 수도 잇고 하나일 수도 잇잖아예?(그러니까 그 방이, 방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여기 고팡은 어디 멘들앗수과?(그다음에 여기 고방은 어디 만들었습니까?)

**고춘권** 이 고팡도 대부분 구들 신 쪽에 이 고팡을 멘들앗주. 이 고팡을 허단 보면은 방 멘들 디가 없어, 이 삼간집에는.(이 고방도 대부분 방 있는 쪽에 이 고방을 만들었지. 그 고방을 하다가 보면 방 만들 데가 없어. 이 삼간집에는.)

**김순자**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춘권** 게난 이 방이 방 ᄒᆞ나 허고 고팡 허고 허단 보민 혼쪽에는 물항, 살레 그거 놓젠 허면은 또 방이, 멘들 공간이 엇고 허단 보면은. 보통은 방이 ᄒᆞ나, ᄒᆞ나 베끼 멘들 수가 엇엇주게. 게난 사 칸 정도 뒈야 방 ᄒᆞ나 멘들 공간이 생겻주게.(그러니까 이 방에 방 하나 하고 고방 하고 하다가 보면 한쪽에는 물독, 찬장 그거 놓으려고 하면 또 방이, 만들 공간이 없고 하다가 보면. 보통은 방이 하나,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사 칸 정도 돼야 방 하나 만들 공간이 생겼지.)

**김순자** 게민 이 시렁은 방마다 다 시렁은 헤마씨?(그럼 이 벽장은 방마다 다 벽장은 해요?)

**고춘권** 시렁은 허지 안헹은 궬 못 놓니까게.(벽장은 하지 않고는 궬 못 놓으니까.)

**김순자** 예, 예. 게믄 여기 삼춘 그 문들은 돌 때 옛날은 다 지게문 돌지 안헷수과 예?(예, 예. 그럼 여기 삼촌 그 문들은 달 때 옛날은 다 지게문 달지 않았습니까?)

**고춘권** 으. 거 방에 건 쌀문. 그 마루 앞에 한간에 ᄃᆞ는 건 대문.(으. 거 방에 건 살문. 그 마루 앞에 '한간'에 다는 건 '대문'.)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거 큰문이엔 헌 문이주, 대문. 이 저 요새, 육지나 요새는 저 올레에 허는 걸 대문이엔 헷주만은 그땐이 방에, 젤 큰 문이니까 대문.(거 큰문이라고 하는 문이지, '대문'. 이 저 요새, 육지나 요새는 저 '올레'에 하는 걸 대문이라고 했지만 그땐 방에, 젤 큰문이니까 '대문'.)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또 창문, 건 족은문 이 저 반드시 족은문을 헷주게. 거 호령창[3]이라고 헤 가지고 옛날 양반집에 딱 그 족은문 옆에 항상 어른이 앉아 가지고 야, 이리 와라 헤근에 부를 때, 그 문을 호령창, 호령창이엔 헷주게.(또 창문, 건 작은문이 저 반드시 작은문을 했지. 거 '호령창'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양반집에 딱 그 작은문 옆에 항상 어른이 앉아 가지고 야, 이리 와라 해서 부를 때, 그 문을 '호령창', '호령창'이라고 했지.)

3) '호령창'은 마루로 들어가는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문 또는 작은 창을 말한다.

**김순자** 게믄 삼춘 마루에 다는 거를 대문이잖아예?(그럼 삼촌 마루에 다는 거를 '대문'이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마루에 대문 옆에 족은문도 둡니까?(마루에 대문 옆에 작은문도 답니까?)

**고춘권** 으, 족은문.(으, 작은문.)

**김순자** 그게 호령창?(그게 '호령창')

**고춘권** 으, 창문, 창문이엔 헤근에 거기에 영, 열앙 영 보는 거 창문이엔 헷주게. 게난 방문, 방문 밖에 밖에 쪽에 허는 것ᄀᆞ라도 창문이라고 헷어.(으, 창문, 창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 창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방문, 방문 밖에 밖의 쪽에 하는 것보고도 창문이라고 했어.)

**김순자** 예.(예.)

**고춘권** 창문. 또 이디 ᄃᆞ는 건 샛문.(창문. 또 여기 다는 건 샛문.)

**김순자** 샛문.(샛문.)

**고춘권** 이 마루에 이 새에 ᄃᆞ는 건, 마루광 방 새에 ᄃᆞ는 거니까 샛문.(이 마루에 이 새에 다는 건, 마루랑 방 새에 다는 거니까 샛문.)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저딘 밖을 내다보, 내다보고 출입허고 허니까 건 창문.(저긴 밖을 내다보, 내다보고 출입하고 하니까 건 창문.)

**김순자** 창문.(창문.)

**고춘권** 이건 대문.(이건 '대문'.)

**김순자** 대문.('대문'.)

**김보향** 여기 창문으로도 사름 드나들고 헤마씨, 대문 옆이 창문으로?(여기 창문으로도 사람 드나들고 해요, '대문' 옆에 창문으로?)

**고춘권** 으, 글로도 드나들주.(으, 글로도 드나들지.)

**김보향** 예, 호령창이라고 아까 불럿던 데. 드나들기도 허고예?(예, '호령창'이라고 아까 불렀던 데. 드나들기도 하고요?)

**고춘권** 으, 문을 족게만 멘들앗지 글로도 그.(으, 문을 작게만 만들었지 글로도 그.)

**김순자** 겐디 그 대문이나 호령창으로는 여자덜은 못 뎅기지 안헙니까?(그런데 그 '대문'이나 '호령창'으로는 여자들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고춘권** 여자덜은 대문으로도 못 뎅겻어. 여자덜은 부엌문으로 뎅겻지.(여자들은 '대문'으로도 못 다녔어. 여자들은 부엌문으로 다녔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여자덜은 반드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 한간에, 방에 올라왓주. 대문으론 원 큰일 나주.(여자들은 반드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 '한간'에, 방에 올라왔지. '대문'으론 원 큰일 나지.)

**김순자** 게난 삼춘, 마리를 한간이렌도 골앗수과, 여기서는?(그러니까 삼촌, 마루를 '한간'이라고도 말했습니까, 여기서는?)

**고춘권** 으, 한간게. 가운디 칸이니까 한간.(으, '한간'. 가운데 칸이니까 '한간'.)

**김순자** 상방, 옛날 상방을?(마루, 옛날 '상방'을?)

**고춘권** 상방, 큰방이엔, 웃방이엔 헌 것이 상방이거든, 상방.('상방', 큰방이라고, 윗방이라고 한 것이 '상방'이거든, '상방'.)

**김순자** 예, 그때는 마루가 그거엿어예?(예, 그때는 마루가 그거였지요?)

**고춘권** 요새는 마루방, 마루방 요샛말로 그거주. 이건 원래가 상방이주. 제일, 제일 큰방.(요새는 마루방, 마루방 요샛말로 그거지. 이건 원래가 '상방'이지. 제일, 제일 큰방.)

**김순자** 그래서 그 큰방을 한간이렌도 곧는 거라예?(그래서 그 큰방을 '한간'이라고도 말하는 거네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졋수다. 그러니까 삼춘 그 예전에는 여자들은 와서 부엌문으로 들어왕 아부지 나 왓수다 헹 헷덴 허멍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그 예전에는 여자들은 와서 부엌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 해서 했다고 하면서요?)

**고춘권** 아, 그렇지. 올라와근에 골아졋어? 이 부엌에 오라근에 이 상방광 부엌 새에 또 문이 잇거든. 게난 문 열앙 그자 얼굴이나 영 내밀앙 나 왓수다 허주.(아, 그렇지. 올라와서 말해졌어? 이 부엌에 와서 이 마루와 부엌 새에 또 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문 열어서 그저 얼굴이나 이렇게 내밀어서 나 왔습니다 하지.)

**김보향** 아, 올라오지도 안 헹.(아, 올라오지도 안 해서.)

**김순자** 올라오지도 못허게.(올라오지도 못하게.)

**강수경** 상방에 뒷문은 엇어낫수과?(마루에 뒷문은 없었습니까?)

**고춘권** 아, 뒷문도 잇엇주. 뒷문도 잇어 가지고 이 저 장항 ᄀᆞ튼 거 대부분 뒤에 놧주.(아, 뒷문도 있었지. 뒷문도 있어 가지고 이 저 장독 같은 거 대부분 뒤에 놨지.)

**김순자** 예. 게난 그 뒤에도.(예.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고춘권** 안, 안울이라고 헤 가지고 그 저 안튀엔 헷주, 안튀.(안, '안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저 '안튀'라고 했지, '안튀'.)

**김순자**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춘권** 안울이엔 헌 말이주, 안튀는. 게난 거기다가 장항도 놓고 또 거기에다가 나무 싱거 가지고 옛날 집에는 보통 나무 심겅 허면은 나무가 막 크거든.('안울'이라고 하는 말이지, '안튀'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독도 놓고 또 거기에다가 나무 심어 가지고 옛날 집에는 보통 나무 심어서 하면 나무가 아주 크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허면은 거기 춤[4]을 받앗어.(하면 거기 '춤'을 받았어.)

**김순자** 예.(예.)

**고춘권** 여긴 물 질어다가 그때는 먹을 때니까. 이제 그 비 오면은 그 물을 받을라고. 그 춤 멘들앙 남에 영 무꺼근에. 이제 저 관광지에 가면 다 그거 잇지 안허여, 그런 식으로.(여긴 물 길어다가 그때는 먹을 때니까. 이제 그 비 오면 그 물을 받으려고. 그 '춤'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저 관광지에 가면 다 그거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

**김순자**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춘권** 다 그런 식으로 헷주.(다 그런 식으로 했지.)

**김순자** 삼춘 그 춤 받젠 허면 춤은 무슨 걸로 멘들앗수과?(삼촌 그 '춤' 받으려고 하면 '춤'은 무슨 걸로 만들었습니까?)

**고춘권** 그 새로.(그 띠로.)

---

4) '춤'은 띠를 머리 땋듯이 땋아서 나무에 매달아 빗물 따위가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김순자** 새로 멘들고. 낭은?(띠로 만들고. 나무는?)

**고춘권** 남은, 이 남도 보통 돔박남. 그 돔박남이 최고라. 또 신남. 신남이엔 헌 것이 잇어. 신남도 여름, 빨간 여름 여는 남인데. 그것은 좀 그 낭이 여름, 열매가 좀 독이 잇고 냄새가 나주게.(나무는, 이 나무도 보통 동백나무. 그 동백나무가 최고야. 또 신나무. 신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신나무도 열매, 빨간 열매 여는 나무인데. 그것은 좀 그 나무가 열매, 열매가 좀 독이 있고 냄새가 나지.)

**김순자** 아, 신남은?(아, 신나무는?)

**고춘권** 으, 그건 혼엇이 좋지 안허다고 헤 가지고, 것도 허긴 허는데 젤 좋은 것이 돔박남이라. 돔박남이 젤 깨끗허주.(으, 그건 한없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것도 하긴 하는데 젤 좋은 것이 동백나무야. 동백나무가 젤 깨끗하지.)

**김순자** 그 춤 받는 밑에는 무시거 놓아?(그 '춤' 받는 밑에는 무엇 놓아?)

**고춘권** 그 항, 항. 건 항상 받앙 내부는 거여.(그 항아리, 항아리. 건 항상 받아서 내버리는 거야.)

**김순자** 아. 비 오면.(아. 비 오면.)

**고춘권** 비 오면 뭐 자동적으로 거기 물.(비 오면 뭐 자동적으로 거기 물.)

**김순자** 그 춤물은 뭐 헐 때 써마씨?(그 '춤물'은 뭐 할 때 써요?)

**고춘권** 그거 뭐 먹음도 허고. 거 먹엇주, 대부분 먹엇주.(그거 뭐 먹기도 하고. 거 먹었지, 대부분 먹었지.)

**김순자** 게난 이 수산도 물 수라도 물이 귀헷구나예?(그러니까 이 수산도 물 수라도 물이 귀했군요?)

**고춘권** 아이고, 물 귀헷주.(아이고, 물 귀했지.)

**김순자** 이제 또 마루에 영 허면 옷 걸젠 허면 박아 놓는 것덜을 뭐엔 헙니까?(이제 또 마루에 이렇게 하면 옷 걸려고 하면 박아 놓는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박아 놓는 거, 공젱이[5]. 이젠 걸이, 옷걸이엔 요샌 허지 안허여. 그 공젱이.(박아 놓는 거, '공젱이'. 이제 걸이, 옷걸이라고 요샌 하지 않아. 그 '공젱이'.)

---

5) '공젱이'는 나뭇가지나 대, 또는 못 등을 가늘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안의 벽 같은 데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한 가지이다. 지역에 따라서 '공장'이라고도 한다.

**김순자** 옛날 공젱이 박고예. 그다음에 대나무로 헹 영 박는 거는? 대나무 양쪽에 메여근에 영 걸치지 안헙니까, 방이라든가 이런 데?(옛날 '공젱이' 박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박는 거는? 대나무 양쪽에 매서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 방이라든가 이런 데?)

**고춘권** 경헌디 그런 거, 경 걸치는 건 벨로 이 저 그건 뭐 엇엇고.(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걸치는 건 별로 이 저 그건 뭐 없었고.)

**김보향** 대나무 길게 메영 옷 거는 거 안 헷수과?(대나무 길게 매서 옷 거는 거 안 했습니까?)

**고춘권** 가끔 영 허는 디도 잇엇주.(가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지.)

**김순자** 훳대 그런 말 안 헷구나, 이디는예?(홧대 그런 말 안했구나, 여기는요?)

**고춘권** 안 헷어.(안 했어.)

**김순자** 삼춘 물항에 물 질어 오젠 허면 무시거가 필요헷수과?(삼촌 물독에 물 길어 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고춘권** 허벅, 허벅허고 물구덕[6]이 필요헷주. 그건 뭐 반드시. 그건 어느 집이든 그건 뭐 잇엇주. 것도 보통 여자가 혼 열 설 넘어가면은 우선은 그 물 질레 다녓주게. 게민 허벅도 족은 허벅 헤근에 그 구덕도 허벅에 맞추왕 족은 거 헹. 게난 여저는 보통 열 설 넘어가면은 으레 물 질레 어멍이영 ᄀᆞ치 뎅겻주.(허벅, 허벅하고 '물구덕'이 필요했지. 그건 뭐 반드시. 그건 어느 집이든 그것 뭐 있었지. 것도 보통 여자가 한 열 설 넘어가면 우선은 그 물 길러 다녔지. 그럼 동이도 작은 동이 해서 그 바구니도 동이에 맞춰서 작은 거 해서. 그러니까 여자는 보통 열 살 넘어가면 으레 물 길러 어머니랑 같이 다녔지.)

**김순자** 예, 게근에 물팡[7]도 집 앞이 멘들아 놓고.(예, 그래서 '물팡'도 집 앞에 만들어 놓고.)

**김보향** 족은 허벅 불르는 일름 모르쿠과?(작은 동이 부르는 이름 모르겠습니까?)

**고춘권** 저 거 족은 허벅 일름이 잇주, 대바지.(저 거 작은 동이 이름이 있지, '대바지'.)

---

6) '물구덕'은 물동이인 '허벅'을 넣어 지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7) '물팡'은 물을 길러 다니는 동이를 담은 '물구덕'을 올려놓는 대를 말한다.

**김순자** 대바지. 겐 삼춘은 물 질레는 안 뎅겨봅디가?('대바지'. 그래서 삼촌은 물 길러는 안 다녀 봅디까?)

**고춘권** 어?(어?)

**김순자** 삼춘은 물 질레 안 뎅겨 봔?(삼촌은 물 길러 안 다녀 봤어요?)

**고춘권** 우린 물 질레 뎅길 수가 엇주게.(우린 물 길러 다닐 수가 없지.)

**김순자** 남자는 안 허고.(남자는 안 하고.)

**고춘권** 여기선 남저는 안 허여.(여기선 남자는 안 해.)

**김순자** 물지게로는 안 헤 봣수과?(물지게로는 안 해 봤습니까?)

**고춘권** 그런 것도 안 허고. 게난 그 시절에 여자덜이 그렇게 고생헷주게.(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여자들이 그렇게 고생했지.)

**김보향** 삼춘 마리에 추울 때 뭐 놓는 거 엇어낫수과?(삼촌 마루에 추울 때 뭐 놓는 거 없었습니까?)

**고춘권** 아, 거 저 초집에 혼쪽에, 혼쪽에 가운데 이 저 의자 논 디만이 헤근에 부섭, 부섭을 박앗주게. 부섭을 큰 돌 헤 가지고 그걸 파근에 거기에 놓는 디도 잇엇고. 그걸 허젠 허민 돈도 많이 들고 허니까 건 돈 잇은 사름덜이 허는 거고. 그자 얇은 돌 헤다가 네 귀에 영 박앙 그 부섭 멘들앙 거기서 남, 남불 살롸.(아, 거 저 초집에 한쪽에, 한쪽에 가운데 이 저 의자 놓은 데만 해서 '부섭', '부섭'을 박았지. '부섭'을 큰 돌 해 가지고 그걸 파서 거기에 놓는 데도 있었고. 그걸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저 얇은 돌 해다가 네 귀에 이렇게 박아서 그 '부섭'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 나무불 살라서.)

**김순자** 남불 살롸근에?(나뭇불 살라서?)

**고춘권** 남불 살롸 그디 이 동네 사름덜 놀레 오민, 으레 동네 사름덜 놀레 오민 방에 앚음이엔 헌 건 벨로 엇엇주게. 그자 부섭에, 부섭에 돌아앚앙 여저고 남저고 ᄀᆞ치 앚앙 거기서 이 감저도 짇엉 구웡 먹고.(나뭇불 살라서 거기 이 동네 사람들 놀러 오면, 으레 동네 사람들 놀러 오면 방에 앉음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었지. 그저 '부섭'에, '부섭'에 돌아앉아서 앉아서 여자고 남자고 같이 앉아서 거기서 이 고구마도 묻어서 구워 먹고.)

**김순자** 으. 게난 그 부섭에 영 앚앙. 게난 그걸 정지에 부섭을 놓는 경우는 엇어마

씨?(으. 그러니까 그 '부섭'에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그걸 부엌에 '부섭'을 놓는 경우는 없어요?)

**고춘권** 정지에 부섭을 이 저 이간집[8]에, 이간집에는 방 칸허고 부엌 칸허고 칸이 두 개뿐이거든. 게난 그 정지에 멘들지 안허민 멘들 디가 엇주게. 게난 정지 혼쪽에 멘들앙 혼쪽에 솟 앚지고 혼쪽에 부섭 멘들앙 그 검질, 검질 꼴아근에 찝, 찝 꼴아근에 그냥 그디 앚앙 그디서. 게도 경헌 디서도 다 이 저 혼인 의논도 허고 벨 의논을 다 경헌 디 앚앙 허는 거주게. 소도리도 경헌 디서.(부엌에 '부섭'을 이 저 '이간집'에, '이간집'에는 방 칸하고 부엌 칸하고 칸이 두 개뿐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엌 만들지 않으면 만들 데가 없지. 그러니까 부엌 한쪽에 만들어서 한쪽에 솥 걸고 한쪽에 '부섭' 만들어서 그 검불, 검불 깔아서 짚, 짚 깔아서 그냥 거기 앉아서 거기서. 그래도 그런 데서도 다 이 저 혼인 의논도 하고 별 의논을 다 그러한 데 앉아서 하는 거지. 말전주도 그러한 데서.)

**김순자** 맞수다. 소도리도 경헌 디서 허고예. 삼춘 부섭, 여긴 피는 안 헨?(맞습니다. 말전주도 그러한 데서 하고요. 삼촌 '부섭', 여긴 피는 안 했어요?)

**고춘권** 어?(어?)

**김순자** 피농선 안 헤 봔?(피농산 안 해 봤어?)

**고춘권** 피농서, 우리도 피농서 헤 봣주.(피농사, 우리도 피농사 해 봤지.)

**김순자** 아, 삼춘네요.(아, 삼촌네요.)

**고춘권** 피는 어떤 밧디, 웨 피농사 허느냐 허면은 그때에는 지금보담도 더이 비가 자주 오고 이 저 물이 만앗어. 게민 그 물 앚는 밭에는이 그때는 조, 양석이 조 아니면 보리랏다 말야. 여름엔 조. 저을엔 보린데. 조가 안 뒈여, 물 앚는 밧데는 다 물에 녹아 불어 가지고. 겐디 피는 이건 물에 피해가 없어.(피는 어떤 밭에, 왜 피농사 하느냐 하면 그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비가 자주 오고 이 저 물이 많았어. 그럼 그 물 앉는 밭에는 그때는 조, 양식이 조 아니면 보리였다 말이야. 여름엔 조. 겨울엔 보린데. 조가 안 돼, 물 앉는 밭에는 다 물에 녹아 버려 가지고. 그런데 피는 이건 물에 피해가 없어.)

---

8) '이간집'은 칸이 두 개로 이루어진 집을 말한다.

**김순자** 아.(아.)

**고춘권** 건 물밧[9]디 잘 자라는 거야, 건.(건 '물밭'에 잘 자라는 거야, 건.)

**김순자**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춘권** 그 뿌리가 그 좋아 가지고, 이 나룩 모냥으로 뿌리가 워낙 좋으면은 그런 밧데 피를 볼리는[10] 거주.(그 뿌리가 그 좋아 가지고, 이 벼 모양으로 뿌리가 워낙 좋으면 그런 밭에 피를 가는 거지.)

**김순자** 예, 피 볼령예?(예, 피 갈아서요?)

**고춘권** 피 볼령 허민 또 피밥 맛이 잇어이. 하양허게이.(피 갈아서 하면 또 피밥 맛이 있어. 하얗게.)

**김순자** 게난 다른 덴 강 보면 피 여름에 허는 거니까 이거 몰리젠 허면 그 부섭에 불살롸 불살롸근에 우에 고리 헤근에 몰렷덴 헙디다.(그러니까 다른 덴 가서 보면 피 여름에 하는 거니까 이거 말리려고 하면 그 '부섭'에 불살라서 불살라서 위에 고리 해서 말렸다고 합디다.)

**고춘권** 어, 어. 이 저 옛날엔 그 비가 ᄌᆞ주 와 가지고 그이 눌엇다근에, 거 곧 헤 오면서 이제 그 딴 거 산디 ᄆᆞ멀 뭐 조 여라 가지, 여러 가지라 놓니까 겨울에 다 허질 못허여. 가을에.(어, 어. 이 저 옛날엔 그 비가 자주 와 가지고 그 가렸다가, 거 곧 해 오면서 이제 그 딴 거 밭벼 메밀 뭐 조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여 놓으니까 겨울에 다 하질 못해. 가을에.)

**김순자** 예.(예.)

**고춘권** 눌엉, 눌엇다가 새해 낭, 새해 낭 정월달, 이월달 뒈면은 그런 걸 이제 그 태작을 헤 가지고 도께로 태작허영.(가려서, 가렸다가 새해 돼서, 새해 돼서 정월달, 이월 되면 그런 걸 이제 그 타작을 해 가지고 도리깨로 타작해서.)

**김순자** 예, 그거는 이땅 또 혼 번 물어보고예. 게민 겨울에 여기 화리 같은 건 안 썻수과, 화리?(예, 그거는 이따가 또 한 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겨울에 여기 화로 같은 건 안 썼습니까, 화로?)

**고춘권** 화리엔 헌 건 이 저 방에, 방에 허는 화리가 잇고. 것도 부섭 엇인 디 또 이

9) '물밧'은 물이 잘 고이는 밭을 말한다.

10) '볼리다'는 표준어 '밟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피를 볼리다'에서 '볼리다'는 '(피) 씨를 뿌려 밟아 주다'는 의미다.

삼방에 놓는 거 화리 잇주. 돌로 멘들앙, 돌로 멘들앙 돌로 멘든 화리도 잇고 이 저 그대로 쒜로 멘든 화리도 나온 거 잇엇는데. 그 첨 정동화리엔 헤근에 부젯집이선 방에 놓는 화리, 거 보기 좋게 멘든 화리덜이 그때도 잇엇주게.(화로라고 하는 건 이 저 방에, 방에 하는 화로가 있고, 것도 '부섭' 없는데 또 이 마루에 놓는 거 화로 있지.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든 화로도 있고 이 저 그대로 쇠로 만든 화로도 나온 거 있었는데. 그 첨 청동화로라고 해서 부잣집에선 방에 놓는 화로, 거 보기 좋게 만든 화로들이 그때도 있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것이 화리랏주. 돌화리가 어떤 때 필요허느냐 허면, 제사 때에 적 굴 때에.(그것이 화로였지. 돌화로가 어떤 때 필요하냐 하면, 제사 때에 적 구울 때에.)

**김순자** 돌화리는 언제?(돌화로는 언제?)

**고춘권** 제사 때에 적 굴 때. 거기 불 살롸근에 적을. 요새는 그 저 후라이팬이나 뭣에 튀겻주만은 튀김이엔 헌 게 그맨 엇어. 저 반드시 이 바닷고기나 그 적을 허민 구웟주, 숫불에. 경허난 또 맛도 잇엇고. 요새 튀긴 것은 아멩 양념을 잘 헤도 튀긴 건 맛이 엇어. 우리도 꼭 이 제사 때에는 지금도 지금도이 그 숫불에 구웡 허주게.(제사 때에 적 구울 때. 거기 불 살라서 적을. 요새는 그 저 프라이팬이나 뭐에 튀겼지만 튀김이라고 하는 게 그맨 없어. 저 반드시 이 바닷고기나 그 적을 구웠지, 숯불에. 그러니까 또 맛도 있었고. 요새 튀긴 것은 아무리 양념을 잘 해도 튀긴 건 맛이 없어. 우리도 꼭 이 제사 때에는 지금도, 지금도 그 숯불에 구워서 하지.)

**김순자** 아, 삼춘네 집이 식게 먹으러 와사쿠다.(아, 삼촌네 집에 제사 먹으러 와야겠습니다.)

**고춘권** 으, 우린 숫도 잇고 화리도 제라헌 화리, 요새 신식 화리 그런 거 뭐 좋은 거 나오잖아. 관광지에 가면은 그런 디 잇주게. 다 모다 사서 구워 먹는 거.(으, 우린 숯도 있고 화로도 온전한 화로, 요새 신식 화로 그런 거 뭐 좋은 거 나오잖아. 관광지에 가면 그런 데 있지. 다 모여 서서 구워 먹는 거.)

**김보향** 게민 혼 번 솖아 놩 양념헹 굽는 거마씨?(그럼 한 번 삶고 나서 양념해서 굽

는 거예요?)

**고춘권** 으?(으?)

**김보향** 적 할 때 혼 번 숢앙 적꼬지에 끼와근에 굽는 거?(적 할 때 한 번 삶아서 적꼬치에 끼워서 굽는 거?)

**고춘권** 아니. 저 숢앙 군 것보단도 생으로 구워야 제라지게 그 맛이 좋거든.(아니. 저 삶아서 군 것보다도 생으로 구워야 제대로 그 맛이 좋거든.)

**김순자** 맞수다.(맞습니다.)

**김보향** 아예, 생으로.(아예, 생으로.)

**고춘권** 게난 그 웨 생으로 허냐 허민, 소고기는 꿰기 좋는데 뒈지고기는 그 껍질 가죽이 질겨가지고 꿰젠 허민 여자덜 뀀이 힘들어 허주만은. 게난 힘들건 숢앙 쉽게 헤 불라 헤근에, 거 숢는디 완전히 익게 숢아 불엉은.(그러니까 그 왜 생으로 하느냐 하면, 소고기는 꿰기 좋은데 돼지고기는 그 껍질 가죽이 질겨서 꿰려고 하면 여자들 꿰기가 힘들어 하지만. 그러니까 힘들건 삶아서 쉽게 해 버려라 해서, 거 삶는데 완전히 익게 삶아 버려서는.)

**김순자** 고기가 맛이 엇어예?(고기가 맛이 없어요?)

**고춘권** 맛이 엇주. 게난 속이 좀 붉은 짐이 잇게 숢아 가지고 그 꿰기만 좋게. 꿰기만 좋게 숢는 거주게.(맛이 없지. 그러니까 속이 좀 붉은 기운이 있게 삶아 가지고 그 꿰기만 좋게. 꿰기만 좋게 삶는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적 허는 사름도 그런 모든 거 알앙 헤야지, 그냥 그자 숢앙 허민 뒌다고 막 숢아 불민 맛이 엇주게. 그 고깃물이 다 우러나 불민.(적 하는 사람도 그런 모든 거 알아서 해야지, 그냥 그저 삶아서 하면 된다고 아주 삶아 버리면 맛이 없지. 그 육수가 다 우러나 버리면.)

**김순자** 맞수다. 그런 식으로 허고.(맞습니가. 그런 식으로 하고.)

**강수경** 적은 어르신이 안 뀀수과?(적은 어르신이 안 뀁니까?)

**고춘권** 어?(어?)

**강수경** 저기 여자 삼춘이 헤, 적?(저기 여자 삼촌이 해, 적?)

**고춘권** 옛날은 거 남자가 헷어. 우리 젊은 땐 건 으레 건 우리가 헷주게. 헌디 요새 신식 뒈니까 메느리들 그렇게 잘허여.(옛날은 거 남자가 했어. 우리 젊은 땐

건 으레 건 우리가 했지. 그런데 요새 신식 되니까 며느리들 그렇게 잘해.)

**김순자** 하하하.(하하하.)

**고춘권** 메느리덜 오기 시작허니까 이건, 적 험은 손 떼 불엇주. 느네가 알앙 헤 불라.(며느리들 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적 하기는 손 떼 버렸지. 너희가 알아서 해 버려라.)

**김순자** 삼춘 아까 돌화리 잇덴 헷잖아예?(삼촌 아까 돌화로 있다고 했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부섭허고 돌화리는 어떵 ᄐᆞ난 거마씨?('부섭'하고 돌화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고춘권** 돌화리는 필요헌 때, 이 제서 때 거튼 때 필요헌 때만 그 앗다 놔근에 써 놩. 다 써 나민 딴 디 앗다 내불주게. 항상 거 둘 수가 없으니까게. 게고 부섭은 항상 거기 박앙 내부는 거고게.(돌화로는 필요한 때, 이 제사 때 같은 때 필요한 때만 그 가져다 놔서 써 놔서. 다 쓰고 나면 딴 데 가져다 내버리지. 항상 거 둘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섭'은 항상 거기 박아서 내버리는 거고.)

**김순자** 부섭은.('부섭'은.)

**고춘권** 게난 돌화리 부섭 엇은 딘 돌화리도 그자 그 ᄒᆞᆫ쪽에 놧다근에 거기에 불살롸 초임도 허고 허주만은 대부분은 방에 놓질 안 헷주게.(그러니까 돌화로 '부섭' 없는 덴 돌화로도 그저 그 한쪽에 놨다가 거기에 불살라서 쬐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방에 놓질 안 했지.)

**김순자** 예, 그거는 쓸 때만 갓다 놩 허는 거라예? 예, 알앗수다.(예, 그거는 쓸 때만 가져다 놔서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춘권** 우리도 적 굽는 화리 창고에 거기 놔 둠수루 굴 때 거기에.(우리도 적 굽는 화로 창고에 거기 놔두면서 구울 때 거기에.)

**김보향** 우리 지난번에 사진 찍엇수과? 사진 안 찍엇는데.(우리 지난번에 사진 찍었습니까? 사진 안 찍었는데.)

**김순자** 지금 옛날 화리 엇어. 요즘 새로운 화리. 삼춘, 옛날 화리 엇지예?(지금 옛날 화로 없어. 요즘 새로운 화로. 삼촌 옛날 화로 없지요?)

**고춘권** 옛날 화리 엇어. 우린 그거, 우린 족은아덜이난에 제서가 하질 안허니까 그런 적 화리꺼지 경 만들지 안헷주. 거 만들젠 허민 것도 소소헌 돈으로 안 뒈

는 거난.(옛날 화로 없어. 우린 그거, 우린 작은아들이니까 제사가 많질 않으니까 그런 적 화로까지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 거 만들려고 하면 것도 소소한 돈으로 안 되는 거니까.)

**김순자** 삼춘네는 족은아덜이구나.(삼촌네는 작은아들이구나.)

**고춘권** 으, 샛아덜. 우리가 사 형젠디 두 번째.(으, 둘째아들. 우리가 사 형젠데 두 번째.)

**김순자** 그다음에 삼춘 우리 주생활 허당 보면 예전에는 꼭 쉐막도 잇고.(그다음에 삼촌 우리 주생활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꼭 외양간도 있고.)

**고춘권** 으, 쉐막 잇어.(으, 외양간 있어.)

**김순자** 쉐막에는 필요헌 뭐 도구덜 엇입니까?(외양간에는 필요한 뭐 도구들 없습니까?)

**고춘권** 쉐막에 그, 농사에 대한 기구는 전부 다 소막에 놧주.(외양간에 그, 농사에 대한 기구는 전부 다 외양간에 놨지.)

**김순자** 소막에예?(외양간에요?)

**고춘권** 으. 소막도 두 칸으로 헤 가지고 혼쪽에 소 메는 디 혼쪽엔 또 그런 기구 놓는디. 또 방에확.(으, 외양간도 두 칸으로 해 가지고 한쪽에 소 매는 데 한쪽엔 또 그런 기구 놓는 데. 또 방아확.)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이 저 절구 짛는 거이.(이 저 절구 찧는 거.)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혼, 혼 칸에 그 방에. 방에칸을 헷주게.(한, 한 칸에 그 방아. '방아칸'을 했지.)

**김순자** 겐 방에왕?(그래서 방앗간?)

**고춘권** 으, 방에왕. 쉐왕, 쉐 메는 디 쉐왕, 방에왕. 그걸 밧집이엔 헷주, 밧집. 밧깟집. 밧집이엔 헌 거 바깟집을 말허는 거주.(으, 방앗간. 외양간, 소 매는 데 외양간, 방앗간. 그걸 '밧집'이라고 했지, '밧집'. 바깥채.)

**김순자** 게난 그 밧집에 방에왕 잇고 쉐왕 있고. 그 방에왕도 만들지만 거기 헛간추룩 헤근에 그 도구들 놓는 디는 뭐렌 골아마씨?(그러니까 그 바깥채에 방앗간이 있고 외양간이 있고. 그 방앗간도 만들지만 거기 헛간처럼 해서 그 도

구들 놓는 데는 뭐라고 말해요?)

**고춘권** 그 도구 놓는 디를 따로 칸을, 칸 거튼 건 안 허여. 칸 무신 위에 헐 필요가 엇주게. 그냥 혼쪽에 그냥 방에왕 혼쪽에. 멍석 거튼 것도 방에왕에 들여 놓고.(그 도구 놓는 데를 따로 칸을, 칸 같은 건 안 해. 칸 무슨 위에 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한쪽에 그냥 방앗간 한쪽에. 멍석 같은 것도 방앗간에 들여 놓고.)

**김순자** 그 옆에 세와 놓고예?(그 옆에 세워 놓고요?)

**고춘권** 세와, 거 돌아메주. 세우면은 거 땅바닥이니까 습기에 썩어 불엉 안 뒈여.(세워, 거 달아매지. 세우면 거 땅바닥이니까 습기에 썩어 버려서 안 돼.)

**김순자** 게난 줄 헤영 돌아메여?(그러니까 줄 해서 달아매?)

**고춘권** 줄 메근에 영 다 돌아멧주. 게민 공간도 공간도 덜 츠지허고.(줄 매서 이렇게 다 달아맸지. 그럼 공간도 공간도 덜 차지하고.)

**김순자** 위로 다 영 허니까. 그다음에 쉐 메는 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 무신 남이엔 헙니까, 그거는?(위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소 매는 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그거는?)

**고춘권** 그 메남이엔 헤, 멜남이라 허는 말이라. 그 남으로, 남으로 쉘 메는 거니까 멜남. 메남, 메남. 메남이엔 헷주. 곧기 좋게 메남이엔 허는데 메는 남이엔 헌 말이주, 메남이엔 헌 건.(그 '메남'이라고 해, '매는나무'라 하는 말이야. 그 나무로, 나무로 소를 매는 거니까 '메남'. '메남', '메남'. '메남'이라고 했지. 말하기 좋게 '메남'이라고 하는데 '매는나무'라고 하는 말이지, '메남'이라고 하는 건.)

**김순자** 예, 여기서 어쨌든 메남이엔 헌 거잖아예?(예, 여기서 어쨌든 '메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춘권** 으, 메남이엔 헷주.(으, '메남'이라고 했지.)

**김순자** 그다음에 쉐촐 주고 허는 데는 무시거렌 헤마씨? 쉐촐 주는 걸 뭐렌 헙니까?(그다음에 소꼴 주고 하는 데는 무엇이라고 해요? 소꼴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김보향** 먹이통? 촐 먹을 때 촐 놓는 데?(먹이통? 꼴 먹을 때 꼴 놓는 데?)

**고춘권** 아, 거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헷어. 그대로 그자 촐, 촐단 풀엉 그냥 앞더

레 풀엉 내불민 그냥 먹엇주. 그건이 육지서 모냥, 육지 사름덜은 걸 끓영 주젠 허니까 그 것통을 잇엇는데. 여기서도 요 중간에 이제는 그 촐만 주질 안 허고 이 사료.(아, 거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대로 그저 꼴, 꼴단 풀어서 그냥 앞으로 풀어서 내버리면 그냥 먹었지. 그건 육지에서 모양, 육지 사람들은 걸 끓여서 주려고 하니까 그 먹이통을 있었는데. 여기서도 요 중간에 이제는 그 꼴만 주질 않고 이 사료.)

**김순자** 예.(예.)

**고춘권** 사료를 그것에 서껑 주젠 허면은 요 중간에는 그 통을 멘들아 가지고 사료에 촐을 썰엉 거기에 서텅 이제 그 주엇주. 게난 지금이 요 소 질룹는 딘 그 통, 통을 사룔 주주게.(사료를 그것에 섞어서 주려고 하면 요 중간에는 그 통을 만들어 가지고 사료에 꼴을 썰어서 거기에 섞어서 이제 그 주었지. 그러니까 지금 요 소 기르는 덴 그 통, 통을 사룔 주지.)

**김순자** 게난 그 통을 무신 통이렌 헙니까?(그러니까 그 통을 무슨 통이라고 합니까?)

**고춘권** 그거?(그거?)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우린 헤 보지 안허난 뭔 통이엔. 건 소것통이엔 그자.(그러니까 우린 해 보지 않으니까 뭔 통이라는. 건 '소먹이통'이라고 그저.)

**김보향** 구시?(구유?)

**김순자** 구시렌 헌 말은 안 들어봅디가?('구시'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봅디까?)

**고춘권** 어?(어?)

**김보향** 구시통?(구유통?)

**고춘권** 구지[11], 구지엔 헌 건 우린 그, 그런 거. 말은 들어봣주, 서쪽에. 서쪽에는 다 육우, 육울 주로 많이 허니까 우선 그 전부터도 구지를 헤 가지고 거기서 뭐 길롯주.(구유, 구유라고 하는 건 우린 그, 그런 거. 말은 들어봤지, 서쪽에. 서쪽에는 다 육우, 육울 주로 많이 하니까 우선 그 전부터도 구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뭐 길렀지.)

11) 제보자는 표준어 구유에 대응하는 제주어 '구시'를 '구지'로 발음하였다.

**김순자** 예, 알앗수다. 겐 그렇게 허면 촐 써는 도구는 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꼴 써는 도구는 뭐?)

**고춘권** 작두.(작도.)

**김순자** 작두예. 요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새기 돗 길르려면, 뒈지 길르는 디를 뭐렌 헤, 여기서?(작도요. 요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돼지, 돼지 기르려면, 돼지 기르는 데를 뭐라고 해, 여기서?)

**고춘권** 뒈지 기르는 딘 통시.(돼지 기르는 덴 돼지우리.)

**김순자** 통시. 통시에도 여러 도구덜 이실 거 아니과?(돼지우리. 돼지우리에도 여러 도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고춘권** 으. 거기 우선은 대소변 보젠 허면은 거기 그 디딜팡을 만들엇주. 디딜팡, 발 영 헹 디뎡 앚아근에, 거 디딜팡.(으. 거기 우선은 대소변 보려고 하면 거기 그 부춛돌을 만들었지. 부춛돌, 발 이렇게 해서 디뎌서 앉아서, 거 부춛돌.)

**김순자** 디딜팡.(부춛돌.)

**고춘권** 에, 또 것도고리[12].(에, 또 '먹이돌그릇'.)

**김순자** 것도고리, 예.('먹이돌그릇', 예.)

**고춘권** 것도고리.('먹이돌그릇'.)

**김순자** 것도고리는 다 돌로 멘들앗수과?('먹이돌그릇'은 다 돌로 만들었습니까?)

**고춘권** 으, 돌로. 돌로 안 허민. 돌로 헤도 큰돌 헤근에 크게 허지 안허민 뒈지가 크면은 그 뭐 이레 둥그려 뎅기고 저레 둥그려 뎅기고 허주게.(으, 돌로. 돌로 안 하면. 돌로 해도 큰돌 해서 크게 하지 않으면 돼지가 크면 그 뭐 이리 굴려 다니고 저리 굴려 다니고 그러지.)

**김보향** 엎어 불어.(엎어 버려.)

**고춘권** 으. 게니까 뒈지가 움직거리지 못허게. 으, 움직거리지 못허게. 사름이 가 가지고 통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것 줄 수 없는 거니까, 딱 옆에 사름 손 영 헤근에 것 줘지는 정도로 항상 고정시키지 안허면은 뒈지가 ᄆᆞ음대로 둥그려 뎅겨불민 안 뒈주게.(으. 그러니까 돼지가 움직거리지 못하게. 으, 움직거리지

12) '것도고리'는 현무암을 네모나거나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돼지의 먹이 그릇을 말한다. '것'은 먹이, '도고리'는 그릇의 의미다.

못하게. 사람이 가 가지고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먹이 줄 수 없는 거니까, 딱 옆에 사람 손 이렇게 해서 먹이 줄 수 있는 정도로 항상 고정시키지 않으면 돼지가 마음대로 굴려 다녀 버리면 안 되지.)

**김순자** 게난 그것을 여기서 통시엔 헌 거라예?(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돼지우리라고 한 거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통시 바꼇디는 또 무시거 놔?(돼지우리 밖에는 또 무엇 놔?)

**고춘권** 으?(으?)

**김순자** 통시 바꼇디도 항 헹 잇지 안헙니까?(돼지우리 밖에도 항아리 해서 있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 그건 궂인물 오가리[13].(으, 그런 구정물 '오가리'.)

**김순자** 궂인물 오가리 놓고. 오줌항도 놉니까?(구정물 '오가리' 놓고. 오줌항아리도 놉니까?)

**고춘권** 으, 오줌항도 거기에 놧주.(으, 오줌항아리도 거기에 놨지.)

**김순자** 옛날 오줌 지영 갈 때 무시걸로 질엉 가?(옛날 오줌 지어서 갈 때 무엇으로 길어서 가?)

**고춘권** 오줌허벅으로.(오줌허벅으로.)

**김순자** 오줌허벅으로 헹예?(오줌허벅으로 해서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삼춘 여긴 항도 지세항[14]도 헙니까?(삼촌 여긴 '지세항'도 합니까?)

**고춘권** 지세항, 옛날엔 지세항 잇어낫주.('지세항', 옛날엔 '지세항' 있었지.)

**김순자** 예, 그 지세항으로는 무시걸 헙니까?(예, 그 '지세항'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고춘권** 지세, 지세항 그런 것은 약헤 놓니까 밖에는 놀 수 없어. 게난 고방에 놔근에 곡식 거튼 걸 놧주, 대부분.('지세', '지세항' 그런 것은 약해 놓으니까 밖에는 놀 수 없어. 그러니까. 고방에 놔서 곡식 같은 걸 놨지, 대부분.)

**김순자** 지세항에 곡석 놓면은 좋읍니까?('지세항'에 곡식 넣으면 좋습니까?)

---

13) '오가리'는 항아리의 일종이다.

14) '지세항'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말한다.

**고춘권** 어, 거 기와로 멘든 거니까 거 약헤여.(어, 거 기와로 만든 거니까 거 약해.)

**김순자** 게민 물항도 지세항으로?(그럼 물독도 '지세항'으로?)

**고춘권** 아, 물항도 지세항으로 허는 디도 잇엇주만은 물항은 대부분 육지 항으로 물항은 대부분 헷고.(아, 물독도 '지세항'으로 하는 데도 있었지만 물독은 대부분 육지 항아리로 물독은 대부분 했고.)

**김순자** 예, 육지 항으로.(예, 육지 항아리로.)

**고춘권** 지세항은 앗아 뎅김이 좀 위험허주게.('지세항'은 가지고 다니기는 좀 위험하지.)

**김순자** 예, 겐 곡석 항으로예?(예, 그래서 곡식 항아리로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고팡에 놩. 알앗수다.(고방에 놔서. 알겠습니다.)

**〈농업 관련〉**

**김순자** 농서 하영 지엇지양?(농사 많이 지었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농서 짓젠 허면 필요헌 도구가 무신거 무신거 잇수과?(그 농사 지으려고 하면 필요한 도구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고춘권** 도구. 우선, 우선 젤 중요헌 것이 쟁기. 밧 가는 쟁기.(도구. 우선, 우선 젤 중요한 것이 쟁기. 밭 가는 쟁기.)

**김순자** 음.(음.)

**고춘권** 게민 또 소 헤서 밧 가는 거니까 쟁기 뗑기게시리 허젠 허면은 소 연장이 잇어야주게.(그럼 또 소 해서 밭 가는 거니까 쟁기 당기게끔 하려고 하면 소 연장이 있어야지.)

**김순자** 예, 그게 무시거마씨?(예, 그게 뭐예요?)

**고춘권** 우선은 소 연장에서도 젤 중요헌 것이 쉐 이 뒷고개, 야가지에 메는 그 저 멍에. 소멍에.(우선은 소 연장에서도 젤 중요한 것이 소 이 목덜미, 모가지에 메는 그 저 멍에. 소멍에.)

**김순자** 소멍에.(소멍에.)

**고춘권** 그다음에 멍에줄.(그다음에 멍에줄.)

**김순자** 멍에줄.(멍에줄.)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러면 밭을 한 번 갈려면, 쟁기를 이 동네선 뭐렌 골앗수과?(그러면 밭을 한 벌 갈려면, 쟁기를 이 동네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춘권** 쟁기?(쟁기?)

**김순자** 예.(예.)

**고춘권** 잠대, 잠대엔 헷주.(쟁기, '잠대'라고 했지.)

**김순자** 잠대는 보통, 삼춘 잠대도 서꺼 봅디가? 직접?(쟁기는 보통, 삼촌 쟁기도 만들어 봅디까? 직접?)

**고춘권** 건 목수가 허는 거주. 건 아무나 허는 거 아니주게.(건 목수가 하는 거지.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목수도 거 쟁기를 전문적으로 서끄는 목수라야 허지 아무 목시나 뒈질 안허여. 다 그자 보기에는 똑ᄀᆞ튼 쟁기 닮아도 밧을 갈젠 허면 그 흙을 혼쪽으로 잘 넘어가게시리 그 멘들어야 허게 뒈는 따문에 그 치수가 ᄒᆞ꼼만, 혼 일 센치만 틀려도 것이 차이가 나 불어. 겐 따문에 건 첨 기술자가 만들어야 허는 거주.(목수도 거 쟁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라야 하지 아무 목수나 되질 않아. 다 그저 보기에는 똑같은 쟁기 닮아도 밭을 갈려고 하면 그 흙을 한쪽으로 잘 넘어가게끔 그 만들어야 하게 되는 때문에 그 치수가 조금만, 한 일 센티미터만 달라도 것이 차이가 나 버려. 그런 때문에 건 첨 기술자가 만들어야 하는 거지.)

**김순자** 예. 겐 잠대를 하게 뒈면 보통 무슨 남으로 헷수과?(예. 그래서 쟁기를 하게 되면 보통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고춘권** 이 쟁기는 여긴 완전 돌팟이니까이.(이 쟁기는 여기 완전 돌밭이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저 서쪽에 대정 쪽더레는 이 저 토질이 좋아 가지고 돌이 없는데 여기는 완전 밑에 돌이라. 겡헤 놓난 또 소는 힘이 쎄지, 가다근에 돌 탁 걸리면은 나무가 약헌 나문 대번에 부러져 불지. 게난 이 가시낭.(저 서쪽에 대정 쪽으로는 이 저 토질이 좋아 가지고 돌이 없는데 여기는 완전 밑이 돌이야. 그래 놓으니까

또 소는 힘이 세지, 가다가 돌 탁 걸리면 나무가 약한 나문 대번에 부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김순자** 가시낭.(가시나무.)

**고춘권** 가시남,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시남이 젤 쎈 낭이주게. 게난 가시남으로 멘들앗주.(가시나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시나무가 젤 센 나무지.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만들었지.)

**김순자** 게믄 잠대허면 부분 명칭덜이 잇지예, 한 번 그 이름을?(그럼 쟁기하면 부분 명칭들이 있지요, 한 번 그 이름을?)

**고춘권** 그 젤 긴 거. 그 소에 연결시키는 긴 것이 저, 그거 확 곧젠 허난 거.(그 젤 긴 거. 그 소에 연결시키는 긴 것이 저, 그거 확 말하려고 하니까 거.)

**김순자** 성에?(성에?)

**고춘권** 아, 것이 성에. 긴 거. 밑에 또 이렇게 구부러진 거.(아, 것이 성에. 긴 거. 밑에 또 이렇게 구부러진 거.)

**김순자** 요렇게 뒌 거예?(요렇게 된 거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건 뭐우과?(건 뭡니까?)

**고춘권** 고부라진 거. 고부라진 거.(고부라진 거. 고부라진 거.)

**김순자** 설칫은 뭐우과?(한마루는 뭡니까?)

**고춘권** 설칫은 영 헹 아래 고부라진 것광 성에 연결된 것이 그것이.(한마루는 이렇게 해서 고부라진 것과 성에 연결된 것이 그것이.)

**김순자** 설칫. 몽클?(한마루. 쟁깃술?)

**고춘권** 으, 몽콜. 오고라진 것이 몽콜이주.(으, 쟁깃술. 오고라진 것이 쟁깃술이지.)

**김순자** 그다음에 손잡이는?(그다음에 손잡이는?)

**고춘권** 그건이 양쪽으로 영 헹 거 잡는 거니까 양주머리고.(그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 잡는 거니까 양지머리고.)

**김순자** 예, 양주머리.(예, 양지머리.)

**고춘권** 또 성에 앞이 끝에 소허고 연결된 줄 영 헤영 메는 것이 잇주게.(또 성에 앞의 끝에 소하고 연결된 줄 이렇게 해서 매는 것이 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돌벵이뿔이라고 헤 가지고.(물추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김순자** 돌벵이뿔. 그다음에 이 설칫 허젠 허면 이디 올렷다 ᄂᆞ렷다 꼿이는 거 잇지예?(물추리막대. 그다음에 이 한마루 하려고 하면 여기 올렸다 내렸다 꽂는 거 있지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건 뭐렌 헙니까?(건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거 설칫, 설칫 꼿이렌도 허곡.(거 한마루, 한마루 꽂이라고도 하고.)

**김순자** 뜸이엔 말은 안 헙니까?('뜸'이라는 말은 안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뜸이렌 말 안 헙니까?('뜸'이라는 말 안 합니까?)

**고춘권** 무시거?(무엇?)

**김순자** 뜸?('뜸'?)

**고춘권** 뜸 거 장기 뜸, 설칫뜸 음, 설칫뜸.('뜸' 거 쟁기 '뜸', '한마루뜸' 음, '한마루뜸'.)

**김순자** 설칫뜸예. 이렇게 올려근에예?('한마루뜸'요. 이렇게 올려서요?)

**고춘권** 으. 설칫에, 설칫에 고망 똘랑 영 영 허는 거니까 설칫뜸이엔 헷주.(으. 한마루에, 한마루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마루뜸'이라고 했지.)

**김순자** 그다음 멍에는?(그다음 멍에는?)

**고춘권** 멍에는 그게 또 너무 쎈 남으로 허면은 이 저 소 야가지에 허는 거라놓니까 너무 강한 나무로 허면은 소가 좀 못 젼디주게. 게난 젤 저 무른 남으로 헷어.(멍에는 그게 또 너무 센 나무로 하면 이 저 소 목에 하는 거니까 너무 강한 나무로 하면 소가 좀 못 견디지. 그러니까 젤 저 무른 나무로 했어.)

**김순자** 아, 건 어떤 남으로?(아, 건 어떤 나무로?)

**고춘권** 머귀남. 머귀남이엔 헌 게 그것이 아주 무른 남이라.(머귀나무. 머귀나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주 무른 나무야.)

**김순자** 머귀남으로 멍에는 허고. 그리고 여기는 멍에고 이디 모가지에 내려오는 거는 무시거렌 헙니까?(머귀나무로 멍에는 하고. 그리고 여기는 멍에이고 여기 목에 내려오는 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춘권** 접궤.(목대.)

**김순자** 무시거?(무엇?)

**고춘권** 접궤, 접궤.(목대, 목대.)

**김순자** 접궤.(목대.)

**고춘권** 접궤엔 헌 건 양쪽으로 영 헤근에 접는 뜻으로 접궤엔 헷지, 아메도.(목대라고 하는 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는 뜻으로 '접궤'라고 했지, 아무래도.)

**김순자** 그 접궤는 무신 남으로 헤?(그 목대는 무슨 나무로 해?)

**고춘권** 건 보통 윤헌 남이라야 헤. 건 또 이 성질이 강헌 것은 부러지기가 쉬우니까이, 그 가는 거라놓난 윤기가 잇는 거라야 헤. 여기 윤남이라고 헤 가지고.(건 보통 윤한 나무라야 해. 건 또 이 성질이 강한 것은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그 가는 거여서 윤기가 있는 거여야 해. 여기 '윤남'이라고 해 가지고.)

**김순자** 윤남?('윤남'?)

**고춘권** 윤남. 들에 가면은.(윤노리나무. 들에 가면은.)

**김순자** 윤노리가 윤남이과?(윤노리나무가 '윤남'입니까?)

**고춘권** 으, 윤남이엔 헌 게 잇주게.(으, 윤노리나무라고 하는 게 있지.)

**김순자** 예, 예. 윤남으로 허고예. 그다음에 삼춘 멍에에 매달려 잇는 줄 잇지 안 허과예?(예, 예. 윤노리나무로 하고요. 그다음에 삼촌 멍에에 매달려 있는 줄 있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그 줄은 이름이 뭐렌 헙니까?(그 줄은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그 그자 줄이엔 헷주. 멍에줄.(그 그저 줄이라고 했지. 멍에줄.)

**김순자** 멍에줄허고. 그다음에 밧 갈젠 허면 쉐허고 멍에허고 쟁기를 이렇게 허잖아예?(멍에줄하고. 그다음에 밭 갈려고 하면 소하고 멍에하고 쟁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 쉐뿔에다가 헤 갖고 그 저 줄이 잇지 안허과? 그건 무시거마씨? 이랏 헤 갖고 양쪽에 줄 허는 거?(그다음 소뿔에다가 해 갖고 그 저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에요? '이랏' 해 가지고 양쪽에 줄 하는 거?)

**고춘권** 음, 거 것ᄀᆞ라 뭐렌 헤신지 거 튼내지 못 허겠네.(음, 거 것보고 뭐라고 했는지

거 기억하지 못 하겠네.)

**김순자** 네, 거 튼내지 못허고예. 그다음에 연결헐 때 그 쉐 또꼬망에 가는 낭 잇지예?(네, 거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연결할 때 그 소 꽁무니에 가는 나무 있지요?)

**고춘권** 음.(음.)

**김순자** 그건 무신 거렌 헤? 멍에에 부튼 그거.(그거 무슨 거라고 해? 멍에에 붙은 그거.)

**고춘권** 것도 그 오리목[15] 그 끗타리에 베 헨 그 쉐줄광 쟁기에 메는 줄 사이에 그 쟁기에 메는 건 영 꼬부려 가지고 허는 건 건 오리목이엔 헷주. 오리목이엔 헷는데, 오리목광 줄 새에 남 메는 것이 거 뭐엔 헷냐? 것도 이름 잇주.(것도 그 '오리목' 그 끝에 바 해서 그 소 줄과 쟁기에 메는 줄 사이에 그 쟁기에 메는 건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하는 건 건 '오리목'이라고 했지. '오리목'이라고 했는데, '오리목'과 줄 새에 나무 매는 것이 거 뭐라고 했나? 것도 이름 있지.)

**김순자** 예,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뒌 거는 오리목. 거기에 이렇게 길게 뒌 남이 잇고예?(예,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는 '오리목'. 거기에 이렇게 길게 된 나무가 있고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삼춘 여기 솜비줄이엔 헌 말 들어봅디가?(그다음에 삼촌 여기 '솜비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봅디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솜비줄? 그런 말은 이 동네 말 아니과?('솜비줄'? 그런 말은 이 동네 말 아닙니까?)

**고춘권** 그런 말은.(그런 말은.)

**김순자** 그다음에 배에 이렇게 무끄는 줄은? 쉐 배에 이렇게 줄 무꺼야 헐 거 아니?(그다음에 배에 이렇게 묶는 줄은? 소 배에 이렇게 줄 묶어야 할 거 아니?)

**고춘권** 등쿼.(한태.)

---

15)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인 나무와 쟁기의 성에 사이에 잇대어 붙잡아 매는 줄이다.

**김순자** 무시거?(무엇?)

**고춘권** 등, 등 이 저 그 줄 밋터레 처지지 안허게시기 등에 메는 거난 거 등, 등줄이주게. 등퀘엔 헷주, 등퀘.(등, 등 이 저 그 줄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등에 매는 거니까 거 등, 등줄이지. '등퀘'라고 했지, 한태.)

**김순자** 예, 등퀘예. 여기는 보통 밧을 쉐로 갈앗수과?(예, 한태요. 여기는 보통 밭을 소로 갈았습니까?)

**고춘권** 으, 쉐로 갈주게.(으, 소로 갈지.)

**김순자** 물로 안 갈고?(말로 안 갈고?)

**고춘권** 이 물로는 좀 신식 나 가지고, 신식 낭 물로 갈앗주게. 물이 이, 쉐로 갈 때는 또 그 물, 그 마차 끗엉 뎅기젠 물도 이제 가졍 다니고 뭐 헤야 뒈니까 헌데, 물로 허면은 밧도 갈고 그자 구루마 끗엉 강 쟁기영 시껑 가근에 이제는 그자 밧 갈아 놩 올 때 시껑 오곡 허기 위해 또 물로 그때 또 대부분 많이덜 갈앗주.(이 말로는 좀 신식 되어 가지고, 신식 되어서 말로 갈았지. 말로 이, 소로 갈 때는 또 그 말, 그 마차 끌어서 다니려고 말도 이제 가지고 다니고 뭐 해야 되니까 하는데, 말로 하면 밭도 갈고 그저 마차 끌어서 가서 쟁기랑 실어서 가서 이제는 밭 갈아놔서 올 때 실어서 오고 하기 위해 또 말로 그때 또 대부분 많이들 갈았지.)

**김순자** 그다음에 그 앞에, 그 밧 갈젠 허면 앞에 메우는 거 잇지 안허과? 쟁기 맨 앞에 몽클 앞에 메우는 거? 벳허고 보섭?(그다음에 그 앞에, 그 밭 갈려고 하면 앞에 메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쟁기 맨 앞에 쟁깃술 앞에 메우는 거? 볏하고 보습?)

**고춘권** 아, 으. 벳. 이 넓은 거 흑 잦히는 것은 벳이고 그 또 저 가운디 땅을 영 파지게시리 허는 거 보섭.(아, 으. 볏. 이 넓은 거 흙 젖히는 것은 볏이고 그 또 저 가운데 땅을 이렇게 파이게끔 하는 거 보습.)

**김순자** 보섭. 또 옆에 메우젠 허면 또 벳칼도 잇고?(보습. 또 옆에 메우려고 하면 또 볏칼도 있고?)

**고춘권** 으, 벳바디[16].(으, '벳바디'.)

---

16) '벳바디'는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말한다. '벳바드렝이'라고도

**김순자** 으?(으?)

**고춘권** 벳바디가 잇주게.('벳바디'가 있지.)

**김순자** 예, 벳바디.(예, '벳바디'.)

**고춘권** 벳 이레저레 안 허게 그 벳을 고정시킨 거. 거 벳바디.(볏 이리저리 안 하게 그 볏을 고정시킨 거. 거 '벳바디'.)

**김순자** 벳바디 잇고 그다음 벳칼은 뭐우과?('벳바디' 있고 그다음 볏칼은 뭡니까?)

**고춘권** 벳칼은 흑 묻은 거 밧 갈 때는 발로 딱 허지만은 걸 이제 집이 갓당 놔두젠 허민 그 흑을 완전히 깨껏허게 다듬젠 허민 그 칼이 잇어야 뒈여.(볏칼은 흙 묻은 거 밭 갈 때는 발로 딱 하지만 걸 이제 집에 갔다가 놔두려고 하면 그 흙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듬으려고 하면 그 칼이 있어야 돼.)

**김순자** 예, 그 나무로?(예, 그 나무로?)

**고춘권** 나무로 된 거라. 나무로도 멘들고 대로도 멘들고 헹 그 벳칼이 잇어.(나무로 된 거야. 나무로도 만들고 대로도 만들고 해서 그 볏칼이 있어.)

**김순자** 예. 그 정도 허면 이제 밧을 가는 거라예. 그다음 그 벳도, 중경벳도 뚜로 이십니까, 이디도?(예. 그 정도 하면 이제 밭을 가는 거지요. 그다음 그 볏도, 중경볏도 따로 있습니까, 여기도?)

**고춘권** 그때 그 중경벳은 요 중간에, 중간에부떠 나왓주. 그때 시절에는 이 저 중경벳이 따로 엇엇어.(그때 그 중경볏은 요 중간에, 중간에부터 나왔지. 그때 시절에는 이 저 중경볏이 따로 없었어.)

**김순자** 아. 따로 엇고예.(아. 따로 없고요.)

**고춘권** 건 중간에 우리, 우리 세대 낭 이제 그 농사를 여라 가지 그 원예 농사를 허게 뒈니까 그 중경이 필요허니까 이제는 그 중경벳을, 이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헤 가지고 중경벳이 낫주게.(건 중간에 우리, 우리 세대 나서 이제 그 농사를 여러 가지 그 원예 농사를 하게 되니까 그 중경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중경볏을, 이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중경볏이 나왔지.)

**김순자** 아.(아.)

**고춘권** 건 경운기로 중경을 허젠 허니까 중경벳이 나온 거라.(건 경운기로 중경을 하

---

한다.

려고 하니까 중경볏이 나온 거야.)

**김순자** 쉐로는 중경벳을 안 헙디가?(소로는 중경볏을 안 합디까?)

**고춘권** 아, 쉐로도 헷주, 쉐로도. 이 고구마 거튼 거 중경허젠 허민 쉐로도 헷주만은. 그때 시절에는 그 뭐 중경허멍 허질 안헷주, 농서.(아, 소로도 했지, 소로도. 이 고구마 같은 거 중경하려고 하면 소로도 했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 뭐 중경하면서 하질 않았지, 농사.)

**김순자** 삼춘 예전에 보리농서 혼 번 짓어 봅서, 보리농사 어떵 짓어신지?(삼촌 예전에 보리농사 한 번 지어 보세요, 보리농사 어떻게 지었는지?)

**고춘권** 보리농사는 이 저 이 쉐걸름이나 뒈지우리에, 통시에 걸름을 헤영 이젠 벳꼇디 쌓앙 거름을 틔왕 그 쎅여야주게. 헤영케 그 곰팡이 피게시리 틔와야. 경헤야.(보리농사는 이 저 이 쇠두엄이나 돼지우리에, 돼지우리에 거름을 해서 이젠 밖에 쌓아서 거름을 띄워서 그 썩혀야지. 하얗게 그 곰팡이 피게끔 띄워야. 그렇게 해야.)

**김순자** 그 걸름을예?(그 거름을요?)

**고춘권** 제라허게 걸름이 뒈는 거주게. 그대로 거 내음살 나는 거 그대로 안 뒈여. 게난 다 베꼇디 내놩 여름 동안에 그걸 혼 번 뒈쓰면서 혼 번이나 두 번 뒈쓰면서 그걸 쎅여야지. 쎅엿다근에 가을 들엉 이제 조 비여 불면은 조 끗나면은 이제 그 보리를 갈 거거든.(제대로 거름이 되는 거지. 그대로 거 냄새 나는 거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다 밖에 내놔서 여름 동안에 그걸 한 번 뒤집으면서 한 번이나 두 번 뒤집으면서 그걸 썩혀야지. 썩혔다가 가을 들어서 이제 조 베어 버리면 조 끝나면 이제 그 보리를 갈 거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거 밧디 꼴앗주게.(거 밭에 깔았지.)

**김순자** 게민 그 씨를 어떤 식으로 헤근에 헤난 것과?(그럼 그 씨를 어떤 식으로 해서 했던 겁니까?)

**고춘권** 이 저 통시에, 통시에 걸름을 보리 갈 때 내멍사라 쓰젠 허면은 쓸 때는 이제 이 마당에 내놩 씨 뿌리멍 걸 서껏어. 서끄젠 허민 사람 힘으로 그거 다 못 허거든. 이 쭉 허게 둥그렇게 마당에 놔 가지고 그 우이 보리씰 삐영 쉐나 물로 그걸 볼려. 경허민 거 젖은 거니까 구자구자헌 거니까 쉐로 볼려 가면은 쉐

빠질 정도로 무른 거니까게. 통시에 거 낸 거난에. 겐 불령 서껑 겐 거 밧디 갖당 뿌령.(이 저 돼지우리에, 돼지우리에 거름을 보리 갈 때 내면서 쓰려고 하면 쓸 때는 이제 마당에 내놔서 씨 뿌리면서 걸 섞었어. 섞으려고 하면 사람 힘으로 그거 다 못 하거든. 이 쭉 하게 둥그렇게 마당에 놔 가지고 그 위에 보리씰 뿌려서 소나 말로 그걸 밟아. 그러면 거 젖은 거니까 구질구질한 거니까 소로 밟아 가면 소 빠질 정도로 무른 거니까. 돼지우리에 거 낸 거니까. 그래서 밟아서 섞어서 그래서 거 밭에 갖다가 뿌려서.)

**김순자** 그 밧디 아져 갈 때는 어떵 실러 갓수과?(그 밭에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실어 갔습니까?)

**고춘권** 거, 거 쉐로 시꺼 갓주, 쉐나 몰로.(거, 거 소로 실어 갔지, 소나 말로.)

**김순자** 그 멩텡이, 멩텡이. 곡석 담는 멩텡이가 잇엇주. 그 멕이라고 헤 가지고. 여기서 멩텡이, 멩텡이 허주게. 멕, 멕이주. 것에 담앙.(그 망태기, 망태기. 곡식 담는 망태기가 있었지. 그 멱, 멱이지. 것에 담아서.)

**김순자** 거 돗가레착 헙니까, 걸름착?(거 '돗가레짝' 합니까?, '거름짝'?)

**고춘권** 으. 그 저 멩텡이에 담는 거, 담는 멩텡이. 곡석 놓는 건 크게 허는데 그건 크게 하영 담으면 시끄질 못허주게. 게난 졸게 이제 그 멘들앗주, 돗ᄀᆞ래착[17].(으. 그 저 망태기에 담는 거, 담는 망태기. 곡식 넣는 건 크게 하는데 그건 크게 많이 담으면 싣지 못하지. 그러니까 잘게 이게 만들었지. '돗ᄀᆞ레착'.)

**김순자** 예.(예.)

**고춘권** 돗걸름 시끄는 거난 걸름착. 돗걸름 실르는 돗ᄀᆞ래착.(돼지거름 싣는 거니까 '거름짝'. 돼지거름 싣는 '돗ᄀᆞ레짝'.)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저 소걸름 시끄는 건, 소걸름은 습기가 엇은 거니까 건 큰 멩텡이 많이 담앙 시끄는 거니까 건 걸름착. 걸름멕.(이 저 소두엄 싣는 건, 소두엄은 습기가 없는 거니까 건 큰 망태기 많이 담아서 싣는 거니까 거 '거름짝'. '거름멱'.)

**김순자** 걸름멕.('거름멱'.)

**고춘권** 돗걸름 시끄는 거 돗ᄀᆞ레착.(돼지거름 싣는 거 '돗ᄀᆞ레착'.)

---

17) '돗ᄀᆞ래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김순자** 것도 불르는 이름이 또나예?(것도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요?)

**고춘권** 허허허.(허허허.)

**김순자** 게믄 쉐 이렇게 헌 거를 훈 바리 헙니까? 밧디 이렇게 시꺼 갈 때.(그럼 소 이렇게 한 거를 한 바리 합니까? 밭에 이렇게 실어 갈 때.)

**고춘권** 그 훈 번 시끄는 걸 훈 바리 허는 거주.(그 한 번 싣는 걸 한 바리 하는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저 쉐촐도 다 그때는 쉐 등으로 다 날랏주. 저 마차가 엇은 시절이난 그때 시절엔.(이 저 소꼴도 다 그때는 소 등으로 다 날랐지. 저 마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때 시절엔.)

**김순자** 예, 맞수다. 그런 식으로 헹 밧디 강 갈고?(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밭에 가서 갈고?)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보리를 갈아 봅서, 어떻게 가는지?(그 보리를 갈아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고춘권** 보리?(보리?)

**김순자** 보리 갈 때부터 수확헐 때까지 쭉 골아줘 봅서.(보리 갈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쭉 말해줘 보세요.)

**고춘권** 게난 그 걸름 뿌령 이제 그 밧 갈앙. 게난 그 돗걸름은 보통 그 갈기 전에 뿌령 그 갈아 불주게. 건 갈아 불민 뒈는 거고.(그러니까 그 거름 뿌려서 이제 그 밭 갈아서. 그러니까 그 돼지거름은 보통 그 갈기 전에 뿌려서 그 갈아 버리지. 건 갈아 버리면 되는 거고.)

**김순자** 으.(으.)

**고춘권** 소걸름은 또 그추룩 허면 잘 묻어지지 안허면은 또 건 잘 나도 안허니까. 돗걸름은 젖은 것에 씨를 서꺼진 거니까 웬만이 묻어지민 다 나는데. 소걸름은 바짝 ᄆᆞ른 거거든. 마른 거니까.(소두엄은 또 그처럼 하면 잘 묻히지 않으면 또 건 잘 나도 않으니까. 돼지거름은 젖은 것에 씨를 섞인 거니까 웬만히 묻히면 다 나는데. 소두엄은 바짝 마른 거거든. 마른 거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건 갈안 소, 소로 이 줄로, 줄로 갈아근에 그 홈에다가 고랑에.(그건 갈아

서 소, 소로 이 줄로, 줄로 갈아서 그 홈에다가 고랑에.)

**김순자** 고랑에.(고랑에.)

**고춘권** 고랑에 걸름 뿌령. 걸름이영 씨영 뿌령근에 소로 갈앙, 잠대로 갈앙 이 저 흑 더프는 수도 잇고. 그대로 글겡이 닮은 거, 그런 걸로 헤근에 영 사름 손으로 허는 것도 잇고.(고랑에 거름 뿌려서. 거름이랑 씨랑 뿌려서 소로 갈아서, 쟁기로 갈아서 이 저 흙 덮는 수도 있고. 그대로 갈퀴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것은 웨 골로 가느냐 허면은 이 중경, 이 저 겨울에 곳아 불고 뭐 허니까 이 그런 걸 방지허기 위해 가지고 보리 곳고 뭐 헤연 헌 때에 봄 나 가면은 그 보리밧 붋잖아이?(그것은 왜 골로 가느냐 하면 이 중경, 이 저 겨울에 얼어 버리고 뭐 하니까 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리 얼고 뭐 해서 할 때에 봄 돼 가면 그 보리밭 밟잖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붋는 대신 그 갈아근에, 중경 갈아근에 흑을 그레 씌와. 경허면은 보리가 잘 뒈주게.(그 밟는 대신 그 갈아서, 중경 갈아서 흙을 그리 씌워. 그러면 보리가 잘 되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 못 허민 또 사름 발로 볼라.(그렇게 못 하면 또 사람 발로 밟아.)

**김순자** 그 볼르는 건 보통 어느 시절에 볼르는 것과?(그 밟는 건 보통 어느 시절에 밟는 겁니까?)

**고춘권** 게난 해빙 시기.(그러니까 해빙 시기.)

**김순자** 해빙. 멧 월쯤에?(해빙. 몇 월쯤에?)

**고춘권** 그 얼린 거 풀어져 갈 때. 게난 그 일월달에, 보통 일월달에. 일월달에도 허곡. 겨울에 그 풀어지기 전에도 허고 허여지는 사름은 두 번까장 붋주게.(그 얼린 거 풀어져 갈 때. 그러니까 그 일월에, 보통 일월에. 일월에도 하고. 겨울에 그 풀어지기 전에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까지 밟지.)

**김순자** 예, 삼춘, 경헹 이제 검질도 메야 뒈는 거. 검질은 뭘로 메여?(예, 삼촌, 그래서 이제 김도 매야 되는 거. 김은 뭐로 매?)

**고춘권** 검질 골겡이.(김 호미.)

**김순자** 골겡이로. 보리 검질은 멧 번이나 메야 뒙니까?(호미로. 보리 김은 몇 번이나 매야 됩니까?)

**고춘권** 보리 검질 멧 번ᄁᆞ장 멜 수가 엇주게. 그 일이 워낙 이것저것 헐 게 하 놓니까 혼 번만 메여도 뭐 뒈주게. 게난 잘허는, 식구나 똘덜이나 여러 개 난 집안에서는 두 번, 두 번도 메주만은 경 안 헌 디는, 아덜만 난 디는 그자 혼자 멜 수가 엇주. 혼 번 멤도 부지런히 헤야 메주.(보리 김 몇 번까지 맬 수가 없지. 그 일이 워낙 이것저것 할 게 많아 놓으니까 한 번만 매도 뭐 되지. 그러니까 잘하는, 식구나 딸들이나 여러 개 낳은 집안에서는 두 번, 두 번도 매지만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아들만 난 데는 그저 혼자 맬 수가 없지. 한 번 매기도 부지런히 해야 매지.)

**김순자** 예. 경헨 검질메여근에 그 보리 비는 건 어느 철에 비는 거?(예. 그래서 김매서 그 보리 베는 건 어느 철에 베는 거?)

**고춘권** 이 저 그 유월덜, 오월덜 장마, 보통 장마, 장마 시기에 뒈주게, 오월덜. 그때 오월덜 나면은 장마를 요새는 장마가 엇주만은 그때는 장마가 워낙 심헷어. 게난이 보리 비여근에 몰리지 못헤영 밧디서 나는 수도 잇고.(이 저 그 유월, 오월 장마, 보통 장마, 장마 시기에 되지, 오월. 그때 오월 되면 장마를 요새는 장마가 없지만 그때는 장마가 워낙 심했어. 그러니까 보리 베어서 말리지 못해서 밭에서 나는 수도 있고.)

**김순자** 아.(아.)

**고춘권** 나도 혼 해에는 보리 비엿단에 젖음 시작허난 거두지 못헤영 이젠 그 놈을 비 갠 틈을 타 가지고 강 담 우이 다 걸친 거야.(나도 한 해에는 보리 베었다가 젖기 시작하니까 거두지 못해서 이젠 그 놈을 비 갠 틈을 타 가지고 가서 담 위에 다 걸친 거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담 우이 걸쳐도 ᄂᆞ시 날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담 우이서 난 그대로 내 불어난 적도 있는데. 참 그때 시절에 어려왓주.(담 위에 걸쳐도 도무지 날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담 위에서 나서 그대로 내 버렸던 적도 있는데. 참 그때 시절에 어려웠지.)

**김순자** 예, 맞수다. 겐 보리 빌 때는 무시걸로 비엿수과?(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리 벨 때는 무엇으로 베었습니까?)

**고춘권** 호미로 비엿주.(낫으로 베었지.)

**김순자** 호미로 비고 무끄는 건?(낫으로 베고 묶는 건?)

**고춘권** 무끄는 건 기자 그 보리, 보리가 이 저 요새는 요새 가는 보리는 남뎅이가 쫄랏주만은 그땐 남뎅이 진 보리랏어. 보통 이 질우리 거튼 거 또 주넹이보리, 주넹이보리엔 헷주. 요새 맥주맥.(묶는 건 그저 그 보리, 보리가 이 저 요새는 요새 가는 보리는 대가 짧았지만 그땐 대 긴 보리였어. 보통 이 '질우리' 같은 거 또 '주넹이보리', '주넹이보리'라고 했지. 요새 맥주보리.)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런 거 남뎅이가 기니까 그걸로 그냥 무껏주게.(그런 거 대가 기니까 그걸로 그냥 묶었지.)

**김순자** 질우리는 어떤 보리우과?('질우리'는 어떤 보리입니까?)

**고춘권** 질보리엔 헌 것은 쏠이 안 나는 거라. 껍질차, 껍질차 거. 쌀보리는 테작허면은 그자 보리 껍질이 바껫 걸 까지는데 이 질보리는 바꼇 껍질이 안 까져.('질보리'라고 하는 것은 쌀이 안 나는 거야. 껍질째, 껍질째 거. 쌀보리는 타작하면 그저 보리 껍질이 밖에 걸 까지는데 이 '질보리'는 밖에 껍질이 안 까져.)

**김순자** 아, 그 질보리가 저 맥주보리꽈?(아, 그 '질보리'가 저 맥주보리입니까?)

**고춘권** 맥주맥 모냥으로. 똑 쌀보리나 똑ᄀᆞ튼 건데 모냥은 ᄀᆞ튼 건데 똑 맥주맥 모냥으로 껍질이 그대로 잇는 거주게.(맥주보리 모양으로. 꼭 쌀보리나 똑같은 건데 모양은 같은 건데 꼭 맥주보리 모양으로 껍질이 그대로 있는 거지.)

**김순자** 그게 질보리. 경허고 옛날엔 다 호미로 비니까 이 호미 무끼면 골아야 뒐 거 아니과예?(그게 '질보리'. 그리고 옛날엔 다 낫으로 베니까 그 낫 무디면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춘권** 골아야지.(갈아야지.)

**김순자** 겐 그거는 무시거렌 골아?(그래서 그거는 무엇이라고 말해?)

**고춘권** 씰돌.(숫돌.)

**김순자** 씰돌로. 여기는 씰돌 헙니까?(숫돌로. 여기는 '씰돌'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씰돌로 골멍 비고. 겐 그다음에 무끄는 건 지께?(숫돌로 갈면서 베고. 그래서 그다음에 묶는 건 '지께'?)

**고춘권** 건 보리로 직접 그걸 허는 건 지께[18].(건 보리로 직접 그걸 하는 건 '지께'.)

**김순자** 지께예.('지께'요.)

**고춘권** 지께엔 허민 지대로 그자.('지께'라고 하면 저대로 그저.)

**김순자** 지께고 그다음 께 틀엉 허는 건? 무시거 무끌 때 께를 틀엉 무끄는 것과?('지께'고 그다음 매끼 꼬아서 하는 건? 무엇 묶을 때 매끼를 꼬아서 묶는 겁니까?)

**고춘권** 이 저 깰 무끄는 건 여라 가지주, 건. 이 낭뎅이 건 거 조나 피.(이 저 매낄 묶는 건 여러 가지지, 건. 이 대 긴 거 조나 피.)

**김순자** 으.(으.)

**고춘권** 이 저 산디, 벼. 그런 것은 낭뎅이가 기니까 그대로 지께로 무끄고. 또 이 저 그런 거 벼 같은 것도 지께로, 건 가벼우니까 지께로 무끄젠 허민 크게 무끄지 못 허여. 졸면은 날라 뎅김이 힘들거든. 경허난 그런 거 단을 크게, 크게 멘들젠 허민 께를 틀어가지고. 거 새, 새 비여 가지고 새로.(이 저 밭벼, 벼. 그런 것은 대가 기니까 그대로 '지께'로 묶고. 또 이 저 그런 거 벼 같은 것도 '지께'로, 건 가벼우니까 '지께'로 묶으려고 하면 크게 묶지 못해. 잘면 날라 다니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단을 크게, 크게 만들어서 하면 매끼를 꼬아가지고. 거 띠, 띠 베어 가지고 띠로.)

**김순자** 그다음에 보리 비여 오고 허면 테작은 무슨 걸로 허는 거?(그다음에 보리 베어 오고 하면 타작은 무슨 거로 하는 거?)

**고춘권** 태작은 그 저 도께로 헷주. 홀테로 홀탕 고고리만 홀타가지고 옛날은 다 집집마다 그 홀테가 잇엇주. 그걸로 헹 홀탕 도께로 태작허영.(타작은 그 저 도리깨로 했지. 그네로 홅아서 이삭만 홅아가지고 옛날은 다 집집마다 그 그네가 있었지. 그걸로 해서 홅아서 도리깨로 타작해서.)

**김순자** 겐 태작허민 어디 강 방에 지어 올 거?(그래서 타작하면 어디 가서 방아 찧어 올 거?)

---

18) '지께'는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그 곡식 줄기를 틀어 만든 것을 말한다.

**고춘권** 건이 방에에 보리 지젠 허면 그건 참. 옛날엔 다 집집마다 방에 엇인 디가 엇엇주.(건 방아에 보리 찧으려고 하면 그건 참. 옛날엔 다 집집마다 방아 없는 데가 없었지.)

**김순자** 아까 방에왕 헹예?(아까 방앗간 해서요?)

**고춘권** 으, 방에왕이서 물 커근에, 보리 물 컹 베꼇디 껍질이 껍질이 좀 물 울어야 거질 수가 있는 거주게. 껍질을 벗겨야 허는 거니까?(으, 방앗간에서 물 담갔다가, 보리 물 담갔다가 밖에 껍질이 껍질이 좀 물 불어야 거 찧을 수 있는 거지. 껍질을 벗겨야 하는 거니까?)

**김순자** 방에 질 때는 물 헷당 허는 거구나.(방아 찧을 때는 물 했다가 하는 거구나.)

**고춘권** 경헹 거 방에에서 거. 게난 그 글후제 이젠 그 정미소가 부락마다 이제는 그 발동기 헤 가지고 정미소 허는 사름이 생김 시작허난 그자 거기서 보리도 골고 모든 곡식을 골앗주. 옛날에 우리 두린 때 우리는 경 안 헤 봣지만 우리 어머니네덜은 방에에서덜 살앗주.(그래서 거 방아에서 거. 그러니까 그 그 후에 이젠 그 정미소가 부락마다 이제는 그 발동기 해 가지고 정미소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저 거기서 보리도 갈고 모든 곡식을 갈았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봤지만 우리 어머니네들은 방아에서들 살았지.)

**김순자** 경헹 이렇게 방에왕에서 허는 거라예?(그래서 이렇게 방앗간에서 하는 거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삼춘 몰려야잖아. 몰릴 때는 무시거에 널엉 몰렷수과?(그다음에 삼촌 말려야잖아. 말릴 때는 무엇에 널어서 말렸습니까?)

**고춘권** 이 저 장마에, 장만 지고 벳은 아이 나고 몰류왕 그걸 헤야 헐 건디 못 몰류왕 헐 때는 이 저 부섭, 부섭 우이다가 우이다가 그 소쿠리, 소쿠리 이렇게 걸어. 거기 저 놩 아래서 불 살뢍 불 살랑 몰림도 헷주게. 그건 쪼금 서 먹기 위해 가지고. 양식은 엇고 이 보린 장만은 못 허고 만 지고 허면은 고고리를 헤다가 고고리차, 고고리차 이제 소쿠리에 놔근에.(이 저 장마에, 장마 지고 볕은 안 나고 말려서 그걸 해야 할 건데 못 말려서 할 때는 이 저 '부섭', '부섭'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 소쿠리, 소쿠리 이렇게 걸어. 거기 저 놔서 아래서 불

살라서 불 살라서 말리기도 했지. 그건 조금 일찍 먹기 위해 가지고. 양식은 없고 이 보린 장만은 못 하고 장만 지고 하면 이삭을 해다가 이삭째, 이삭째 이제 소쿠리에 놔서.)

**김순자** 몰류와?(말려?)

**고춘권** 으, 몰렷주게.(으, 말렸지.)

**김순자** 게민 그 고고리는 솟디 놩 쪄근에 몰렷수과?(그럼 그 이삭은 솥에 놔서 쪄서 말렸습니까?)

**고춘권** 건 몰르크라, 원 쪈사 몰려신디 어떵사 헤신디. 우리, 우리 두린 땐 경헌디. 우리는 우리 집이선 안 헤 봣는디 경 허는 디가 잇엇주.(건 모르겠어, 원 쪄서야 말렸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우리, 우리 어릴 땐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선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경 허는 줄만 알앗주. 거 쪈 헷는지 어떵 헷는지 것ᄀᆞ지는 모르쿠라.(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지. 거 쪄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것까지는 모르겠어.)

**김순자** 그런 보리를 무신 보리 헙니까?(그런 보리를 무슨 보리 합니까?)

**고춘권** 보통 술우리랏주게. 보통 먹는 건 다 술우리라시난.(보통 쌀보리였지. 보통 먹는 건 다 쌀보리였으니까.)

**김순자** 아니, 삼춘 섯보리엔 헌 말은?(아니, 삼촌 '섯보리'라고 하는 말은?)

**고춘권** 으, 섯보리?(으, '섯보리'?)

**김순자** 섯보리예.('섯보리'요.)

**고춘권** 건 선 거, 선 때 허는 거난 섯보리주.(건 선 거, 선 때 하는 거니까 '섯보리'지.)

**김순자** 아까 서 먹다 허는 말은 무신 말이우과?(아까 '서' 먹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춘권** 그걸, 그걸 서 먹넨, 서 먹엇젠 허는 거주.(그걸, 그걸 '서' 먹는다고, '서' 먹었다고 하는 거지.)

**김순자** 서 먹엇젠예. 게난 옛날 보릿고개덜 헐 때는 익지 안헌 것덜예?('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보릿고개들 할 때는 익지 않은 것들요?)

**고춘권** 으. 조도 저 조도 장만허기 전에 양식이 떨어졍 허면은 밧디서 그냥 고고리

만.(으. 조도 저 조도 장만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서 하면 밭에서 그냥 이삭만.)

**김순자** 예.(예.)

**고춘권** 고고리만 우선 헤근에 그 저 물류왕 그 먹는 걸 거 서 먹음이엔 헷주게.(이삭만 우선 해서 그 저 말려서 그 먹는 걸 거 '서' 먹기라고 했지.)

**김순자** 서 먹음예. 삼춘 멍석들, 옛날에 날레[19] 널젠 허멍 다 멍석에 널 거 아니라예?('서' 먹기요. 삼촌 멍석들, 옛날에 '날레' 널려고 하면 다 멍석에 널 거 아닌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삼춘 멍석도 직접 졸아 봔?(삼촌 멍석도 직접 결어 봤어요?)

**고춘권** 아니.(아니.)

**김순자** 건 안 헤 보고?(건 안 해 보고?)

**고춘권** 으. 멕, 멩텡이 절어 봣주.(으. 멱, 망태기 결어 봤지.)

**김순자** 아, 멩텡이는예. 멩텡이는 어떤 식으로 저는 것과?(아, 망태기는요. 망태기는 어떤 식으로 겯는 겁니까?)

**고춘권** 멩텡이 저는 거, 건 노 꼬앙 찝.(망태기 겯는 거, 건 노 꼬아서 짚.)

**김순자** 예.(예.)

**고춘권** 찝을 막 마께로 헤영 그거 그 장만헹 놧다근에 그 첨 노 꼬앙.(짚을 마구 방망이로 해서 그거 그 장만해서 놨다가 그 참 노 꼬아서.)

**김순자** 예.(예.)

**고춘권** 놀 놔근에 구덕 저는 식으로. 그자 구덕 저는 식이랏주. 영 창 절아놔근에 그냥 돌아멩 이렇게 헷주게.(놀 놔서 바구니 겯는 식으로. 그저 바구니 겯는 식이었지. 이렇게 짜서 결어놔서 그냥 달아매서 이렇게 했지.)

**김순자** 그 멩텡이 용도는 뭐우과?(그 망태기 용도는 뭡니까?)

**고춘권** 아, 거 곡식 놀 거주, 뭐. 멩텡이 아니민 곡식 놀 것이 엇주, 뭐. 항엔.(아, 거 곡식 넣을 거지, 뭐. 망태기 아니면 곡식 넣을 것이 없지, 뭐. 항아리엔.)

**김순자** 예.(예.)

---

19)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는 곡식을 말한다.

**고춘권** 항엔 다 몰류왕 몰류왕 그 마지막에 이제는 정미소에 가기 전에 간직헐 때에 그 항에 들어가주. 그 전인 멩텡이에 헹 삼방이나 이 저 정지에나 헤근에. 멩텡이에 담앗당 다 몰리운 다음에야 이제 고팡에 들어가주.(항아리엔 다 말려서 말려서 그 마지막에 이제는 정미소에 가기 전에 간직할 때에 그 항아리에 들어갔지. 그 전엔 망태기에 해서 마루나 이 저 부엌에나 해서. 망태기에 담았다가 다 말린 다음에야 이제 고방에 들어가지.)

**김순자** 아. 게난 그 멩텡이도 삼춘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또나지 안헙니까?(아. 그러니까 그 망태기도 삼촌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춘권** 거, 것도 좀 틀리주. 막 큰 거 헤근에 혼 혼 뭐 혼 두어, 두어 섬, 혼 서너 섬 들어가게 허는 멩텡이는 건 이동 안 허영 그자 앚은 멩텡이.(거, 것도 좀 다르지. 아주 큰 거 해서 한 한 뭐 한 두어, 두어 섬, 한 서너 섬 들어가게 하는 망태기는 건 이동 안 해서 그저 앉은 망태기.)

**김순자** 앚은 멩텡이.(앉은 망태기.)

**고춘권** 앉아 가지고 ᄀᆞ만이 앚졍. 앚진 멩텡이주.(앉아 가지고 가만히 앉혀. 앉힌 망태기지.)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경헌 거 놔서 거기에 테작허멍 헤당 담앗당 거 덜멍 몰령 또 이제 몰리운 건 항, 항에 담고 이렇게 허는 거.(그렇게 한 거 놔서 거기에 타작하면서 해다가 담았다가 거 덜면서 말려서 또 이제 말린 건 항아리, 항아리에 담고 이렇게 하는 거.)

**김순자** 그 앚은 멩텡이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건 엇수과?(그 앉은 망태기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건 없습니까?)

**고춘권** 그건 모르크라. 다른 말로 뭐엔사 불러신디. 우린 그냥 앚은멕, 앚은멕 헷주게.(그건 모르겠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우린 그냥 '앚은멕', '앚은멕' 했지.)

**김순자** 아, 앚은멕?(아, '앚은멕'?)

**고춘권** 으.(으.)

**김순자** 예. 앚은멕허고 멕허고?(예. '앚은멕'하고 멱하고?)

**고춘권** 으, 보통 존 것덜은 보통 멕이엔 헷고.(으, 보통 잔 것들은 보통 멱이라고 했

고.)

**김순자** 또 어깨에 둘러멩 씨 뿌릴 때 쓰는 거?(또 어깨에 둘러매서 씨 뿌릴 때는 쓰는 거?)

**고춘권** 으?(으?)

**김순자** 똥 줏으레 뎅길 때 쓰는 거?(똥 주우러 다닐 때 쓰는 거?)

**고춘권** 건 그자 질멕이엔도 허고. 지영 뎅기는 거난 질멕이엔도 헷주만은. 거 뭐 특별허게 불른 거 아니고 그냥.(건 그저 '질멕'이라고도 하고. 져서 다니는 거니까 '질멕'이라고도 했지만. 거 뭐 특별하게 부른 거 아니고 그냥.)

**김순자** 예, 질멕. 그다음 또 멩텡이. 씨멩텡이?(예, '질멱'. 그다음 또 망태기. 씨망태?)

**고춘권** 으.(으.)

**김순자** 씨멩텡이 이런 것도 잇지예, 씨멩텡이?(씨망태 이런 것도 있지요, 씨망태?)

**고춘권** 어?(어?)

**김순자** 씨 영 담앙 허는 거 씨멩텡이렌 안 골아마씨?(씨 이렇게 담아서 하는 거 씨망태라고 안 말해요?)

**고춘권** 그런 건 저 허는 디선 몰라도 여기선 그런 거.(그런 거 저 하는 데선 몰라도 여기선 그런 거.)

**김순자** 아, 안 허고예. 부게기도 헙니까, 씨 저장허는 부게기도 만듭니까, 씨부게?(안, 안 하고요. '부게기'도 합니까, 씨 저장하는 '부게기'도 만듭니까, 씨망태?)

**고춘권** 부게, 부게엔 헌 것도 우린 그런 걸 안 헤 보니까.('부게', '부게'라고 하는 것도 우린 그런 걸 안 해 보니까.)

**김순자** 아, 안 들어 봔예?(아, 안 들어 봤다고요?)

**고춘권** 그런 건 여기선 안 헷주게.(그런 건 여기선 안 했지.)

**김순자** 아까 삼춘 질멕 헷는데 질멕은 뭐 헐 때 쓰는 게 질멕?(아까 삼촌 '질멕' 했는데 '질멕'은 뭐 할 때 쓰는 게 '질멕'?)

**고춘권** 질멕? 질멕이엔 헌 것이 벨로 거 기자 지는 거 질멕이지. 여기서 보통 질멕이엔 또로 허덜 안 헷어.('질멕'? '질멕'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거 그저 지는 거 '질멕'이지. 여기서 보통 '질멕'이라고 따로 하지 않았어.)

**김순자** 예.(예.)

**고춘권** 질멕이엔 허젠 허민 지는 그 끈도 돌고 다 허영 지게끄름 멘들앙 그 질멕이엔 헷는데 여기선 그런 거 사용을 안 헷주게.('질멕'이라고 하려고 하면 지는 그 끈도 달고 다 해서 지게끔 만들어서 그 '질멕'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그런 거 사용을 안 했지.)

**김순자** 게믄 그 똥 줏이레 뎅길 땐 무시거 앗앙 갓수과?(그럼 그 똥 주우러 다닐 땐 무엇 가지고 갔습니까?)

**고춘권** 멩텡이 앗앙 갓주게. 보통 멩텡이.(망태기 가지고 갔지. 보통 망태기.)

**김순자** 보통 멩텡이. 그추룩 허면 날레 널엉 젓일 때 쓰는 도구는 무시거?(보통 망태기. 그처럼 하면 '날레' 널어서 저을 때 쓰는 도구는 무엇?)

**고춘권** 거, 거 날레 영 헹 젓는 거 군데.(거, 거 '날레' 이렇게 해서 젓는 거 고무래.)

**김순자** 군데.(고무래.)

**고춘권** 여기선, 여기선 보통 군데엔 헷주, 날렛군데.(여기선, 여기선 보통 '군데'라고 했지, '날렛군데'.)

**김순자** 날렛군데예.('날렛군데'요.)

**고춘권** 으, 날레 널엉 젓는 거난 날렛군데. 또 이 굴묵에서 굴묵에서 그 거기 따시 굴묵 짇젠 허민 잴 꺼내 버려야 뒈여. 불껑 꺼내는 건 굴묵에서 사용허는 거니까 굴묵군데.(으, '날레' 널어서 젓는 거니까 고무래. 또 이 '굴묵'에서 '굴묵'에서 그 거기 또 '굴묵' 때려고 하면 재를 꺼내 버려야 돼. 재 꺼내는 건 '굴묵'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굴묵군데'.)

**김순자** 삼춘 그.(삼촌 그.)

**고춘권** 부억군데. 부억에서도 솟강알에 그 뭐 허는 건 정지, 부억군데. 정짓군데엔 헷주, 정짓군데.(부엌 고무래. 부엌에서도 아궁이에 그 머 하는 건 부엌, 부엌 고무래. '정짓군데'라고 했지, '정짓군데'.)

**김순자** 아, 게민 군데가 세 가지예? 날렛군데 잇고 굴묵군데 잇고 정짓군데?(아, 그럼 고무래가 세 가지요? '날렛군데' 있고 '굴묵군데' 있고 '정짓군데'?)

**고춘권** 으, 정짓군데.(으, '정짓군데'.)

**김순자** 아. 게민 보면 날레 젓는 거는 톱니처럼 생기고.(아. 그럼 보면 '날레' 젓는 거는 톱니처럼 생기고.)

**고춘권** 으. 그자 재 허는 건 잴 깨끗허게 끗어내젠 허면은 날렛군데허고 틀려야주

게.(으. 그저 재 하는 건 잴 깨끗하게 끌어내려고 하면 '날렛군데'하고 달라야지.)

**김순자** 예, 건 멘짝허게 허고예?(예, 건 미끈하게 하고요?)

**고춘권** 멘짝허게.(미끈하게.)

**김순자** 예. 그 날렛군데는 무신 남으로 멘듭니까?(예. 그 '날렛군데'는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고춘권** 것도 남 이 쎈 남이라 뒈여. 쎈남 아니면은 그 밑에 것이 톧아져 불거든.(것도 나무 이 센 나무라야 돼. 센 나무 아니면 그 밑에 것이 떨어져 버리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거 떨어져 분단 말야, 영 헹 자꾸 저어 가민. 게난 것도 보통 가시남덜이나 마릿널 ᄀᆞ튼 거 옛날 거 그런 거 뜯은 걸로 헷주게. 무른 남은 안 뒈.(거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 저어 가면. 그러니까 것도 보통 가시나무들이나 마룻널 같은 거 옛날 거 그런 거 뜯은 걸로 했지. 무른 나무는 안 돼.)

**김순자** 무른 남은 안 뒈예. 그럼 이 마릿널은 보통 무슨 남으로 헙니까?(무른 나무는 안 돼요. 그럼 이 마룻널은 보통 무슨 나무로 합니까?)

**고춘권** 마릿널 그거 오래 가야 뒈고 좀도 잘 안 먹어야 뒈고 허니까 보통 가시남, 옛날에 가시남을 그 헷는데.(마룻널이 그거 오래 가야 되고 좀도 잘 안먹어야 되고 하니까 보통 가시나무, 옛날에 가시나무를 그 했는데.)

**김순자** 예.(예.)

**고춘권** 우리, 우리 대 나가지곤 그 가시남이 엇엇주게. 건 옛날에 한라산에 그 나무가 많을 때 옛집에는 그런 거 헷고 우리 대에는 보통 이 소나무로 헷주게.(우리, 우리 대 나가지고는 그 가시나무가 없었지. 건 옛날에 한라산에 그 나무가 많을 때 옛집에는 그런 거 했고 우리 대에는 보통 이 소나무로 했지.)

**김순자** 예, 소나무. 그다음에 이렇게 허고. 여기도 ᄀᆞ레왕, 몰ᄀᆞ레왕?(예, 소나무.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연자맷간, '말연자맷간'?)

**고춘권** 으.(으.)

**김순자** 거기 강 헤 오는 건 주로 뭐 허는 거?(거기 가서 해 오는 건 주로 뭐 하는 거?)

**고춘권** ᄀᆞ레왕 이거, 건이 거기서 보리, 조, 산디 다 그때 시절엔 이 정미소 나기 전엔 전부다 몰ᄀᆞ레왕에서 헷주게. 우리도 ᄀᆞ렐 많이 골아봤어. 몰ᄀᆞ레왕 가민 사

름으로, 많이 골젠 허민 사름으로만 어렵거든. 허면은 이 몰.(연자맷간 이거, 건 거기서 보리, 조, 밭벼 다 그때 시절엔 이 정미소 나기 전엔 전부다 연자맷간에서 했지. 우리도 맷돌 많이 갈아봤어. '말연자맷간' 가면 사람으로, 많이 갈려고 하면 사람으로만 어렵거든. 하면 이 말.)

**김순자** 예.(예.)

**고춘권** 몰에 메와근에 몰 빙빙 돌게시리. 겐 몰ᄀᆞ레왕이엔 헷주, 몰ᄀᆞ레왕.(말에 메워서 말 빙빙 돌게끔. 그래서 '말연자맷간'라고 했지, '말연자맷간'.)

**김순자** 경허난 몰ᄀᆞ레왕이구나?(그러니까 '말연자맷간'이구나?)

**고춘권** 몰 허영 허는 거난 몰ᄀᆞ레왕.(말 해서 하는 거니까 '말연자맷간'.)

**김순자** 게믄 이제 그 몰ᄀᆞ레왕 허게 뒈면 그 방에는 어떤 식으로 지는 거라? 몰ᄀᆞ레 메우면?(그럼 이제 그 '말연자맷간' 하게 되면 그 방아는 어떤 식으로 찧는 거야? '말연자매' 메우면?)

**고춘권** 메우면 건 그냥 돌아 감만 허민 뒈는 거고 거기 이 비치락, 저런 거. 비치락 헤근에 곡식 그레 비와 놩 이 영 영 돌아가민 것이 비슴헌 거난 알러레 영 ᄂᆞ려오게 뒀어. 곡식이 ᄂᆞ려와 가지고, 자동적으로 ᄂᆞ려오게 뒌 거주게. 이 ᄂᆞ려온 거 덜 골아졍, 처음에 덜 골아졍 ᄂᆞ려오거든. 경허민 따시 저런 비짜락으로 올려근에 두불 세불 ᄂᆞ려오게시리 허영 거 골멍 ᄂᆞ려오게시리 허주게. 게믄 껍데기가 반 정도 벳겨지면은 그걸 또 분리시켜 불지 안허면은 북삭져근에[20] 잘 골아지지 안허여.(메우면 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 이 빗자루, 저런 거. 빗자루 해서 곡식 그리 부어 놔서 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것이 엇비슥한 거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 곡식이 내려와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 이 내려온 거 덜 갈려서, 처음에 덜 갈려서 내려오거든. 그러면 또 저런 빗자루로 올려서 두벌 세벌 내려오게끔 해서 거 갈면서 내려오게끔 하지. 그럼 껍데기가 반 정도 벗겨지면 그걸 또 분리시켜 버리지 않으면 '북삭해져서' 잘 갈리지 않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허면은 그걸 다 이제 담앙 이 저 ᄇᆞ름에 불려야 뒈거든. ᄇᆞ름이 좋을 때는

20) '북삭져근에'는 (가루와 곡식 따위가 섞이어) 푸석거려서의 의미다.

ᄇᆞ름에 불릴 수가 잇는데 불릴 수가 없거든. 경허면은 푼체, 영 영 허는 거이. 그걸로 허여근에 첼 ᄀᆞ립 갈라 가지고 또 두불 골고.(그러면 그걸 다 이제 담아서 이 저 바람에 불려야 되거든. 바람이 좋을 때는 바람에 불릴 수가 있는데 불릴 수가 없거든. 그러면 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해서 겨를 금 갈라 가지고 또 두벌 갈고.)

**김순자** 걸 푼체렌 헙니까?(걸 키라고 합니까?)

**고춘권** 으, 푼체[21]. 풍체는 ᄇᆞ름 풍, ᄇᆞ름 날리는 ᄇᆞ름 내우는 체주, 풍체.(으, 키. 키는 바람 풍, 바람 날리는 바람 내우는 체지, 키.)

**김순자** 예. 그다음 불리젠 허면은 무신 거가 필요헌 거?(예. 그다음 불리려고 하면 무슨 거가 필요한 거?)

**고춘권** 솔박[22].('솔박'.)

**김순자** 솔박, 솔박예.('솔박', '솔박'요.)

**고춘권** 손박이엔 헤, 손박 그게. 겐디 여기서 솔박 솔박 허주. 잘 돌아가는 거, 제기 곧젠 허민 솔박이엔 허여.('손박'이라고 해, '손박' 그게. 그런데 여기서 '솔박' '솔박' 하지. 잘 돌아가는 거, 재게 말하려고 하면 '솔박'이라고 해.)

**김순자** 게난 수산에서는 솔박?(그러니까 수산에서는 '솔박'?)

**고춘권** 손으로 잡아 가지고 허는 거난 손박이주게.(손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손박'이지.)

**김순자** 예. 게난 여기서는 솔박이렌 허는 거잖아예?(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삼춘 그 솔박도 멘들아 봔?(삼촌 그 '솔박'도 만들어 봤어요?)

**고춘권** 솔박은 우린 안 멘들어 봣어.('솔박'은 우린 안 만들어 봤어.)

**김순자** 아, 안 멘들어 보고예.(아, 안 만들어 보고요.)

**고춘권** 우린 이 목수질은 안 헤 보니까.(우린 이 목수질은 안 해 보니까.)

**김순자** 푼체는 뭘로 멘듭니까?(키는 뭘로 만듭니까?)

---

21) '풍체'는 제보자가 '푸는체'를 '풍체' 또는 '푼체'로 잘못 발음한 것 같다.

22) '솔박'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기름하면서도 둥그스름하게 만든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팍, 좀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고춘권** 그거 이 저 보통 그때 시절에 자골, 자골이엔 허민 알아? 들에 나는 자골?(그거 이 저 보통 그때 시절에 차풀, 차풀이라고 하면 알아? 들에 나는 차풀?)

**김순자** 예, 알아집니다.(예. 알아집니다.)

**고춘권** 그 자골 그걸로 멘들앗주게.(그 차풀 그걸로 만들었지.)

**김순자** 것도 멘드는 하르방덜이 잇어?(것도 만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고춘권** 으, 전문적으로 멘드는 하르방이 잇엇주.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서쪽에서 멘들앙 것이 나오대.(으, 전문적으로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런 것도 보면 다 서쪽에서 만들어서 것이 나오대.)

**김순자** 아, 이쪽보다 그쪽이 많이 허는 거구나. 그다음 영 헤근에 보리는 끗나는 거고예. 이 보리 종류는 멧 종류나 잇어신고예?(아, 이쪽보다 그쪽이 많이 하는 거구나. 그다음 이렇게 해서 보리는 끝나는 거고요. 이 보리 종류는 몇 종류나 있었을까요?)

**고춘권** 보리, 보리는 그때 시절엔 그 웨정 때 맥주맥을 멘들지 안허고 요 근래에 와서 맥주맥이 헷주, 그 옛날엔 맥주맥도 엇어. 그자 술오리허고 질오리엔 헌 거, 거 두 가지가 잇엇주.(보리, 보리는 그때 시절엔 그 왜정 때 맥주보리를 만들지 않고 요 근래에 와서 맥주보리가 했지, 그 옛날엔 맥주보리도 없어. 그저 쌀보리하고 '질오리'라고 한 거, 거 두 가지가 있었지.)

**김순자** 술오리허고 질오리예. 게난 그 질오리가 요즘 맥주맥허고 비슷헌 거예?(쌀보리하고 '질오리'요. 그러니까 그 '질오리'가 요즘 맥주보리하고 비슷한 거요?)

**고춘권** 으, 음.(으, 음.)

**김순자** 그다음에 조도 여기 하영 볼립니까[23]?(그 다음에 조도 여기 많이 갑니까?)

**고춘권** 조 하영 헷주.(조 많이 했지.)

**김순자** 조는 어떤 식으로 볼렷수과?(조는 어떤 식으로 갈았습니까?)

**고춘권** 조는 보통 우리가 양식 먹는 거 그 모인조 또 그 찰조 그 흐린 거, 차조 그 두 가지 종류지.(조는 보통 우리가 양식 먹는 거 그 메조 또 그 차조 그 차진 거,

23) '볼리다'는 표준어의 '밟다'에 대응한다. '조 볼리다'는 조를 파종한 후 씨가 잘 묻히도록 흙을 밟는 것으로 '조를 파종하다, 갈다'의 의미다.

차조 그 두 가지 종류지.)

**김순자** 조 혼 번 불려 봅서. 조 불리는 게 큰일이엔 헨게만은. 조 불리는 거 혼 번 불려 봐.(조 한 번 갈아 보세요. 조 밟는 게 큰일이라고 하더니만. 조 밟는 거 한 번 밟아 봐.)

**고춘권** 불려 봐. 소리헤 보렌 허는 말이라?(밟아 봐. 소리해 보라고 하는 말이야?)

**김순자** 소리도 허고 어떤 식으로 헷는지, 조를 붋앙 수확헐 때까지의 과정?(소리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를 갈아서 수확할 때까지의 과정?)

**고춘권** 게난 그 밧 갈앙.(그러니까 그 밭 갈아서.)

**김순자** 예.(예.)

**고춘권** 밧을 두불 갈아야지. 게난 그 밧디 풀 난 거 갈아근에 이제 미리 갈앗당 그 불릴 때 뒈 가민 그 풀이 나잖아. 게난 그 풀 메젠 허민 두불 갈앗당.(밭을 두 벌 갈아야지. 그러니까 그 밭에 풀 난 거 갈아서 이제 미리 갈았다가 그 갈 때 돼 가면 그 풀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풀 매려고 하면 두벌 갈았다가.)

**김순자** 예.(예.)

**고춘권** 두불 갈앙, 그 풀을 딱딱헌 디서 메젠 허민 거 공 드니까게. 그 풀을 다 메 놩 이젠 그 씨 삐영 불려야 뒈거든. 불련에 그때는 해변더레나 이 뭐 헌 데는 그 저 남테[24]라고 헤 가지고 남에다가 이 저 자루 돋졍, 자루 돋졍 이 물 불리는 대신 그걸 멘들앙 헷고 이 중산간에는 우마가 만허니까 다 우마덜 기르니까 우마로 물이나 쉐로 불렷주게. 겐 보통 물로 헷주, 물로.(두벌 갈아서, 그 풀을 딱딱한 데서 매려고 하면 거 공 드니까. 그 풀을 다 매 놔서 이젠 그 씨 뿌려서 갈아야 되거든. 갈아서 그때는 해변으로나 이 뭐 한 데는 그 저 '남테'라고 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저 자루 돋쳐서, 자루 돋쳐서 이 말 밟는 대신 그걸 만들어서 했고 이 중산간에는 우마가 많으니까 다 우마들 기르니까 우마로 말이나 소로 밟았지. 그래서 보통 말로 했지, 말로.)

**김순자** 게믄 아까 이제 밧을 초불 갈고 두불 간덴 헷잖아예. 것도 무슨 불르는 이름 잇수과? 초불 가는 것을 뭣이엔 골아, 이디서?(그럼 아까 이제 밭을 초벌 갈

24)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면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고 두벌 간다고 했잖아요. 것도 무슨 부르는 이름 있습니까? 초벌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 여기서?)

**고춘권** 아, 무슨 초불 가는 거 초불, 두불 가는 거 두불 그거주, 무슨.(아, 무슨 초벌 가는 거 초벌, 두벌 가는 거 두벌 그거지, 무슨.)

**김순자** 게믄 여기는 이 수산에서 삼춘네 조 불릴 때는 어떤 식으로 헨? 남테로 헨, 아니면 쉐로?(그럼 여기는 이 수산에서 삼촌네 조 밟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 '남테'로 했어요, 아니면 소로?)

**고춘권** 아니, 물로. 이 수산은 이 물테우리덜이 여라이 잇엇주. 게난 이 테우리신디 우리 밧디 메칠날 불려 도렌 허면은 그 사름네 물 가졍완 물이 그 물테우리 허는 사름덜은 혼 열 개 이상, 혼 이삼십 무리씩 허거든. 경허민 뭐 혼 천 평 불리는 디도 혼 멧 분이민 거 불릴 거난.(아니, 말로. 이 수산은 이 '말테우리'들이 여럿 있었지. 그러니까 이 '테우리'한테 우리 밭에 며칠날 밟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네 말 가져와서 말이 그 '말테우리' 하는 사람들은 한 열 개 이상, 한 이삼십 마리씩 하거든. 그러면 뭐 한 천 평 밟는 데도 한 몇 분이면 거 밟을 거니까.)

**김순자** 아, 밧을 가는 것은 주인이 다 허고.(아, 밭을 가는 것은 주인이 다 하고.)

**고춘권** 어. 불리는 건 테우리 빌령.(어. 밟는 건 '테우리' 빌려서.)

**김순자** 게민 씨를 뿌려근에 밧을 갑니까?(그럼 씨를 뿌려서 밭을 갑니까?)

**고춘권** 아니, 아니. 다 불령 완전히 세밀허게 풀 다 치고 다 헤 놓면은, 오랑 불려 도렌 허면은 이 물로, 소로 간 거니까 이런 두들두들헐 거 아니. 이젠 그걸 골라 놔야 씨 삐여, 씨가 조씨는 줌지니까. 게난 물 디밀어 가지고 물로 다 골르는 거야. 혼 번 쓱 허게시리 불리면은 다 펜펜허게 골라지면은 이제 씰 삐영 또 두불 불리는 거라.(아니, 아니. 다 밟아서 완전히 세밀하게 풀 다 치고 다 해 놓으면, 와서 밟아 달라고 하면 이 말로, 소로 간 거니까 이런 두툴두툴할 거 아니. 이젠 그걸 골라 놔야 씨 뿌려, 씨가 조씨는 자니까. 그러니까 말 들이밀어 가지고 말로 다 고르는 거야. 한 번 쓱 하게끔 밟으면 다 편편하게 골라지면 이제 씰 뿌려서 또 두벌 밟는 거야.)

**김순자** 아, 두불 불리는 거.(아, 두벌 밟는 거.)

**고춘권** 경헹 뜬뜬허게 불려야 이 놀이 불어도 조남뎅이 워낙 긴 거라 놓니까 것이 자

빠지지 안헤.(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밟아야 이 큰 바람이 불어도 조대 워낙 긴 거여 놓으니까 것이 쓰러지지 않아.)

**김순자** 아.(아.)

**고춘권** 견 따문에 몰로 볼리는 거주게. 게난 남테로 볼리면은 것이 잘 골라지고. 어느 정도는 뒈는데 몰로 볼린 것만은 못해.(그런 때문에 말로 밟는 거지. 그러니까 '남테'로 밟으면 것이 잘 골라지고. 어느 정도는 되는데 말로 밟은 것만은 못해.)

**김순자** 예, 그추룩 헤근에 이젠 볼랑. 그다음에 조가 나면은 검질메는 거?(예, 그처럼 해서 이젠 밟아서. 그다음에 조가 나면 김매는 거?)

**고춘권** 으, 거 다 소까야지.(으, 거 다 솎아야지.)

**김순자** 소끄는 거.(솎는 거.)

**고춘권** 씨 좀질고 허니까게 막 모도록모도록허게 좋게 간 디도 잇고 드물게 간 디도 잇고 허니까게. 좋인 디 거 다 소까야. 혼 요 정도 길이 간격을 둬 가지고, 남뎅이가 큰 거라 놓니까 막 드물게 놔야지. 검질 그디 조팟디는 막 두불 세불 메야지. 세불꺼지 메야.(씨 잘고 하니까 아주 모도록모도록하게 잦게 간 데도 있고 드물게 간 데도 있고 하니까. 잦은 데 거 다 솎아야. 한 요 정도 길이 간격을 둬 가지고, 대가 큰 거여 놓으니까 아주 드물게 놔야지. 김 거기 조밭에는 아주 두벌 세벌 매야지. 세벌까지 매야.)

**김순자** 아, 세불까지예. 그러면은 처음에 초불 소끄고.(아, 세벌까지요. 그러면은 처음에 초벌 솎고.)

**고춘권** 으, 처음 소꽝. 준 때니까 조금 좋게 놔둬야 부름 불어도 지장 엇게끔 헤 두고 또 두불 헌 땐 또 드물게 소끄고.(으, 처음 솎아서. 잔 때니까 조금 잦게 놔둬야 바람 불어도 지장 없게끔 해 두고 또 두벌 할 땐 또 드물게 솎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또 세불은 경 허단 봐도 잇당 덜 소꽈진 디 그자 손 보는 격이주. 겐 세불ᄁᆞ장 메주.(또 세벌은 그렇게 하다가 봐도 있다가 덜 솎아진 데 그저 손 보는 격이지. 그래서 세벌까지 매지.)

**김순자** 삼춘 조 하면 씨 삐잖아예?(삼촌 조 하면 씨 뿌리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믄 그 하나 이렇게 이파리 나는 걸 뭐렌 골읍니까, 이디서?(그럼 그 하나 이렇게 잎 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고춘권** 작박.('작박'.)

**김순자** 작박.('작박'.)

**고춘권** 박 식으로 나거든 이렇게. 처음 이파리 나기 전에 처음 날 때 똑 요렇게 나거든, 요렇게. 거 작박, 작박 씨 낫젠 허주게.(박 식으로 나거든 이렇게. 처음 이파리 나기 전에 처음 날 때 꼭 요렇게 나거든, 요렇게. 거 '작박, 작박' 씨 났다고 하지.)

**김순자** 그다음에 작박 씨 난 다음에 이 가운디로?(그다음에 '작박' 씨 난 다음에 이 가운데로?)

**고춘권** 가운디 나는 거 솔. 곧장허게 솔입 닮으니까 솔이엔 헷주게, 솔입거치 나왓주게.(가운데 나는 거 솔. 곧게 솔잎 닮으니까 솔이라고 했지, 솔잎같이 나왔지.)

**김순자** 그다음에 또?(그다음에 또?)

**고춘권** 본 입, 제라허게 본 입 나오는 건 뭐엔사 헤신디 건 별도로 뭐.(본 잎, 제대로 본 잎 나오는 건 뭐라고 했는지 건 별도로 뭐.)

**김순자** 뭐 솔 거렷저 이런 말은 안 허고?(뭐 '솔 거렸다'고 이런 말은 안 하고?)

**고춘권** 솔 거렷저 이것은 곧작헌 것이 두불 나면은 두불 나근에 거리는 걸, 걸 솔 거렷젠 허는 거주.('솔 거렸지' 이것은 곧은 것이 두벌 나면 두벌 나서 거리는 걸, 걸 '솔 거렸다'고 하는 거지.)

**김순자** 으, 게난 그거를 솔이렌 헤예?(으, 그러니까 그거를 솔이라고 해요?)

**고춘권** 으, 굳작헌 거, 하나 올라온 걸 솔이렌 허고. 솔입거치 두 개 허면 솔 거렷젠 허고.(으, 곧은 거, 하나 올라온 걸 솔이라고 하고. 솔잎같이 두 개 하면 '솔 거렸다'고 하고.)

**김순자** 두 개 허민 솔 거렷젠 허고예. 예, 예 맞수다. 그다음에 조를 다 갈고 검질도 다 메고. 조는 비젠 허민 어떤 식으로 비는 것과?(두 개 하면 '솔 거렸다'고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를 다 갈고 김도 다 매고. 조는 베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베는 겁니까?)

**고춘권** 거 기자 어떤 식으로 건 벨다른 식이 엇고 그자 호미로. 건 비엇주게.(거 그저

어떤 식으로 건 별다른 식이 없고 그저 호미로. 건 베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호미로 비엉 거기서, 밧디서 대부분. 그걸 무껑 남뎅이가 큰 거라 놓니까 집이꺼지 날라 오젠 허믄 거 힘들거든. 거난 밧디서 쭉 허게 비여 낭 밧디서 저 고고리만 다 짤라 왓어.(그러니까 낫으로 베서 거기서, 밭에서 대부분. 그걸 묶어서 대가 큰 거여 놓으니까 집에까지 날라 오려고 하면 거 힘들거든. 그러니까 밭에서 쭉 하게 베어 놔서 밭에서 저 이삭만 다 잘라 왔어.)

**김순자** 그 고고리 짤르는 걸 뭐렌 헙니까?(그 이삭 자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톧암젠, 고고리 톧암젠 허주.(딴다고, 이삭 딴다고 하지.)

**김순자** 무시걸로 톧아?(뭐로 따?)

**고춘권** 거 호미로. 호미 영 헤영 발에 붋아서 그자 영 영도 허고 영 영 쫄름도 허고.(거 낫으로. 낫 이렇게 해서 발에 밟아서 그저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김순자** 보통은 영 꺼꿀로 허잖아예?(보통은 이렇게 거꾸로 하잖아요?)

**고춘권** 으, 경, 경 헷주게.(으, 그렇게, 그렇게 했지.)

**김순자** 고고리 톧앙 왕 그다음에? 건 뭘로 시꺼와?(이삭 따서 와서 그다음에? 건 무엇으로 실어와?)

**고춘권** 거 멩텡이에 담앙 와. 멩텡이에 담앙 지어왓주게.(거 망태기에 담아 와. 망태기에 담아서 지어왔지.)

**김순자** 아, 사람 힘으로?(아, 사람 힘으로?)

**고춘권** 어.(어.)

**김순자** 쉐로 허지 안허고?(소로 하지 않고?)

**고춘권** 거 쉐로 날를 정도로 그때 시절에 경 하영 못 헷주게. 어려운 때난. 짐으로 져도 혼 멧 망텡이민 혼 밧디 거 날라 올 거난게.(거 소로 나를 정도로 그때 시절에 그렇게 많이 못 했지. 어려운 때니까. 짐으로 져도 한 몇 망태기면 한 밭에 거 날라 올 거니까.)

**김순자** 삼춘 그 짐 지젠 허면 짐 지는 거는 뭐렌 골아마씨?(삼촌 그 짐 지려고 하면 짐 지는 거는 뭐라고 말해요?)

**고춘권** 짐 지는 거?(짐 지는 거?)

**김순자** 짐은 뭐로 졋수과?(짐은 뭐로 졌습니까?)

**고춘권** 베로 졋주(참바로 졌지.)

**김순자** 그 베도 직접 멘들아근에예?(그 참바도 직접 만들어서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베는 뭘로 멘들아?(그 참바는 뭘로 만들어?)

**고춘권** 벤 그 찝 산디찝, 찝으로 그냥 대중 헷주. 찝으로 허고 이 중간엔 그 신사락이엔 헌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뭴 수 잇으면 거 질기게 혼 번 허면은 오래 써야 뒈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혼엇이 벨다른 재료가 엇엇어. 젤 손쉽게 허는 건 기자 찝으로 솔지게 훍게 꼬아근에 헷주.(참반 그 짚밭볏짚, 짚으로 그냥 대중 했지. 짚으로 하고 이 중간엔 그 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가지고 그걸로도 꼬고. 될 수 있으면 거 길게 한 번 하면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런 재료가, 재료가 그때 시절엔 한없이 별다른 재료가 없었어. 젤 손쉽게 하는 건 그저 짚으로 살지게 굵게 꼬아서 했지.)

**김순자** 아, 삼춘 여기도 신사락?(아, 삼촌 여기도 뉴질랜드삼?)

**고춘권** 으, 신사락이엔 헌 거 잇어.(으, 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거 있어.)

**김순자** 신사락이엔 헌 거 잇어예?(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고춘권** 으, 그걸로 신도 삼앗고.(으, 그걸로 삼도 삼았고.)

**김순자** 신사락이엔 헌 걸로 신도 삼고예. 그다음에 그렇게 헤서 집에 오면 테작은 뭘로 헤여?(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걸로 신도 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타작은 무엇으로 해?)

**고춘권** 테작은 도께로 헷주.(타작은 도리깨로 했지.)

**김순자** 아, 도께로? 덩드렁마께론 안 헷수과?(아, 도리깨로? '덩드렁마께'론 안 했습니까?)

**고춘권** 덩드렁마께[25]론 거 서 먹을 때나 쪼그만 거 장만헐, 베꼇디서 마당에서 못 헐 때 그런 거 정지에서 헐 용이주. 많이 허도 못헷주게.('덩드렁마께'론 거 '서' 먹을 때나 조그만 거 장만할, 밖에서 마당에서 못 할 때 그런 거 부엌에서 할

25)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기는 방망이다.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짚 따위를 놓고 두드리거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다.

용이지. 많이 하지도 못했어.)

**김순자** 경 장만헹 불리고 몰리고 허는 거?(그렇게 장만해서 불리고 말리고 하는 거?)

**고춘권** 으, 몰리민 ᄀᆞ레왕에 강, 몰ᄀᆞ레왕에 강 골고.(으, 말리면 연자맷간에 가서, '말연자맷간'에 가서 갈고.)

**김순자** 몰ᄀᆞ레왕에 강 골고. 그다음 삼춘 감저도 하영 싱겅?('말연자맷간'에 가서 갈고. 그다음 삼촌 고구마도 많이 심어서?)

**고춘권** 감저, 감저 하영 싱것주. 뻿데기, 그때 시절에 뻿데기 헤야 돈 벌 거난에.(고구마, 고구마 많이 심었지. 절간고구마, 그때 시절에 절간고구마 해야 돈 벌 거니까.)

**김순자** 그 뻿데기 허젠 허민 무신 거에 썰엇수과?(그 절간고구마 하려고 하면 무슨 거에 썰었습니까?)

**고춘권** 그 뻿데기 칼이 잇엇주게. 거 뭐엔사 헤신디 원 건 몰르크라.(그 절간고구마 칼이 있었어. 거 뭐라고 했는지 전혀 건 모르겠어.)

**김순자** 우리는 거 기겡이렌 골읍디다만은.(우리는 거 '기계'라고 말합디다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기겡이. 누구네 밧디 기겡이 잇어니? 경허멍.('기계'. 누구네 밭에 '기계' 있더냐? 그러면서.)

**고춘권** 게메 그거 기겡이엔 헷는가, 원.(글쎄 그거 '기계'라고 했는가, 원.)

**김보향** 뻿데기 ᄀᆞ는 기계.(절간고구마 가는 기계)

**고춘권** 우린 보통 감저 기계엔 헷주.(우린 보통 고구마 기계라고 했지.)

**김순자** 감저 기계, 예.(고구마 기계, 예.)

**고춘권** 고구마, 고구마 그거는이 저 표준말이고 그땐 이 우리 제줏사름덜은 그냥 감저엔 헷주, 감저. 게난 감저 기계엔 헷주.(고구마, 고구마 그거는 저 표준말이고 그땐 우리 제줏사람들은 그냥 '감저'라고 했지, '감저'. 그러니까 '감저 기계'라고 했지.)

**김순자** 삼춘 그 절간도 하영 헨마씨?(삼촌 그 절간고구마도 많이 했어요?)

**고춘권** 아이고, 하영 헷주.(아이고, 많이 했지.)

**김순자** 그 뻿데기예?(그 절간고구마요?)

**고춘권** 으. 절간헤근에 그 농협에서 공판허고.(으. 절간해서 그 농협에서 공판하고.)

**김순자** 예, 둘밤이도 강 줏어 봅디가?(예, 달밤에도 가서 주워 봅디까?)

**고춘권** 하이고, 그때 밤낮을 골리지 안 헷주. 돌 훤헐 때 거 흰 거니까. 밤에 그 대중 헷주.(아이고, 그때 밤낮을 가리지 안 했지. 달 환할 때 거 흰 거니까. 밤에 그 대중 했지.)

**김순자** 감저 놓젠 허면 언제부터 헙디가?(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언제부터 합디까?)

**고춘권** 거 하지 뒈면은, 하지 뒈면은 일찍 그 허는 사름은 시작을 헷주. 하지에 논 것이 감저가 젤 잘 들엇어. 흙게 들고.(거 하지 되면, 하지 되면 일찍 그 하는 사람은 시작을 했지. 하지에 놓은 것이 고구마 젤 잘 들었어. 굵게 들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하지부터 헹 유월절 넘도록, 유월절 넘어 소서 넘도록 걸 헷주. 게난 쪼금이라도 꿀을 키와 놩 멘적을 많이 놓니까 많이 놓젠 허면은 늦게, 늦도록 놔야 주.(하지부터 해서 유월절 넘도록, 유월절 넘어 소서 넘도록 걸 했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덩굴을 키워 놔서 면적을 많이 놓으니까 많이 놓으려고 하면 늦게, 늦도록 놔야지.)

**김순자** 감저메는 어떵 놧수과?(고구마모종은 어떻게 놨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감저메 놔야 헐 거 아니과, 모종?(고구마모종 놔야 할 거 아닙니까, 모종?)

**고춘권** 아, 모종. 모종은 보통 그 밧 갈아근에 거기 그 묻으민 뒈고 그 일찍 놓젠 허면은 모종을 일찍 놧다근에 그 허젠 허면은 그 저 지금은 하우스 허주만은 그때는 하우스가 엇은 시절이난 추운 때 일월달이나 이월달에 모종을 놓젠 허면은 그 보온을 허지 안허민 안 뒈거든.(아, 모종. 모종은 보통 그 밭 갈아서 거기 그 묻으면 되고 그 일찍 놓으려고 하면 모종을 일찍 놨다가 그 하려고 하면 그 저 지금은 하우스 하지만 그때는 하우스가 없는 시절이니까 추울 때 일월이나 이월에 모종을 놓으려고 하면 그 보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뭘로 보온을 헷느냐 허면은 저 소걸름. 소걸름을 소막에 거 터다가 이만큼 놓면은 거기서 열이 나. 그게.(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온을 했느냐 하면 저 소두엄. 소두엄을 외양간에 거 떠다가 이만큼 놓으면 거기서 열이 나.)

**김순자** 음.(음.)

**고춘권** 게난 거기 묻엉 거름 속에 묻엉 혹 더껑 놔두면은 그 걸름 열로 그것이 보온이 뒈어 가지고 이제 온상이주. 온상. 온상 모종 놓고 헤 가지고. 그거 첨 노지 온상 그것도 생각 잘헌 거주게.(그러니까 거기 묻어서 거름 속에 묻어서 흙 덮어서 놔두면 그 거름 열로 그것이 보온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온상이지. 온상. 온상 모종 놓고 해 가지고. 그거 참 노지 온상 그것도 생각 잘한 거지.)

**김순자** 게난 옛날에 보면 감저메 놓젠 허면 거기 걸름 꼴앙 거기 감저 놔근에 흑 묻은 거?(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고구마모종 놓으려고 하면 거기 거름 깔아서 거기 고구마 놔서 흙 묻은 거?)

**고춘권** 어.(어.)

**김순자** 경헤근에 꿀 키왕?(그렇게 해서 덩굴 키워서?)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난 우리 지혜덜이 대단헌 거라마씨. 여기는 혹시 ᄆᆞ멀 같은 건?(그러니까 우리 지혜들이 대단한 거지요. 여기는 혹시 메밀 같은 건?)

**고춘권** 아, ᄆᆞ멀도 많이 갈앗지. ᄆᆞ멀은 어떻게 가느냐 허면, 요샌 비료니까 그냥 비료 삐여근에 갈면은 뒈는데 그땐 비료는 엇은 때랏주. 우리, 우리 때에 나니까 이 저 비료를 사용헷주, 비료를 사용헷는데 이 저 거름을 잘 허지 안허민 단기간에 키와 가지고 가을에 열매 열게시리 헤야 뒈니까 저 걸름을 잘 허지 안 허민 안 뒈주.(아, 메밀도 많이 갈았지. 메밀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샌 비료니까 그냥 비료 뿌려서 갈면 되는데 그땐 비료는 없는 때였지. 우리, 우리 때에 나니까 이 저 비료를 사용했지. 비료를 사용했는데 이 저 거름을 잘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키워가지고 가을에 열매 열게끔 해야 되니까 저 거름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걸름을 뭘로 헷느냐 허면은 불껑.(이 거름을 뭐로 했느냐 하면 재.)

**김순자** 예.(예.)

**고춘권** 어. 불껑에 씰 서꺼 가지고 서껑 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팔 헷주. 점파 요새 말론 점파, 점점이 접어놓는다, 놓는덴 헌 말이주.(어. 재에 씨를 섞어 가지고 섞어서 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팔 했지. 점파 요새 말론 점파, 점점이

집어놓는다, 놓는다고 하는 말이지.)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헹 가는 거라예?(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네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이제 걷엉 오젠 허면 옛날에 이제 손질허젠 허면 이 체도 잇고.(이제 걷어서 오려고 하면 옛날에 이제 손질하려고 하면 이 체도 있고.)

**고춘권** 으?(으?)

**김순자** 곡석덜 손질허젠 허면?(곡식들 손질하려고 하면?)

**김보향** 장만허젠 허민?(장만하려고 하면?)

**고춘권** 장만헐 때?(장만할 때?)

**김보향** 예.(예.)

**고춘권** 이 저 젤 처음에 거친 거 구멍이 큰 거라야 뒈거든. 거친 거 허젠 허민. 거 얼멩이. 여기 말로, 우리 말로 얼멩이.(이 저 젤 처음에 거친 거 구멍이 큰 거라야 되거든. 거친 거 하려고 하면. 거 어레미. 여기 말로 우리 말로 '얼멩이'.)

**김순자** 얼멩이가 잇고?(어레미가 있고?)

**고춘권** 얼멩이가 잇고. 대체엔 헌 거 건 곡석 테작헤 논 거 준 거, 준 거 걸르는 거. 건 고망이 큰 거니까 대체. 또 쪼금 엉긴 거 엉긴체, 막 좀진 가루 거튼 거 치는 건 ᄀᆞ는체.(어레미가 있고. 대체라고 하는 거 건 곡식 타작해 놓은 거 잔 거, 잔 거 거르는 거. 건 구멍이 큰 거니까 대체. 또 조금 엉긴체, 아주 잔 가루 같은 거 치는 건 가는체.)

**김순자** ᄀᆞ는체.(가는체.)

**고춘권** 으, ᄀᆞ는체. 가는체엔 헌 말이주.(으, 가는체. 가는체라고 하는 말이지.)

**김순자** 예. 게난 그 체로 허는, 어떤 곡석들을 체로 허는 손질허는 거라마씨?(예. 그러니까 그 체로 하는, 어떤 곡식들을 체로 하는 손질하는 거에요?)

**고춘권** 이 ᄆᆞ물을 테작허면은 이파리, 남뎅이 부숴진 것이 막 거칠거든.(이 메밀을 타작하면은 이파리, 대 부서진 것이 아주 거칠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허면은 그 이파리에 ᄀᆞ찌 서꺼지면은 이 대체 거튼 걸로는 이 ᄀᆞ립을 갈를 수가 엇어. 게난 건 얼멩이 막 고망 큰 걸로 헤 가지고 콩 그 테작헤근에 그 치젠 허면은 대체론 안 뒈여. 얼멩이 큰 얼멩이라야 뒈여. 그런 식으로 일단 걸

렁 얼멍이로 걸렁 바람에 불리민 뒈는 거고.(하면 그 잎에 같이 섞이면 이 대체 같은 걸로는 이 금을 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 어레미 아주 구멍 큰 걸로 해 가지고 콩 그 타작해서 그 치려고 하면 대체론 안 돼. 어레미 큰 어레미라야 돼. 그런 식으로 일단 걸러서 어레미로 걸러서 바람에 불리면 되는 거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조 거튼 거, 이런 것은 대체. 건 그 구멍으로 충분히 나니까.(조 같은 거, 이런 것은 대체. 건 그 구멍으로 충분히 나니까.)

**김순자** 대체로?(대체로?)

**고춘권** 으, 으 대체로 허고.(으, 으 대체로 하고.)

〈바구니 겯기〉

**김순자** 삼춘, 얼멩이도 멘들어 봔?(삼촌, 어레미도 만들어 봤어?)

**고춘권** 으, 난이 죽공이니까, 죽공이니까 얼멩이 대로 멘드는 거주게.(으, 난 죽공이니까, 죽공이니까 어레미 대로 만드는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대체도 대로 멘드는 거고 얼멩이도 대로 멘드는 거고. 그 체는, 체는 이 저 이런 머리, 몰총, 말꼬리. 말꼬리에 털, 털로 건 멘드는 거거든이. 어른덜 이 썽 뎅기는 그런 거 멘드는 식으로.(대체도 대로 만드는 거고 어레미도 대로 만드는 거고. 그 체는, 체는 이 저 이런 머리, 말총 말꼬리. 말꼬리에 털, 털로 건 만드는 거거든. 어른들 이 써서 다니는 그런 거 만드는 식으로.)

**김순자** 으.(으.)

**고춘권** 게난 우린 대로 멘드는 건, 건 멘들앗주.(그러니까 우린 대로 만드는 건, 건 만들었지.)

**김순자** 게믄 얼멩이 한 번 멘들아 봅서. 대 어떤 대로 하고?(그럼 어레미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대 어떤 대로 하고?)

**고춘권** 대는, 얼멩이나 이 대체 멘드는 대는 수리대.(대는 어레미나 이 대체 만드는 대는 이대.)

**김순자** 수리대.(이대.)

**고춘권** 수리대라야 뒈주게.(이대여야 되지.)

**김순자** 게민 수리대를 강 헹 왕?(그럼 이대를 가서 해 와서?)

**고춘권** 깨영.(깨서.)

**김순자** 그 수리대도 죽신은 안 뒐 거 아니라예?(그 수리대도 죽순은 안 될 거 아닌가요?)

**고춘권** 아니, 죽신은 안 뒈주. 아주 한 이삼 년, 이 년은 넘은 거라사.(아니, 죽순은 안 되지. 아주 한 이삼 년, 이 년은 넘은 거여야.)

**김순자** 으, 이 년은 넘어?(으, 이 년은 넘어?)

**고춘권** 혼 삼 년, 삼 년 정돈 뒌 거라야 그거 오래가주. 어쨋든 멘듦이 공든 거니까, 혼 번 멘들민 오래 쓰젠 허면 아주 굳은대가, 굳은대라야.(한 삼 년, 삼 년 정돈 된 거여야 그거 오래가지. 어쨌든 만들기가 공든 거니까, 한 번 만들면 오래 쓰려고 하면 아주 굳은대가, 굳은대여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겐 굳은대 헤영 깨영, 졸게시리 깨 가지고 그 또 달롸.(그래서 굳은대 해서 깨서, 잘게끔 깨 가지고 그 또 다뤄서.)

**김순자** 달룰 때는 무신 거로?(다룰 때는 무슨 거로?)

**고춘권** 칼로 달루주, 칼로.(칼로 다루지, 칼로.)

**김순자** 그 칼은 무신 칼이렌 헤?(그 칼은 무슨 칼이라고 해?)

**고춘권** 그 저 보통, 보통 칼로 허주게. 게난 직접 그 대칼[26]이라고 헤 가지고 막 두껍게시리 멘든.(그 저 보통, 보통 칼로 하지. 그러니까 직접 그 '대칼'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두껍게끔 만든.)

**김순자** 칼이 잇어예.(칼이 있지요.)

**고춘권** 죽세공덜 쓰는 칼이 잇어. 허지만 보통으로는 보통 칼로.(죽세공들 쓰는 칼이 있어. 하지만 보통으로는 보통 칼로.)

**김순자** 돔베칼 헤근에도 허고예?(도마칼 해서도 하고요?)

**고춘권** 돔베칼로 허뒈 돔베칼보다는 조금 그 날이 뚜꺼운 거라야 뒈. 날이 쪼금 뚜꺼운 거주.(도마칼로 하되 도마칼보다는 조금 그 날이 두꺼운 거여야 돼. 날

26) '대칼'은 대나무를 쪼개거나 다룰 때 쓰는 칼을 가리킨다.

이 조금 두꺼운 거지.)

**김순자** 게민 그걸 대칼이엔 헙니까?(그럼 그걸 '대칼'이라고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겐 그거 달루는 거는 속꺼풀을 벳겨내는 거지예?(그래서 그거 다루는 거는 속꺼풀을 벗겨내는 거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속껍질을 뭐렌 헤마씨? 달루는 거를 무사 달뤘덴 헤?(그 속꺼풀을 뭐라고 해요? 다루는 거를 왜 다룬다고 해?)

**고춘권** 아, 대 달뤘덴 허주.(아, 대 다룬다고 하지.)

**김순자** 달룬 다음에?(다룬 다음에?)

**고춘권** 달룬 다음에 완전히 써지게시리 얇게 달루면은 말리왕, 말리왕 완전히 줄어들 정도로, 줄어들게시리 말리와야 뒈주게.(다룬 다음에 완전히 쓸 수 있게끔 얇게 다루면 말려서, 말려서 완전히 줄어들 정도로, 줄어들게끔 말려야 되지.)

**김순자** 아, 달룬 다음에예?(아, 다룬 다음에요?)

**고춘권** 으, 말류왕 허면은 그걸 만들 때는 또 물에 담가 가지고 걸 윤허게 멘들앙 물에 둠갓당 이제 거 멘드는 거주.(으, 말려서 하면 그걸 만들 때는 또 물에 담가 가지고 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물에 담갔다가 이제 거 만드는 거지.)

**김순자** 삼춘 무사 대 달룰 때 덩드렁에 놔근에 덩드렁마께로 이거 허지 안헙니까?(삼촌 왜 대 다룰 때 '덩드렁'에 놔서 '덩드렁마께'로 이거 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그것은 구덕 절을 때.(그것은 바구니 결을 때.)

**김순자** 아.(아.)

**고춘권** 구덕 절을 때. 게난 대가 구덕 절을 때 허는 것은 그 씰대[27], 씰대엔 헤 가지고 짤 때 허는 그 실로 짜는 식으로 가는, 가는 것을 그 씰대엔 허고.(바구니 결을 때. 그러니까 대가 바구니 결을 때 하는 것은 그 '씰대', '씰대'라고 해 가지고 짤 때 하고 그 실로 짜는 식으로 가는, 가는 것을 그 '씰대'라고 하고.)

---

27) '씰대', '실대'는 바구니 등을 겯기 위해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것을 말한다.

**김순자** 예.(예.)

**고춘권** 또 그 넙게시리 덩드렁에 놔근에 마께로 두드령 허는 건 놀대[28]엔 허주, 놀대.(또 그 넓게끔 '덩드렁'에 놔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하는 건 날대라고 하지, 날대.)

**김순자** 알앗수다. 구덕은 ᄒᆞ꼼 놔두고예. 아까 게믄 얼멩이 헐 때 달롸근에, 달뢍 빠짝 몰륜덴 헷잖아예?(알겠습니다. 구덕은 조금 놔두고요. 아까 그럼 어레미 할 때 다뤄서, 다뤄서 바짝 말린다고 했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몰륜 다음에 어떡헤?(말린 다음에 어떡해?)

**고춘권** 몰류면은, 아, 몰륨만 허민 뒈는 거주. 달룸만 다 헤 놓민.(말리면, 아,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루기만 다 해 놓으면.)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허면은 멘들젠 허민은 몰른 상태에서는 이 저 이렇게 오그리민 부러져 불지 안 허여.(그러면 만들려고 하면 마른 상태에서는 이 저 이렇게 오그리면 부러져 버리지 않아.)

**김순자** 예, 물 묻형?(예, 물 묻혀서?)

**고춘권** 물에 둠가 가지고 마구 윤허게시리 헹 멘들민 뒈는 건데 얼멩이는, 구덕은 넙게시리 놀대 넙은 걸로 사용허지만은 얼멩이는 순전히 가는 씰대로 멘드는 거주.(물에 담가 가지고 아주 연하게끔 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어레미는, 바구니는 넓게끔 날대 넓은 걸로 사용하지만 어레미는 순전히 가는 '씰대'로 만드는 거지.)

**김순자** 아, 얼멩인 씰대로예.(아, 어레미는 '씰대'로요.)

**고춘권** 얼멩이나 대체는 씰대로만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그자.(어레미나 대체는 '씰대'로만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그저.)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그대로 멘들민 뒈는 거고.(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김순자** 게민 그건 뭐부떠 만듭니까?(그럼 그건 뭐부터 만듭니까?)

---

28) '놀대'는 패랭이 따위를 결을 때 날로 쓰는 대를 말한다.

**고춘권** 어?(어?)

**김순자** 순서는 어느 쪽으로부터 얼멩이는 만드는 거?(순서는 어느 쪽으로부터 어레미는 만드는 거?)

**고춘권** 얼멩이 만드는 거?(어레미 만드는 거?)

**김순자** 그냥 쭉 허게 올려근에 허는 거우과?(그냥 쭉 하게 올려서 하는 겁니까?)

**고춘권** 아니 우선 바닥부터 멘들아야주게. 완전히 바닥 멘들아 놩 경허면은 그다음에는 영 꼬부라지게시리 그 씰대로 씰대로 영 둘르는 거주.(아니 우선 바닥부터 만들어야지. 완전히 바닥 만들어 놔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꼬부라지게끔 그 '실대'로 '실대'로 이렇게 두르는 거지.)

**김순자** 실대로 영 둘르고 그다음에 그 바위 돌를 거 아니과?('실대로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그 가장자리 도를 거 아닙니까?)

**고춘권** 바위 돌라사주.(가장자리 돌라야지.)

**김순자** 게민 바위 돌르젠 허면 또 가늘게 돌라야 뒐 거 아니, 건 뭐엔?(그럼 바위 도르려고 하면 또 가늘게 돌라야 될 거 아니, 건 뭐라고?)

**고춘권** 거 바윗대. 바위, 바위 둘루는 거니까 바윗대.(거 '바윗대'. 가장자리, 가장자리 도르는 거니까 '바윗대'.)

**김순자** 게난 그 바윗대가 막 얄루게?(그러니까 그 '바윗대'가 아주 얇게?)

**고춘권** 바윗대는 일년생.('바윗대'는 일년생.)

**김순자** 아.(아.)

**고춘권** 건 일년생이라야. 저 가지, 가진 발이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난 거라야 뒈여. 여라 개 낭 굳어 분 것은 안 뒈여.(건 일년생이어야. 저 가지, 가진 발이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난 거여야 돼. 여러 개 나서 굳어 버린 것은 안 돼.)

**김순자** 게난 이 가지 벋은 걸로 헤근에 이게 일년생이여, 삼년이여 알아지는 것과?(그러니까 이 가지 뻗은 걸로 해서 이게 일년생이여, 삼년이여 알 수 있는 겁니까?)

**고춘권** 아이 가지는 일 년, 일 년 넘으면은 뭐 여라 개 나오는 거주게. 여라 개 나오는 건데 발대 사용허는 건 두 개 이상 세 개??지는 쓰는데 세 개 이상 가지가 나불면은 굳어 버려 가지고. 거 막 가는대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니까 막 윤헤야주.(아니 가지는 일 년, 일 년 넘으면 뭐 여러 개 나오는 거지. 여러 개 나오

는 건데 발대 사용하는 건 두 개 이상 세 개까지는 쓰는데 세 개 이상 가지가 나 버리면 굳어 버려 가지고. 거 아주 가는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연해야지.)

**김순자** 음. 게민 삼춘 바위 둘룰 때 그 대 헤 갖고 아까 실대만 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걸로 이렇게 논 다음에 둘루는 거 아니꽈?(음. 그럼 삼촌 가장자리 두를 때 그 대 해 갖고 아까 '실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딴 걸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두르는 거 아닙니까?)

**고춘권** 으, 속대. 건 바위 둘루는 안네 밧밧허게시리 허는 거. 건 속대엔 허주.(으, 속대. 건 가장자리 두르는 안에 빳빳하게끔 하는 거. 건 속대라고 하지.)

**김순자** 것도 대로 헙니까?(것도 대로 합니까?)

**고춘권** 어, 대.(어, 대.)

**김순자** 얼멩이는 문딱 대구나?(어레미는 모두 대구나?)

**고춘권** 어, 어.(어, 어.)

**김순자** 어떤 때 구덕 헐 땐 보면 대 말고 그냥 낭으로도 놉디다.(어떤 때 바구니 할 땐 보면 대 말고 그냥 나무로도 놉디다.)

**고춘권** 으, 낭으로도 허는데 보통 것도 그냥 대로만 대부분 허주게. 건 남을 놓는 것은 가는대구덕 거튼 거. 이 저 또 기자 이 질구덕 ᄀᆞ튼 것도 좀 좋게시리 허젠 허민 그 나무로 허지만은 보통 그 대로 허주.(으, 나무로도 하는데 보통 것도 그냥 대로만 대부분 하지. 건 나무를 놓는 것은 '가는대바구니' 같은 거. 이 저 또 그저 이 '질구덕' 같은 것도 좀 좋게끔 하려고 하면 그 나무로 하지만 보통 그 대로 하지.)

**김순자** 대로예.(대로요.)

**고춘권** 이 ᄀᆞ는대구덕 거튼 것은 남 놔야 뒈여.(이 '가는대바구니' 같은 것은 나무 놔야 돼.)

**김순자** 음, ᄀᆞ는대구덕.(음, '가는대바구니'.)

**고춘권** 으, 건 귀 나 불민 안 뒈니까.(으, 건 귀 나 버리면 안 되니까.)

**김순자** 예. 게민 그런 남은 뭐렌 골아?(예. 그럼 그런 나무는 뭐라고 말해?)

**고춘권** 그 저 속대, 속남.(그 저 속대, 속나무.)

**김순자** 속대, 속남. 속에 놓는 거니까.(속대, 속나무. 속에 놓는 거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겐디 삼춘 얼멩이는 이렇게 니귀반듯허지만 대체는 동글랑허지 안 헙니까? 대체 동글랑허게 뒈면은 거기 밑에 그 대로 만드는 거? 구멍?(그런데 삼촌 어레미는 이렇게 네모반듯하지만 대체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대체 동그랗게 되면 거기 밑에 그 대로 만드는 거?)

**고춘권** 으, 대로.(으, 대로.)

**김순자** 대로예. 대로 하고 옆에 영 둘루는 거는, 둥글렁헌 거는 뭐렌 헤?(대로요. 대로 하고 옆에 이렇게 두르는 거는, 둥그런 거는 뭐라고 해?)

**고춘권** 건 에움[29].(건 '에움'.)

**김순자** 에움.('에움'.)

**고춘권** 망이엔도 허고 에움이엔도 허고.(망이라고도 하고 '에움'이라고도 하고.)

**김순자** 망?(망?)

**고춘권** 으, 망.(으, 망.)

**김순자** 그 망은 무슨 남으로 헙니까?(그 망은 무슨 나무로 합니까?)

**고춘권** 그거, 것도 건 뭐. 난 건 아무 남이라도 건 쫌 성질이 윤헌 남이민 뒈는 거주게.(그거, 것도 건 뭐. 난 건 아무 나무라도 건 좀 성질이 연한 나무면 되는 거지.)

**김순자** 보통 삼춘 헐 때는 무신 남 썬?(보통 삼촌 할 때는 무슨 나무 썼어요?)

**고춘권** 우린 그런 망 거튼 거 멘들어 보질 안헷어.(우린 그런 망 같은 거 만들어 보질 않았어.)

**김순자** 아, 그냥 얼멩이 허고예?(아, 그냥 어레미 하고요?)

**고춘권** 으, 얼멩이.(으, 어레미.)

**김순자** 그다음에 아까 구덕 줄아 봅서, 이제랑.(그다음에 아까 바구니 결어 보세요, 이제랑.)

**고춘권** 구덕도 뭐 얼멩이나 뭐 ᄀᆞ튼 거주. 놀대 실대 헤근에 건 또 바위 돌룰 때 속대 놔근에 그건 바윗대.(바구니도 뭐 어레미나 뭐 같은 거지. 날대 '씰대' 해서 건 또 가장자리 두를 때 속대 놔서 그건 '바윗대'.)

---

29) '에움'은 나무나 대로 만든 망사리나 바구니 등의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김순자** 보통 젤 족은 거, 족은 ᄀᆞ는대구덕 잇지 안허과? 곤대구덕 여긴?(보통 젤 작은 거, 작은 '가는대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곤대구덕' 여긴?)

**고춘권** 그 가는대구덕이엔 헌 건 대 그 실대를 막 가늘게 ᄀᆞ늘게 깨영 헌 것을 ᄀᆞ는대구덕이엔 허는 거주. 대를 가늘게시리 헷다고 헤 가지고 가는대구덕. 이디선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 허는디 가는대구덕이주게.(그 '가는대바구니'라고 하는 건 대 그 '실대'를 아주 가늘게 가늘게 깨서 한 것을 '가는대바구니'라고 하는 거지. 대를 가늘게끔 했다고 해 가지고 '가는대바구니'. 여기선 '가는대바구니', '가는대바구니' 하는데 '가는대바구니'지.)

**김순자** 예, 맞수다. ᄀᆞ는대구덕예, 그거 멘들젠 허면 대가 멧 개가 필요헤, 보통?(예, 맞습니다. '가는대바구니'요, 그거 만들려고 하면 대가 몇 개가 필요해, 보통?)

**고춘권** 그거, 그거 멧 개ᄀᆞᆫ장은 모르크라.(그거, 그거 몇 개까지는 모르겠어.)

**김순자** 세 보지 안헷수과?(세 보지 않았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민 삼춘 구덕은 멧 년이나 줄아근에 풀아 봅디가. 언제 적, 멧 설 때?(그럼 삼촌 바구니는 몇 년이나 결어서 팔아 봅디까? 언제 적, 몇 살 때?)

**고춘권** 아메도 스물댓 뒈난에 구덕 절음 시작은 헷주. 아메도 혼 마흔ᄀᆞᆫ지, 마흔 가까이 헤져실 거라.(아마도 스물댓 되니까 바구니 겯기 시작은 했지. 아무래도 한 마흔까지, 마흔 가까이 했을 거야.)

**김순자** 아이고, 오래 헷네, 이십 년예.(아이고, 오래 했네, 이십 년요.)

**고춘권** 오래 헷주. 마흔 뒈가니까 그때는 농사를 이 저 많이 허니까 그런 거 헐 틈이 엇엇주게. 또 건 부업으로 기자 첨 뭐 헌 거난에.(오래 했지. 마흔 되니까 그때는 농사를 이 저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할 틈이 없었지. 또 건 부업으로 그저 참 뭐 한 거니까.)

**김순자** 게난 그 구덕 줄아난 얘기를 헤 봅서, 얼마나 그 힘든 건지? 언제 밤에 줄아신지?(그러니까 그 바구니 결었던 얘기를 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든 건지? 언제 밤에 결었는지?)

**고춘권** 아, 그건 밤에 밤낮이 엇엇주, 그건. 방안에서 허는 거니까. 불 놩 허는 거니까, 좀만 안 자민 붉도록이라도 허게 뒈면은.(아, 그건 밤에 밤낮이 없었지, 그

건. 방안에서 하는 거니까. 불 놔서 하는 거니까, 잠만 안 자면 밝도록이라도 하게 되면.)

**김순자** 여자 삼춘도 ᄀᆞ치?(여자 삼촌도 같이?)

**고춘권** ᄀᆞ찌 대, 할망은 놀대 두드리는 거. 그런 건 헷주.(같이 대, 할머니는 날대 두들기는 거. 그런 건 했지.)

**김순자** 으, 놀대 두드리는 거.(으, 날대 두들기는 거.)

**고춘권** 그런 건 아이덜도 허고. 아이덜도 ᄒᆞ교 갓다오민.(그런 건 아이들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 다녀오면.)

**김순자** 두들기라 헹?(두들기라 해서?)

**고춘권** 으. 우리 아이덜은 첨 고생헷어.(으. 우리 아이들은 참 고생했어.)

**김순자** 경헹 그 구덕 절아근에 밧은 멧 개나 삽디가?(그래서 그 바구니 결어서 밭은 몇 개나 삽디까?)

**고춘권** 밧. 경헌디 구덕은 많이 절앗는디 밧은 못 삿어.(밭. 그런데 바구니는 많이 결었는데 밭은 못 샀어.)

**김순자** 밧은 못 산.(밭은 못 샀어.)

**고춘권** 아이덜을 여라 개 많이 낳단 보니까 그런 거 밧 살 틈이 엇엇주. 원래 뭐 물린 것도 엇고 첨 완전히 밧 ᄒᆞ나 집 ᄒᆞ나 엇이 그대로 뭐 헤 놓니까 어디 밧 살 정신이 원.(아이들을 여러 개 많이 낳다가 보니까 그런 거 밭 살 틈이 없었지. 원래 뭐 물린 것도 없고 참 완전히 밭 하나 집 하나 없이 그대로 뭐 해 놓으니까 어디 밭 살 정신이 전혀.)

**김순자** 그때 질구덕 ᄒᆞ나 허민 얼마 받아?(그때 '질구덕' 하나 하면 얼마 받아?)

**고춘권** 질구덕 하나 그때 풀레는 할망이 뎅겻주.('질구덕' 하나 그때 팔러는 할머니가 다녔지.)

**김병생** 혼 삼천 원, 삼천오백 원베끼 안 받앗어.(한 삼천 원, 삼천오백 원밖에 안 받았어.)

**김순자** 그때 삼천오백 원이면 쏠은 그때 얼마 헤난?(그때 삼천오백 원이면 쌀은 그때 얼마 했었어요?)

**김병생** 쏠 오천 원 헷어, 그때.(쌀 오천 원 했어, 그때.)

**고춘권** 쏠 혼 말을 사져시카, 구덕 ᄒᆞ나 풀앙?(쌀 한 말을 사졌을까, 바구니 하나 팔

아서?)

**김병생** 못 삿주. 두 개 두 갠 헤사.(못 샀지. 두 개 두 갠 해야.)

**김순자** 다른 디 가난 경헙디다. 구덕 하나에 보리를 그만큼 줬댄. 구덕으로 하나. 삼춘넨 경은 안 허고예?(다른 데 가니까 그럽디다. 바구니 하나에 보리를 그만큼 줬다고. 바구니로 하나. 삼촌넨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강수경** 구덕 ᄌᆞ는 건 누구안테 베완마씨?(바구니 겯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고춘권** 그건 베우고 말고 헐 게 엇어, 그자 눈으로 보민 허는 거주.(그건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어, 그저 눈으로 보면 하는 거지.)

**김순자** 원래 이 수산에가 그런 구덕 ᄌᆞ는 사름덜이 하낫수과?(원래 이 수산이 그런 바구니 겯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김병생** 하.(하.)

**김순자** 여긴 막 남신 허는 하르방도 잇어낫덴 허멍 옛날에?(여긴 아주 나막신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고 하면서 옛날에?)

**김병생** 으.(으.)

**〈식생활〉**

**김순자** 밥 헹 먹젠 허면 무신 그릇이 필요헙니까?(밥 해서 먹으려고 하면 무슨 그릇이 필요합니까?)

**김병생** 밥사발허고 국사발이주.(밥사발하고 국사발이지.)

**김순자** 밥사발허고 국사발 잇고, 밥은 무신거에 허연?(밥사발하고 국사발 있고, 밥은 무엇에 해?)

**김병생** 밥은 솟디.(밥은 솥에.)

**김순자** 삼춘네 정지에 솟 멧 개 걸엇수과?(삼촌네 부엌에 솥 몇 개 걸었습니까?)

**김병생** 세 개 건 디도 잇고 네 개 건 디도 잇고. 부제칩은 다섯 개도 걸고.(세 개 건 데도 있고 네 개 건 데도 있고. 부잣집은 다섯 개도 걸고.)

**김순자** 부제칩 다섯 개 걸민 젤 큰 솟은 이름 무시거엔 골아?(부잣집 다섯 개 걸면 젤 큰 솟은 이름 뭐라고 말해요?)

**김병생** 건 물 데우는 솟.(건 물 데우는 솥.)

**김순자** 물 데우는 솟.(물 데우는 솥.)

**고춘권** 머력솟이주게, 머력솟. 젤 우측에 웃머리에 앚은 거난 머력솟.('머력솟'이지, '머력솟'. 젤 위에 윗머리에 거는 거니까 '머력솟'.)

**김병생** 머력솟이엔 헷주만은.('머력솟'이라고 했지만.)

**고춘권** 큰솟이엔도 허고 머력솟.(큰솥이라고도 하고 '머력솟'.)

**김병생** 큰솟이엔도 허고. 그냥 물 데완에 모욕을 헷주게. 이런 모욕탕도 엇이난.(큰솥이라고도 하고. 그냥 물 데워서 목욕을 했지. 이런 목욕탕도 없으니까.)

**김순자** 맞수다. 그 머력솟에 만약에 밥허게 뒈면 쏠은 얼 만큼 들어가? 거기. 멧 말 헤집니까?(맞습니다. 그 '머력솟'에 만약에 밥하게 되면 쌀은 어느 만큼 들어가? 거기. 몇 말 할 수 있습니까?)

**김병생** 혼 두 말짜리도 잇고 말가웃짜리도 잇고 경허여.(한 두 말짜리도 있고 말가웃짜리도 있고 그래.)

**김순자** 아, 두 말짜리, 말가웃짜리. 보통 밥헤 먹는 거는?(아, 두 말짜리, 말가웃짜리. 보통 밥해 먹는 거는?)

**김병생** 혼 말.(한 말.)

**김순자** 혼 말. 그걸 말치솟이렌 골아?(한 말. 그걸 '말치솥'이라고 말해?)

**김병생** 으.(으.)

**김순자** 삼춘네도 경 골아 봔?(삼촌네도 그렇게 말해 봤어요?)

**김병생** 웨말짜리렌.(한말짜리라고.)

**김순자** 그럼 웨말치 옆이 솟은?(그럼 '외말치' 옆의 솥은?)

**고춘권, 김병생** 동솟.(옹달솥.)

**김순자** 동솟. 삼춘, 동솟은 그럼 국 헤 먹는 거?(옹달솥. 삼촌, 옹달솥은 그럼 국 해 먹는 거?)

**김병생** 으, 국 헤 먹는 거.(으, 국 해 먹는 거.)

**고춘권** 국도 헤 먹고 족은솟 요새, 동솟은 동제 허는 솟이라, 그게.(국도 해 먹고 작은솥 요새, 옹달솥은 '동제' 하는 솥이야, 그게.)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저 웃어른안티 밥을 따로 허젠 허민 족은솟디 헤야 뒈거든. 혼 사람 먹을 거이. 그런 거 용이주게. 겐 동솟이엔 헷주, 동제.(이 저 웃어른한테 밥을 따로 하려고 하면 작은솥에 해야 되거든. 한 사람 먹을 거. 그런 거 용이지. 그래서

옹달솥이라고 했지, '동제'.)

**김순자** 동제 허는 거예?('동제' 하는 거요?)

**고춘권** 동제 허는 거.('동제' 하는 거.)

**김순자** 근디 삼춘 그 동솟은 진짜 요만큼베끼 안 허지 안헙니까?(근데 삼촌 그 옹달솥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디는 국도 못 헤 먹크라, 너무 족으난.(거기는 국도 못 해 먹겠어, 너무 작으니까.)

**김병생** 아니, 국은 헹 먹어.(아니, 국은 해서 먹어.)

**김순자** 국은 헹 먹어져?(국은 해서 먹어져?)

**고춘권** 국 허는 거 큰솟은 그냥 국솟이엔 헷주, 보통으론.(국 하는 거 큰솟은 그냥 국솥이라고 했지, 보통으론.)

**김순자** 예.(예.)

**고춘권** 어느 집안이든 국 앚지는 솟은 시난 거 국솟이엔 헷주.(어느 집안이든 국 안치는 솥은 있으니까 거 국솥이라고 했지.)

**김순자** 그 동제허는 동솟은 보통 누게안테 동제 주로 헤 줫수과?(그 '동제'하는 옹달솥은 보통 누구한테 '동제' 주로 해 줬습니까?)

**고춘권** 그 하르방, 하르방이나 이 저 웃어른안티 또로 또로 헐 때에 거 쓰는 거난.(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나 이 저 웃어른한테 따로 따로 할 때에 거 쓰는 거니까.)

**김순자** 예. 그때 그 동제 헐 때는 곤밥 헤 줫어예?(예. 그때 그 '동제' 할 때는 흰밥 해 줬지요?)

**고춘권** 아이고, 곤밥 허고말고. 곤밥 허곡 곤밥 보글보글 헤근에 물 부따 가민 그레 춤기름 톡 허게 비왕 두께 톡 더껑. 그때 시절에 오죽, 지금은 춤지름 그자 이거 매 때에 먹엇주만은 그때 경 못헷거든.(아이고, 흰밥 하고말고. 흰밥 하고 흰밥 보글보글 해서 물 밭아 가면 그리로 참기름 톡 하게 부어서 뚜껑 톡 덮어서. 그때 시절에 오죽, 지금은 참기름 그저 이거 매 때에 먹었지만 그때 그렇게 못했거든.)

**김순자** 맞수다. 보통 그 동제 허젠 허면 동제는 언제 헤 주는 거우과?(맞습니다. 보통 그 '동제' 하려고 하면 '동제' 하려고 하면 '동제'는 언제 해 주는 겁니까?)

**고춘권** 그건 언제엔 헌 건 훈이 엇고 그건 필요헐 때 허는 거난. 이 보통 동제엔 헌 건 특별헌 때 특별헌 때 허는 거주. 이 보통으로 좀 병이 잇거나 입맛이 엇거나 헌 때에 허고. 경 안허민 부제집에는 상시 이제 그 동제 허는 디도 잇엇주게.(그건 언제라고 한 건 한이 없고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이 보통 '동제'라고 하는 건 특별할 때 특별할 때 하는 거지. 이 보통으로 좀 병이 있거나 입맛이 없거나 할 때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잣집에는 상시 이제 그 '동제' 하는 데도 있었지.)

**김순자** 아.(아.)

**고춘권** 그 시절에도. 경헌 디는 벨로 많진 안헷고.(그 시절에도. 그런 데는 별로 많진 않았고.)

**김순자** 예. 그렇게 헤서 밥을 허면 밥은 무신거에 퍼 놩 먹엇수과?(예. 그렇게 해서 밥을 하면 밥은 무엇에 퍼 놔서 먹었습니까?)

**김병생** 낭푼이주, 낭푼.(양푼이지, 양푼.)

**김순자** 낭푼이.(양푼.)

**고춘권** 낭푼은 신식 그릇이고 남박.(양푼은 신식 그릇이고 나무바가지.)

**김순자** 남박에 퍼 놩.(나무바가지에 퍼 놔서.)

**고춘권** 남으로 만든 박.(나무로 만든 박.)

**김순자** 예.(예.)

**고춘권** 박. 지붕 우이 올령 허는 것이 거 박이거든. 게난 그걸로 헌 건 박. 나무로 만든 건 남박.(박. 지붕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이 거 박이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한 건 박. 나무로 만든 건 나무바가지.)

**김순자** 남박.(나무바가지.)

**고춘권** 도고리. 또 큰 건 도고리.(함지박. 또 큰 건 함지박.)

**김순자** 게난 밥 거리는 거는 남박. 경허고 밥 거릴 때 쓰는 거는 무시거? 뭘로 밥 거렷수과?(그러니까 밥 뜨는 거는 나무바가지. 그러고 밥 뜰 때 쓰는 거는 무엇? 무엇으로 밥 떴습니까?)

**김병생** 밥자.(밥주걱.)

**김순자** 밥자는 뭘로 멘들안?(밥주걱은 뭘로 만들었어?)

**김병생** 놋밥자가 잇어낫어.(놋밥주걱이 있었어.)

**김순자** 놋밥자예.(놋밥주걱요.)

**고춘권** 밥자도 낭으로도 멘들앗주.(밥주걱도 나무로도 만들었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국자도 다 나무로 멘들앗고. 그때 시절엔.(국자도 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때 시절엔.)

**김순자** 국자 보통으로 나무로 멘들고 보통으로 그땐 놋으로 멘들앗주.(국자 보통으로 나무로 만들고 보통으로 그땐 놋으로 만들었지.)

**고춘권** 놋으로예?(놋으로요?)

**김순자** 국자는 남으로 만들고.(국자는 나무로 만들고.)

**고춘권** 놋은, 놋으로 밥자는 놋밥자가 만앗주만은 알미늄 밥자도 만헷고 놋밥자는 바로 이 쪼금 전에. 이 신식 나니까 알미늄이 만앗주게.(놋은, 놋으로 밥주걱은 놋밥주걱이 많았었지만 알루미늄 밥주걱도 많았고 놋밥주걱은 바로 이 조금 전에. 이 신식 되니까 알루미늄이 많았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아주 옛날엔 또 나무로 멘들앙, 남밥자.(아주 옛날엔 또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밥주걱.)

**김순자** 남밥자, 맞수다.(나무밥주걱, 맞습니다.)

**고춘권** 겐 남밥자허고 죽 젓일 때 허는 거는 무시거라?(그래서 나무밥주걱하고 죽 저을 때 하는 거는 무엇이야?)

**김순자** 거 남죽.(거 죽젓개.)

**고춘권** 남으로 멘든, 남으로 멘든 거니까 남죽이엔 헷주게.(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니까 죽젓개라고 했지.)

**김순자** 밥 먹는 거는?(밥 먹는 거는?)

**고춘권** 건 뭐 숫가락이주.(건 뭐 숟가락이지.)

**김순자** 숫가락허고, 그다음에?(숟가락하고, 그다음에?)

**고춘권** 저붐허고.(젓가락하고.)

**김순자** 저붐허고예. 숫가락 저붐 이런 식으로 허는데 그걸 숫가락이든 그릇이든 혼족은 멧 개우과?(젓가락하고요. 숟가락 젓가락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숟가락이든 그릇이든 한 죽은 몇 개입니까?)

**김병생** 열 개주.(열 개지.)

**김순자** 열 개.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열 개를 혼 죽이렌 헤예?(열 개.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열 개를 한 죽이라고 해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삼춘 놋그릇은 언제까지 썬마씨?(삼촌 놋그릇은 언제까지 썼어요?)

**고춘권** 놋그릇, 놋그릇은 거 보통 가정에서는 일반 때에는 안 썻주, 제서 때에나베끼. 제기, 제기를 그 놋그릇이엔 헷주, 그 잔 다 뭐 이 사기, 사기사발이랏주.(놋그릇, 놋그릇은 거 보통 가정에서는 일반 때에는 안 썼지, 제사 때밖에. 제기, 제기를 그 놋그릇이라고 했지, 그 잔 다 뭐 이 사기, 사기사발이었지.)

**김순자** 음, 사기사발예. 게믄 밥그릇허고 국그릇 허지 안헙니까예? 이것도 어른덜 나시 거허고 일반 사름허고 또나?(음, 사기사발요. 그럼 밥그릇하고 국그릇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른들 몫 거하고 일반 사람하고 달라?)

**고춘권** 어른덜 거 또나게 허는 디도 잇엇주. 그 조금 나은 집안에 종손집 거튼 디 나은 집안에 그런 거 귀 곶추는 디는 또로 허주만은 보통으로는 그거 뭐 또로 허지 안헷어.(어른들 거 다르게 하는 데도 있었지. 그 조금 나은 집안에 종가 같은 데 나은 집안에 그런 거 귀 갖추는 데는 따로 하지만 보통으로는 그거 뭐 따로 하지 않았어.)

**김순자** 삼춘 일반적으로 밥사발허고 국사발은 무시걸로 멘든 걸로 썻수과?(삼촌 일반적으로 밥사발하고 국사발은 무엇으로 만든 걸로 썼습니까?)

**고춘권** 사기사발로 썻주.(사기사발로 썼지.)

**김순자** 사기사발.(사기사발.)

**고춘권** 사기사발 허단 쪼금 잇언 허난 아레미그릇 그런 거 뭐 헷주만은.(사기사발 하다가 조금 있어서 하니까 알루미늄그릇 그런 거 뭐 했지만.)

**김순자** 아레미 전에 아레미 닮은 그?(알루미늄 전에 알루미늄 닮은 그?)

**고춘권** 스덴. 스덴그릇도 뭐 신식 나온 후제 그 스덴그릇이 나오고.(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그릇도 뭐 신식 나온 후에 그 스테인리스그릇이 나오고.)

**김순자** 이모노는 안 써 봅디가?('이모노'는 안 써 봅니까?)

**고춘권** 이모노는 별로 안 써 봣주.('이모노'는 별로 안 써 봤지.)

**김순자** 상은 어떤 상 헤근에 받앙 먹어나신고예?(상은 어떤 상 해서 받아서 먹었었

나요?)

**고춘권** 상?(상?)

**김순자** 예.(예.)

**고춘권** 상은 그자 나무로 만든 상이주게.(상은 그저 나무로 만든 상이지.)

**김순자** 동글랑헌 거?(동그란 거?)

**김병생** 동글락 상 아니라. 네모난 상으로 헷주, 그때.(동그란 상 아니야. 네모난 상으로 했지, 그때.)

**고춘권** 네모난 상도 잇고 또 쒜로 멘든 건 동그락헌 상을 사용헷고.(네모난 상도 있고 또 쇠로 만든 건 동그란 상을 사용했고.)

**김병생** 쒜로 헌 거 엇엇어.(쇠로 한 거 없었어.)

**김순자** 아, 엇어난.(아, 없었어.)

**고춘권** 대부분은 낭으로덜 헷주만은 쒜로, 쒜로 멘든 상도 우리도 하영 사용헷주.(대부분은 나무로들 했지만 쇠로, 쇠로 만든 상도 우리도 많이 사용했지.)

**김순자** 예. 그 어른덜안테 혼자, 혼자 허게 뒈면 상 잇지 않으과, 혼자 쓰는 거예?(예. 그 어른들한테 혼자, 혼자 하게 되면 상 있지 않습니까, 혼자 쓰는 거요?)

**김병생** 거 웨상.(거 외상.)

**김순자** 그다음에 여러 명 먹는 거는 무슨 상이렌 헤?(그다음에 여러 명 먹는 거는 무슨 상이라고 해?)

**고춘권** 거 혼엇이 벨다른. 동그랑헌 건 도리상.(거 한없이 별다른. 동그란 건 둥근상.)

**김순자** 예, 도리상.(예, 둥근상.)

**고춘권** 네모난 건 못상.(네모난 건 '못상'.)

**김순자** 못상.('못상'.)

**고춘권** 못상이엔 헌 거, 거 뭐엔 골앗는고 건 모르크라. 동글랑헌 건 도리상이엔 허고.('못상'이라고 한 거, 거 뭐라고 말했는지 건 모르겠어. 동그란 건 둥근상이라고 하고.)

**김순자** 예. 도리상이엔 허고예.(예. 둥근상이라고 하고요.)

**김병생** 보통 웨상이엔 헷주.(보통 외상이라고 했지.)

**김순자** 예, 웨상. 어른덜은 혼자.(예, 외상. 어른들은 혼자.)

**고춘권** 혼자 먹는 거, 옛날은.(혼자 먹는 거, 옛날은.)

**김순자** 그다음에 부엌에 살림살이가 뭐 뭐 이실 건고예. 밥그릇 그런 그릇 말고. 정지에서 쓰는 살렴 그릇?(그다음에 부엌에 살림살이가 뭐 뭐 있을 건가요. 밥그릇 그런 그릇 말고. 부엌에서 쓰는 살림 그릇?)

**김병생** 살렴 그릇, 무시거 혼엇이 벌기게 썻어?(살림 그릇, 무엇 한없이 벌이게 썼어?)

**김순자** 삼춘 살레, 살레에 무시거 놔낫수과?(삼촌 찬장, 찬장에 무엇 놨었습니까?)

**고춘권** 꼴앙, 꼴앙 앚는 부엌방석, 방석도 잇고.(깔아서, 깔아서 앉는 부엌방석, 방석도 있고.)

**김순자** 예.(예.)

**김병생** 방석 그 저.(방석 그 저.)

**고춘권** 방석도 그 남으로 남으로 멘든 것이 잇고 또 줄, 집 이는 줄 잇자녀.(방석도 그 나무로 나무로 만든 것이 있고 또 줄, 집 이는 줄 있잖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거, 그거 헤근에 집 일어 나민 끗타리가 길게 남은 것덜이 많거든. 그러면 그걸로 그걸 둥그렇게 잘라가지고 짜근에. 허면 그거 조롬도 안 아프고 좋아.(그거, 그거 해서 집 이어 나면 끝이 길게 남은 것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걸로 그걸 둥그렇게 잘라가지고 짜서. 하면 그거 꽁무니도 안 아프고 좋아.)

**김순자** 예, 예. 맞수다. 삼춘, 식게 헤 먹젠 허민 이 제기가 중요헌 거 아니과, 제기는 뭐 뭐 필요헌 것과?(예, 예. 맞습니다. 삼촌, 제사 해 먹으려고 하면 그 제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기는 뭐 뭐 필요한 겁니까?)

**김병생** 제기 종류가.(제기 종류가.)

**고춘권** 거이 멧그릇, 갱그릇.(거 '멧그릇', '갱그릇'.)

**김병생** 탕쉬그릇.('탕쉬그릇'.)

**고춘권** 거 하주.(거 많지.)

**김병생** 저 거세기 모세그릇.(저 거시기 모사그릇.)

**김순자** 모세그릇.(모사그릇.)

**김병생** 또 저 무시거니.(또 저 무엇이니.)

**고춘권** 탕시그릇, 뭐 종류가.('탕쉬그릇', 뭐 종류가.)

**김순자** 탕시그릇허고 그다음에 술잔들은 무신거렌 골아?('탕쉬그릇'하고 그다음에

술잔들은 무엇이라고 말해?)

**고춘권** 건 잔이엔 헷주. 잔이엔 헷는데.(건 잔이라고 했지. 잔이라고 했는데.)

**김병생** 웨잔, 쌍잔.(외잔, 쌍잔.)

**고춘권** 웨잔, 웨잔, 쌍잔 저 보통.(외잔, 외잔, 쌍잔 저 보통.)

**김순자** 세 개를 안 헙니까?(세 개를 안 합니까?)

**김병생** 세 개 허민 쌍잔이고.(세 개 하면 쌍잔이고.)

**고춘권** 삼인이민 그 잔을 세 개 또 돌리민, 부부면 두 개 또 혼자면은 웨잔.(삼인이면 그 잔을 세 개 또 돌리면, 부부면 두 개 또 혼자면 외잔.)

**김순자** 우리 집이는 할머니가 둘이니까 세 잔을 논 거구나.(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둘이니까 세 잔을 놓은 거구나.)

**고춘권** 세 개를 올려.(세 개를 올려.)

**김순자** 예, 그래서 내가 세 개를 물어본 거. 그렇게 잔이 필요헌 거고예. 그다음에 초 싸는 거를 뭐렌 헤?(예, 그래서 내가 세 개를 물어본 거. 그렇게 잔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초 켜는 거를 뭐라고 해?)

**김병생** 촛대.(촛대.)

**김순자** 촛대가 필요허고. 향 허는 거는?(촛대가 필요하고. 향 하는 거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상?(향?)

**고춘권** 상, 건 모세상. 이 앞이 상 앞이 그 저 향 피우는 향로, 향로 놓는 상은?(향, 건 '모사상'. 이 앞의 상 앞에 그 저 향 피우는 향로, 향로 놓는 상은?)

**김순자** 모세상?(모사상?)

**고춘권** 모세상이엔 허주.(모사상이라고 하지.)

**김순자** 그러면 모세상에 올라갈 게 뭐 뭐우과?(그러면 모사상에 올라간 게 뭐 뭡니까?)

**고춘권** 모살, 그 모살 올라가고 향로 놓고 거기 저 뭐이니 잔.(모래, 그 모래 올라가고 향로 놓고 거기 저 뭐이니 잔.)

**김순자** 잔대, 잔.(잔대, 잔.)

**고춘권** 큰잔, 첨잔 그거 허젠 허민 웨잔 큰잔, 큰 거 잇주게. 그거.(큰잔, 첨잔 그거 하려고 하면 외잔 큰잔, 큰 거 있지. 그거.)

**김병생** ᄒᆞ나.(하나.)

**김순자** 예, 그거 ᄒᆞ나 올라가고예. 상돌은 뭐과?(예, 그거 하나 올라가고요. 향로는 뭡니까?)

**고춘권** 그거 향로주게, 향로.(그거 향로지, 향로.)

**김순자** 향로가 상돌이지예, 옛날.(향로가 '상돌'이지요, 옛날.)

**고춘권** 옛날엔 돌로 멘드니까. 돌로 멘드난 그거 상돌이엔 헷주게.(옛날엔 돌로 만드니까. 돌로 만드니까 그거 향로라고 했지.)

**김순자** 게난 그 상 놓는 것은 무스거렌 헤? 그릇은?(그러니까 그 향 놓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 그릇은?)

**강수경** 향가지 놓는 거?('향가지' 놓는 거?)

**고춘권** 아, 상합 그건. 건 나무로, 그때 나무로 멘들앗주. 나무로 멘든 것이 잇엇는디 그걸 옛날에 상합이엔 헷주.(아, 향합 그건. 건 나무로, 그때 나무로 만들었지. 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걸 옛날에 향합이라고 했지.)

**김순자** 삼춘넨 낭으로 멘들앗구나예.(삼촌넨 나무로 만들었군요.)

**고춘권** 어, 낭으로.(어, 나무로.)

**김순자** 어떤 딘 강 보면 놋그릇으로 멘든 디도 잇언게.(어떤 덴 가서 보면 놋그릇으로 만든 데도 있던데.)

**김병생** 나무로 만들엇주.(나무로 만들었지.)

**김순자** 그다음 여기에 웨 옛날에는 지방들 부치잖아예, 사진들 없을 때. 지방 부치는 이런 집 닮은 거 잇지 안헙니까? 지방은 어디 부칩니까?(그다음 여기에 왜 옛날에는 지방들 붙이잖아요, 사진들 없을 때. 지방 붙이는 이런 집 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어디 붙입니까?)

**고춘권** 지방, 우리는 그걸 요새는 그 멘들아근에 나오는 것이 잇엇주만은 우린 그때는 그것이 안 허고 그자 그때 그때 썽, 써근에 그자 그 벵풍에 부쳣주게.(지방, 우리는 그걸 요새는 그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있었지만 우린 그때는 그것에 안 하고 그저 그때 그때 써서, 써서 그저 그 병풍에 붙였지.)

**김순자** 그냥 벵풍에 부치는 거라예. 그럼 그릇 아까 멧그릇 잇고 갱그릇 잇잖아예?(그냥 병풍에 붙이는 거네요. 그럼 그릇 아까 '멧그릇' 있고 '갱그릇' 있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떡 올리는 그릇은 뭐렌 골아?(그다음에 떡 올리는 그릇은 뭐라고 말해?)

**고춘권** 거 편틀. 편 올리는 거.(거 편틀. 편 올리는 거.)

**김병생** 펜틀.(편틀.)

**김순자** 삼춘은 편틀. 삼춘은 펜틀.(삼촌은 '편틀'. 삼촌은 '펜틀'.)

**김병생** 으, 펜틀.(으, 편틀.)

**김순자** 그 편을 올리는 거 아니라예. 편틀은 멧 개?(그 편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편틀은 몇 개?)

**고춘권** 뭐?(뭐?)

**김병생** 펜틀은 ᄒᆞ나.(편틀은 하나.)

**김순자** 펜틀 ᄒᆞ나 잇고 그다음에 거기 고기덜은 무신 거에 올려?(편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고기들은 무슨 거에 올려?)

**김병생** 건 접시에 올리주.(건 접시에 올리지.)

**김순자** 겐 거 무신 접시 헙니까?(그래서 거 무슨 접시 합니까?)

**김병생** 것도 놋그릇에 헤근에 저 정반.(것도 놋그릇에 해서 저 쟁반.)

**고춘권** 정반이주, 정반.(쟁반이지, 쟁반.)

**김순자** 정반에예. 삼춘네는 낭정반은 안 써 봔?(쟁반에요. 삼촌네는 나무쟁반은 안 써 봤어요?)

**고춘권** 아, 낭정반 지금도 낭정반이주.(아, 나무쟁반 지금도 나무쟁반이지.)

**김순자** 지금도 낭정반으로 헤근에.(지금도 나무쟁반으로 해서.)

**고춘권** 동글랑허게 만든 거.(동그랗게 만든 거.)

**김순자** 그거는 언제 만든 것과?(그거는 언제 만든 겁니까?)

**고춘권** 요새 그 제기.(요새 그 제기.)

**김순자** 아, 나오는 거.(아, 나오는 거.)

**고춘권** 옛날엔 펜틀이나 뭐나 다 낭으로 멘들앗주.(옛날엔 편틀이나 뭐나 다 나무로 만들었지.)

**김순자** 그다음 식생활, 삼춘, 술 담아 봅디가?(그다음 식생활, 삼촌, 술 담가 봅디까?)

**김병생** 술?(술?)

**김순자** 무신 술 담아 봅디가?(무슨 술 담가 봅디까?)

**김병생** 술 좁썰 헤근에 죽 쒀근에 누룩 골앙 허껑 놔두민 탁베기가 뒈는 거라. 게민 우이 발강헨 골라지민 청주가 뒈여. 겐 청주 똘라 먹어 뒌에 그 나머진 그 솟디 고소리 헤근에 따까서. 거 소주를 멘들앙.(술 좁쌀 해서 죽 쒀서 누룩 갈아서 섞어서 놔두면 막걸리가 되는 거야. 그럼 위에 발개서 가라앉으면 청주가 돼. 그래서 청주 따라서 먹어 두고 그 나머진 그 솥에 소줏고리 해서 고아서. 거 소주를 만들어서.)

**김순자** 아, 소주를 멘들앗구나, 삼춘. 오메기술은 안 허고?(아, 소주를 만들었구나, 삼촌. '오메기술'은 안 하고?)

**김병생** 오메기술도 허고.('오메기술'도 하고.)

**김순자** 오메기술도 허고. 그 술은 보통 어느제 만들어마씨?('오메기술'도 하고. 그 술은 보통 언제 만들어요?)

**고춘권** 술이 저 술은.(술이 저 술은.)

**김병생** 봄에 헤실 거라.(봄에 했을 거야.)

**고춘권** 봄에 보단도 가을 들어근에 겨울 뒈엉 다 곡식 장만허고 다 헤사 그거주. 전문으로 무신 장사용으로 헌 거 아니난에.(봄에 보다도 가을 들어서 겨울 돼서 다 곡식 장만하고 다 해야 그거지. 전문으로 무슨 장사용으로 한 거 아니니까.)

**김순자** 예, 예. 맞아, 곡석이 잇어야 허는 거난에.(예, 예. 맞아, 곡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고춘권** 저 저 오메기, 오메기 허영 둠는 것은 건이 보신용 그자 술 먹는 사름이나 시면은 먹젠 둠그는 거난. 우리도 가끔 둠가 먹주게.(저 저 '오메기', '오메기' 해서 담그는 것은 건 보신용 그저 술 먹는 사람이나 있으면 먹으려고 담그는 거니까. 우리도 가끔 담가 먹지.)

**김순자** 예. 식게 때 허젠 허면 제숙[30] 허고 떡 허는 게 큰일이잖아예? 떡 허젠 허면 그 그릇들도 하영 필요허지 안헙니까?(예. 제사 때 하려고 하면 제수 하고 떡

30)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하는 게 큰일이잖아요? 떡 하려고 하면 그 그릇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우선은 제사 때에 그 저 시리떡 허젠 허민 시리가 거 잇어야지. 게난 보통 옛날에는 종손집이는 시리 엇으믄 시리 놈의 집이 시리 제서 때에 빌어단 허기는 아주 불편헌 거주게.(우선은 제사 때에 그 저 시루떡 하려고 하면 시루가 거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종가에는 시루가 없으면 시루 남의 집의 시루 제사 때에 빌려다가 하기는 아주 불편한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요샌 떡집이 가민 다 사오주만은 어쨋든 자기 집이서 헤야 뒈니까.(그러니까 요샌 떡집에 가면 다 사오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서 해야 되니까.)

**김순자** 시리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ᄐᆞ납니까?(시루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까?)

**고춘권** 어, 큰 거, 족은 거 ᄋᆞ라 질이주.(아, 큰 거, 작은 거 여러 질이지.)

**김순자** 아, 시리도 여러 질이구나. 게믄 그 고망도 다 ᄐᆞ나고?(아, 시루도 여러 질이구나. 그럼 그 구멍도 다 다르고?)

**고춘권** 어.(어.)

**김순자** 그 시리는 보통 뭐로 멘들아마씨?(그 시루는 보통 뭐로 만들어요?)

**김병생** 사기로 멘들주.(사기로 만들지.)

**고춘권** 사기가 아니고 거 기와.(사기가 아니고 거 기와.)

**김병생** 지에.(기와.)

**김순자** 아, 지세시리[31] 헷구나?(아, '지세시리' 했구나?)

**고춘권** 어.(어.)

**김병생** 지세시리.('지세시리'.)

**고춘권** 요 또 새 시대 나니까 이제 알미늄시리가 나오고 벨 거 다 요새 나왐주만은 그때는 지세시리랏주.(요 또 새 시대 되니까 이제 알루미늄시루가 나오고 별 거 다 요새 나오지만 그때는 '지세시리'였지.)

**김순자** 그 식게 허젠 허면 그 떡을이 옛날은 어떤 떡들을 멘들앗수과?(그 제사 하려

31) '지세시리'는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시루를 말한다.

고 하면 그 떡을 옛날은 어떤 떡들을 만들었습니까?)

**고춘권** 그 시리떡.(그 시루떡.)

**김순자** 시리떡, 시리가 필요헌 거고.(시루떡, 시루가 필요한 거고.)

**고춘권** 젤벤 솔벤.(절편 솔편.)

**김병생** 젤벤 솔벤.(절편 솔편.)

**김순자** 젤벤 솔벤 멘들어난 젤벤본 잇수과?(절편 솔편 만들었던 절편떡살 있습니까?)

**고춘권** 그 본이 잇어야 허게 뒌 거주. 젤벤은 본이 엇이민 멘들 수가 엇주게.(그 떡살이 있어야 하게 된 거지. 절편은 떡살이 없으면 만들 수 가 없지.)

**김병생** 잇어난 거 데껴 벳주. 거 허단 설르난, 이 떡집이 강 험 시작허난 데껴 벳주. 어지렁헌 거.(있었던 거 던져 버렸지. 거 하다가 그만두니까, 이 떡집에 가서 하기 시작하니까 던져 버렸지. 어지러운 거.)

**김순자** 아이고, 다른 거 잘 보관허멍 그건 무사 데껴 붑디가게?(아이고, 다른 거 잘 보관하면서 그건 왜 던져 버립디까?)

**고춘권** 그게 가치가 제라허게 까치가 이신디.(그게 가치가 제대로 값어치가 있는데.)

**김순자** 예. 게난 그 절벤본은 무신 남으로 보통 멘듭니까?(예. 그러니까 그 절편떡살은 무슨 나무로 보통 만듭니까?)

**고춘권** 것이 제라허게 좋은 남이라야 허주. 거 막 세밀허게시리 홈을 팡 멘드는 거라 놓니까 이 무른 남은 얼만 안 써근에 저 메꽈져 불엉 안 뒈주게.(것이 제대로 좋은 나무여야 하지. 거 아주 세밀하게 홈을 파서 만드는 거니까 이 무른 나무는 얼마 안 써서 저 메워져 버려서 안 되지.)

**김병생** 돔박남이주.(동백나무지.)

**김순자** 돔박남으로.(동백나무로.)

**고춘권** 돔박남이나 가시남 거튼 거 보통. 옛날 시절에는 굴묵남, 굴무기.(동백나무나 가시나무 같은 거 보통. 옛날 시절에는 느티나무, 느티나무.)

**김순자** 예, 굴무기.(예, 느티나무.)

**고춘권** 굴무기 아니면 가시남 거튼 걸로 멘들앗주.(느티나무 아니면 가시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지.)

**김순자** 아.(아.)

**고춘권** 게난 저 보통 굴무기로 많이 헌 거 같애.(그러니까 저 보통 느티나무로 많이 한 거 같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굴무기가 남이 쎄고 질이 좋앗주.(느티나무가 나무가 세고 질이 좋았지.)

**김순자** 절벤본허고 솔벤본도 멘들안마씨?(절편떡살하고 솔편떡살도 만들었어요?)

**고춘권** 솔벤본은 거 쒜로 멘들앗주.(솔편떡살은 거 쇠로 만들었지.)

**김순자** 아, 쒜로 멘들고, 솔벤본은예. 그다음에 중궤[32], 약궤도 이 동네에?(아, 쇠로 만들고, 솔편떡살은요. 그다음에 중계, 약과도 이 동네에?)

**고춘권** 어.(어.)

**김순자** 건 뭘로 멘드는고?(건 뭘로 만드는가?)

**고춘권** 아, 건 중궤, 약궨 그 흐린좁썰.(아, 건 중계, 약과는 그 차조.)

**김순자** 흐린좁썰.(차조.)

**고춘권** 흐린좁썰로 헤근에 그 중궤, 약궤. 거 떡을 멘들아. 그건 이 저 솟뚜껑에서, 솟뚜껑 가르쳐 놔근에 거기서 기름에 지져. 기름에 튀겻주게.(차조로 해서 그 중계, 약과. 거 떡을 만들어. 그건 이 저 솥뚜껑에서, 솥뚜껑 뒤집어 놔서 거기서 기름에 지져. 기름에 튀겼지.)

**김순자** 삼춘 중궤는 소람헌?(삼촌 중계는 갸름한?)

**고춘권** 네모난 거. 아니 저 중궤는 긴 거. 네모난 것은 약궤.(네모난 거. 아니 저 중계는 긴 거. 네모난 것은 약과.)

**김순자** 예. 약궤에 고망 똘르지예?(예. 약과에 구멍 뚫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고망 멧 개 똘룹니까?(구멍 몇 개 뚫습니까?)

**고춘권** 고망 다섯 개.(구멍 다섯 개.)

**김순자** 다섯 개. 사방으로 뚤루고 가운디 뚤루는구나?(다섯 개. 사방으로 뚫고 가운데 뚫는구나?)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고망 똘루는 의미가 이신가마씨?(그 구멍 뚫는 의미가 있는가요?)

---

32)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고춘권** 글쎄 그것꺼정은 몰르크라.(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김순자** 그다음에 삼춘 요웨 강정?(그다음에 삼촌 '요웨 강정'?)

**고춘권** 으, 요웨 강정 잇어.(으, '요웨 강정' 있어.)

**김병생** 강정 요웨.('강정 요웨'.)

**김순자** 강정 요웨. 강정은 뭐고 요웨는 뭐우과?('강정 요웨'. '강정'은 뭐고 '요웨'는 뭡니까?)

**고춘권** 동글랑헌 거.(동그란 거.)

**김병생** 동글랑헌 건.(동그란 건.)

**고춘권** 또 이 저 영 거림박이, 거림 돋은 거.(또 이 저 이렇게 '거름박이', 갈래 돋은 거.)

**김순자** 예, 거림 돋은 거가 요웨?(예, 갈래 돋은 거가 '요웨'?

**고춘권** 으.(으.)

**김순자** 강정?(강정?)

**김병생** 강정, 강정.(강정, 강정.)

**고춘권** 동글랑헌 건 강정 거림박이 돋은 건 요웨. 요웨엔 헌 건 거 오목헐 요 그 저 기여든 거.(동그란 건 강정 '거림박이' 돋은 건 '요웨'. '요웨'라고 하는 건 거 오목할 요 그 저 기어든 거.)

**김순자** 예.(예.)

**고춘권** 기여들게 헤시민 거 요웨주게.(기어들게 했으면 거 '요웨'지.)

**김순자** 게난 그 요웨 강정을 꼭 혼 불로 올린덴 허멍예?(그러니까 그 '요웨' 강정을 꼭 한 벌로 올린다고 하면서요?)

**김병생** 으.(으.)

**김순자** 게믄 엿 무치는 건 무슨 거우과?(그럼 엿 묻히는 건 무슨 겁니까?)

**김병생** 과질.(과줄.)

**김순자** 과질. 요웨도 엿 붙여근에 올리지 안헤?(과줄. '요웨'도 엿 붙여서 올리지 않아?)

**고춘권** 무시거?(무엇?)

**김순자** 요웨?('요웨'?)

**김병생** 그것에도 엿 미쳐근에 과자덜 영 붓아근에 솔솔솔솔 허끈다.(그것에도 엿 묻

혀서 과자들 이렇게 빻아서 살살살살 섞는다.)

**김순자** 거기에, 요웨에예? 그다음 과질허고. 올리는 게 그게 다 소상 때 헤난 것덜이지예?(거기에, '요웨'에요? 그다음 과줄하고. 올리는 게 그게 다 소상 때 했던 것들이지요?)

**김병생** 소상 대상.(소상 대상.)

**김순자** 그럼 그런 요웨 만들거나 약궤 만들거나 헐 때는 무신 걸로 만드는 거?(그럼 그런 '요웨' 만들거나 약과 만들거나 할 때는 무슨 걸로 만드는 거?)

**김병생** 건 그 따라근에 식에 따라 그 지금 먹는 쏠, 쏠ᄀᆞ루도 허고 그 흐린좁썰도 허고.(건 그 따라서 식에 따라 그 지금 먹는 쌀, 쌀가루도 하고 그 차조도 하고.)

**고춘권** 여름에 ᄀᆞ튼 때는 밀ᄀᆞ루. 밀ᄀᆞ루 헤근에 상웨떡 멘들 때 그런 걸로 강정 요웨도 허고 중궤 약궤도 허고 이 또 시리떡 대신 것도 밀ᄀᆞ루로 멘들앙 올리고.(여름에 같은 때는 밀가루. 밀가루 해서 상화 만들 때 그런 걸로 강정 '요웨'도 하고 '중계' 약과도 하고 이 또 시루떡 대신 것도 밀가루로 만들어서 올리고.)

**김병생** 겨울엔게.(겨울엔.)

**고춘권** 또 가을 들어근에 조 거튼 거 나면은 찹쌀 헤근에 차조로 헤영 그거 허고.(또 가을 들어서 조 같은 거 나면 찹쌀 해서 차조로 해서 그거 하고.)

**김순자** 그럼 강정 요웨나 이런 건 다 좁썰로 허는 거, 옛날?(그럼 강정 '요웨'나 이런 건 다 좁쌀로 하는 거, 옛날?)

**고춘권** 으.(으.)

**김순자** 저기 ᄆᆞ멀로는 안 헤 봅디가?(저기 메밀로는 안 해 봅디까?)

**김병생** ᄆᆞ멀 아니.(메밀 아니.)

**김순자** 아, ᄆᆞ멀은 안 허고.(아, 메밀은 안 하고.)

**고춘권** ᄆᆞ멀은 저 정기떡[33], 정기떡 헐 때 그 ᄆᆞ멀은 사용허는 거고.(메밀은 저 '정기떡', '정기떡' 할 때 그 메밀은 사용하는 거고.)

**김순자** 예. 삼춘 저기 떡 헐 때 쓰는 구덕들 종류 여라 개 잇지예. 떡 헌 거 뭐에 놉니

33) '정기떡'은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빙, 빙떡, 전기, 전기떡이라고도 한다.

까? 떡 허거나 전 지지거나 허면, 적들 허면?(예. 삼촌 저기 떡 할 때 쓰는 바구니들 종류 여러 개 있지요. 떡 한 거 뭐에 놓습니까? 떡 하거나 전 지지거나 하면, 적들 하면?)

**고춘권** 저 그 적차롱, 적차롱 상지차롱 또 고령차롱 경 헷주게.(저 그 '적차롱', '적차롱', '상지차롱' 또 '고령차롱' 그렇게 했지.)

**김병생** 고령차반진 적 ᄀᆞ튼 거 헤 놓곡 상지차반지엔 큰 시리떡 헤근에 베어 놓고.('고령차반지'는 적 같은 거 해 넣고 '상지차반지'엔 큰 시루떡 해서 베어 넣고.)

**고춘권** 큰 거, 상지차반지 큰 거.(큰 거, '상지차반지' 큰 거.)

**김순자** 상지차반지이 큰 거.('상지차반지' 큰 거.)

**고춘권** 고령은 쪼그만헌 거. 적차롱.(고령은 조그마한 거. '적채롱'.)

**김순자** 적차롱은.('적채롱'은.)

**고춘권** 적차롱은 중간에 거.('적채롱'은 중간에 거.)

**김순자** 적차롱은 중간에 거.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 용도가 ᄯᅮ난 거라예?('적채롱'은 중간에 거.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 용도가 다른 거지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저 밧디 뎅길 때 밥차롱은?(저 밭에 다닐 때 밥채롱은?)

**고춘권** 밧디 뎅길 때 허는 거 그냥 밥차롱. 그 저 소나 말 보레 혼자 갈 때. 그 끈 돌아근에 이렇게 메영 가는 거 밥당석.(밭에 다닐 때 하는 거 그냥 밥채롱. 그 저 소나 말 보러 혼자 갈 때. 그 끈 달아서 이렇게 메서 가는 거 '밥당석'.)

**김순자** 밥당석. 게민 밥당석 헐 때 그물 닮은 거 짜근에 영 둘러메지 안헙니까? 그 그물을 뭐엔 헙니까?('밥당석'. 그럼 '밥당석' 할 때 그물 같은 거 짜서 이렇게 둘러메지 않습니까? 그 그물을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김병생** 하하하.(하하하.)

**김병생** 원 앎도 잘 알암저. 그때 그 산디찝 꼬아근에 그물 만들엉 헤낫주.(원 알기도 잘 아네. 그때 그 밭볏짚 꼬아서 그물 만들어서 했었지.)

**김순자** 게난 그 이름은 뭐렌 헤마씨?(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 해요?)

**고춘권** 것ᄀᆞ라 거 뭐엔 헤나시?(것보고 거 뭐라고 했니?)

**김병생** 망울이엔 헤나신가?('망울'이라고 했었는가?)

**김순자** 아니, 망울 아니고예, 나도 잊어불엇수다.(아니, '망울' 아니고요, 나도 잊어버렸습니다.)

**고춘권** 거 확 곧젠 허난 생각 안 나네.(거 확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 안 나네.)

**김순자** 그 밥당석 담아근에 영 헹 갓지예?(그 '밥당석' 담아서 이렇게 해서 갔지요?)

**고춘권** 으. 그자 밥당석에 직접 끈 돌앙멩도 뎅기고 그것에 담아근에 이 사냥 뎅길 때 그런 때 ᄀᆞ튼 때 그런 때 그것에 담앙 메영 뎅겻주.(으. 그저 '밥당석'에 직접 끈 달아매서 다니고 그것에 담아서 이 사냥 다닐 때 그런 때 같은 때 그런 때 그것에 담아서 메서 다녔지.)

**김보향** 고령착에는 뭐 놔난 것과?('고령착'에는 뭐 놨던 겁니까?)

**김병생** 고령착엔 정기떡.('고령착'엔 '정기떡'.)

**김보향** 정기떡 같은 거 놓고.('정기떡' 같은 거 넣고.)

**고춘권** 고령차반지는.('고령차반지'는.)

**김보향** 고령차반지?('고령차반지'?)

**고춘권** 으. 옛날에는 대소상 조문 갈 때에, 요새는 신식 나니까 봉투에 담앙 가주, 그때는 물건으로 헷거든.(으. 옛날에는 대소상 조문 갈 때에, 요새는 신식 되니까 봉투에 담아서 가지, 그때는 물건으로 했거든.)

**김보향** 예.(예.)

**고춘권** 쏠 상 가거든. 경 안 허면 떡.(쌀 사서 가거든. 그렇게 안 하면 떡.)

**김병생** 떡 지경.(떡 지져서.)

**고춘권** 떡을 헹 가던지.(떡을 해서 가든지.)

**김병생** 만뒤떡[34] 헹 가고.('만뒤떡' 해서 가고.)

**고춘권** 게난 원 빵이든 정기떡이든. 빵도 거 중간에야 빵 낫주, 옛날엔 저 이녁냥으로 직접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정기떡, 정기떡 멘들앙 그런 걸로 놓아 부지로 가져가는 거주. 게난 쪼그마헌 차반지[35] 그런 용으로 만든 거라.(그러니까 원 빵이든 '정기떡'이든. 빵도 거 중간에야 빵 나왔지, 옛날엔 저 자기대로 직접 메밀가루 해서 '정기떡', '정기떡' 만들어서 그런 걸로 놓아서 부주로 가져가는 거

34) '만뒤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쪄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35) '차반지'는 대오리로 결은 뚜껑 있는 그릇을 말한다.

지. 그러니까 조그만한 '차반지' 그런 용으로 만든 거야.)

**김보향** 아, 고령차반지가. 고령차반지에 거의 대부분 부지헐 때 가정가나신디 주로 헷엇던 게 정기떡이과?(아, '고령차반지'가. '고령차반지'에 거의 대부분 부조할 때 가져갔었는데 주로 했었던 게 '정기떡'입니까?)

**김병생** 보통 정기떡. 정기떡허고 만뒤떡.(보통 '정기떡'. '정기떡'하고 '만뒤떡'.)

**김보향** 만뒤떡도 허고.('만뒤떡'도 하고.)

**고춘권** 게난 젤 쉬운 것이 정기떡이주게. 만들기가 젤 쉬우니까.(그러니까 젤 쉬운 것이 '정기떡'이지. 만들기가 젤 쉬우니까.)

**김보향** 예, 고령차반지는 그런 거 넣는 걸로 써낫고.(예, '고령차반지'는 그런 거 넣는 걸로 썼었고.)

**고춘권** 어디 당에 거튼 디, 그런 디 갈 때도 쪼그마한 차반지 고령차반질 사용허고.(어디 당에 같은 데 그런 데 갈 때도 조그마한 '차반지' '고령차반지'를 사용하고.)

**김보향** 고령차반지를 다시 영 헹 구덕에 담앙?('고령차반지'를 다시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고춘권** 으, 가는대구덕에 놩.(으, '가는대바구니'에 놔서.)

**김보향** 가는대구덕에 담앙 그거 멩 들렁 갈 거라예?('가는대바구니'에 담아서 그거 메서 들고 갈 거지요?)

**고춘권** 들렁도 가고 졍도 가고.(들고도 가고 져서도 가고.)

**김병생** 졍 갓주, 보통.(져서 갔지, 보통.)

**강수경** 정기떡 안에는 뭐 놘마씨?('정기떡' 안에는 뭐 놨어요?)

**김병생** 무 놩.(무 놔서.)

**강수경** 풋은 안 놔낫수과?(팥은 안 놨었습니까?)

**김병생** 풋은 아니. 보통 무.(팥은 아니. 보통 무.)

**고춘권** 풋이나 뭐 그런 거 풋도 놧주게. 풋도 놓고 고구마 거튼 것도 놓고.(팥이나 뭐 그런 거 팥도 놨지. 팥도 넣고 고구마 같은 것도 넣고.)

**김병생** 아이 정기떡은 그자.(아니 '정기떡'은 그저.)

**고춘권** 아무 거나 콩ᄂᆞ물 거튼 것도 놓고 여라 가지로 놧주. 게난 그때 신 걸로 쉬운 걸로 놧주, 쉬운 걸로.(아무 거나 콩나물 같은 것도 넣고 여러 가지로 넣었지.

그때 있는 걸로 쉬운 걸로 넣었지, 쉬운 걸로.)

**강수경** 아, 콩ᄂᆞ물도 놉니까?(아, 콩나물도 넣습니까?)

**김병생** 콩ᄂᆞ물도 놧주.(콩나물도 넣었지.)

**김보향** 떡 치젠 허민 뭐에 쳣어?(떡 찌려고 하면 뭐에 쪘어?)

**고춘권** 바드렝이. 바드렝이 솟디 바드렝이 놔야 헐 거주게. 그 바드렝이 우이 올려놩.(겅그레. 겅그레 솥에 겅그레 놔야 할 거지. 그 겅그레 위에 올려놔서.)

**김보향** 그 바드렝이 우이 올려놩 치는 게, 상웨떡 칠 때에 당연히 올려놓는 거고 솔벤 절벤은?(그 겅그레 위에 올려놔서 찌는 게, 상화 찔 때에 당연히 올려놓는 거고 솔편 절편은?)

**김병생** 것도 그거.(것도 그거.)

**고춘권** 솔벤 칠 때.(솔편 찔 때.)

**김병생** 솔벤은 솔입. 솔입 헹 바드렝이 놔근에 솔입 꼴아 놩 또 솔벤 ᄌᆞ근ᄌᆞ근 놔근에게 또 솔입 놔근에게 꼴앙 쪄세. 여라 층이 놩.(솔편은 솔잎. 솔잎 해서 겅그레 놔서 솔잎 깔아 놔서 또 솔편 차례차례 놔서 또 솔잎 놔서 깔아서 쪘어. 여러 층에 놔서.)

**강수경** 숢지 안 헤낫수과?(삶지 안 했었습니까?)

**김병생** 숢지 안 헌다. 경헤근에 그거 내여근에 그거 물에 시쳥. 물에 만딱 솔입 다 털멍 헤둬근에 깨껏허게 시쳥 지름 볼랑 헤세. 솔벤은.(삶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내어서 그거 물에 씻어서. 물에 모두 솔잎 다 떨면서 해둬서 깨끗하게 씻어서 기름 발라서 했어. 솔편은.)

**고춘권** 기름 볼르지 안 허민 부떠 부니까.(기름 바르지 않으면 붙어 버리니까.)

**김병생** 젤벤은 막 달롸근에 손에서 지름 볼르멍 막 달롸근에 거 절벤본으로 이제 눌리민 뒈는 거고.(절편은 마구 다뤄서 손에서 기름 바르면서 마구 다뤄서 거 절편떡살로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

**김순자** 거는 두 개 헤 갖고 딱 부쳐근에 눌렷지예?(거는 두 개 해 갖고 딱 붙여서 눌렀지요?)

**김병생** 으.(으.)

**김순자** 그 바드렝이는 층층이?(그 겅그레는 층층이?)

**김병생** 층층이 허는 것이 아니고.(층층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춘권** 층층이 헌 것은 그 신식 때 나가지고 건 우리 때에 난 후제 건 뭐 그자 이녁대로 멘들앙 그 철사헤영 멘들앙 허면은.(층층이 하는 것은 그 신식 때 돼가지고 건 우리 때에 난 후에 건 뭐 그저 자기대로 만들어서 그 철사해서 만들어서 하면.)

**김병생** 그 상웨떡 칠 때 경헷주만은 솔벤 칠 때는 이것이 솟 아냐게. 이것에 바드렝이 꼴아 놩 이제 그 바드렝이 안에 솔입을 영 헤근에.(그 상화 찔 때 그랬지만 솔편 찔 때는 이것이 솥 아니니. 이것에 겅그레 깔아 놔서 이제 그 겅그레 안에 솔잎을 이렇게 해서.)

**김순자** 꼴앙.(깔아서.)

**고춘권** 바드렝이 우이, 바드렝이 우이. 솔입 꼴아놩 그 솔벤을 놩.(겅그레 위에, 겅그레 위에. 솔잎 깔아놔서 그 솔편을 놔서.)

**김병생** 조근조근 놩 또시 영영 서텅.(차례차례 놔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고춘권** 또 그 우이 두 칭이나 세 칭으로.(또 그 위에 두 켜나 세 켜로.)

**김병생** 서터근에 또 이제 놓민 그 솔입으로 헹 부뜨지 안헌다.(섞어서 또 이제 넣으면 그 솔잎으로 해서 붙지 않는다.)

**김순자** 예, 예. 그런 식으로 헷던 거예.(예,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거요.)

**고춘권** 게난 것도 허젠 허면은 솔입도 봄에, 봄에 헤근에 솔입 다 따다근에 물류왕 놧다근에 허고 다 헤 나민 시쳐근에 또 물류왕 놧당 허고.(그러니까 것도 하려고 하면 솔잎도 봄에, 봄에 해서 솔잎 다 따다가 말려서 놨다가 하고 다 해 나면 씻어서 또 말려서 놨다가 하고.)

**김순자** 삼춘 그 솔입은 숢앙 물립니까, 그냥 물립니까?(삼촌 그 솔잎은 삶아서 말립니까, 그냥 말립니까?)

**김병생** 더운 물 콱 돔그민 것이 냄새 조꼼 돌아나고.(더운 물 콱 담그면 것이 냄새 조금 달아나고.)

**김순자** 더운 물에예. 어떤 디는 숢아근에 물린덴도 골읍디다. 그다음에 삼춘 그 시리떡 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시리떡은?(더운 물에요. 어떤 데는 삶아서 말린다고도 말합디다. 그다음에 삼촌 그 시루떡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시루떡은?)

**고춘권** 시리떡은 시리 고망 똘라진 거난 거 고망을 막아야 뒈거든.(시루떡은 시루 구

멍 뚫어진 거니까 거 구멍을 막아야 되거든.)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고망은 뭘로 막느냐 허면은 보통 이 겨울에, 겨울에 배추 거튼 거 많잖아이. 게난 그 배추이파리 헤단 꼴앙 허는 수도 잇고. 또 이 으름 거튼 때는 이파리가 엇으니까 천, 천 꼴앙도 허고.(구멍은 뭐로 막느냐 하면 보통 이 겨울에, 겨울에 배추 같은 거 많잖아. 그러니까 그 배춧잎 해다가 깔아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이 여름 같은 때는 잎이 없으니까 천, 천 깔아서도 하고.)

**김병생** 아, 천 안 헷어.(아, 천 안 했어.)

**김보향** 양에썹.(양하잎.)

**김순자** 대썹은 안 꼴앗수과?(댓잎은 안 깔았습니까?)

**고춘권** 어?(어?)

**김순자** 대썹은 안 꼴아 봔?(댓잎은 안 깔아 봤어?)

**고춘권** 대썹은 이디 시리에 ᄀᆞᆺ는 것이 아니고, 고망 막는 것이 아니고 그자 보통 시리떡에는 그 팟으로 허잖아이?(댓잎은 여기 시루에 까는 것이 아니고, 구멍 막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보통 시루떡에는 그 팥으로 하잖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칭, 풋 대신 풋 대신 대썹을 꼴앙 그 우이 혼 칭 놓고 혼 칭 놓고.(그 켜, 팥 대신 팥 대신 댓잎을 깔아서 그 위에 한 켜 넣고 한 켜 넣고.)

**김병생** 건 제펜 헐 때.(건 '제편' 할 때.)

**김순자** 제펜 헐 때.('제편' 할 때.)

**김병생** 대썹으로 칭을 놓는 거주게. 풋 대신.(댓잎으로 켜를 놓는 거지. 팥 대신.)

**김순자** 풋 대신, 예. 게난 그 시릿고망 막는 거를 시릿마개렌 헙니까?(팥 대신, 예. 그러니까 그 시룻구멍 막는 거를 시룻번이라고 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다른 디는 가난 놈삐로도 막안게만은 여기는 배추로 헌다예.(다른 데는 가니까 무로도 막더니만 여기는 배추로 하네요.)

**고춘권** 거 여라 가지.(거 여러 가지.)

**김순자** 그다음 삼춘 떡 칠 때 보면 무사 이 밖에 시리 앚지지 안헙니까양? 게민 밀ᄀᆞ루로 헹 밖에 둘루는 건 건 뭐렌 골아?(그다음 삼촌 떡 찔 때 보면 왜 이 밖

에 시루 앉히지 않습니까? 그럼 밀가루로 해서 밖에 두르는 건 건 뭐라고 말해?)

**김병생** 건 시릿마개.(건 시룻번.)

**김순자** 아, 그게 시릿마개. 그 시릿마개 잘 안 막으면 떡이 안 익잖아예?(아, 그게 시룻번. 그 시룻번 잘 안 막으면 떡이 안 익잖아요?)

**김병생** 군짐 나 불민 안 뒈지.(군김 나 버리면 안 되지.)

**김순자** 그니까 군짐 나지 않게예.(그러니까 군김 나지 않게요.)

**고춘권** 그런 거 시집오면은 원래 처음 베우는 게 그런 것부터 베우는 거주게. 시리 들름이 무겁잖아?(그런 거 시집오면 원래 처음 배우는 게 그런 것부터 배우는 거지. 시루 들기가 무겁잖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허민 새 새각시 오면 시리 앚당 앚지렌 허거든.(그러면 새 새각시 오면 시루 가져다가 앉히라고 하거든.)

**김병생** 시리 앚당 앚지라, 시릿마개 막으라.(시루 가져다가 앉혀라, 시룻번 막아라.)

**고춘권** 막으라 헤근에. 황당히 막으면 그 시어멍안티 욕 듣고.(막아라 해서. 황당히 막으면 그 시어머니에게 욕 듣고.)

**김병생** 잘허민, 가이 막 착허게 잘헤라 허고.(잘하면, 걔 아주 착하게 잘해라 하고.)

**고춘권** 게난 메느린 놈 모르게 방에서 눈물을 내멍 울엇거든. 시어멍안티 욕들엉.(그러니까 며느린 남 모르게 방에서 눈물을 내면서 울었거든. 시어머니에게 야단맞아서.)

**김순자** 맞수다, 맞수다. 그러면 결혼을 처음 허면 메누리안티 가르치는 거예?(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처음 하면 며느리한테 가르치는 거요?)

**고춘권** 그럼 그런 거부터 ᄀᆞ리쳐야지.(그럼 그런 거부터 가르쳐야지.)

**김순자** 시리 들르는 거, 시리 앚지는 거.(시루 드는 거, 시루 앉히는 거.)

**고춘권** 어, 그런 거. 게니까 종손칩이서 난 똘은 그런 걸 다 집이서 베왕 와. 허는데 우리 ᄀᆞ치 족은 아덜네 집이서 난 똘덜은 집이서 아이 보고 헤나지 안허니까 모르거든. 시집가가지고 그걸 베우젠 허난 눈물이 나게 마련이지.(어, 그런 거. 그러니까 종가에서 난 딸은 그런 걸 다 집에서 배워서 와. 하는데 우리 같이 작은 아들네 집에서 난 딸들은 집에서 안 보고 했었지 않으니까 모르거

든. 시집가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게 마련이지.)

**김병생** 옛날에 결혼시키젠 허민 종손집 똘을 구헤세, 문저.(옛날에 결혼시키려고 하면 종가 딸을 구했어, 먼저.)

**김순자** 일도 많고 일 잘헌다고.(일도 많고 일 잘한다고.)

**고춘권** 게난 요새 종손집이 시집 안 가젠 허는 게 바로 그거 때문 아니냐.(그러니까 요새 종가에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 때문 아니니.)

**김병생** 옛날 새각신 종손집 똘로만 문저 구헤세.(옛날 새색신 종가 딸로만 먼저 구했어.)

**김순자** 예.(예.)

**고춘권** 이 종손집 큰집 딸이이 시키지 안헤도 눈으로 보는 게 많거든.(이 종손집 큰집 딸이 시키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게 많거든.)

**김순자** 큰일들을 하영 허난.(큰일들을 많이 하니까.)

**고춘권** 그니까 시키지 안헤도 베움을 많이 베왕 와. 게고 종손칩이는 일가에 어른덜을 많이 출입허거든. 제서 때나 멩질 때에. 게민 행실이나 모든 행동을 볼써 저디서.(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배우기를 많이 배워서 와. 그리고 종가에는 일가에 어른들을 많이 출입하거든. 제사 때나 명절 때에. 그럼 행실이나 모든 행동을 벌써 저기서.)

**김병생** ᄉᆞ못 차이가 크주게.(사뭇 차이가 크지.)

**고춘권** 자연히 베와지는 거라.(자연히 배우는 거야.)

**김순자** 예.(예.)

**김병생** 이젠 뭐 신뢰가 엇어근에 헐 일 한 딘 안 가젠 허고 요즘 아이덜은.(이젠 뭐 신뢰가 없어서 할 일 많은 덴 안 가려고 하고 요즘 아이들은.)

**김순자** 삼춘 아까 그릇들 중에 우리 대나무그릇덜 적차롱이여 이런 것덜 헷잖아예. 그다음에 우리 옹기로 뒌 그릇덜도 하지 안 헙니까?(삼촌 아까 그릇들 중에 우리 대나무그릇들 '적차롱'이며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옹기로 된 그릇들도 많지 않습니까?)

**김병생** 옹기?(옹기?)

**김순자** 옹기로, 아까 물항 큰 물항도 잇을 거고?(옹기로, 아까 물독 큰 물독도 있을 거고?)

**김병생** 물항.(물독.)

**김순자** 항 종류는 어떤 거 잇어마씨?(항아리 종류는 어떤 거 있어요?)

**김병생** 물항 그릇. 정제에 놘에 거 큰항 혼 열다섯 허벅 드는 거.(물독 그릇. 부엌에 놔서 거 큰항아리 한 열다섯 허벅 드는 거.)

**김순자** 아이고 게믄 혼 섬 반이네.(아이고 그럼 한 섬 반이네.)

**김병생** 으, 혼 섬 반. 또 열 개 들은 항. 또 통갠 또 두 허벅 들은 거 그런 거 잇어낫주.(으, 한 섬 반. 또 열 개 든 항아리. 또 '통갠' 또 두 '허벅' 들 거 그런 거 있었지.)

**고춘권** 단지.(단지.)

**김병생** 단지.(단지.)

**고춘권** 그 저 젓갈 담는 거 보통 단지. 족은 거, 젤 족은 것ᄀᆞ라 단지.(그 저 젓갈 담그는 거 보통 단지. 작은 거, 젤 작은 것보고 단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오가리. 중간에 거 오가리.('오가리'. 중간에 거 '오가리'.)

**김순자** 게민 다시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아까 젤 큰항 곡석 담는 항은 크기가 어느 정도 헙니까?(그럼 다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젤 큰항 곡식 담는 항아리는 크기가 어느 정도 합니까?)

**김병생** 그거 아까 골은 거.(그거 아까 말한 거.)

**김순자** 혼 섬 반 허는?(한 섬 반 하는?)

**김병생** 으.(으.)

**김순자** 그런 거에. 물항은 보통.(그런 거에 물독은 보통.)

**김병생** 열다섯.(열다섯.)

**김순자** 것도 열다섯. 열 허벅 드는 거는?(것도 열다섯. 열 '허벅' 드는 거는?)

**김병생** 그건 기자 보통으로 기자 혼 열 말쯤 들주.(그건 그저 보통으로 그저 한 열 말쯤 들지.)

**김순자** 예. 보통 정제에 물항은 멧 개 놩 썻수과?(예. 보통 부엌에 물독은 몇 개 놔서 썼습니까?)

**김병생** 거 그냥 저 통개꺼장 부치민 두 개.(거 그냥 저 '통개'까지 붙이면 두 개.)

**김순자** 두 개.(두 개.)

**김병생** 게난 보통 하나.(그러니까 보통 하나.)

**김순자** 아. 게난 통개는 두 허벅 드는 거예. 소소허게 이렇게 물 거릴 수 있는.(아. 그러니까 '통개'는 두 '허벅' 드는 거요. 소소하게 이렇게 물 뜰 수 있는.)

**김병생** 으, 누차운 거난게.(으, 낮은 거니까.)

**김순자** 오가리는 만약에 허벅으로 허게 뒈민 얼마나 들어가코예?('오가리'는 만약에 '허벅'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김병생** 혼 허벅, 건 혼 허벅 들고.(한 '허벅', 건 한 '허벅' 들고.)

**김순자** 단지는?(단지는?)

**김병생** 단지는게 무시거 혼 뒈 두 뒈짜리주.(단지는 무엇 한 되, 두 되짜리지.)

**김순자** 예.(예.)

**김병생** 그다음에 단지 중에도 젤 쩨그마한 단지 잇지 안허과, 그건 무슨 단지렌 헤?(그다음에 단지 중에도 젤 자그마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단지라고 해?)

**김병생** 그거, 장단지 그자 쩨그만헌 거.(그거 '장단지' 그저 자그마한 거.)

**김순자** 걸 조막단지렌 헙니까?(걸 '조막단지'라고 합니까?)

**김병생** 으, 조막단지. 장단지 쪼그만헌 거.(으, '조막단지'. '장단지' 조그마한 거.)

**김순자** 그 조막단지가 장단지?(그 '조막단지'가 '장단지'?)

**김병생** 으.(으.)

**김순자** 삼춘네 그 젓갈 같은 거는 뭐에 담아마씨?(삼촌네 그 젓갈 같은 거는 뭐에 담아요?)

**김병생** 젓갈 그냥 그 쪼끄마한 단지로 아까 허는 거추룩 두 뒈짜리.(젓갈 그냥 그 조그마한 단지로 아까 하는 거처럼 두 되짜리.)

**김순자** 예.(예.)

**김병생** 그것에 젓갈 담아낫저.(그것에 젓갈 담갔었지.)

**김순자** 삼춘 자리젓을 하영 담앗수과, 멜첫을 하영 담앗수과?(삼촌 자리젓을 많이 담갔습니까, 멸치젓을 많이 담갔습니까?)

**김병생** 아이, 자리젓도 베랑 안 담아봣저.(아니, 자리젓도 별로 안 담가봤지.)

**김순자** 삼춘은 자리젓 벨로 안 좋아하는구나.(삼촌은 자리젓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김병생** 젓갈이렌 허는 거 원 못 먹게 허여. 위 뭐 헌 땀에.(젓갈이라고 하는 거 전혀 못 먹게 해. 위 뭐 한 때문에.)

**김순자**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김병생** 옛날에 쪼금 기자 쪼그마한 단지에 기자.(옛날에 조금 그저 조그마한 단지에 그저.)

**김순자** 그 자리젓을 혼 번, 어떵 허민 맛 좋게 소금 분량 허고 자리 분량은 어느 정도 헙니까?(그 자리젓을 한 번, 어떻게 하면 맛 좋게 소금 분량 하고 자리돔 분량은 어느 정도 합니까?)

**김병생** 몰라, 반 반 놧일 거여. 거 거시기 멜은.(몰라, 반 반 놨을 거야. 거 거시기 멸치는.)

**김순자** 멜, 삼춘네 멜 헹. 웨 콩입 먹젠 허면 멜첫 잇어야 뒈난예? 게믄 그런 것덜을 아까 오가리에 담는 거?(멸치, 삼촌네 멸치 해서. 왜 콩잎 먹으려 하면 멸치젓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아까 '오가리'에 담그는 거?)

**김병생** 으.(으.)

**김순자** 김치 같은 경우는 뭐에 헤?(김치 같은 경우는 뭐에 해?)

**김병생** 김치?(김치?)

**김순자** 으.(으.)

**김병생** 김치는 그 통개에.(김치는 그 '통개'에.)

**김순자** 통개에.('통개'에.)

**김병생** 족은, 족은 통개에.(작은, 작은 '통개'에.)

**김순자** 그 장 같은 거는.(그 장 같은 거는.)

**김병생** 장도 그 통개에.(장도 그 '통개'에.)

**김순자** 겐디 장은 식구 하영.(그런데 장은 식구 많이.)

**고춘권** 장은 장항이엔 장항이엔 헌 것은, 장항은이.(장은 장독이라고 장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독은.)

**김병생** 장항이 잇어주. 두 허벅 반짜리.(장독이 있었지. 두 '허벅' 반짜리.)

**고춘권** 육지, 육지항을 대중 사용헷주.(육지, 육지항아리를 대중 사용했지.)

**김순자** 으, 두 허벅 반짜리.(으, 두 '허벅' 반짜리.)

**고춘권** 그 저 대정항에도 헷주만은 이 육지항을 많이 사용헷주.(그 저 대정항아리에

도 했지만 이 육지항아리를 많이 사용했지.)

**김순자** 게믄예 삼춘 장을 담을 때 장을 어떤 식으로 담읍니까, 장 한 번 담아 봅서.(그럼 삼촌 장을 담글 대 장을 어떤 식을 담급니까, 장 한 번 담가 보세요.)

**김병생** 장 무시거 ᄒᆞᆫ 허벅 담젠 허믄게 물.(장 무엇 한 '허벅' 담그려고 하면 물.)

**김순자** 콩 멧 말?(콩 몇 말?)

**김병생** 콩. 옛날에 콩 ᄒᆞᆫ 말이민 두 허벅 담아낫주게. 경헌디 요즘은 경 안 헌다.(콩. 옛날에 콩 한 말이면 두 '허벅' 담갔었지.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김순자** 게난 옛날에 헐 때.(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

**김병생** 옛날에 헐 때 두 허벅. ᄒᆞᆫ 말 허민. 두 말 ᄉᆞᆲ으민 네 허벅 경허멍.(옛날에 할 때 두 '허벅'. 한 말 하면. 두 말 삶으면 네 '허벅' 그러면서.)

**김순자** 소금은?(소금은?)

**김병생** 소금은 두 말.(소금은 두 말.)

**김순자** 게믄 콩허고 소금허고 똑같아?(그럼 콩하고 소금하고 똑같아?)

**김병생** 거자 ᄀᆞ타.(거의 같아.)

**김순자** 아, 거자 ᄀᆞ트게예. 게믄 콩 삶을 때부터 장 헐 때까지 쭉허게 골아 줘 봅서.(아, 거의 같게요. 그럼 콩 삶을 때부터 장 할 때까지 쭉 하게 말해 줘 보세요.)

**김병생** 뒌장 갈를 때까지 그냥 내벳다근에 장 익으민 거 갈라근에 그냥 또 딴 오가리더레 놔근에가.(된장 가를 때까지 그냥 내버렸다가 장 익으면 거 갈라서 그냥 또 다른 '오가리'에 놔서.)

**고춘권** 메주 헐 때부터, 콩 ᄉᆞᆲ앙.(메주 할 때부터, 콩 삶아서.)

**김순자** 삼춘이 골아 줍서.(삼촌이 말해 주세요.)

**고춘권** 콩 테작헤영 그거 ᄇᆞ름에 불령 몰류왕 이 저 콩은 안 몰류와도 뒈여. 겨울에 헌 거난 몰류와 불민 ᄉᆞᆲ으민 이 저 오래여.(콩 타작해서 그거 바람이 불려서 말려서 이 저 콩은 안 말려도 돼. 겨울에 한 거니까 말려 버리면 삶으면 이 저 오래.)

**김병생** 오래주게.(오래지.)

**고춘권** 콩은 공판허는 거난 몰류지 장 담는 건 그냥.(콩은 공판하는 거니까 말리지 장 담는 건 그냥.)

**김병생** 테작허민 그자.(타작하면 그저.)

**김순자** 어느 계절에 솖아, 콩 언제 솖아마씨?(어느 계절에 삶아, 콩 언제 삶아요?)

**김병생** 뭐 동짓덜이나 십일월덜에.(뭐 동짓달이나 십일월에.)

**고춘권** 장 돔음을 장 돔음을 십이월덜에 돔아야 뒈거든.(장 담기를 장 담기를 십이월에 담가야 되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허면은 우선은 메줄 헤야주. 게난 지금은 돌아메 가지고 틔왕 자연적으로 몰르게시리 헷지만은 그때는 이 저 대구덕이나 멩텡이에 담아 가지고 틔왓거든.(그러면 우선은 메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달아매 가지고 띄워서 자연적으로 마르게 했지만 그때는 이 저 대바구니나 망태기에 담아 가지고 띄웠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찝 꼴고 중간에, 중간에 찝 놓멍 헤 가지고 그 곰팡일 틔왓주게. 게난 삼사일이면 틔왕. 겐 틔왕 베꼇디서 내놩 몰류왕 완전히.(짚 깔고 중간에, 중간에 짚 놓으면서 해 가지고 그 곰팡일 띄웠지. 그러니까 삼사일이면 띄워서. 그래서 띄워서 밖에서 내놔서 말려서 완전히.)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저 ᄇᆞ름에 몰류와 가지고 저 장을 돔앗주.(저 바람에 말려 가지고 저 장을 담갔지.)

**김병생** 십일월덜에 솖앙 십이월 나민 장을 돔앗주게.(십이월에 삶아서 십이월 되면 장을 담갔지.)

**김순자** 여기는 그뭄날 장 돔은덴 허멍마씨.(여기는 그믐날 장 담근다고 하면서요.)

**고춘권** 묵은해 어쨋든 새해 나기 전이 돔앗주.(묵은해 어쨌든 새해 되기 전에 담갔지.)

**김병생** 사름에 따라 달라. 그뭄에 돔는 사름도 잇고.(사람에 따라 달라. 그믐에 담그는 사람도 있고.)

**고춘권** 그뭄에 돔지 못허난게 ᄒᆞ쏠 몰멩헌 사름 축에 붙엇주.(그믐에 담그지 못하니까 조금 용렬한 사람 쪽에 붙었지.)

**김병생** 정월, 정월 그물어 가민. 이월덜에 장 안 담넨 헹 정월 그물어 가민.(정월, 정

월 저물어 가면. 이월에 장 안 담근다고 해서 정월 저물어 가면.)

**김순자** 이월덜에 장 안 담넨 헹예? 그 뒌장허고 물장허고 갈르는 거는 언제? 메칠 뒈민 장이 익읍니까?(이월에 장 안 담근다고 해서요? 그 된장하고 간장하고 가르는 거는 언제? 며칠 되면 장이 익습니까?)

**김병생** 거 다 익어근어 건.(거 다 익어서 건.)

**고춘권** 그건 혼이 엇고. 건 보멍 그냥.(그건 한이 없고. 건 보면서 그냥.)

**김병생** 건 아메도 사월덜 나민.(건 아무래도 사월 되면.)

**고춘권** 거 빗깔이 어느 정도 메주가 우려낫다 싶으면은 뭐 갈르는 거난에 거. 꼭 메칠이엔 헌 거 그런 거까지 생각허멍 허질 안 헷주.(거 빛깔이 어느 정도 메주가 우러났다 싶으면 뭐 가르는 거니까 거. 꼭 며칠이라고 한 거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하질 안 했지.)

**김병생** 지금도 지금도 두 덜 뒈민 갈라.(지금도 지금도 두 달 되면 갈라.)

**김순자** 두 덜 뒈민. 그런 식으로 헤영.(두 달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고춘권** 일찍 갈라 불면 물장이 맛엇고. 늦게 갈라 불면 그 간장은 맛잇는데 그런 대로 뒌장이 또 맛엇고 경허게 뒌 거라.(일찍 갈라 버리면 간장이 맛없고. 늦게 갈라 버리면 그 간장은 맛있는데 그런 대로 된장이 또 맛없고 그렇게 된 거야.)

**김병생** 뒌장 맛엇이민 또 콩 숢아근에 비와근에.(된장 맛없으면 또 콩 삶아서 부어서.)

**고춘권** 우린 그런 거 ᄉᆞ나이라도 다 알지만 할망 엇어도 우린 장 ᄀᆞ튼 거 담앙 먹을 수가 잇어.(우린 그런 거 사나이여도 다 알지만 할머니 없어도 우린 장 같은 거 담가서 먹을 수가 있어.)

**모두** 하하하.(하하하.)

**김순자** 그렇구나.(그렇구나.)

**〈축산 관련〉**

**김순자** 삼춘 옛날 쉐 질르젠 허민 무슨 거가 필요헙니까?(삼촌 옛날 소 기르려고 하면 무슨 거가 필요합니까?)

**김병생** 쉐녹대, 쉐녹대.(소고삐, 소고삐.)

**고춘권** 벨다르게 필요헌 게 잇어?(별다르게 필요한 게 있어?)

**김순자** 예, 쉐녹대허고?(예, 소고삐하고?)

**김병생** 또 몰녹대허고.(또 말고삐하고.)

**고춘권** 쉐녹대허고 뭐 쉐질메도 잇어야 허고.(소고삐하고 뭐 소길마도 있어야 하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건 짐 시끌 때 허는 거.(건 짐 실을 때 하는 거.)

**김순자** 예, 질메도 허고. 삼춘 쉐녹대는 뭐가 쉐녹대우과?(예, 길마도 하고. 삼촌 소고삐는 뭐가 소고삐입니까?)

**고춘권** 이껑 뎅기는 거. 또 들에 가근에 길게시리 헤근에 그 말뚝 박앙 메영 그 잠깐 들에 강 놓는 거. 매날 놓는 건 그자 풀어 놩 내불민 뒈는데 그건 뒷날 뒷날이나 이제 그 심엇다근에 밧을 가나 뭐 허젠 헐 때는 그 줄 싸는 거 임시.(이끌어서 다니는 거. 또 들에 가서 길게끔 해서 그 말뚝 박아서 매서 그 잠깐 들에 가서 놓는 거. 매날 놓는 거 그저 풀어 놔서 내버리면 되는데 그건 뒷날 뒷날이나 이제 그 잡았다가 밭을 가나 뭐 하려고 할 때는 그 줄 싸는 거 임시.)

**김순자** 예, 건 줄레.(예, 건 '줄레'.)

**고춘권** 줄레.('줄레'.)

**김순자** 게믄 예전에 여기 집이서 쉐 허젠 허민 목장에 쉐를 올렷수과, 아니면 집에서 키왓수과?(그럼 예전에 여기 집에서 소 하려고 하면 목장에 소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웠습니까?)

**고춘권** 아니, 여기는 방목을 헷주.(아니, 여기는 방목을 했지.)

**김순자** 방목을. 어디 강 방목헙니까, 수산서는?(방목을. 어디 가서 방목합니까, 수산서는?)

**고춘권** 저 목장에. 목장이 잇주, 다 동네마다 그룹을 짜 가지고 게난 에움을 소 에우는 에움을 거 삯 내 가지고 그 삯 낸 거허고 이신 사름허고 같이 이제 짜근에 혼 열 집이나 열댓 집이 짜면은 소가 혼 오륙십 무리 뒈주게.(저 목장에. 목장이 있지, 다 동네마다 그룹을 짜 가지고 그러니까 '에움'을 소 에우는 '에움'을 거 삯 내 가지고 그 삯 낸 거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짜서 한 열 집이나 열댓 집이 짜면 소가 한 오륙십 마리 되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뒈면 그걸 집단으로 헤근에 놓앗고 그걸 농사 끗낭 농사 끗나야 그걸 에우고.(되면 그걸 집단으로 해서 놓았고 그걸 농사 끝나서 농사 끝나야 그걸 에우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농사헐 때꺼지는, 유월절 소서 유월절 뒈면은 농서가 다 끗나주게. 게난 그 새에는 그대로 방목헤 불엇어, 드르에.(농사할 때까지는, '유월절' 소서 '유월절' 되면은 농사가 다 끝나지. 그러니까 그 새에는 그대로 방목해 버렸어, 들에.)

**김순자** 드르에 방목허는데 여기는 어느 목장에 올린 거우과?(들에 방목하는데 여기는 어느 목장에 올린 겁니까?)

**고춘권** 아니 목장이 아니고 그대로 놩 내부는 거라.(아니 목장이 아니고 그대로 놔서 내버리는 거야.)

**김순자** 어디에?(어디에?)

**고춘권** 드르에.(들에.)

**김순자** 그 드르 지경은 어디?(그 들 지경은 어디?)

**고춘권** 그 수산, 수산 지경.(그 수산, 수산 지경.)

**김순자** 수산 지경에. 게난 그디가 다 마을 목장이우과?(수산 지경에. 그러니까 거기가 다 마을 목장입니까?)

**고춘권** 으. 마을 목장. 경허믄 그게 그 소나 물이나 언제나 자기 정든 지역에 정든 곳에서 살지 웨딴 디 무슨 수산 쉐가 난산이 가나 온평리 가나 험이 경 드물주. 이땅 저 멍청헌 것덜은 딴 지경에도 가 부는 수가 잇는데 보통으로는이 저 먹어난 디 이녁 밤 자난 디 그 도량에 주로 살주.(으. 마을 목장. 그러면 그게 그 소나 말이나 언제나 자기 정든 지역에 정든 곳에서 살지 외딴 데 무슨 수산 소가 난산리 가거나 온평리 가거나 하기가 그렇게 드물지. 이따금 저 멍청한 것들은 다른 지경에도 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 보통으로는 저 먹었던 데 자기 밤 잤던 데 그 지경에 주로 살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밧 갈아나근에, 아침에 밧 갈아낭 저녁 때에 여기서 가고정 헌 디 가렌

내버리주게.(그러니까 밭 갈아나서, 아침에 밭 갈아나서 저녁 때에 여기서 가고자 한 데 가라고 내버리지.)

**김순자** 다 지대로.(다 저대로.)

**고춘권** 내불면은 자기 잇어난 디 그 정든 지역에 가. 게난 먹어난 디, 자기 먹어난 디 풀이 맛도 잇어 베고 모든 게 맞아. 자기 몸에 맞는 거지.(내버리면 자기 있었던 데 그 정든 지역에 가. 그러니까 먹었던 데, 자기 먹었던 데 풀이 맛도 있어 보이고 모든 게 맞아. 자기 몸에 맞는 거지.)

**김순자** 그런 식으로.(그런 식으로.)

**고춘권** 뒷날, 뒷날 또 밧 갈아야 뒐 거 아니. 게 뒷날 이 쉐가 어드레 가실 건고 헹, 요쪽으로 내물 때도 이쪽으로 내물 때도 잇고. 요쪽으로 내물면은 아 요새가 어치냑 동안에 어디까지 먹어 강 어디 강 잣일 것이다 허는 것을 가늠헤 강 거기 가 보민 똑 잇어.(뒷날, 뒷날 또 밭 갈아야 될 거 아니. 게 뒷날 이 소가 어디 갔을 건가 해서, 요쪽으로 내몰 때도 이쪽으로 내몰 때도 있고. 요쪽으로 내몰면 아 요새가 어제저녁 동안에 어디까지 먹어 가서 어디 가서 잤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늠해 가서 거기 가 보면 꼭 있어.)

**김순자** 원래 이 수산이 목장이 워낙 너른 지경 아니우과예?(원래 이 수산이 목장이 워낙 넓은 지경 아닙니까?)

**고춘권** 널르주.(너르지.)

**김순자** 게난 그 오십 무리, 육십 무리 헐 때는 그때 쉐 보레 같이 가는 사름도 이십니까? 거 쉐 직허레 가는 사름도 잇어?(그러니까 그 오십 마리, 육십 마리 할 때는 그때 소 보러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거 소 지키러 가는 사람도 있어?)

**고춘권** 직허레 가는 사름보단도 그건 밤이만 그디 놀 용으로 그 목장에 건 놓는 거고 낮에는 이 순번 정헤근에 그날 아침에 강 내놩 밖에 내놧당 어둑어 가믄 거기 들여놩 가둡는 거주.(지키러 가는 사람보다도 그건 밤에만 거기 놓을 용으로 그 목장에 건 놓는 거고 낮에는 이 순번 정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내놔서 밖에 내놨다가 어두워 가면 거기 들여놔서 가두는 거지.)

**김순자** 아, 목장에서예. 순번 정허멍. 녹대는 쉐 이껑 뎅길 때 쓰는 거고예. 물도 마찬가지고예?(아, 목장에서요. 순번 정하면서. 고삐는 소 이끌어서 다닐 때 쓰는

거고요. 말도 마찬가지고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질메도 몰질메허고 쉐질메가 ᄐᆞ납니까?(그다음에 길마도 말길마하고 소길마가 다릅니까?)

**고춘권** 거 ᄀᆞ타. 소도 이 밧갈쉐엔 헤근에이 저 이 수소 큰 거 제라허게 큰 소가 잇주게.(거 같아. 소도 이 황소라고 해서 저 이 수소 큰 거 제대로 큰 소가 있지.)

**김순자** 으.(으.)

**고춘권** 그것에 지우는 건 크게 멘들고. 또 족은 소덜은 거 시끄는 것도 조금베끼 못 시끄니까 질메도 족게 허고, 경허는 거주.(그것에 지우는 건 크게 만들고. 또 작은 소들은 거 싣는 것도 조금밖에 못 실으니까 길마도 작게 하고, 그러는 거지.)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허고. 삼춘 여기는 만약에 목장에 올령 내불면 그 집에 농사짓는 거 말고는 몰덜은 다 산에 올령 내불지 안헙니까예?(그런 식으로 하고. 삼촌 여기는 만약에 목장에 올려서 내버리면 그 집에 농사짓는 거 말고는 말들은 다 산에 올려서 내버리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거는 어느 철에 내몰아, 집이서?(그거는 어느 철에 내몰아, 집에서?)

**고춘권** 몰, 몰도 딱 농서가 끗나근에 목장에 가둘 때 뒈민 여름에는 그 여름엔 소왕소 가둘 때 같이.(말, 말도 딱 농사가 끝나서 목장에 가둘 때 되면 여름에는 그 여름엔 외양간 소 가둘 때 같이.)

**김순자** 같이.(같이.)

**고춘권** 같이 그 목장에 가두와. 경허면은 몰을 하영 허는 사름덜은 몰 에움, 몰 에움을 ᄯᅩ로 헤근에 몰만 가둡지만은 그자 집이 부릴 용으로 ᄒᆞᆫ ᄆᆞ리나 두 ᄆᆞ리 ᄒᆞ는 사름덜은 그 소광 ᄀᆞ치.(같이 그 목장에 가둬.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에움'을 따로 해서 말만 가두지만 그저 집에 부릴 용으로 한 마리나 두 마리 하는 사람들은 그 소와 같이.)

**김순자** ᄀᆞ치. 삼춘 아까 에움이렌 헷잖아예?(같이. 삼촌 아까 '에움'이라고 했잖아요?)

**고춘권** 으, 에움.(으, '에움'.)

**김순자** 에움이 무시거마씨?('에움'이 무엇이에요?)

**고춘권** 에움이 소나 말 가둡는 딜 에움이엔 헷주.('에움'이 소나 말 가두는 델 '에움'이라고 했지.)

**김순자** 가두는 공간을 에움이렌 헤예. 거기에 에왕 놔두는 거라예?(가두는 공간을 '에움'이라고 해요. 거기에 에워 놔두는 거지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난 그 에움이 만약에 여기 수산이면 멧 반, 멧 반 허는 구역이 따로 정헤졋수과?(그러니까 그 '에움'이 만약에 여기 수산이면 몇 반, 몇 반 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졌습니까?)

**고춘권** 아, 잇지. 거 담 둘러진 밧이라야 뒈는 거난게.(아, 있지. 거 담 둘러진 밭이라야 되는 거니까.)

**김순자** 예, 예. 게난 그 에움을 담으로 둘럿잖아예?(예, 예. 그러니까 그 '에움'을 담으로 둘렀잖아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그 담을 옛날에 여기도 잣이렌도 골앗수과?(그 담을 옛날에 여기도 잣이라도 말했습니까?)

**고춘권** 잣?(잣?)

**김순자** 예. 잣은 뭐과?(예. 잣은 뭡니까?)

**고춘권** 잣이엔 헌 건 수산 지경.(잣이라고 하는 건 수산 지경.)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지경 경계를 잣이엔 헷주게.(그 지경 경계를 잣이라고 했지.)

**김순자** 아, 수산 지경 경계를.(아, 수산 지경 경계를.)

**고춘권** 그 잣이엔 헌 말이 이 제주도가 십 소장, 일 소장 이 소장 그 십 소장꺼지 잇거든. 게믄 그 소장 경계 헌 것을 거 잣이엔 헷어.(그 잣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제주도가 십 소장, 일 소장 이 소장 그 십 소장까지 있거든. 그러면 그 소장 경계 한 것을 거 잣이라고 했어.)

**김순자** 게믄 여기 수산은 하잣 정도 뒈켜예?(그럼 여기 수산은 하잣 정도 되겠네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하잣. 상잣, 중잣, 하잣 허지 안헙니까예?(하잣. 상잣, 중잣, 하잣 하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한라산에서 ᄒᆞ꼼 먼 편 아니우과? 아, 그러면 그 잣 경계허는 데 에움이 여러 개 이신 거구나, 수산에?(한라산에서 조금 먼 편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 잣 경계하는 데 '에움'이 여러 개 있는 거군요, 수산에?)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겐 멧 개 정도 에움이?(그래서 몇 개 정도 '에움'이?)

**고춘권** 아이, 건 수정을 멧 개 헐 수가 엇주.(아이, 건 수정을 몇 개 할 수가 없지.)

**김순자** 웨냐허면 일리허고 이리허고 허민 ᄋᆞᆫ라 개 뒈크라예?(왜냐하면 일리하고 이리하고 하면 여러 개 되겠네요?)

**고춘권** 아이고, 하주게. 농사 못 짓는 데는, 농사 못 짓는 밧데는 그자 에움으로 사용헷주.(아이고, 많지. 농사 못 짓는 데는, 농사 못 짓는 밭에는 그저 '에움'으로 사용했지.)

**김순자** 게믄 촐은 어디서 비여마씨?(그럼 꼴은 어디서 베어요?)

**고춘권** 촐 비는 디는 또 그 담이 잇은 밧도 그 촐 비기 위헤 가지고 에움으로 안 헤 가지고 허고. 또 이 수산 ᄀᆞ튼 디는 이 농사 다 끗나믄 이 에움에 딱 가둬 부니까 이 ᄆᆞ쉬 안 뎅기니까 풀이 그대로 크거든.(꼴 베는 데는 또 그 담이 있는 밭도 그 꼴 베기 위해 가지고 '에움'으로 안 해 가지고 하고. 또 이 수산 같은 데는 이 농사 다 끝나면 이 '에움'에 딱 가둬 버리니까 이 마소 안 다니니까 풀이 그대로 크거든.)

**김순자** 음.(음.)

**고춘권** 게난 봄에는 물이나 쉐 놀단 디서 쉐말덜 가둬 불면은 그 여름 동안에 크면은 그거 가을에 거 들여당 겨울에 소 양석허고 헷주.(그러니까 봄에는 말이나 소 놀던 데서 소말들 가둬 버리면 그 여름 동안에 크면 그거 가을에 거 들여다가 겨울에 소 양식하고 했지.)

**김순자** 그러면 보통 그 에움 허는 거는 그 여름 농사 끗나근에 그 에와 부는 거라예?(그러면 보통 그 '에움' 하는 거는 그 여름 농사 끝나서 그 에워 버리는 거네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믄 겨울에는 어디서 살아, 야이네.(그럼 겨울에는 어디에서 살아, 얘네.)

**고춘권** 겨울엔 시월, 시월달 뒈면은 이 저 그 집에 집에 와근에 집에서 멕엿주게.(겨울에 시월, 시월 되면 이 저 그 집에 집에 와서 집에서 먹였지.)

**김순자** 집에서예. 몰들은?(집에서요. 말들은?)

**고춘권** 몰은 이 몰테우리덜.(말은 이 '말테우리'들.)

**김순자** 예.(예.)

**고춘권** 테우리 혼 열 개나 열댓 개 혼 열 개 이상 허는 사름덜은 그대로 겨울에도 드르에서 그자.('테우리' 한 열 개나 열댓 개 한 열 개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겨울에도 들에서 그저.)

**김순자** 아, 드르에서 허고 쉐들은.(아, 들에서 하고 소들은.)

**고춘권** 그 에움에서 그자 뭐 헷주.(그 '에움'에서 그저 뭐 했지.)

**김순자** 그럼 상강 지나면은 집에 들어오겠구나 쉐들은?

**고춘권** 그 상강일, 상강일 넘어근에 혼 보름 지나면은 다 들여와야 뒈.(그 상강 넘어서 한 보름 지나면 다 들여와야 돼.)

**김순자** 게난 옛날 그 성읍 강 조사헐 때는예, 청명에 목장에 올린댄.(그러니까 옛날 그 성읍 가서 조사할 때는요, 청명에 목장에 올린다고.)

**고춘권** 청명에?(청명에?)

**김순자** 예. 건디 여기는 경 안 허는구나.(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고춘권** 청명에는 저 청명 뒈면은 올리는데 청명엔 좀 일러. 청명에는 올려 가지고 혼엇이 배불게 먹을 게.(청명에는 저 청명 되면 올리는데 청명엔 좀 일러. 청명에는 올려 가지고 한없이 배부르게 먹을 게.)

**김순자** 먹을 게 엇이난.(먹을 게 없으니까.)

**고춘권** 먹을 것이 없어.(먹을 것이 없어.)

**김순자** 게민 이 쉐 질루젠 허민 젤 큰 게 촐 허는 거잖아예?(그럼 이 소 기르려고 하면 젤 큰 게 꼴 하는 거잖아요?)

**고춘권** 으.(으.)

**김순자** 촐 허젠 허민 무시거 필요헤마씨?(꼴 하려고 하면 무엇 필요해요?)

**고춘권** 낫.(낫.)

**김순자** 낫.(낫.)

**고춘권** 이 저 낫이엔 헌 거 육지 사름덜 호미, 여기 호미를 낫이엔 허주만은 이딘 그ᄌᆞ룩 질게 뒝 촐 비는 거. 그걸 이디선 낫이엔 허주.(이 저 낫이라고 한 거 육지 사람들 낫, 여기 '호미'를 낫이라고 하지만 여긴 이 자루 길게 둬서 꼴 베는 거. 그걸 여기선 낫이라고 하지.)

**김순자** 예, 족은 건 뭐엔 헙니까?(예, 작은 건 뭐라고 합니까?)

**고춘권** 호미. 그냥.('호미'. 그냥.)

**김순자** 호미엔 허고 게민 그 낫으로 촐을 비면, 낫으로 헌 촐은 단도 크지 안헙니까?('호미'라고 하고 그럼 그 낫으로 꼴을 베면, 낫으로 한 꼴은 단도 크지 않습니까?)

**고춘권** 으, 커.(으, 커.)

**김순자** 쉐 ᄒᆞᆫ ᄆᆞ리가 그 ᄒᆞ루에 멧 뭇을 먹어마씨?(소 한 마리가 그 하루에 몇 뭇을 먹어요?)

**고춘권** ᄒᆞ루에?(하루에?)

**김순자** 예.(예.)

**고춘권** ᄒᆞ루에이 세 번. 세 번 주는디 세 번으론 안 뒈어. 이 저 네 번 정도는 줘야주게. 겐디 촐이 풍부헌 사름은 네 번ᄁᆞ지 줘도 그냥 보통으로는 세 번. 세 번 주고 거 겨울이니까 밤이 질거든.(하루에 세 번. 세 번 주는데 세 번으론 안 돼. 이 저 네 번 정도는 줘야지. 그런데 꼴이 풍부한 사람은 네 번까지 줘도 그냥 보통으로는 세 번. 세 번 주고 거 겨울이니까 밤이 길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밤이 기니까 ᄒᆞᆫ ᄋᆞ덥 시나 열 시 뒈 가민 또 밤참 ᄒᆞᆫ 번 주는데.(밤이 기니까 한 여덟 시나 열 시 돼 가면 또 밤참 한 번 주는데.)

**김순자** 음.(음.)

**고춘권** 것도 좀 나이나 든 어른덜이나 시면은 허고 그 젊은 사름덜은 밤이 자다근에 일어낭 그.(것도 좀 나이가 든 어른들이나 있으면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김순자** 주레 안 가지예.(주러 안 가지요.)

**고춘권** 줌자당 그.(잠자다가 그.)

**김순자** 게난 삼춘네는 쉐 멧 ᄆᆞ리나 질러 봣수과?(그러니까 삼촌네는 소 몇 마리나 길러 봤습니까?)

**고춘권** 우리도 열 ᄆᆞ리꺼장은 질럿어.(우리도 열 마리까지는 길렀어.)

**김순자** 아이고. 그 열 ᄆᆞ리 허젠 허믄 촐은 게믄 멧 바리나 헤야 뒐 것과?(아이고. 그 열 마리 하려고 하면 꼴은 그럼 몇 바리나 해야 될 겁니까?)

**고춘권** 아이고 촐 멧 바리엔 헌 게 뭐 혼이 엇어. 촐눌을 혼 세 개, 네 개ᄁᆞ장 눌어야 그 정도 뒈면은 저 혼 해 겨울 넴기주게.(아이고, 꼴 몇 바리라고 한 게 뭐 한이 없어. 꼴가리를 한 세 개, 네 개까지 가려야 그 정도 되면은 저 한 해 겨울 넘기지.)

**김순자** 그 촐 서너 눌 눌젠 허민 보통 촐은 멧 뭇, 멧 단을 헤 와야 헐 거라, 그거는?(그 꼴 서너 가리 가리려고 하면 보통 꼴은 몇 뭇, 몇 단을 해 와야 할 거야, 그거는?)

**고춘권** 멧 단, 단으로 무슨 가늠헤져.(몇 단, 단으로 무슨 가늠할 수 있어?)

**김순자** 예, 구루마로 멧 개? 바레기로?(예, 수레로 몇 개? 수레로?)

**고춘권** 아멩헤도 실음도 혼 나흘은 시꺼야 허난에 이거 뭐. 구루마 열 바리, 혼 구루마에 열 바리씩 시꺼도 멧 개 뒐 거라게.(아무래도 싣기도 한 나흘은 실어야 하니까 이거 뭐. 수레 열 바리, 한 수레에 열 바리씩 실어도 몇 개 될 거야.)

**김순자** 아, 혼 구루마에 열 바리 시꺼집니까?(아, 한 수레에 열 바리 실을 수 있습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게믄 여기는 혼 뭇이 멧 바리라마씨?(그럼 여기는 한 뭇이 몇 바리예요?)

**고춘권** 혼 바리가 서른, 서른 단.(한 바리가 서른, 서른 단.)

**김순자** 서른 단. 단이 게믄 크다는 거네. 저쪽 서쪽은 마흔 단 헙니다.(서른 단. 단이 그럼 크다는 거네. 저쪽 서쪽은 마흔 단 합니다.)

**고춘권** 마흔 단. 우린 저 서른 단.(마흔 단. 우린 저 서른 단.)

**김순자** 서른 단. 게믄 그 서른 단 허면 삼백 개.(서른 단. 그럼 그 서른 단 하면 삼백 개.)

**고춘권** 으.(으.)

**김순자** 여기 바레기 허지예?(여기 달구지 하지요?)

**고춘권** 으, 혼 바레기.(으, 한 달구지.)

**김순자** 혼 바레기[36]에 서른 단. 그런 거를 허면 촐 빌 때예 삼춘이 멧 단을 빕니까?(한 바리에 서른 단. 그런 거를 하면 꼴 벨 때 삼촌이 몇 단을 벱니까?)

**고춘권** 하루 열 바리.(하루 열 바리.)

**김순자** 한 사람이 열 바리씩 비어?(한 사람이 열 바리씩 베어?)

**고춘권** 열 바리.(열 바리.)

**김순자** 거 무끄젠 헤도 일이큰게.(거 묶으려고 해도 일이겠네.)

**고춘권** 무끔은 두 사름이 헌 거 무끄주, 보통. 겐디 잘 무끄는 사름은 세 사람이 헌 거까지 무끄는데 보통 두 사람이 헌 거.(묶기는 두 사람이 한 거 묶지, 보통. 그런데 잘 묶는 사람은 세 사람이 한 거까지 묶는데 보통 두 사람이 한 거.)

**김순자** 아, 두 사람 빈 걸 혼 사름이 무꺼예?(아, 두 사람 벤 걸 한 사람이 묶어요?)

**고춘권** 으, 으.(으, 으.)

**김순자** 낫으로 혼 번 비면 혼 뭇 됩니까?(낫으로 한 번 베면 한 뭇 됩니까?)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 낫은 혼 번 비면 혼 뭇 됩니까, 혼 단?(그 낫은 한 번 베면 한 뭇 됩니까, 한 단?)

**고춘권** 혼 번 둘렁?(한 번 둘러서?)

**김순자** 으.(으.)

**고춘권** 혼 쪽이 저 다섯 번썩 열 번. 경 안 허민 으덥 번.(한 쪽에 저 다섯 번씩 열 번. 그렇게 안 하면 여덟 번.)

**김순자** 으덥 번 둘룬 게 혼 단?(여덟 번 두룬 게 한 단?)

**고춘권** 팔에 힘 좋고 낫 좋은 걸로 비면은 네 번 헤도 단이 크고 낫이 궂고 힘이 엇인 사름은 혼 번에 경 거둬오도 못허거든. 허면은 여러 번 둘러 와야 뒈고 허는 거주게.(팔에 힘 좋고 낫 좋은 걸로 베면 네 번 해도 단이 크고 낫이 궂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거둬오지도 못하거든. 하면 여러 번 둘러 와야 되고 하는 거지.)

**김순자** 보통 쉐촐은 어떤 걸 주로 비여 와마씨?(보토 소꼴은 어떤 걸 주로 베어 와

36) 조사자는 '바레기'를 달구지의 의미로 물었는데, 제보자든 '바리'의 의미로 해석해 구술했다.

요?)

**고춘권** 어?(어?)

**김순자** 촐 이름은 뭐?(꼴 이름은 뭐?)

**고춘권** 여기 수산 지경에서 나는 것은 젤 품질이 좋은 것이 진항이라고 헤 가지고.(여기 수산 지경에서 나는 것은 젤 품질이 좋은 것이 '진항'이라고 해 가지고.)

**김순자** 진항?('진항'?)

**고춘권** 으, 그 진항이라고 헤 가지고 대도 영 노프게 올라가고 거기 씨도 거 심거치 생긴 촐ᄀᆞ라 이디선 진항이엔 허는디 그것이 젤 최고주. 겐디 그자 새 ᄀᆞ튼 거 잡초, 거 잡초난게.(으, 그 진항이라고 해 가지고 대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거기 씨도 거 심같이 생긴 꼴보고 여기선 '진항'이라고 그것이 젤 최고지. 그런데 그저 띠 같은 거 잡초, 거 잡초니까.)

**김순자** 그 진항 말고 다른 걸로도 촐 헙니까?(그 '진항' 말고 다른 걸로도 꼴 합니까?)

**고춘권** 다른 거 주로 그 촐이고 그 웨로는 저 조찝.(다른 거 주로 그 꼴이고 그 외로는 저 조짚.)

**김순자** 예.(예.)

**고춘권** 조찝도 소가 잘 먹고 콩찝 그것도 잘 먹는 거고. 이 볏집 ᄀᆞ튼 것은 것도, 나룩찝은 남뎅이가 이파리가 푸린 때 허니까 소 양식이 뒈는데 산디는 이파리가 헤영케 반 후제 거 거둡게 뒈는 거라부니까 거 소가 잘 먹어. 먹기는 허는데 질겨 가지고 소가 이빨 무낀다고 헤 가지고 주젠도 안허고 먹도 안허고.(조짚도 소가 잘 먹고 콩짚도 그것도 잘 먹는 거고. 이 볏짚 같은 것은 것도, 볏짚은 대가 잎이 푸른 때 하니까 소 양식이 되는데 밭벼는 잎이 하얗게 바랜 후에 거 거두게 되는 거여서 거 소가 잘 먹어. 먹기는 하는데 질겨 가지고 소가 이빨 무딘다고 해 가지고 주려고도 않고 먹지도 않고.)

**김순자** 그다음에 삼춘 아까 촐 같은 건 ᄒᆞᆫ 바리가 서른 단 아니우과양. 콩찍은 ᄒᆞᆫ 바리가 멧 단?(그다음에 삼촌 아까 꼴 같은 건 한 바리가 서른 단 아닙니까. 콩짚은 한 바리가 몇 단?)

**고춘권** 콩은 ᄒᆞᆫ 바리 허면은 큰 소, 큰 소는 ᄒᆞᆫ 쪽에 석 단썩 양쪽에 허면 욧단.(콩은

한 바리 하면 큰 소, 큰 소는 한 쪽에 석 단씩 양쪽에 하면 여섯 단.)

**김순자** 욧단.(여섯 단.)

**고춘권** 으, 욧단은 시껑 그거 훈 바리로, 훈 바리로 허고 또 족은 소는 또 훈 쪽에 두 단썩 넉 단베끼 못 시꺼.(으, 여섯 단 실어서 그거 한 바리로, 한 바리로 하고 또 작은 소는 또 한 쪽에 두 단씩 네 단밖에 못 실어.)

**김순자** 아, 쉐 큰 거허고 족은 거 ᄐᆞ난 거예.(아, 소 큰 거하고 작은 거 다른 거요.)

**고춘권** 보통 욧 단을 훈 바리로 헷주게.(보통 여섯 단을 한 바리로 했지.)

**김순자** 그 욧 단은 콩 잇는 거? ᄋᆞ물 이신 거?(그 여섯 단은 콩 있는 거? 여물 있는 거?)

**고춘권** 으.(으.)

**김순자** 그다음에 그 조찍은?(그다음에 그 조짚은?)

**고춘권** 조도 마찬가지. 조도 훈 단씩베낀 못 시끄니까 욧 단. 큰 쉐, 이 저 큰 소는 ᄋᆞ덥 단꺼지도 시끄는데 경 뭐 헐 수가 엇주게. 조는 남뎅이가 길어 놓니까 무겁주게. 무거와 놓니까.(조도 마찬가지. 조도 한 단씩밖에 못 실으니까 여섯 단. 큰 소, 이 저 큰 소는 여덟 단까지도 싣는데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지. 조는 대가 기니까 무겁지. 무거우니까.)

**김순자** 산디찍은 어떵헙니까?(밭볏짚은 어떠합니까?)

**고춘권** 산디도 마찬가지.(밭볏도 마찬가지.)

**김순자** 새? 집 이는 새?(띠? 집 이는 띠?)

**고춘권** 새는 그게, 그건 여라 단 시끄주. 여라 단 시끄는데 건 이 저 스무 단.(띠는 그게, 그건 여러 단 싣지. 여러 단 싣는데 건 이 저 스무 단.)

**김순자** 스무 단쯤 시끄는 거.(스무 단쯤 싣는 거.)

**고춘권** 것도 큰 쉐 훈 바리에 스무 단쯤 훈 바리에 허주게.(것도 큰 소 한 바리에 스무 단쯤 한 바리에 하지.)

**김순자** ᄆᆞ멀 거튼 거는 하영 못 시끈덴 허멍양?(메밀 같은 거 많이 못 싣는다고 하면서요?)

**고춘권** 그 ᄆᆞ멀도 그자 욧 단 정도는 시끄주게. ᄆᆞ멀 완전히 물류왕 것도 시꺼오는 거난게.(그 메밀도 그저 여섯 단 정도는 싣지. 메밀 완전히 말려서 것도 실어오는 거니까.)

**김순자** 삼춘 쉐가 촐 하영 먹읍니까, 몰이 촐 하영 먹읍니까?(삼촌 소가 꼴 많이 먹습니까, 말이 꼴 많이 먹습니까?)

**고춘권** 몰이 하영 먹주, 몰이.(말이 많이 먹지, 말이.)

**김순자** 아, 몰이.(아, 말이.)

**고춘권** 몰은 입 놀지 안허영 먹는 거주. 원 이 입을 ᄀᆞ만히 놀지 안허주. 소는이 먹어지민 그자 눕는디 몰은 눕질 안허여.(말은 입 놀지 않고 먹는 거지. 원 이 입을 가만히 놀지 않지. 소는 먹으면 그저 눕는데 말은 눕질 않아.)

**김순자** 게믄 여기도 옛날 바령들 헷수과?(그럼 여기도 옛날 '바령'들 했습니까?)

**고춘권** 으, 바령헷주. 옛날에 비료, 비료 엇은 때라 놓니까, 비료 엇은 때라 놓니까 여름에 그 밤에, 낮이 소 멕영 밤에 이 저 밧디 가두거든. 가두왕 똥도 싸게시리 허고 오줌도 싸게시리 허영 걸 걸름으로 이용헐라고. 겐 거 바령을 허는 거주.(으, 바령했지. 옛날에 비료, 비료 없는 때여 놓으니까, 비료 없는 때여 놓으니까 여름에 그 밤에, 낮에 소 먹여서 밤에 이 저 밭에 가두거든. 가두어서 똥도 싸게끔 하고 오줌도 싸게끔 해서 걸 거름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거 바령을 하는 거지.)

**김순자** 예, 경헌 거라예. 맞수다.(예,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고춘권** 겐 밤에는 거기 강 줌자멍 직허고. 거 그대로 내불면은 옆에 다 곡석밧이니까. 여름에, 여름에 허는 거난.(그래서 밤에는 거기 가서 잠자면서 지키고. 거 그대로 내버리면 옆에 다 곡식밭이니까. 여름에, 여름에 하는 거니까.)

**김순자** 예, 게난 삼춘도 가근에 헤 봣수과?(예, 그러니까 삼촌도 가서 해 봤습니까?)

**고춘권** 하영 헤 봣주. 우장이엔 헌 거 잇잖아?(많이 해 봤지. 도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김순자** 예.(예.)

**고춘권** 비 올 때 쓰는 거이. 게난 그 바령 직험이엔 허주, 바령 직험. 바령 직허레 갈 때 그 우장 아졍 가근에 우장 꼴앙, 혼 짝 꼴고 혼 짝 더끄면은 뭐 알로 습기도 아니 차고 춥도 안허고 이슬도 안 맞고. 그 바령 직헐 때 그 우장을 가졍가. 또 허단, 직허단 그 비 오민 그 씀도 허고.(비 올 때 쓰는 거. 그러니까 그 '바령' 지킴이라고 하지, '바령' 지킴. '바령' 지키러 갈 때 그 우장 가지고 가서 우장 깔아서, 한 쪽 깔고 한 짝 덮으면 뭐 아래로 습기도 안 차고 춥지도

않고 이슬도 안 맞고. 그 '바령' 지킬 때 그 우장을 가져 가. 또 하다가, 지키다가 그 비 오면 그 쓰기도 하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 우장이 용처가 ᄋᆞ라 가지주.(그 우장이 용처가 여러 가지지.)

**김순자** 마지막으로예, 여기 목장 허면 백중제 허지예. 그 백중제는 어떤 것과?(마지막으로요, 여기 목장 하면 '백중제' 하지요. 그 '백중제'는 어떤 겁니까?)

**고춘권** 백중 헤야지. 백중이 저 소나 말 길루는 사름은 으레 꼭 헷저. 정성, 테우리 그 테우리 나시 정성허는 거주게. 웨 테우리 나시 정성허느냐 허면은 이 들에 놩 내분 때에, 놓앙 내분 때에 뎅기당 어디 저 상험도 허고 딴 지경에 가 붐도 허고 병도 들고 허는 거 우리 인력으로 못 허는 거 당신이 헤 주시오, 헤 가지고 그 테우리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주게.(백중 해야지. 백중이 저 소나 말 기르는 사람은 으레 꼭 했어. 정성, '테우리' 그 '테우리' 몫 정성하는 거지. 왜 '테우리' 몫 정성하느냐 하면 이 들에 놔서 내버린 때에, 놓아서 내버린 때 다니다가 어디 저 상하기도 하고 다른 지경에 가 버리기도 하고 병도 들고 하는 거 우리 인력으로 못 하는 거 당신이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 '테우리'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지.)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경허면은 백중날을 제물 ᄎᆞ령 거려 놩 고헤야 뒈는 거. 조상 나시 고허는 건 그 축을 썽 허지만 그 입담으로. 테우리는 이 저 ᄒᆞᆫ 계단 밑에로 이 저 보는 거거든. 게난 예 쓰도 안 헤영 허라 말라 허주게.(그러면 백중날을 제물 차려서 떠 놔서 고해야 되는 거. 조상 몫 고하는 건 그 축을 써서 하지만 그 입담으로. '테우리'는 이 저 한 계단 밑에로 이 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쓰지도 안 해서 해라 말라 하지.)

**김순자** 음.(음.)

**고춘권** 입담을 허는 거야.(입담을 하는 거야.)

**김순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입담허는 거라마씨?(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입담하는 거예요?)

**고춘권** 어떤 식으로? 아 오널은 백중. 이 당에서 이 저 테우리덜이 제물, 제물을 많이 이제 그 출련 다 거려 놧으니까 각 지경 테우리덜은 어느 지경으로. 게난

이 저 보통 에움에서 허던지 경 안 허면은 그 지역, 우리가 어디서 허자고 헤 가지고 우리그 에움에 강 허는 수도 잇고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에서 허자고 헤 가지고 그냥 허는 수가 잇주게.(어떤 식으로? 아 오늘은 백중. 이 당에서 저 '테우리'들이 제물, 제물을 많이 이제 그 차려서 다 떠 놨으니까 각 지경 '테우리'들은 어느 지경으로. 그러니까 이 저 보통 '에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우리가 어디서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그 '에움'에 가서 하는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그냥 하는 수가 있지.)

**김순자** 으.(으.)

**고춘권** 게난 어느 도량으로 오라. 제물을 다 테우리를 위해서 출려다 놧으니까 다 일로 오라. 이 저 혼 사름도 남은 엇이 서로 부르며 우기며 우테우리 우에 앚고 하테우리 아래 앚앙 서로 ᄃᆞ투지 말앙 사이좋게시리 그 받으라 헤가지고 헤서. 우리 힘으로 다 못 허니까 테우리덜이 잘 신경 써끈에 헤도렌 곧주게.(그러니까 어느 도량으로 와라. 제물을 다 '테우리' 위해서 차려다 놨으니까 다 이리고 와라. 이 저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서로 부르며 우기며 '우테우리' 위에 앉고 '하테우리' 아래 앉아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끔 그 받으라 해 가지고 해서. 우리 힘으로 다 못 하니까 '테우리'들이 잘 신경 써서 해달라고 말하지.)

**김순자** 게민 그 제물은 뭐 가지고 가?(그럼 그 제물은 뭐 가지고 가?)

**고춘권** 제물, 제물은 오메기떡.(제물, 제물은 '오메기떡'.)

**김순자** 아.(아.)

**고춘권** 이 저 오메기떡 백중, 오메기떡은 방돈헐 때에 ᄆᆞ쉬 들에 놧단 집에 들여 올 때에 건 그 허는 거고. 이 저 보통 여름에는 돌레떡.(이 저 '오메기떡' 백중, '오메기떡'은 방돈할 때에 마소 들에 놨다가 집에 들여 올 때에 건 그 하는 거고. 이 저 보통 여름에는 '도래떡'.)

**김순자** 예.(예.)

**고춘권** 돌레떡 ᄆᆞ물돌레떡. 시리떡, 올 때 큰 테우리덜 물 하영 허는 사름덜은 크게 정성허젠 허면은 크게 둑도 잡앙 가고 시리떡도 헹 가고 거 제물은 뭐 건 이녁 성의껏 허는 거난.('도래떡' '메밀돌레떡'. 시루떡, 올 때 큰 '테우리'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크게 정성하려고 하면 크게 닭도 잡아서 가고 시루떡 해서 가고 거 제물은 뭐 건 이녁 성의껏 하는 거니까.)

**김순자** 예. 경허영 삼춘네도 일 년에 훈 번씩.(예. 그래서 삼촌네도 일 년에 한 번씩.)

**고춘권** 으, 꼭 헷주게. 게고 그 가을 들엉 농사 다 거둬들일 때 낭 쉐덜 그 들여오젠 허면은 이 저 방돈제, 귀표제.(으, 꼭 했지. 그리고 그 가을 들어서 농사 다 거둬들일 때 돼서 소들 그 들여오려고 하면 이 저 '방돈제', '귀표제'.)

**김순자** 예.(예.)

**고춘권** 건 뭐냐 허면 낙인을 줘야 허거든.(건 뭐냐 하면 낙인을 줘야 하거든.)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해 난 송아지나 망아지 이제 그 그 표시를 헤야 뒈는 거라. 뒷해 봄 나면은 봄 나면은 방돈헹 들여 놩 내불어야. 허면은 표시를 안 허면은 커 불면은 이녁 거 구분을 못 허여.(그 해 난 송아지나 망아지 이제 그 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뒷해 봄 되면은 봄 되면 방돈해서 들여 놔서 내버려야. 하면 표시를 안 하면 커 버리면 자기 거 구분을 못 해.)

**김순자** 예.(예.)

**고춘권** 젓 먹을 때에는 젓 먹을 때 그해 나는 해에는 에미와 ᄀᆞ찌 다니니까 알아지는데 젓 떼영 이녁만썩 뎅기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털 갈아 불거든. 두 설 때 나면은 털을 완전히 갈아 불어. 그 색깔도 나는 해보단 딴 색으로 변헤 불어. 게니까 이제 낙인을 허고 낙인은 그 그 지역에 테우리덜, 쉐덜 하영 허는 사름은 낙인이 다 잇어.(젖 먹을 때에는 젖 먹을 때 그해 나는 해에는 어미와 같이 다니니까 알 수 있는데 젖 떼어서 자기만큼 다니면 어느 게 어느 건지, 털 갈아 버리거든. 두 살 때 되면 털을 완전히 갈아 버려. 그 색깔도 나는 해보단 딴 색으로 변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낙인을 하고 낙인은 그 그 지역에 '테우리'들, 소들 많이 하는 사람은 낙인이 다 있어.)

**김순자** 예.(예.)

**고춘권** 획 좋은 걸로 한글로도 허는 수가 잇고 한자로 허는 수가 잇고. 뭐 으뜸 원자라던지 그런 거 헤 가지고. 낙인을 멘들앙 것도 헹정에 등록을 헤야 뒈는 거여. 그 인감, 인감 신고허잖아. 인감 신고허는 식으로 이것도 인감이니까.(획 좋은 걸로 한글로도 하는 수가 있고 한자로 하는 수가 있고. 뭐 으뜸

원 자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낙인을 만들어서 것도 행정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인감, 인감 신고하잖아. 인감 신고하는 식으로 이것도 인감이니까.)

**김순자** 예.(예.)

**고춘권** 게난 그 신고를 헤근에 허지 안허민 그것이 딴 지역에 가 가지고 딴 사름이 뭐 헤근에 허면은 거 우리 거라고 허면은 이거 웨 낙인이 잇는데 허면은 우리도 그 낙인이라고 우길 수가 잇거든.(그러니까 그 신고를 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딴 지역에 가 가지고 딴 사람이 뭐 해서 하면 거 우리 거라고 하면 그거 왜 낙인이 있는데 하면 우리도 그 낙인이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

**김순자** 예, 예.(예, 예.)

**고춘권** 등록을 딱 헤 놓면은 그 이 저 똑같게시리 멘들 수는 엇는 거거든. 그 도장을. 그런 식으로 헤 가지고 헐 때에는 이제 그 귀표라고 헤 가지고 낙인도 찍고 귀에 표시허는 거라.(등록을 딱 해 놓으면은 그 이 저 똑같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도장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이제 그 귀표라고 해 가지고 낙인도 찍고 귀에 표시하는 거야.)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귀도 이제 째어 가지고 끗타리 째어. 또 코, 말은 코도 혼 그믓 허는 사름이 잇고 두 그믓 허는 사름이 잇고 헤 가지고. 낙인이 또 털 갈고 뭐 헤 가민 희미허게. 찍을 때 잘 찍지 안허면은 커 가면은 그것이 희미허게 뒈 가는 수가 잇주. 경허난 귀표 허고 코표 허면 이건 뭐.(귀도 이제 째어 가지고 끝에 째. 또 코, 말은 코도 한 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금 하는 사람이 있고 해 가지고. 낙인이 또 털 갈고 뭐 해 가면 희미하게. 찍을 때 잘 찍지 않으면 커 가면 그것이 희미하게 돼 가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귀표하고 코표 하면 이건 뭐.)

**김순자** 예.(예.)

**고춘권** 그거 허젠 허면은 그때도 경 제물 출령 가근에 테우리 불렁 대접을 허는 거라.(그거 하려고 하면 그때도 그렇게 제물 차려서 가서 '테우리' 불러서 대접을 하는 거야.)

**김순자** 음, 그때도.(음, 그때도.)

**고춘권** 허면 봄 나면은 또 방목을 헤야 뒈니까 그자 봄 나민 방목헐 거니까 잘 봐 달

라 헤 가지고.(하면 봄 되면은 또 방목을 해야 되니까 그저 봄 되면 방목할 거니까 잘 봐 달라 해 가지고.)

**김순자** 그 귀표 허는 그 제는 무신 제렌 헤?(그 귀표 하는 그 제는 무신 제라고 해?)

**고춘권** 귀표.(귀표.)

**김순자** 귀표제?(귀표제?)

**고춘권** 으.(으.)

**김순자** 삼춘네는 낙인은 무슨 글자 헷수과?(삼촌네는 낙인은 무슨 글자 했습니까?)

**고춘권** 우린, 우린 그 저 우리 일가에 어른이 첨 소몰을 하영 헤 가지고 그 어른이 낙인을 헨 허난에 에움에 놀 때도 ᄀᆞ치 놓고 그런 제도 백중 때나 귀표 때나 같이 헷주. 게난 거기 낙인을 써 가지고 으뜸 원 자.(우린, 우린 그 저 우리 일가에 어른이 첨 소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어른이 낙인을 해서 하니까 '에움'에 놓을 때도 같이 놓고 그런 제도 백중 때나 귀표 때나 같이 했지. 그러니까 거기 낙인을 써 가지고 으뜸 원 자.)

**김순자** 아, 원 자예.(아, 원 자요.)

**고춘권** 그 자 의미도 좋고 획도 좋고 또 보기도 좋아, 그래 가지고.(그 자 의미도 좋고 획도 좋고 또 보기도 좋아, 그래 가지고.)

**김순자** 아이고, 삼춘 오늘 고맙수다.(아이고, 삼촌 오늘 고맙습니다.)

#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 |성산읍 편|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3 FAX. (064)710-7709
**인쇄처** 제일인쇄출판 TEL. (064)743-9252

ISBN 979-11-87075-05-9 93090

[非買品]